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공학박사학위논문

공공건축물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Talkshop and Workshop  
in the Production Process of Public Buildings

201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김승범

# 공공건축물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Talkshop and Workshop  
in the Production Process of Public Buildings

지도교수 김 광 현

이 논문을 공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年 5月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김 승 범


김승범의 공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年 7月

위 원 장

최 재 필 


부위원장

김 선 철 


위 원

전 봉 희 

위 원

金 成 洪 

위 원

李 榮 範 



# 국 문 초 록

## 공공건축물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김 승 범  
지도교수 김 광 현

이 논문은 대중담론과 건물을 만드는 작업 간에 긴밀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관계의 안팎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현상을 규명하고 의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진행을 위해 우선, 물리적 건물을 만드는 작업의 영역을 작업장(作業場)이라 이름 짓고, 말과 행위가 오고가는 담론의 영역을 토론장(討論場)이라 명명한 후 토론장과 작업장이라는 두 개의 틀로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널리 알려진 국내외의 대규모 공공건축물로서, 시애틀공공도서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그라운드제로의 세 가지를 선정하였다. 각 사례에서 건물이 지어지기까지의 생산과정을 따라가면서 작업장의 상황이 토론장의 어떠한 담론을 유발했는지, 그리고 토론장의 담론이 작업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분석과정의 하나로서 신문 기사를 대상으로 하여 연결망 분석의 방법을 보조적으로 사용하였다.

시애틀공공도서관의 토론장에서는 어떠한 모습의 도서관을 만들 것인가가 주요한 논의 주제였으며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국의 스타건축가, 지역성, 책 읽는 공간의 환경, 공사비와 기부 등의 문제로 담론이 확장되어 갔다. 워크그룹, 공개설명회, 실물 크기 모형의 체험, 미디어를 통한 논쟁, 전화와 이메일 등의 수단을 통해 토론장과 작업장이 만났으며, 토론장에서 거론된 많은 내용들은 건물에 반영되어 수정되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토론장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운동장의 보존, 역사 복원, 과도한 토건사업비가 차례로 크게 문제되었다. 작업장 역시 유사한 내용을 다루었으나 역사의 문제를 제외한다면 두 영역은 크게 연관되지 않은 채로 진행되었다.

그라운드제로의 토론장에서는 사업에 대한 방향성에서부터 마스터플랜과 추모공원에 대한 결정, 공사비와 디자인, 계단의 보존, 보안, 성역과 같이 물리적이면서 사회적 주제들이 폭넓게 다루어졌다. 미디어를 통한 상세한 보도, 대규모 담론 수렴 이벤트, 시위 등의 방법으로 토론장과 작업장이 연결되었다. 이에 따라 토론장은 전체 부지에 들어가는 시설, 건물의 배치, 개발의 규모, 비용결정에 따른 디자인변경, 나아가서는 부지 주변의 건물 입지까지 작업장에 영향을 끼쳤다.

사례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이 영향을 주고받는 방식으로는, 워크그룹과 같은 직접 참여, 워크숍 및 공청회와 같은 단기간 담론 수렴, 미디어를 통한 정보공개와 감시, 단체행동을 통한 직접개입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자존감이나 조화와 같은 토론장의 일부 추상적 언어는 전문가를 거쳐 작업장의 구체적 요소들로 해석되었다.

그리고 토론장과 작업장으로 이루어지는 각 생산공간은 세계 시장에서 도시가 지니는 위상, 미디어에서 건조환경을 다루는 정도, 각 사업이 대중의 이목을 폭넓게 끄는 정도, 대상 부지가 위치한 지리적 조건들에서 모두 차이점을 드러냈다. 동시에 이런 조건 하에서 발주처, 건축가와 전문가, 미디어, 대중은 생산조건의 한계를 극복하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생산공간 안에 만들어지는 개별 토론장에서 관련 주체들은 직접 대면하거나 미디어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접촉하여 갈등관계를 해소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건물을 만드는 작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을 주고받음으로써 건물에 대한 복합적 이해의 틀을 갖추게 되고, 건물은 사람들이 의사소통으로부터 투사된 여러 가지 사회적 의미들이 누적됨으로써 모두에게 의미 있는 장소가 된다. 그 과정에서 두 영역 사이에 이루어지는 민주적 의사소통은 전체 세계의 공공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 모든 것이 보다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토론장이 풍성하게 만들어지고 생산과정의 초기에 작업장과 연결 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구성원 모두가 의견일치에 도달하거나, 토론장의 의견이 작업장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추상적 담론과 구체적 건물에 대해 서로의 견해 차이를 확인하고 의견을 주고받음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배워나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항상 염두에 둘 것은 토론장과 작업장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각자 맡은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1.1. 연구의 배경 .....	1
1.2. 연구의 목적 .....	4
1.2.1. 용어와 전제의 도입 .....	4
1.2.2. 연구의 목적 및 세부 목표 .....	7
1.3. 연구의 대상 및 분석 자료 .....	10
1.3.1. 연구의 대상 .....	10
(1) 설정 기준 .....	10
(2) 연구의 대상 .....	12
1.3.2. 분석 자료 .....	14
1.4. 연구의 흐름 .....	15
1.5. 주요한 선행 연구 .....	17
1.6. 용어의 정의 .....	20
제 2 장 분석 틀의 구축 : 토론장과 작업장 .....	25
2.1. 토론장과 작업장의 현대적 위상 .....	26
2.1.1. 과거 생산과정에서의 토론장과 작업장 .....	26
(1) 표현과 수용의 문제를 다룬 토론장 .....	26
(2) 이론적 논의 .....	31
2.1.2. 변화된 생산조건 속의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	35
(1) 세계화와 복잡해진 생산의 조건 .....	35
(2) 이론적 논의 .....	41
2.1.3. 생산과정에서 연관되는 토론장과 작업장 .....	47
2.2. 토론장의 구조 .....	49
2.2.1. 포괄적 의미로서의 담론 .....	49
(1) '참여' 와 본 연구에서의 담론과의 차이점 .....	49
(2) 조직적 담론 수렴 장치 .....	52
2.2.2. 미디어의 작용 .....	54
(1) 정보의 습득과 담론의 형성, 그리고 피드백 .....	54

(2) 담론의 증폭 .....	59
(3) 담론의 유도과 왜곡 .....	61
2.2.3. 전문가의 역할 .....	65
2.3. 소결 .....	66

###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69

3.1. 사례 1 : 시애틀공공도서관 .....	71
3.1.1. 프로젝트 개괄 .....	74
(1) 프로젝트 진행 과정 .....	74
(2) 관련 주체 .....	79
(3) 전체 기간 동안의 미디어 보도 추이 .....	81
3.1.2. 토론장과 작업장의 전개 양상 .....	86
(1) 공개설명회와 설계개념설명서 (1999.12) .....	86
(2) 공식·비공식적 조직의 구성과 요구사항 (2000.1) .....	90
(3) 토론장에서의 논쟁 (1999.5~2000.05) .....	95
(4) 작업장으로의 피드백 : 100% Schematic Design 납품 (2000.05) .....	100
(5) 작업장으로의 피드백 : 100% Design Development 납품 (2001.03) .....	102
3.1.3. 토론장에서 다루어진 디자인에 관한 담론 .....	108
(1) 주요 쟁점 1 : 건물의 외관 .....	108
(2) 주요 쟁점 2 : 북 스파이럴(Book Spiral) .....	114
(3) 디자인을 다룬 기사의 연결망 분석 .....	116
3.1.4. 정리 및 분석 .....	120
3.2. 사례 2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	127
3.2.1. 프로젝트 개괄 .....	129
(1) 프로젝트 진행 과정 .....	129
(2) 관련 주체 .....	134
(3) 전체 기간 동안의 미디어 보도 추이 .....	138
3.2.2. 토론장과 작업장의 전개 양상 .....	147
(1) 시민아이디어공모전 및 국제지명초청설계경기 .....	147
(2) 피크 1 : ‘보존-개발’ (2007.08~2008.07) .....	157
(3) 피크 2 : ‘역사’ (2008.12~2009.10) .....	162
(4) 피크 3 : ‘토건-복지’ (2011.03~2012.02) .....	172
(5) 내부 콘텐츠 변경 .....	180
3.2.3. 토론장에서 다루어진 디자인에 관한 담론 .....	188
(1) DDP를 주제로 다루면서 건축 디자인에 대해 언급한 기사 .....	189



(2) 디자인에 대한 대중의 인식 .....	195
(3) 담론 그룹을 이어주는 연결 고리 .....	197
3.2.4. 정리 및 분석 .....	201
<b>3.3. 사례 3 : 그라운드제로 .....</b>	<b>207</b>
3.3.1. 프로젝트 개괄 .....	209
(1) 프로젝트 진행 과정 .....	209
(2) 관련 주체 .....	213
(3) 주요 건물 .....	222
(4) 전체 기간 동안의 미디어 보도 추이 .....	227
3.3.2. 토론장과 작업장의 전개 양상 .....	233
(1) 재건에 대한 사회적 합의 (2001.09~2002.06) .....	233
(2) 여론의 수렴을 통한 마스터플랜 결정 (2002.04~2003.03) .....	241
(3) 추모공원 설계경기 (2003.04~2004.04) .....	253
(4) 뮤지엄 입주업체 반대 (2004.05~2005.10) .....	261
(5) 보안문제로 인한 1WTC의 설계변경 (2005.04~2006.06) .....	265
(6) 공사비 절감을 위한 추모공원 설계 변경 (2006.05~2006.06) .....	269
(7) 추모공원의 희생자 이름 배열 (2003.05~2006.12) .....	275
(8) '생존자 계단' 의 보존 (2006.05~2007.08) .....	279
(9) 향만청과 실버스타인의 협상 (2001.10~2010.03) .....	282
(10) 그라운드제로 주변의 무슬림커뮤니티센터 건설 반대 (2009.12~ ) .....	291
3.3.3. 토론장에서 다루어진 디자인에 관한 담론 .....	298
(1) 전체 기간 동안 다루어진 디자인에 관한 담론 .....	298
(2) 구체적인 디자인을 다루는 과정에서의 전문가의 역할 .....	299
(3) 담론이 다루어진 방식과 시설의 성격 .....	304
3.3.4. 정리 및 분석 .....	307
<b>3.4. 종합적 분석 .....</b>	<b>314</b>
3.4.1. 토론장과 작업장의 요소별 대응 구조 .....	315
(1) 대응 구조의 개괄 .....	315
(2) 사례에서 드러나는 대응 구조 .....	318
(3) 요소별 대응 구조의 종합 .....	325
3.4.2. 생산공간의 조건과 생산주체의 결정 .....	328
(1) 생산공간의 조건 .....	330
(2) 생산주체의 결정 .....	339
<b>3.5. 소결 .....</b>	<b>347</b>

<b>제 4 장 토론장과 작업장의 역할</b> .....	<b>356</b>
4.1. 작업장과 관계 맺는 개별 토론장의 역할 .....	357
4.1.1. 기본적 요소의 설정 .....	357
4.1.2. 개별 생산과정의 구조 분석 .....	359
(1) 시애틀공공도서관 .....	360
(2) 동대문디자인플라자 .....	361
(3) 그라운드제로 .....	365
(4) 각 생산구조의 특징 .....	367
4.1.3. 생산구조의 일반화 .....	368
(1) 부분적 관계 .....	369
(2) 생산구조의 4단계 변화 .....	375
(3) 특수한 생산 조건의 반영 .....	377
4.1.4. 사례의 유형화와 주체의 역할 .....	380
(1) 사례의 유형화 .....	380
(2) 생산과정에서 주체의 역할 .....	382
4.2. 생산공간 전체로서의 토론장과 작업장의 역할 .....	384
4.2.1.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가 만드는 ‘장소’ .....	384
4.2.2. 생산공간들로 이루어지는 공적(公的) 장소의 공공성 .....	390
4.3. 소결 .....	398
<b>제 5 장 결론 : 토론장과 작업장으로서의 건축생산과정</b> .....	<b>400</b>
<b>참고문헌</b> .....	<b>407</b>
<b>부록 : 연결망 분석(network analysis) 방법론</b> .....	<b>416</b>
<b>ABSTRACT</b> .....	<b>423</b>

## 표목차

[표 2-1]	1980년대의 국제현상설계 .....	38
[표 2-2]	2004년 이후 우리나라의 지명초청국제현상설계 .....	39
[표 2-3]	담론 과정이 수행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관점의 유형과 각각의 근거 .....	53
[표 2-4]	상호행위(interaction)의 유형 .....	56
[표 3-1]	각 사업의 개요 비교 .....	69
[표 3-2]	시애틀공공도서관 개요 .....	71
[표 3-3]	모두를 위한 도서관(Libraries for All) 예산 계획(2001년 당시) .....	75
[표 3-4]	시애틀공공도서관 사업 진행 과정 (1998.11~2004.05) .....	76
[표 3-5]	시애틀공공도서관 사업의 건축주 그룹 .....	79
[표 3-6]	참여 주체 및 세부 구성원 .....	90
[표 3-7]	직원 워크그룹의 요청과 질문 .....	92
[표 3-8]	시민 워크그룹의 요청과 질문 .....	94
[표 3-9]	시애틀공공도서관에 대한 디자인을 다룬 기사 .....	116
[표 3-10]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개요 .....	127
[표 3-11]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건립 과정 .....	130
[표 3-12]	DDP를 다룬 전체 신문 기사 분포 .....	139
[표 3-13]	9개 일간지의 주요 단어 노출 빈도 수 .....	144
[표 3-14]	주제별로 묶어 본 단어의 빈도수 .....	145
[표 3-15]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에서의 프로젝트 참고 사항 .....	148
[표 3-16]	DDP 건물 부분의 부분별 소요시설 및 면적 .....	149
[표 3-17]	현상설계 공모작 설명 .....	154
[표 3-18]	첫 번째 피크 구간 설계과정에서의 협의 및 자문회의 관련 문건 .....	161
[표 3-19]	두 번째 피크 구간의 설계과정에서의 협의 및 자문회의 관련 문건 .....	169
[표 3-20]	트위터에서 생산된 개인의 DDP 관련 메시지 (~2012.03.16) .....	177
[표 3-21]	트위터에서 생산된 개인의 DDP 관련 메시지의 담론에 따른 분류 (~2012.03.16) .....	178
[표 3-22]	2011년 중 공사비용 변경 .....	179
[표 3-23]	DDP 운영 준비사업 관련 자문회의 개최 결과 .....	182
[표 3-24]	DDP 신진전문가 그룹 운영 회의 내용 .....	182
[표 3-25]	DDP 콘텐츠의 변경 전후 비교 .....	186
[표 3-26]	DDP의 시설별 역점사항과 이용 대상자 .....	186
[표 3-27]	DDP를 중심주제로 다루면서 건축디자인 내용을 포함하는 기사들의 전체 분포 .....	189
[표 3-28]	DDP를 중심주제로 다루면서 건축디자인을 다룬 기사 ① (2006.10~2010.06) .....	190
[표 3-29]	DDP를 중심주제로 다루면서 건축디자인을 다룬 기사 ② (2010.07~2012.02) .....	191
[표 3-30]	DDP를 중심주제로 다루면서 건축디자인을 다룬 기사들 내용 분류 (2006.10~2012.02) .....	192
[표 3-31]	DDP 관련 서울시 보도자료 .....	194
[표 3-32]	동대문역사문화공원 홈페이지의 질문 유형 분석 .....	195
[표 3-33]	동대문역사문화공원 홈페이지의 FAQ 조회수 분석 .....	196
[표 3-34]	특정 키워드를 언급한 신문기사 .....	198
[표 3-35]	그라운드 제로 사업 진행 과정 - ① (2001~2004) .....	211
[표 3-36]	그라운드 제로 사업 진행 과정 - ② (2005~2011) .....	212
[표 3-37]	그라운드제로 전체 유사성연결망에서 나타난 담론 그룹의 개요 .....	231
[표 3-38]	이매진뉴욕의 'the Summit' 회의에서 세워진 49개의 주요 원칙 .....	240
[표 3-39]	Imagine New York III 개요 .....	257
[표 3-40]	그라운드제로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	309
[표 3-41]	작업장에서 토론장으로의 정보 전달 .....	319
[표 3-42]	토론장에서 작업장으로의 영향 - ① 사업의 방향성 .....	319
[표 3-43]	토론장에서 작업장으로의 영향 - ② 디자인 요소 .....	320
[표 3-44]	토론장에서 작업장으로의 영향 - ③ 시설 프로그램 .....	320
[표 3-45]	토론장에서 작업장으로의 영향 - ④ 비용 .....	321
[표 3-46]	토론장에서 작업장으로의 영향 - ⑤ 추상적 개념 .....	323
[표 3-47]	DDP에 대해 다룬 비평적 어조의 기사 (2006.10~2012.10) .....	333
[표 3-48]	신문 별 건축·도시 전문 칼럼 (DDP 진행 기간 위주로 수집) .....	334

## 그림목차

[그림 1-1]	건축 행위의 구분	5
[그림 1-2]	생산과정에 대한 담론의 규모에 따른 건물의 구분	10
[그림 1-3]	연구의 흐름도	15
[그림 2-1]	1911년 로스하우스 완공 당시의 주변 건물. 맨 우측이 로스하우스	26
[그림 2-2]	1911.1.1 신문의 만평	27
[그림 2-3]	공사 중인 로스하우스의 사진에 화분받침대를 덧대어 그린 로스의 입면 스케치	27
[그림 2-4]	1911.12.11에 열렸던 시민 공청회 포스터	27
[그림 2-5]	뉴욕 맨하탄의 연방정부 건물 앞에 설치되었던 리처드 세라의 휘어진 호	29
[그림 2-6]	'결론 단계에 들어선 부여박물관 건축 양식'	30
[그림 2-7]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36
[그림 2-8]	건축 행위 모형 - 아렌트와 프랭틴의 이론 전개 방향	47
[그림 2-9]	생산과정에 대한 담론의 규모에 따른 건물의 구분	49
[그림 2-10]	토론장과 작업장의 경계에 놓인 참여의 위상	51
[그림 2-11]	전유 : 미디어 메시지 수용과정	58
[그림 2-12]	건물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담론과 참여의 이슈 확대	60
[그림 2-13]	2006.10~2012.02 까지 DDP에 관련된 각 신문별 기사 경향	64
[그림 2-14]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구조	68
[그림 3-1]	시애틀공공도서관	71
[그림 3-2]	시애틀공공도서관의 공간 구성	73
[그림 3-3]	시애틀 시내 공공도서관 위치 및 개선 계획	74
[그림 3-4]	예산 배정부터 완공 이후까지 전체 기간 동안 시애틀타임즈(The Seattle Times)의 기사 수 추이	81
[그림 3-5]	전체 기간(예산안 통과부터 개관이후까지)동안 SPL관련기사들에 나타난 키워드들의 유사성연결망( $r \geq 0.6$ )	83
[그림 3-6]	전체 기간(예산안 통과부터 개관이후까지)동안 SPL관련기사들에 나타난 키워드들의 유사성연결망( $r \geq 0.5$ )	84
[그림 3-7]	전체 기간(예산안 통과부터 개관이후까지)동안 SPL관련기사들에 나타난 키워드들의 공동참여연결망( $n \geq 150$ )	85
[그림 3-8]	설계개념설명서 중 유연성(Flexibility) 항목의 그림	87
[그림 3-9]	설계개념설명서 중 플랫폼(Platforms)에 대한 설명	87
[그림 3-10]	건물의 개념 단면과 플랫폼 및 사이공간(in-between space)의 구성	88
[그림 3-11]	햇빛과 조망을 확보하기 위해 상자들이 지그재그로 놓였음을 설명하는 다이어그램	89
[그림 3-12]	지그재그로 적층된 상자와 와이어메쉬 프레임의 투명한 유리 외피로 구성된 시애틀공공도서관의 초기 모형	89
[그림 3-13]	프로젝트 협의 과정	90
[그림 3-14]	믹싱챔버의 효율성을 설명하는 다이어그램	93
[그림 3-15]	증거거래소에 비유하면서 믹싱챔버에 계획되었던 투명한 반사재의 전자정보 디스플레이 바닥	98
[그림 3-16]	SD 공개설명회	101
[그림 3-17]	SD 납품도면의 1층 평면도(좌), 북측 입면도(우)	102
[그림 3-18]	100% DD 5층 평면도	103
[그림 3-19]	4번가 방향의 출입구가 있는 도서관 1층. 강당의 위치 변화	103
[그림 3-20]	4번가 방향에서 들어와 올라다본 강당(좌) 5번가 입구 바로 앞에서 4번가 쪽의 하부로 이어지는 강당(우)	104
[그림 3-21]	4번가 진입부 변화 SD 100%(좌), DD 100%(우)	104
[그림 3-22]	도서관 상층부의 직인 공간을 두층에서 한 층으로 압축함. SD 100%(좌), DD 100%(우)	105
[그림 3-23]	5번가 출입구(도면에서 위쪽)가 있는 도서관 3층	105
[그림 3-24]	좌 : 3층의 리빙 룸 / 우 : 9층의 리딩 룸	106
[그림 3-25]	초기의 개념모형과 완공 후의 모습	108
[그림 3-26]	1906년에 지어진 중앙도서관(좌), 1960년에 다시 지어진 중앙도서관(우)	109
[그림 3-27]	알루미늄 메쉬의 층이 추가된 유리	112
[그림 3-28]	알루미늄 메쉬 유리의 성능	112
[그림 3-29]	원더트윈볼트	112
[그림 3-30]	시애틀공공도서관의 LEED 점수	113
[그림 3-31]	장서 증가에 따른 북스파이럴의 대응방식	114
[그림 3-32]	북스파이럴 구성을 보여주는 수직 다이어그램	114
[그림 3-33]	북 스파이럴의 경사	115
[그림 3-34]	디자인을 다룬 신문기사 주요 키워드들의 유사성연결망 ( $r \geq 0.45$ )	118
[그림 3-35]	시애틀공공도서관의 설계기간과 담론이 활성화 된 기간	121
[그림 3-36]	시애틀공공도서관 진행과정에서 형성되었던 토론장과 작업장	123
[그림 3-37]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전경	127
[그림 3-38]	개발 이전의 동대문운동장(좌)과 공사 중인 DDP 현장(우)	131

[그림 3-39]	DDP 사업대상부지	131
[그림 3-40]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당선작, '환유의 풍경'	132
[그림 3-41]	운동장 하부에서 발굴된 조선시대 유적	133
[그림 3-42]	DDP 외장 패널의 목업(좌측)과 BIM에 의한 외장패널 분류(우측)	133
[그림 3-43]	좌 : 아랍에미리트 사디야트 섬의 공연예술센터 우 : 이탈리아 칼리아리의 뉴라지코 현대 미술관	136
[그림 3-44]	9대 종합일간지의 월별 DDP관련 기사 수	140
[그림 3-45]	전체 기간 동안 모든 키워드들의 공동참여연결망 ( links $\geq$ 1 )	141
[그림 3-46]	전체 기간 동안 모든 키워드들의 공동참여연결망 ( links $\geq$ 8 )	142
[그림 3-47]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일반부문 수상작	148
[그림 3-48]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전문부문 수상작 중 일부	148
[그림 3-49]	자하하디드의 당선작 '환유의 풍경' 내외부 컴퓨터그래픽 이미지	150
[그림 3-50]	DDP 현상설계경기 출품작	151
[그림 3-51]	자하하디드가 설계안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순환 다이어그램	152
[그림 3-52]	자하하디드의 설계안과 부지를 가로지르는 서울 성곽	152
[그림 3-53]	성벽 복원에 대한 접근방식의 차이	153
[그림 3-54]	철거중인 동대문축구장과 풍물시장	157
[그림 3-55]	2007.08~2008.07 까지 전체 신문기사에 등장한 키워드들의 공동참여연결망 ( links $\geq$ 8 )	158
[그림 3-56]	2007.08~2008.07 까지 전체 신문기사에 등장한 키워드들의 유사성연결망 ( r $\geq$ 0.27 )	160
[그림 3-57]	운동장 부지의 조선시대 건물 터	163
[그림 3-58]	유구 이전과 관련한 DDP 설계 변경 전후 비교	163
[그림 3-59]	2008.12~2009.10 까지 전체 신문기사에 등장한 키워드들의 공동참여연결망 ( links $\geq$ 8 )	165
[그림 3-60]	2008.12~2009.10 까지 전체 신문기사에 등장한 키워드들의 유사성연결망 ( r $\geq$ 0.3 )	166
[그림 3-61]	출토된 유구 위치(좌)와 성곽복원계획 및 건물(우)	169
[그림 3-62]	야구장과 축구장 부지에서 발굴된 하도감 터 등의 이전 방안	170
[그림 3-63]	DDP 지하 2층 (설계변경 이전)	170
[그림 3-64]	DDP 지하 2층에 위치한 유구전시장(변경 이후)	170
[그림 3-65]	성곽복원계획도 중 일부	171
[그림 3-66]	2011.03~2012.02 까지 전체 신문기사에 등장한 키워드들의 공동참여연결망 ( links $\geq$ 5 )	174
[그림 3-67]	2011.03~2012.02까지 전체 신문기사에 등장한 키워드들의 유사성 ( r $\geq$ 0.3 )	175
[그림 3-68]	DDP 청책워크숍	183
[그림 3-69]	자유발표 시간의 시민 발언	184
[그림 3-70]	청책 워크샵에서의 시민 의견	184
[그림 3-71]	전체 기간 동안 모든 키워드들의 유사성연결망 ( r $\geq$ 0.15 )	197
[그림 3-72]	DDP의 진행과정에서 형성되었던 토론장과 작업장	203
[그림 3-73]	사업진행과정에 따라 형성된 담론의 영향이 DDP 건축디자인에 대해 외부적으로 작용함	203
[그림 3-74]	그라운드 제로 공사현장 (2011.09)	207
[그림 3-75]	권력구도와 여론이 계획안에 영향력을 행사한 메커니즘	213
[그림 3-76]	2014년 개발 완료 후의 주요 건물	222
[그림 3-77]	추모공원과 방문자센터	223
[그림 3-78]	1WTC 디자인 변화	224
[그림 3-79]	칼라트라바의 교통환승센터 예상도	225
[그림 3-80]	2WTC, 3WTC, 4WTC의 예상도	226
[그림 3-81]	7WTC	227
[그림 3-82]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기사 추이 (기간 : 2001.09~2012.03)	228
[그림 3-83]	그라운드제로 관련 뉴욕타임즈 전체 기사에 대한 공동참여연결망	229
[그림 3-84]	그라운드제로 관련 뉴욕타임즈 전체 기사에 대한 유사성연결망 ( r $\geq$ 0.20 )	230
[그림 3-85]	맥스프루태치갤러리 전시회에 출품된 건축가들의 제안	235
[그림 3-86]	코니히의 구(sphere)	236
[그림 3-87]	Tribute in Light	236
[그림 3-88]	2001.09~2002.06 까지 재건사업을 다룬 기사들의 주요 키워드들의 유사성연결망 ( r $\geq$ 0.3 )	237
[그림 3-89]	이매진뉴욕 1의 일환으로 230개의 워크샵이 열린 지역	239
[그림 3-90]	2002년 7월에 공개된 그라운드제로 마스터플랜	242
[그림 3-91]	원터가든에서의 프레젠테이션과 건축가들의 응모안	244
[그림 3-92]	2002.04~2003.03 까지 마스터플랜을 다룬 기사들의 주요 키워드들의 유사성연결망 ( r $\geq$ 0.4 )	246
[그림 3-93]	2002년 2월 7일에 South Street Seaport에서 열렸던 첫 번째 리스닝투더시티	247
[그림 3-94]	7월 20일의 리스닝투더시티	248
[그림 3-95]	공개된 6개 마스터플랜에 대한 워크샵에서의 시민들의 평가	249
[그림 3-96]	2003년 1월 이후 발전시킨 리베스킨트와 THINK의 두 번째 제안	252
[그림 3-97]	마이클 아라드의 당선작, '부재의 반영(Reflecting Absense)'	255
[그림 3-98]	2003.04~2004.04 까지 추모공원을 다룬 기사들의 주요 키워드들의 유사성연결망 ( r $\geq$ 0.36 )	256

[그림 3-99]	여러 장소에서 진행된 이매진뉴욕 워크샵	258
[그림 3-100]	추모공원 현상설계 중 7개의 최종 후보작 (당선작 제외)	259
[그림 3-101]	시민들의 뮤지엄 입주업체 반대 시위	261
[그림 3-102]	2004.05~2005.10 까지 뮤지엄을 다룬 기사들의 주요 키워드들의 유사성연결망 ( $r \geq 0.5$ )	263
[그림 3-103]	2003.12월과 2005.06월의 1WTC 디자인 비교	266
[그림 3-104]	2006년 6월에 공개된 1WTC의 설계안	267
[그림 3-105]	2006.05~2006.6 까지 1WTC 설계변경을 다룬 기사들의 주요 키워드들의 유사성연결망 ( $r \geq 0.5$ )	268
[그림 3-106]	사망자 이름 표기 위치의 변경	271
[그림 3-107]	설계경기 당시 마이클 아라드의 응모안	272
[그림 3-108]	원가 절감에 따라 변경된 디자인	272
[그림 3-109]	원가 절감에 따라 변경된 디자인	272
[그림 3-110]	2006.05~2006.06 까지 추모공원 설계변경을 다룬 기사들의 주요 키워드들의 유사성연결망 ( $r \geq 0.6$ )	274
[그림 3-111]	추모공원의 난간에 표기된 희생자들의 이름	276
[그림 3-112]	2001.09~2011.09 까지 추모공원 이름배열을 다룬 기사들의 주요 키워드들의 유사성연결망 ( $r \geq 0.5$ )	278
[그림 3-113]	생존자 계단과 그 위치	280
[그림 3-114]	'생존자 계단' 이전에 대한 계획 이미지	281
[그림 3-115]	2006년 4월의 최종 합의에 따른 향만청의 건물과 실버스타인의 건물	286
[그림 3-116]	2001.10~2010.03까지 향만청과 실버스타인의 협상을 다룬 기사들의 주요 키워드들의 유사성연결망( $r \geq 0.37$ )	289
[그림 3-117]	그라운드제로와 이슬람 센터	291
[그림 3-118]	2009년 당시의 51 Park Place	292
[그림 3-119]	무슬림커뮤니티 센터 계획안	292
[그림 3-120]	무슬림커뮤니티센터 반대 시위	293
[그림 3-121]	2009.12~2012.03 까지 이슬람 센터를 다룬 기사들의 주요 키워드들의 유사성연결망 ( $r \geq 0.4$ )	295
[그림 3-122]	그라운드제로 관련 뉴욕타임즈 전체 기사에 대한 유사성연결망 ( $r \geq 0.25$ )	299
[그림 3-123]	그라운드 제로 진행과정에서 형성되었던 토론장과 작업장	312
[그림 3-124]	2006.03.29 일자에 보도된 추모공원 피난 계획	325
[그림 3-125]	토론장과 작업장의 요소별 대응 구조	326
[그림 3-126]	토론장과 작업장의 요소별 대응 구조 - 단순화	327
[그림 3-127]	각 도시의 세계화 지수	330
[그림 3-128]	google.com 에서의 검색어 추이 및 지수 비교	337
[그림 3-129]	좌 : 시애틀공공도서관 분관의 위치와 중앙도서관의 위치 / 우 : 시내 변화가 중심에 위치한 공공도서관	338
[그림 3-130]	동대문 시장 개략 지도	338
[그림 3-131]	서울성곽 구간에서 동대문의 위치	338
[그림 3-132]	로어맨하탄에서 WTC 부지의 위치	339
[그림 3-133]	WTC부지와 로어맨하탄 주변과의 연결	339
[그림 3-134]	서울 성곽 중 이간 수문 복원	342
[그림 4-1]	기본적 요소의 설정	358
[그림 4-2]	주체 간의 관계 양상	358
[그림 4-3]	시애틀공공도서관 생산구조에서의 개별 토론장의 작용	360
[그림 4-4]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생산구조에서의 개별 토론장의 작용 - 1단계(2006.07~2011.10)	362
[그림 4-5]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생산구조에서의 개별 토론장의 작용 - 2단계(2011.10)	363
[그림 4-6]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생산구조에서의 개별 토론장의 작용 - 3단계(2011.10~)	364
[그림 4-7]	그라운드제로 생산구조에서의 개별 토론장의 작용	366
[그림 4-8]	토론장의 생성에 대한 기본적 4단계 구조	369
[그림 4-9]	갈등관계의 유형	370
[그림 4-10]	외부 담론 주체의 결합에 의한 토론장의 생성	371
[그림 4-11]	미디어 보도에 의한 토론장의 형성	371
[그림 4-12]	관계구조의 이양	372
[그림 4-13]	건축가의 역할	373
[그림 4-14]	전문가 토론장의 역할	373
[그림 4-15]	작업장에 대한 토론장의 관입	374
[그림 4-16]	작업장에 관입되지 못하는 토론장	375
[그림 4-17]	토론장과 작업장이 관계 맺는 생산구조의 단계별 양상	376
[그림 4-18]	사례의 유형화	380
[그림 4-19]	복스파일럴 경사(좌)와 밝고 쾌적한 실내공간인 '리빙 룸' (우)	385
[그림 4-20]	무슬림 커뮤니티센터 건립 반대 시위 현장	387
[그림 4-21]	2009.12~2012.03 까지 무슬림커뮤니티 센터를 다룬 기사들의 주요 키워드들의 유사성연결망 ( $r \geq 0.4$ )	388
[그림 4-22]	세 번의 피크구간에 따른 중심 담론의 변화를 보여주는 공동참여연결망 (links $\geq 9$ )	389
[그림 4-23]	생산공간들로 이루어지는 공적 장소	391
[그림 4-24]	생산 과정 : 장소성이 공적으로 형성되는 과정	399

# 제 1 장 서 론

## 1.1. 연구의 배경

본 연구는 ‘물리적 실체를 만드는 행위’와 더불어, 그것에 대해 ‘말하는 행위’도 ‘생산(生産)’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생산, 그리고 특별히 한정하여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한 논의는 일반적으로 도면을 그리거나 벽돌을 쌓아올리는 것과 같이 물리적 실체를 만들어가는 범주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사람들은 건물에 대해서 ‘말’을 한다. ‘아름답다, 불편하다, 답답해 보인다’와 같은 단순한 의견표출이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면 의미와 생각의 덩어리인 담론(談論)을 이루어낸다. 물리적 실체를 만드는 행위를 ‘작업(作業)’이라 하고 말을 주고받는 행위를 통해 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을 ‘토론(討論)’이라고 할 때, 대개의 경우 작업은 건축주와 건축가, 그리고 시공자를 중심으로 한 계약관계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건물이 완성되고 나면 그 건물을 경험하는 전문가와 대중은 건물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한다. 토론 과정에서 건물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거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건물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더라도 이미 완성된 건물은 돌이킬 수 없다. 땅 위에 한번 지어진 건물이 최소 몇 십년동안 오고가는 사람들을 담아내면서 장소를 만들어간다고 할 때, 생산과정에서 좀 더 신중할 수 있다면 하나의 건물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소멸해가기까지 장소를 보다 풍요롭게 만들어가면서 건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신중’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물론 건축가를 포함한 작업장의 생산주체들만으로 탄탄한 연구조사와 사려 깊은 생각을 통해 좋은 건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 생산과정을 잘 기획함으로써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업에 반영할 수 있다면 어떨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디자인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도 있고, 건축가의 생각이 그 문화에서 수용되기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도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보다 만족감을 드러내며 자랑스럽게 여기는 건물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여러 사람의 의견과 시각을 포용하는 것은 ‘신중’하게 건물을

## 제 1 장 서 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물론 많은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려고 하다 보면 진행이 더뎠을 수도 있고, 결과물 또한 모두의 비난만 가까스로 모면한 절충안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차후의 기술적인 문제다. 우선은 작업과 토론의 영역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보다 나은 생산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가까이서 찾아볼 수 있다. 1960년대에 김수근이 설계한 부여박물관이 지어졌을 때, 일본 신사(神社)의 입구를 닮았다는 이른바 ‘왜색 시비’가 일어났다. 한 달간에 걸친 논란 끝에 건물을 일부 고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으나, 설계자는 이로 인한 오명을 남겼고 신사를 닮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건물을 볼 때마다 불편한 감정을 느껴야만 했다. 2007년에 자하하디드가 설계를 맡아 2013년에 완공을 앞두고 있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도 기존의 운동장과 역사유적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경우 비판은 건물의 설계과정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나, 문제는 크게 공론화되지 못했고 작업의 영역도 토론의 내용을 크게 반영하지 않은 채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부여박물관과 다소 다른 차원의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60년대의 논쟁이 건축가의 디자인과 대중의 반응이라는 차원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2000년대의 담론은 디자인의 문제 이외에도 대규모의 자본, 외국의 ‘스타건축가’, 오래된 도심의 재개발, 역사의 복원과 같이 복잡해진 생산 조건들과 관련되어 있다. 대중 담론도 내용상으로는 이러한 복잡한 조건을 다루는 동시에 형식상으로는 참여와 쌍방향성을 강조하며 성숙해져가고 있다.

현상을 다루는 이론적 논의들 역시 다변화되고 있다. 1950년대에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가 만드는 행위(work)와 그것에 대해 말하는 행위(speech)를 구분한 후 만들어 낸 이후에 만든 것을 어떻게 바람직하게 사용할지 논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1970년대에 아렌트의 논의를 건축으로 들여 온 프램턴(Kenneth Frampton)이 말하는 행위보다는 ‘작업(work)’에 국한하여 건축을 다루었다면, 2000년대에 매턴(Shannon Mattern)은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생각(idea)과 물리적 건물(building)을 만드는 것을 하나의 통합된 과정으로 보았다. 또한 셀리그먼(Ari D. Seligmann)같은 연구자들은 복잡해진 생산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물들을 다루면서, 대규모 건물이 공개적으로 널리 알려지는 현상이 만들어내는 가능성



에 대해 다루고 있다.<sup>2)</sup>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현상과 이론적 논의의 한 가운데에 있다. 현상으로서, 복잡해진 생산 조건 속에서 대형화 되는 건물과 여전히 물리적 건물을 다루는데 서투른 담론. 그리고 현실에 대한 비판적 저항보다 현실을 토대로 생산적 가능성을 모색하는 이론적 논의. 현상은 본 연구가 다루는 대상이 되고, 이론적 논의는 본 연구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된다.

그리고 관점을 대상에 투사하는 연구의 틀로서 ‘작업’ 과 ‘토론’ 이라는 두 영역의 관계를 설정한다. 서로 다른 두 영역이 어떻게 건축생산과정을 통해 관계를 맺는지, 말하는 행위가 어떠한 작용을 통해서 물리적 실체를 만드는 행위가 ‘신중’해질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지, 그렇게 하여 과연 ‘말’ 도 ‘생산과정’ 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를 밝혀보려고 한다.

이러한 시도는, 건축의 전문 영역에서의 실천과 일상의 영역에서의 대중담론이 어떻게 연계되고 문화적으로 팽창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생산적 함의를 드러내는 것이며, 건조환경이 만들어내는 단순한 물리적 실체 이상의 차원을 이해하도록 돕는 지침이 되어줄 것이다.

---

2) 1장에서 간략히 언급한 현상과 이론적 논의에 대해서는 2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 1.2. 연구의 목적

### 1.2.1. 용어와 전제의 도입

앞서 연구의 배경으로서 복잡해진 생산의 조건과 성숙해진 담론에 대해 언급하고 이러한 대상을 바라보는 연구의 틀로서 ‘작업’ 즉, 물리적 실체를 만드는 행위와 ‘토론’ 즉, 말을 주고받음으로서 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의 두 가지를 설정하였다.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우선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게 될 ‘토론’의 기본적 요소인 ‘말하는 행위’에 대해서 다시 정의해보자.

건물에 대해 ‘말하는 행위’란 넓은 범위를 포괄한다. 말하는 주체로 보자면 일반인부터 전문가까지, 그 내용으로 보자면 즉흥적인 감정표출에서부터 조직적이고 논리적인 글쓰기까지, 단계로 보자면 생산 단계부터 완공 이후의 입주까지가 모두 포함된다. 예를 들어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고급주택가를 거니는 행인이 ‘답답하다’라고 말하는 것, 주민자치센터에 민원서류를 떼러 간 주민이 ‘화장실을 찾기 어려워 불편하다’고 하는 것,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도서관 게시판에 ‘밤 늦게까지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신문에 게재된 구청의 신축건물 기사를 보고 구 예산 항목별 불균형을 지적하면서 ‘세금 낭비’라고 말하며 반대 하는 것 등이 모두 말하는 행위에 포함된다. 이들은, 건물의 느낌에 대해서, 동선의 편의성에 대해서,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투입된 자본규모의 적절성에 대해서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말’은 물리적 실체에 대한 반응으로써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 반대 방향의 작용도 가능하다. 이를테면, 말이란 어느 특정한 개인의 특별한 경험에 대한 발화 행위에 그칠 수도 있지만, 의사소통에 의해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담론’이 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과 담론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행동을 할 수도 있으며, 여론을 의식한 건축주가 방침을 변경하여 대중의 의견을 건물에 반영할 수도 있다. 즉, 말이 물리적 실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작업 영역에서의 행위들은 하나의 건물을 만든다는 목적으로 수렴되는 반면, 토론의 영역에서의 행위들은 여러 방향으로 발산되는 경향이 있다. 딱히 어떤 결과물을 내어야 하는 것이 아닌데다가, 개개인의 경험과 생각의 범위, 그리고 말하는 동기와 처한 입장도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건물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계약주체

가 아닌 사람들의 말은 법적으로 생산과정에 반영될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처럼 본질은 물론이거니와 성질도 다른 두 영역의 관계는 ‘영향을 주고받는다’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 1차적으로 밝혀보려는 것이 바로 작업과 토론의 영역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해당한다.

작업과 토론의 영역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하기 위해 우선 다음의 용어와 전제를 도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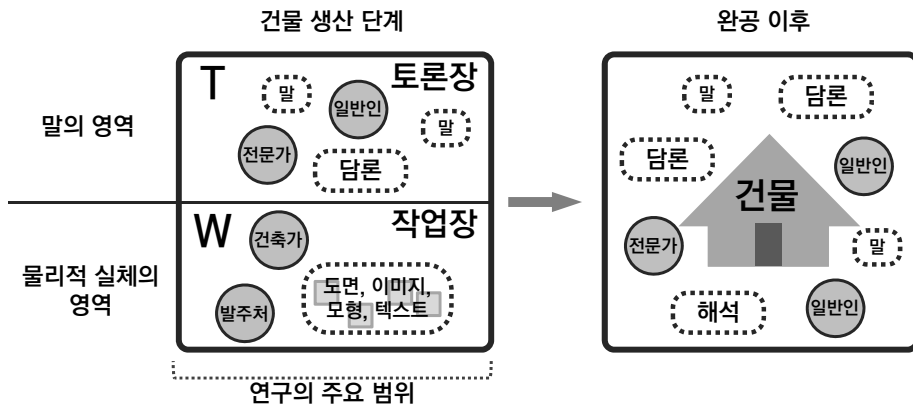
건축과 관계된 영역을 물리적 차원과 담론의 차원으로 구분한다.

물리적 차원, 즉 제작하는 구체적 작업의 영역을 ‘작업장(作業場)’ 이라고 부른다. 담론의 차원, 즉 논의하는 추상적 토론의 영역을 ‘토론장(討論場)’ 이라고 부른다.

작업장의 주체들은 발주처, 건축사사무소, 건설회사 등 전통적 생산자에 해당한다. 토론장의 주체들은 전문가, 그리고 비전문가인 일반적 대중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주체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토론장은 일반적 대중의 토론장을 의미한다.

작업장은 특정한 건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들로 이루어진다. 토론장은 특정한 목적을 지니지 않으며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표출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작업장과 토론장은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다.



[그림 1-1] 건축 행위의 구분

우선 오른쪽의 완공 이후를 보자. 물리적 실체로 완성된 건물이 있다면 그 주변에는 건물을 경험하는 사람과 그 사람들이 쏟아내는 가벼운 감상이나 체계적 비평과 같은 말의 영역이 있다. 완공 이후에는 건물과 경험이 한 공간에 존재한다. 그런데 건물 생산단계는 조금 다르다. 물리적 실체를 직접 생산하는 주체들과 간접적으로

그것에 대해 접하면서 담론을 생산하는 주체들의 영역이 구분된다.

우선, 생산 단계에서 물리적 실체를 생산하는 영역을 W, 즉 ‘작업장(workshop)’ 이라고 설정하였다. 작업장은 물리적 실체를 만드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해 실체가 아닌 그에 대한 예비적 모사물(模寫物)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도면을 그리거나 이미지와 모형으로 결과물을 예측하여 표현해 보기도 하고, 어떠한 정보들은 협업 과정에서 텍스트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리고 작업장이 가동되는 단계에서 여기에 대한 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된다면 사람들은 의견을 서로 주고받는다. 이러한 영역을 T, 즉 ‘토론장(talkshop)’ 이라고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T - W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건물의 생산과정에서 W에 비해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T도 생산과정의 일부임을 보여주고, 그 역할과 가치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토론장은 본 연구에서 문맥에 따라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하나는 넓은 의미의 토론장으로서 앞의 그림에서 표현된 것처럼 담론이 이루어지는 영역 전체를 지칭한다. 이것은 개별 사업의 성사와 관계없이 항상 존재하는 것으로, 작업장과 대비되는 ‘개념’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특정한 담론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개별적 단위로서의 토론장이다. 특정 담론에 대한 논의의 집중 여부에 따라 형성되거나 소멸될 수 있다고 본다.

작업장은 사업이 성사됨과 동시에 형성되는 것으로 보되, 개별적 단위의 토론장은 사업의 전후와 관계없이 항상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역사와 관련된 특정 주제를 다루는 토론장이 있다고 할 때, 사업이 성사되면서 역사문제를 다루는 토론장이 사업에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토론장과 연계될 수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사업을 둘러싼 토론장은 다수 존재한다. 단지, 사업의 문제에 집중된 담론을 다루는 토론장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토론장이 존재하더라도 작업장과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토론장이 작업장과 영향을 주고받았다’ 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경우를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 전체 개념으로서의 토론장이 아니라 ‘개별 단위의 토론장이 작업장과 영향을 주고받게 되었다’ 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프로젝트 전체를 두고 평가할 때 ‘토론장이 작업장과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았다’ 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개별 단위로 연결된 작업장과 토론장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두 영역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생산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 1.2.2. 연구의 목적 및 세부 목표

이제 ‘토론장’ 과 ‘작업장’ 이 있다고 할 때, 토론장이 이따금씩 건물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차원에서만 머물러있는 것인지, 혹은 작업장과 적극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생산과정의 한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지를 문제가 있다. 만약 특정한 사례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이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밝혀낸다면, 토론장은 충분히 생산과정의 한 영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영향관계가 건물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토론장과 작업장의 긴밀한 관계를 의도적으로 유도해 볼 수도 있다. 작업장 주체들의 수가 한정적인 반면 토론장은 수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지므로, 이들을 생산과정의 일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이들이 건물에 대해 쏟아내는 무수한 담론의 에너지들을 바로 그 건물을 만드는데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영역이 긴밀하게 연결된다면, 토론장의 입장에서는 그 추상적인 언어가 지향하는 바를 구체적인 물리적 실체로서 실현할 수 있게 되고, 작업장의 입장에서는 물리적 실체의 완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토론장의 담론을 통해 사회적 의미를 지니는 장소로서 확장되어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연구의 목적은 토론장이 작업장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담론과 작업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 영향관계가 상당히 밀접하다면, 제작 즉 ‘건축생산과정은 토론장과 작업장으로 구성된다’ 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세부적인 문제들이 관련되어 있다. 우선 토론장과 작업장이 관계를 맺는 시점의 문제다. 만약 그 시점이 건물이 완성된 이후라면 토론장은 평가 위주로 이루어지게 된다. 물론 평가에 포함되는 비판적 시각은 다른 건물을 만들어낼 때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더 이상 변형시킬 수 없는 건물에 대해 논하는 것은 ‘어떻게 잘 할 것인가’ 를 논하면서 증폭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에만 치중하다 이내 사그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변환 과정의 문제가 있다. 토론장과 작업장의 요소들은 일대일 대응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두 영역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려면 사용되는 언어의 변환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변환 과정은 두 영역 모두에 익숙한 전문가들이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 제 1 장 서 론

이제 연구의 목적과, 함께 관련된 문제들을 염두에 두면서 다음의 세부적 목표를 설정한다.

### ①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첫 번째 목표는, 실제 프로젝트의 진행을 따라가면서 토론장과 작업장이 어떠한 양상으로 펼쳐져 나갔는지, 토론장과 작업장의 요소들은 어떠한 대응구조를 가지는지, 작업장과 관계 맺는 과정에서 다른 요소들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개별 생산 공간이 어떠한 특수성을 드러내면서 전개되는지 알아본다.

그리고 나서 세 가지의 사례에서 드러난 개별 요소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세 가지 생산공간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주체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 종합해 볼 것이다.

이러한 분석 작업은 토론장의 담론이 작업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포함하면서 다른 주체들과 엮여 나갈 것이라는 추측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토론장의 담론은 공식적인 작업장의 프로세스에 포함된 것이 아니므로 작업장과 영향을 주고받는 데에는 다른 요소들 - 행위 주체들과 관련된 정치적, 사회적 요소들 - 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 따라서 토론장과 작업장이 관계 맺는 양상에서 이러한 요소들의 작용을 찾아보고, 그러한 작용들이 각 프로젝트가 위치한 그 사회의 전반적 조건들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분석하여 본다.

### ② 작업장에 대한 개별 토론장의 역할

두 번째 목표는 앞의 분석을 바탕으로, 하나의 생산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는 개별 토론장들이 작업장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토론장과 작업장이 포함된 생산구조의 양상을 일반화 모형으로 구축해 본다. 그 과정에서 각각의 사례가 처한 생산 조건을 바탕으로 생산공간들을 유형화하게 될 것이며, 이렇게 특수한 차이들을 벗겨냄으로써 개별 토론장의 역할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 ③ 생산공간 전체로서의 토론장과 작업장의 역할

세 번째 목표는 하나의 생산공간 전체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상호관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본 후, 다시 이 생산공간들이 모여서 이루는 세계 전체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이 하는 역할을 알아보는 것이다. 작업장의 목표인 건물이 물리적 실체라는 관점에서, 토론장이 적극 개입되어 생산된 건물은 그렇지 않은 건물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고찰해본다. 그리고 토론장의 주체인 대중에게 있어서 토론장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생각해본다.

두 번째 목표가 실용적인 역할을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세 번째 목표는 가치에 대한 차원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관계’를 알아보는 첫 번째 목표가 새로운 틀로써 현상을 구체적으로 해부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와 세 번째 목표는 또 다른 생산과정에서 토론장이 적극 개입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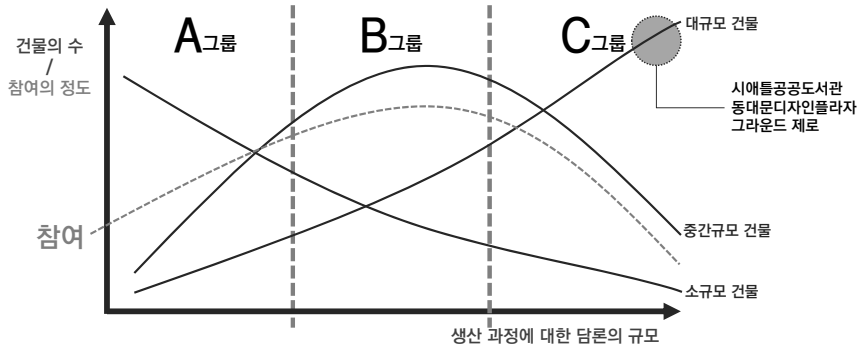
### 1.3. 연구의 대상 및 분석 자료

#### 1.3.1. 연구의 대상

##### (1) 설정 기준

이론적으로는 모든 건물이 본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생산과정에 대한 토론장이 활성화 되어있는 건물들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우선 토론장이 활성화된 정도, 즉 담론의 규모에 따라 건물들을 A, B, C, 세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1-2] 생산과정에 대한 담론의 규모에 따른 건물의 구분

A 그룹은 생산과정에 대한 담론의 규모가 가장 작은 것들로 이루어지는데, 대규모의 건물보다는 소규모 건물 위주로 이루어진다.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 공장, 창고시설, 발전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단독주택은 개인의 사적인 공간이므로 작업과정은 토론장에서 다루어지지 않는다. 대기업 회장이나 연예인의 고급 단독주택이 토론장에서 다루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단순 화제 거리나 가벼운 비판의 대상 정도에 머무른다. 아파트는 개인의 사적인 공간이면서 전 국민의 절반 정도가 거주하는 건물이다. 따라서 토론장에서 많이 언급되지만, ‘아파트라는 사회 현상’으로 다루어지거나 발코니와 같은 특정 요소에 대해서, 혹은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특정한 건물의 작업과정이 다루어지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오피스와 같은 건물은 인구 이동이 잦은 도심 내부에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지만, 대부분 민간자본으로 개발되고, 이용자 그룹이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특정 건물의 작업과정이 공공에게 노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토론장에서 다루어지는 부분은 완성 후의 입면이나 저층부에 한정된다. 공장, 창고, 발전시설과 같은 건물들은 대부분 도



심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외부공간조차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일이 적다. 따라서 토론장에서 다루어지는 일이 별로 없으며, 있더라도 시설 입지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대부분이다.

B 그룹은 담론의 규모가 중간 정도인 건물들로서 중규모의 건물들 위주로 이루어진다. 이 그룹의 건물들은 토론장이 일부 그룹에서만 활성화 된 것들이 많다. 주민자치센터, 소규모 도서관, 학교와 같은 건물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주민자치센터와 동단위의 소규모 도서관들은 한정된 지역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따라서 신축이나 개축과 같은 경우에 주민들의 의견제시와 더불어 참여 또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학교 또한 지역의 커뮤니티 시설로 사용되기도 하므로 지역주민의 토론과 참여를 통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또한 학교의 사회적 역할인 ‘교육’의 일환으로 전개된다. ‘마을만들기’와 같은 경우도 건물은 아니지만 사업의 실행 - 담장 쌓기, 허물기, 벽화 그리기, 화단 가꾸기 등 - 도 직접 참여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작업의 물리적 대상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주민들도 이해하고 참여하기가 수월하다는 특징이 있다.

C 그룹은 관련된 담론의 규모가 큰 건물들로서 주로 대규모 건물들로 이루어진다. 불특정 다수에게 관계되어 있지만, 대부분 규모가 크고 건물이 복잡하기 때문에 직접적 참여는 이루어지기 힘든 건물들이다. 이 그룹은 토론장이 활성화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대부분 미디어의 보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소식이 전달되기 때문에 활성화 되지 않았더라도 그 잠재성이 내재되어 있는 건물들이다. 블록단위의 대규모 개발, 대형 공공문화시설, 구청·시청과 같이 민간이 이용하는 관청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건물들은 대부분 도심에 위치하기 때문에 많은 수의 불특정 다수에게 직접 노출되며, 그 중에서도 용산국제업무지구처럼 초대형자본이 투입되고 국제현상설계가 진행된 건물들은 미디어에도 크게 보도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다. 특히 사업주체가 공공기관일 경우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의 표현과 의견개진이 이루어진다. 거기에 더하여 특별히 주목을 받는 정책이나 정치적 사건과 결합될 경우 사람들의 관심 정도와 토론장의 지역적 범위는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증폭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건물들이 바로 C 그룹 중에서도 특정한 사건과 연관되어 토론장이 강하게 활성화 된

건물들이다.

A,B,C 그룹의 분류를 토대로 C 그룹에 적용한 조건들을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일정정도 이상의 물리적 규모를 지닐 것
- ② 한정된 사용자가 아닌 넓은 범위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
- ③ 민간보다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물일 것
- ④ 건물 전체로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부분들이 토론장에서 언급 될 것
- ⑤ 건물의 특정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디자인이 토론장에서 고루 다루어질 것

그리고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토론장이 특히 강하게 활성화 된 사례를 찾기 위해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추가하였다.

- ⑥ 특별히 주목을 받는 정책이나, 특수한 사회·문화·정치적 사건과 관련된 것
- ⑦ 자신의 디자인언어를 추구하는 스타건축가가 설계를 맡으며 화제에 오른 것

## (2) 연구의 대상

일곱 가지 기준에 따라 선정한 사례 3개와 주목을 받았던 사건은 각각 다음과 같다. 건물의 물리적 규모가 작은 순서부터 배열하였다.

① 시애틀공공도서관(Seattle Public Library) - 주민투표에 의해 도서관 예산을 위한 2억달러 규모의 채권발행여부를 결정하였다. 설계경기에 의해 램콜하스가 설계를 맡고, 이후로 주요 진행과정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다.

② 동대문디자인플라자(Dongdaemun Design Plaza, DDP) - ‘디자인서울’이라는 서울시의 중점 전략을 바탕으로 노후한 도심공설운동장 자리에 4천억원 규모의 도시브랜딩 사업을 추진하였다. 브랜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경기를 통해 자하하디드가 설계자로 당선되었다.

③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 -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비행기 테러로 110층 규모의 쌍둥이빌딩을 비롯한 16에이커 부지가 소실되었으며, 2,70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후 같은 부지에 추모공원을 비롯한 대규모 재건사업을 추진 중이며 그 과정에서 세계적 건축가들이 참여하였다.

시애틀공공도서관은 비교적 한정된 사람들이 이용하는 구체적 생활 공공시설이며 지속적인 시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친숙한 공공시설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

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을 위한 채권발행이 주민투표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후의 과정은 대부분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다. 국제현상설계를 통해 ‘세계적 스타건 촉가’ 인 렘콜하스가 설계를 맡게 되었고, 그의 혁신적이면서 전위적 디자인은 이용자인 지역 시민들과의 사이에서 여러 가지 담론들을 만들어냈다. 또한 도서관이라는 시설의 특성 상 이용자의 목적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를 통해 내부 프로그램 배치가 조율될 수 있었다. 과정 전체에 걸쳐 토론장은 여러 가지 주제들을 엮으면서 확장되어 나아갔다기보다 작업장의 안전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갔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디자인서울’ 을 표방한 도시브랜딩 사업이었다. 일제강점기부터 시민들의 종합체육시설로 이용되어 온 동대문야구장과 축구장을 철거하고 신축한 탓에 관련된 논의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사업추진의 시작부터 끊이지 않았다. 또한 서울 사대문을 잇는 서울성곽이 부지를 관통하였기 때문에 성곽복원사업이 신축과 병행되어 진행되었으며, 사업 후기에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포함한 서울의 대형 토건 사업들과 복지 행정이 도마 위에 비교되어 오르면서 시장이 교체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그라운드제로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항공기 테러가 원인이 되어 사업이 시작되었다. 발주처, 주지사, 시장, 디벨로퍼, 희생자 유가족 등 다수의 행위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10년이 넘는 프로젝트 진행과정동안, 이념, 보안, 추모, 계약관계, 경제성, 명분 등이 문제가 얽힌 복합적 담론들이 다루어졌으며 작게는 디자인, 크게는 개별 건물의 존폐여부도 담론의 영향을 받았다. 중도에 진행된 설계경기에서 세계적 건축가들이 참여하여 대중 앞에서 설계안을 설명하였으며 그 과정이 TV를 통해 생중계되기도 했다.

이 세 가지 사례들의 디자인과정에서 벌어진 구체적인 사실들을 바탕으로 토론장과 작업장의 지도를 그려보고 그 연결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연구의 주요 진행과정이 될 것이다. 물론 이들 사례가 ‘대표성’ 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세 가지 사례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확증을 담보해주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1.3.2. 분석 자료

연구에서 이용하는 구체적인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신문기사**

신문 기사를 통해 토론장의 양상을 분석한다. 미디어가 대중 담론을 담고 있는가의 문제는 기존에 미디어 분야에서 연구되어 받아들여지고 있는 존 톰슨(John Thompson)의 성과를 이용하기로 한다.<sup>3)</sup>

신문 기사를 이용하여 담론 간의 연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연결망 분석(network analysis)’의 방법론을 사용한다. 연결망 분석은 도시나 사회과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건축 분야에서는 아직 쓰임새가 적다. 본 연구에서는 연결망분석 중에서도 미디어분야에서 이용하는 방법론을 차용함으로써 건물과 그에 대한 담론이 연관되며 확장되어가는 양상을 한눈에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였다. 연결망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는 부록에서 다룰 것이다.

또한 신문기사는 작업장의 사건들에 대한 기록으로도 이용된다. 그라운드제로의 경우는 뉴욕타임즈에서 작업장의 사건들도 상세히 담고 있다. 그러나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시애틀공공도서관의 경우는 작업장의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밑에 열거한 다른 방법들을 함께 사용할 것이다.

- **관련기관의 보도자료 및 인터넷 공개자료**

각 사례의 관련 공공기관(서울시청, LMDC, 시애틀공공도서관 등)에서 공개한 언론기관 배포용 보도자료(press release)와 정보공개를 위하여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을 이용한다.

- **정보공개 청구 자료**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경우 정보공개청구제도(www.open.go.kr)를 이용하여 내부의 각종 자문회의 및 협의자료를 입수하였다.

- **기타 잡지 및 관련 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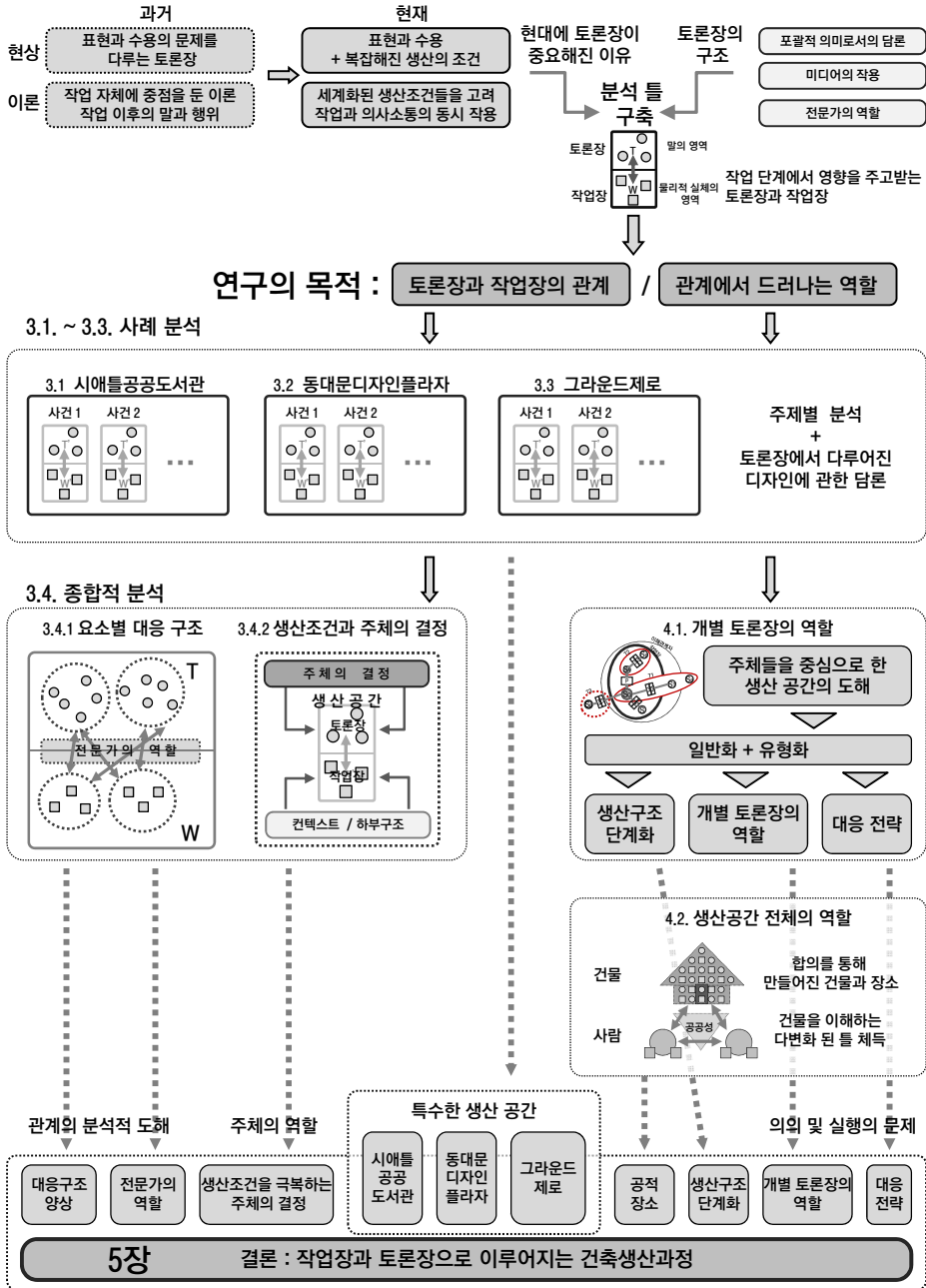
워크샵이나 공청회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보고서를 참고한다. 그리고 시애틀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설계과정의 중간 납품 도면들을 통하여 토론장의 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변화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

3) 여기에 대해서는 2.2.2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 1.4. 연구의 흐름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그림 1-3] 연구의 흐름도

**2장에서는,**

연구의 위상을 기존의 논의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리매김하면서 가설을 구축한다. 앞서 제시한 가설 설정의 근거를 기존의 이론과 연구 성과들에서 끌어올 것이며, 분석을 위한 토론장과 작업장 사이의 관계 틀을 설정해 본다. 여기에는 제작을 토론장과 작업장으로 나누어 보는 근거, ‘참여’를 어떠한 시각에서 다룰 것인가의 문제, 정보전달의 매개와 그 이상으로서의 미디어의 역할을 밝혀보는 것 등이 포함된다.

2장에서 정의하거나 한정된 개념들은 연구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요한 틀과 관점으로 따라갈 것이다.

**3장에서는,**

세 개의 사례를 각각 독립적으로 다루면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영향관계를 분석한다. 그리고 세 개의 사례를 종합하여 토론장과 작업장의 요소들이 어떠한 대응관계로 이루어지는지 종합한다. 또한 생산과정이 다다른 결과에 대해 논하기 위해 각각의 생산조건들과 관련된 주체의 결정을 비교한다. 이것은 첫 번째 가설에 대한 검증 작업이다.

**4장에서는,**

세 개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역할을 규명해본다. 우선 하나의 생산공간 안에서 작업장에 대한 개별 토론장들의 역할을 종합한다. 이 과정에서 각 생산공간을 일반화된 모형으로 다룰 것이며, 서로 다른 상황을 유형으로 구분함으로써 특수한 생산조건들을 걷어내고 개별 토론장의 역할에 집중해본다. 그 후에 시야를 확장하여 생산공간 전체로서의 토론장과 작업장이 하는 역할, 그리고 다수의 생산공간들과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세계 전체에서의 토론장과 작업장의 역할을 알아본다. 이 과정을 통해 토론장과 작업장의 상호관계에 주목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5장의 결론에서는,**

분석들을 정리하면서 최종적 의의를 도출한다.

## 1.5. 주요한 선행 연구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행해 나가기에 앞서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두 가지의 주요한 연구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수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새넨 매턴(Shannon Mattern)의 ‘이데올로기를 짓기 : 시애틀공공도서관 건물과 건물에 체화된 생각, 이상, 가치들에 대한 사례 연구’ 이고 다른 하나는 아리 셀리그먼(Ari D. Seligmann)의 ‘세계화 시대의 건축적 퍼블리시티’ 다. 4)5) 다른 연구들에 대해서는 2장에서 논할 것이다.

### • 매턴의 연구

매턴(Shannon Mattern)은 건물을 단지 물리적 실체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건물과 관련된 사람의 생각(idea 혹은 ideology)이 건물에 함께 관련된 것으로 본다. 매턴은 시애틀공공도서관의 기획부터 디자인이 완성되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따라가면서, 건물을 만드는 과정이 관련 주체의 의사소통과 어떻게 관계 맺는지를 다루는 학제 간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할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한 시애틀공공도서관에 대한 많은 정보 역시 매턴의 연구로부터 얻었다. 설계 시기가 2000년 전후로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기 때문에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들은 접근이 불가능했으므로 매턴의 연구에서 참고하였다. 또한 당시 관련주체에 대한 인터뷰도 일부 참고하였으며 시민 워크그룹에서 거론된 지적사항들도 매턴의 자료를 이용하였다.<sup>6)</sup> 물론 도면은 직접 구하여 대조하는 작업을 거쳤다. 그리고 물론, 접근이 가능한 일간지인 시애틀타임즈와 시애틀PI에 한해서는 직접 1차 자료를 찾아 참고하였다.<sup>7)</sup>

연구의 취지가 비슷하고 자료의 대부분이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매턴의 연구에 비하여 몇 가지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매턴의 연구는 ‘도서관’ 이라

4) Shannon Mattern, *Building Ideologies : A Case Study of the Seattle Public Library Building and Its Embodied Ideas, Ideals and Value*, Diss. NYU, Ann Arbor : UMI, 2002

5) Ari D. Seligmann, *Architectural Publicity in the Age of Globalization*, Diss. UCLA, 2008, Ann Arbor : UMI, 2008

6) 워크그룹에 대해서는 3.1장의 시애틀공공도서관의 사례에서 자세히 서술할 것이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턴의 연구에서 다른 자료가 워낙 방대한 탓에,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신문기사 등)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매턴의 자료들과 겹쳐진다.

는 시설에 많은 비중을 둔다. 그리고 3장에서 차차 밝히겠지만, 시애틀공공도서관은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의 개입이 비교적 적었기 때문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나 그라운드제로에 비해 작업 자체에 집중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시설의 이용자가 명확하였으므로 시민 워크그룹이라는 적극적인 참여 방식을 도입할 수도 있었다. 즉, 매턴 연구의 서두에서 맥락(context)과 관련된 장소라는 점을 중요하게 보겠다고 말하지만, 시애틀공공도서관은 본격적인 설계 과정에서 외부적 요소의 개입이 비교적 많지 않았던 사례다.<sup>8)</sup>

그리고, 매턴은 커뮤니케이션의 진정성에 중점을 두었는데, 이러한 관점은 ‘과연 시애틀공공도서관이 공공적이었는가’ 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는 연구로 이어지기도 한다.<sup>9)</sup> 시애틀공공도서관의 사례는 대중의 의견을 담아낸 것이 아니라, 대중을 설득하는 도구로서 건축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토론장’ 이라는 관점은 주체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이상의 의미를 포괄하려고 한다. 즉, 담론이 여러 가지 정치·사회적 문제들을 담아내면서 건물의 제작과정으로 수렴시킨다는 역할을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둔다.<sup>10)</sup> 관점이 차이나는 까닭은, 매턴이 설정한 전제가 에코로부터 출발한데 비하여, 본 연구는 한나 아렌트와 도시 사회학자들의 관점으로부터 출발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에코의 언설은 보편적 언어인 기호학으로 이어지는 반면,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에 대해 말한 것은 ‘핵폭탄’이라는 정치적인 문제에서 출발하였다. 아렌트의 관점에 대해서는 2장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또한 매턴이 시애틀공공도서관에서 부족하였다고 지적했던, 설계 과정에서 대중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의’에 도달하는 문제는 대중과의 의사소통과정을 거치는 것 자체와는 또 다른 문제다. 이러한 가설이 유효한 것인지는 연구를 통해 밝혀나갈 것이다.

### • 셀리그먼의 연구

셀리그먼은 시애틀공공도서관을 다루면서 매턴의 관점 - 도서관의 설계과정이 공공적이지 않다 - 을 언급하며 반박하는데, 그의 주장은 건축가의 파르티(parti), 즉

8) Shannon Mattern, 2002, op.cit., p.7

9) Shannon Mattern, "Just How Public Is the Seattle Public Library? : Publicity, Posturing, and Politics in Public Design," *Journal of Architectural Education*, 57(1) (2003)

10) 물론 매턴도 건물이 사용자에 관련된 내부적인 역학관계와 외부적인(정치, 기술, 재정, 심리적) 역학관계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그러나 시애틀공공도서관은 ‘내부적인’ 역학관계 중심으로 의사소통이 오고 간 사례였다. 해당 언급은 다음을 참고. Shannon Mattern, 2002, op.cit., pp.398-399



건물을 만들어내는 큰 개념적 틀이 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공의 의견이 무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공개설명회를 통해 디자인에 대해 설명하고 북스파이럴의 테스트에 대중을 참여시키는 등, 피드백에 의해 디자인을 조정하고 상반되는 의견이 적절히 조정되었다고 말한다.<sup>11)</sup> 본 연구에서는 매턴과 셀리그먼의 대립된 관점을 염두에 두면서 사례를 분석해 나갈 것이다. ‘공공성’에 대한 내용은 본 연구의 4.2장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셀리그먼은 ‘건물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 혹은 ‘완성된 건물을 통해 어떠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실용적인 관점에 입각해 있으며 이러한 관점을 중심으로 사례들을 분석해나간다. 그는 빌바오구겐하임이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고려가 적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빌바오구겐하임에서 부족하다고 평가받은 ‘퍼블리시티의 진정성’ - 커뮤니티를 담는 것 - 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본 연구가 셀리그먼이 지닌 실용적 관점과 차이를 둔다면, 완성 이후가 아니라 ‘과정 자체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시애틀공공도서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그라운드제로 모두 셀리그먼의 관점에서 ‘복잡한 정치경제문화적 맥락을 드러내는 세계화 시대에 퍼블리시티를 지닌 건물’이지만, 매턴의 관점에서 보자면 ‘설계과정을 통해 관련주체의 생각을 건물에 담아낸 사례’다. 이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연구를 본 연구의 주요한 선행연구로 설정한 까닭이며, 본 연구가 각각의 연구와 차이점을 지니는 부분이기도 하다.

---

11) Ari D. Seligmann, *op.cit.*, pp.237-240

## 1.6. 용어의 정의

여기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해, 혹은 영어단어의 번역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쓰일지에 대해 정의하거나 한정하여 보겠다.

- 공론영역(公論領域, public realm), 공론장(公論場, public sphere)

공론영역(public realm)과 공론장(public sphere)은 각각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 과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구조변동’ 의 영문판에 사용된 용어다. 이 둘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담론이 형성되는 추상적 영역’ 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독일어 ‘Öffentlichkeit’ 에 대한 두 가지의 영어 번역어이기도 하며, 유사한 의미로 쓰인다.

여기서는 각 저술의 한글판 역자가 사용한 번역어<sup>12)</sup>를 존중하고, 특히 한승완이 역자 서문에서 “ ‘사적 개인으로서의 공중이 논의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마당’ 이라는 의미에서 장(場)의 개념과, ‘토론하고 논의한다’ 는 개념 -론(論)-이 들어 있는 ‘공론장’ ” 이라고 풀이한 부분을 받아들여 public realm은 ‘공론 영역’ , public sphere는 ‘공론장’ 으로 사용할 것이며, 그 의미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 작업장(作業場, workshop), 토론장(討論場, talkshop)

본 연구에서의 주요한 용어인 ‘작업장’ 은 과거 장인(匠人, craftsman)들의 제작 공간인 작업장(workshop)에서 차용하여 쓴 것으로, 계약관계로 맺어진 건축주와 건축가, 그리고 시공자들이 물리적 실체인 건물을 만들어나가는 영역을 총칭한다. 과거에 쓰였던 작업장이란 용어는 물리적으로 한정된 작업공간을 말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물리적 차원에서 말하자면 건축사사무소가 될 수도 있고 발주처 기관의 회의실이 될 수도 있다. 즉, 물리적 영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주체들에 구분의 기준을 두고 있다.

또한 ‘작업(work)’ 이라는 용어는 한나 아렌트가 노동(labor), 작업(work), 행위(action)의 세 가지로 인간의 조건(The Human Condition)을 상정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며, 동시에 프래텐이 이 논의를 건축의 담론으로 들여오면서 노동(labor), 작

---

12) 각각 다음의 책 참고, Hannah Arendt, 『인간의 조건』, 이진우·태정호 역, 파주 : 한길사, 1996  
Jürgen Habermas, 『공론장의 구조변동』, 한승완 역, 파주 : 나남, 2001

업(work), 건축(architecture)으로 구분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프램턴은 여기서 작업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그가 수공예(craft)적으로 건물을 정교하게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프램턴의 용어를 ‘염두에 두었다’고 한 것은, 역시 건물을 만들 때 정교한 수공예적 관점을 중시하는 것에 동의하기 때문이다.<sup>13)</sup>

‘토론장’은 일반 대중(public) 혹은 전문가(specialist)들이 의견을 주고받는 영역으로서, 논의의 주제가 특별히 건물에 한정된 것들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하버마스의 ‘공론장(public sphere)’을 염두에 두고 설정한 단어로서, ‘논하는 영역’이라는 의미의 ‘-론장(論場)’을 차용해 옴과 동시에 공론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토론장으로 표현하였다. 공론장과 구분하는 까닭은, 토론장에서의 논의 주제가 특별히 건물에 한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였지만, 그 초점은 결국 건물을 만드는 작업장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이유로 특별히 ‘작업장’과 대구를 이루어 ‘토론장’이라고 표현하였으며, workshop에서 작업공간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shop’를 끌어와 ‘talkshop’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표현하였다.

즉, talkshop - workshop - craftsman 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연결 과정에서 말(talk)도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자 했다.

- 생산공간(生産空間, production space), 생산구조(生産構造, production structure), 생산과정(生産過程, production process)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용어인 ‘생산공간·생산구조·생산과정’, 즉 ‘생산’은 건물을 만드는 작업 전체를 말하며, 토론장과 작업장 모두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서 사용하였다.

생산공간과 생산구조는 시간의 개념과 특별한 관련이 없다. 즉, ‘생산공간’은 토론장과 작업장 모두를 아우르는 ‘영역’에 대한 개념이고, ‘생산구조’는 생산과 관련된 주체들이나 요소들의 역학관계에 대해 다룰 때 사용한다.

반면 생산과정은 시간의 개념이 포함된 용어다. 즉, 건물의 생산과정은 건물의 기획에서부터 설계와 시공을 거쳐 완공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제목인 ‘공공건축물 생산과정’은, 본 연구가 공공건축물이 기획되면서부터 완공되기까지의 시간적 범위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3) 즉, 토론을 통해 여러 사람이 건물을 완성해나가는 과정도, 숙련된 장인이 작업장에서 무엇인가를 제작하는 행위만큼 정교하며 숙련을 거쳐야 한다는 뜻을 담았다. 아렌트와 프램턴의 논의에 대해서는 2장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 공개성, 퍼블리시티(公開性, publicity)

publicity는 문맥에 따라 ‘공공성’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공개성’으로 번역되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 ‘공지성(公知性)’으로 번역하는 학자도 있다.<sup>14)</sup> 여기서는 ‘공개성’을 주로 사용할 것이다.

publicity는 ‘매스컴의 관심, 언론의 주목, 홍보’ 등으로 번역되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넓은 뜻을 가지고 있다.<sup>15)</sup> 영영사전을 보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로 공중(public)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정보나 행동’ 혹은, ‘뉴스 같은 매체나 공중이 어떤 것에 많은 관심을 보일 때, 그 어떤 것이 publicity를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등으로 풀이된다.<sup>16)</sup> 이진우와 태정호는 ‘인간의 조건’을 번역하면서 publicity를 대부분 공공성으로 번역하였다.<sup>17)</sup> 물론 공공성의 의미에 ‘공개되는 성질’, 즉 publicity가 포함되기는 하지만, 이것을 곧바로 공공성이라 번역하는 것은 공공성의 다의적 함의를 고려해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있다. 반면 한승완은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구조변동(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을 번역할 때, 주로 ‘공개성’으로 번역하지만 문맥에 따라서 ‘공공성’으로 번역하기도 한다.<sup>18)</sup>

그러나 publicity가 단순히 ‘공개’라는 우리말이 전달하는 의미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셸리그먼은 그의 논문 ‘세계화 시대의 건축적 퍼블리시티(Architectural Publicity in the age of Globalization)’에서 건축적 publicity를 주요한 3가지의 개념적 틀로 사용하였다.<sup>19)</sup> 그것은 첫째로 홍보, 즉 장소마케팅, 관광, 문화경제의

14) 임의영, "공공성의 개념, 위기, 활성화 조건," 『정부학 연구』, 9(1) (2003) : 23-50 참고

15) 네이버 영한사전(<http://endic.naver.com>), 사전의 출처는 Oxford Advanced Learner's English-Korean Dictionary

16) 네이버 영영사전, 사전의 출처는 Collins Cobuild Advanced Learner's English Dictionary  
풀이에 대한 원문은 다음과 같다. ①Publicity is information or actions that are intended to attract the public's attention to someone or something. ②When the news media and the public show a lot of interest in something, you can say that it is receiving publicity.

17) 이를테면, public의 의미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It means, first, that everything that appear in public can be seen and heard by everybody and has the widest possible publicity."를, "이 용어는 첫째, 공중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누구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며 그러므로 가능한 한 가장 폭넓은 공공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는 문맥상 ‘보고 듣는 것’ 위주의 의미를 지니므로 ‘공공성’ 보다는 ‘공개성’이 더 적합하다. 각각의 원문은 다음을 참고  
Hannah Arendt, *The Human Condition*,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8, p. 50  
Hannah Arendt, 『인간의 조건』, op.cit., p.102

18) 앞서 다루었지만, 하버마스는 공론장의 성격에 대해 논하면서 그것이 ‘공중에 열려 있음으로 해서 비판적인 공개성을 지녀야 함’을 주장했다.

19) Ari D. Seligmann, *Architectural Publicity in the Age of Globalization*, Diss. UCLA, 2008, Ann Arbor : UMI, 2008, p. 3

차원, 둘째로 공론장이 퇴락하고 민영화가 잠식해가는 상황에서 공적 지위를 지니는 건축으로서 공론영역에 대한 기여, 마지막으로 건축과 공중 사이의 매개체로서 진보적인 건축에 대한 공중의 관심이라는 의미다. 이렇듯 publicity가 넓은 의미를 포괄할 때는 발음 그대로 ‘퍼블리시티’ 라고 번역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그 의미를 본문에 바로 이어서 적어주었다.

• **공중(the public), 대중(mass, the public), 시민(citizen)**

세 가지 용어는 일반적으로 구분되나, 본 연구에서는 ‘공중’ 과 ‘대중’ , 그리고 ‘시민’ 의 의미에 특별히 차이를 두지 않고 문맥에 따라 다른 단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지칭하는 의미는 같다.

공중은 말과 행위를 통해 공론영역을 구성하는 일반 사람들을 말한다. 하버마스는 밀스(Mills)의 언급을 인용하여 공중과 대중(mass)을 구분하고 있다. 즉 대중이 대중매체(mass media)의 영향을 받아 의견의 다양성 없이 개인의 추상적 집합이 된 것이라면, 공중은 자율성을 지니고 실질적 의견을 표출하는 사람들이다.<sup>20)</sup> 그러나 대중을 mass가 아닌 the public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 역시 공중과 대중을 같은 개념으로 본다. 물론 이때의 영문표현은 the public이 될 것이다.

시민은 어원적으로 볼 때 정치공동체의 법적 구성원을 의미하며, 법적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은 당연히 정치공동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수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sup>21)</sup> ‘시민’ 역시 수동적이며 즉흥적인 ‘대중(mass)’ 과 구분하여 심사숙고하고 행동하고 공유하며 기여하는 주체로 설정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문맥상 대중(the public)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전제로 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자율적 주체로서 ‘시민’ 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할 것이다. 즉, 대중과 유사하되 특정한 테두리 안에 있는 공동체의

20) ‘우리가 이해하는 바의 공중에서는 ①의견을 수용하는 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의견을 표현한다. ② 공적으로 표현된 어떠한 의견에 대해서도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답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도록 공공적 의사소통이 조직되어 있다. ③ 이러한 토론을 통해 형성된 의견은-필요하다면-지배적 권위 체계에 대해서조차 대항해서 쉽사리 효과적으로 배출된다. ④ 그리고 권위적 제도들이 공중에 침투하지 않음으로써 공중은 다소간 자율적으로 활동한다.…… 대중에서는 ① 의견을 수용하는 사람보다 매우 적은 사람이 의견을 표현한다. 공중의 공동체가 대중매체로부터 영향을 받는 개인의 추상적 집합이 되었기 때문이다. ② 개인이 즉각적이거나 효과적으로 답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도록 지배적 의사소통이 조직된다. ③ 의견이 행동으로 실현되는 것은 이러한 행동의 경로를 조직하고 통제하는 권위에 의해 통제된다. ④ 대중은 제도로부터 자율적이지 못하다. 역으로 공인된 제도의 행위자들이 이 대중에 침투하여, 토론을 통한 의견 형성에서 이 대중이 가질 수도 있는 자율성을 제한한다.’ C.W.Mills, *The Power Elite*, N.Y. 1956, pp.303-304, Habermas, Jürgen, 『공론장의 구조변동』, 한승완 역, 파주 : 나남, 2001, pp.376-377에서 재인용

21) 이승중, 김해정, 『시민참여론』, 서울 : 박영사, 2011, p.60

구성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농촌과 같은 비도시화된 지역의 거주자들과 도시의 거주자들을 구분하는 의미는 포함하지 않는다.

- **담론(談論, discourse)**

담론의 사전적 의미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논의함’ 이지만, 여기에서는 사전적 의미보다 ‘특정한 철학이나 주제를 중심으로 응집된 말과 글의 집합’ 과 같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로 사용한다.<sup>22)</sup> 즉,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인적인 발화행위 각각은 담론이라고 칭하지 않으며, 담론이란 상호간의 의사소통과정을 거쳐 특정한 주제에 대해 여러 사람의 의견이 모인 것을 의미한다.

---

22) 담론의 사전적 의미는 네이버 국어사전 참고. <http://krdic.naver.com/>

## 제 2 장 분석 틀의 구축 : 토론장과 작업장

건축물을 만드는 것은 전통적으로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다. 건축가가 건물의 큰 개념을 정하여 평면을 그리면 구조기술자는 무너지지 않도록 기둥과 보의 두께를 조정하거나 다시 합리적으로 재배열하기도 한다. 토목기술자들은 건물의 하중을 가늠하여 공사과정과 완공 후에도 땅이 안정적으로 건물을 버티어 낼 수 있도록 책임지며, 기계와 전기 분야의 설비 전문가들은 쾌적한 빛과 열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는 동시에 온수 공급과 화재방지 등 건물의 신진대사를 담당한다. 또한 조정 분야에서는 건물이 외부환경과 조화롭도록 디자인하며 그 밖에도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하나의 건물을 완성해낸다.

그런데 사람들은 건물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을 해왔다. 과거 건물에 대해 오고가는 말들은 건물에 대한 느낌이나 편리함 혹은 불편함처럼 건물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것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런데 점차 생산의 조건들이 복잡해져가면서 윤리와 가치, 종교의 문제, 도시의 경제적 정책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과 관련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가 담론을 통해 어떻게 작업에 영향을 주고받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상정한 개념이 바로 ‘토론장’이다.

따라서 2장에서는 3장부터 진행될 본격적인 사례 분석에 앞서, 토론장과 작업장으로 이루어진 분석의 틀을 구축해 본다.

우선, 왜 생산과정에서의 토론장이 오늘날 더 중요하게 되었는지를 다룬다. 이것은 현상과 이를 다루는 이론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여 토론장의 중요성을 인지함과 동시에 복잡해진 생산조건을 말할 때 거론되는 요소들에 대해서 언급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토론장이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본다. 설정한 구조의 검증은 3장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지만, 여기서는 이론적 성과와 다른 영역에서의 사례를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작용에 대해 예측해본다. 토론장과 작업장은 단순히 이분화 된 영역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미디어의 작용, 정치적 개입 등 제작을 둘러싼 복잡한 생산조건을 드러내는 하나의 틀로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 2.1. 토론장과 작업장의 현대적 위상

2.1장에서는 토론장과 작업장의 현대적 위상을 알아본다. 이를 위하여 우선 토론장이 드러나는 과거의 대표적 생산공간들을 살펴볼 것이다. 각 생산공간에서 논의되었던 담론들의 범위와, 비슷한 시기에 다루어졌던 이론적 논의들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과거 생산공간에서의 토론장과 작업장의 위상을 가늠해본다. 그리고 현대의 변화된 생산조건들이 이러한 생산공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확장시키는지 살펴봄으로써, 토론장과 작업장이라는 틀로 건물의 생산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왜 오늘날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해 논의해 본다.

### 2.1.1. 과거 생산과정에서의 토론장과 작업장

#### (1) 표현과 수용의 문제를 다룬 토론장

건물의 생산과정에서의 토론장은 과거부터 특정한 문제들을 둘러싸고 종종 형성되어 왔으나, 생산의 조건이 복잡해진 오늘날에는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과거와 현대는 어떻게 다를까? 우선, ‘로스하우스’는 100년 전인 20세기 초의 토론장에 대한 좋은 예가 된다.



[그림 2-1] 1911년 로스하우스 완공 당시의 주변 건물. 맨 우측이 로스하우스  
(출처 : Christopher Long, The Looshaus, 3장의 사진을 이어붙임)

아돌프로스(Adolf Loos)는 1910년에 저층부의 상점과 상층부의 주거로 구성된 ‘로스하우스(Looshaus)’를 설계하게 된다. 당시 오스트리아의 빈에서는 주요한 건물들이 현상설계경기를 통해 진행되었고 로스하우스도 예외는 아니었다. 문제는 전통적 양식의 입면으로 설계한 주변 건물들과 로스하우스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이었다. (그림 2-1)



설계가 진행되면서 계획안이 알려지자, 시민들로부터 항의가 빗발치게 되었다. 신문에서도 삽화와 함께 비평을 게재하였다. 신문 *Illustrirtes Wiener Extrablatt* 에서는 ‘로스는 하수구 뚜껑을 바라보고 영감을 얻었을 것(그림 2-2)’ 이라고 하면서 로스하우스를 풍자하였다.<sup>1)</sup>



[그림 2-2] 1911.1.1 신문의 만평 (출처 : The Looshaus)



[그림 2-3] 공사 중인 로스하우스의 사진에 화분받침대를 덧대어 그린 로스의 입면 스케치 (출처 : The Looshaus)



[그림 2-4] 1911.12.11에 열렸던 시민 공청회 포스터 (출처 : The Looshaus)

시 당국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었으며, 지속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로스에게 ‘너무 단순한’ 건물 입면을 수정하도록 했다(그림 2-3). 결국 일부 창문의 하단에 화분받침을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으며, 여기에 대한 일련의 사건은 지금도 20세기 근대건축사의 주요한 사건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근대건축사(history of modern architecture)에서는 로스하우스를 다룰 때 20세기 초기의 장식과 근대성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 건물은 근대성(modernity)의 문제 이외에 근대건축에서의 시민과의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사건이다.

1911년 가을에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도 비판이 계속되자, 로스는 같은 해 12월 11일에 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공청회를 열었다. 모임을 알리는 포스터(그림 2-4)가 제작되고 수천 장이 인쇄되었으며, 공청회 당일, 시에서 가장 큰 규모였던 2,700석의 홀은 시민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두 시간 동안 열린 공청회에서 로스는 직접 대중 앞에 나서서 건물에 대해서 설명해나갔다.

로스는 현상설계의 내용으로 연설을 시작하였는데, 다른 응모안들과 달리 저층 부를 거리로부터 한 켠 물러나게 하여 지층레벨의 공간을 확보하였다는 장점을 강조하

1) Christopher Long, *The Looshaus*, New Heaven and London : Yale University Press, 2012, pp.106-107

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건물의 재료, 저층부와 상층부의 창문 배열이 다른 이유 등 왜 건물이 그렇게 설계되었는지에 대해 차례차례 자세하게 설명해 나갔다. 마지막으로 로스는 어떻게 건물 입면이 빈의 디자인과 어울리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로스는 자신이 설계한 카페뮤지엄(Café Museum)에서 사람들이 미국적 요소를 찾으려 했던 것을 예로 들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물에서 먼 나라의 특이한 디자인요소를 찾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은 다른 곳이 아닌 빈의 오래된 커피하우스의 요소들을 차용하였고, 그것들로부터 ‘진정으로 현대적인 스타일(the truly modern style)’ 을 추구하였다고 주장했다.<sup>2)</sup>

로스가 제시한 근대건축의 전망이 옳았는가 아니면 시민들의 목소리가 중요한 것인가를 평가내리기보다 완성된 건물을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보자. 이때, 건축가의 의지와 대중의 비판적 담론, 그리고 심의주체인 시 당국과의 협상이 오고가면서 이루어진 최종적인 건물의 입면은 1910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벌어졌던 생산공간의 한 단면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 생산공간에서의 토론장은 근대건축운동, 건물의 외관이 지니는 공적 성격, 건물 앞의 광장, 공청회에 운집한 대중의 관심, 현상설계, 빈의 전통적 파사드, 미디어의 비평과 같은 물질적 세계와 담론의 세계를 드러내고 있다.

1981년, 리차드 세라(Richard Serra)의 휘어진 호(Tilted Arc)가 ‘건축 속의 미술 프로그램(Art-in-Architecture Program)’ 의 일환으로 뉴욕의 로어맨하탄에 위치한 연방정부 건물 앞의 광장에 설치되었다.<sup>3)</sup> 광장을 길게 가로지르는 코르텐 철판은 6년간 지속적 논란과 소송을 거쳐 다른 곳으로 이전되었다.<sup>4)</sup>

당시에도 국제적 명성을 지녔던 세라는 1979년 9월에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고 작품을 만든 후, 일체의 소유권을 미국정부로 이양하였다. 1981년 완성된 작품은 길이 36m, 높이 3.6m의 긴 철판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광장을 가로지르면서 보행과 시야를 제한했던 이 작품은, 주민들과 건물에서 근무했던 연방공무원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혔다. 결국 1985년 3월에 조달청 주재로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는 리차드 세라를 포함한 예술가, 시민대표 및 시민, 연방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

2) Ibid., pp.152-155

3) 지금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조달청이 도입한 ‘건축 속의 미술프로그램(Art-in-Architecture Program)’ 은 연방정부가 새 청사를 건립할 때 건축비의 0.5%를 공공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한 규정이다.

4) 여기에 서술된 ‘휘어진 호’ 에 대한 내용은 다음 글의 내용을 참고하여 요약한 것이다. 양현미, “예술에서 <퍼블릭>개념의 변화에 대한 고찰 : 공공미술을 중심으로,” 『공공성 :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접근』, 파주:미메시스, 2008 : 257-282



[그림 2-5] 뉴욕 맨하탄의 연방정부 건물 앞에 설치되었던 리처드 세라의 휘어진 호(Tilted Arc)  
(사진 : David Aschkenas / 출처 : www.daschkenasphoto.com)

다. 공무원과 주민은 작품이 아름답지 못한데다가 광장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항의했고, 세라와 예술가들은 작품의 가치와 예술가로서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이에 대응했다.

조달청장은 공청회가 끝난 후, 작품이 광장의 사용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이전 결정을 내렸고, 이에 맞서 세라는 조달청을 상대로 표현의 자유 침해 및 다른 이유를 근거로 제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세라의 소송을 기각했는데 주요한 근거로서, 표현의 주체는 작품의 소유권을 지닌 정부라는 점, 이전의 근거가 작품내용이 아니라 광장사용에 대한 것이었다는 점, 이미 6년 동안 충분한 표현의 기회를 누렸다는 점을 들었다.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이 사건은 여러 가지 논쟁으로 지속되었다. 세라는 인격권(moral right)을 문제 삼으면서 예술가로서의 권리에 대해 말했고, 매체에서는 예술의 품위(decency)를 거론하면서 세라의 작품이 ‘공공의 품위를 침해’ 했다고 비판했다.<sup>5)</sup> 그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인 여파가 도달한 곳은 바로 발주처였던 조달청이었다. 이 사건 이후로 조달청은 ‘건축 속의 미술 프로그램’의 절차를 변경했다. 작품 의뢰 전에 지역사회 의견 수렴하도록 했고, 심사위원회 지역 주민을 포함시켰으며, 작가에게는 작품제작에 앞서 주민들을 만나보도록 했다. 또한 미술가와 조달청과의 계약도 세세한 사항까지 명시하도록 변화되었다.

이 사건 역시 80년대 초반의 미국 공공미술의 생산공간을 드러낸다. 예술로서의 작품성과 실제 공간에 설치된다는 점에서의 실용적 측면이 같이 고려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생산공간은 이후의 제도와 공공미술의 개념을 변화시켰다. 즉, ‘공공미술’이란 것이 단순히 공공공간에 설치되는 것뿐만 아니라 선정 과정에서의 ‘공론장(public sphere)’을 포함하도록 재정의 되었으며, 제도적으로도 그러한 절차를 포

5) 양현미, op.cit., pp.278-280

함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건물이나 조각에 대해 대중적으로 오고간 담론은 실제 만드는 작업에도, 혹은 이후의 제작에 영향을 미쳐왔다. 그런데 지금의 관점에서 보자면 과거 생산공간의 토론장에서 다룬 주제들은 건물 자체에 대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즉, 작가의 성향이나 작품의 공간적 영향과 이에 대한 대중의 의견 사이의 문제에 한정되었다. 물론 로스하우스의 경우 근대건축의 태동기로서의 의미가 있고, 휘어진 호의 경우 그 사건을 계기로 ‘공공미술’ 전체가 재 정의되었지만 사건 자체의 갈등 구조는 작가와 대중 사이의 문제에 한정되었던 것이다.



[그림 2-6] '결론 단계에 들어선 부여박물관 건축 양식' 기사에서 상단 사진이 부여박물관, 하단이 일본의 신사 (출처 : 네이버 뉴스아카이브, 동아일보 1967.09.14. 5면)

1967년 김수근의 부여박물관은 건물이 거의 지어질 무렵 형성된 토론장을 통해 대중담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진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례다. 일본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김수근이 설계한 부여박물관의 외형이 일본 신사의 입구를 닮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각종 일간지 상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문제제기와 비평이 게재되었다.

결국 부여박물관을 위한 건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다.<sup>6)</sup> 이들은 현장 답사 후 이루어진 토의 끝에 '일본적인 감각을 풍기는 인상이 없지는 않으나 정형적인 일본의 신사건축은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설계자가 일부 고치도록 권고하는 선에서 사건을 일단락 지었다.<sup>7)</sup>

건축계 자체적으로도 좌담회를 열어 의

6) 심의위원은 다음과 같다. 건축가 이정덕, 윤장섭, 윤일주, 김정수, 정인국, 박춘명 / 평론가 이어령, 이경성, 임영방 / 학계 김두중, 이병도, 김용덕, 황수영, 김원룡, 진홍섭, 김재원, / 미술계 김경승, 김기창, 김영주, 김세중, 임응식

“결론단계에 들어선 부여박물관건축양식,” 동아일보, 1967.09.14 : 5면

7) “일본감각 없지 않다,” 동아일보, 1967.09.16 : 7면

견을 공론화했다. 1967년 9월 12일에 예총회관에서 열린 한국건축가협회의 세미나에서 김수근은 직접 작품을 설명했다. 이어진 발표자였던 원정수는 ‘일본에서 배우고 돌아와 쏟는 시기의 작품이라고 작가를 이해하는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 며 외형뿐만 아니라 내용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중업은 ‘설계도를 보면 일본인만이 가질 수 있는 디테일이 너무나 많다’ 고 비판했으며, 송기덕은 ‘양식문제가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정문이 왜색에 가깝다는 것은 부인 못할 것 같다’ 는 중립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 사례는 건물이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담론이었지만 한 달간에 걸쳐 미디어에 보도되었던 담론들은 양식과 외관으로서 건물을 대하는 문제, 왜색이라는 역사적 기억과 관련된 문제, 건축계 자체적 담론의 부족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을 포괄하면서 전개되었다.

그러나 로스하우스나 휘어진 호와 마찬가지로 부여박물관의 사례에서도, 토론장에서 다른 담론의 범위는 건축가의 표현과 대중의 반응이라는 영역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김원은 사건이 일단락된 후 건축전문지를 통해 이에 대한 글을 기고했으나, 이 역시 건축 지식인으로서의 비평에 대한 의무와 역할에 한정하여 다루었다.<sup>8)</sup>

## (2) 이론적 논의

토론장의 범위가 건축 표현에 대한 영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은 당시의 생산 공간을 이루는 요소들, 즉 건축가, 자본, 건물이 영향을 미치는 지리적 범위 등이 비교적 한정된 범위 안에서 구성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생산공간의 조건은 당시의 이론적 논의에서도 반영되어 드러난다.

‘제작(work)’ 이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작업장에 한정된 행위였다. 장인(匠人)으로서 얼마나 세련되고 정교하게 만들어낼 것인가, 근대가 깊어진 대량생산이라는 당위 속에서도 어떻게 수공예적 정신을 담아낼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근대건축의 역사에서 다루어지던 주제였다. 60년대 이후 건축이 다양한 학문들과의 관계를 통해 그 영역을 넓혀가면서 다른 학문을 접목한 이론적 해석에 과도하게 치우치는 경향이 만연하게 되자, 프램턴(Kenneth Frampton)은 ‘건축의 언어로 건축에 대해 논하자’ 고 하면서 ‘텍토닉(tectonic)’ 이라는 수공예적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기

8) 김원, “건축비평의 보편적 당위,” 『공간』, 10 (1967)

도 했다.<sup>9)</sup> 텍토닉이란 기술적 구축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프램턴은 건물을 다른 학문의 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실체 그대로를 다루어야 한다고 설파한다. 그는 ‘텍토닉’을 거론하면서 건물이 축조되는 과정에 주목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재가 쌓이고 결합되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지, 생산의 의사소통과정은 아니다. 즉, 그는 건물에 대해 말을 하지만, 그것은 생산단계가 아닌 완공 이후의 총체적 결과로서의 건물에 한정되어 있다. 건축의 역사에서 누적된 건물에 대한 ‘말’은 대부분 완공 이후의 결과물에 집중되어 있다.

건축이라는 영역에서 물리적 실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프램턴의 생각에 동의한다면, 그의 주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가 ‘텍토닉(tectonic)’처럼 물리적 실체를 강조하는 주요한 이론을 펼쳐나가게 된 뿌리에는 1979년의 글, ‘인간의 지위와 그의 사물들의 지위 : 인간의 조건에 대한 독해’가 자리 잡고 있다.<sup>10)</sup> 여기서 그는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이론을 건축으로 바꾸어내면서 ‘작업(work)’의 중요성을 강조한다.<sup>11)</sup>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아렌트의 이론에 대해 알아보자.<sup>12)</sup>

‘인간의 조건(1958)’에서 한나 아렌트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활동적 삶(*Vita Activa*)’이란 노동(labour), 작업(work), 행위(action)의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했다. 우선, ‘노동’은 과거의 노예가 하던 일처럼 삶의 필수재를 공급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이다.<sup>13)</sup> 이러한 노동은 반복적이며 소모적이기 때문에 사물의 사물다운 사용가치를 강조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성과 가치를 지닌 사물을 생산해내는 ‘작업’으로 극복해내야 한다.<sup>14)</sup> 그러나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사물 또한 다른 것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버린다. 그리고 이것을 극복할 수

9) Kenneth Frampton, "Rappel à l'Ordre : The Case for the Tectonic," *Architectural Design*, 60(3/4) (1990) : 19-25, p.21

10) Kenneth Frampton, "The Status of Man and the Status of his Objects : A Reading of The Human Condition," *Modern Architecture and the Critical Present*, Ed. Kenneth Frampton, London : Architectural Design, 1982 : 6-19

11) 'work'에 대한 '작업'이라는 번역어는 아렌트의 이론에 대한 일반적 번역을 존중하여 그대로 사용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작'과 '작업'은 문맥상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12) 케네스 프램턴의 글을 한나 아렌트와 이어주는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 까닭은, 프램턴의 저술들이 건축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력을 끼쳐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스스로가 자신의 저술들을 한나 아렌트와 강하게 연결 짓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프램턴은 2002년에 그 간의 대표적 저술들을 선별하여 출판한 'Labour, Work and Architecture'의 서문에서 1969년 이후로 쓴 자신의 모든 글은 아렌트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의 제목 또한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에서 다루었던 세 가지인 'Labour, Work and Action'에 대한 오마주이기도 하다.

13) Hannah Arendt, 『인간의 조건』, 이진우·태정호 역, 파주 : 한길사, 1996, p.138

14) Ibid., p.194

있는 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다른 것의 매개 없이 이루어지는 ‘행위’ 즉, 행위와 말의 상호연관능력이다.<sup>15)</sup> 행위와 말의 경우는 노동과 작업처럼 다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 자체가 바로 목적이 된다.

이렇게 아렌트가 ‘말과 행위’를 강조한 것은, ‘인간의 조건’을 집필하게 된 동기가 바로 1950년대 말 경 냉전이 가속화되면서 ‘작업’을 통해 만들어낸 핵무기가 인류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sup>16)</sup> 아렌트는 ‘영속적인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서 소비해버리고 끝나는 것, 즉 농사와 같은 일을 ‘노동’이라고 지칭하며 인간이 극복해야 할 조건으로 보았다. 그래서 ‘작업’을 통해 만들어 내는 생산품은 인간보다 오래 지속하게 되며, 그래서 이렇게 오래 지속하는 사물을 보다 가치 있게 만들어, 그 사물들로 이루어진 세계를 보다 유용하고 아름답게 하려는 동기가 노동의 단계보다 인간을 더 고차원적인 지위로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sup>17)</sup> 그런데 문제는 다시 발생한다. 이를테면, 인간은 제작에 몰두하여 ‘핵무기’를 만들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말과 행위를 통한 담론’이 부족했다. 그래서 실제로 투하된 핵폭탄은 많은 인간의 생명을 앗아갔으며, 당시(1958년)에도 인류는 끊임없는 종말의 위협을 안고 살아가야 했다. 아렌트는 이렇게, 제작인의 특성상 만들어내는 것 자체에만 몰입하게 되어 무시무시한 존재를 만들어내는 상황을 ‘제작인이 처한 곤경’이라고 진단했으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작인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줄 ‘말과 행위’였던 것이다.

그런데 프래머튼이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제작인, 즉 인간의 조건에서 두 번째 단계에 해당했던 ‘작업’을 수행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이었다. 그는 아렌트의 논지대로 노동과 대비시키며 작업을 강조하는데, 그렇다고 아렌트가 했던 것처럼 작업의 부족한 점을 강조하면서 말과 행위의 단계로 나아가지는 않는다. 건축 영역의 학자인 프래머튼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작업(work)’이기 때문이다.

프래머튼은 분업이라는 것이 작업을 단순 노동으로 전락시키고, 노동이 수반하는 생산-폐기의 프로세스는 소비의 사이클을 가속화시켜 교환적 가치의 득세를 가져온다고 말한다.<sup>18)</sup> 물론 이것은 아렌트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지점이다. 그런데 프

15) Ibid., p. 312

16) Ibid., pp.52-53 그리고 Richard Sennett, 『장인』, 김홍식 역, 파주 : 북이십일, 2010, pp.13-21  
참고

17) Hannah Arendt, op. cit., pp. 271-273

램턴은 거기서 말과 행위로 나아가지 않고 작업 자체를 다시 고찰한다. 프램턴은 ‘작업’의 문제를 새롭게 설정하는데, 그것은 바로 작업의 내부에서 생기는 ‘생각하는 일’과 ‘짓는 일’ 사이의 괴리다. 이것은 곧 예술과 기술의 분리로 이어지는데, 기술은 합리성의 권위에 기대고 예술은 노동하는 사회에서 고유의 가치를 상실하고 노동 중간의 여가활동, 즉 유희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후에 프램턴이 기술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텍토닉(tectonic)’이라는 해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sup>19)</sup>

프램턴이 아렌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말과 행위’를 다루지 않은 것은, 그가 생각한 건축은 말과 행위처럼 의사소통의 영역이 아니라 작업이 다룰 수 있는 물질적인 영역이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글의 곳곳에서 아렌트가 언급한 말과 행위에 대한 내용들이 발견되는데 원 글의 맥락은 탈색시키고 있다. 이를테면 ‘인간의 세계(human artifice)는 말과 행위에 적합한 장소가 되어야만 한다’고 아렌트가 언급한 부분을 인용해오는데, 원문에서 이 부분은 <3장. 작업>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인간의 세계에는 노동과 작업 모두 그 곳에서 만물의 척도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하는 대목이다.<sup>20)</sup> 그러면서 3장이 끝나고 ‘행위’를 설명하는 4장이 시작된다. 그런데 프램턴은 인용할 때 노동과 작업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은 제외하였던 것이다.

즉, 프램턴은 ‘인간의 조건’을 독해하면서도 ‘노동’과 ‘작업’의 대비에만 한정된 채 ‘말과 행위’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공론영역(public realm)’을 언급하면서도, 담론의 공간을 물리적인 공간과 별도로 분리하여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다. 그는 ‘공적으로 드러나는 공간(the space of public appearance)은 20세기에 와서도 공론영역(public realm)을 담아낼 수 있다’고 말하는데,<sup>21)</sup> 이것은 기념비와 광장과 같은 ‘공적으로 드러나는 공간’을 만들면, 사람들은 그 곳에서 말과 행위와 같이 공적인 것에 관계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말과 행위는 이처럼 ‘최종적 결과물로 드러난 공간’에서만 가능한 것일까? 말과 행위에 대한 건축의 관계는 단지 ‘물리적으로 담아내는 것’에만 그치는

18) Frampton, Kenneth, "The Status of Man and the Status of his Objects : A Reading of The Human Condition," op.cit., pp. 12-13

19) Kenneth Frampton, "Rappel à l'Ordre : The Case for the Tectonic," op.cit., p. 19

20) 한나 아렌트가 인용된 부분은 다음의 원문을 참고.

Hannah Arendt, *The Human Condition*,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8, p.173

21) Kenneth Frampton, "The Status of Man and the Status of his Objects : A Reading of The Human Condition," op.cit., p. 7



것일까? 이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제작과정에서 대중의 담론을 염두에 두지 않아도 크게 무리가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혹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표현과 수용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었기 때문에 토론장의 담론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물론 프램턴도 ‘담론의 공간’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하기는 한다. 그는 글의 후반부에 ‘효과적인 정치적인 장(political realm)으로서 공공적으로 드러나는 공간을 재구성함으로써 과학과 기술의 자율적인 합리성을 증재해야 한다’는 하버마스의 말을 인용하기도 하고, ‘건축이 다른 가치들을 체현해낼 수 있는(representative) 역할을 하려면 정치적 의미의 공공영역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sup>2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에 있어서 건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있어서 물리적 공간을 만드는 것 이상을 제시하지 못하였다.<sup>23)</sup> 또한 ‘담론의 공간’을 제작 과정과 결부지어 다루었던 것도 아니다.

물론, 건축의 최종적 결과물은 물리적 공간이다. 그리고 과거에는 물리적 공간을 만들어 내는 데에만 집중함으로써 생산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생산의 조건은 점점 복잡해진다.

## 2.1.2. 변화된 생산조건 속의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 (1) 세계화와 복잡해진 생산의 조건

1980년대 말을 지나면서 소위 ‘세계화’가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진행된다.<sup>24)</sup>

22) representative의 번역은 ‘공론장의 구조변동’ 서문에서 역자의 해설을 참고하였다. 단, 역자는 ‘과시적’이라고 번역하였으나, 여기서는 풀어 쓴 의미에서 ‘체현 : 사상이나 관념 따위의 정신적인 것을 구체적인 형태나 행동으로 표현하거나 실현함.’이라는 단어가 문맥상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용하였다. Jürgen Habermas, 『공론장의 구조변동』, 한승완 역, 파주 : 나남, 2001. p.20 참고

23) 그렇다고 해서, 프램턴의 이론이 물리적 구축에서 그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이를테면 비판적 지역주의의 예로 든 박스베어드 교회(Bagsvaerd Church)를 통해 최종적으로 얻고자 했던 것은 ‘지역적 재확신’이라는 내면화의 차원이었다. Kenneth Frampton, "Toward a Critical Regionalism : Six Points for and Architecture of Resistance," *The Anti-Aesthetic : Essays on Post-Modern Culture*, Bay Press, WA, 1983, pp. 16-30 참고

24) 여러 가지 특징으로 서술되는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용어는, 1983년 발표된 레빗(Theodore Levitt)의 ‘시장의 세계화(The Globalization of Markets)’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레빗(Theodore Levitt)은 이 글에서 “기업은 지역과 국가간의 피상적인 차이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시장인 것처럼 운영하는 방법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하면서, 기업들이 앞으로 세계 시장 속에서 취해야 할 전략에 대해 설명한다. 그 글의 논지와 주장은 본 연구의 초점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 세계를 하나의 공동된 영향권으로 생각하는 개념은 다른 연구자들이 ‘세계화’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기본적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통화기금(IMF)이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인터넷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어 가면서, 사람·물자·정보는 국가나 지역의 경계가 무색할 만큼 끊임없이 실시간으로 이동하면서 정치·경제·문화적 요소들을 빠르게 뒤섞어버렸던 것이다.

세계화의 시대의 이동성(mobility)이 과거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다. 다만, 교류의 속도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라지고 국가 간의 경계도 점차 좁아지고 있다. 지방자치정부라는 정치적 분권 조직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거대도시(mega-city)가 되고 있는데, 관광객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 혜택과 편의 시설 제공을 통해 국제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요를 끌어들이는 것은 도시의 재정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일시적 거주자인 관광객과는 달리 해외로부터 노동력이 유입되면서, 음식이나 여가활동과 같은 문화, 그리고 그 활동들을 수용하는 공간들도 관광 중심지가 아닌 일반 거주지 안에 자리를 잡는다. 인터넷이라는 실시간 매체의 영향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건축 역시 세계를 관통하는 자본주의의 흐름의 한 복판에 있다. 흔히 ‘빌바오 효과(Bilbao Effect)’로 알려진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은 스타건축가의 건축물로 낙후되어 가던 도시를 성공적인 관광도시로 변모시킨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그림 2-7]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출처 : <http://www.guggenheim-bilbao.es/>)

바스크 지방정부와 구겐하임 재단 사이에 미술관 건립 계약이 성사된 것이 1994년, 그리고 미술관이 문을 연 것이 1997년 10월이다. 그런데 1년만에 140만명이 미술관을 다녀갔으며, 2000년대 중반에 투자금액을 모두 회수하였고 실업률이 증가해가던 빌바오의 지역 고용에도 높은 기여를 했다.<sup>25)</sup> 물론 스페인 내부에서의 관광객 이동도 많았지만, 해외로부터 유입된 방문객 또한 1998년에 27%였으며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에는 60%(57만명)에 달한다.<sup>26)</sup>

자세한 것은 다음의 글 참고. Theodore Levitt, "The Globalization of Markets," Harvard Business Review 61(03) (1983) : 92-102

25) Donald McNeill, *The Global Architect : Firms, fame and urban form*, New York & London : Routledge, 2009, p.90

26) Gerardo Del Cerro Santamaria, *Bilbao : Basque Pathways to Globalization*, Amsterdam & Boston : Elsevier, 2007, p.119에서 참고한 수치를 재가공 함. 수치의 원 출처는 Guggenheim

주로 경제적 효과에 주목하여 다루어지는 빌바오구겐하임은 단순히 스타건축가라는 단편적 요소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보다 복잡한 생산 조건 속에서 만들어졌다. 스페인 내부에서 정치적 입지를 확대시키고 세계적인 무대로 한걸음 나서고자 하는 바스크(Basque)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재정적 위기를 맞아 해외로의 확장을 모색하고 있었던 구겐하임 측의 전략적 움직임,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진 계리의 독특한 디자인이 주요한 조건들이었다. 또한 기후가 온화하다는 점, 저가항공 노선이 추가된 시기와 미술관의 오픈이 잘 맞아떨어졌다는 점, 그리고 유럽에서 바스크 요리가 유명해지기 시작했다는 점들도 함께 한다.<sup>27)</sup> 물론 구겐하임 뮤지엄 뿐만 아니라 포스터(Foster and Partners)의 지하철, 칼라트라바(Santiago Calatrava)의 네르비온(Nervión) 강 다리, 스티어링(James Stirling)과 윌포드(Michael Wilford)의 교통환승센터 프로젝트 등이 함께 추진되었다는 점도 전체적 성공에 한 몫을 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담론의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다. 빌바오구겐하임은 성공적이었지만 사업진행 과정에서 기존 문화생산자들의 담론은 수용되지 못했던 것이다.<sup>28)</sup> 물론 도시를 오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스펙터클한 건물을 보는 것에 지친 사람들이 하나둘씩 소규모 문화시설을 찾아 나설 수도 있다. 그렇지만 연쇄적 효과를 확실하게 보증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사업진행과정에서 기존 문화생산자들의 담론을 담아내고 그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었더라면 빌바오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수혜자들뿐만 아니라 기존 구성원 모두가 상생하는 지역이 되었을 수도 있다. 변화된 생산의 조건에서 건물을 만드는 과정을 둘러싼 대중의 담론은 디자인의 문제를 포함하면서 동시에 보다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과거에 비하여 지역마다 크게 달라지는 특수한 생산조건들, 그리고 이러한 조건 안에 놓이는 이해관계자들과 대중이 만들어내는 담론은 20세기 초의 로스하우스, 60년대의 부여박물관, 80년대의 휘어진 호와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문제는 단순히 디자인과 디자인에 대한 실용적 측면, 혹은 대중의 미적 취향, 역사적 모티프

Bilbao Museum으로 표기되어 있음

27) Donald McNeill, op.cit., pp.81-85, pp.95-97 참고

28) 맥닐(Donald McNeill)과 모마스(Hans Mommaas)는 빌바오구겐하임을 만들어 낸 생산조건을 분석하면서 경제적 효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구겐하임뮤지엄이 들어서면서 기존의 도시조직과 어떠한 연결 관계를 가졌는지에 주목하였다. 구겐하임의 외형적 성공의 이면을 볼 때, 국제적 규모의 미술관과 미술품이 외부로부터 이식되었기 때문에 지역에 근거한 기존 문화생산자들은 자생적 기반을 이어나가지 못하였다는 문제점 또한 있었다는 것이다.

Donald McNeill, op.cit., p.96 참고

Hans Mommaas, "City Branding : The Necessity of Socio-Cultural Goals," *City Branding: Image Building & Building Images*, Rotterdam : Nai Publishers, 2002, p.38 참고

제 2 장 분석 틀의 구축 : 토론장과 작업장

의 차용과 같은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복잡한 계약관계, 정치적 야심,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실시간 단위의 피드백 등, 갈등구조는 관련 주체들 간의 서로 다른 목적 사이를 복잡하게 엮어둔다.

뉴욕·도쿄와 같은 정도의 국제도시를 목표로 하는 서울도 이러한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80년된 쇠락한 공설운동장을 허물고 ‘디자인서울’을 내세우며 자하하디드에게 설계를 맡긴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나 빌바오의 구겐하임미술관과 견줄 수 있는 도시의 명물”을 지향한다.<sup>29)</sup> 그런데 서울의 동대문은 나름대로의 특수한 생산조건에 놓여 있다. 인구 천만의 대도시, 도시브랜드, 부지를 가로지르는 성곽이라는 역사적 켜, 운동장을 둘러싼 개발과 보존의 이데올로기,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서울시장, 청계천 사업의 성공 등 빌바오와는 또 다른 조건들에 놓인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세계화 흐름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던 시기는, 대략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세계무대에 뛰어든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전후로 볼 수 있다. 이때부터 국제현상설계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표 2-1] 1980년대의 국제현상설계

일시	현상설계 주제	당선작	참가작
1983.05	아시아 선수촌 및 공원 등	조성룡, 문정일, 강기효	내국인 26점, 외국인 합동 2점, 재외교포 3점, 외국인 2점
1984.04	예술의 전당 및 강남문화 예술공원	김석철	내국인 3점, 외국인 2점
1984.11	한국종합무역센터	니켈 세케이(일본)	내국인 5점, 외국인 33점
1985.04	올림픽 선수촌 기차촌	황일인, 우규승	내국인 30점, 재외교포 합동 3점, 외국인 합동 6점

\* 출처 : 김희춘,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국제경쟁 현상설계,” 『대한건축학회』 30권 6호, 1986.11, pp.9-13 에서 발췌 요약

그런데 이 시기에 국제현상설계를 개최하였던 것은, “우리나라 건축문화 창달을 위하여 창작성이 높은 우수한 작품을 국제적으로 널리 모집하여 얻고자 하는데” 있었다.<sup>30)</sup> 물론 어느 시기의 어떤 국제현상설계라도 기본적인 취지는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나 참가작에서도 내국인의 수가 우세하고, 당선작도 내국인이 대부분이었던 것을 볼 때, 2000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국제현상설계와는 차이가 있다.

2004년에 서울시에서는 도심의 노후 지역인 세운상가 4구역에 대해 도시환경정비

29) Dongdaemun Design Plaza 홈페이지, DDP 사업개요 중 당선작 설명  
[http://ddp.seoul.go.kr/summ/compe\\_1.php](http://ddp.seoul.go.kr/summ/compe_1.php) 2011.05.03 접속

30) 김희춘,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국제경쟁 현상설계,” 『대한건축학회』 30(6) (1986) : 9-13, p.9

사업을 목표로 국제지명초청현상설계경기를 개최하였다. 참가자들은 국내사와 해외사의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졌는데, 리차드로저스, 저드, OMA, 피터 아이젠만 등 유수의 외국건축가들이 참가하였고, 여기서 코에터 김(Koetter Kim)+무영+동우의 컨소시엄이 당선되었다. 이 시기를 전후로 하여 외국건축가들을 지명하여 설계경기를 개최하는 일이 잦아졌는데, 특정 건축가들을 지명하였다는 점에서 이들은 단지 ‘외국건축가’가 아닌 ‘스타건축가’로서 초청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단지 ‘좋은 디자인’을 얻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름난 건축가의 스펙터클한 설계를 통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방문을 유도하거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자 했던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표 2-2]를 보면 MVRDV, 자하하디드, 스티븐홀 등 몇몇 건축가들이 여러차례 등장한다. 지명초청현상설계경기 이외의 일반국제현상설계경기의 경우에도 외국 업체와의 컨소시엄을 이루는 과정에서 지명도 있는 외국건축가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2012년 5월에 발표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각 건물을 설계하는 건축가들은 21개의 대형건물과 공원으로 구성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축가가 배제

[표 2-2] 2004년 이후 우리나라의 지명초청국제현상설계

연도	지명초청현상설계 주제	당선자	초청자 중 외국건축가
2004	세운상가 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Koetter Kim+무영+동우	Richard Rogers, Jerde Partnership, Machado&Silvetti, OMA, Terry Farrell, Von Gerkan, Peter Eisenman
2004	이화여대 캠퍼스복합단지	Dominique Perrault	FOA, Zaha Hadid
2005	부산시네마센터	Coop Himmelblau	Steven Holl, TEN Arquitectos, Heikkinen-Komonen, Erick van Egeraat, MVRDV
2005	판교지구 공동주택 국제설계경기_운중블록	PekkaHelin(핀란드)+아이아크(B5-1) 야마모토리켄+건원(B5-2) MarkMack(미국)+동우(B5-3)	Ben Van Berkel, Christine Hawley, MVRDV Michael Szyszkowitz+ Karla Kowalski , Ken Yang
2007	동대문 월드디자인파크 콤플렉스(DDP)	Zaha Hadid	Steven Holl, FOA+Farshid Moussavi MVRDV
2008	태권도공원 마스터플랜	Weiss & Manfredi	Andres Perea Ortega Diller Scofidio & Renfro
2009	서울 공연예술센터	DMP(국내사)	Morphosis
2009	용산국제업무지구 마스터플랜	Daniel Libeskind	SOM, The Jerde Partnership Foster + Partners, Asymptote Architecture
2010	서울 강남지구 디자인명품주거단지	A3 : Riken Yamamoto & Field shop + 최문규 + 가아 A5 : de Architekten Cie + 선진 엔지니어링 + 삼전나우	MVRDV
2011	가평 하우징 국제지명현상설계	NL Architect + Yo2(김영준)	MAS(Marina Stankovic and Tobias Jortzick), CAT(Kazuhiro Kojima),FOA

\* 출처 : 『설계경기』, 여러 권에서 추출하여 종합함

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sup>31)</sup>

이렇게 ‘스타건축가’ 들이 대규모사업의 설계를 맡는 일이 잦아지면서 새로운 문제점들이 생겨났다. 외국건축가들은 국내의 실정과 대상 부지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익숙하지 않은데다가 일반적으로 자신의 디자인언어를 강하게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특히 공공건축물일 경우 건물을 이용하는 것은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생겨날 가능성이 크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경우도 설계자인 자하하디드는 착공 때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만큼 주변 상황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그러나 서울성곽이라는 역사적 맥락과 동대문시장과의 관계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가 도시조직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힘든 조건들을 부과하고 있었다. 관련 주체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사업은 복잡한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인해 기획단계에서부터 각각의 맥락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소통의 창구를 지속시키지 않았으며 사업의 본격적 추진과 함께 상인들의 강제 이주와 같은 해결책을 선택하였다.<sup>32)</sup>

한편, 생산의 조건이 점점 복잡해지는 가운데, 대중의 시민의식도 점점 성장해왔다. 각종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여러 단체들이 결성되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마을만들기와 같은 자치 조직을 통해 자율적인 제도·공간적 실천을 행하여왔다. 국가 간의 경계에 구애받지 않는 ‘다중(multitude)’ 이 거론될 만큼 대중 또한 세계화의 영향을 받아 결성되고 조직되었으며, 이들은 서로 간에 정보를 교류하면서 도시 안에서의 다양한 실천운동을 모색해나갔다. 더불어 인터넷의 보급은 민감한 변화의 양상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대중의 담론이 피드백 되면서 상호소통되는 상황을 가능하게 했다. 담론은 예전보다 많이 생산되었고, 실천의 잠재적 에너지로 축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은 여전히 어렵다. 마을만들기처럼 도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담론과 참여활동은 직접적 실천이 가능하지만, 철근을 조립하고 콘크리트를 붓는 일은 여전히 전문가들의 몫이다. 그리고 1910년에 아돌프프로스의 디자인을 대중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스타건축가의 디자인과 대중이 지닌 안목의 간

31) 정임수, 구가인, “초고층 시공 세계1위 한국… ‘집안 설계’ 는 외국인 잔치,” 동아일보, 2011.11.19

32)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대해서는 3.2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극은 아직도 크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어느 쪽의 안목이 옳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의 간극이 크다’는 점이다. 대중은 건물을 즉흥적이고 피상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건물에 있어서 형태가 또 전부는 아니다. 건물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오고가는 대중의 담론은 디자인에 대한 이해라는 100년 전의 문제와 더불어 도시에 누적된 복잡한 조건과 세계화가 만들어낸 새로운 과제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 (2) 이론적 논의

세계화로 인한 복잡해진 생산조건에 대해 접근하는 관점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프램턴(Kenneth Frampton)이나 하비(David Harvey)는 세계화의 현상을 대할 때, 세계적(global)인 것을 보편적 동질성으로, 지역적(local)인 것을 고유한 특별함으로 다룬다.<sup>33)</sup> 전체 현상을 두 가지의 대립되는 성질로 나누고 그 변증법적 관계를 바라보는 입장이다. 이것은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이론이나 역사를 합리주의적 시각으로 대하는 태도와 연관되는데, 넓게 볼 때 우리는 아직 근대성(modernity)의 틀 안에 있다는 입장이다.<sup>34)35)</sup>

그런데 이러한 입장은 현실에 대해 강한 비판적 입장이 되기도 한다. 제작을 강조했던 프램턴은 세계화된 상황에서 지역적인 특성 없이 보편적 동질성만 만연한 건물, 그러면서도 수공예적 정교함 없이 스펙터클한 외관으로만 치장된 건물을 강하게 비판한다.<sup>36)</sup> 그는 빌바오이펙트를 ‘스펙터클한 이미지가 세계시장의 추동력을 만

33) 프램턴은 ‘비판적 지역주의’를 통해 이 문제를 1983년부터 자세히 다룬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 참고. 김승범, “케네스 프램턴의 비판적 지역주의가 지니는 한계점과 현대적 의의,”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7(8) (2011) : 217-224

그리고 프램턴의 원 글로서 다음을 참고. Kenneth Frampton, "Toward a Critical Regionalism : Six Points for an Architecture of Resistance," op.cit.

하비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에서 나타나는 공간과 장소의 개념을 참고. David Harvey, "공간에서 장소로, 다시 반대로 : 포스트 모더니티에 대한 성찰," 박영민 역, 『공간과 사회』 5 (1995) : 32-71

34) 여기서 말하는 ‘근대성(modernity)’이란, M. 칼리니스쿠가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에서 논하는 근대성의 의미에 가깝다. 즉, 특정한 역사적 시기를 지칭하는 근대가 아니라, 과거의 것을 계승하는 동시에 변화를 모색하는 변증법에 근거한 성질로서의 근대성을 말한다. 다음의 책에서 1장 참고. Matei Calinescu,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이영욱 외 역, 서울 : 시각과 언어, 1998

35) 프램턴은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은 근대의 프로젝트(unfinished modern project)’ 안에 있다고 했는데, 이 어구는 하버마스(Jurgen Habermas)의 대표적 주장 중 하나(일반적으로 영어권에서는 'unfinished project of modernity'라고 함),다. 프램턴의 언급은 다음을 참고. Kenneth Frampton, "On the Predicament of Architecture at the Turn of the Century," *Labour, Work and Architecture*, New York : Phaidon, 2002, p.18

36) 스펙터클한 건물에 대한 비판은 다음의 글 참고

Kenneth Frampton, "Introduction : The Work of Architecture in the Age of Commodification," *Commodification and Spectacle in Architecture*, 1st ed., Minneapolis : University of

들어 내는 것' 이고,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도시국가들이 경제적 자주권을 위해 경쟁하기도 하는, 관광객에게 맞추어져 있는 후기산업적인 상품문화' 라고 비판한다.<sup>37)38)</sup>

반면, 셀리그먼(Ari D. Seligmann)은 일반적으로 세계화라는 이슈가 건축에 있어서 보편성과 지역성의 논의로 초점을 가져가기 때문에, 국가의 경계를 가리지 않는 스타건축가의 스펙터클한 건물이 지역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 으로 다루어지는 한계를 지닌다고 지적한다. 그는 '스펙터클' 이라는 비판적 관점을 벗어나, 세계화 시대에 '퍼블리시티(publicity)' 를 지니는 건물이 가진 잠재성에 주목한다.<sup>39)</sup> 스펙터클이라는 개념이 대상을 표면적으로 평가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을 수동적으로 정의하는 것과 관계있는 반면, 퍼블리시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은 대중과 미디어의 관심이 집중되는 대상을 생산적 추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정의한다.

셀리그먼은 빌바오구겐하임, 시애틀공공도서관, 구마모토아트폴리스의 세 가지 사례를 다루면서 ① 건축적 생산과 건축의 영향에 있어서의 세계화의 충격 ② 퍼블리시티를 지닌 혁신적인 건축에 대한 공공의 후원에 집중한다. 즉, 건축은 관광을 증대시키거나 도시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며, 빌바오의 사례에서 지역커뮤니티의 고려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건축이라는 것이, 대중이 커뮤니티를 만들어내는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셀리그먼이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똑같이 대립의 관점을 지양하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동시에 상호구성되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도 있다. 라투르(Bruno Latour)를 비롯한 연구자들의 행위자그물망이론(Actor- Network theory)이나 네그리(Antonio Negri)와 하트(Michael Hardt)가 『제국(Empire)』에서 주장했던 바, 또는 스미스(Michael Peter Smith)가 『초국적 도시 이론(Transnational Urbanism)』에서 취하는 입장, 혹은 일련의 도시연구가들의 접근

---

Minnesota Press, pp. ix-xviii

37) Kenneth Frampton, "On the Predicament of Architecture at the Turn of the Century," op. cit., p. 9

38) 프램튼의 이러한 입장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문헌에 정리되어 있다. 김승범, op.cit.

39) 셀리그먼이 정의하는 퍼블리시티의 개념은 다음의 3가지다. ① publicity as promotion : 장소마케팅, 투어리즘, 문화경제의 차원 ② publicity as a state of being public : 공공영역에 대한 건축의 기여 ③ publicity as public interest : 건축과 공공 사이의 매개체로서 진보적인 건축에 대한 관심

Ari D. Seligmann, *Architectural Publicity in the Age of Globalization*, Diss. UCLA, 2008, Ann Arbor : UMI, 2008, p.3



에서 볼 수 있는 방법론들이 그와 같은 관점을 취한다.<sup>40)</sup>

하트와 네그리는 보편적 동질성과 국가·지역이 지닌 차별성 사이의 변증법적 싸움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 속해있는 ‘다중(multitude)’ 간의 싸움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sup>41)</sup> 다중은 특정한 부분을 공유하는 하나의 네트워크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엔지오(NGO)같은 단체나, 구겐하임(Guggenheim)처럼 다국적으로 걸쳐져 있고 서로 연결된 것들도 해당된다. 다중이라는 개념은 내부적으로는 다르게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공동으로 소통하고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sup>42)</sup> 이들은 현대의 생산조건을 구성하는 주요한 담론의 주체가 된다.

스미스는 하비나 프리드먼(John Friedmann)이 ‘공간과 장소’, 혹은 ‘글로벌과 로컬’처럼 사회를 이분법의 구도로 파악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여러 지역들을 가로지르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사례나,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에 영향을 주면서 전체적 질서를 변모시키는 사례들을 제시한다.<sup>43)</sup>

건축과 도시의 영역에서도 세계화의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례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올즈(Kris Olds)나 맥닐(Donald McNeill)과 같은 도시

40) 라투르는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하버마스(Jurgen Habermas)가 ‘끝나지 않은 근대의 프로젝트(unfinished project of modernity)’라고 주장한 것에 정면으로 반박한다. 근대의 기획이 ‘정화작용(purification)’에 의해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는 등 이분법에 의해 현상을 구분하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시작부터 여러 가지 상황들과 학문들이 얽힌 ‘하이브리드’가 동시에 존재해 왔다는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책을 참고. Bruno Latour,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홍철기 역, 서울:갈무리, 2009.(원저는 1991년). 정화작용에 대한 내용은 p.43 참고

라투르는 다수의 저술에서 경험적 연구를 통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계가 어떤 이분법적 대립항에 의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물과 같은 관계망 속에 있는 복합적 행위자(actor)에 의해 ‘상호 구성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 참고. Bruno Latour 외, 『인간·사물·동맹 :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사이언스』, 홍성욱 역, 서울 : 이음, 2010

혹은, 사례를 중심으로 엮은 다음의 책 참고. Wiebe E. Bijker 외, 『과학기술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가 : 자전거, 형광등, 미사일, 전기자동차, 항공기의 일생을 통해서 본 현대사회』, 송성수 편저, 서울 : 새물결, 1999

행위자그물망이론은 본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생산구조를 이루는 주체들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41) Antonio Negri and Michael Hardt, 『제국』, 운수중 역, 서울: 이학사, 2001

42) Antonio Negri and Michael Hardt, 『다중 : 「제국」이 지배하는 시대의 전쟁과 민주주의』, 조정환 외 역, 서울 : 세종서적, 2008, p.18 참고

43)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회 이론에서의 지구(global)-지역(local)의 이원성은 지역을 정체된 공간이자 존재론적 의미의 공간이면서 인격적 정체성(즉, ‘장소’)의 문화적 공간으로, 지구를 역동적 변화의 현장이자 의미의 탈중심화와 문화의 파편화/동질화(즉, 지구적 자본주의의 ‘공간’)의 현장으로 등치시키는 잘못된 대립에 기대고 있다..... 하비의 지역성의 융합, 하이테크적 존재론, 반동적인 노스텔지어, 파시즘은 이 두 가지 대립에 기대고 있다.”

Michael Peter Smith, 『초국적 도시이론』, 남영호 외 역, 서울:한울, 2010, p.270 참고(원저는 2001년 저술)

연구자들은 건축이나 도시가 ‘공간적 생산품(spatial product)’이라는 점에 동의 하면서 생산과 소비의 메커니즘 혹은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의 다양한 조건들을 분석한다.<sup>44)</sup> 올즈는 세계화가 단순히 모든 것들을 비슷하게 만드는 보편적 동질성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한다. 그리고 글로벌한 요소와 로컬한 요소들을 구분해내는 것보다 각각의 요소와 조건들이 어느 정도만큼 연결되어 있는지에 관심을 가진다.<sup>45)</sup>

마이클 구겐하임(Michael Guggenheim)과 소더스트럼(Ola Söderström)은 다른 연구자들과 함께 글로벌한 요인들이 건물과 도시 형태를 어떻게 다르게 만드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본, 사람, 아이디어, 이미지, 스타건축가의 다섯 가지 요소들이 글로벌하게 이동하는 궤적을 추적함으로써 사례연구를 진행한다. 소더스트럼은 지역 거버넌스의 변화, 유학에서 돌아온 젊은 건축가들, EU의 보조금, 작은 스케일에서의 공간적 실천 등이 이탈리아 시칠리섬의 팔레르모(Palermo)를 마피아들이 활동하던 도시에서 어떻게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변모시켰는지를 연구한다.<sup>46)</sup> 이스터링(Keller Eastering)은 북한과 같은 특수한 정치적 상황에서 만들어진 금강산 관광과 같은 공간적 생산물(spatial product)에 대해 학술적이라기보다 인터넷·TV와 같은 비 전통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비평을 시도한다.<sup>47)</sup>

이러한 연구자들이 건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적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매턴(Shannon Mattern)은 건물과 건물을 대하는 사람의 생각(idea 혹은 ideology)의 두 가지로 현상을 바라본다. 미디어 전공자인 매턴은 시애틀 공공도서관이 디자인되는 과정을 따라가면서 건물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관련 주체들 사이에서 오가는 의사소통을 다루는 학제 간 연구를 시도하였다.<sup>48)</sup>

44) Donald McNeill, op.cit., pp.1-3 참고

45) Kris Olds, *Globalization and urban change : capital, culture, and Pacific Rim mega-projects*, Oxford &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8 참고

46) Ola Söderström, "Forms and Flows in the Contemporary Transformations of Palermo's City Center," *Re-shaping Cities : How global mobility transforms architecture and urban form*, Ed. Michael Guggenheim & Ola Söderström, London & New York : Routledge, 2010, 189-209

47) Keller Eastering, *Global Architecture and Its Political Masquerades*, Cambridge : The MIT Press, 2005

48) 매턴의 연구는 다음을 참고.

Shannon Mattern, *Building Ideologies : A Case Study of the Seattle Public Library Building and Its Embodied Ideas, Ideals and Value*, Diss. NYU, Ann Arbor : UMI, 2002

특히, 그는 서문을 통해 ‘공공건축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이데올로기는 건축 디자인과정에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과정 자체에서 드러나고 논의되는 것’ 밝히고 있는데, 그가 연구에서 다룬 주요한 논제는, 본 연구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이라는 개념을 잡아가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해당 부분은 다음을 참고. Shannon Mattern, op.cit., p.4

그는 움베르토 에코가 ‘건축은 매스커뮤니케이션의 한 가지 형태’ 라고 한 말에서 출발하여 루이스 면포드, 케빈린치,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허버트 무상, 더글라스 켈보우, 지안니 바티모를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종합에 이른다.

요약하자면, 커뮤니케이션 학자들과 건축학자, 그리고 비평가들 사이에는 건축적 물체란 문화적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며, 건축적 물체는 이데올로기의 구체적인 구현이라는 기본적인 동의가 있다.<sup>49)</sup>

그리고, 연구의 주요 목적은 장소, 공공, 도서관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시애틀 공공도서관을 통해 어떻게 구성되고 관련 주체들 사이에서 협의되며 궁극적으로 어떻게 건물의 구체적 표현으로 드러나는지 밝혀내는 것이었다.<sup>50)</sup> 그는 도서관의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생산된 신문기사, 도면, 잡지, 공청회의 자료를 참고하고 관련자의 인터뷰를 통해 의사소통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건물을 짓는 것은 동시에 근본적인 이데올로기를 짓는 것을 의미한다’ 는 결론을 내린다.<sup>51)</sup>

비들러(Anthony Vidler) 역시 건축과 의사소통의 문제에 주목하였다. 비들러는 9/11이후 그라운드제로 재건 문제가 미디어에서 활발하게 다루어지는 것을 지적하면서, 건축이 공공영역에 대한 의사소통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sup>52)</sup> 이것은 프램턴이 같은 주제에 대해 응모안의 내용만을 비평하거나 미디어에 의한 전달이 시각으로 건축의 경험을 축소시킨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sup>53)</sup>

이제까지의 논의를 통해 많은 연구자들이 건물이라는 물리적 실체에 논의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요소와 의사소통의 문제 등으로 연구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가 연구의 틀로 삼는 ‘토론장’ 역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도 하다. 특별히 의사소통에 중점을 두는 까닭은, 의사소통이 앞서 말했던 다양한 사회적 요소들도 포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 과정에서의 구성원들은 특정 요소와 조건들의 대변자로서 의사소통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49) Shannon Mattern, op.cit., pp.3-4

50) 이에 따라 주요 연구의 목표를 ① 건축가들 사이에서의 이데올로기 ② 도서관 관계자(발주처)들의 이데올로기 ③ 공공의 이데올로기 ④ 세 주체들 간의 이데올로기가 협의되는 과정 ⑤ 최종적 설계안에서 구현되는 이데올로기를 밝혀내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Shannon Mattern, op.cit., pp.8-16

51) "Building Buildings also means building their foundational ideologies."

Shannon Mattern, op.cit., pp.415

52) Anthony Vidler, Redefining the Public Realm, *Hunch : the Berlage Institute Report No. 6/7*, Rotterdam : Episode, 2003, pp. 482-483,

53) Kenneth Frampton and Stan Allen and Hal Foster, "Stocktaking 2004 : Questions about the Present and Future of Design," *The New Architectural Pragmatism*, Minneapolis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7 : 101-135 p.119

## 제 2 장 분석 틀의 구축 : 토론장과 작업장

즉, 건축의 영역을 물질적 실체를 구축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일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담론의 장 또한 포괄할 수 있도록 시야를 확장하자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적 관점이다. 담론의 장이란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건축사업과 대중의 축적된 에너지가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 될 수 있다.

건축이 미학적이 아닌 정치적 실천일 때, 건축은 영웅적 대상이 아니라 물질적인 묘사(material narrative)가 될 수 있다. 건축은 더 이상 '사물'로서 디자인되면 안된다. 그보다 우리는 기술적이면서 주변과 관계 맺은 선택의 가능성 안에서 정치적인 프로세스를 디자인해야 한다.<sup>54)</sup>

스티븐 무어(Steven A. Moore)는 건축의 중요한 테마였던 기술과 장소를 주체와 객체가 분리된 근대적인 틀에서 인간과 사물들의 대등한 상호관계로 구성된 비근대적(non-modern) 틀로 위치시키면서, 삶을 강화하는(life-enhancing) 민주적(democratic) 재생산으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한다.<sup>55)</sup> 이 '민주적 재생산'이라 함은, 주변의 맥락과 역사적인 인과관계, 건물의 형태·재료, 사용자와 같은 모든 인자들을 함께 고려해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담론의 장이 이러한 복잡한 조건들을 각각에 관련된 주체를 통해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디자인서울'과 같은 목표를 수립하고 정책을 세워나가면서도 민선 시대에 정치적 생명의 위기라는 부담도 안고 있는 발주처로서의 공공기관, 짓는 일을 업으로 하면서 그 안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건축가,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에너지의 생산적 전향을 고민하는 대중에게 있어서 담론의 장이란, 21세기의 세계화된 현대의 생산공간의 일부로서 중요한 기회가 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건축 영역의 주체들에게 이러한 것을 고려하느냐 아니냐는 오늘날 필연적으로 부딪치게 되는 상황이다. 자본주의의 환경에서 주어진 고객에 최선을 다할 뿐인 '서비스업'에 머무를 것인가. 혹은 국제주의적 미국 건축의 정체성과 지역주의의 브랜딩이 결합하여 문화의 제국주의적 확산에 기여했던 과거의 사례를 답습할 것인가.<sup>56)</sup> 아니면, 프로세스와 제반환경의 역학관계를 이해하면서 담론의 장

54) Steven A. Moore, "Technology, Place, and Nonmodern Regionalism," *Constructing a New Agenda : Architectural Theory 1993-2009*, Ed. A. Krista Sykes, New York :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010, p.378

55) Ibid., pp.377-3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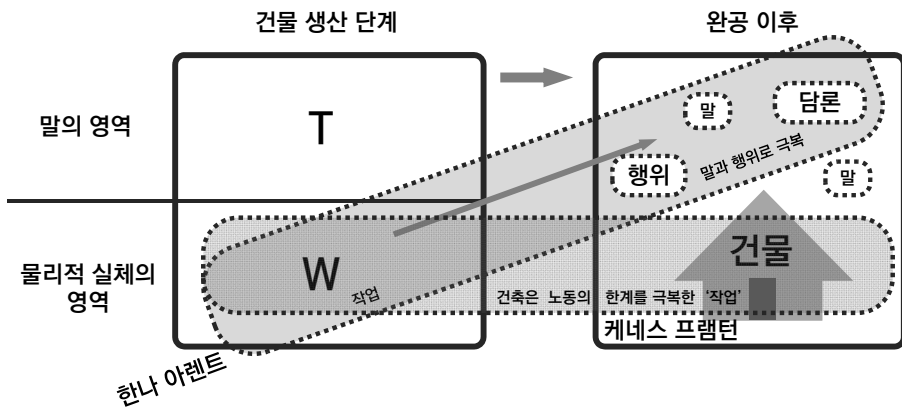
56) 리안 르페브르는 50년대 미국 국제주의 양식의 행보를 되짚으면서, 기디온이나 필립존슨처럼 국제주의 양식을 대표하던 사람들이 스스로를 지역주의자로 자처하던 것을 지적한다. 또한 AAB(미국의 해외건축 부서 건축 자문위원회)의 디렉터인 피에트로 벨루스키(Pietro Belluschi)가 건축가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외국의 사이트를 조사하고, 건설기술에 대한 경제적 해법을 도출하고, 지역의 민감성을 이해하라. 그리고 미국의 낙관주의를 전파하라" 이러한 기조는 해외의 사이트에 건설하는 미국의 대사관과 호텔에 반영되는데, 대부분 피상적 비유의 모티프만 적용시키고 지역의 미세기후는 고려하지 않아 역효과가

을 생산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마스터(master)로서의 건축가가 될 것인가.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 2.1.3. 생산과정에서 연관되는 토론장과 작업장

복잡해진 현대의 생산조건, 즉 여러 가지 사회적 요소들과 생산에 관련된 주체로서의 이해관계자들을 포괄하면서 생산과정을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써, 의사소통과 담론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것에 대해 이제까지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1장에서 제시(그림 1-1)하였던 토론장과 작업장의 도식을 통해 본 연구의 이론적 위상을 과거의 이론과 간략히 비교해본다.

1장에서 건축행위를 구분한 모형을 통해 아렌트와 프램턴의 이론을 도식화하여 이해하여 보자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아렌트는 작업(W)의 한계를, 작업 이후에 말과 행위로 극복하고자 한 것이고, 프램턴은 아렌트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던 말과 행위는 논지 상에서 생략한 채 ‘노동의 한계를 극복’ 하는 작업(W)과 완성된 실체로서의 건물의 영역에만 집중하고자 한 것이다.



[그림 2-8] 건축 행위 모형 - 아렌트와 프램턴의 이론 전개 방향

나타나는 등의 결과를 가져왔다. 다음을 참고

Liane Lefaivre, "Critical Regionalism : A Facet of Modern Architecture since 1945," *Critical Regionalism : Architecture and Identity in a Globalized World*, Ed. Liane Lefaivre and Alexander Tzonis, New York : Prestel, 2003 : 22-55, pp.31-33

## 제 2 장 분석 틀의 구축 : 토론장과 작업장

여기서 아렌트의 문제제기로 돌아가보자. 아렌트는 작업과정 이후에 그 결과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논하는 것이 말과 행위의 역할에 포함된다고 했다. 아렌트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건물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작업과정 이후뿐만 아니라 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sup>57)</sup> 그 이유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의 작업이란 과거와는 달리 복잡해진 생산의 조건들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잡해진 생산의 조건들은 그 조건의 영향을 받아 서로 다른 생각을 지니게 된 주체들 또한 포함한다. 그렇다면 작업 과정은 그와 관련된 여러 주체들의 생각, 그리고 그것을 표현한 말과 행위와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아렌트와 프래턴의 이론에서 언급되지 않은, 그러나 매턴과 같은 이후의 연구자들이 필요성을 제기한 사분면 모형에서의 T 영역을 의미한다.

즉, 말과 행위로 이루어지는 토론장이 활성화 되어 건물과 관계 맺는 것이, 건물이 만들어진 이후가 아니라 물리적인 건물을 만들어가는 생산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 이것은 건축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프래턴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과 같은 물리적 차원은 물론이고 ‘담론의 차원’을 통하여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건물을 만드는 과정은 작업장(W)에서 물리적으로 건물을 구축해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건물이 드러나는 공공의 영역에서 대중의 논의와 참여를 통해 그 존재를 확립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즉, 어떤 건물과 두루 관련된 구성원들이 서로 말로써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으로 행위 하는 과정 또한 토론장(T)에서 건물을 생산해내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잡해진 생산조건 안에서 관계 맺고 있는 토론장과 작업장의 현대적 위상이 된다. 현대의 토론장은 과거처럼 건물의 표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참여주체의 목소리를 통해 관련된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과 연결되면서 작업장에 영향을 주게 된다.

---

57) 리처드 세넷(Richard Sennett)은 ‘인간의 조건’에서 아렌트가 주장했던 바를 언급하면서, ‘개입은 그 전에 일찌감치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결과물이 만들어진 이후가 아닌, 작업의 과정 속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Richard Sennett, 『장인』, 김홍식 역, 파주 : 북이십일, 2010, p. 22

## 2.2. 토론장의 구조

토론장이 건축 행위 전반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관련된 이론들을 앞 장에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 장에서는 ‘토론장은 어떻게 구조적으로 구성되는가’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세부적인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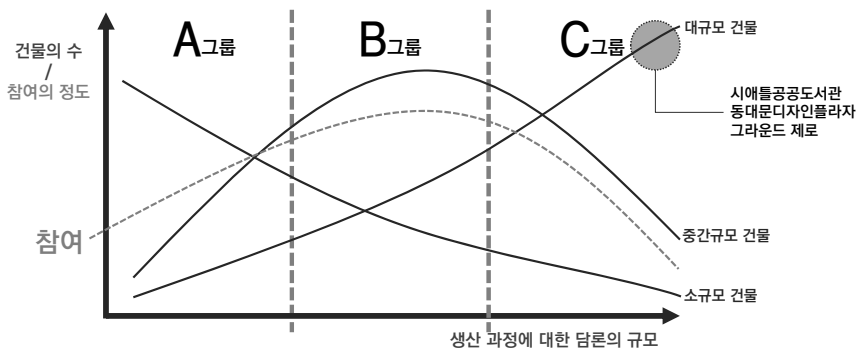
- ① ‘참여’와 ‘담론’은 포함관계인가? 아니면 다른 영역인가?
- ② 미디어는 작업장의 정보를 토론장에 알리는 기능 외에 또 어떤 역할을 하는가?
- ③ 주체들은 건축전문가와 비전문가로 구분할 때, 토론장의 전문가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 2.2.1. 포괄적 의미로서의 담론

#### (1) ‘참여’와 본 연구에서의 담론과의 차이점

이 장에서는, 토론장의 의사소통행위로서 담론과 참여는 어떤 현상에 대해 의견을 표출한다는 공통점이 분명히 있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토론장이 활성화 된 정도, 즉 담론의 규모에 따라 건물들을 구분한다면 아래 그림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A, B, C 그룹에 대해서는 서론의 연구 대상 선정 이유에서 설명한 바 있다.



[그림 2-9] 생산과정에 대한 담론의 규모에 따른 건물의 구분

일반적으로 ‘참여’라고 말할 때는, ① 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로서의 일반 시민에 의한 행위라는 점 ② 공공문제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 ③ 단

순한 인식이나 태도가 아닌 명시적인 행위나 활동이라는 점 ④ 정부에 대한 반대뿐만 아니라 지지 행위도 대부분 참여로 인정한다는 점 ⑤ 참여활동의 대상은 민간부문이 아닌 정부 부문에 대한 것이 보편적이라는 점들을 공통적으로 포함한다.<sup>58)</sup> 건축디자인 과정에서의 참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건물을 만들어낸다는 특정한 목적을 지니고 디자인에 참여하게 되며, 내부 프로그램 배치에 조언을 하거나, 투표를 통해 당선안을 고르기도 하고, 직접 평면과 배치도를 그려보기도 한다. 또한 특정 시설의 입지를 반대하기도 하며, 주요한 정책적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참여 이전에 담론이 형성되어야 하지만, 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생산주체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공식적인 의사결정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즉, 담론과 참여는 필연적으로 엮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정책적 결정이나 이에 준하는 계기가 있어야 담론이 참여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의 정도와 담론의 규모는 비례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규모가 커지면 담론의 규모는 대체적으로 증가한다. 건물이 커지게 되면 건물을 경험하는 사람의 수도 많아진다. 또한 물리적으로도 주변의 도시조직과의 연관성이 커진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람들에게 자주 노출 될수록 사람들의 반작용 즉, 사람들이 건물에 대해 말할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이것은 위의 그림에서 표현한 것과 같다.

그런데 참여의 정도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 자연스럽게 증가하지 않는다. 일단 참여가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연관된 사람들이 많을수록 합의에 이르는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크고 합의 자체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건물이 복잡해지면 내부의 공간 배치도 기술적으로 연관된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이 참여하여 결정하는 것은 점점 어렵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대규모의 건물보다는 마을 단위의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과 같이 중소규모의 건물들에서 참여가 활성화된다. 그것이 바로 서론에서 이들을 연구 대상인 C그룹과 구분하여 B그룹으로 묶었던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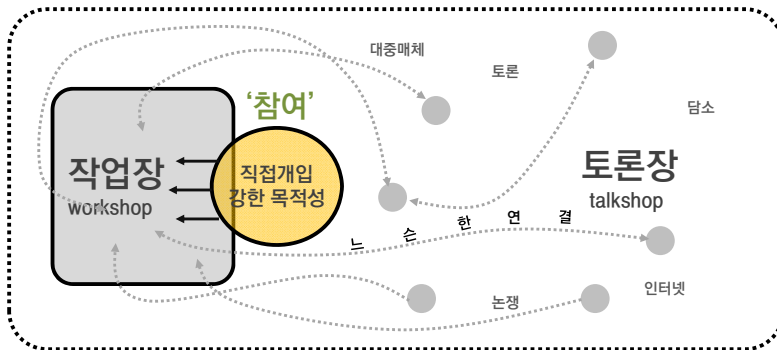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논증의 명료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즉, 담론은 참여를 ‘부분적으로’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며, 작업과정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

58) 이승중, 김혜정, 『시민참여론』, 서울 : 박영사, 2011, pp.58-59



는 발화행위까지도 포함한다. 다시 말하자면, 담론의 차원이란, 기본적으로 건물을 바라보거나 내부를 경험하는 사람이 ‘이 건축물이 마음에 든다/들지 않는다’ 라고 원초적인 의견표출을 하는 수준에서부터, 미디어를 통해 정제된 의견과 근거를 서술하는 것, 혹은 모여서 ‘어떤 건물이 우리 지역에 어울리는가’ 처럼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것까지도 포함한다. 그리고 하버마스도 ‘(의사소통에서) 더 나아가 공동으로 행위 하는 것’ 을 중요하게 생각했듯이, 말로써 이루어지는 담론이 특정한 작용을 통해 적극적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참여’ 가 된다.<sup>59)</sup>

담론이 참여를 ‘부분적으로’ 포괄한다고 한 것은, 참여를 토론장이 아닌 작업장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여’ 란 작업 주체의 일부로서 발언권을 지닌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참여 행위는 제작 과정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뚜렷한 목적을 지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참여행위가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선별된 인원을 중심으로 한정된 공간에서만 이루어지고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면 담론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기 힘들다.



[그림 2-10] 토론장과 작업장의 경계에 놓인 참여의 위상

이러한 ‘참여’ 의 위상을 도식화 하면 위의 그림과 같다. 그림을 통해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는 담론과 참여가 토론장과 작업장에 어떻게 관계되는지 볼 수 있다. 담론들이 작업장과 느슨한 관계를 가지거나 분산되도록 표현한 까닭은 단순한 의견표출의 경우 발화 행위 자체에 건물을 바꾸려는 목적성이 없는 경우가 많고, 다른 주제들과 엮이면서 작업장과는 관계없는 방향으로 발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업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도 담론은 참여만큼 중요하다. 예를 들어 현상 설계 당선자를 시민투표로 결정한다고 할 때, 한 표를 행사하여 나의 의견을 결과에 반영하는 ‘참여’ 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관점과 기준으로 그것을 선택했는가의

59) 하버마스의 언급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

사이토 준이치, 『민주적 공공성』, 윤대석·류수연·윤미란 역, 서울 : 이음, 2009, pp. 58-59

문제 또한 중요하다. 관점과 기준은 대화를 통해 주체 간에 오고가는데, 이러한 논의들이 만들어낸 담론이 또 다른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작업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여에 중점을 두는 연구가 제도의 법제화나 의사소통의 기술적인 면, 즉 ‘어떻게 효과적으로 개입할 것인가’ 의 문제를 주로 다루는 반면, 본 연구는 담론에 보다 중점을 두고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가’ 에 집중하여 분석할 것이다. 물론 담론의 연장선상에서 참여도 일부 다를 것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제도나 기술적 부분들도 언급할 수도 있다.

## (2) 조직적 담론 수렴 장치

물론 담론이 항상 분산되어 산발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대의 정치에 대한 보완 수단으로서 비단 건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조직적인 담론 형성 장치들이 고안되고 있다.<sup>60)</sup>

한 예로, 미국에서는 국정 과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21세기 마을회의’ 라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작업과정에 개입하는 것이라기보다 담론 수렴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몇 백 명에서 몇 만 명에 이르는 참여자들을 10-12명의 원형테이블의 단위로 나누어 회의를 진행하고, 테이블 당 배당된 한명의 전문가들이 노트북과 무선랜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의견들을 집계하여 중앙본부에 전송한 후, 다시 간략화 된 몇 개의 항목으로 피드백 받아 참여자들로부터 하여금 투표를 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sup>61)</sup> 뉴욕의 그라운드

60) 간접 민주주의 혹은 대의 정치란 오랜 역사 전에 의사결정의 현실적 효율성을 고려하여 직접민주주의 대신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시행착오들이 반복되면서 제도가 지닌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나자, 그 한계점 개선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스테판 콜먼(Stephen Coleman)은 지금의 대의 정치는 정치인들에 대한 일반 대중(the public)의 불신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데, 시민들은 이처럼 대의 체제가 무력해지는 현상에 직면해서도 서비스 제공의 실패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단절되었다는 점 자체를 문제 삼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대중이 원하는 점을 다섯 가지로 열거하는데, 그것은 첫째, 대중은 누군가 자신들의 의견을 들어주기를 원하고, 둘째, 단순한 자문을 받는 수준이 아닌 대화를 원하며, 셋째, 단편적이 아닌 지속적인 대화를 바라고, 넷째, 모든 쟁점에 대해 상세하고 속속들이 참여하며 논쟁하는 정도를 원하는 것은 아니며, 마지막으로 대중은 자신들의 의견을 설명해주는 대표를 원한다는 것이다

Stephen Coleman, *Direct Representation: Towards a Conversational Democracy*, Th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UK., 2005, pp.10-12 참고

[http://www.ippr.org/ecomm/files/Stephen\\_Coleman\\_Pamphlet.pdf](http://www.ippr.org/ecomm/files/Stephen_Coleman_Pamphlet.pdf), 2012.01.10 접속

61)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사회보장제도 대토론회(1997), 워싱턴시의 주민참여형 전략기획 및 예산심의제도(1999-2003), 뉴욕 그라운드 제로 재개발 토론회(2002), 뉴올리언즈 지역공동체 회의(2006-2007) 등

제로 재건 계획 사업에서의 ‘리스닝투더시티(Listening to the City)’ 도 21세기 마을회의 사업의 일환이었는데, 이는 3.3장의 그라운드제로의 사례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이러한 이벤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다양하다. 이벤트를 만들어 내는 입장에서 보면, 시민에 대한 교육과정으로 보거나, 그 결과를 정책 입안에 참고하려 하거나, 혹은 분쟁 해소가 그 목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 모두 이러한 공적 대화 과정이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받고, 양극화된 의견들을 조율할 수 있으며, 사람들이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도움 된다는 점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인다.<sup>62)</sup>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서로 다른 의견을 합의로 이끌어 내는 것은 힘들 것이다. 그러나 합의 형성에 실패하더라도, 자신과 다른 상대방의 의견에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이것은 귀결된 결과를 받아들이는 포용력을 키워준다.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심사숙고하는 과정은 의견 교착상태에서 빠져나오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박재창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담론을 만들어내는 이벤트들이 수행되어야 하는 이유를 일곱 가지 관점에서 파악하기도 한다.<sup>63)</sup> 담론 과정은 대안 민주주의의 목적 가치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있다. 박재창, “담론민주주의와 시민참여 : 21세기 마을회의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7(1) (2009), pp. 75-78 참고

62) Francesca Polletta, "The Big Idea : Citizen Planners," *City Limits*, Nov 15 (2003), <http://www.citylimits.org/news/articles/2994/the-big-idea-citizen-planners>, 2012.01.09 접속

63) 다음의 글을 참고하여 요약함.

박재창, "담론 민주주의와 시민참여 : 21세기 마을회의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7(1) (2009) : 57-98, pp. 69-71

[표 2-3] 담론 과정이 수행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관점의 유형과 각각의 근거

관점의 유형	근거
도구적 관점 (instrumental rationale)	사회 갈등관리에 매우 효율적이다. 사회 구성원간의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기가 용이해진다.
담론의 내용물 (substance rationale)	보다 유용하고 오랜 기간 유지되며 매우 적실성 높은 정책대안의 모색이 가능하게 된다.
시민권적 시각 (civics rationale)	시민의 인식능력을 제고하고 다양한 시각에 대한 이해력을 증대시키며, 합리적 대화 능력을 배양하고, 문제해결 기량을 높이며, 서로 다른 생각을 지닌 상대방에 대해 보다 잘 경청할 수 있는 개방적 수용성을 높인다.
권력론적 관점 (empowerment rationale)	사회열등세력에게 문제 해결에 필요한 발언권을 주고 주변상황에 대한 제어능력을 신장시켜준다.
사회자본의 시각 (social capital rationale)	담론 참가자들 간의 상호 이해력을 증대하고 상호 신뢰도를 높이며, 정책결정자 내지는 거버넌스 체제에 대한 기대를 회복할 수 있다.
규범적 시각 (normative rationale)	시민이 자기가 속한 공동체 공통의 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할 당위를 실천할 수 있다.
가정적 시각 (assumptive rationale)	인간의 사익은 공익의 범주 내에서만 추구될 것이라는 성선설적인 존재가 전제되어 있다.

### 2.2.2. 미디어의 작용

현대 사회에서의 토론장의 구조를 이해 하고자 할 때, 필연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바로 ‘미디어’ 다. 담론 형성이란 건물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것에서 시작되는데, 지리적인 한계로 인해 건물을 직접 경험할 수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하여 건물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작업 단계에서는 아직 물리적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공사 단계까지 진행되어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작업 단계에서는 직접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본 연구와 미디어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한 가지는 연구 대상에 대한 자료로서 미디어다. 작업장에 대한 정보의 출처로서, 그리고 토론장에서의 담론 전개 양상의 분석 대상으로서 신문 기사를 이용할 것이다. 매일의 사건들을 기록하는 신문기사는 작업장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상세히 담고 있을 수 있다. 또한 그에 대한 의견들이 개진되기도 한다. 그리고 신문의 구독자는 이러한 사실과 의견을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독자의 수용은 특정한 행동으로 표출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다시 신문에 기록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신문 기사를 대중담론으로 볼 수 있는 까닭이 되며, 존 톰슨의 미디어 이론을 통해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미디어의 역할이다. 방금 간략히 설명한 작용에 의해 미디어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토론장을 만들어주기도 하며, 토론장과 작업장을 긴밀하게 엮어주면서 담론의 범위를 증폭시키기도 한다. 물론, 미디어는 중립적이지 않다. 미디어 자체의 의도와 왜곡 작용이 있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토론장의 담론과 관계된 미디어의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 (1) 정보의 습득과 담론의 형성, 그리고 피드백

본 연구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 중 한 가지는, 미디어의 논평을 담론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이를테면 시애틀공공도서관 건립 과정에서 신문에 게재되었던 도서관의 외관에 대해 비판과 옹호의 글들을, 그저 해당 미디어의 대표 의견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시민들 사이의 담론의 큰 줄기로 볼 것인가다.

물론 미디어의 영향력은 새삼 강조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수용자들이 미디어의 메시지를 그저 수동적으로 수용하기만 한다면 연구의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의 담론이란 참여와의 연장선상에 있는 대중의 능동적 행위를 말하기 때문이다.

### ① 매개된 유사-상호행위(quasi-mediated interaction)

존 톰슨(John B. Thompson)은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sup>64)</sup>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마주보고 직접 대화하는 것을 ‘대면접촉 방식의 상호행위’ 라고 한다면, 전화 통화처럼 특정한 도구를 통해 의사소통하는 것을 ‘매개된 상호행위’ 라고 지칭한다. 매개된 상호행위에서는 상징 신호가 축소된다. 즉, 상대방의 표정을 볼 수 없으므로 목소리만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파악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신문과 TV와 같은 대중매체를 ‘매개된 유사-상호행위’ 라고 부른다. 이 경우에는 일방적인 전달의 성격이 강하므로 의사소통은 대화가 아니라 독백에 가깝지만 다른 두 경우와는 달리 그 대상이 시공간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고 미디어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무한히 많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sup>65)</sup>

이러한 상호행위의 구분은 역사적인 기술의 발달과정과도 대체적으로 일치하며, 새로운 기술은 담론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를테면, 하버마스는 사적 서신 교환에 비해 폭발적 영향력을 가졌던 인쇄매체인 신문이 널리 보급되었던 점이 초기 공론장(public sphere) 발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밝혔다.<sup>66)</sup> 신문이 시민들의 여론을 간접적으로 대변하고, 또한 널리 읽히면서 시민들 간의 의사소통이 사적인 관계의 테두리를 벗어나 비로소 공개성(publicity)을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미디어는 구체적으로 담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담론을 어떻게 변형시키거나 어떻게 재생산해내는가?

일반적으로 TV처럼 ‘매개된 유사-상호행위’ 를 유발하는 미디어에 있어서 생산자와 수용자는 각각 상대방의 반응을 고려해야 한다는 상호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64) John B. Thompson, 『미디어와 현대성』, 강재호 외 역, 서울 : 이음, 2010, p.55

65) 물론 모든 상호행위에 의한 의사소통이 이 세 가지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스튜디오 내에 진행자와 청중이 있는 TV방송 같은 경우에는 진행자와 청중 사이의 대면접촉 방식의 상호행위와, 그것을 TV 시청자와의 매개된 유사-상호행위가 동시에 일어난다. 인터넷 게시판의 경우에도 게시글과 댓글의 관계를 보면, ‘시간의 지연 속에서 일어나는’ 매개된 상호행위로도 볼 수 있지만, 그것을 보기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개된 유사-상호행위일 뿐이다.

66) Jürgen Habermas, op.cit., pp.293-295

제 2 장 분석 틀의 구축 : 토론장과 작업장

[표 2-4] 상호행위(interaction)의 유형

상호행위의 특징	대면접촉 방식의 상호행위 face-to-face interaction	매개된 상호행위 mediated interaction	매개된 유사-상호행위 quasi-mediated interaction
시공간적 구성	맥락의 공존-시공간적 관계체계를 공유	맥락의 분리-시공간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움	맥락의 분리-시공간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움
상징 신호의 범위	상징 신호의 다양성	축소된 상징 신호의 범위	축소된 상징 신호의 범위
행위 지향 (행위의 대상)	특정한 타자를 대상으로 함	특정한 타자를 대상으로 함	불특정한(무한한 범위의) 잠재적 수용자를 대상으로 함
대화적/독백적	대화적	대화적	독백적

\* 출처 : John B. Thompson, 『미디어와 현대성』, 강재호 외 역, 서울 : 이음, 2010, p.136<sup>67)</sup>

그러나 수용자들은 TV를 켜올 때 보이는 공연의 내용 때문에 생산자들에게 의존하고, 생산자들은 수용자들에게 시청의지와 시청자로서의 지위를 제공한다는 이유에서 수용자들에게 의존한다. 그래서 생산자와 수용자의 관계는 상호의존의 유대를 맺게 된다.<sup>68)</sup>

물론 생산자와 수용자가 이렇게 직접적 작용 없는 상호 의존 관계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수용자들은 의사소통과정과 내용에 관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편집자에게 편지를 쓰거나, 텔레비전 방송국에 전화를 거는 일로 자신의 관점을 표출할 수 있으며, 관련된 생산물을 구매하지 않거나 수용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의사소통은 근본적으로 비대칭적이지만, 전적으로 독백이거나 일 방향만은 아닌 것이다.<sup>69)</sup>

또한 생산자들도, 대개의 면대면 상호행위에서 특징적으로 존재하는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피드백 - 이를테면 수용자의 웃음, 박수와 같은 반응 - 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예측 가능한 수용자 설득과 같이 충분히 시험을 거친 방식(텔레비전 시리즈나 영화의 속편 등)의 이용에서부터 수용자 규모와 반응에 대한 시장 조사 및 정규적 모니터링에 이르는 다양한 테크닉을 개발해왔다. 또한 수용자들은 구독과 청취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생산자들은 TV의 경우에는 시청률, 신문의 경우에는 판매부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이것은 대중 매체의 주요 수입원인 광고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생산자와 수용자는 상호의존의 유대와 동시에 ‘느슨한 피드백’을 이루는 관계에 있다.

67) 번역서의 용어 번역을 바탕으로 하고, Thompson의 원서를 참고로 하여 일부분을 수정함. 원서는 다음을 참고.

John B. Thompson, *The Media and Modernity : A Social Theory of the Media*, Stanford, CA :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5, p.85

68) John B. Thompson, 2010, op.cit., pp.151-152

69) Ibid., pp.55-56

## ② 수용자의 전유(appropriation)와 담론적 세련화(discursive elaboration)

사람들이 미디어를 통해 메시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느슨한 피드백’ 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수용과정은 보다 조직적인 상호작용으로 확장된다. 메시지를 수용하는 동안 능동적인 해석을 거치면서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sup>70)71)</sup>

우선 미디어 경험 자체는 선택 가능하다. TV를 켜고 끄는 것은 선택 가능하다. 또한 미디어 생산물의 수용은 복잡한 방식으로 다른 활동들과 엮여 있다. 저녁을 만들거나 식사하는 동안 TV를 틀어놓으며, 쉬거나 일상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TV를 보기도 한다. 또한 9시에 규칙적으로 뉴스를 보려고 다른 일들을 조절하면서 일상에 질서를 부과하기도 하며, 녹화방송청취나 인터넷 방송 시청 등 다른 행위에 맞추어 미디어경험의 시간을 조절하기도 한다. 즉, 미디어 생산물의 수용은 강제적이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수용자의 선택적 경험이다.

또한 미디어 메시지의 수용은 근본적으로 ‘해석의 과정’ 이다. 미디어 경험은 수용자에게 집중을 요구하며, 집중이라는 행위를 통해 수용자는 생산물에 의해 전달된 상징 내용의 의미 형성과정에 관여하게 된다. 이것을 가다머는 ‘해석이란 선입견 없는 행위가 아니며, 해석자가 이해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전념하기 위해 일련의 가정과 기대를 관련시키는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과정’ 이라고 했다. 다르게 말하면, 수용자는 메시지를 ‘전유(appropriation)’ 한다고 볼 수 있다.<sup>72)</sup> 메시지의 전유란, 메시지의 의미 있는 내용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자신만의 것으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sup>73)</sup>

‘전유’ 는 개인의 미디어 메시지 해석 이상의 의미를 포괄한다. 미디어 메시지가 개인에게 수용되고 나면 개인은 주변 사람들과 연관된 주제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미디어 메시지는 담론적으로 더욱 정교화 되고 수용의 초기 과정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지 않은 광범위한 개인들과 공유된다. 미디어 메시지는 수용의 초기적 맥락을 넘어서 전달될 수 있고, 말하기와 다시 말하기, 해석과 재해석, 논평, 비웃음 그리고 비평이라는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변환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은 다양한 환경 - 집, 전화, 작업장 -에서 일어나며, 여기에는 다수의 참여자들이 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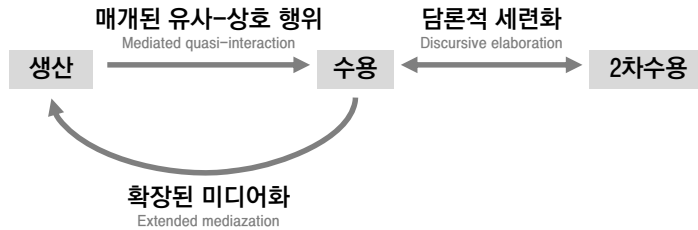
70) Ibid., p.72

71) 존 톰슨(John B. Thompson)이 ‘미디어와 현대성’ 에서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미디어가 개인들에게 정보와 상징 내용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들이 맺는 관계망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Ibid., p.27

72) 미디어 수용에 있어서 ‘해석적 과정’ 과 관련된 ‘전유(appropriation)’ 라는 개념은 여러 학자들이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는 존 톰슨이 제시한 이론적 틀 안에서의 개념을 참고로 할 것이다.

73) Ibid., p.74-75

한다. 이러한 과정은 자신의 삶의 여러 측면들을 재 언급된 미디어 메시지와 그것에 대한 반응에 뒤섞임으로써 개인들이 자신의 생각, 느낌, 경험을 이야기하는 서사적 틀을 제공한다. 전유의 과정은 다른 개인 다른 메시지와 연관됨으로서 전유 자체를 넘어 확대되는 ‘담론적 세련화(discursive elaboration)’ 를 거치게 되는 것이다.<sup>74)</sup>



[그림 2-11] 전유 : 미디어 메시지 수용과정 (출처 : 존 톨슨, '미디어와 현대성' p.167)

이러한 담론적 세련화는 하버마스가 제시했던 초기의 부르주아 공론장에서처럼 커피하우스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일상에서 점 조직을 형성하며 이루어지기도 하며, 오늘날에는 인터넷에서 공간적 한계를 초월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대방의 관점과 행위는 원래 수용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어느 정도 합의의 과정을 거쳐 명확하게 구성된 목표를 갖는 잘 조직된 사회운동으로 변화되기도 한다.<sup>75)</sup>

특히 오늘날에는 이러한 대중 매체가 TV와 각종 잡지들로 확대되고, 특히 근래 10년간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쌍방향 의사소통 미디어’ 인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으로 이러한 조직이 단시간에 형성되기도 한다. 2002년 6월, 주한미군의 장갑차에 압사당한 ‘미선이·효순이 사건’ 으로 촉발된 촛불시위는 국내 대형언론들의 부정적인 보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지속되었다. 이 촛불시위의 시발점과 지속적 유지를 위한 동인이 마련되었던 곳이 인터넷임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08년에 일어났던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시위에도, 고등학생 이하의 미성년들까지 포함한 폭넓은 사회구성원이 참여하게 된 것은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지닌 영향력 때문이었다.

또한 수용자와 2차 수용자들 간의 담론은 다시 역으로 미디어의 생산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에 대한 수용자들의 집단 행동이나 반응

74) Ibid., pp. 76-77, 167

75) Ibid., pp. 169-171



을 원래 보도와 엮어서 다시 기사화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것을 ‘확장된 미디어화 (extended mediazation)’ 라고 부른다.<sup>76)</sup> 미디어 메시지에 대한 수용자의 ‘전유’란 1차적 수용과 담론적 세련화, 그리고 확장된 미디어화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 신문기사를 통해 대중담론을 파악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근거는 바로 담론적 세련화와 확장된 미디어화의 과정에 있다.

## (2) 담론의 증폭

담론은 미디어의 전달 작용에 의해 물리적 영역이 확대되거나 다른 이슈들을 엮어 내면서 주제의 범위에서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확장되어 나아가기도 한다. 이것을 ‘담론의 증폭’ 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담론의 증폭에는 기본적으로 미디어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사망하게 만든 9/11 테러처럼 공공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 그리고 세계화라는 현대사회의 조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매개된 유사-상호작용으로서의 초기 미디어 형식은 인쇄술에 의한 것이었다. 인쇄술의 발명 이전에는, 어떠한 사건을 목격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물리적으로 한계 지어졌다. 그러나 인쇄술의 출현으로 경험은 물리적 한계를 초월하게 되었다. 사건과 그에 따른 행위는 공존하는 상대방을 인지하고 있다는 관념으로부터 멀어졌던 것이다.<sup>77)</sup>

이처럼 직접 목격하지 않고, 미디어를 통해 접한 사건에 대해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특정 장소의 사건을 중심으로 한 담론의 공간적 범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팽창되었다. 담론을 팽창시키는 것은 건물 자체가 지닌 고유한 성격 - 건물의 규모, 투입된 막대한 예산, 사건·사고와 연관된 건물의 성립 배경, 특이한 형태 - 과도 관련이 있지만, 미디어를 통한 재생산이라는 역할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담론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시키면서 관련된 이슈를 편입시키거나 제외하는 일은 사람들 사이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멀리 떨어진 곳일수록 미디어에 의해 주도될 가능성이 크다. 미디어는 지역화 된 공동체에 제한되지 않고 보다 넓은 범주에서 공유되는 책임감을 창출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다.<sup>78)</sup>

76) Ibid., pp.166-167

77) Ibid., p.188-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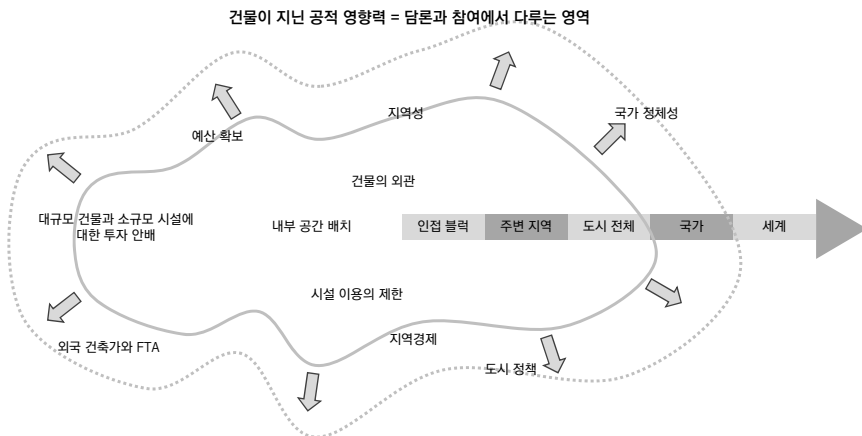
78) 이러한 성격은 대표적인 ‘미디어의 공공성’ 으로서, 관련 학계에서 폭 넓은 범위로 다루어진다.

제 2 장 분석 틀의 구축 : 토론장과 작업장

더구나 세계화된 조건의 오늘날에 있어서 정보와 재화, 그리고 사람의 이동은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여 이루어진다. 이것은 특정한 사건의 원인이 국제 정세와 관계될 수도 있다는 것이며, 미디어의 보도도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송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건물은 보다 복잡한 정치경제 및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 놓이며 건물의 생산조건도 국가의 경계에 상관없이 갖추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도시 브랜딩’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외의 저명한 건축가들을 초청하여 현상설계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스타건축가’의 건물이 지닌 퍼블리시티(publicity)를 적극 활용하여 미디어의 주목을 통해 관광객을 전 세계로부터 끌어들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건물이 완성된 이후에도 이러한 생산조건을 통해 물리적 실체로 드러난 건물 역시 그 영향력을 광범위하게 펼쳐 나갈 수 있게 된다.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의 경우 미디어의 주목을 받아 건물의 이용자 범위가 국내의 원거리는 물론이고 해외까지 확대되어, 도시 전체의 경제적 입지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빌바오에 살지 않는 사람에게 구겐하임미술관을 가보고 싶도록 만드는 것은 어디까지나 미디어의 역할이다.

이렇게 작업 단계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건물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된다는 것은 건물과 관계 맺는 사안들이 다층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시 이것은 건물에 관련된 담론과 참여에서 다루어야 하는 이슈들이 보다 복잡화 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도식화 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미디어와 담론의 동반 상승효과(synergy)다. 건물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미디어가 그 건물을 다루게 되면 건물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다시 노출된 정도에 따라 담론이 확대되며 이것은 연관된 문제들과 얽혀 들어가면서 다시 공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순환 과정에 들어선다. 지리적으로 인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담론을 가능하게 하는 것,<sup>79)</sup> 예를 들어 미국에서 일어난 9/11 테러 사건에 대해 지구 반대편의 한국에서 논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미디어의 역할 덕분이다.

그리고 많은 이슈들이 엮일수록 미디어의 보도가 많아지고, 그러다보면 사람들의 관심 또한 증가하고 이에 따라 다시 미디어의 보도가 더욱 증가하면서 사건을 여러 가지 주변 담론들로 세세하게 엮어나가는 순환작용이 일어난다. 항공기가 충돌하면서 빌딩이 무너지는 시각적 충격으로 시작된 9/11 테러 사건의 경우 미국의 패권주의, 이슬람 무장단체, 이라크 전쟁, 중동의 석유문제, 건물의 보안과 안전, 빌딩 코드, 도심재개발과 슈퍼블록, 사망과 추모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을 포괄해 나가면서 담론은 끊임없이 증폭되어 나갔던 것이다.<sup>80)</sup>

### (3) 담론의 유도와 왜곡

그런데 미디어는 중립적이지 않다. 미디어는 말 그대로 ‘매개’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미디어 생산자의 시각과 의도가 개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00년대 전반기에 국내외를 떠들썩하게 했던 ‘황우석 사건’은 과학이라는 전문적 분야의 지식과 연관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언론에서 소화해 대중에게 전달하였다.<sup>81)</sup> 논문의 조작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후 언론에서는 복

79) 이렇게 간접적으로 사건과 건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도 또한 중요해지는 것은 오늘날의 도시 상황과 관련이 깊다.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오늘날의 도시, 특히 대도시의 경우에는 인구 이동이 잦을 뿐더러 집에 머무는 시간과 행동의 반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마을만들기’ 처럼 삶의 터전을 바탕으로 한 실행 위주의 참여 사업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그러므로 시간과 장소와 같이 물리적인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담론의 차원’은 더욱 중요해진다.

80) 여기에 대해서는 3.3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81) 황우석은 1999년 낱소 ‘영롱이’ 복제로 유명해진 후, 인간 체세포 복제 배아 줄기세포 논문(2004년)과 환자맞춤형 배아줄기세포 논문(2005년)을 ‘사이언스’에 게재하면서 세계적인 학자로 주목받고 국내 ‘제1호 최고 과학자’로 선정됐다. 이후 2005년 11월 22일 MBC PD 수첩에서 실험용 난자의 비윤리적 획득을 폭로했으나 언론은 냉담하고 시민들은 PD수첩을 맹비난 했다. 12월 4일 YTN에서 PD수첩의 취재방식이 비윤리적이었다는 뉴스를 내보냄으로서 MBC가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논란이 끝나는 듯 싶었지만 12월 5일,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의 웹사이트에 논문사진조작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후 공식 검증팀이 꾸러지고 12월 23일 서울대 조사위는 황우석 연구팀의 논문 조작을 공식 확인했으며, 사이

잡하고 어려운 과학적 지식을 대중에게 그림과 상세한 해설을 통해 이해시키려고 애쓰므로서 시청자로 하여금 객관적 사실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미디어는 정보전달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였지만, 또 한편으로 대중의 여론을 지나치게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였다는 비판도 많이 받았다.<sup>82)</sup> 초기의 사실은 폐시도와 관련하여 언론이 대중담론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했다. 애국심과 민족주의의 발로로 황우석을 보호하려 했던 초기 언론의 태도는 논문이 조작이라는 진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황우석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맹신적 계층까지 낳게 되었던 것이다.

2008년에 한국인 최초로 러시아 소유즈 로켓을 타고 우주로 갔던 이소연에 대한 ‘우주인 혹은 우주관광객’ 논쟁에도 언론의 영향력이 깊게 관련되어 있다. 이소연을 ‘우주관광객(혹은 우주비행참가자)’ 이라고 주장한 79%의 사람들은 미국항공우주국 홈페이지에서 이소연을 ‘우주비행참가자(Space Flight Participant, SFP)’ 라고 명시한 점과 이소연의 우주실험이 ‘물방울만들기’, ‘얼굴부기’, ‘우주라면’ 과 같은 ‘탐구생활’ 이나 ‘스폰지’ 수준의 실험이라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소연이 행한 실험들은, ‘무중력 상태에서의 균일한 크기와 모양을 갖는 제올라이트 합성과 제올라이트 필름 성장’, ‘무중력 상태에서 금속-유기 다공성 물질의 결정 성장에 관한 연구’, ‘우주공간에서 초파리를 이용한 중력반응 및 노화유전자 탐색’ 와 같은 전문적인 실험이 대다수였다. 오히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홍보를 위해 일반 대중을 끌어들이 목적으로 전국 초중고를 대상으로 공모한 실험들이 부각됨으로서 이소연이 행한 실험들이 ‘비전문적’ 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

여기에는 언론의 영향이 매우 컸는데, 국내 일간지에서 당시의 우주실험을 다룬 기사 14건에는 우주음식 실험(10회), 초파리실험(10회), 교육실험(9회), 얼굴부기 실험

---

언스는 황우석의 2004년, 2005년 논문을 모두 철회했다. 황우석은 서울대에서 파면되었다(2006년 3월).

보자 상세한 사건의 개요는 다음의 글 참고

박재영 외, "황우석 사건의 교훈," 『한국언론학보』, 52(2) (2008) : 226-253, pp.234-235

82) 언론학계에서는 이 사건을 ‘언론의 실패’ 로 평가한다. 많은 언론에서 ‘엄청난 국익을 가져다 줄 세계적인 과학적 성취’ 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라는 애국심과 민족주의에 떠밀려 진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 채 더 이상의 의혹을 잠재우려 했기 때문이다. 기타 황우석 사건에 대한 개요와 언론학계의 평가는 다음의 저술들을 참고

김희원, "황우석 사태, 그후 1년," 『신문과 방송』, 431 (2006) : 122-125

전규찬, "신화의 선전에 의한 합리적 소통의 억압," 『쟁점과 진단』, 2월호 (2006) : 1-23

박재영 외, "황우석 사건의 교훈," 『한국언론학보』, 52(2) (2008) : 226-253

험(7회) 순으로 노출 빈도수가 높았으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과학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 실험들은 MEMS 우주망원경 실험(1회), 제올라이트 실험(1회), 다공성 물질실험(0회) 등으로 기사 노출 빈도가 낮았던 것이다.<sup>83)</sup> 물론 대중이 언론의 보도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언론 보도가 중립적인 것이 아니며 생산자의 시각이 개입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래튼베리(Kester Rattenbury)는 영국에서의 사례들을 통해 건축을 보도하는 미디어 시스템이 공정하지 않으며 개개 저널리스트들과 캠페인 활동가들의 역할이 강하게 개입된다고 주장하였다.<sup>84)</sup> 1962년 젊은 개발업자인 팔롬보(Peter Palumbo)가 런던 도심에 위치한 맨션하우스 부지를 매입하여 미스(Mies)에게 설계를 맡겨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보존주의자들의 반대에 부딪혔는데, 그들은 타임즈(The Times)의 기사와 논평을 통해 여론을 주도해나갔다. 팔롬보 역시 그의 안을 지지했던 가디언 기자의 기사를 통해 이에 대응해나갔다. 물론 결정은 법정에서 이루어졌지만 신축허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에는 언론이 유도한 여론의 영향이 컸다. 결국 팔롬보는 미스의 전위적 디자인 대신 스텔링의 역사적 모티프를 절충한 안으로 허가를 받게 되었다. 1989년의 런던 로얄 오페라 하우스의 확장공사에서도 언론을 통해 오페라 하우스 측과 반대입장이 충돌했다. 확장공사에 부수된 상업개발은 여론을 점차 악화시켰는데, 오페라하우스측은 전통적 표현방법을 사용한 투시도를 대중에게 공개하면서 개발이 기존 도시조직에 어울린다고 설득하였다. 그러나 개발을 반대해왔던 가디언(The Guardian)에서 정부가 변경 계획에 대한 토지구입비를 오페라 하우스 측에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하였다는 위법사항을 폭로하면서 10년 뒤에야 절충된 안으로 공사를 마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대해 보도한 국내 언론사들도 상이한 경향을 보인다. 조사한 9개 언론사의 기사들을 사실 중심으로 서술한 것과 좋고 나쁨의 가치를 개입시킨 기사들로 구분해 보면 아래의 그래프와 같다.<sup>85)</sup> 소위 ‘보수신문’이라 지칭되는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사실중심적으로 보도한 기사가 70% 전후에 이르는 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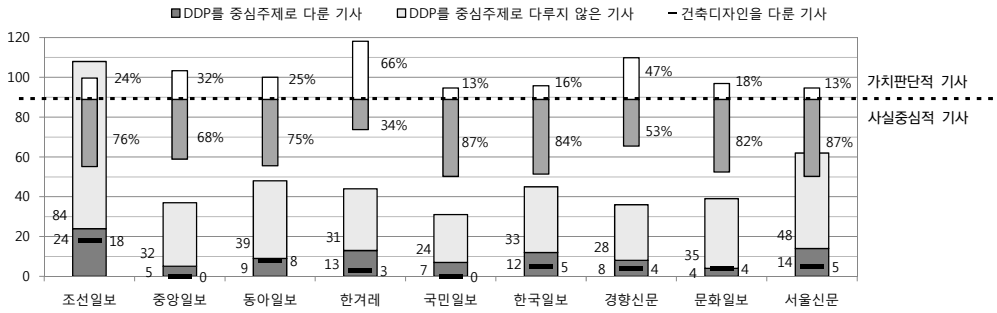
83) 안형준, "ANT 관점에서 본 한국 최초 우주인 논쟁," 『인간·사물·동맹 :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사이언스』, 홍성욱 엮음, 서울 : 이음, 2010, 227-257, p.252

84) Kester Rattenbury, "Naturally biased : Architecture in the UK national press," *This is Not Architecture : Media Constructions*, Ed. Kester Rattenbury, London & New York : Routledge, 2002, 136-156

85) 조사 대상과 전체 기사 분포에 대해서는 3.2장에서 자세히 언급할 것이다.

제 2 장 분석 틀의 구축 : 토론장과 작업장

‘진보적’ 이라 지칭되는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가치판단적 기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2-13] 2006.10~2012.02 까지 DDP에 관련된 각 신문별 기사 경향 (단위 : 건)

가치 판단적 기사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비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를테면 동대문운동장을 철거하면서 풍물시장 상인들을 강제 이주시킨 점을 지적하거나 토건 사업에 대한 예산을 과잉투입한 점들을 비판하였다. 서울시장의 정책에 대해 옹호적이었던 보수언론들은 서울시에서 제공한 홍보성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디자인올림픽’ 과 같은 ‘디자인서울’ 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보도하였다.

이렇듯 언론사마다 다른 입장이 있고 게재되는 기사들도 특정한 편집의도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특정 언론사가 대중담론의 호불호와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를 대중담론의 대상으로서 다루되, 개입된 의도를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하였다. 즉, 미디어의 보도가 편향된 것이더라도 그 시대의 논의를 일부분에서 수렴한 것이므로 내용의 ‘옳고 그름’ 을 보는 것이 아니라 편향되었으면 편향된 대로 ‘모든 현상의 한 단면’ 으로 받아들여려고 했다.

그 방법으로써, 텍스트의 문맥을 분석하는 것을 지양하였으며, 많은 수의 기사를 누적시킨 후 문장이 아닌 단어의 단위로 분할하여 ‘연결망분석’ 을 통해 담론의 양상을 파악하였다. 단어의 단위로 기사들을 분석하는 방법은 문장 단위에서 드러나는 의도를 최대한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 2.2.3. 전문가의 역할

작업장의 주체는 전문가들이다. 그런데 토론장에는 비전문가들과 더불어 전문가들도 존재한다. 건축 관련 전공자들이 구독하는 건축·건설 전문지들에서 이루어지는 담론은 전문가들의 토론장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신문과 TV,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잡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담론은 비전문가들의 토론장이다. 본 연구에서 ‘토론장’ 이라고 하면 물론 이 두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지만, 비전문가들인 일반 대중의 토론장에 의미상으로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전문가와 비전문가들의 토론장은 언어의 전문성과 같은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다른 영역으로 보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전문가들 자체적으로 토론장을 구성하기도 하지만, 대중매체를 통해 전문적인 내용을 일반적인 언어로 해설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토론장과 작업장 사이의 간극을 연결해 준다는 점에서 전문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건축 비전문가로서 건축국제영화제 기획에 참여하였던 한선희는 ‘한국의 건축 저널리즘이 여전히 건축계 내부의 전문가들 또는 건축을 공부하는 미래의 후속 세대들을 위한 것에 국한되어 있다’ 고 지적한다.<sup>86)</sup> 그러면서, ‘뉴욕타임즈’ 나 ‘가디언’ 의 경우 매체에 소속된 전문 건축 평론가들이 있고, 그들은 자국 내에서 새로 건설되는 중요한 프로젝트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중요한 건축가들의 작품에 대해 일반 독자들이 이해하도록 안내한다고 덧붙인다.

예를 들어 ‘건물이 주변과, 혹은 이 도시와 어울리는가’ 라는 문제가 토론장에서 다루어진다고 할 때, ‘어울리는 것’ 에 대한 해석은 외관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내부의 경험에 대한 것일 수도 있다. 비전문가인 대중이 일반적으로 외형의 문제에만 집중하는데 반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면서 실제로 건물이 주변과 어떤 작용을 주고받으면서 도시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설명할 수 있다.<sup>87)</sup>

이처럼 대중매체에서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로 활동하는가의 문제는 그 사회에서 전반적인 토론장과 작업장의 거리를 결정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3.4.2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86) 한선희, "건축 : 미디어는 메시지다," 『건축과 사회』, 20 (2010) : 28-36, p.33

87) 전문가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건물을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3장에서 각 사례를 다루면서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것이다.

### 2.3. 소결

건물에 대한 토론장은 과거부터 때때로 형성되어 왔다. 아돌프프로스가 설계한 로스 하우스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대중은 주변의 장식적 외관과 어울리지 않는 건물의 미묘한 입면에 대해 항의했다. 로스는 공청회를 열어 자신의 설계안을 대중 앞에서 설명하고 설득하였다. 리차드 세라가 뉴욕의 연방청사 앞에 ‘휘어진 호’를 만들었을 때 역시 공공미술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면서 법원의 소송까지 진행되었으며, 김수근이 설계했던 부여박물관에서는 그 외관의 모습이 일본 신사의 입구를 닮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렇게 과거의 토론장은 주로 건물의 표현과 대중의 수용이라는 문제를 다루면서 전개되어 나갔다.

1950년대에 제작과 의사소통의 문제를 다룬 아렌트는, 사물을 제작한 이후 만들어진 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사람과 사람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램턴은 아렌트의 이론을 건축으로 들여오면서 의사소통보다는 제작 자체의 문제에 집중하였다. 프램턴이 생각했던 의사소통은, 만들어진 건물이 제공한 공공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차원이었다.

그런데 1980년 말부터 세계화의 현상이 세계 곳곳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사람과 물자 및 정보의 이동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생산의 조건 또한 복잡해졌던 것이다. 대규모의 건물을 만드는 이유도 세계시장 속에서 도시의 위상을 높여 관광객과 산업을 유치하자는 목적과 깊게 관련되었으며, 세계적으로 이름 높은 건축가들이 지역의 경계를 가로질러 설계를 맡게 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스타건축가에게 설계를 의뢰하는 일이 많아졌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자하하디드가 설계를 했는데, 그와 동시에 부지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의 대립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리고 생산의 조건이 복잡해짐과 동시에 토론장에서 다루어지는 대중담론 또한 참여와 쌍방향성을 강조하면서 성숙해져왔다.

현상을 다루는 이론과 연구들도 건물이 만들어지는 복잡한 조건들을 반영하게 되었다. 그 중 셸리그먼은 세계화라는 현상 속의 건축을 지역 공동체와 연계한 문화마케팅으로 연결시켰으며, 매턴은 건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대중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생각과 물리적 건물을 동시에 짓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 의사소통에는 현대의 복잡한 생산조건이 반영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흐름상에서 볼 때, 오늘날 건물을 만드는 행위는 작업장과 더불어 토론장의



존재를 함께 고려하여 다루어져야 한다. 작업장이란 물리적 실체를 정교하게 만들어 가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며, 토론장이란 과거로부터 이어져오던 건물의 표현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복잡한 생산조건 속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주체들의 논쟁이 오고가는 곳이다. 건물에 대해 오고가는 논의를 건물이 만들어지는 단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 때 드러나는 문제들을 작업에 반영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어나갈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건물을 만드는 과정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과 행위가 오고가는 상호교육의 장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분석을 위해 상정한 토론장 안에서는 어떠한 작용이 일어나면서 작업장과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내는가? 우선 이러한 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참여’와 담론을 구분해야 한다. 작업장에 직접 개입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참여는 실행이 중심이 되는 반면 담론은 논의를 풍성하게 확장해가면서 작업장과 직접·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본 연구의 토론장 분석에서 중점을 두는 것도 바로 이러한 담론의 확장 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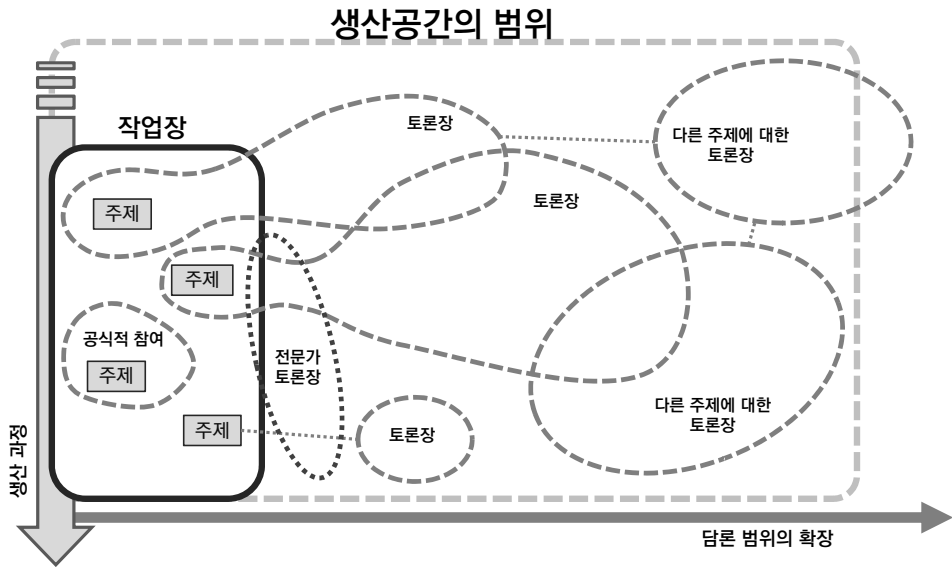
여기에는 미디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디어는 작업장의 현상을 보도함으로써 미디어수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한다. 그리고 2차적으로 미디어 수용자 간에 담론이 형성되거나 담론이 특정한 목표 아래 결집되면 단체행동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다시 취재에 의해 미디어에 보도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담론은 지역의 범위를 넘어서 확대된다. 사건이 커질수록 여러 사람에게 관계되고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은 사건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게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미디어는 담론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거나 왜곡하기도 한다.

전문가 역시 토론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문적인 정보를 대중의 언어로 해설해주는 역할을 하는 전문가들은 자체적인 토론장을 이루기도 하면서 토론장과 작업장 사이에서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한다. 토론장과 작업장이 본래 다른 영역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토론장의 담론들을 작업장으로 반영할 때 역시 전문가들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담론이 이루어지는 추상적 공간과 작업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공간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여야 할까? 우선, 작업장은 계약관계라는 한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며 건물이 만들어질 때까지 목표를 지니면서 유지되어 나간다. 반면 담론은 여러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도 서로 겹치는 내용들을 통하여 자유롭게

제 2 장 분석 틀의 구축 : 토론장과 작업장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따라가다 보면 건물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토론장과 연결될 수도 있다. 그리고 집중적인 담론 수업 이벤트를 통해 토론장은 작업장과 연결되기도 하고, 워크그룹 같은 공식적 참여과정을 통해 작업장 안에 개별 토론장이 포함되기도 한다. 그리고 전문가 토론장은 작업장과 토론장에 상호 관계되면서 두 영역 간의 연결에 영향을 미친다. 토론장과 작업장이 상호연관 되면서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과정은 다음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2-14]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구조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이 영향을 주고받음으로써, 생산공간의 범위는 작업장의 테두리에서 토론장을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즉, 이 그림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건물의 제작과 어떻게 연관되는 것인지 나타내는 동시에, 작업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회의 어떠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일로 연장되는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관계는 가설에 머무른다. 따라서, 3장에서는 이 분석 틀을 각 사례에 대한 특수 해로 채워나감으로써, 실제 토론장과 작업장이 어떠한 영향관계를 주고받으며 생산공간을 구성해나가는지 알아볼 것이다.

##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3장에서는 본격적인 연구의 첫 단계로서, 건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적으로 드러난 담론이 생산주체의 작업과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분석한다. 우선 사업의 기획 단계, 본격적인 설계 단계, 그리고 건설 단계에서 어떠한 문제를 중심으로 공적 담론이 형성되었는지 알아본다. 그리고 형성된 담론과 관련하여, 토론장의 주체들이 작업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는지, 토론장의 담론들이 작업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는지, 영향을 주었다면 작업장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어나갔는지, 변화된 작업장은 다시 토론장의 담론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두 영역이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다른 요소의 개입은 없었는지를 알아본다. 이렇게 토론장과 작업장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건물이 만들어지는 구체적·추상적 공간 전체를 ‘생산공간’이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3장에서는 세 개의 사례에서 개별 생산공간이 어떠한 양상으로 펼쳐져 나가는지를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를 통해 설명해 나갈 것이다.

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상이 되는 사례로서 시애틀공공도서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그라운드제로를 선정하였다. 각 사업의 개요는 아래 표와 같다. 분석의 순서는 규모의 순서인 동시에 사업의 복잡한 정도와도 일치한다.

3.1 장에서는 시애틀공공도서관을 다룬다. 이 사업의 경우 노후한 기존 도서관을

[표 3-1] 각 사업의 개요 비교

구분	시애틀공공도서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그라운드제로
도시 인구	시애틀 약 60만	서울 약 1,000만	뉴욕 약 800만
시설	도서관	전시 홍보시설, 공원	추모공원, 오피스, 문화시설, 호텔, 상업시설
건물 면적	33,772㎡	85,320㎡	약 350,000㎡ (1WTC만 계산)
사업 예산	약 2,000 억원	약 5,000 억원	10 조원 이상
발주처	시애틀공공도서관	서울시	뉴욕뉴저지항만청, 민간디벨로퍼, 뉴욕시
프로젝트 시작 동기	도서관 확장을 위한 기존 노후 도서관의 재건축	오래된 운동장 부지의 재개발	테러로 소실된 부지의 재건축
예산	사업 초기에 주민투표로 결정 이후에는 기부금으로 충당	서울시에서 책정하고 시의회에서 승인	연방+항만청+시예산+보험금 +민간개발자금+기부금
예산 이용자	불특정 다수의 도서관 이용객(주로 시 거주자)	불특정 다수 (국내외 방문객)	오피스 근무자 + 불특정 다수 (상시 근무자 + 국내외 방문객)

###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재건축하자는 합의를 바탕으로 사업이 시작되었다. 시설의 목적이 명확했기 때문에, 발주처인 공공도서관측에서 마련한 직접적 참여의 경로와 수차례에 걸친 공개설명회를 통해 토론장과 작업장이 밀착하여 전개되어 나갔다. 그러한 가운데, 스타건축가의 낮은 디자인은 설계 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 사례에서는 디자인에 대한 논란과 그 대응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해나갈 것이다.

3.2 장에서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다룬다. 이 사업은 ‘디자인 메카’를 내세우며 디자인 사업 홍보와 진흥에 관련된 시설들과 건물 외부의 공원으로 기획되었다. 그런데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부지의 특성으로 인하여 생겨난 주변의 상인들을 비롯한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작업장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였으며, 외부의 정치적 사건으로 인하여 사업의 방향성이 변경되기도 했다. 이 사례에서는 여러 가지 쟁점들로 이루어진 담론과, 그 담론이 디자인의 문제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3.3 장에서는 그라운드제로를 다룬다. 이 사업은 테러로 인해 건물이 소실된 부지 전체를 재건축하자는 합의를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주체들 간에도 개발에 대한 복잡한 권리 관계가 얽혀 있었으며, 희생자의 추모와 임대수의 창출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복합적 조건 하에 놓여 있었다. 대중은 작업장 외부에서 사업의 진행을 관찰하는 한편, 때때로 작업장의 주요한 결정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이 사례에서는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토론장이 어떠한 방법으로 작업장과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다루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각 사례의 분석을 통해 디자인의 문제와 더불어 세계화된 생산의 조건이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3.4 장에서는 세 개의 사례를 종합하여 두 가지의 주제에 대해 다룬다. 우선 각 사례에서 다루어진 토론장과 작업장의 세부적 요소들이 어떠한 대응 구조를 이루며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해서 분석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각 생산공간의 양상을, 하부구조와 컨텍스트라는 ‘주어진 조건’과 생산과정에서의 주체의 결정이라는 ‘사람의 의지’로 구분하여본다. 이것은 세 개의 사례를 서로 비교하지 않고, 생산공간 각각의 상황에서 어떠한 가능성과 한계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즉, 그 각각의 주어진 조건 속에서 참여 주체들의 어떤 결정이 생산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분석하는데 의의가 있다.

### 3.1. 사례 1 : 시애틀공공도서관



[그림 3-1] 시애틀공공도서관  
(출처 : GA Documents)

[표 3-2] 시애틀공공도서관 개요

구 분	내 용
시설 프로그램	도서관 재건축
완공	2004년
예산	165.9백만 달러 (약 1,659억원, m <sup>2</sup> 당 490만원)
연면적	33,772m <sup>2</sup> (기존 : 19,138m <sup>2</sup> )
컴퓨터	400대 (기존 : 75대)
설계자	OMA + LMN Architects
도급자	Hoffman Construction Co.

\*자료 출처 : <http://www.spl.org>

시애틀공공도서관은 주민투표를 통해 대규모 예산 투입을 결정하고 렘콜하스라는 스타건축가에게 설계를 맡김으로써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sup>1)</sup> 일반적으로 이 건물

1)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본 연구에서 다루는 사례는 시애틀에 있는 26개 공공도서관 중 하나인 '시애틀중앙도서관(Seattle Central Library)' 이다. 즉, '시애틀공공도서관(Seattle Public Library)' 이라고 하면 26개 공공도서관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며, 공공도서관은 1개의 중앙도서관(Central Library)과 분관(Branch Library)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많은 문헌과 연구에서 이 중앙도서관을 '시애틀공공도서관' 으로 지칭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편의상 '시애틀공공도서관' 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분관을 언급할 때는 '시애틀공공도서관 분관' 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은, 다이어그램이 설명하는 개념이 네 개의 매스들이 지그재그 방향으로 적층된 듯한 특이한 형상과 명쾌하게 맞아떨어지면서도 정교하게 만들어진 메쉬 스킨과 같은 디테일의 완성도 또한 높다는 이유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건물은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토론장의 담론을 조직적으로 수렴한 전례가 드문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설계 과정에서 발주처는 적극적으로 도서관 이용객인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고, ‘스타건축가’는 자신의 설계개념을 실현해가면서도 여러 가지 방식의 의사소통을 통해 대중의 의견을 반영해나갔다.

물론 이 사례는 관련된 주체들이 모두 ‘좋은 도서관을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후에 다를 다른 두 개의 사례에 비해 갈등구조를 최소화 하면서 작업 자체에 집중할 수 있다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건축가의 파격적 디자인과 대중이 지닌 시각의 차이는 생산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했다.

사례분석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지점이다. 이것은 다음의 두 가지 문제와 관련이 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건물의 큰 규모와 내부의 복잡함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이다. 건물의 규모 자체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과정에서 평면 배치의 구체적인 사안들까지 비전문가인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졌다. 이런 특징은, 일반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이 마을의 공공공간이나 지역특산물처럼 주민들에게 친숙하거나 생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들을 다루는 것이 비해, 보다 복잡하고 다루기 힘든 건물의 경우에 어떻게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참조점이 된다.

두 번째는 ‘스타건축가’에 내재된 문제들이다. 각종 설계경기의 입상과 실제 건축물을 통해 실력을 검증받은 ‘스타건축가’에게 설계를 의뢰할 때에는 그 건축가만의 독특한 색깔이 드러나는 건물을 원하는 것이다. 더구나 ‘세계적인’ 건축가는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황은 더 불리해진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인 ‘참여’의 개념과 침예하게 대립한다. 이것은 설계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논쟁거리를 만들어냈는데, 이런 쟁점들을 살펴봄으로서 건축디자인에서의 담론과 참여의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고민해볼 수 있다.

### 3.1. 사례 1 : 시애틀공공도서관

#### FLOOR BY FLOOR

- Public space
- Collections
- Elevators
- Restrooms
- Escalator
- Staff area
- Information desk
- Stairs
- Computers

#### LEVEL ELEVEN

**HEADQUARTERS**  
This level will include administrative offices, the board room, human resources and the staff lunch room.

#### LEVEL TEN

**READING ROOM**  
This is the highest point in the building in which the public is allowed. With views of Elliott Bay and the city, the light-filled reading room includes seating for 400.

#### LEVELS SIX THROUGH NINE

**BOOKS SPIRAL**  
The concept behind the book spiral is to allow the library's non-fiction collection to grow without having to move books to different areas or floors when one subject expands. The spiral currently holds over 750,000 non-fiction books but can expand to more than 1.4 million.

#### LEVEL NINE

900s Genealogy, maps, biographies, writer's room, small conference room

#### LEVEL EIGHT

700-800s Art, literature, music CDs, two music practice rooms, small performance arts work space, regional arts collection

#### LEVEL SEVEN

500-600s Magazines, newspapers, science, aviation

#### LEVEL SIX

000-400s Government publications, business, small conference room

#### LEVEL FIVE

##### MIXING CHAMBER

Dubbed "a trading floor for information," the mixing chamber is where patrons can go with general questions or for help with in-depth research. Multiple librarians will be available in this area to work with patrons in a collaborative, flexible manner. They will not be tied to a service desk but will roam free through the mixing chamber, mingling with patrons. All librarians throughout the building will be connected through wireless devices that allow questions to be answered on the spot. There is also a dumbwaiter that quickly delivers books and materials from the books spiral. This area will also be a technology hot-spot with 132 computers.

#### LEVEL FOUR

##### MEETING ROOMS

There are four major meeting rooms on this floor. The largest can hold up to 200 people and the smallest can accommodate 20.

#### LEVEL THREE

##### LIVING ROOM

At the base of the atrium, the reading room is a space for patrons to gather and read. The coffee cart and cafe are located on this level with seating for 20 and will serve coffee, pastries, sandwiches and snacks. Covered beverages are allowed throughout the building. Featured on this level are the teen center, fiction, large print and video collections as well as new books and Northwest authors, periodicals and newspapers.

#### LEVEL TWO

##### STAFF FLOOR

Hidden between levels one and three is where all the behind-the-scenes book sorting, shipping and receiving takes place as well as technical and collection services.

#### LEVEL ONE

##### CHILDREN'S CENTER

Kids will find a library within a library in the new children's section with room for 90,000 books and a triangle-shaped story room that seats 100. There will be a family restroom and an area to park strollers.

##### AUDITORI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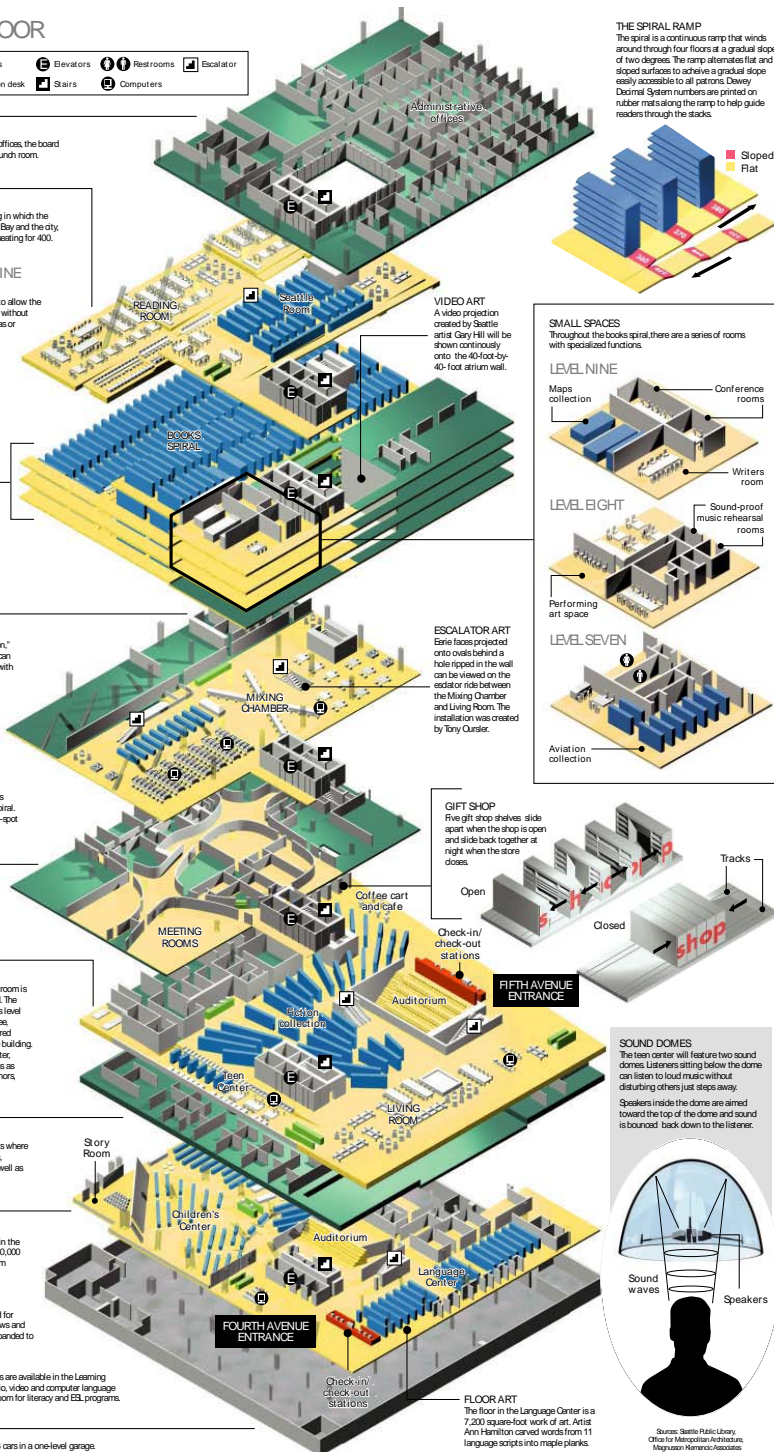
The 275-seat auditorium was designed for small performances, lectures, slide shows and speaking engagements and can be expanded to 425 seats.

##### LANGUAGE CENTER

Literacy, ESL and multilingual resources are available in the Learning Center with workstations offering audio, video and computer language learning assistance as well as a classroom for literacy and ESL programs.

#### PARKING LEVEL

The new library boasts parking for 143 cars in a one-level garage.



[그림 3-2] 시애틀공공도서관의 공간 구성 (출처 : www.spl.org)

### 3.1.1. 프로젝트 개괄

#### (1) 프로젝트 진행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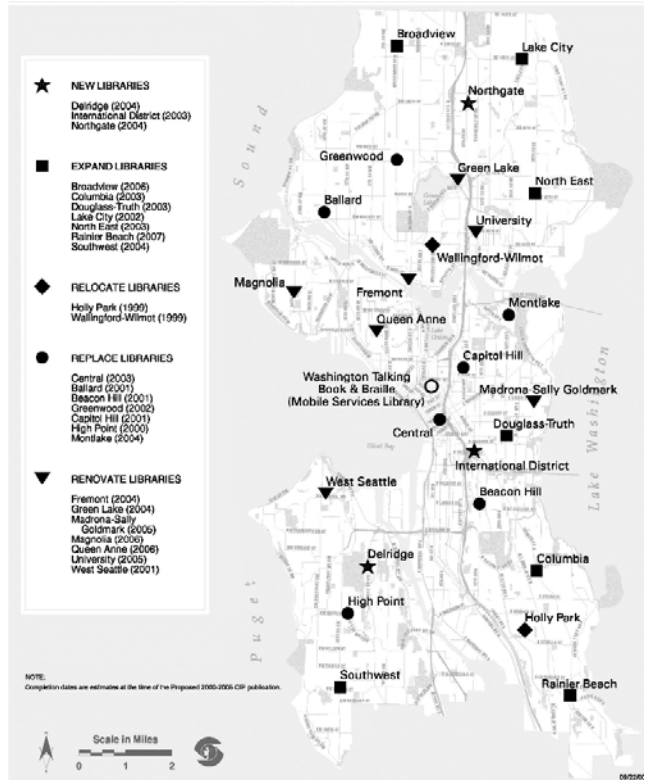
##### ① 모두를 위한 도서관(Libraries For All) : 도서관 예산 책정

시애틀 시는 1998년 11월에 ‘모두를 위한 도서관(Libraries For All)’이라는 이름의 사업으로 신축, 증축, 리노베이션을 포함한 시애틀 시내 26개 공공 도서관 건설 비용인 1억 9640만 달러의 채권발행을, 주민 투표를 통해 72%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것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의 도서관 건립 예산이었다.<sup>2)</sup>

그 중 가장 규모가 컸던 중앙도서관의 경우 145만권의 추가 장서와 300대 이상의 컴퓨터를 새로 들여와야 한다는 공간적 요구조건이 있었다.

이에 따라 1960년에 신축한 기존 도서관을 허물고 그 자

리에 현대적 도서관을 건설하기로 방향이 잡혔다. 중앙도서관 신축에는 1억 5606만 달러가 투입되었으며, 그 후 6개월의 설계자 선정과정, 2년의 설계기간(DD 100%까지)과 3년의 건설과정을 거쳐 2004년 5월에 개관하였다. 신축, 증축, 리노베이션이 포함된 공공 도서관에 대한 예산은 다음 장의 표와 같다.<sup>3)</sup>



[그림 3-3] 시애틀 시내 공공도서관 위치 및 개선 계획  
(출처 : 시애틀 시 재정관리부)  
(<http://www.seattle.gov/financedepartment/>)

2) 채권발행은 한번 거부당한 적이 있으며, 도서관장 데보라 제이콥스의 노력으로 여론이 돌아서게 되었다. Sheri Olson, "How Seattle Learned to Stop Worrying and Love Rem Koolhaas' Plan for a New Central Library," *Architectural Record*, 188(8) (2000) : 121-125, p. 121

3) 1998년 당시 ‘모두를 위한 도서관’ 예산은 시민투표에서 72%의 찬성으로 결정된 \$196.4M 와 다른 재원을 포함하여 총 \$235.4M 였으며, 이중 중앙도서관에 할당된 금액은 \$156.1M 으로서 전체 예산의 약 66%에 해당한다.

<http://www.spl.org/prebuilt/lfa/capplan/libforall/cp98prop.html> 참고



3.1. 사례 1 : 시애틀공공도서관

[표 3-3] 모두를 위한 도서관(Libraries for All) 예산 계획(2001년 당시)

Program/Project	LTD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Total
Ballard Library Replacement		1,835	3,810	689					6,334
Beacon Hill Library Replacement	28	1,579	3,049						4,656
Book Collections for New Branches		200	745						945
Broadview Library Renovation		680		181	2,060	499			3,420
Capitol Hill Library Replacement	56	1,102	3,031	273					4,462
<b>Central Library Replacement</b>	<b>954</b>	<b>10,204</b>	<b>40,067</b>	<b>59,220</b>	<b>40,964</b>				<b>151,409</b>
Columbia Library Renovation	0	156	78	2,620	285				3,139
Delridge-Construction of New Branch	4	1,534	1,423	1,028					3,989
Douglass-Truth Library Renovation		44	220	2,850	309				3,423
Fremont Library Rehabilitation		50		41	401	96			588
Green Lake Library Renovation			210	375					585
Greenwood Library Replacement		1,390	2,695	2,200					6,285
High Point Library Replacement		1,777	1,027	157					2,961
International District - Construction of New Branch		289							289
Lake City Library Renovation		173	1,402	1,272					2,847
Madrona Library Improvement					6	114	127	0	247
Magnolia Library Improvement						25	433	287	745
Montlake Library Replacement		617	47	362	1,472				2,498
North East Library Renovation		0	349	3,774	410				4,533
Northgate-Construction of New Branch		2,496	38	227	2,928	529			6,218
Opportunity Fund for Neighborhood Library Projects		291	1,310	1,747	1,747	728			5,823
<b>Project Planning and Management</b>		<b>2,795</b>	<b>762</b>	<b>2,923</b>	<b>878</b>	<b>858</b>	<b>549</b>	<b>420</b>	<b>9,185</b>
Queen Anne Library Improvement						4	105	359	468
Rainier Beach Library Renovation		48	291	2,637					2,976
Southwest Library Renovation				199	2,105	1,930			4,234
Technology Enhancements		480		480	480	480	480		2,400
<b>Technology Enhancements - Central Library</b>				<b>2,400</b>	<b>800</b>				<b>3,200</b>
University Library Renovation						76	662		738
West Seattle Library Renovation		72	684						756
<b>Libraries For All Total</b>	<b>1,042</b>	<b>27,812</b>	<b>61,238</b>	<b>85,655</b>	<b>54,845</b>	<b>5,339</b>	<b>2,356</b>	<b>1,066</b>	<b>239,353</b>

\*자료 출처 : 시애틀 시 재정관리부(<http://www.seattle.gov/financedepartment/>), 단위 : 천 달러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도서관 건립비용 중 중앙도서관 건설비용과 중앙도서관의 각종 자동화시스템 비용(3,200,000달러), 그리고 프로젝트관리비용(9,185,000달러)를 합하면 전체의 68%(약 1억 6천만달러)에 해당한다.

전체 사업 예산이었던 2억 3천 9백만달러와 채권 발행금액의 차액은 민간 기부금으로 충당했다. 도서관측은 4천만달러를 목표 금액으로 정하고 모금에 나섰는데, 빌 게이츠가 미국 공공도서관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인 2천만달러를 기부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sup>4)</sup>

4) J. Martin Mcomber, "Gates Gives Library \$20 Million - Donation Is Largest To Seattle Public System," *The Seattle Times*, 24 Nov. 1998

이 기부금 중 천오백만달러는 분관에, 오백만달러는 중앙도서관에 할당되었다. 그런데 1년 뒤인 1999년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이어진 프로젝트의 주요 진행 과정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4] 시애틀공공도서관 사업 진행 과정 (1998.11-2004.05)

날 짜	주요 진행과정
1998.11	\$196,4백만 달러의 "모두를 위한 도서관" 프로젝트 예산이 시민투표로 통과됨. 예산은 시애틀 중앙도서관과 분관 건설비용으로만 쓰임, 중앙도서관에는 \$156M할당.
1998.11.23	빌게이츠가 도서관 건립 비용으로 2천만 달러를 기부함
1999.05.26	총 6번에 걸친 공개프레젠테이션이후 OMA+LMN이 설계자로 결정됨.(1,700명가량참석) PM으로 SenecaGroup이 결정됨
1999. 연중	도서관 위원의 미 전역(5곳) 및 프랑스국립도서관 답사
1999. 여름~가을	3개월간의 pre-study 이후 research reader 라는 책 발간
1999.10.28	시애틀디자인심의회(Seattle Design Commission) 앞에서 도서관+건축가가 공동으로 도서관 계획에 대해 브리핑 함
1999.12.15	Rem Koolhaas의 도서관 비전에 대한 공개설명회 (1,000명 이상 참석)
2000.01	시민들이 10개의 워크그룹 결성에 참여함(아동, 노인 서비스등을 포함)
2000.01.24	Schematic Design Preliminary Drawings
2000.05.01	100% Schematic Design 납품
2000.05.03	RemKoolhaas의 도서관 설계 진행에 대한 공개 설명회(1,500명이상참석) Hoffman Construction Co.가도급자/CM으로선정됨
2000.09	도서관 이용객들이 2개의 '북 스파이럴'을 가설하고 시험함
2000.09.21	mid-design development review
2000.11	50% Design Development 납품
2000.12	도서관 내부를 위한 4명의 예술가들을 선정함
2000.연중	도서관 직원들로 조직된 37개의 워크그룹이 디자인팀에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보냄
2001.02	도서관 건설을 위해 장서를 임시로 다른 곳으로 이동
2001.03.05	설계안 완성 (100% Design Development submission)
2001.04	Construction Documents 시작. 실질적인 설계안은 확정됨
2001.05.05	수백명의 사람들이 도서관의 최종 안을 보기 위해 도서관 오픈하우스에 참여함
2001.06	중앙 도서관이 휴관을 시작함
2001.08	건물 철거를 시작
2002.03	CD 도면 완성
2002.04	터파기와 흙막이 완성
2002.10	골조 공사 완료. 건물 허가 득
2002.12	스킨을 위한 스틸 공사 시작
2003.05	스킨의 스틸 공사 완료. 건설공정 50%
2003.06	도서관을 위한 예술작품 선정
2003.11	스틸 디자인 상 수상
2004.01	외장 유리 공사 완료. 건설공정 91% 완료
2004.05	5월 23일 11시(일요일)에 도서관 개관. 첫날 약 26,000명이 도서관을 방문함

\*자료 출처 : 도서관 홈페이지와 다수의 기사를 참조하여 작성. 도서관 홈페이지는 다음의 주소를 참고.  
<http://www.spl.org/locations/central-library/cen-building-facts/cen-construction-facts-and-timeline>

11월에 도서관측은 기존에 분관에 할당되어 있던 예산 중 천오백만달러를 중앙도서관으로 이전하려 했고, 시의 위원회가 이를 승인하려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게이츠의 기부금은 모두 중앙도서관에 할당되는 셈이 되어버렸으며, 이와 같은 과도한 중앙도서관에 대한 과도한 예산집중은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여기에 대한 관련 기사는 다음을 참조. J. Martin Mcomber, "Downtown Library To Get Branch Money," *The Seattle Times*, 9 Nov. 1999

## ② 현상설계를 통한 건축가 선정

도서관위원회는 1999년 2월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참여의향서를 받았다. 모두 29개 회사가 응모하였고, 도서관 측은 5개의 회사로 압축해냈다. 그 중 사정상 불참의사를 비춘 시저펠리와 노먼포스터를 제외하고, 램콜하스(Rem Koolhaas)의 OMA, 스티븐홀(Steven Holl), ZFG(Robert Frasca of Zimmer Gunsul and Frasca)의 3개 회사가 경합을 벌이게 되었다.<sup>5)</sup> 그들은 모두, 각각의 작업에 대해 시민을 대상으로 한 6번의 공개 강의를 진행했으며, 발주처와의 인터뷰를 거쳤고, 디자인 문제에 대한 답변도 제출했다. 이러한 과정 끝에 최종적으로 도서관위원회와 건축가선정자문위원회는 홀과 콜하스의 2개 팀으로 후보를 압축시켰다. 그러나 상세한 인터뷰 끝에도 건축가를 선정하지 못했다.

문제는 아무도 OMA의 건물에는 들어 가보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도서관장 데보라 제이콥스와 5명의 도서관 위원회는 OMA의 쿤스탈(Kunsthal), 에듀카토리움(Educatorium), 그랑 팔레(Grand Palais), 그리고 홀의 키아즈마(Kiasma) 미술관과 크랜브룩 과학원(Cranbrook Institute of Science)을 답사했다. 그리고 돌아온 2일 후에 만장일치로 로컬 건축회사인 LMN와 한 팀을 이룬 콜하스의 OMA를 선정하였다.<sup>6)</sup>

콜하스가 도서관의 건축가로 선정되고 난 후, 새로운 도서관에 대한 기대가 표출되었다. 시애틀 타임즈 칼럼니스트인 케이시 코어(Casey Corr)는 ‘도시의 엄청난 문화적 변화’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사람이나 책을 위한 상자 모양 이상의 건물을 원한다’고 말했다. 즉, ‘단순히 기능적인 건물이 아니라 건물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원한다’는 것이었다.<sup>7)</sup>

## ③ 설계 준비 작업

1999년 5월에 콜하스가 설계자로 결정된 후, 발주처와 설계자는 본격적인 설계 이전에 보다 나은 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OMA는 도서관 측에 새로운 도서관에 대한 합동연구를 요청했다. 건축가와 도서관 측 모두 새로운 도서

5) 시저펠리 측은 선정 프로세스가 복잡하여 다른 프로젝트 업무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불참의사를 밝혔고, 노먼포스터 측은 파트너가 될 로컬업체를 찾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역시 불참의사를 밝혔다.

J. Martin Mcomber, "Two Firms Withdraw Bid To Design Library," *The Seattle Times*, 6 May 1999

6) Matthew Stadler, "An Artificial Heart," *Nest*, 24 (2004) : 121-130, pp.122-123

7) O. Casey Corr, "The Hiring Of Rem Koolhaas And The Shock Of The Shoes," *The Seattle Times*, 16 Jun. 1999

###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관에 대한 지식이 없었으므로 그 요청은 받아들여졌다. 우선, 도서관 위원은 다섯 개의 미국 내 도서관과 파리의 국립도서관을 답사했다. 미국 내의 답사 대상지로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디지털 도서관도 포함되었다.<sup>8)</sup>

그리고 3개월 동안 OMA는 자체적으로 디지털 정보와 책의 관계에 대한 연구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로 ‘리서치 리더(Research Reader)’ 라는 제목의 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그 후 OMA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같은 시애틀의 백만장자들에게 기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빌게이츠가 이미 2천만 달러를 기부했고, 다른 기업, 민간 단체, 개인이 총 2천4백만 달러를 기부했다. 예상보다 기부액이 많았기 때문에 도서관은 애초의 기부목표를 4천만달러에서 6천만달러로 상향조정하기도 했다.<sup>9)</sup>

#### ④ 설계 진행

1999년 12월에 콜하스가 새로운 도서관의 모습에 대해, 당선 이후로 첫 번째 공개 설명회를 열었다. 1,000명 이상이 참석한 공개설명회에서 도서관의 대략적인 모습과 주요한 설계 개념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곧 이 내용은 설계개념설명서(Concept Book)으로 엮여서 온·오프라인으로 배포되었다.

디자인을 접한 대중과 언론은 도서관에 대한 비평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시애틀은 전통적으로 참여 디자인과 같은 디자인의 공공적 프로세스가 잘 갖춰져 있는 곳이었으며, 특히 공공 도서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은 대단한 것이었다.<sup>10)</sup>

곧이어 본격적인 설계가 진행되었다. 도서관 직원들로 구성된 37개의 워크 그룹과 시민들로 구성된 10개의 워크그룹이 도서관, 설계자, 프로젝트매지니먼트 회사와 접촉해가면서 시설프로그램의 요구사항부터 인테리어 색채, 제공 서비스, 디자인의 개념까지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질문이나 요청사항을 제시했다.

이어진 SD 예비도면(Schematic Design Preliminary Drawings, 2000.01.24)

8) Karen E. Steen, "The Making of a Library," *Metropolis*, (2004) : 97-115, p.99

9) Sheri Olson, "How Seattle Learned to Stop Worrying and Love Rem Koolhaas' Plan for a New Central Library," op.cit., p. 121

10) 시애틀의 워싱턴 대학에서는 ‘디자인 샬레트(Design Charrette)’ 와 같은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 협의에 의한 커뮤니티 디자인을 진행해 왔으며, ‘시애틀 디자인 위원회(Seattle Design Commission)’와 같은 체계적인 행정기구도 갖추고 있다. 시애틀디자인위원회는 심의하는 건물에 대한 내용과 회의록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seattle.gov/dpd/planning/design\\_commission/overview/](http://www.seattle.gov/dpd/planning/design_commission/overview/)

납품부터 100% DD 납품 이후의 공개설명회(2001.05.05)까지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의 공개설명회가 열렸으며, 각각의 설명회를 전후로 언론에서는 도서관의 변경된 디자인을 크게 다루었다. 이 과정에서 디자인에 대한 찬사와 비난이 반복되었다. 워크그룹의 의견은 물론이고, 언론의 비평, 게시판·이메일·전화 등을 통한 비공식적 의사전달과 같은 모든 의견들은 취합되어 디자인팀에 전달되었다.

### ⑤ 공사와 완공

100% DD 납품 직후인 2001년 5월의 공개설명회로부터 한 달 후, 도서관이 휴관을 시작하면서 건물 철거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2004년 5월 23일 11시에 도서관이 개관하였으며, 첫날 약 26,000명이 도서관을 방문하였다.

## (2) 관련 주체

### • 건축주 그룹

도서관 건립에서의 주요 결정권한을 지닌 건축주 그룹은 3명의 코어 디자인 팀, 외부 인사로 구성된 5명의 도서관위원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회사인 세네카그룹(Seneca Group)으로 구성된다. 주요 인원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5] 시애틀공공도서관 사업의 건축주 그룹

구분	이름	직책 (직업)
코어 디자인 팀 (Core Design Team)	데보라 제이콥스 (Deborah Jacobs)	시애틀공공도서관장 (City Librarian)
	질 진 (Jill Jean)	시애틀중앙도서관장 (Central Librarian)
	알렉산드라 해리스 (Alexandra Harris)	도서관자본계획국장 (Director of Capital Programs)
도서관 위원회 (Library Board Member)	Gil Anderson	전(前) 전자의료기기업체 대표이사
	Linda Larson	환경문제를 주로 다루는 지역 변호사
	Greg Maffei	통신업체 대표, 전(前) 마이크로소프트 최고재무책임자
	Gordon McHenry	보잉(Boeing)사의 시장개발 부문 상무
	Betty Jane Narver	워싱턴대학 공공정책과 경영부문 이사
세네카 그룹(Seneca Group)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 출처 : 다음의 문헌을 참고하여 요약 및 재구성함. Shannon Mattern, *Building Ideologies : A Case Study of the Seattle Public Library Building and Its Embodied Ideas, Ideals and Value*, Diss. NYU, Ann Arbor : UMI, 2002

코어 디자인 팀은 도서관 사업 전체에 걸쳐서 주요한 결정을 내리며 진행을 이끌어 나갔으며, 도서관 위원회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어 코어디자인팀을 견제하면서 도

###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서관이 시의 공공시설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하였다. 캐나다 업체인 세네카그룹은 새 도서관 건설 사업과정에서 전문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할 목적으로 계약되었다.

건축주 그룹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었던 인물은 중앙도서관장 데보라 제이콥스(Deborah Jacobs)였다. 그는 어린이 도서관에서 경력을 쌓아갔으며 시애틀 도서관장으로 11년을 재직(1997~2008)하면서 ‘모두를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갔다.<sup>11)</sup> 중앙도서관 신축은 도서관장을 맡았던 초기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그는 프로젝트에서 주요한 사항들을 결정해 나갔으며 개인적으로 콜하스의 디자인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요한 갈등상황에서 건축가의 안이 유지되도록 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sup>12)</sup>

#### • 건축가 : OMA+LMN

현상설계를 거쳐 OMA(Office for Metropolitan Architecture)가 당선되었다. 발주처와의 계약은 시애틀의 로컬업체인 LMN(Loschky Marquardt & Nesholm)과 공동으로 진행하였는데, 50:50의 설계비라는 동등한 조건에서 계약이 이루어졌다.<sup>13)</sup> OMA에서는 렘콜하스(Rem Koolhaas)와 시애틀 출신의 조슈아 라무스(Joshua Ramus)가 파트너십으로 설계를 담당하였다. 콜하스는 주요한 프레젠테이션에서 대중 앞에 직접 나섰으며, 실질적인 설계는 라무스가 책임을 맡아 진행하였다.<sup>14)</sup>

렘콜하스는 OMA의 하부에 AMO를 만들면서 중국, 라고스 등의 도시사회적 연구 조사를 진행할 정도로 글로벌한 환경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나 또한 주변 맥락을 무시하는 건축으로 종종 비판받았다. 그리고 달변가였다. 시애틀공공도서관 역시 그의 디자인철학에서 나온 합리적인 설명에 기댄 낯설고 거대한 모습의 외관을 하고 있었

11) 2008년 이후에는 게이츠재단의 총괄단장을 맡고 있다.

12) “콜하스는 우리가 도서관을 어떻게 만들고 싶어하는지에 대한 본질을 알고 있다. 우리는 그에게 자세한 건물 프로그램을 넘겼고, 그는 특별한 디자인으로 화답해왔다. 그는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알고 정보들을 훌륭한 디자인으로 잘 바꾸어 왔다”

Seattle Public Library, “Architect for Seattle’s new Central Library is recipient of Pritzker architecture prize,” *Seattle Public Library Press Release*, 17 Apr. 2000 를 다음 문헌에서 재인용 Shannon Mattern, *Building Ideologies : A Case Study of the Seattle Public Library Building and Its Embodied Ideas, Ideals and Value*, Diss. NYU, Ann Arbor : UMI, 2002, p.302

13) 김성홍, 『도시건축의 새로운 상상력』, 서울 : 현암사, 2009, p.226

14) 라무스는 콜하스와의 작업분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모든 작업은 협업적이며, 그러나 때때로 클라이언트들이 한사람의 천재가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콜하스가 나서서 원맨쇼같은 프레젠테이션을 해야만 한다”

Matthew Stadler, “An Artificial Heart,” op.cit., p.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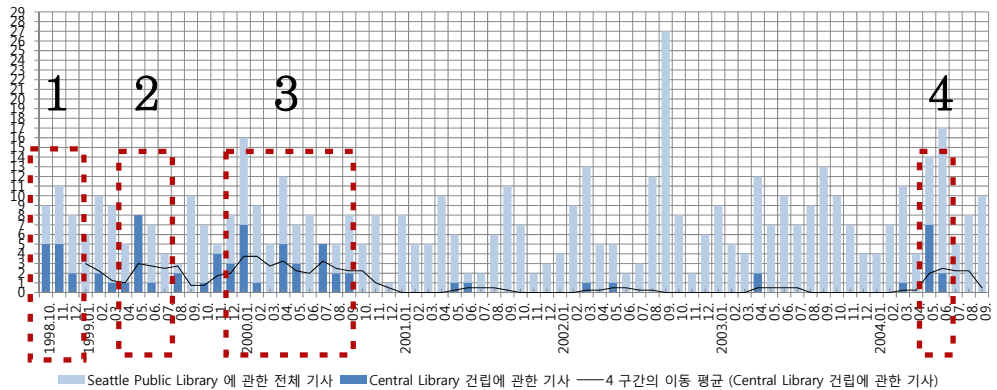
으나 주변의 경관을 효과적으로 끌어들이었으며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었으며 대중과의 의사소통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건물에 대해 설득해나갔다. 다이어그램으로 명쾌하게 건물에 대해 설명하던 의사소통기법은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효과를 발휘했다. 소통의 상당한 정도가 개인의 수사적 능력과 연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디자인의 개인적 성향이 온전하게 반영된 것은 아니다.

• 건축가 선정 자문위원회(Architect Selection Advisory Panel)

현상설계를 통해 건축가를 선정하였던 시애틀공공도서관 사업은, 건축가 선정 단계에서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건축가선정자문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위원회는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들의 직업은 워싱턴대 건축학과 명예교수, 시애틀디자인위원회 대표, 시애틀도시계획위원회 대표, 시애틀미술관위원회 부대표, 목사, 도서관 노동조합 대표, 건축가, 투자회사 대표, 예술가, 변호사, 기업의 부사장, 개발회사 대표, 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위촉되었다. 위원회는 최종 설계자인 OMA를 선정한 후 해체되었다.<sup>15)</sup>

(3) 전체 기간 동안의 미디어 보도 추이

① 전체 기간 동안의 기사 분포



[그림 3-4] 예산 배정부터 완공 이후까지 전체 기간동안 시애틀타임즈(The Seattle Times)의 기사 수 추이

우선 전체 기간 동안 사업에 대해 어떤 내용들이 이슈가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애틀의 지역 신문인 시애틀타임즈(The Seattle Times)에서 관련 기사를 검색하였다. 주민 투표로 채권 발행이 통과된 시점부터 도서관이 완공된 시기의 전후

15) Shannon Mattern, *Building Ideologies*, op.cit., pp.114-115

###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1998.10~2004.09)로 관련 기사를 수집하였다. 해당 기간 동안 관련 기사 수는 총 534건이었으며, [그림 3-4]에서 연한 색의 그래프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서관 건립에 관련된 기사만 다시 추출하였다. 기사 수는 총 76건 이었으며 그림에서 진한 색의 그래프로 표시하였다. 도서관 건립에 관련된 것 이외에는 대부분 도서관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행사에 관련된 소식이나 도서관 이용에 대한 기사들로 이루어져 있었다.<sup>16)</sup>

2001년부터 2004년의 완공 이전까지는 관련 기사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며 전체적으로도 기사 수가 많지 않지만, 게재된 기사들을 대상으로 빈도가 증가하는 구간을 살펴보면 총 네 번의 집중된 구간이 나타난다.

첫 번째는 ‘모두를 위한 도서관’의 채권발행이 통과되었던 1998년 11월 전후의 기간으로서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과 분관 개선 계획을 다룬 기사들로 이루어져 있다. 두 번째는 설계자가 OMA로 정해졌던 1999년 5월 전후로서 공개 설명회를 거친 현상설계에서의 건축가 선정 과정과 응모작들의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세 번째는 100% SD가 납품되고 공개설명회가 열렸던 1999년 12월 이후부터 2000년 하반기까지의 기간이다. 이때는 도서관 디자인에 대한 찬사와 비난이 엇갈렸던 시기로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구간이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도서관이 개관하였던 2004년 5월 이후로서 개관 행사와 완성된 건물에 대해 새롭게 조명한 기사들로 이루어져 있다.

#### ② 기사에서 다루어진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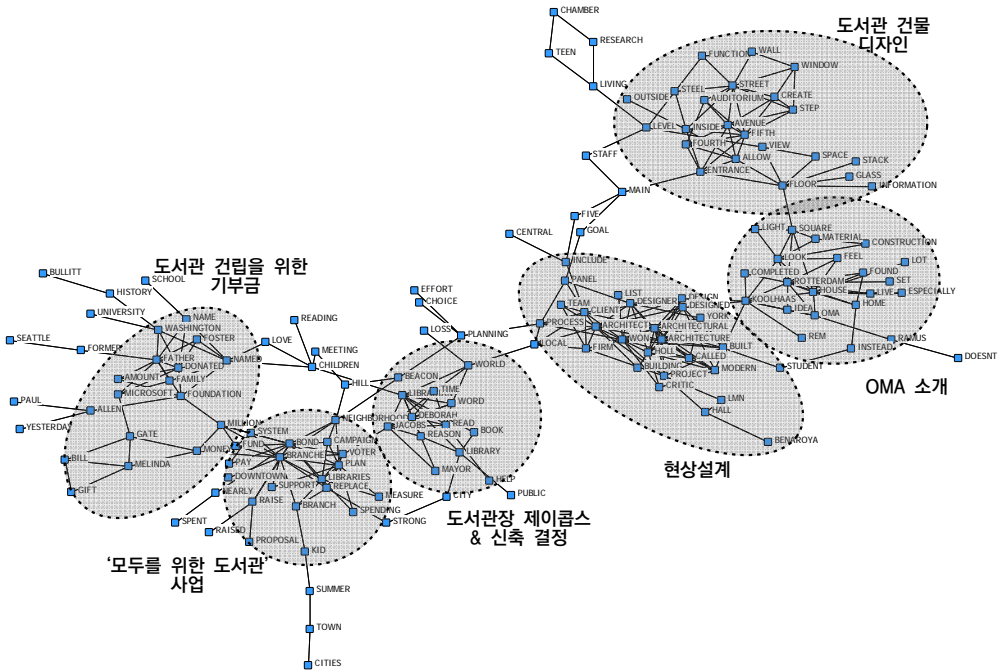
전체 기간 동안에 신문에서 다룬 도서관 건립 관련 기사들의 주제는 기사에 등장한 키워드들의 유사성연결망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sup>17)18)</sup>

16) 시애틀 타임즈의 뉴스검색(<http://community.seattletimes.nwsources.com/archive/>)을 이용하였으며, 검색어는 ‘seattle+public+library’로 하였다. 총 534건이 검색되었으며, 수동적으로 건립 관련 기사들만 추출해냈다. 건립 관련 기사 외의 것들은 도서관에서의 책 판매, 도서관의 아동 코너 소식, 공연, 도서관 인터넷 사용 문제와 같은 기사들이었다.

17) 76건의 기사 전체에서 15회 이상 반복적으로 등장한 단어를 바탕으로 유사성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에서는 0.6 이상의 유사성에 대해서만 연결선을 표시하였다. 연결망 분석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은 부록 1에 설명하였다.

18) 공동참여연결망은 전체 기사에서 해당 주제가 등장한 비중을 파악하는데 용이하며, 유사성연결망은 주제들이 어떻게 그룹을 이루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효과적이다. 물론 기사의 내용은 문장으로 이루어진 실제 기사를 읽어야 알 수 있으나, 키워드들의 연결망은 다수의 기사들이 다루고 있는 내용 전체를 한눈에 파악하기에 효과적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림 3-5] 전체 기간(예산안 통과부터 개관이후까지)동안 SPL관련기사들에 나타난 키워드들의 유사성연결망 ( $r \geq 0.6$ )

키워드들은 전체적으로 여섯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크게 볼 때, 그림 좌측의 세 개 그룹은 사업의 운영에 대한 내용이고, 우측의 세 개 그룹은 도서관 디자인에 대한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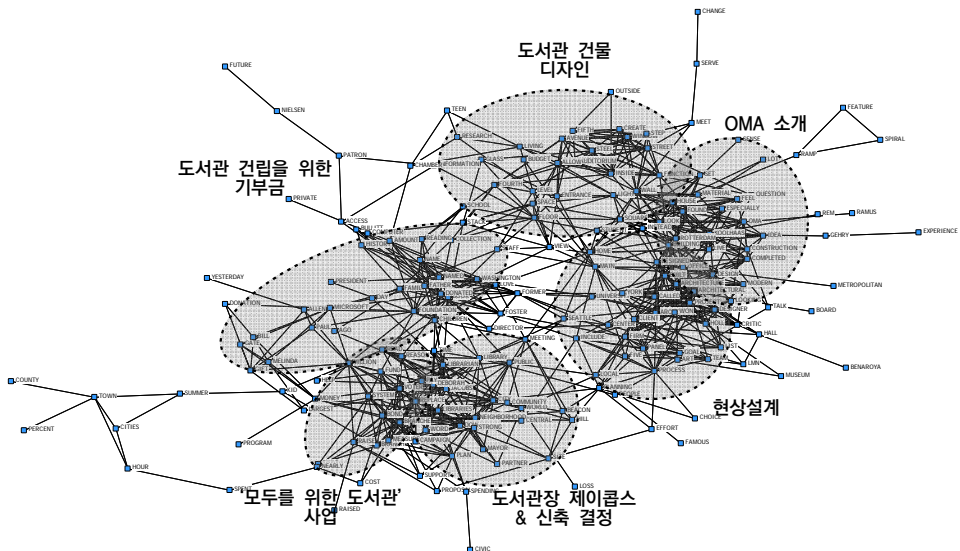
‘도서관장 제이콥스 & 신축 결정’ 그룹은 시애틀공공도서관장인 데보라 제이콥스가 여러 활동을 통해 도서관 확충계획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낸 내용을 다룬 기사들에 등장한 키워드들로 이루어져 있다. 주로 사업 초기의 기사들로서, 제이콥스가 기획한 ‘모두를 위한 도서관(Libraries For All)’ 사업에 대한 내용들과 함께 다루어졌다. ‘모두를 위한 도서관’ 사업은 중앙도서관을 포함한 26개의 분관에 대한 확충계획들도 포함하기 때문에, 이를 다룬 기사들 그리고 예산이 각 분관에 어떻게 할당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기사화 되었다. 사업을 위한 예산은 기 결정된 2억 달러가량의 채권발행기금과 6천만달러를 목표로 한 기부금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모금을 위한 캠페인이 진행되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를 비롯한 여러 기업에서 기부금을 전달해왔다.

1999년 5월 이후에는 도서관 디자인에 대한 기사가 주를 이룬다. 램콜하스와 스티븐홀을 비롯한 여러 건축가들이 경합을 벌인 현상설계에 대한 내용들이 ‘도서관장 제이콥스 & 신축결정’ 그룹의 기사들과 연관되어 다루어졌다. 그 이후 기사들은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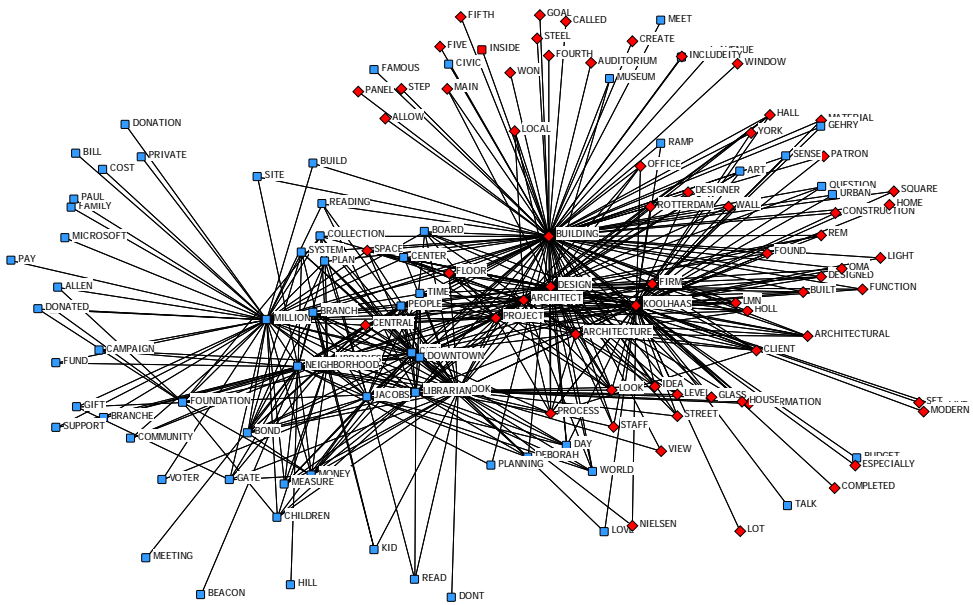
1999년 12월의 공개설명회 이후 촉발된 논쟁을 다루고 있다. 일부 비평가들은 ‘OMA라는 네덜란드 회사’에 대해 소개하는 기사를 썼으며 이 과정에서 보르도 주택(Bordeaux House)과 같은 OMA의 대표적 건물들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리고 건물 자체에 대한 비평에서 등장한 디자인에 대한 키워드들이 하나의 그룹을 이루고 있다. 거리(street)와 출입구(entrance), 각 층(floor)에 대한 기능설명, 그리고 유리(glass)로 뒤덮인 외관 등 건물의 내외부를 묘사하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한다.

그리고 그림에서 나타난 연결망이 0.6 이상의 유사성을 이루는 관계들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이것은 어떤 키워드가 기사에 등장할 때, 60% 이상의 확률로 연결된 키워드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림 전체에서 키워드들은 느슨한 연결 관계를 이루며 펼쳐져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체적인 내용들이 긴밀하게 엮여 있다. 이것은 0.5 이상의 유사성연결망을 표현한 [그림 3-6]으로 확인 가능하다. 키워드들의 그룹이 유사한 주제들로 이루어진 ‘담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도서관 건립을 둘러싼 전체 담론들은 상호간에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sup>19)</sup>



[그림 3-6] 전체 기간(예산안 통과부터 개관이후까지)동안 SPL관련기사들에 나타난 키워드들의 유사성연결망 ( $r \geq 0.5$ )

19) 시애틀공공도서관의 사례에서 드러나는 긴밀한 연결망은 3.2장에서 다루는 등대문디자인플라자의 연결망과 비교하여 볼 수 있다.



[그림 3-7] 전체 기간(예산안 통과부터 개관이후까지)동안 SPL관련기사들에 나타난 키워드들의 공동참여연결망 ( n ≥ 150 )

전체 기사에서 구체적인 건물의 디자인에 대해 다른 기사들의 비중을 알아보기 위해 공동참여연결망을 표현해보았다. [그림 3-7]은 150건 이상의 연결망만을 표현한 것으로서, [그림 3-5]에서 우측의 세 그룹의 키워드들을 다이아몬드(◆)로 표시하여 그림에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20)</sup>

그림을 통해서 볼 때, 도서관 건립에 관련된 기사에서 디자인을 다룬 내용들이 절반, 혹은 그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디자인을 다룬 기사에서 주요한 키워드들은 건물(building), 콜하스(Koolhaas), 디자인(design), 건축가(architect)와 같은 일반적 단어들이다. 이러한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각 부분들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연결되어 있다. 나머지 기사들에서 주요한 키워드들은 금액의 단위인 밀리언(million), 도서관장인 제이콥스(Jacobs), 분관(neighborhood, branch)과 같은 것들이다. 역시, 중심에 놓인 키워드들은 일반적인 단어들이므로, 중심과 주변의 키워드들을 구분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키워드의 분포와 점점 부분에 유의하여 관찰해야 할 것이다. ‘공간(space)’ 과 같은 단어들이 비(非)디자인 기사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은, 도서관 신축을 결정하게 된 이유가 늘어나는 장서 수와 컴퓨터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려는 데서 비롯한 사실과 관련이 있다.

20) 시애틀(Seattle), 공공(public), 도서관(library)의 세 가지 키워드는 거의 모든 기사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지만, 실제적 의미의 연결 관계에서는 특별한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연결망에서 표현되지 않도록 하였다.

### 3.1.2. 토론장과 작업장의 전개 양상

여기서는 주요한 사건의 전개에 따라 토론장이 작업장과 영향을 주고받은 내용을 분석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디어에서의 비평, 일반 시민과 직원들로 구성된 워크 그룹의 피드백, 일반 시민들의 항의 서한 등이 어떠한 주제를 중심으로 담론을 만들어 냈는가 살펴보고, 만약 작업장에서 만드는 건물에 영향을 주었다면 어떤 부분이 변화되었는지를 알아본다.

따라서 해당 내용이 잘 드러나는 2000년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1999년 12월에 본격적인 설계안을 처음 공개한 후부터 워크그룹이 구성되고 2000년 5월에 100% SD를 납품하기까지가 가장 담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기간이다. 그리고, 토론장에서 담론이 작업장에 반영된 것이 있다면 그에 대한 결과는 2001년 5월의 100% DD 납품 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1) 공개설명회와 설계개념설명서 (1999.12)

1999년 12월 15일에 콜하스가 공개설명회를 통해 도서관의 디자인을 공개하였다. 800여명이 참석한 공개설명회에서 다섯 개의 상자가 적층된 듯한 형태와 와이어메쉬의 입면이 드러났다. 콜하스는 “다섯 개의 상자는 보다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들 가운데 떠 있다” 고 전체적 형태를 설명했다.<sup>21)</sup> 신문의 논평에서는 ‘파격적이다, 우주시대같다, 환상적이다’ 와 같은 찬사가 이어졌으며, ‘대담한 콜하스의 안은... 시민의 논쟁을 촉발시킨다’ 는 중립적인 표현도 있었다.<sup>22)</sup> 물론 비판적인 의견도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몇 주 후에 OMA는 디자인의 내용을 담은 ‘설계개념설명서(concept book)’ 를 만들어 일반에게 배포하고 웹페이지를 통해 게시하였다.<sup>23)</sup> 걸표지를 포함하여 총 58페이지로 이루어진 개념설명서는 비전문가인 일반 대중에게 도서관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텍스트와 표보다는 간략한 설명과 그림, 모형사진, 다이어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를테면, 늘어나는 장서 수에 대비하는 도서관

21) "Urban Design/ Seattle's Downtown Library - Into A Bold, New Age," *The Seattle Times*, 16 Dec.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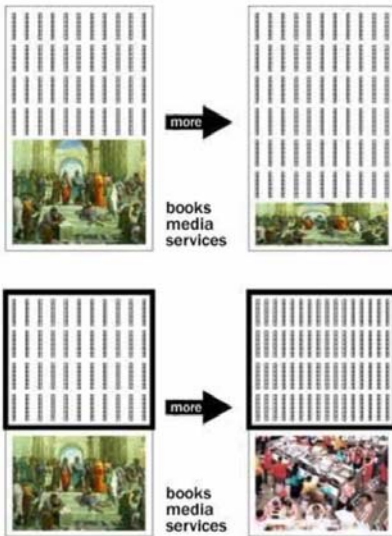
22) Ibid.

23) 컨셉 북의 전체 내용은 다음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2012.03.05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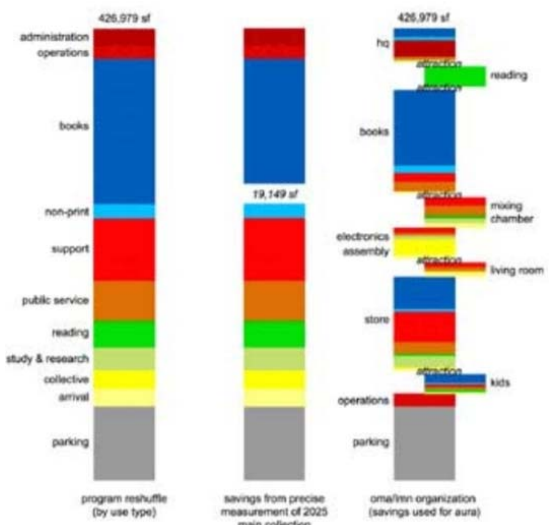
<http://www.spl.org/locations/central-library/cen-building-facts/cen-omaln-concept-book>

공간의 유연성, 장서들의 디지털 화, 책에서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매체의 변화, 도서관이 지닌 사회적 역할의 다변화, 내부 프로그램 구성의 원리, 도서관 단면과 평면을 통한 프로그램 배치 설명, 책을 읽거나 찾는 공간과 인터넷 접속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병행 배치, 주변 맥락과 전망(view) 에 대한 내용들이 개념설명서에 담겨있었다.

설계개념설명서는 도서관에 대한 정의로부터 시작한다. 설명서에 따르면 도서관은 책의 가치를 수호하는 곳이며, ‘최근 10년간 사적인 영역으로부터 잠식당하여 온 공적 영역(Public Domain)과 자유로움(free)의 마지막 저장소’ 다.<sup>24)</sup> OMA는 시애틀공공도서관을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도서관으로 만들고자 했으며, 따라서 도서관을 ‘책은 물론이고, 동시에 낡고 오래된 모든 종류의 미디어를 담는 정보의 창고’ 로서 다시 정의하였다.<sup>25)</sup>



[그림 3-8] 설계개념설명서 중 유연성(Flexibility) 항목의 그림 (출처 : OMA/LMN, Concept Book)



[그림 3-9] 설계개념설명서 중 플랫폼(Platforms)에 대한 설명 (출처 : OMA/LMN, Concept Book)

설계개념설명서에서 ‘유연성(Flexibility)’ 이란, 도서관이 늘어나는 장서 수에 대응하는 방식을 말한다. 기존의 도서관은 장서 수가 늘어나면 다른 공간을 장서 보관 공간으로 바꾸면서 내부의 다른 시설들을 잠식해 나갔지만, 새로운 도서관에서는 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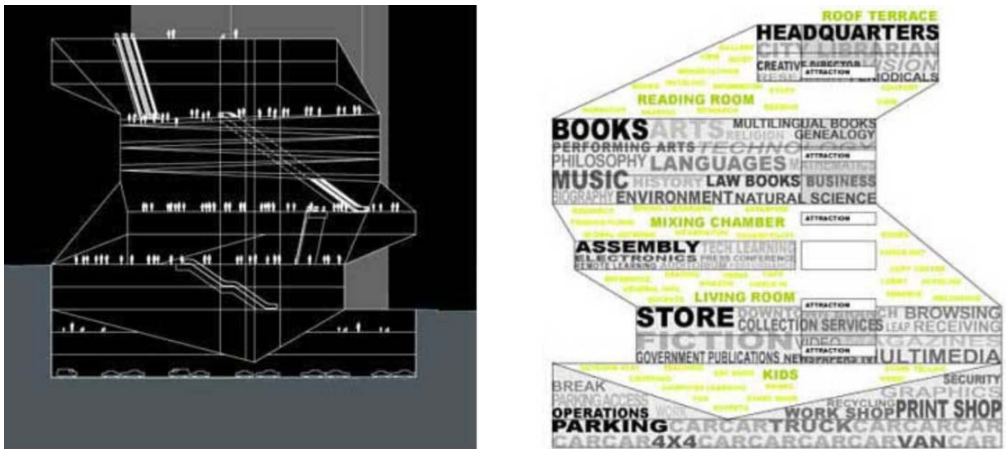
24) OMA/LMN, *Concept Book : Seattle Public Library Proposal*, OMA/LMN, Dec. 1999, pp. 4-6

25) Ibid., p.8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정한 방에 특정한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구획을 최소화 하고 가변성 있게 만들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것이다.(그림 3-8)<sup>26)</sup>

이 건물에 적용한 주요 개념인 ‘플랫폼(platform)’은 각 공간이 어떻게 유연성을 지니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수용하는가를 설명해준다. [그림 3-9]에서 좌측의 다이어그램은 도서관에 필요한 시설의 면적을 수직적으로 적층시켜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가장 우측의 다이어그램에서는 다섯 개의 주된 플랫폼(platforms)과 네 개의 사이 공간(in-between spaces)으로 전체를 구분한 후, 각각의 공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혼합한 것을 표현하였다. 혼합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각각의 공간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비중을 조절해나가면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다.<sup>2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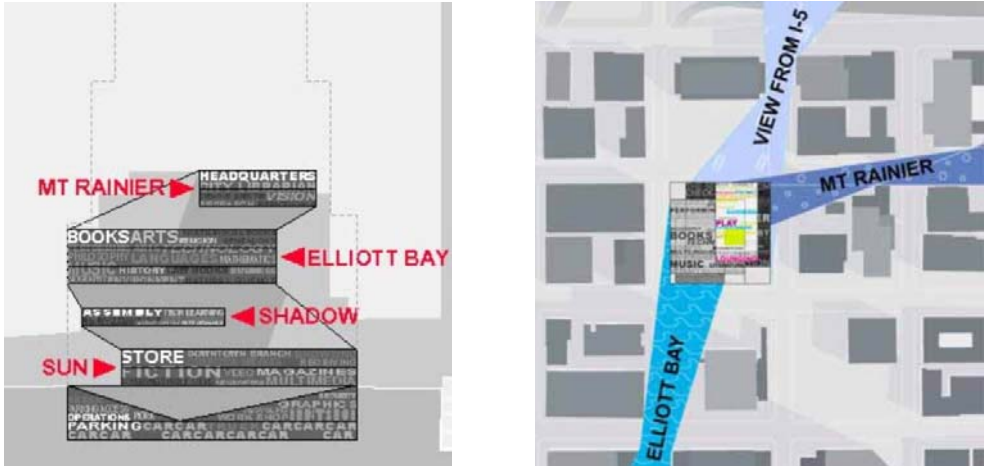
[그림 3-10] 건물의 개념 단면과 플랫폼 및 사이공간(in-between space)의 구성. (출처 : OMA/LMN, Concept Book)

각각의 플랫폼은 박스 형태의 공간에 수용되고, 이 다섯 개의 박스들은 한 층 높이 이상의 사이공간들을 포함하면서 지그재그로 적층된다. 다섯 개의 플랫폼은 각각 아동(kids), 저장소(store), 회합(assembly), 책(books), 본부(headquarters)로 이루어져 있다. 아동 플랫폼은 주차장과 기계설비, 아동관련 시설로 이루어져 있고, 저장소 플랫폼은 대형 거실 공간(living room), 소설, 직원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회합 플랫폼은 믹싱 챔버(mixing chamber)와 회의실 및 전자정보검색실로 이루어

26) Ibid., p.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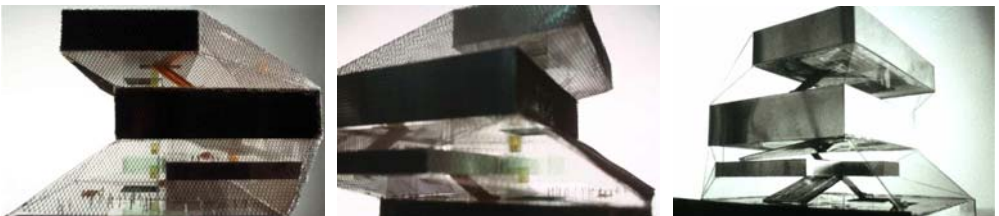
27) Ibid., pp.21-24

져 있다. 믹싱 챔버는 책을 찾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정보검색 공간 주변으로 사서와 방문객이 만나는 곳이다. 책 플랫폼은 독서 공간(reading room)과 서가로 구성되며, 본부 플랫폼은 연속간행물, 직원들 사무공간, 지붕 위 테라스로 구성된다.(그림 3-10)<sup>28)</sup>



[그림 3-11] 햇빛과 조망을 확보하기 위해 상자들이 지그재그로 놓였음을 설명하는 다이어그램 (출처 : OMA/LMN, Concept Book)

상자들이 가지런히 적층되지 않고 지그재그로 놓인 까닭은 고층 건물들이 즐비한 시애틀의 도심 한가운데서 적절한 조망을 확보하면서 밝은 내부공간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또한 적절히 어두운 조도가 필요한 회합과 전자정보 공간은 내부에 배치시켜 ‘그늘(shadow)’을 만들어주기도 했다.(그림 3-11)



[그림 3-12] 지그재그로 적층된 상자와 와이어메쉬 프레임의 투명한 유리 외피로 구성된 시애틀공공도서관의 초기 모형 (출처 : OMA/LMN, Concept Book)

28) 초기에는 플랫폼과 사이공간의 구분이 다소 불분명한데, 설계가 완성된 후 이는 보다 명확한 구분으로 조정된다. 다섯 개의 플랫폼은 아래부터, 주차(parking), 직원(staff), 회의실(meeting), 북스파이럴(spiral), 본부(hq)로 구분되고, 네 개의 사이공간은 아동(kids), 거실(living room), 믹싱챔버(mixing chamber), 독서 공간(reading room)으로 구분된다.

Michael Kubo and Ramon Prat Eds., *Seattle Public Library*, Barcelona:Actar, 2005, pp.22-26

(2) 공식 · 비공식적 조직의 구성과 요구사항 (2000.1)



[그림 3-13] 프로젝트 협의 과정. 알렉산드라 해리스(도서관 자본계획국장), 메간 코원(OMA), 데보라 제이콥스(중앙도서관장), 조슈아 라무스(OMA), 질 진(중앙도서관장), 빌 베인(NBBJ) 등 (왼쪽으로부터 시계방향으로)  
(출처 : "The Making of a Library", Metropolis)

기본적인 도서관 디자인에 대한 콜하스의 공개설명회가 열린 후, 이듬해 1월에 본격적인 디자인 조직이 만들어졌다. 디자인 조직은 크게 건축가를 포함한 디자이너 그룹, 건축주 팀, 직원들로 구성된 내부 워크 그룹, 시민들로 구성된 외부 워크 그룹으로 구성되었다. 그 밖에도 일반 시민들이 이메일, 전화, 게시판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디자인에 참여하였다.

워크그룹과 일반 시민들의 의견들은 지속적으로 수렴되었으며, 수렴된 의견은 디자이너와 건축주 팀 사이의 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그 외에도 상시적인 경로를 통해 디자이너 그룹에 전달되었다. 디자인 과정에서 관련된 참여 주체 및 세부 구성원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6] 참여 주체 및 세부 구성원

구분	관련주체	구성원
공식	디자이너	OMA+LMN, ARUP, 및 기타 협력업체
	건축주 팀	코어 디자인 팀(Deborah Jacobs, Jill Jean, Alexandra Harris), 5명의 도서관위원회, 세넬카그룹(Project Manager)
	내부 워크 그룹	37개 그룹의 도서관 직원들로 구성
		장애인규정 적용, 총무부, 관내 예술품, 대출서비스, 조명, 아동, 커뮤니케이션, 입구와 로비, 일반정보서비스, 연속간행물, 기프트샵, 정기간행물, IT, 조명, 물품반입, 0~499번 장서, 500~699번 장서, 700~899번 장서, 900~999번 장서, 자료이동, 기계설비, 비출판물&대형자료&기타보관, 운영&주차, 공공포럼, 공공안내데스크, 공공화장실, 독자포럼, 보안, 직원휴게실, 직원사무실, 기술&장서서비스, 기술지원센터, 길찾기, 청소년센터, 믹싱컴버, 특수자료, 신속정보지원
외부 워크 그룹	10개 그룹의 자발적 시민들로 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노숙자, 예술, 비즈니스, 연구자, 소설&오락	
비공식	일반시민	-

\*. 출처 : 다음의 문헌을 참고하여 요약 및 재구성함. Shannon Mattern, *Building Ideologies : A Case Study of the Seattle Public Library Building and Its Embodied Ideas, Ideals and Value*, Diss. NYU, Ann Arbor : UMI, 2002



- 디자이너 팀과 건축주 팀<sup>29)</sup>

디자이너 팀은 직접적인 설계를 맡은 건축가 및 엔지니어로 구성되었다. 건축주 팀은 가장 강한 권한을 지닌 코어디자인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도서관위원회, 그리고 프로젝트매니지먼트 업체인 세네카 그룹으로 이루어졌다. 세네카 그룹의 역할 중 중요한 것은 대중과 도서관 측의 요구사항들이 도면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으며, 그 외에도 기본적으로 건축가 그룹과 건축주, 그리고 대중 사이에서 조율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sup>30)</sup>

- 내부 워크 그룹 : 37개의 도서관 직원 그룹

1999년 말에 550명의 직원들로 이루어진 총 37개의 워크그룹이 만들어졌다. 각 워크그룹은 도서관 서비스나 도서관 내부의 공간별에 따라 담당을 나누어 정해졌으며, 도서관 근무자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OMA의 디자인에 대해 검토하고 시민들의 질문에 대해 다루었다. 또한 모든 회의록은 중앙도서관정보센터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다른 워크그룹이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알 수 있었다. PM(Project Management)회사인 세네카그룹(Seneca Group)에서도 종종 회의를 열어 직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세네카 그룹에게 상시적으로 RFI(Request For Information)를 보낼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되었다. 워크그룹들은 디자인 초기 단계에 있어서 확정되지 않은 시설 프로그램의 내용들을 구체화 할 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 몇몇씩 묶인 형태로 종종 소집되었다. 또한 직원들은 코어디자인팀이나 세네카그룹에게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도록 장려되었다.

디자이너 그룹 역시 1999년 12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워크그룹과 미팅을 가졌다. 동시에 도서관측은 설계자들이 놓치기 쉬운 시설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디자이너 그룹에 전달했다. 질문과 요청으로 이루어지는 전달 사항을 [표 3-7]에 요약하였다.

직원들의 워크그룹에서 수렴된 의견은 주로 출입구, 아동공간, 장서에 집중되었다. 그 밖에도 믹싱챔버, 북스파이럴 등의 공간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으며, 전체적인 디자인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29) 디자이너 팀과 건축주 팀에 대해서는 3.1.1 장의 ‘관련 주체’ 항목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30) Shannon Mattern, *Building Ideologies*, op.cit., p.299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표 3-7] 직원 워크그룹의 요청과 질문

구분	전달 사항
출입구	초기 디자인에서 4번가에만 나 있던 출입구는 반드시 4번가와 5번가 모두에 위치시킬 것. 출입구를 들어오는 이용객들이 따뜻하고 편안하게 느끼도록 할 것. 4번가의 레벨이 5번가보다 높기 때문에 4번가로 들어오는 사람이 5번가 쪽에 위치한 공간으로 접근하지 못할 가능성을 해결할 것.
아동 공간	하부에 위치한 어린이 공간이 밝게 유지될 수 있는가, 안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린이 공간이 ‘운동장’으로 계획되는 것보다는 ‘배우는 곳’으로 계획할 것. 어린이 공간의 경사는 좋지 않음.
장서	연속간행물과 정부간행물은 메인컬렉션과 가까이 위치시킬 것. 역사 코너 중 특별 주제를 다루는 영역과 손상되기 쉬운 장서들을 위한 별도의 영역이 마련할 것.
시설 배치	믹싱챔버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도서관에 진입한 사람들은 어떻게 믹싱챔버의 존재를 알고 올라오는가? 북스파이럴안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책들을 효율적으로 배열할 수 있을 것인가? 도서관 내의 계단과 에스컬레이터를 위한 순환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기프트 샵의 직원들은 노인 자원봉사자들이기 때문에 기프트샵은 안전구역과 가까이 위치시킬 것. 화물상하차장과 주차장은 차량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분리시킬 것.
기타	유리, 금속, 날카로운 형태로 이루어진 도서관의 형태를 ‘생기있는 경관(living landscape)’으로 만들 것. 기타 비용, 기능, 공사 스케줄, 에너지 효율성, 구조시스템과 외장 재료 등에 대한 지적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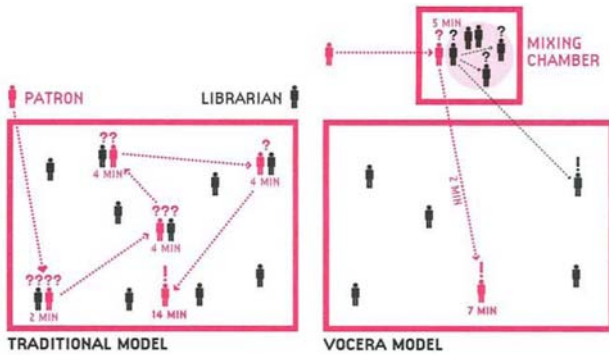
\* 출처 : 다음의 문헌을 참고하여 요약 및 재구성함. Shannon Mattern, *Building Ideologies : A Case Study of the Seattle Public Library Building and Its Embodied Ideas, Ideals and Value*, Diss. NYU, Ann Arbor : UMI, 2002

출입구에 대한 지적은 사람들이 도서관 부지로 접근하는 방향을 고려한 것이었다. 즉, 사용자의 입장에서 주변 가로에서 도서관으로 편리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으며, 레벨이 낮은 도서관 서측(4번가)과 상대적으로 레벨이 높은 도서관 동측(5번가)에서 진입하는 사람들이 도서관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지적사항을 전달하였다.

서측 출입구에서 들어 왔을때 1층에서 바로 마주하게 되는 공간인 아동공간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한 문제 위주로 의견이 피드백 되었다. 이를테면, 경사면으로 만들어진 바닥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이곳저곳 움직이는 활동 공간인 ‘운동장(playground)’으로서 계획하기보다, ‘배우는 곳’이라는 개념으로 정적인 공간을 만들어 나갈 것을 요청했다.

그 밖에 정부간행물과 같은 특수한 장서들에 대한 요청사항들도 있었다. 또한 주요한 디자인 요소였던 믹싱챔버와 북스파이럴에 대한 의구심도 표현되었다.

믹싱챔버(Mixing Chamber)는 장서를 보관한 공간인 북스파이럴(Book Spiral)에 도달하기 전에 거치게 되는 공간으로서, 사서들이 도서관 방문객과 접촉하면서 원하는 책과 정보를 찾도록 도움을 주는 곳이다. 직원들은 위치정보를 계산해주는 음성 송수신기(보세라, Vocera)를 이용하여 서로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며, 따라서 다른 전문 분야의 사서를 신속하게 방문객에게 안내해 줄 수 있다. 이러한 기술과 믹싱



[그림 3-14] 믹싱 챔버의 효율성을 설명하는 다이어그램. 기존의 도서관에서 여러명의 사서와 접촉하면서 책을 찾을 경우 평균적으로 14분의 시간이 걸렸던 것에 비하여, 믹싱 챔버와 음성송수신기(Vocera)를 이용한다면 평균적으로 7분에 원하는 책을 찾을 수 있다.  
(출처 : "The Making of a Library", Metropolis)

챔버라는 공간의 결합으로 인하여 기존에 책을 찾는 시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 디자이너의 주장이었다.

워크그룹에서는 이러한 믹싱 챔버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동시에 도서관에 온 사람들이 이 공간의 존재를 어떻게 인지하고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를 거론했다.

또한 연속적 경사로에 서가를 배치한 북스파이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장서의 증가에 따라 이 공간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다룸과 동시에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로 이어지는 복잡한 동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북스파이럴의 경사로는 신문의 비평에서도 크게 다루어지는 등 사업에 있어서 주요한 쟁점 중의 하나였다.

#### • 외부 워크 그룹 : 10개의 시민 그룹

일반 시민들은 도서관 이용자의 입장에서 참여하였는데, 10개의 워크그룹은 이용자 특성을 대표하거나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 섹션에 대해 담당하는 방식으로 나누어졌다. 도서관장 제이콥스는 채권에 대한 투표(1998.11) 이전부터 대중과의 모임을 조직해 왔으며, 주요한 이벤트마다 이들의 반응을 수렴해 왔었다. 10개의 워크그룹은 이러한 모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이들의 요청사항은 다음 장의 표와 같다.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 분류된 10개의 워크그룹은 각각 해당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정책적인 것에서부터 공간의 전반적 분위기와 구체적인 시설, 그리고 디자인의 문제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영어가 주 언어가 아닌 사람)과 노숙자 그룹에서는 해당 이용자들에게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배려할지 정할 것을 요구했다. 아동과 청소년 같이 성장기 연령의 이용자들에게는 그에 걸맞는 분위기의 공간을 만들도록 요구했고, 노인 이용자들에게 대해서는 밝고 조용한 공간을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연구자 그룹에서는 노트북 키보드 소리가 들리지 않는 조용한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휴대폰 사용 금지와 같은 이용 규칙에 대한 부분을 제안하기도 했다.

[표 3-8] 시민 워크그룹의 요청과 질문

워크 그룹	전달 사항
아동	공간의 자유도와 안전성 확보, 다른 공간들과의 시각적 물리적 연결 확보, 소음 환경이 차이나는 공간을 동시에 고려, 아동의 성장시기에 따라 공간을 구분할 것, 다양한 크기의 의자를 배치, 아동의 신체발육상태에 맞는 선반 높이와 책상 높이 고려, 어린이 공간은 최신식이되, MTV 스튜디오나 놀이공원처럼 만들지 말 것, 미래의 새로운 콘텐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계획할 것.
청소년	색이 다양하고 역동적이며 사용자에게 친숙한 공간을 만들 것, 공부, 독서, 컴퓨터, 음악감상, 회의실 등의 분위기를 다르게 할 것, 10대 그룹이 스스로 공간을 개인화 할 수 있도록 할 것, 간단한 음식 섭취를 위한 공간을 마련할 것, 도서관 이용 교육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것
노인	밝은 조명시설, 조용한 독서 공간, 소음을 흡수하는 바닥재, 안내데스크는 접근하기 쉬운 곳에 놓을 것, 현대소설에 대한 토의 장소뿐만 아니라 고전에 대한 장소도 만들 것, 컴퓨터 사용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
장애인	모든 공간에 접근성을 고려할 것, 승합차의 접근과 주차, 음성인식 컴퓨터, 이동가능한 설비들을 고려할 것, 다른 공간과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는 공간으로 만들 것
ESL (영어가 주 언어가 아닌 사람)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시설을 출입구 근처에 위치할 것, 어느 정도까지 이들을 지원할지에 대해 도서관은 결정할 것, 이들을 위한 시설은 제공하되 도서관이 이들을 완전하게 지원해야 할 책임은 없음
노숙자	이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도서관을 이용할 동등한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가를 결정할 것, 도서관이 시의 거실 역할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결정할 것, 짧은 시간동안이라면 도서관은 이들에게 공간을 제공해야 할 것, 노숙자 문제 역시 도서관이 제공해야 할 서비스 중의 하나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
예술	시인들의 예술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도서관 디자인의 미학까지 포함하여 조언함. 도서관은 뮤지엄과 다르기 때문에 접근이 더 쉽고, 다양한 독자층에 대비해야 하고, 회의공간도 있어야 함, 거기에 더하여 전시 공간도 있어야 함. 도서관이 지역 예술가들을 지원해야 함. 건물 자체가 하나의 조각적 작업이 되도록 할 것
비즈니스	지역 산업과 하이테크, 항공 산업, 천연자원 등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온라인 접근을 고려해야 함. 회의실과 컨퍼런스 룸이 있어야 함. 도서관 직원은 일반 직원과 더불어 전문적 지식을 갖춘 직원도 있어야 함. 최신의 정보 제공을 해야 함
연구자	연구 환경을 강화하도록 도서관 디자인해야 함. 키보드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노트북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마련해야 함. 휴대폰 사용금지가 지켜져야 함. 오랜 시간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쾌적해야 함. 개인화된 공간이 필요함.
소설& 오락 독자	필요한 곳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안내표시를 잘 할 것, 독서에 친숙한 공간 만들 것, 기술적인 지원 이외에도 사람 사이의 접촉을 통한 안내를 잘 할 것, 책을 찾는 시간을 짧게 만들 것, 건축가에게 좋은 공간인지 대중에게 좋은 공간인지를 확실히 할 것.

\* 출처 : 다음의 문헌을 참고하여 요약 및 재구성함. Shannon Mattern, *Building Ideologies : A Case Study of the Seattle Public Library Building and Its Embodied Ideas, Ideals and Value*, Diss. NYU, Ann Arbor : UMI, 2002

• 비공식적 구성원

공식적 조직에 속해 있지 않은 대다수의 일반 시민들은 ①공개설명회 ②도서관 웹사이트 ③우편, 이메일과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도서관과 소통할 수 있었다.

특히 도서관 웹사이트(www.spl.org)에는 비용예산부터 도서관위원회의 프로젝트

에 관한 의견까지 모든 내용들이 게시되었다. 웹사이트에는 하루에 30,000명이 방문했는데, 비용에서부터 시애틀디자인위원회의 지적사항까지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공개되면서 시민과의 활발한 소통창구 역할을 하였다.<sup>31)</sup>

### (3) 토론장에서의 논쟁 (1999.5~2000.05)

1999년 5월에 스티븐 홀과의 최종 경합을 거쳐 램콜하스가 설계자로 선정된 후, 언론에서는 이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를 동시에 드러냈다. 시애틀타임즈의 칼럼니스트인 케이스 코어(O. Casey Corr)는 시애틀에 지어진 기존 공공건물이 썩 좋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램콜하스가 설계하는 도서관 건물이 시애틀에 있어서 대단한 문화적 전환점이 될 것이며 기대감에 찬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단지 기능적인 건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원한다는 기대를 덧붙였다.<sup>32)</sup> 그러나 한편으로, “도서관 위원회는 디자인 과정에 대해 보다 많이 관여하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독특한 아이디어로 설계하는 사람을 뽑았다”는 우려도 있었다. 도서관 위원인 그렉 마페이(Greg Maffei)는 “나는 램을 지지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감당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스타 건축가에게 디자인에 대한 모든 권한을 넘기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다.<sup>33)</sup>

1999년 12월에 본격적인 건물의 디자인이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신문에서도 도서관의 디자인에 대해 전체적 형상, 유리로 된 외피, 내부의 시설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sup>34)</sup> 대부분 비교적 중립적 입장에서 건물을 설명하거나 기대감을 드러낸 반면, 시애틀타임즈의 칼럼니스트인 수잔 닐슨(Susan Nielsen)은 건물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강한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도대체 이것이 뭐란 말인가(What the hell is that)?” 라는 강한 표현으로 시작한 기사에서 닐슨은, 세계적 도시가 되고자 하는 시애틀의 ‘몸부림’ 과 건물을 통해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콜하스를 거론하면서 건물을 비판해 나갔다.

31) Sheri Olson, "How Seattle Learned to Stop Worrying and Love Rem Koolhaas' Plan for a New Central Library," op.cit., p. 125

32) O. Casey Corr, 16 Jun. 1999, op.cit.

33) "Cool With Koolhaas," *The Seattle Times*, 28 May 1999

34) 공개설명회에서 소개된 도서관 계획안에 대한 설명은 다음의 두 기사를 참고.

Robin Updike, "New Library Design Goes Beyond Books - Planner: Ethereal Project Redefines Function," *The Seattle Times*, 16 Dec. 1999 그리고, "Urban Design / Seattle's Downtown Library - Into A Bold, New Age," 16 Dec. 1999, op.cit.

###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닐슨은, 일부 바닥이 투명해서 치마를 입을 수 없다는 점, 경사진 바닥은 장애인이 다니기 불편하다는 점, 디지털 미디어를 강조한 까닭에 장서를 보관하는 공간이 전체 건물의 1/3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도서관이 책을 읽는 곳이라면 사람들로부터 책을 기증받기도 해야 하고 보다 많은 책과 읽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sup>35)</sup>

전문 칼럼니스트의 비판적 기사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일반 대중에게 영향을 주었다. 한 시민은 “닐슨의 기사를 읽고 신문에 독자투고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면서, “새로 짓는 도서관 건물이 도서관 같아보이지도 않고, 과연 책을 담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sup>36)</sup>

닐슨은 이듬해 1월 13일에 다시 기고문을 실었다. 닐슨은 건물이 ‘거대한 토끼장’ 같다고 하며 전체적인 디자인을 비판하는 한편, 경사로의 문제, 구조적인 안정성, 내부의 소음이 유리에 의해 반사되는 문제, 유리 외피에 대한 유지보수의 방법과 같은 문제들도 지적했다. 그러나 여전히 주된 비판의 대상은 부족한 책 공간이었다. 그는 책을 보관하고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서관 본연의 기능임을 강조하면서 기존보다 장서공간이 150%가 늘어났지만, 여전히 장서는 많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아직도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그 건물은 마치 콜하스가 시애틀을 조롱하는 것 같다”는 사람들의 말도 인용하면서 총체적인 불만을 피력했다.<sup>37)</sup>

또 다시 시민들의 투고가 이어졌다. 한 시민은 신문에 기고를 통해 “미네아 폴리스의 워커 예술 회관(Walker Art Center)은 좋은 뮤지엄이었으나 벤츄리에게 디자인을 새로 맡겼고, 그는 완전한 실패작을 선사했다. 기능적일지는 모르지만 사용자에게는 친숙하지 않았다.”고 예시를 들어 설명하면서, 새로운 도서관에서는 비슷한 실패를 반복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는 “사용자에게 오랜 기간 동안 좋은 건물이 될 수 있는 클래식한 디자인을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sup>38)</sup> 다른 시민은 대담한 도서관의 디자인에는 찬성하면서 지진에 대한 안전, 외장 유리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

35) Susan Nielsen, "Shhhh, My Little Parakeets, The Library Has No Clothes," *The Seattle Times*, 23 Dec. 1999

36) Ruth Shipp-Dart, "New Library: Library To Be Another Building That Values Ego Over Substance," *The Seattle Times*, 5 Jan. 2000

37) Susan Nielsen, "Library lovers speak out: Rem, we just want to help," *The Seattle Times*, 13 Jan. 2000

38) Charlie Cunniff, "Letters To The Editor : Seattle Public Library," *The Seattle Times*, 19 Jan. 2000

할 수 있는지, 소음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sup>39)</sup> 한 시민은 닐슨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만약 디자인이 그대로 실현될 경우, “그것은 우리의 상식을 관 속에 물어버리는 격” 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sup>40)</sup>

물론,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의견도 있었다. 한 시민은 기고를 통해 닐슨에게 “일부 의견으로 일반화하지 말라”면서 “당신의 마음에 안들더라도, 많은 시민들이 프로세스를 통해 도서관 디자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비판적인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언젠가는 이용하게 될 입장에서 바라보라는 것이었다.<sup>41)</sup>

그리고 사람들은 편지와 이메일을 통해 도서관에 불만을 전달했다. 한 시민은, 도서관이 “쿨하스를 위한 디자인도 아니고, 심사위원들을 위한 디자인도 아니며 바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을 위한 디자인”이라고 말했다. 다른 이는 “이것은 도서관이 아니라 상징적 조형물이고, 커뮤니티 센터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자신의 디자인을 알리려는 수단이며, 아주 대단한 생각이기는 하지만 좋은 생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 밖에도 도서관이 ‘미국의 북서부’라는 특징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불만들이 제기되었다. 계속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면 다시는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민들도 있었다.<sup>42)</sup>

이렇듯, 신문을 통해 게재된 기사들의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었다.<sup>43)</sup> 도서관은 기사의 내용에 자극받은 사람들로부터 2000년의 상반기만 수백 통의 이메일, 편지, 항의전화를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도서관의 자본계획국장인 해리스는 “사람들은 도서관이 기능적 측면을 희생하여 건축적 개념을 펼쳐보려고 한다는 오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sup>44)</sup> 동시에 도서관은 위기관리모드에 들어갔다.

도서관은 대응의 일환으로 신문의 사설을 통해 상황을 전달했다. 2000년 1월 31

39) Jean Boucher, "Letters To The Editor : Seattle Public Library -- Koolhaas' design is bold, competes on global scale," *The Seattle Times*, 23 Jan. 2000

40) William Whitman, "Letters To The Editor : Public library -- Koolhaas design will bury Seattle's common sense," *The Seattle Times*, 30 Jan. 2000

41) Suzanne Hittman, "Letters To The Editor : Seattle Public Library," *The Seattle Times*, 19 Jan. 2000

42) Shannon Mattern, *Building Ideologies*, op.cit., pp.284-287

43) 당시 시애틀에는 종합 일간지가 *The Seattle Times*와 Seattle PI 의 두 개만 존재했다. 2010년에는 Seattle PI가 인쇄된 신문사업을 그만두고 온라인 매체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지금(2012년)은 The Seattle Times만이 유일한 인쇄물 일간지로 남아 있다.

44) Shannon Mattern, "Just How Public Is the Seattle Public Library? : Publicity, Posturing, and Politics in Public Design," *Journal of Architectural Education*, 57(1) (2003), pp.10-11



[그림 3-15] 증권거래소에 비유하면서 믹싱챔버에 계획되었던 투명한 반사재의 전자정보 디스플레이 바닥  
(출처 : OMA, Concept Book)

일의 사설에서, 콜하스를 건축가로 선정한 까닭은 그가 대중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도서관측은 다방면으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렸다.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콜하스는 투과되어 보이는(see-

through) 바닥을 계획한 적이 없으며, 단지 바닥의 일부분에 조명 효과를 위해 반투명한 유리를 사용하려고 한 것이라 밝혔다. 또한 경사진 출입구 부분의 바닥은 평범한 바닥으로 수정했으며, 복스파이럴의 경사는 실물모형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테스트하도록 할 것임을 예고했다.<sup>45)</sup>

그 후에 도서관의 디자인을 옹호하는 기사들이 차례로 실렸다. 현상설계에서 건축가선정 자문위원이기도 했던 소설가 매튜 스타들러(Matthew Stadler)는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면서 닐슨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반박했다. 건축가선정위원회가 콜하스를 선정한 이유 중의 하나는, 그가 설계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잘 설명해나갔으며 이제껏 OMA에서 지은 건물들은 예산을 초과한 것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높고 투명한 박스형 건물의 제일 위에서 사람들은 시애틀을 향한 매우 좋은 조망을 얻을 수 있으며, 햇빛을 가득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부각시켰다. 그리고 닐슨이 우려하는 투명한 바닥은 완전 투명한 것이 아니라 뿌옇게 처리된 유리라고 말했다. 또한 경사로에 대해서는 계단으로 오르내리는 것보다 장애인에게 훨씬 편리하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sup>46)</sup>

프로젝트 시작 단계에 도서관에 대한 높은 기대를 표현했던 칼럼니스트 케이시 코어(Casey Corr) 역시 도서관 디자인을 옹호하고 나섰다. 우선 그는 사람들이 도서관 디자이너를 ‘외부인’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했다. 시애틀 회사인 LMN 이 OMA와 함께 협업을 하고 있으며, OMA에서 도서관 건물을 담당한 건축가도 시애틀에서 자란 조슈아 라무스(Joshua Ramus)였다. 그는 라무스가 자라온 자

45) "Urban design / Seattle's downtown library," 16 Dec. 1999, op.cit.

46) Matthew Stadler, "Koolhaas, library design deserve kudos," *The Seattle Times*, 8 Feb. 2000



취와 도서관 디자인에 대한 라무스의 비전을 설명하면서 신문을 읽는 독자에게 설계를 맡은 건축가가 친근한 존재로 느껴지도록 했다.<sup>47)</sup>

그리고 또 다른 기사를 통해 콜하스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콜하스는 시애틀 기반의 건축가였던 경쟁자 스티븐 홀과 비교했을 때, 미국에 지어진 건물이 하나도 없었고 상대적으로 ‘특이한’ 건물을 설계하는 건축가라는 인상이 지배적이었다. 코어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긴 글을 통해 콜하스의 건물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보르도 주택(Maison a Bordeaux)이 거주자에게 친숙하다는 점, 콩그렉스포(Congrexpo)가 좋은 건물임과 동시에 공사비 또한 저렴하다는 점, 그 밖에도 쿤스탈(Kunsthal), 단스씨어터(Dans Theater), 에듀카토리움(Educatorium) 등의 예를 들면서 콜하스 건물의 좋은 점들을 설명해 나갔다. 로테르담에 있는 콜하스의 사무실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콜하스의 이력도 간단하게 소개하였다. 그리고 디자인은 이제 시작단계이며, 많은 점들이 보다 구체화되어 5월 3일에 공개될 것이라는 이야기 또한 덧붙였다.<sup>48)</sup>

우호적인 비평가들의 글과 도서관의 노력으로 인해 사람들은 도서관의 디자인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우리들의 요청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낀다” 고 말했다. 그리고 “외관은 괴상해보이지만 자연광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등의 좋은 이유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는 의견도 있었다. 도서관측은 모든 의견들을 문서화 하고 디자인 팀에 전달하였다. 그리고 모든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을 보냈으며, 전화를 다시 걸어 해명하기도 했다.<sup>49)</sup>

한편 콜하스는 시애틀 시민의 반응이 조용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고 있었다. 콜하스는 도서관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우리는 비판(criticism)을 좋아한다. 건축이란 대립에 직면하여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응수하기도 했다.<sup>50)</sup>

콜하스는 도서관 위원회들로부터 받은 대중의 피드백들을 잘 축적해 나가고 있었으며 비판들을 디자인 진행을 위한 발판으로 삼았다.

47) O. Casey Corr, "There's a lot of Northwest in the hip' library design," *The Seattle Times*, 5 Apr. 2000

48) O. Casey Corr, "Looking for Rem," *The Seattle Times*, 9 Apr. 2000

49) Shannon Mattern, *Building Ideologies*, op.cit., pp.294-303

50) Sheri Olson, "How Seattle Learned to Stop Worrying and Love Rem Koolhaas' Plan for a New Central Library," op.cit., p. 125

###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시애틀 사람들이 포부에 가득 차 있고 매우 비판적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쉽게 가려거나 순수한 열정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긍정적인 의견에도 놀랐고, 비판 또한 이해할 만한 것이었으며 피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우리는 전형적인 건물로부터 벗어나는 많은 이슈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전형적인 것들로부터 벗어나려 할 때 걱정과 의문들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비판이란 디자인 프로세스의 일부다. 디자인을 잘 해나가려면 비판적인 상대 역할이 필요하다. 51)

그러면서도 콜하스는 자신의 디자인이 왜 새로운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 새로운 세상에서, 도서관은 그 상징적 이미지에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어떤 이들에게 이러한 이미지는 생소한 것일지도 모르나 이러한 전환은 새로운 사회적 조건하에서 필요한 것이다. 사회적 조건이란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식이나 이해의 범위 위에 존재하는 것이다.52)

물론 그가 디자인의 새로움에 대한 자신의 생각만을 고수한 것은 아니다. 작업에 참여한 한 사람의 주체로서 그는 자신의 디자인을 대중 앞에서 차근차근히 설명해 나가는 동시에 지적사항의 많은 점들을 받아들여 디자인을 수정해 나갔다. 그리고 디자인을 완성도 있게 끌고 나가면서 자신이 제시했던 장점이 지어진 건물에서도 드러날 수 있도록 했다.

#### (4) 작업장으로의 피드백 : 100% Schematic Design 납품 (2000.05)

미디어를 통한 비평가 워크그룹에서 다루어진 사항들이 설계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공개 프레젠테이션으로부터 40여일 후인 2000년 1월 24일의 SD 예비 도면 세트(Schematic Design Preliminary Drawings)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반영되었다.

우선, 연속간행물이 최상층의 본부 시설 옆으로 올라가고 기존의 연속간행물 자리로 정부간행물이 이동되었다. 또한, 4번가의 입구 레벨로부터 3개 층 떨어져 있던 강당이 더 낮은 곳으로 가면서 아동공간과 공유하게 되었다. 그 결과, 직원들이 건의한대로 강당은 입구의 로비에서 시각적으로 연결되었으며 그 경사가 조정되었다.53)

그리고, 2000년 2월에 코어디자인팀, 도서관위원회, 직원, 세네카 그룹이 로테르담의 콜하스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외피의 메쉬(mesh) 모듈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위해 보다 크고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등(그림 3-17) 디자인은 계속해서

51) O. Casey Corr, 9 Apr. 2000, op.cit.

52) 다음의 글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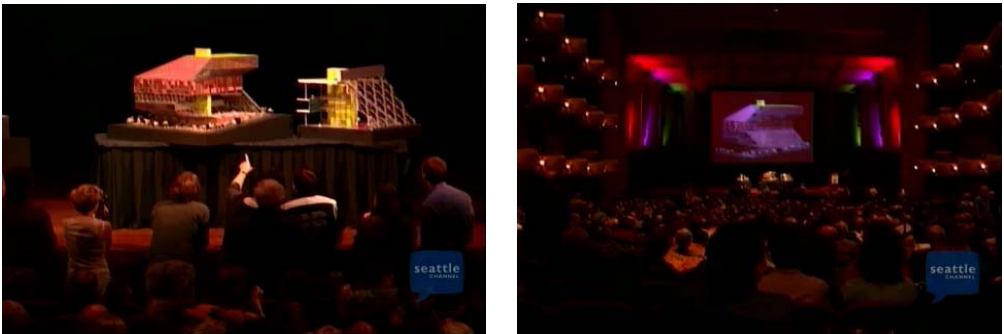
Shannon Mattern, "Just How Public Is the Seattle Public Library?," op.cit.

53) Shannon Mattern, *Building Ideologies*, op.cit., pp.310-313

수정되어 나갔다.

작업이 주로 네덜란드에서 이루어졌던 까닭에 거리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으나, 로컬 업체인 LMN의 노력으로 많은 부분이 상쇄되었다. 그리고 OMA와 LMN은 대중의 요청들을 모두 검토했다. 콜하스가 제이콥스와 단독으로 만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도 있었지만, 제이콥스는 항상 팀과 같이 만나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전체 작업에서 프로젝트매니지먼트사인 세네카 그룹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OMA에게 있어서는 발주처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로 여겨지기도 했다.

2000년 5월 1일에 도서관을 위한 계획 설계안(100% Schematic Design)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를 위인 5월 3일에 공개설명회가 열렸다.



[그림 3-16] SD 공개설명회 (출처 : Seattle Chann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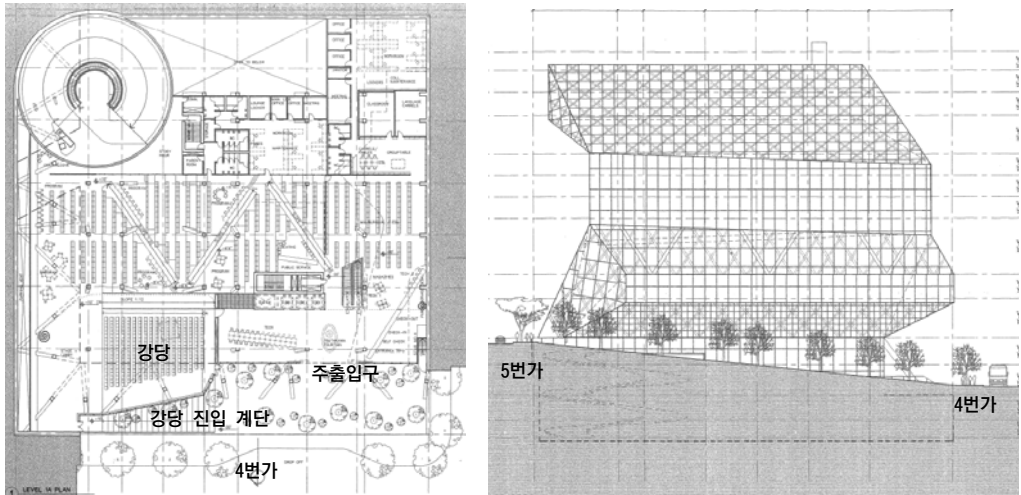
천 여명 이상이 모인 설명회에서 콜하스는 직접 나서서 건물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며, 두 가지 오해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북스파이럴의 경사로는 매우 낮은 경사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바닥은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반투명한 유리바닥 밑에는 콘크리트 슬라브가 있으며 그 사이에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디스플레이 장치를 삽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밑에서 위를 올려다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sup>54)</sup>

처음 디자인이 공개되었을 때처럼 격렬한 논쟁이 오고가지는 않았다. 반면 이번에는 건물 주변을 거니는 보행자의 입장에서 도서관의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가 게재되었다.

데이비드 수처(David Sucher)는 건물이 보행자에게 친근하지 않다고 말했다. 우

54) Beth Kaiman, "Koolhaas fans check out refined plans for library," *The Seattle Times*, 4 May 2000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그림 3-17] SD 납품도면의 1층 평면도(좌), 북측 입면도(우). 평면도에서 왼쪽이 북측, 4번가로 표시된 아래쪽이 서측이다. (출처 : OMA, 100% Schematic Design)

선 4번가 앞마당에 건물에서 연장된 강철 튜브가 보행로로 비스듬히 내려와 바닥으로 꽂히는데, 이것은 4번가 인도와 건물 앞의 작은 광장을 분리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강당은 블라인드를 내려서 내부를 어둡게 해야 하기 때문에, 1층에서 4번가 쪽에 위치한 강당은 전면 유리를 불투명한 상태로 유지시키게 하여 건물 내부와 외부를 시각적으로 차단하게 만든다는 단점이 있었다(그림 3-17). 그리고 5번가 역시 건물에서 땅으로 연장된 강철 프레임은 부주의할 수 있는 보행자에게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었다. 수치는 이 밖에도, 건물 남측에서 진입하는 화물차의 출입구가 보행자에게 불편함을 준다고 지적하면서, 과연 수많은 분관을 두고도 도심 한가운데의 도서관이 책의 저장소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재고하라고 요구했다.<sup>55)</sup>

(5) 작업장으로의 피드백 : 100% Design Development 납품 (2001.03)

• 북 스파이럴의 서고 면적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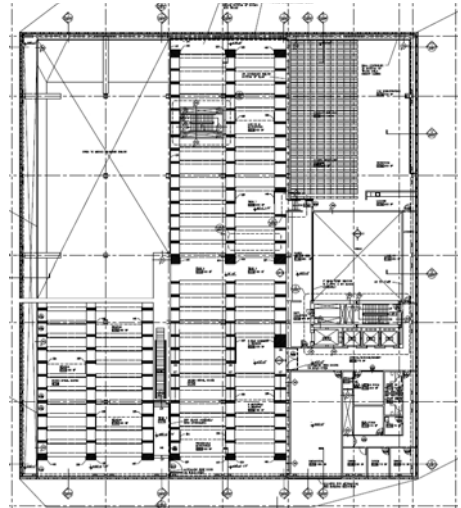
2001년 3월에 DD 100% 도면을 PM인 세네카 그룹에게 납품하였다. 가장 큰 변화는 북스파이럴의 서고 면적을 확장한 것이다. 서고 면적에 대해서는, 초기에 디자인이 공개된 후 닐슨의 기사에서 주요한 비판의 대상으로 다루어진 바 있었다. 대중 역시 책을 보관할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55) David Sucher, "There is still time to fix the library," *The Seattle Times*, 23 Jul. 2000

서고 면적을 늘리는 한편, 북 스파이럴이 시작되는 5층 한쪽에는 아래층의 믹싱챔버로의 커다란 오픈닝을 두어 개방감을 확보하였다. (그림 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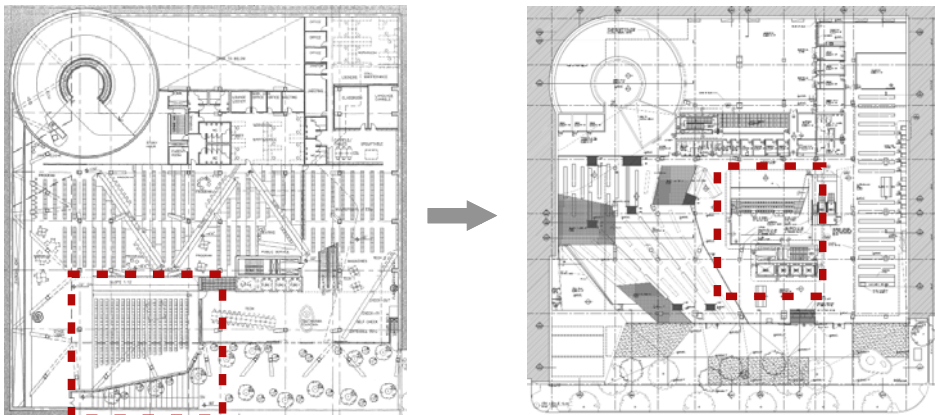
• 강당 위치 변경

건물에는 4번가(대지 서측, 평면도에서 아래 쪽)와 5번가(대지 동측, 평면도에서 위 쪽)의 양쪽에서 진입할 수 있는 두 방향의 주요한 출입구가 있었다. 그런데 이 두 출입구의 높이가 달라서 상호간의 연결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기존 연결이 좁은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수정된 도면에서는 강당을 4번가 전면에서 건물 가운데로 옮김으로서 문제를 해결하였다.(그림 3-19) 즉, 강당 내부에 있는 관람석의 경사를 5번가에서 4번가로 낮아지는 경사와 일치시킴으로써, 높은 레벨에 위치한 5번가에서 진입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부 공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그림 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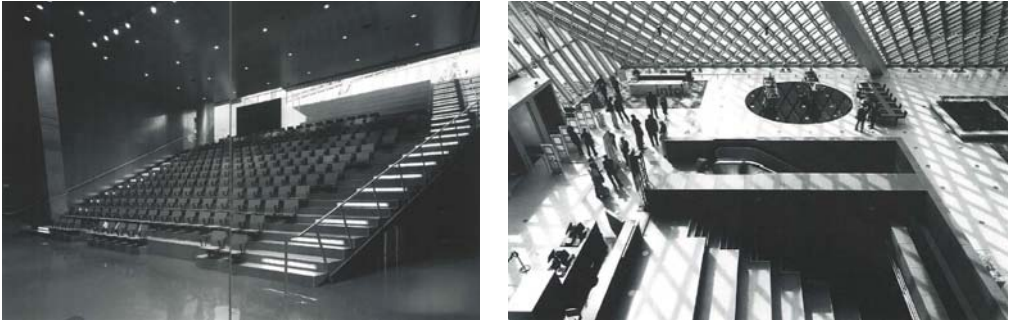
[그림 3-18] 100% DD 5층 평면도 (출처:OMA, 100% DD)

또한 강당을 옮김으로써, SD 단계에서 건물 전면 파사드의 일부였던 강당 측면의 유리가 어렵게 유지되어 건물 내외부의 시각적 소통을 단절시킨다는 문제도 해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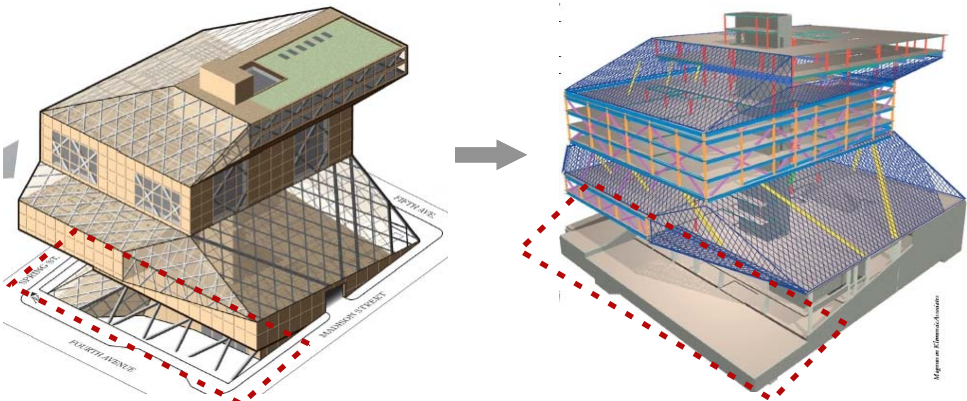
[그림 3-19] 4번가 방향의 출입구가 있는 도서관 1층. 강당의 위치 변화. 100%SD(좌) 100%DD(우) (출처 : OMA, 100% SD, 100% DD)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그림 3-20] 4번가 방향에서 들어와 올라다본 강당(좌) 5번가 입구 바로 앞에서 4번가 쪽의 하부로 이어지는 강당(우)  
(출처 : GA Documents)

• 4번가 진입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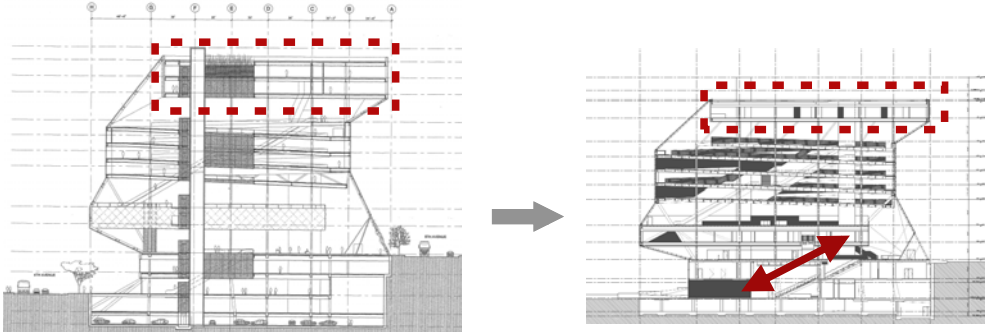
[그림 3-21] 4번가 진입부 변화. 4번가 진입부분의 건물 구조가 비스듬히 지면으로 연장되었던 것이 최종안에서는 사라졌다.  
SD 100%(좌), DD 100%(우) (출처 : Civil Engineering Journal)

또한, 초기 안을 보면, 4번가와 출입구 사이가 연속적인 경사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었으나, DD 100%에서는 식재로 인하여 일부가 가로막혀 전체적으로 인도와 도서관 앞 광장이 전체적으로 연결되던 것이 일정한 폭을 가진 길을 따라 진입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그림 3-19). 또한 초기 안에서 강당 부분의 상부를 감싸던 건물 구조가 사면을 이루며 지면으로 이어지고 그 옆의 출입구 부분도 강철프레임이 같은 경사로 연장되었던 것에 비해, 최종 안에서는 강당도 건물 중심으로 이동하고 기울어진 스틸프레임도 사라졌다. 올슨(Sheri Olson)은 여기에 대해 ‘건물과 외부 지형의 경계를 흐리면서 부드럽게 연결되었던 기존 디자인이 지니던 힘을 상쇄시켰다’<sup>56)</sup>고 평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문제는 수처(David Sucher)가 지적했던 것으

56) Sheri Olson, "ARCHITECT'S CHANGES LEAVE BASIC DESIGN INTACT," *Seattle*

로서, 4번가 인도와 건물 전면의 광장이 단절되었던 문제가 해결된 셈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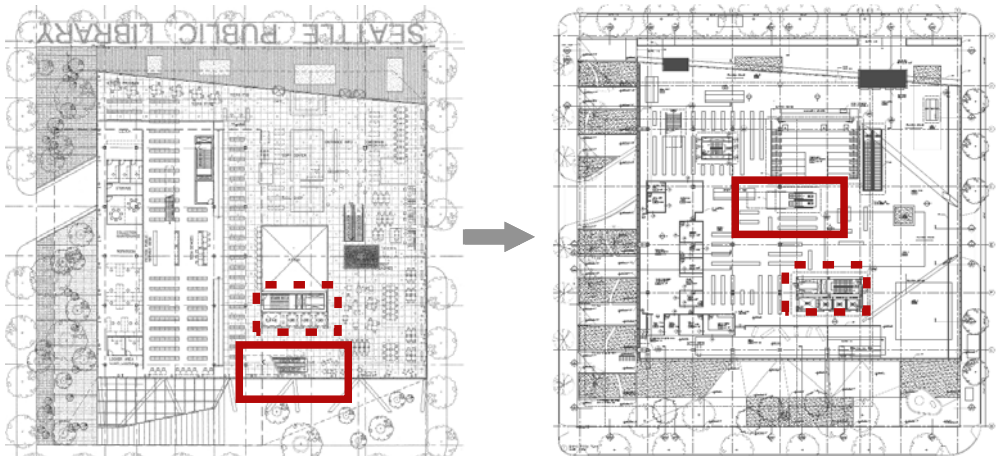
• 직원공간 축소 및 층고 조정



[그림 3-22] 도서관 상층부의 직원 공간을 두층에서 한층으로 압축함. SD 100%(좌), DD 100%(우)  
또한 DD 100%의 단면도를 보면 강당을 통해 4번가(낮은 쪽)와 5번가(높은 쪽)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출처 : OMA, 100% SD, 100% DD)

상층부에 있던 두 층의 직원 사무공간을 한 층으로 축소하여 이동이 용이하도록 했다. 이와 같이 한 층이 없어진 것과 더불어, 각 층의 층고도 전체적으로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수직방향으로 압축된 형태가 되었다.<sup>57)</sup>

• 믹싱챔버로의 접근성 향상



[그림 3-23] 5번가 출입구(도면에서 위쪽)가 있는 도서관 3층, 엘리베이터 코어(점선)이 믹싱챔버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실선)를 가리지 않도록 위치를 조정하였다. (출처 : OMA)

초기 디자인에서 5번가 방향의 주 출입구에서 들어온 사람이 두 층 위의 믹싱챔버

Post-Intelligencer, 5 May 2001

57) 3층(5번가 입구층)은 6.8m에서 4.5m로, 5층(믹싱챔버)은 9.9m에서 6.7m로, 북스파이럴의 각층은 3.8m에서 3.6m로 줄어들었다. 100% SD #A11.01 , 100% DD #A40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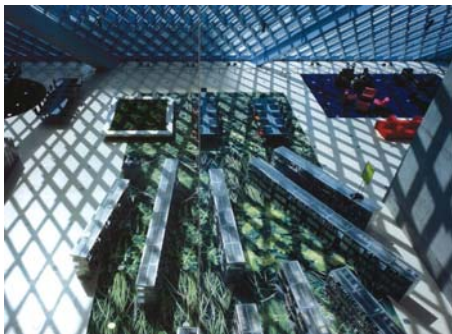
###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까지 도달하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믹싱챔버로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코어에 가려서 시각적으로 인지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믹싱챔버로 오르는 에스컬레이터의 위치를 엘리베이터 코어보다 5번가 쪽(평면도에서 위 쪽)으로 조정하고 밝은 연녹색으로 강조하여, 출입구로 들어서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도록 했다.

#### • 바닥재 변경

초기 계획에서는 믹싱챔버의 서비스데스크 주변 바닥이 전자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반사유리 패널로 계획되었었다. 이것은 언론에서 ‘밑에서 투과되어 보이기 때문에 치마를 입을 수 없는 바닥’ 이라는 이유로 주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지만, 계획안은 유지되지 못했다. 바닥재는 알미늄 패널로 변경되었으며, 디스플레이도 계획안에서 사라졌다.

#### • 내부 인테리어 색상



[그림 3-24] 좌 : 3층의 리빙 룸. 바닥은 밝은 나무를 사용하고, 랜드스케이프 카페트를 도입하였다.  
우 : 9층의 리딩 룸. 바닥은 어두운 나무로써 ‘클래식’ 한 분위기를 유도하고 일부 천장은 흡음재로써 소음을 줄였다.  
(출처 : GA Documents)

인테리어에 대한 전략 또한 수립했다. 외부의 식재와 연계되도록 내부에는 나무와 풀숲이 인쇄된 ‘랜드스케이프 카페트’ 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책 읽는 공간의 분위기를 다르게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3층의 리빙룸은 밝은 색의 나무바닥재를 사용하였으며, 9층의 리딩룸은 어두운 색의 나무바닥재를 사용하고 천장의 흡음재를 통해 소음을 줄여 ‘클래식’ 한 공간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디자인의 변화는 워크 그룹에서 각 공간의 분위기를 사용자의 쓰임새에 맞추어 달라라는 요구에 상응한 것이다.

#### • 기타 변경사항

그 외 실내 배치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이 회의를 통해 반영되었다. 출입구가 크고 접근하기 쉽도록 변경되었으며, 내부의 공공공간이 가로레벨에서 잘 보이도록 개선



되었다. 아동코너는 빛이 잘 드는 곳으로 이동했으며, ESL도 찾기 쉽도록 출입구 근처로 옮겨졌다. 또한 강당 위치가 초기 안으로부터 4개층 내려와 출입구와 같은 층에서 아동코너와 공간을 공유하게 되었다.

물론 작은 공간 배열의 문제에 있어서 시민과 직원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정부간행물의 위치를 직원사무실 옆에서 서가중심공간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정부간행물은 점차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은 서서히 줄어들 것이고 그 면적만큼 확장되는 사무공간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다.

구조적으로는 상층부와 하층부의 구조 시스템이 달라서 구조를 전이시켜야만 했다. 보통의 경우에는 빔을 이용하여 축하중을 전이시키는데 여기서는 기울어진 기둥을 이용했다. 그리고 그 결과, 아이들 공간에 역동적인 공간감이 만들어졌다. 매튜 스타들러(Mathew Stadler)는 이와 같은 프로젝트 후반부의 사례 깊은 접근은 OMA의 작업에 있어서 이례적인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sup>58)</sup>

100% DD 도면이 납품된 후, 또 다른 수정을 거쳐 2001년 5월 5일에 기존 도서관 건물의 강당에서 대중을 대상으로 한 오픈하우스가 열렸다.<sup>59)</sup> 대중은 각 층의 평면과 모형, CG 시뮬레이션을 볼 수 있었으며, 프레젠테이션은 대중으로 하여금 건물 내 주요한 공공공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또한 새로운 서가의 실물 모형이 전시되었는데, 지진 등의 충격에 대비해 기존에 바닥에 고정시키던 것을 천장에서 매다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서가 공간은 시각적으로 보다 열려있게 되었다.

58) Matthew Stadler, "An Artificial Heart," op.cit.

59) 건물 철거는 마지막 오픈하우스가 열린 후로 3개월 뒤인 2001년 8월에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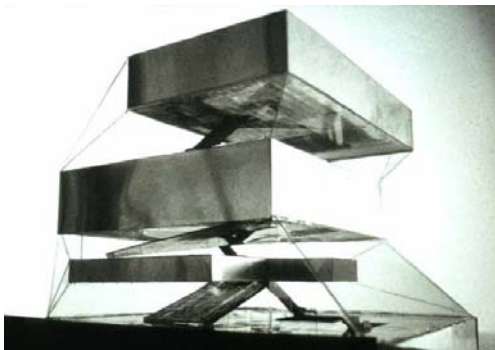
### 3.1.3. 토론장에서 다루어진 디자인에 관한 담론

이번 장에서는 도서관 건립에 관한 기사들 중 구체적인 디자인의 내용을 다룬 기사들에 대해서 분석한다. 계획안을 발표했던 1999년 12월 이후부터 SD 납품까지의 기간 동안 디자인에 대한 담론이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시기가 분석의 주요한 대상이 될 것이다.

우선, 디자인에 대한 담론 중에서 특별히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스타건축가’라는 문제와 ‘지역성’의 문제가 함께 거론되었던 건물의 외관에 대해서 분석하고, 실용적인 이유로 제안된 디자인이었으나 역시 실용적인 이유에서 반발을 샀던 북스파이럴에 대해 다루어 볼 것이다. 그리고 이런 논의들이 어떻게 서로 엮여 있는가를 연결망 분석을 통해 디자인에 대한 전체 담론의 지도로 종합해 본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시애틀공공도서관의 건립 과정에서의 토론장이 어떠한 주제들을 포괄하면서 확장되어 나가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1) 주요 쟁점 1 : 건물의 외관

다섯 개의 상자가 각각 사이에 네 개의 빈 공간을 두고 지그재그로 쌓아올려진 모습의 외관과 그물처럼 짜인 유리 입면은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논란거리에 오른 주제였다.



[그림 3-25] 초기의 개념모형과 완공 후의 모습 (출처 : OMA, Seattle Public Library)

이 디자인이 기존의 건물들과 파격적으로 다른 모습이라는 점에는 거의 대부분 동의하였는데 호불호에 대한 입장은 양 극으로 나뉘어졌다. 논쟁은 주로 시애틀타임즈(The Seattle Times)와 같은 신문의 칼럼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에 자극받은 시민들이 웹사이트에 글을 올리거나 도서관측에 우편과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sup>60)</sup>

옹호하는 주장은 “사회경제적인 관점에 따라 건물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상세히 분석하였으며, 그러한 분석을 새로운 도시의 풍경으로 해석해냈다” 같은 것이었다.<sup>61)</sup> 이에 반해 반대 측은, 도서관이 지녀야 할 전통적인 모습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과, 미국의 북서부에 위치한 시애틀의 지역적인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반대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림 3-26] 1906년에 지어진 중앙도서관(좌), 1960년에 다시 지어진 중앙도서관(우)  
(출처 : www.spl.org)

이것은 ‘시애틀다운 것, 즉 지역성이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반대 측의 언론과 시민들은 주로 외부에서 건물을 바라보는 입장이었고 건물의 의장적 요소를 기준으로 지역성을 판단하였다.

그런데 건물이 지그재그로 상자를 쌓은 듯한 모습을 갖추게 된 까닭은 실용적인 이유에서였다. 주변의 경관을 건물 내부로 끌어들이는 한편 내부시설의 조건에 따라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을 만들어주는 것이 주된 이유였던 것이다.<sup>62)</sup> 그리고 외피 전체를 유리로 구성한 것 역시 기후라는 지역적 조건에서 연유한 것이었다. 콜하스는 1999년 12월 15일에 열린 첫 공개 설명회에서, 특수한 처리가 된 유리의 외피는 자연광을 최대한 건물에 유입시키기 위해 계획된 것으로, 가랑비가 잦고 흐린 날씨가 많은 시애틀의 기후를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sup>63)</sup> 즉, 대중과 건축가는 지역성에 대한 해석의 관점이 달랐던 것이다.

또한 콜하스가 의장적 요소를 통해 주변과 조화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은 그가 시애틀을 바라보는 관점과도 관련이 있다. 콜하스는 기본적으로 미국 도시의 컨텍스트란 중립적인 것이라 생각했다.

60) Shannon Mattern, *Building Ideologies*, op. cit., p. 252

61) N. Ouroussoff, "this is not your mother's library," *Los Angeles Times*, 23 Jul, 2003

62) p.89의 그림 3-11과 이에 대한 설계개념설명서의 해석을 참조.

63) Robin Updike, 16 Dec. 1999, op.cit.

###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미국의 도시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하기란 매우 어렵다. 미국의 도시는 기본적으로 개별 빌딩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5번 애비뉴와 스프링 스트리트에 있는 도서관 부지는 정말로 중립적인 맥락상에 있다.<sup>64)</sup>

따라서 콜하스는 의장적 요소보다는 기후에 대한 해석을 지역에 대한 전략으로 삼았다. “시애틀 같은 기후에서는 빛을 적극적으로 건물에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며, 건물 내부에서 도시를 조망함으로써 시각적으로 주변 컨텍스트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매턴(Shannon Mattern)은 건축가와 대중이 장소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주변의 맥락에 대한 대응(contextuality)과 장소의 감각(sense of place)이라는 문제가 건축가와 시애틀 시민들 사이에서 다르게 해석되었다. 건축가에게 장소란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지만 밖에서 강조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공공에게 장소는 빌딩의 외관과 내부인테리어의 미학을 통해 반영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그 둘 사이의 차이를 더 벌어지게 만들었다.<sup>65)</sup>

비록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였고 결국 디자인은 초기 안에서 커다란 변경 없이 설계자의 의도대로 결정되었지만, 시애틀 시민들로 하여금 지역과 장소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고민할 수 있게 했다.

중앙도서관에서의 외관에 대한 논쟁은 분관을 포함한 전체 도서관 건설에서 어떠한 방향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로 확대되었다. 25개의 나머지 분관들도 증축이나 신축의 경우 중앙도서관과 같은 문제를 고민해야 했던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시애틀디자인위원회는 2002년 3월의 심의에서 다음과 같이 권고하기에 이른다.

시애틀공공도서관은 스타일의 문제에 대해 가능한 한 열려있어야 한다. 그러나 디자인위원회는 도서관의 스타일 문제에 있어서의 입장을 제한한다. 디자인의 목표를, (건물이) 역사적(historic)으로 보이도록 하는 것 보다 '동시대(contemporary) 도서관을 디자인하도록' 설정해 보기를 권한다. <sup>66)</sup>

또한 디자인에 대한 거부감은 렘콜하스라는 인물에 대한 거부감과도 관련이 있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그가 시애틀과 관련 없는 네덜란드 출신의 국제적 건축가란 사실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는 시애틀을 위해 설계한다기보다 자신의 독특한 작품세계를 추구해왔고 그로 인해 명성을 얻은 '스타건축가' 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앞서 토론장에서의 논쟁을 설명한 부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콜하스가 자신을 위한 건물을 통해 시애틀을 '조롱하는 것 같다' 는 논평기도 있었고, '콜하스를 위

64) O. Casey Corr, 16 Jun. 1999, op.cit.

65) Shannon Mattern, "Just How Public Is the Seattle Public Library?," op.cit., p.15

66) Seattle Design Commission, Minutes of the Meeting, 21 Mar. 2002, p.13

한 건물이 아니라 시애틀 시민 모두를 위한 건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닐슨은 LA타임즈에 실린 우루소프의 논평을 인용하면서 건물 디자인에서 “콜하스의 감추어진 성적 긴장상태(hidden sexual tensions)”를 엿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sup>67)</sup>

시민들의 불만 표출과 공격의 대상이 ‘시애틀 사람이 아닌 콜하스가 디자인한 낮선 외관의 도서관’으로 집중되자, 도서관측과 디자인을 옹호하는 비평가들은 세 가지 측면으로 대응에 나섰다. 첫째로, 실제 디자인은 OMA의 콜하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애틀의 회사인 LMN과 함께 하는 것이며, OMA에서 도서관을 담당할 수석 건축가도 시애틀 출신의 조슈아 라무스라는 것을 강조했다.<sup>68)</sup> 둘째로, 대중에게 낯설은 OMA와 콜하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대중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sup>69)</sup> 세 번째로, 건물이 낯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대응이 대중의 인식에 주로 관련된 의사소통의 측면으로 대응한 것이었다면, 세 번째 대응은 인식의 차원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었지만, 작업장의 진행 내용을 토론장의 담론과 연관시켜 대중을 설득하려 했던 것이었다.

매턴이 비판적으로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노력들은 정치적 차원의 대응이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대화의 기술에서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실제 건물로 반영되었다는 점이다.<sup>70)</sup> 도서관 측과 디자이너 팀은 건물의 장점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한편, 합리적인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도면을 수정하여 반영해야 했고, 장점이라고 주장했던 내용들이 실제 건물의 경험에서 체험될 수 있도록 세세한 디테일까지 공들여 완성해야 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토론장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은 건물로 실현되었다.

외피를 투명한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해 갖가지 디테일이 동원되었다. 예를 들어 파사드가 건물 모서리와 만나는 부분의 수직적 연결 관련 장치는 수직 하중이 파사드로 전달되는 것을 막아주었다. 시애틀의 빌딩 코드에는 스틸 프레임이 수직하중을 담당할 경우 방화피복을 해야만 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 피복 두께로 인하여 프레임의 전체적 두께가 증가하고, 따라서 외피의 투명한 느낌이 많이 상쇄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이 수직적 연결 장치를 통해 파사드 그리드는 수직하중으로부터 분리

67) Susan Nielsen, 23 Dec. 1999, op.cit.

68) O. Casey Corr, 5 Apr. 2000, op.c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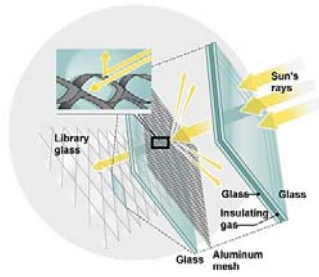
69) O. Casey Corr, 9 Apr. 2000, op.cit.

70) Shannon Mattern, "Just How Public Is the Seattle Public Library?," op.cit., p.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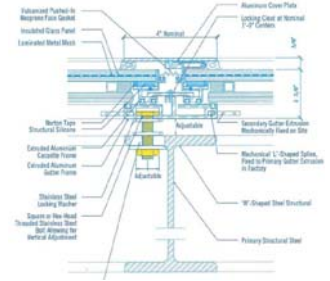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온전히 겉으로 노출되어 얇게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sup>71)</sup>



[그림 3-27] 알루미늄 메쉬의 층이 추가된 유리  
(출처 : Metropolis, 2004.10)



[그림 3-28] 알루미늄 메쉬 유리의 성능  
(출처 : The Seattle Times)



[그림 3-29] 윈더트윈볼트  
(출처 : Metropolis, 2004.10)

건물이 모두 유리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온실효과로 인해 내부 온도가 지나치게 상승할 우려가 있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햇빛을 차단하기 위한 알루미늄 메쉬의 얇은 막을 유리에 덧대었다. 이 와이어메시는 아주 작은 루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빛은 차단하는 반면 멀리서 보면 여전히 투명하다. 그 결과, 실내의 쾌적한 온열환경을 유지하면서도 에너지 효율 코드에서 요구하는 정도보다 10% 상회하는 성능을 갖추게 되었다.<sup>72)</sup>

한편, 특별한 파사드 부속품의 적용을 통해 넓은 면적의 프레임과 유리를 완성해 낼 수 있었다. 유리 생산의 허용오차는 1.6mm 정도로 매우 작다. 그에 비해 스틸 프레임의 오차는 매우 큰 편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그대로 접합한다면 오차가 만들어내는 틈으로 비가 썰 수도 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이 두 개의 시스템 사이에 윈더트윈볼트(wonder twin bolt)라는 것을 삽입하고, 볼트의 조절을 통해 오차를 상쇄시킬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형태의 모듈 크기도 주요한 고민 중의 하나였다. 모듈이 커지면 유리가 두꺼워져서 반사도가 높아지고 다루기가 힘들어진다. 반면 작아지면 동일 면적을 구성하는 모듈의 수가 많아져서 비용이 많이 든다. 스틸프레임은 모듈이 커지면 성능이 증가되고 강도가 증가하면서 비용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다른 두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최적의 크기를 찾아내기도 했다.<sup>73)</sup>

71) Karen E. Steen, op.cit., p.104

72) 알루미늄 메쉬의 얇은 막을 모든 유리에 추가하려고 했으나, 예산문제로 절반정도만 적용되었다. 이 메쉬는 그 양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3백2십만 달러의 비용을 더 쓰게 만들었다.

Karen E. Steen, op.cit., pp.101-102

73) 물론 그 과정에서 초기에 4.2m에 이르던 파사드 모듈의 크기는 1.2m로 줄어들었다. 게다가 모듈을 구성하는 스틸프레임의 깊이가 30cm에 달했던 까닭에 건물을 측면에서 보면 투명한 스킨이 아니라 벽처럼 보인다는 단점도 있었다.

Sheri Olson, 5 May 2001, op.cit.

3.1. 사례 1 : 시애틀공공도서관

이렇게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쳐 설계된 파사드는 건설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었다. 건설 도중에 예측하지 못한 지출 등으로 예산이 모자라게 되자, 도서관 위원회는, 라무스에게 설계안을 유지시키고 싶으면 비용을 마련해오라고 했다. 라무스는 직접 나서서 10일동안 2백만 달러의 기부금을 모아왔으며 계획안은 실현되었다.<sup>74)</sup>

LEED		Seattle Central Library, LEED® Project # 0007	
LEADERSHIP IN ENERGY & ENVIRONMENTAL DESIGN		LEED Version 2 Certification Level: SILVER	
November 22, 2004		Possible Points: 69	
<b>34 Points Achieved</b>			
Certified 26 to 32 points		Silver 33 to 38 points	
Gold 39 to 51 points		Platinum 52 or more points	
<b>7 Sustainable Sites</b>	Possible Points: 14	<b>6 Materials &amp; Resources</b>	Possible Points: 13
Y Prereq 1 Erosion & Sedimentation Control	1	Y Prereq 1 Storage & Collection of Recyclables	1
1 Credit 1 Site Selection	1	Credit 1.1 Building Reuse - Maintain 75% of Existing Shell	1
1 Credit 2 Urban Redevelopment	1	Credit 1.2 Building Reuse - Maintain 100% of Existing Shell	1
Credit 3 Brownfield Redevelopment	1	Credit 1.3 Building Reuse - Maintain 100% Shell & 50% Non-Shell	1
1 Credit 4.1 Alternative Transportation - Public Transportation Access	1	1 Credit 2.1 Construction Waste Management - Divert 50%	1
1 Credit 4.2 Alternative Transportation - Bicycle Storage & Changing Rooms	1	1 Credit 2.2 Construction Waste Management - Divert 75%	1
Credit 4.3 Alternative Transportation - Alternative Fuel Refueling Stations	1	Credit 3.1 Resource Reuse - Specify 5%	1
Credit 4.4 Alternative Transportation - Parking Capacity	1	Credit 3.2 Resource Reuse - Specify 10%	1
Credit 5.1 Reduced Site Disturbance - Protect or Restore Open Space	1	1 Credit 4.1 Recycled Content	1
Credit 5.2 Reduced Site Disturbance - Development Footprint	1	1 Credit 4.2 Recycled Content	1
Credit 6.1 Stormwater Management - Rate and Quantity	1	1 Credit 5.1 Local/Regional Materials - 20% Manufactured Locally	1
Credit 6.2 Stormwater Management - Treatment	1	1 Credit 5.2 Local/Regional Materials - of 20% Above, 50% Harvested Locally	1
1 Credit 7.1 Landscape & Exterior Design to Reduce Heat Islands - Non-Roof	1	Credit 6 Rapidly Renewable Materials	1
1 Credit 7.2 Landscape & Exterior Design to Reduce Heat Islands - Roof	1	Credit 7 Certified Wood	1
1 Credit 8 Light Pollution Reduction	1		
<b>3 Water Efficiency</b>	Possible Points: 5	<b>5 Indoor Environmental Quality</b>	Possible Points: 15
Y Prereq 1 Minimum IAQ Performance	1	Y Prereq 1 Minimum IAQ Performance	1
1 Credit 1.1 Water Efficient Landscaping - Reduce by 50%	1	Y Prereq 2 Environmental Tobacco Smoke (ETS) Control	1
1 Credit 1.2 Water Efficient Landscaping - No Potable Use or No Irrigation	1	Credit 1 Carbon Dioxide (CO <sub>2</sub> ) Monitoring	1
Credit 2 Innovative Wastewater Technologies	1	Credit 2 Increase Ventilation Effectiveness	1
1 Credit 3.1 Water Use Reduction - 20% Reduction	1	1 Credit 3.1 Construction IAQ Management Plan - During Construction	1
Credit 3.2 Water Use Reduction - 30% Reduction	1	1 Credit 3.2 Construction IAQ Management Plan - Before Occupancy	1
		Credit 4.1 Low-Emitting Materials - Adhesives & Sealants	1
<b>9 Energy &amp; Atmosphere</b>	Possible Points: 17	Credit 4.2 Low-Emitting Materials - Paints	1
Y Prereq 1 Fundamental Building Systems Commissioning	1	1 Credit 4.3 Low-Emitting Materials - Carpet	1
Y Prereq 2 Minimum Energy Performance	1	Credit 4.4 Low-Emitting Materials - Composite Wood	1
Y Prereq 3 CFC Reduction in HVAC&R Equipment	1	Credit 5 Indoor Chemical & Pollutant Source Control	1
2 Credit 1.1 Optimize Energy Performance - 20% New / 10% Existing	2	Credit 6.1 Controllability of Systems - Perimeter	1
2 Credit 1.2 Optimize Energy Performance - 30% New / 20% Existing	2	Credit 6.2 Controllability of Systems - Non-Perimeter	1
2 Credit 1.3 Optimize Energy Performance - 40% New / 30% Existing	2	1 Credit 7.1 Thermal Comfort - Comply with ASHRAE 55-1992	1
Credit 1.4 Optimize Energy Performance - 50% New / 40% Existing	2	Credit 7.2 Thermal Comfort - Permanent Monitoring System	1
Credit 1.5 Optimize Energy Performance - 60% New / 50% Existing	2	Credit 8.1 Daylight & Views - Daylight 75% of Spaces	1
Credit 2.1 Renewable Energy - 5%	1	1 Credit 8.2 Daylight & Views - Views for 90% of Spaces	1
Credit 2.2 Renewable Energy - 10%	1		
Credit 2.3 Renewable Energy - 20%	1	<b>4 Innovation &amp; Design Process</b>	Possible Points: 5
1 Credit 3 Additional Commissioning	1	Y Prereq 1 Innovation in Design - Sustainability Education	1
1 Credit 4 Ozone Depletion	1	1 Credit 1.2 Innovation in Design - Exemplary Performance MRc4	1
1 Credit 5 Measurement & Verification	1	1 Credit 1.3 Innovation in Design - Water Treatment System	1
Credit 6 Green Power	1	1 Credit 1.4 Innovation in Design -	1
		1 Credit 2 LEED® Accredited Professional	1

[그림 3-30] 시애틀공공도서관의 LEED 점수 (출처 : www.spl.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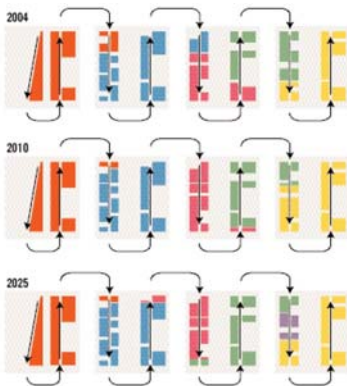
그리고 유리 파사드를 반대했던 여론 중에는, 완공 후 건물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과도하게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점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노력으로 건물은 결코 낮지 않은 에너지 성능을 확보했다. 도서관이 획득한 LEED 점수를 보면 쾌적한 온열환경(Thermal Comfort)부문에서 점수를 받은 동시에 에너지 성능의 최적화(Optimize Energy Performance)부문에서도 6점을 받은 것을 볼 수 있다. 즉, 실내의 온열환경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도 에너지 부문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sup>75)</sup>

74) Karen E. Steen, op.cit., p.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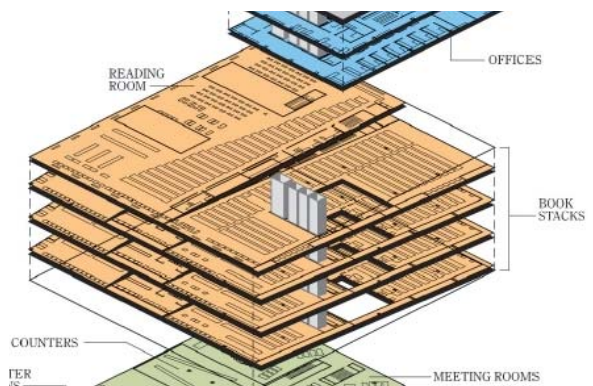
따라서 대중의 비판에 직면하여 공공건축물의 설계안을 유지시켜 나가고, 성공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었던 것은 토론장과 작업장에서 동시에 진행된 노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설계안을 가지고 있더라도 대중의 불만들을 수렴하지 않으므로써 대중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다면 결과적으로 프로젝트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설계 과정에서 설득은 해냈으나 그에 상응하는 결과물을 보여주지 못했더라면, 대중과 전문가들의 냉정한 평가가 뒤따랐을 것이다.

(2) 주요 쟁점 2 : 북 스파이럴(Book Spiral)

이용자들의 책 찾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준다는 ‘믹싱챔버(Mixing Chamber)’와 늘어나는 장서 보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북스파이럴(Book Spiral)’의 두 가지는 OMA가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이 도서관의 특징이었다.



[그림 3-31] 장서 증가에 따른 북스파이럴의 대응방식 <출처 : Metropolis, Oct.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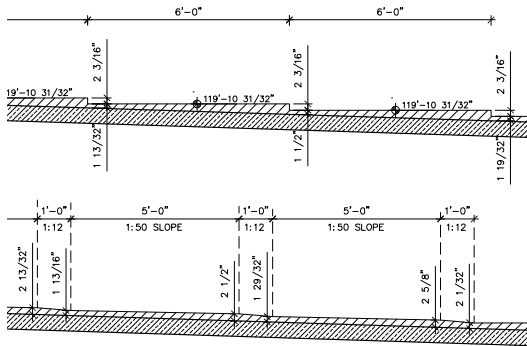
[그림 3-32] 북스파이럴 구성을 보여주는 수직 다이어그램 <출처 : www.spl.org>

초기에 OMA는 장서 공간을 보다 효율적이며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쓰이는 0~999 번까지의 듀이분류체계 대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도서관 측에 제안했으나 거절당하기도 했다.<sup>75)</sup> 이렇듯, 책이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만큼, 북스파이럴 역시 디자인 개념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부분이었다. OMA는 층별로 공간을 단절시키는 대신 나선처럼 돌아가는 연속적 경사로에 장서들을 보관함으로써, 장서가 늘어나더라도 보관 위치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콜하스는, 층별 단절이 없이 연속적으로 책이 배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책을 찾는 사람

75) 비록 최종적으로는 실버(silver) 등급이지만, 2004년이 LEED가 보편적으로 적용되던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유리건물’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를 충분히 상쇄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76) Karen E. Steen, op.cit., p.108





[그림 3-33] 북 스파이럴의 경사. 전체적으로 3/100의 경사로 설계되었으며, 사진에서 검은색 바닥 부분은 1/12, 회색 부분의 경사는 2/100 다. 이는 도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하단 도면). 서가를 놓는 부분은 평평한 바닥이다.(상단 도면)  
(출처 : 도면은 OMA, 사진은 Domus)

들은 찾는 주제와 연관된 책들을 ‘우연한 발견’에 의해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기도 했다.<sup>77)</sup>

그러나 접근가능성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장애인 워크그룹은 경사로가 이용하기에 부담스럽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언론에서도 4번가 출입구 부분의 경사바닥과 함께 장애인에게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다. 새로운 공간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OMA는 희망자들을 초청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sup>78)</sup> 도서관측과 디자이너 팀은 2000년 9월 18일과 19일 양일간 7시간에 걸쳐 테스트를 진행한 후 곧바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테스트에서는, 연속된 경사로로 이루어진 것과 평평한 바닥과 경사로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두 개의 대안을 모형으로 만들고 사람들이 직접 거닐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도차와 휠체어도 사용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어진 공청회를 통해 사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는 등 소통을 통한 설득 작업 끝에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낼 수 있었다. 사법부 역시 북스파이럴의 접근가능성을 높인 것에 대한 디자인팀의 노력에 만족을 드러냈다.

설계자는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장애인도 무리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3/100의 경사가 되도록 설계안을 확정했다. 이 경사는 1/12과 2/100의 경사가 반복적으로 연속되어 이루어졌다.

실물 모형을 만들어 사용자로 하여금 직접 거닐게 하는 작업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77) 물론 모든 도서관 이용자가 ‘우연한 발견’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었다. 시간이 촉박한 이용자나, 자신이 찾는 책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이용자들에게는 오히려 불편한 구조일수도 있었다.

Shannon Mattern, *Building Ideologies*, op.cit., pp.406-407

78) Beth Kaiman, "Public gets its chance to check out spiral," *The Seattle Times*, 18 Sept. 2000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소모되는 일이었으나, 주요한 건물의 개념을 합의를 바탕으로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기도 했다. 토론장 주체들을 일시적이지만 작업장에 참여시킴으로서 상호간의 신뢰를 얻고, 참여자들의 피드백을 통해 디자인 또한 정교하게 다듬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3) 디자인을 다룬 기사의 연결망 분석

[표 3-9] 시애틀공공도서관에 대한 디자인을 다룬 기사

구분	날짜	저자	제목
The Seattle Times	1999,12,16	Robin Updike	New Library Design Goes Beyond Books - Planner: Ethereal Project Redefines Function
	1999,12,16		Urban Design / Seattle's Downtown Library - Into A Bold, New Age
	1999,12,23	Susan Nielsen	Shhhh, My Little Parakeets, The Library Has No Clothes
	2000,01,05	Ruth Shipp-Dart	New Library: Library To Be Another Building That Values Ego Over Substance
	2000,01,13	Susan Nielsen	Library lovers speak out: Rem, we just want to help
	2000,01,19	Charlie Cunniff	Letters To The Editor : Seattle Public Library
	2000,01,19	Suzanne Hittman	Letters To The Editor : Seattle Public Library
	2000,01,23	Jean Boucher	Letters To The Editor : Seattle Public Library -- Koolhaas' design is bold,competes on global scale
	2000,01,30	William Whitman	Letters To The Editor : Public library -- Koolhaas design will bury Seattle's common sense
	2000,01,31		Urban design / Seattle's downtown library
	2000,02,08	Matthew Stadler	Koolhaas, library design deserve kudos
	2000,04,05	O. Casey Corr	There's a lot of Northwest in the hip' library design
	2000,04,09	O. Casey Corr	Looking for Rem
	2000,04,21	JEAN GODDEN	A seamless stream of library books
	2000,05,04	Beth Kaiman	Koolhaas fans check out refined plans for library
	2000,05,06		Success for libraries
	2000,05,21	JEAN GODDEN	It's all world class? That's just no class
	2000,07,09		Seattle's central library
	2000,07,23	David Sucher	There is still time to fix the library
	2001,05,04	Beth Kaiman	Shhhhhssh! Seattle's library is busy evolving
2001,06,13	Beth Kaiman	Extra book space raises new library's cost	
The Seattle Post-Intelligencer	1999,05,13	Steven Goldsmith	New Library Could Be One For The Books Architects Display Way-Out Ideas
	1999,05,27	Steven Goldsmith	City Books Dutch Architect For Library Unorthodox Designs Full Of Exuberance,' Joy' Cited By Trustees
	2000,02,06	Jeffrey Ochsner	Fusing Form And Function Give-And-Take On Central Library Should Segue Into Civic Conversation About Remaking Downtown'S Public Persona
	2000,02,29		Glowing Lantern Of Glass Main Library'S Contemporary Design A Brilliant Beacon In The Dark Canyons Of Seattle'S Core
	2001,06,05	Sheri Olson	Architect'S Changes Leave Basic Design Intact

\*. '저자' 항목이 비어있는 기사는 저자가 표시되지 않은 사설(editorial)임.

건물의 외관과 북스파이럴의 문제 외에도 시애틀공공도서관의 생산과정에서는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담론이 토론장과 작업장 사이에서 오고 갔으며, 살펴본 바와 같이 작업장에서 이루어진 작업에 많은 변화를 야기했다. 담론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 속에 놓여 있었으며,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주제들을 담론 속으로 끌어들었다.

앞에서도 다룬 바 있지만, 토론장에서 논쟁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시기는 첫 공개 설명회가 열렸던 1999년 5월부터 2000년 5월 이후까지이다. 이 시기에 게재된 디자인에 대한 기사들을 종합해 봄으로써, 담론 상에서 오고 간 주제들의 양상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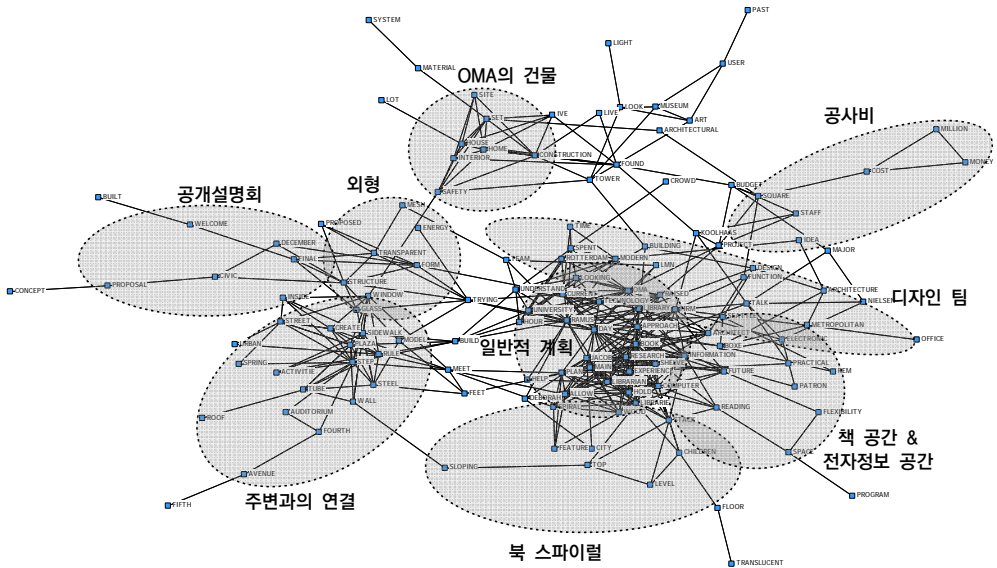
분석 대상은 해당 기간에 게재된 시애틀타임즈(The Seattle times)의 21개 기사와 시애틀포스트인텔리전서(The Seattle Post-Intelligencer)의 5개 기사다.<sup>79)</sup> 대상 기사들은 디자인에 대한 묘사와 비평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해당 기사의 목록은 [표 3-9]에 열거하였다.

우선 기사들을 대상으로 등장빈도가 높은 217개 키워드를 추출한 뒤 해당 키워드들을 대상으로 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3-34]는 유사성연결망을 나타낸 것이며, 공동참여연결망에서 30건 이상의 연결망으로 이루어진 관계들과 0.45 이상의 유사성을 띠는 키워드들만 표시되도록 하였다. 즉, 등장 빈도수도 일정정도 이상이면서 높은 유사성을 지니는 관계들을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중심에 보이는 ‘일반적 계획’ 그룹은 책(book), 도서관(library) 등의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하면서 도서관 계획안을 설명할 때 쓰이는 일반적인 키워드들로 구성되어 있다. 바로 오른쪽으로는 정보(information), 미래(future), 유연성(flexibility), 공간(space) 등, 책을 보관하는 공간과 전자정보를 보관하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을 설명하는 키워드들의 그룹이 있다. 이 키워드들은 도서관을 신축하게 된 이유를 설명할 때나, 책을 보관하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비판으로 이루어진 기사들에서 등장하였다. 두 그룹의 밑에는 ‘북스파이럴’에 관한 키워드들의 그룹이 있다. 북스파이럴은 책을 보관하는 공간이기도 하므로 ‘책공간&전자정보공간’과 비슷한 단어들을 공유하고 있다.

79) 대상 기사는 총 26개로, 샘플의 수가 적기 때문에 그대로 분석을 진행하면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한 기사 안에서도 내용의 흐름에 따라 문단으로 구분한 후, 총 79개의 문단을 만들어 각각의 문단을 다른 텍스트로 인식시켜 분석을 진행하였다. 시애틀타임즈의 21개 기사는 3.1.1 장에서 언급하였던 전체 기간 동안의 보도기사 76건 안에 포함된다.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그림 3-34] 디자인을 다룬 신문기사 주요 키워드들의 유사성연결망 (  $r \geq 0.45$  )

그 위로는 OMA, LMN, 로테르담(Rotterdam), Koolhaas, Office/Metropolitan/Architecture 등 디자인팀을 가리키는 키워드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그룹은 공간상으로 길게 분포하는데, 계획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나 공간의 특징을 설명할 때 등 전체 기사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림의 상부에 보이는 두 그룹, ‘OMA의 건물’ 과 ‘공사비’ 는 OMA라는 회사에 대해 설명하는 기사에서 주로 등장한 키워드들이다. 예를 들어 케이시 코어가 OMA에 대해 설명하면서 보르도하우스를 언급했었던 기사(2000.04.09)나, 이제껏 OMA의 건물은 한번도 예산을 초과한 적이 없었다는 매튜 스태들러의 기사(2000.02.08)와 관련이 있다.

그림에서 왼쪽에 그룹을 이루고 있는 것은 건물의 외관과 관련된 키워드들이다. ‘외형’ 그룹은 투명(transparant), 창(window), 유리(glass), 에너지(energy)들의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로 그 밑에 인도(sidewalk), 거리(street), 강당(auditorium), 활동(activity) 들로 이루어진 ‘주변과의 연결’ 그룹이 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강당에 대해서 전면부 파사드를 불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문맥의 맥락이 ‘강당’ 이 ‘주변과의 연결’ 그룹에 포함되는 이유가 된다. ‘주변과의 연결’ 과 ‘복스파이럴’ 그룹의 사이에는 ‘경사로(sloping)’ 가 있다. 이것은 SD 도면에서 4번가 출입구 앞 광장이 경사로(sloping)로 되어 있었고 복스파이럴 역시 경사로(sloping)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즉 한 단

어를 매개로 만나고 있으므로 내용상 연결 지점이 있어야 하지만, 사실은 각기 다른 장소에 쓰인 경사로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물론, 건물 전체의 개념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의미상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키워드들의 연결망을 통해서 기사에서 다룬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알아볼 수는 없다. 다만 기사 본문을 읽고 연결망을 작성해 봄으로써, 다수의 기사들을 보다 직관적으로 파악하는데 용이한 도구가 되어줄 것이다. 즉, ‘일반적 계획, 책공간&전자정보공간, 북스파이럴, 디자인 팀, 공사비, OMA의 건물, 외형, 공개설명회, 주변과의 연결’ 과 같은 주제들이 전체 담론에서 다루어졌다는 사실과, 각각의 담론들이 어떠한 연결고리를 통해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3.1.4. 정리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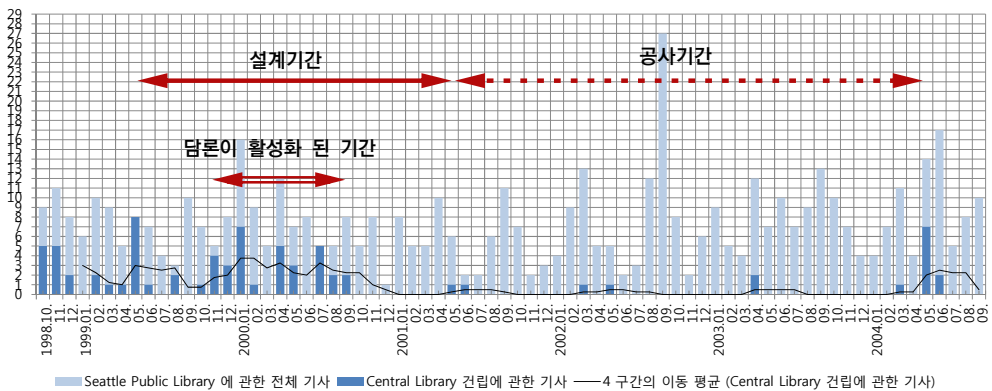
이제까지 시애틀공공도서관의 생산과정에서 대중과 평론가 및 전문가의 담론이 오고가는 토론장이 생산주체들이 건물을 만들어가는 작업장과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가를 살펴보았다.

전통적으로 시민 참여가 활성화 되어 있던 시애틀에서, 중앙도서관을 포함한 26개 공공도서관의 확충 계획을 담고 있는 ‘모두를 위한 도서관’ 사업은 처음부터 주민 투표 즉, 시민들의 참여로 결정한 예산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업이었던 중앙도서관 신축을 위한 현상설계에서 램콜하스라는 외국의 스타건축가가 시애틀 출신의 스티븐홀을 누르고 설계자로 선정되었다(1999년 5월). 그 후, 7개월간의 연구조사와 설계과정을 거쳐 1999년 12월에 공개설명회를 통해 처음으로 대중에게 설계안을 공개하였다. 동시에 550명의 직원들로 이루어진 37개의 워킹그룹과 시민들로 구성된 10개의 워킹그룹을 조직하여 설계안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발주처인 도서관 측, 건축가, 프로젝트매니지먼트 회사가 공동으로 설계안을 발전시켜나갔다.

설계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이 벌어진 것도 이 시기였다. 두 차례의 신문 칼럼을 통해 수잔 닐슨은 설계안을 구체적으로 비판하는 한편 콜하스에 대한 강한 의구심도 드러냈다. 그리고 닐슨의 비판은 설계안에 대해 특별한 반응이 없었던 시민들을 자극했다. 시민들은 웹사이트의 게시판, 전화, 이메일, 편지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도서관에 불만의 내용을 전달했다. 항의가 점차 격화되자 도서관은 위기관리모드에 들어갔다. 시민들의 불만 제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답변을 보내는 한편 신문의 칼럼을 통해서도 낯선 존재였던 설계자를 친숙하게 느끼도록 하고 설계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한편, 건물이 지닌 장점들을 부각시켰다. 지적된 의견들을 수렴하여 설계안이 변경되고 있다는 언급도 잊지 않았다. 대중의 불만은 점차 누그러졌고, 이어진 2000년 5월의 SD 납품과 공개설명회를 통해 실제 설계안이 워킹그룹과 대중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그 후에도 대중 및 전문가의 의견제시와 이에 따른 피드백이 이루어졌다. 건물의 전체적 골격과 설계의 주요한 개념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부 시설의 배치, 건물과 인접 도로와의 관계, 전체적인 건물의 높이, 외피 모듈의 프레임 등 많은 부분에서 수정이 이루어진 DD 도면이 완성되었고(2001년 3월), 마찬가지로 공개설명회를 통해 대중에게 전달되었다. 그리고 기존 도서관의 철거와 함께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2004년 5월에 도서관이 개관하였다.

우선 주목하여 볼 것은 토론장이 작업장과 활발하게 관계를 맺은 시점이다. ‘관계를 맺은 것’은 분석했던 바와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는 워크 그룹의 조직, 즉 작업장에서 토론장의 구성원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작업장 안에 포함시킨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미디어의 비판적 기사와 이로 인해 촉발된 대중의 불만에 대한 대응이었다. 즉, 토론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한편 개별적으로 응대하고, 상당 부분을 작업장에서 이루어진 작업에 반영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호작용이 계획설계 단계에 해당하는 100% SD 납품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림 3-35] 시애틀공공도서관의 설계기간과 담론이 활성화 된 기간

설계 초기일수록 변경 작업에 대한 비용이 줄어든다. 여기서 비용이란 실물 비용은 물론이고 인적 자원을 포함한 넓은 개념을 말한다. 대중의 커다란 불만이 잠재되어 있거나 주요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늦어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업의 잠재적 리스크(risk)가 된다.<sup>80)</sup> 그런데 시애틀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설계안을 초기 단계부터 대중이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공개하였고, 이에 대한 비판적 의견에 대한 대응 역시 SD 납품 이전이었던 설계 초기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설계안 공개와 함께 구축해 둔 조직적 의견수렴장치였던 워크그룹도 대중으로 하여금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인식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다음으로 논의해볼 것은 토론장에서의 미디어의 역할이다. 설계 과정에서 대중이 작업장에 관여할 수 있었던 방식은 크게 볼 때, 주요한 도면의 납품 이후에 이루어진 설계설명회, 워크그룹과 같은 직접적 참여, 북스파이럴 테스트와 같은 이벤트

80) 이러한 잠재적 리스크가 사업 후기에 드러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이어지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의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과정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애틀타임즈와 같은 미디어의 평론이었다.

신문에 게재된 평론의 경우 발주처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적 파급력으로 인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담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했다. 추후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옷 속이 보일 수 있는 투명한 바닥에 대한 비판은 대중의 윤리적 의식을 자극했고, 외관의 문제에 있어서도 시민들로 하여금 ‘시애틀답다는 것은 무엇일까’의 문제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물론 2장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미디어 평론의 태도에 따라 대중의 의견이 유도되거나 사실이 왜곡되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자신과 다른 상대방의 의견과 그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 미디어를 통한 의견교환 과정의 의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디어에서 평론을 통해 분위기를 주도한 사람들의 역할에도 주목해보아야 한다. 미디어에서 설계안을 비판하거나 옹호하는 의견을 쓴 사람들은 전문적 평론가이거나 관련 업계의 전문가들이었다. 강한 비판 기사를 썼던 수잔 닐슨과 같은 평론가들은 건축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일반 대중보다 섬세한 관찰력과 필력을 보유한 준(準)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다. 올슨(Sheri Olson)같은 평론가들도 건축전문지와 대중 일간지 모두에 글을 기고했으며, 그 밖에도 많은 비평가들이 건축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건축비평을 써오던 사람들이었다. 닐슨의 비판적 평론과 함께 대중의 불만표시가 급증했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전문가들이 만들어내는 토론장은 대중 토론장의 의견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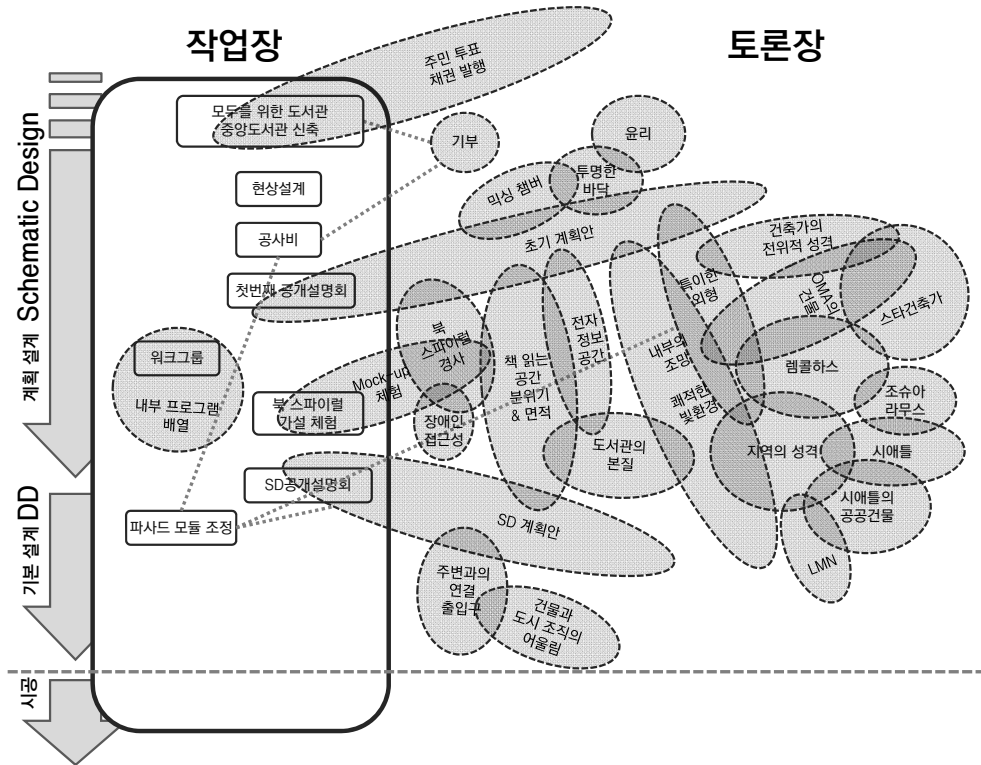
이들은 대중으로 하여금 대상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떠한 관점들을 투사해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끌어주기도 하며, 디자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주기도 한다. 대중은 일반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또렷하게 표현하는 능력은 부족하지만, 최종적으로 원하는 바에 대한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sup>81)</sup> 따라서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을 보여주면서 대중 스스로 원하는 목표와 그에 대한 구체적 실현 방식을 연결 짓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

81) Babara Faga, *Designing Public Consensus : The Civic Theater of Community Participation for Architects, Landscape Architects, Planners, and Urban Designers*, New Jersey : Wiley, 2006, p.37



마지막으로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점은, 토론장과 작업장이 영향을 주고받은 구체적인 지점들과 그 과정에서 토론장이 포괄해 낸 담론의 범위들이다. 이것은 2.3 장에서 상정해보았던 관계구조의 틀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 3-36] 시애틀공공도서관 진행과정에서 형성되었던 토론장과 작업장

전체적으로 볼 때 토론장의 주체들이 작업장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것은 세 가지 경우였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모두를 위한 도서관’ 사업에 대한 채권 발행여부를 결정하는 주민투표이고, 다른 하나는 초기 설계안이 공개되면서 조직되었던 워크그룹을 통한 참여다. 워크그룹에서는 시설프로그램의 배치에서부터 전체적인 공간의 분위기에 대한 요구까지 다양한 의견 개진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일시적이었지만 복스파이럴 실물모형을 체험하고 의견을 피력했던 이벤트가 있었다. 이러한 직접적 참여 외에 토론장과 작업장이 관계를 맺은 것은 미디어 상에서 이루어졌거나 미디어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담론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이었다.

도서관의 낮선 외관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담론과 관계되었다. 하나는 스타건축가의 개인적 작품세계의 실현이라는 문제였다. 전위적인 디자인을 추구했던 콜라스

가 시애틀의 도서관 설계를 통해 시민을 위한 건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또 다른 ‘작품’ 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담론은 콜하스가 시애틀이라는 지역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이방인이라는 관점에서, ‘지역성’ 의 문제와 함께 거론되었다. 그것은 바로, 이 낯선 외관의 건물이 기존 시애틀의 건물과 판이하게 다르다는 문제 제기였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견해는 상반된 양상으로 드러났다. 한 쪽에서는 기존 시애틀 공공건물의 품질이 너무 낮다는 관점에서 콜하스의 새로운 건물을 기대했다. 다른 한쪽에서는 콜하스의 디자인을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던 프랭크 게리의 체험음악관(Experience Music Project)과 동일선상에 놓으면서 ‘시애틀다움’ 과 전혀 관계 없는 건물로 치부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 담론으로서 OMA의 건물이 ‘특이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과, 공공도서관 설계를 하는 건축가들에게는 ‘이방인’ 뿐만 아니라 시애틀의 LMN과 조슈아 라무스가 있다는 사실이 거론되었다.

또한 건물이 시각적으로 낯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주변 가로와의 연결에도 소홀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것은 건물이 건물 자체에 대해서만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적인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담론으로 끌어들었다.

도서관을 신축한 가장 큰 이유였던 장서와 컴퓨터 공간 확보라는 문제 역시 여러 가지 담론으로 확장되었다. 콜하스가 여러 가지 미디어를 담는 도서관을 주장한 것에 반해 닐슨은 도서관의 본질이 책을 보관하고 읽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대립은 양적으로는 서가 공간을 보다 많이 확보하는 문제와 관련되었으며, 부분적으로 ‘도서관답게 보여야 한다’ 는 외관의 문제와 연결되기도 했다. 또한 장서 보관 공간을 구성하는 주요 개념이었던 ‘복스파이럴’ 이라는 새로운 시도는 장애인의 접근성 문제로 번져가기도 했다.

시애틀공공도서관은 앞으로 살펴볼 두 가지 사례에 비하여 도서관을 만드는 작업 자체에 집중할 수 있었던 특징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과 연관된 토론장의 담론들은 실용적인 문제에서부터 윤리적 문제, 지역성, 스타건축가에 대한 거부감, 시설의 본질, 건물을 바라보는 도시적 관점 등 다양한 문제들을 포괄해 가면서 확장되어 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건물의 생산과정이란 단지 벽돌을 쌓고 지붕을 씌우는 물리적인 작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생산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을 포괄해가면서 다루는 ‘공적 장소’ 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4.2장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두 가지의 문제에 대해 더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디자인 과정에서 별도의 조직에 참여하지 못했던 비공식 구성원인 일반 시민의 참여 방법에 대해적이고, 다른 하나는 디자인의 어떤 영역까지 참여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라는 문제다.

직원들로 이루어진 37개 워크그룹과 시민들로 구성된 10개 워크그룹과 디자인팀의 소통은 동시상호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대다수 시애틀 시민들, 즉 도서관을 이용하게 될 도시 공공 구성원과 디자인팀간의 의사소통은 그렇지 못했다. 그들의 의견은 웹사이트 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해 일방적이고 간접적으로 전달되었다. 그리고 답변은 공개설명회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물론 여기에는 부가적인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지만, 주로 전문가인 디자이너가 비전문가인 시민들을 설득하는 시간이 되었다. 매턴은 콜하스의 공개설명회가, 대중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디자인을 설명하고 관철시키는 도구로 쓰였다고 비판한다.<sup>82)</sup> 그러나 이것은 비단 건축에서의 참여디자인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이 안고 있는 민주주의의 문제이기도 하다. 소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작은 마을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이용하는 공공도서관에서 어느 정도의 인원이 디자인협의를 ‘직접’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는 남겨진 과제가 될 것이다.<sup>8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스파이럴 시뮬레이션처럼 새로운 시도에 익숙하지 않은 비전문가들로 하여금 직접 체험한 후 동의를 구했던 과정은 높게 평가할만하다.

두 번째는 건물의 디자인 과정에서 시민이 어느 정도까지 디자인에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의 문제다. 디자인 과정에서 변경되었던 대부분은 워크그룹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것들은 주로 동선의 효율성, 프로그램상의 필요 등, 디자이너가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한 보완적 성격이 강했다. 설계의 주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지그재그로 쌓인 상자들로 구성된 전체 외관의 형태나 그물망 모양의 프레임으로 이루어진 유리 외피, 믹싱챔버와 북스파이럴은 사소한 변경을 제외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유지되었다.

82) Shannon Mattern, "Just How Public Is the Seattle Public Library?" op.cit., p.17

83) 셀리그먼은 이러한 이유로 시애틀중앙도서관 사례에서의 의사소통은 참여(participation)이 아니라 관여(engagement)정도였다고 평가한다.

Ari D. Seligmann, *Architectural Publicity in the Age of Globalization*, Diss. UCLA, 2008, Ann Arbor : UMI, 2008, pp. 237-240

###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시애틀중앙도서관 설계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특히 외관의 문제는 디자인의 취향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건축가가 자신만의 난해한 언어로 거주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과물을 완성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시애틀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밝은 실내공간과 시애틀을 조망할 수 있는 실질적 이득을 얻을 수 있었고, ‘투명한 도서관’이라는 상징적 성격도 구현해냈다. 그리고 절대 다수는 아니었지만, 그 과정에서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디자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여도록 하는 합의도 이루어졌다.

또한, 고전과 현대적 요소를 섞는 절충적 대안으로 가는 것도 민주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혹은 무리하게 시민의 의견을 모두 담아내려고 한다면 LA 도시개발사업 중 플라야비스타(Playa Vista)의 사례처럼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조차 힘들어 질 수도 있다.<sup>84)85)</sup>

도서관이 완공될 때 까지도 시애틀중앙도서관을 둘러싼 서로 다른 의견들은 하나의 합의점으로 수렴되지 않았다. 그래도 하나의 건물을 짓는 과정을 통해 사람들의 의견은 활발하게 오고 갔다. 즉, 시민들이 공동으로 거주할 건물을 어떻게 짓는 것이 더 좋을지에 대해 생각하고 의견을 교환한 것이다. 그리고 건물은 동시에 독특한 외형과 창의적인 내부공간으로 전 세계에 알려졌다. 기본적인 틀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대중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건축가가 제안한 독창적인 개념을 유지하면서도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토론장과의 상호작용 하에 설계를 바꾸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인 셈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대중은 건물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접하면서, 그저 피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

84) Dana Cuff, "The Political Paradoxes of Practice : Political Economy of Local and Global Architecture," *Practice*, 3(1) (1999), p. 85

85) 일부 시민들은 공공프로세스가 건축가의 창의성을 방해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Shannon Mattern, *Building Ideologies*, op. cit., p.306

## 3.2. 사례 2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그림 3-37]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전경  
(출처 : 서울시 보도자료)

[표 3-10]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개요

구 분	내 용
시설 프로그램	디자인 관련 시설 / 복합 문화 시설(2012년 7월 이후)
완공 및 개관	2013년 7월 완공 예정 / 2014년 개관 예정
예산	약 4,996억원 (㎡당 586만원)
연면적	85,320㎡ (지상 4층, 지하 3층)
설계자	자하하디드(ZHA) + 삼우(SAMOO)
도급자	삼성 불산

\*자료 출처 : 서울시 보도자료

\*내부 컨텐츠는 2012년 7월경 변경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다루기로 한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이하 DDP)는 5,000억원에 가까운 시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공공사업이면서 동시에 서울을 세계 대도시들과 동등한 반열에 올려놓기 위한 전략적인 도시브랜딩(city-branding) 사업이었다. 설계 과정에서부터 그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제지명현상설계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로 ‘스타건축가’ 인

###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자하하디드(Zaha Hadid)를 건축가로 선정하였다. 하디드의 당선작은 유선형의 특이한 형태로 그 자체로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동시에 DDP 사업은 순수하게 설계와 시공에 관련된 문제들 이외의 외부적인 사건들로부터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 역사적 유물인 서울성곽을 품고 있으며, 기존의 품물시장과 역사적인 동대문운동장과도 관련되어 있었고, 또한 정치적 전략사업이었기 때문에 다른 토건 사업에 비하여 언론에서도 상대적으로 부각되어 다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업은 시작과 더불어 옛 운동장을 철거하는 문제로 미디어에 오르내렸으며, 하디드의 설계안이 대상 부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한, 사업 부지에서 출토된 서울성곽과 관련된 유구들의 이전 문제 또한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 사례는 시애틀공공도서관의 경우와는 달리 설계 과정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부지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다수 있었다. 시애틀공공도서관의 경우 사용자로서의 시민이 이해관계자였으며, 토론장은 ‘어떻게 도서관을 잘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DDP의 경우 이해관계자들은 사업 자체에 반대하기도 했으며, 구체적인 디자인에 대한 논의는 토론장에서 별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사례분석에서 중심적으로 다루게 될 내용은 바로 이러한 지점과 관련되어 있다. 시애틀공공도서관과 비교한다면 연면적과 사업비 모두 두 배 이상이 차이내고, 시설 프로그램도 도서관처럼 명확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두 사례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례 모두 단일한 하나의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주어진 조건과 생산주체의 결정들이 만들어내는 전개양상을 살펴보는데 서로 참고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즉, 시민의 참여가 없고 구체적인 디자인에 대한 논의 역시 부족했다면, 과연 DDP 생산과정에서 토론장의 담론들은 어떠한 주제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담론들은 작업장에 영향을 주었는지, 영향을 주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주었는지에 대해 증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만약 토론장의 담론이 작업장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면, 그 원인은 담론과 작업 내용간의 상관성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라면 다른 요인 때문인지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기로 한다.

### 3.2.1. 프로젝트 개괄

#### (1) 프로젝트 진행 과정

##### ① 사업의 기획

대한민국 인구의 약 1/5에 이르는 서울시가 직접선거에 의해 시장을 선출한 이래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굵직한 정책들은 대형토건사업들과 긴밀하게 맞물려왔다. ‘청계천’ 과 ‘강북 뉴타운’ 사업으로 서울시장을 거쳐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독특한 효과를 보았다고 평가받는 ‘민선 3기 이명박’ 의 사례는 민선 4기 시장으로 선출된 오세훈에게도 모범적인 표본이 되었다.<sup>86)</sup>

오세훈은 서울을 세계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2006년 7월의 취임식과 함께 20가지 핵심 과제를 설정하였다. 이것은 ‘5대 핵심 프로젝트’ 와 ‘15대 중점사업’ 으로 구성되는데, 5대 핵심 프로젝트 중 세 가지와 15대 중점 사업 중 다수가 토건사업에 관한 것이다.<sup>87)</sup>

‘디자인월드플라자(2007년 당시 DDP 사업의 명칭)’ 건립은 15대 중점 사업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대문 일대를 세계 디자인과 패션의 중심지로 만드는 것을 그 목표로 하였다. DDP 사업은 당시 2,275억원(추후에 공사비가 증액되면서 2012년 7월 현재 약 5,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음)의 예산을 배당한 최고 핵심 사업 중 하나였다.

DDP의 대상부지는 과거 동대문운동장(야구장, 축구장)이 있던 곳이다. 동대문 운동장은 일제강점기였던 1926년에 준공되어 오랜 시간동안 각종 스포츠경기와 체육행사가 열렸던 곳인데 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2003년에 폐쇄되었으며, 그 중 축구장은 품물시장과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되어오고 있었다.<sup>88)</sup> 이렇게 노후화 된 동대문 운동장을 공원으로 만드는 사업은 기존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오고 있었는데, 오세훈 시장의 ‘세계도시 전략’ 과 맞물리면서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전시와 컨벤션 기능을 포함한 ‘디자인월드플라자’ 로 탈바꿈하게 되었던 것이다.<sup>89)</sup>

86) 오세훈은 서울시장 선거운동 당시 인터뷰에서 이명박 전 시장의 청계천 사업과 버스개혁을 모범적인 표본으로 보았다. 김하나,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한명숙 민주당 후보”, 헤럴드경제, 2010.05.18

87) 디지털 청계천 조성, 남북 4대 중심 축(역사문화거리, 문화관광거리, 녹지문화거리, 동대문 디자인 복합공간조성) 조성, 상암 DMC 추진, 마곡 MRC 개발, 공릉 IT, BT 기술산업단지 조성, 뉴타운사업의 지속 확대 추진, 도심권 도심부활, 용산 부도심권 개발과 연계, 한강르네상스, 동대문 월드디자인플라자 조성 등이 포함되며 실제로 임기 중에 대부분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서울특별시, 『시정운영 4개년 계획(2006~2010)』, 서울특별시, 2007

88) 당시 동대문 축구장의 품물시장은 과거 민선 3기인 이명박 시장 재임 시절, 청계천 개발로 인하여 상인들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한 곳이다. DDP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들은 다시 신설동으로 이주하게 된다.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표 3-11]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건립 과정

날 짜	프로젝트 관련 일정	서울시 행정 및 주변 상황
2006.07.01.		오세훈 시장 취임 (민선 4기)
2006.09~2006.10	동대문 운동장 공원과 부지 문화재 지표 조사	
2006.11~2007.01	시민 아이디어 공모	
2007.04.16.	국제지명초청설계경기 공고	
2007.05.01.		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장에 권영길 임명
2007.07.31.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007.08.13.	국제지명초청설계경기에서 자하하디드의 작품인 '환유의 풍경' 당선	
2007.08.22.		축구장 부지에 있던 풍물시장 이전 합의
2007.12.13.		동대문야구장 철거 시작
2007.12.27.	설계용역계약(공동수급체 :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ZAHA HADID LTD.)	
2008.03.26	계획설계(SD) 완료	
2008.04.23.		
2008.05.15.		풍물시장의 철거반대세력의 강제 철거
2008.08	기본설계(DD) 90% 완료	동대문축구장 철거 시작
2008.10.10.~10.30.		서울디자인올림픽 2008
2008.12.17.	운동장 터에서 '치성' 발견	
2008.12.23.	실시설계 완료(1차)	
2009.03.03.		서울디자인재단 출범 DDP 운영을 담당
2009.04.28	건설공사 착공 및 홍보관 개관	
2009.05.30	실시설계 완료(설계변경 포함)	
2009.06.18.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으로 명칭 분리	
2009.10.09~10.29.		서울디자인올림픽 2009
2009.10.27.	역사문화공원 부분 개장	
2010.01.01.		
2010.03.	기초공사 완료	2010년 세계디자인수도 지정
2010.04.22.	DDP 내부 프로그램 운영방안 발표	
2010.07.01.		
2010.09.17.~10.07.		
2011.03.	철골공사 완료	오세훈 시장 재임 성공(민선 5기)
2011.08.24.		서울디자인한마당 2010
2011.08.26.		
2011.10.27.		
2012.03.13	외장패널 공사중. 전체 공정률 76%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
2013.07.	완공 예정	서울시 시장 이임식 (오세훈 사퇴)
2014.03.	개관 예정	박원순 시장 보궐선거 당선

\* 출처 : 다수의 자료를 통해 직접 종합하여 작성

89) DDP건립 이전의 동대문운동장 부지개발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연구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황진태, "지역성장연합과 스케일의 정치가 세계도시 서울의 형성과정에 미친 영향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 파크 프로젝트를 사례로," 서울대학교 교육학석사학위논문, 2010, pp.41-80  
 간략히 언급하자면, 동대문운동장 부지의 재개발 논의는 1995년에 서울시 신청사 건립을 그 자리에 유치 하려는 중구청의 활동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후 신청사 부지가 다른 곳으로 결정되자 이후에는 공원과화 돌구장&패션센터로의 개발방향이 대립각을 이루게 된다(2003년경). 그러나 이명박 시장 재임시절에는 서울시가 청계천 사업에 집중하게 됨에 따라 동대문운동장 부지 개발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다, 오세훈이 서울시장으로 되면서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에 이른다.





[그림 3-38] 개발 이전의 동대문운동장(좌)과 공사중인 DDP 현장(우)  
(출처 : 좌-maps.google.com / 우-map.naver.com)

## ② 현상설계와 기존 운동장의 철거

DDP 건립 프로젝트는 2006년 7월, 오세훈 시장 당선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서울시는 2006년 9월부터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2006.11~ 2007.1)과 국제지명초청 설계경기를 공고(2007.04.16) 하였다.<sup>90)</sup>



[그림 3-39] DDP 사업대상부지. 부지를 상하로 가로지르는 선이 서울 성곽이며, 진하게 강조된 부분이 설계가능영역임. 성곽 양측 20m를 집중 복원구간으로 설정함.  
(출처 : DDP 국제지명초청설계경기 디자인 가이드라인)

동시에 운동장 부지의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2006.09~2006.10)하면서, 과거 운동장 건설 이전에 자리하고 있었던 서울성곽에 대한 복원을 현상설계 지침서에 포함시켰다.<sup>91)</sup> 지침서에서는 운동장 구조물을 완전히 철거하지 않고 일부 이용하는 방안 에 대해서도 고려할 것을 권장하였다.

설계경기는 국내 4인과 국외 4인의 건축가를 지명 초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

90) 서울특별시,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2007

91) 서울시가 배포한 설계자를 위한 디자인가이드라인에서, 기존의 서울 성곽에 대한 자료제공과 함께 이를 복원하도록 했으며 완전 복원 혹은 부분적 복원은 설계자의 재량에 맡겼다. 다음을 참고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The Dongdaemun World Design Park and Complex : Design Guidelines*, 서울특별시, 2007, pp.9-10  
단, 매장된 유구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었으므로, 성곽에 부속된 이간수문(二間水門) 및 치성(雉城), 그리고 하도감(下都監)터와 같은 구체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2008년에 복원 과정을 통해 이들 시설이 드러남에 따라 설계에 일부 반영하도록 하였고, 이것은 설계변경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며, 2007년 8월에 그 결과로 자하 하디드의 ‘환유의 풍경 (Metonymic Landscape)’ 이 당선되었다.<sup>92)</sup> 심사위원들은 당선작에 대해서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나 빌바오의 구겐하임미술관과 견줄 수 있는 도시의 명물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심사평을 썼다.<sup>93)</sup> 빌바오 측 역시 프로젝트 시작 당시 프랭크 게리에게 “시



[그림 3-40]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당선작, ‘환유의 풍경’  
(출처 : 한겨레 신문)

드니 오페라 하우스 같은 건물을 만들어 달라” 고 주문했던 것을 상기해 보면 동대문디자인플라자가 지향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다.<sup>94)</sup> 당선 이후 건물의 설계는 4개월의 계약준비기간을 거쳐 2007년 12월 27일부터 2009년 5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한편, 사업의 진행에 따라 기존 운동장의 철거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축구장 부지에 있던 풍물시장과 임시주차장은 신설동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되었다 (2007.08.22). 이 과정에서 일부 시장 상인들과 충돌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되어 개발과 보존의 문제들이 언론에서 다루어졌다.

#### ③ 설계 변경과 공기 지연

건물의 설계는 당초에 2008년 10월을 실시설계의 납품기한으로 두고 있었다. 그런데 도중에 건물의 규모가 한차례 변경되었고, 부지의 문화재 발굴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서울 성곽의 일부인 치성(雉城)의 유구가 드러났는데, 예상보다 온전하게 모습을 갖추고 있었으며 야구장 부지에서 하도감 터가 발굴되기도 했다.

92) 초청 건축가로는, 국내 4인(조성룡, 최문규, 승효상, 유길)과 국외 4인(Zaha Hadid, Steven Holl, FOA London, MVRDV)이 초청되었으며, 심사위원장으로는 조나단 바넷(Jonathan Barnett), 심사위원으로는 국외 2인(Diana Balmori, Jean-Marie Charpentier), 국내 2인(김종성, 조성중, 김영섭)이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93) Dongdaemun Design Plaza 홈페이지, DDP 사업개요 중 당선작 설명  
[http://ddp.seoul.go.kr/summ/compe\\_1.php](http://ddp.seoul.go.kr/summ/compe_1.php) 2011.05.03 접속

94) Ben Hoyle, "Frank Gehry: the Bilbao Effect is bullshit," *Times Online*,  
[http://entertainment.timesonline.co.uk/tol/arts\\_and\\_entertainment/visual\\_arts/architecture\\_and\\_design/article4304855.ece](http://entertainment.timesonline.co.uk/tol/arts_and_entertainment/visual_arts/architecture_and_design/article4304855.ece), 2011.05.03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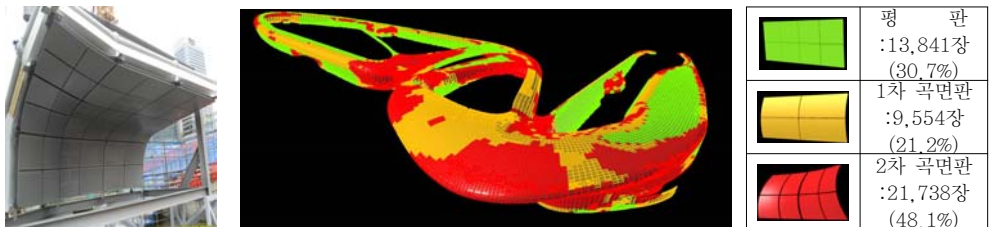


[그림 3-41] 운동장 하부에서 발굴된 조선시대 유적 (좌측부터 이간수문, 치성부, 기와도로)  
(출처 : 문화재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www.cha.go.kr)

예상보다 문화재가 많이 발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과정도 길어졌다. 복원 과정에서 널리 퍼져 있는 유구들이 DDP의 설계안과 충돌됨에 따라 일부를 출토된 자리에서 조경계획 영역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러한 내용의 설계변경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에 따라 최종 납품은 이듬해인 2009년 5월로 연장되었다.<sup>95)</sup> 따라서 설계비도 설계공모 당시 예상했던 79억원에서 155억원으로 증액되었고 공사비 역시 1,000억원 이상 증가했는데, 이것은 2011년 하반기에 오세훈의 무리한 토건사업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함에 따라 DDP가 정치적 담론으로 편입되는 단초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설계 변경에 따라 기존의 ‘동대문디자인파크’ 부분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공사중인 디자인플라자 건물과는 독립적으로 2009년 10월에 문을 열게 된다.

한편 2차 곡면판 패널까지 쓰인 대규모의 비정형 건물을 시공하는 전례 없는 공사였던 탓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많은 시공 상의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공사비가 증액되고 공기도 지연되었다.<sup>96)</sup>



[그림 3-42] DDP 외장 패널의 목업(좌측)과 BIM에 의한 외장패널 분류(우측)

95) 당초 지하 1층, 지상 3층이었던 건물은 지하3층, 지상 4층으로 변경되었다. 다음을 참고

“외국인 설계 매달리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설계비 늘고 착공 지연”, 경향신문, 2008.12.19, 16면

96) 다음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동대문디자인파크부, 『2011년도 정책 자료집 :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설, 2011-101』, 서울특별시, 2011

#### ④ 무상급식 담론과 시장 교체

2011년 8월 24일에 있었던 서울시의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는 DDP의 건립과정에서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sup>97)</sup> DDP 사업을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오세훈이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나고 시민의 복지와 참여를 강조하는 박원순이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새로운 시장 직을 맡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강르네상스, 광화문 광장, 서울시 신청사 등과 함께 DDP는 ‘오세훈의 과도한 토건사업’으로 낙인찍혀 언론과 시민담론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된다.

우선, 서울시의 1년 예산에서 토건사업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고 복지부문을 증가시켰다. 그 과정에서 DDP의 건립예산이 삭감되어 완공이 2013년 7월로 약 1년가량 지연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디자인과 패션 중심의 ‘디자인 메카’로 기획되었던 DDP의 내부 시설프로그램을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창작체험공간을 마련하는 등 ‘시민 중심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sup>98)</sup> 2012년 7월 현재, DDP는 2014년 4월 개관 예정이다.

### (2) 관련 주체

#### • 서울시, 서울시장(오세훈, 박원순)

민선 3기 서울 시장이었던 이명박이 청계천복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것이 대선 행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민선 4기 시장인 오세훈도 서울에서 여러 가지 대형 토건 사업을 기획했다. ‘한강르네상스’와 더불어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DDP였다. 그는 DDP에 4,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 임기 내에 완성하기 위해 진행을 서둘렀다. 물론 국내의 공공사업에서 대중이

97)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무상 급식 정책에 대해 이 정책을 반대하는 서울시민 81만(유효 51만)의 청구와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의 주민투표 발의로 시행되는 주민투표로, 2011년 8월 24일에 실시되었다. 최종 투표율 25.7%를 기록하여 개표 득표율 33.3%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투표함은 개봉하지 않고 파기되었다. 2011년 8월 24일 오세훈은 무상급식 투표율이 개표선에 미달할 경우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따라 26일 사퇴했다.

관련 정보는 다음을 참고.

[http://ko.wikipedia.org/wiki/%EB%AC%B4%EC%83%81%EA%B8%89%EC%8B%9D\\_%EC%A7%80%EC%9B%90%EB%B2%94%EC%9C%84%EC%97%90\\_%EA%B4%80%ED%95%9C\\_%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_%EC%A3%BC%EB%AF%BC%ED%88%AC%ED%91%9C](http://ko.wikipedia.org/wiki/%EB%AC%B4%EC%83%81%EA%B8%89%EC%8B%9D_%EC%A7%80%EC%9B%90%EB%B2%94%EC%9C%84%EC%97%90_%EA%B4%80%ED%95%9C_%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_%EC%A3%BC%EB%AF%BC%ED%88%AC%ED%91%9C)

그리고 무상급식에 대한 서울시 재정 지원이 쟁점 사항에 오름에 따라, 무상급식 지원 비용 700억원이 서울시 예산 21조의 0.3%에 불과하다는 점이 부각되었고,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된 DDP 등의 각종 토건사업이 대척점으로 시민 담론의 도마 위에 오르내렸다.

98) 유길용, “동대문 저 건물 정체가 뭐지?,” 중앙일보, 2012.7.10

참여한 사례는 드물었지만, DDP 역시 빠른 진행을 목표로 한 까닭에 시민참여와 같은 절차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사업 초기에 이슈가 되었던 노점상 문제도 ‘철거 및 이주’로 신속하게 진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되고 오세훈이 시장 직에서 사퇴함에 따라 새로운 시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열렸고, 여기서 박원순이 새 시장으로 당선되었다. 박원순 시장은 토건사업예산과 비교된 복지예산을 강조하면서 시장직에 올랐기 때문에 서울시의 대표적 토건사업이었던 DDP 사업의 예산을 축소하기에 이른다. 또한 그는 변호사 시절 시민단체 활동을 했으며 참여를 강조하는 정치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는데, 시장직에 오른 후에도 DDP의 시설 프로그램을 새롭게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도 했다.

#### • 서울디자인재단

2006년에 오세훈이 서울 시장으로 취임한 이듬해, 서울시는 ‘디자인서울’이라는 이름으로 디자인 관련 정책을 보다 공고히 하면서 ‘디자인서울총괄본부’를 신설하였다. 서울대 미대의 권영걸 교수를 부시장급인 본부장으로 임명하여 여러 사업들을 추진했는데, DDP의 건설 사업을 관장했던 도시기반시설본부와 함께 DDP의 운영과 기획을 담당하여 DDP를 각종 디자인 사업과의 연관된 위상으로 다루게 된다.<sup>99)</sup>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핵심 사업으로 2008년 이후 해마다 개최되었던 ‘서울디자인올림픽’에 DDP의 일부가 전시 및 이벤트 장소로 쓰이기도 하고, 자하하디드(Zaha Hadid)가 연사로 초청되거나 그의 작품이 전시되기도 하였던 것이다.<sup>100)</sup>

이러한 흐름은 ‘서울디자인재단’의 출범(2009.03.03)으로 이어졌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서울의 디자인 산업 진흥 및 디자인 문화 확산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서울의 디자인 경쟁력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sup>101)</sup> DDP와 관련해서는 디자인플라자의 콘텐츠 마련에 관여하면서 개관 후 운영을 맡게 될 예정이며, 2009년에 개관한 역사문화공원의 운영사업을 맡고 있다.

99) 2007년 4월 당시에 디자인서울총괄본부는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과 동격인 부시장급 수장을 둔 조직이었다. 각종 본부와 국·실이 1,2 부시장 휘하에 속해있던 것을 감안할 때, 전략적 사업을 추진하려고 신설한 조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디자인서울총괄본부는 다시 2010년 9월에 문화국 및 경쟁력강화본부와 통합되어 문화관광디자인본부로 개편되고 행정1부시장에 속하게 된다.

100) 서울디자인올림픽은 2008년 10월 10일~30일까지의 20일간 처음으로 열렸으며 2009년을 거쳐 2010년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올림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에 따라 ‘서울디자인한마당’이라는 이름으로 2년에 한번씩 열리게 된다.

101) 서울디자인재단 홈페이지. <http://www.seouldesign.or.kr/info2/info.jsp> 2012년 6월 30일 접속.

• 건축가(자하하디드)

현상설계에 당선되면서 DDP의 설계를 맡은 자하하디드는 ‘해체주의 건축가’로 분류되던 90년대 이후로는 비정형(非定型)의 디자인 언어를 추구했다. 램폴하스와 마찬가지로 ‘스타건축가’로 일컬어지는 그는 세계 곳곳에서 다수의 비정형건물을 설계하였다.



[그림 3-43] 좌 : 2012년 준공 예정인 아랍에미리트 사디아트(Saadiyat) 섬의 공연예술센터(Performing Arts Centre)  
우 : 이탈리아 칼리아리(Cagliari)의 뉴라지크 현대 미술관(Nuragic and Contemporary Art Museum, 2007년 완공 예정)  
(출처 : 서울시 보도자료)

DDP에서도 유감없이 자신의 성향을 드러냈는데 그는 DDP와 관련한 인터뷰에서 “건물이 반드시 주변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sup>102)</sup> 즉, 건물이 주변을 따르기보다는 건물과 사람들에 의해 주변 맥락이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 DDP 설계과정에서는 설계를 마친 후 착공(2009.4.28) 때 처음으로 대상 부지를 방문하였다.

• 문화재청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창출을 통해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다.<sup>103)</sup> 현재 문화재보호법은 지하에 묻혀 있는 문화재를 발굴할 때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서울시의 개발 사업에서 종종 시와 대립해왔다. 서울시청 옛 본관의 해체 문제를 놓고도 서울시가 권고를 무시하고 철거를 강행하자 깊은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sup>104)</sup>

그러나 DDP 사업에서는 서울시의 방침과 큰 충돌 없이 진행되었다. 서울시에서 동대문운동장을 철거할 때, 일각에서 운동장을 보존하기 위해 문화재청에게 운동장을 근대문화재로 등록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일부 설비만 남기고 나머지는 철거하도록 하는 운동장의 부분 보존 방침으로 응답했다.<sup>105)</sup>

102) 김미리, “이라크 출신 건축가 자하 하디드 런던 현지 인터뷰,” 조선일보, 2007.11.16, A27면

103)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korea/introduce/foundation.jsp?mc=NS\\_05\\_02\\_03](http://www.cha.go.kr/korea/introduce/foundation.jsp?mc=NS_05_02_03)  
2012년 6월 30일 접속

104) 김규원, 이정훈, “새 청사 짓겠다고 문화재 헐어버린 서울시,” 한겨레, 2008.08.27, 13면

서울성곽의 복원 문제 역시 사업 초기부터 서울시와 협의하여 현상설계 지침에 성곽 복원을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신축건물 예정부지에서 유구가 출토되었을 때도 문화재청은 그 자리에 복원하는 것이 아닌 이전 복원을 결정했으며, 서울시는 그에 맞추어 설계 변경을 진행하였다.

#### • 이해관계 단체

DDP 사업은 주변 지역의 동대문 상인과 패션관련 단체 등 여러 단체들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추진되었다. 이들은 현상설계가 시작되었던 2007년 4월 보다 훨씬 이전부터 동대문지역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왔다. 예를 들어 1996년에 서울시 신청사 후보지로 동대문지역이 거론되었을 때부터, 2002년에 동대문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받았을 때, 2003년에 돔구장이 계획되었을 때, 그리고 이후에 공원화 사업이 추진되었을 때 모두 사안에 따라 결성된 이해관계단체들의 활동이 큰 영향을 발휘했다.<sup>106)</sup>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는 2002년에 동대문 지역을 관광특구로 추진하는 운동을 계기로 결성되었다. 이 단체는 상인들의 회비로 운영되며 동대문 상인 15만 명을 대표하는 이익기구 역할을 한다. 이들은 2007년 9월 5일에 시청 앞에서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sup>107)</sup>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회는 동대문운동장철거를 반대해왔으며, 2006년 12월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동대문운동장 수호 100만 서명운동을 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7개 대체구장 건립 안을 제시하는 MOU를 체결하고, 야구계는 운동장 철거에 동의하게 된다.<sup>108)</sup>

풍물시장자치위원회는 축구장 부지에 있던 풍물시장들의 대표기구였다. 이들은 전국노점상총연합회와 공동으로 2006년 6월 대학로에서 집회를 열고, 오세훈서울시장 인수위원회와 ‘대책 없이 동대문운동장을 철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얻었다. 그러나 오세훈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합의의 효력을 문제삼으며 약속을 파기했고, 풍물시장과 서울시의 관계는 경색된다. 이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서울시에 풍물시장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였으며 결국 대다수가 신설동으로 이주하게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내부적 분열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여 일부 잔존 상인은 강

105) 전중휘, “문화재청도 ‘동대문운동장 철거’ 동의,” 한겨레, 2007.12.16

106) 황진태, op. cit., pp.48-80

107) Ibid., pp.61-62

108) Ibid., pp.83-84

제로 철거당하게 된다.<sup>109)</sup>

동대문 지역의 패션산업 발전을 위해 결성된 동대문지역발전협의회는 2011년에 준비과정을 거쳐 2012년에 구체화 되었다. 이 단체는 상인, 디자인, 패턴, 원단 및 부자재, 상인회, 금융 및 법률, 세무, 전산기술자, 사이버 대학교 및 교수 와 기타 기술 전문가, 정부 등이 참여하는 동대문 패션 전통시장의 총체적 위기극복을 위한 시스템을 구성하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sup>110)</sup>

문화연대는 1999년 결성된 단체로서, 문화운동을 통해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문화적 공공성을 확대함으로써 문화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sup>111)</sup> 이 단체는 DDP 사업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으며, 문화연대의 황평우 문화유산위원장은 동대문운동장의 유구 발굴 당시 이전(移轉) 복원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sup>112)</sup>

또한 ‘동대문운동장 철거반대와 보존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처럼 범 연합단체를 결성하여 운동장 철거를 반대하고 보존 계획을 수립하며 인근 노점상 등에 대한 생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여기에는 체육시민연대, 프로야구선수협의회, 문화연대등이 참여했다.<sup>113)</sup>

### (3) 전체 기간동안의 미디어 보도 추이

전체 기간 동안 어떠한 이슈들이 다루어졌는지 보기 위해, 전국에 발간되는 종합일간지를 판매부수 순위로 나열하여 상위 9개 신문 기사를 수집하였다.<sup>114)</sup> 9개 신문의 판매부수 합계는 전체 판매되는 종합일간지(6,931,232부, 스포츠·경제신문 등 포함)의 63%에 해당한다. 신문 기사를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였으며 검색 결과 중 유효하지 않은 검색이나 광

109) Ibid., pp.89-96

110) 동대문지역발전협의회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kac365/> , 2012.06.30 접속

111) 또한 이 단체는 공공문화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마련, 문화 관련 법제, 예산, 행정, 시설 운영에 대한 감시와 비판, 시민의 문화적 권리 증진과 시민자치 문화활동 촉진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문화연대 홈페이지 중 정관, <http://www.culturalaction.org/> , 2012.06.30 접속

112) 이대희, “ ‘시장마음대로’ 서울, 삼질은 계속된다,” 프레시안, 2009.05.15

113) 전중휘, 2007.12.16, op.cit.

114) 신문 부수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한국ABC협회([www.kabc.or.kr](http://www.kabc.or.kr))의 자료 중 2010년의 평균판매부수를 참고로 하였다. 경제신문과 스포츠 신문과 같이 일부 분야에 중점을 두는 일간지를 제외하고 종합일간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된 분석 대상은 ①조선일보(1,392,547), ②중앙일보(983,049), ③동아일보(866,665), ④한겨레(225,102), ⑤국민일보(211,632), ⑥한국일보(203,752), ⑦경향신문(200,158), ⑧문화일보(133,430), ⑨서울신문(116,541) 이다.(괄호는 2010년 1월~12월까지의 하루 평균 유료판매부수)



고 기사는 제외하였다.<sup>115)</sup> 검색기간은 과거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의 ‘전체’로 두었으며, 그 결과 2006년 10월 19일자 보도가 DDP와 연관된 첫 기사로 검색되었다. 각 신문별 관련 기사 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3-12] DDP를 다룬 전체 신문 기사 분포

신문	유효 기사 수	DDP를 중심 주제로 다룬 기사		건축디자인 내용을 다룬 기사		사실중심적 기사		가치판단적 기사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조선일보	108	24	22%	18	17%	82	76%	26	24%
중앙일보	37	5	14%	0	0%	25	68%	12	32%
동아일보	48	9	19%	8	17%	36	75%	12	25%
한겨레	44	13	30%	3	7%	15	34%	29	66%
국민일보	31	7	23%	0	0%	27	87%	4	13%
한국일보	45	12	27%	5	11%	38	84%	7	16%
경향신문	36	8	22%	4	11%	19	53%	17	47%
문화일보	39	4	10%	4	10%	32	82%	7	18%
서울신문	62	14	23%	5	8%	54	87%	8	13%
총 계	450	96	21%	47	10%	328	73%	122	27%

\* 검색 기간 : 2006.10.19 ~ 2012.02.29.

\* 퍼센트로 나타난 부분은 각 행의 유효기사 수에 대한 해당 열 항목에 대한 비율임.

예) DDP를 중심 주제로 다룬 조선일보의 기사 22%는 108개에 대한 24개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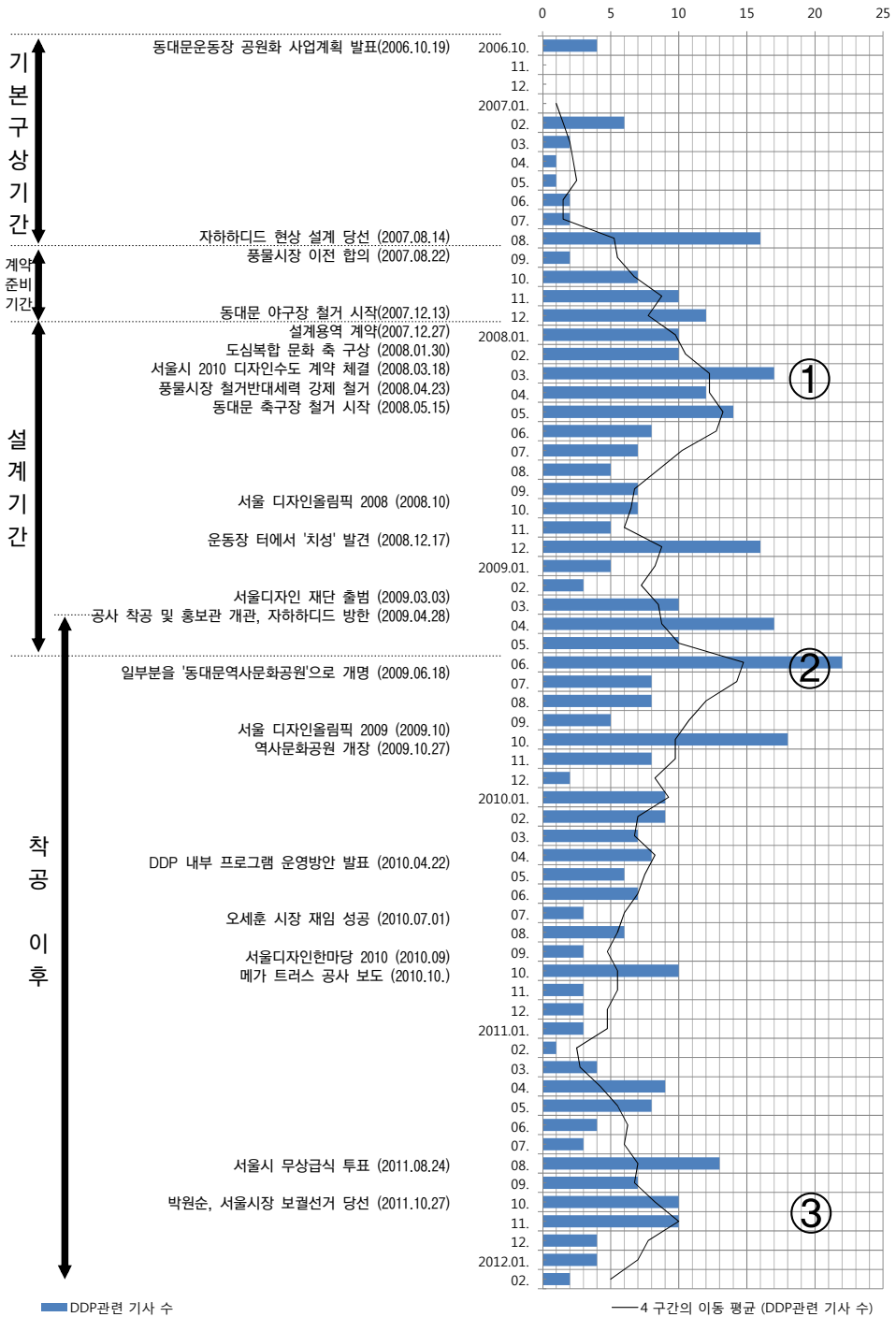
조선일보와 서울신문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7개 일간지에서는 각각 50건 이하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이것은 한 신문당 1개월에 1건이 게재되지 않았던 것으로, DDP와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보도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전체 기사의 내용에서 DDP가 한번이라도 등장한 기사들을 모두 포함한 것이며, 기사에서 DDP를 중심 주제로 다룬 것은 9개 일간지를 모두 합하여 5년 5개월 동안 96건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구체적인 건축디자인을 언급한 기사는 그 기사들의 절반가량인 47건이다. 중앙일보와 국민일보의 경우는 DDP의 구체적인 건축디자인을 언급한 기사가 단 한건도 없었다. 그리고 전체의 73%인 328건은, 서울시의 보도자료를 반복하면서 사실중심적으로 쓰여진 기사들이다. 가치가 개입되어 비판적으로 보도된 기사는 122건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신문을 읽는 일반 시민들이 DDP의 구체적인 디자인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할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전체 기사의 월별 분포는 다음 장의 그래프와 같다.

115) 조선일보는 조선일보아카이브([http://srchdb1.chosun.com/pdf/i\\_archive/](http://srchdb1.chosun.com/pdf/i_archive/))를 통해 기사를 수집하였고, 중앙일보 기사는 중앙일보 웹사이트(<http://joongang.joinsmsn.com/>)에서 수집하였다. 기타 7개 언론사는 카인즈(<http://www.mediagaon.or.kr/jsp/search/SearchKindsMain.jsp>)에서 기사들을 수집하였다. 물론 검색 결과는 어느 정도의 오차를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그림 3-44] 9대 종합일간지의 월별 DDP관련 기사 수





에서 등장하는 단어들의 빈도수를 분석함으로써 ‘대략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sup>118)</sup>

그리고 이러한 분석은 전체 담론에서 건축디자인이 차지하는 양적 비중을 추측해 보는데도 도움을 준다. 물론 해당 기사가 어느 정도 대중에 실제 노출되어 담론을 만들어냈는지 확인하는 것은 힘들지만, 2장에서 살펴본 미디어의 작용들을 감안할 때, 그리고 시애틀공공도서관에서의 사례를 통해 볼 때, 기사에서 다루어진 정도와 실제 담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분석을 위하여 KrKwic을 이용하여 9개 일간지 450개의 신문기사에 사용된 단어들의 빈도수를 검출하였다.<sup>119)</sup> 직접적으로 산출된 데이터는 조사와 서술어 등을 모두 포함하거나 특정 단어가 분산되어 계산되어 있으며, 기사의 성격을 드러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단어들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수동적으로 필터링 하는 데이터 정제의 과정을 거쳤다.<sup>120)</sup> 그리고 그 결과를 내림차순으로 [표 3-13]에 정리하였다.

우선 가장 노출빈도수가 높은 단어는 총 2,897회 사용된 ‘디자인’ 이다.<sup>121)</sup> 이것은 전체 단어 수 153,360개의 1.89%에 해당하는 높은 빈도로서, 분석에 사용된 전체 문장이 약 9,400개라는 것을 감안할 때, 세 개 중 한 문장에는 ‘디자인’ 이라는

118) 분석에 앞서, 전체 신문 기사를 직접 탐독함으로써 건축디자인에 대한 비중이 현저히 낮다는 것은 누구라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음을 밝힌다. 다만,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을 정량적 분석을 통해 객관화하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 번째로, 연구논문을 읽는 사람에게 ‘현저히 적다’는 것을 수긍시킬 수 있는, 소통에 있어서의 객관적 도구이자, 글들을 하나하나 언급하지 않고도 짧은 지면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효율적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450개라는 비교적 작은 샘플에서 직관과 정량적 지표가 일치함을 보여준다면 추후 보다 많은 샘플을 다룰 때 직접 탐독하지 않고도 정량적 분석을 통해 기사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9) KrKwic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부록 1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120) 데이터 필터링은 다음의 네 가지 과정을 거친다.

① 산출된 데이터는 텍스트의 모든 단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있다(908회)’, ‘등(791회)’, ‘한(281회)’, ‘또(224회)’ 등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사와 접속사나 단순 서술어미등은 모두 제외한다.

② ‘디자인’ 과 같은 단어는 ‘디자인(943회)’, ‘디자인의(75회)’, ‘디자인과(38회)’ 처럼 분산되어 산출되어 있다. 빈도 수가 높은 단어부터 해당단어를 포함하는 하위 빈도수 단어를 모두 찾아 하나로 합산한다. KrKwic은 따옴표와 같은 특수기호가 포함되면 다른 단어로 인식하므로, 이 과정에서 함께 고려하여 정제한다.

③ ‘오세훈/오 시장’,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월드디자인플라자/디자인월드플라자’, ‘동대문운동장/야구장/축구장’ 등 다른 단어이지만 맥락상 같은 의미로 쓰인 단어들은 합산하여 계산하였다.

④ ‘서울’, ‘도시’, ‘지역’, ‘뉴스’ 와 같은 단어는 높은 빈도수로 등장하지만, 실제 기사에서 해당 단어가 사용된 맥락을 고려해보면 기사의 특징을 파악해 내는데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단어들은 결과에서 제외하였다.

121) 여기에는 ‘디자인올림픽’, ‘디자인총괄본부’, ‘세계디자인수도’, ‘서울디자인재단’ 과 같은 단어도 기사의 맥락상 비슷한 의미로 쓰였다고 판단하여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였다. 그러나 이를 포함하지 않고 순전히 ‘디자인’ 과 조사의 결합만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1,000회가 넘는 빈도수를 보였다. 그리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월드디자인플라자’ 처럼 DDP를 의미하는 단어는 제외하였다.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표 3-13] 9개 일간지의 주요 단어 노출 빈도 수

빈도 수	단어	빈도 수	단어	빈도 수	단어	빈도 수	단어	빈도 수	단어
2897	디자인	243	관광	166	예술	89	3차원	46	빌바오
1187	동대문운동장	242	패션	165	새로운	89	지상	46	지성
1007	문화	233	발굴	158	보존	89	형태의	43	광화문광장
686	DDP	229	조선시대	153	남산	88	랜드마크	42	친환경
600	건물	227	옛	146	국제	88	외국인	40	조화
595	건축	222	디자이너	135	유적	87	유선형	40	프리츠커상
555	세계	215	건설	122	지하철	83	녹지	36	뉴타운
421	오세훈	208	도심	121	복지	81	패널	30	웨손
398	공원	205	부지	116	동대문역사문화공원	78	대형	29	배치된다
395	시민	204	지하	115	외벽	76	지붕	29	콘크리트
394	설계	198	풍물시장	114	브랜드	75	첨단	28	거대한
386	성곽	197	정책	113	영국	74	성벽	26	철골
371	개발	196	복원	112	면적	69	이간수문	19	어울림
345	예산	196	청계천	112	유구	68	들어선다	18	비정형
329	규모의	194	건립	110	미래	66	최대	17	알루미늄
314	철거	186	박원순	104	경쟁력	55	풍경	14	트러스
312	역사	181	노점	103	기술	53	명품	13	재질의
299	건축가	178	이전	97	상징	52	스포츠	12	색상
266	한강	168	경제	95	모양	50	무상급식	12	재료를
249	하디드	168	서울시장	94	여성	48	독특한	6	외형

\*. 검출 대상의 신문기사 : 9대 종합일간지의 2006.10.~2012.02 중 DDP관련 기사. 검출 단어 총 153,360 단어

\*. 검출 방법 : KrKwic을 사용한 후 수동적으로 필터링 함

단어가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높은 빈도수를 보이는 이유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DDP 사업이 서울시 디자인 정책과 긴밀하게 연관되었기 때문에 서울시 디자인 정책을 다루는 기사에 DDP가 연관되어 등장했기 때문이다. 또한 자하하디드의 설계안을 설명할 때도 ‘설계(394회)’ 보다는 ‘디자인’이라는 용어로 서술되기도 했다. 즉, 많은 서술의 중심이 ‘디자인’이라는 단어로 수렴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다음으로는 빈도의 서열 순으로 검출된 단어들을 토대로 소급적으로 범주를 분류해 보았다.

우선, 디자인 사업을 통하여 세계화된 상황 속에서 관광수입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맥락으로 쓰인 단어들(세계, 관광, 경제, 국제, 브랜드, 미래, 경쟁력, 랜드마크, 외국인, 명품, 빌바오)은 총 1,715회 등장하며, 실제 글의 맥락상에서 앞의 ‘디자인’ 과 결합되어 기사의 전반에 걸쳐 고르게 나타난다.

기사들의 시간적 분포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났던 피크 구간과 관련된 부분도 단어의 빈도수로 설명된다. 운동장 철거 시기의 ‘보존-개발’에 관련된 단어들은

‘동대문운동장, 개발, 철거, 건설, 품물시장, 건립, 새로운, 들어선다’ 와 같은 것들이 있다. 관련단어들의 빈도수를 모두 합산하면 2,712회다. 역사문화공원에 관한 단어들은 ‘성곽, 역사, 발굴, 조선시대, 옛, 복원, 보존, 유적, 유구, 성벽, 이간수문, 치성, 훼손’ 등이 있으며 총 2,207회 등장한다. 그러나 ‘훼손(30회)’ 처럼 부정적인 의미로 서술된 단어는 자주 등장하지 않는다. 오세훈이 사퇴하고 박원순이 새로운 시장으로 당선되는 과정과 관련된 단어는 ‘오세훈, 예산, 정책, 박원순, 서울시장, 무상급식’ 으로서 총 1,367회의 빈도수를 보이지만, 앞의 두 가지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오세훈’ 과 ‘서울시장’ 이 다른 맥락에서도 사용된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이보다 더 적은 단어들이 상위 서열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건물의 구체적인 디자인에 대해 설명하는 단어들은 많지 않다. 우선 물리적 규모를 설명하는어들(규모, 지하, 면적, 지상, 대형, 최대, 거대한)은 906회 등장하였고, 기술을 설명하는 단어(기술, 3차원, 첨단, 철골, 트러스)는 307회 검출되었다. 또한 구체적인 재료나 부위를 지칭해가면서 디자인을 설명하는어들(외벽, 상징, 모양, 형태, 유선형, 패널, 지붕, 독특한, 조화, 배치된다, 콘크리트, 어울림, 비정형, 알루미늄, 재질, 색상, 재료, 외형) 중 대다수가 상위 서열에 나타나지 않아, 실제 기사 탐독을 통해 관련 키워드들을 추출하여 별도로 빈도수를 산출하였다.<sup>122)</sup> 각각의 빈도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합산하여도 883회에 그쳤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래 표에 다시 정리하였다.

[표 3-14] 주제별로 묶어 본 단어의 빈도수

주 제		연관 단어	빈도수	합 계
디자인과 국가 경쟁력	디자인	디자인, 디자인올림픽, 디자인총괄본부, 세계디자인수도, 서울디자인재단 등	2,897	4,612 (3.01%)
	세계화&관광수입 &국가경쟁력	세계, 관광, 경제, 국제, 브랜드, 미래, 경쟁력, 랜드마크, 외국인, 명품, 빌바오	1,715	
세 가지 중심담론	보존-개발	동대문운동장, 개발, 철거, 건설, 품물시장, 건립, 새로운, 들어선다	2,712	6,286 (4.10%)
	역사	성곽, 역사, 발굴, 조선시대, 옛, 복원, 보존, 유적, 유구, 성벽, 이간수문, 치성, 훼손	2,207	
	토건-복지	오세훈, 예산, 정책, 박원순, 서울시장, 무상급식	1,367	
구체적인 디자인	규모	규모, 지하, 면적, 지상, 대형, 최대, 거대한	906	2,096 (1.37%)
	기술	기술, 3차원, 첨단, 철골, 트러스	307	
	구체적인 재료와 부위	외벽, 상징, 모양, 형태, 유선형, 패널, 지붕, 독특한, 조화, 배치된다, 콘크리트, 어울림, 비정형, 알루미늄, 재질, 색상, 재료, 외형	883	

\*. [표 3-13]을 토대로 재계산함. 표 오른쪽의 합계에서의 괄호 안은 전체 단어 수 153,360개에 대한 비율

122) [표 3-13]의 오른쪽 하단에 굵은 글씨로 강조하여 표현하였음

###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물론, 이렇게 단어의 빈도수를 통해 담론을 파악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오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단어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 개별적으로 검증하기 힘들고, 상위 서열에 위치한 단어들로 전체 기사들을 설명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위의 분석에서 빈도수를 하나하나 서열화 하는 것 보다는, 구체적인 디자인을 언급한 단어가 ‘디자인과 국가경쟁력’이나 피크 구간에서의 중심담론에 대한 언급보다 현저히 적다는 사실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제까지 기사 수의 대략적인 시간적 분포와 등장한 키워드들의 빈도를 통해, 전체 기간 동안의 미디어 보도가 어느 정도의 양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봄과 동시에 토론장에서 어떠한 논의들이 주로 거론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내용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3.2.2장에서 진행하기로 한다.



### 3.2.2. 토론장과 작업장의 전개 양상

여기에서는 주요한 사건 전개에 따라 토론장과 작업장을 분석해나간다. 분석을 위한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사업 초기의 시민아이디어공모전과 국제지명초청설계경기다.<sup>123)</sup> 시민아이디어공모전과 국제지명초청설계경기를 통해 사업의 기획과 초기 단계에서 작업장 진행 내용의 일부가 토론장과 공유되었다. 두 번째로 분석할 것은 전체 사업 기간 동안 기사 수가 크게 증가했던 세 번의 피크 구간이다. 각각의 기간 동안 토론장과 작업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영향을 주고받은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세 번째는 2011년 10월 이후 서울 시장이 교체되면서 DDP의 내부 시설프로그램이 변경된 경과를 다룬다. 2012년 7월 현재 변경에 대한 개략적 윤곽만 잡힌 상태이므로 해당 내용까지를 다룬다.

#### (1) 시민아이디어공모전 및 국제지명초청설계경기

##### ① 시민아이디어공모전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은 본격적인 설계경기가 이루어지기 전인 2006년 11월 11에 공고되었으며, 2006년 12월 말에 작품을 접수하고 이듬해 1월에 발표하였다. 결과는 언론에 거의 노출되지 않았으며, 내부적으로 설계에 대한 지침을 만들기 위한 참고 자료의 성격이 강했다.<sup>124)125)</sup>

또한 참가의 장벽도 있었다. 공모전은 그 대상을 ‘일반 시민’ 과 ‘전문성을 갖춘 시민’ 으로 이원화 하여 진행하였다. 그런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대상지 및 주변 도로를 포함한 전체 종합구상도’ 와 ‘공간구성, 용도, 보행동선, 주차, 접근교통망, 녹지네트워크’ 등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다이어그램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소한 관련된 학과를 재학 중인 대학생 정도 되어야 응모가 가능하였다.<sup>126)</sup> 따라서 대중적 토론장으로 보는 것보다 ‘전문가토론장’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sup>127)</sup>

123) 시민아이디어공모전은 ‘시민’ 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였지만 정황상 전문가토론장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본문에서 다루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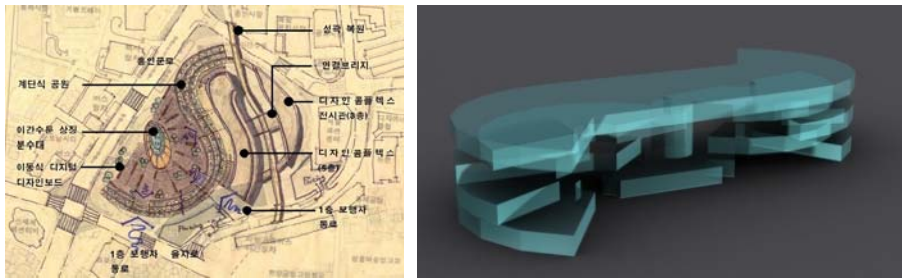
124) 9개 일간지 중 시민아이디어공모전을 다룬 기사는 한겨레 1회, 서울신문 1회에 불과하다. 두 기사 모두 공모전의 공고만을 간단히 다루었으며, 결과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이정애, “동대문운동장 ‘패션메카’ 쟁점”, 한겨레, 2006.10.19, 14면  
강혜승, “동대문운동장 패션메카로”, 서울신문, 2006.10.19, 10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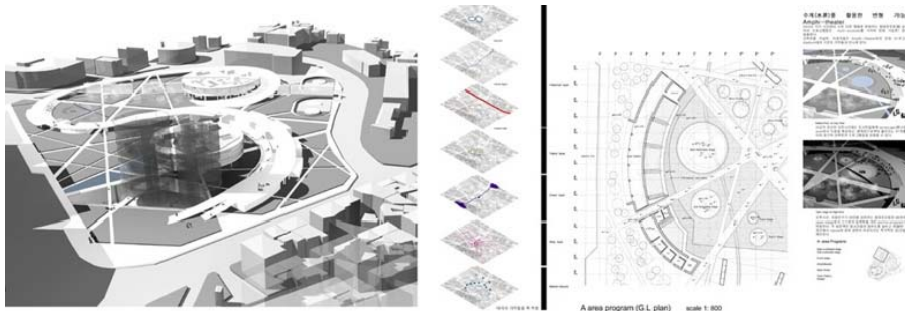
125) 사업 초기에 서울시는 시민아이디어공모전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의 전반적 구상에 대한 다음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서울특별시,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2007

126) 서울특별시,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op.cit., pp.253-269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그림 3-47]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일반부문 수상작 (출처 : 서울시,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그림 3-48]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전문부문 수상작 중 일부(출처 : 서울시,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과 설계에 대한 참고사항이 추출되었다.

[표 3-15]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에서의 프로젝트 참고 사항

구분	내용	
기본 원칙	공공을 위한 오픈스페이스	다양한 이용이 가능한 야외 광장 지하공간과의 연계방안
	역사적 흔적이 녹아있는 장소	근대건축물(동대문운동장)의 활용 성곽과 이간수문의 재현
	복합문화예술의 중심지	시민의 참여로 완성되는 공간 문화 이벤트의 구심점
	현재의 구조물을 살린 공간 디자인	현 운동장과 야구장의 형태를 디자인 요소로 재현 동서 상권의 연결로 접근성을 높이는 지하공간의 활성화 계획
설계	성곽의 역사성 재현	이간 수문 및 성곽의 일부 흔적 복원 고증을 통한 수계의 위치 검토 및 수공간 조성
	도심의 녹지 공원	도심 생태를 고려한 녹지공간 조성 시민들을 위한 열린 리후레쉬 공간 확보

\* 출처 : 서울특별시,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2007, p. 90

눈여겨 볼만한 것은, 설계경기가 진행되기 이전 단계인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부터 동대문운동장의 활용 및 디자인 요소로의 재현, 성곽과 이간수문의 재현 및 복원, 고증을 통한 수문 주변의 수공간 조성 등이 논의되었다는 점이다. 즉, 뒤에 기사의 피크 구간에서 다루어질 ‘보존-개발’ 과 ‘역사’ 에 대한 담론들은 사업의 초기

127) 전문가토론장에 대해서는 2장에서 설명하였다.

부터 상식적이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주제라고 할 수 있다.

## ② 국제지명초청설계경기

2007년 4월 16일에 본격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국제지명초청설계경기가 공고되었다.<sup>128)</sup> 지침서에 드러난 요구 시설은 도심공원에 해당하는 ‘동대문디자인파크’ , 건물에 해당하며 전시·컨벤션·교육시설 등을 담고 있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 부지 동쪽의 상업시설과 연결시키기 위한 홍인문로의 ‘지하공간 시설’ 의 세 가지였다. 서울성곽에 대한 일부 및 전면 복원이 설계자의 재량에 맡겨졌으며, 복원의 정도에 관계없이 문화재로 인한 높이 제한은 지켜야 할 것임이 명시되었다. 그리고 운동장의 보존에 대해서도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설계자의 디자인의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sup>129)</sup>

건물에 해당하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시설은 ‘다목적 컨벤션과 전시장’ 이라고 명시 하였으며,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sup>130)</sup>

[표 3-16] DDP 건물 부분의 부분별 소요시설 및 면적

기능	소요시설	면적(㎡)	비율(%)
전시 컨벤션 시설	두 개의 다목적 컨벤션홀 및 지원시설, 패션 및 산업디자인 다목적 전시홀, 디자인체험관, 수장고	13,400	21.3
정보교육시설	디자인정보센터(리소스센터, DB실, 디자인서적 및 영상자료실), 교육(강의실, 세미나실)	4,000	6.4
기타 시설	행정·사무실, 스카이라운지 등 공공편의시설, 지하쇼핑몰	9,200	14.6
제안시설	설계자 제안 시설	3,100	4.9
지원 시설	기계전기시설, 주차시설	12,100	19.3
공용시설	로비, 복도, 화장실 등	21,000	33.4
합계		62,800	100%

\* 출처 : 다음에 제시된 표를 요약하여 재구성함.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 파크 건설을 위한 국제지명초청설계경기』, 서울 : 도서출판 에이앤씨, 2007, p.24

128) 초청작과 심사위원 및 지침내용의 일부는 3.2.1장의 프로젝트진행과정에서 설명하였다.

129) 설계 지침의 계획 기준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층수와 건물 높이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성벽이 건축가의 의도에 의해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복원될 것이기 때문에 건물의 어떤 부분도 성벽 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일정 높이에서 본 양각을 벗어나 계획할 수는 없다.……길이와 높이를 포함한 부지 내부 성벽 복원의 정확한 분질은 WDP 프로젝트 건축가의 디자인 의도에 유념하면서 결정될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영역은 공원 이용자들이 성벽 선의 위치를 알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경관 디자인 기법으로 사용될 것인 반면에, 어느 부분은 완전하게 복원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성벽 복원과 관련된 계획안은 문화재청의 최종 심의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조정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부지상에 있는 기존의 두 경기장은 철거될 것이다. 그러나, 역사성을 상징하는 경기장의 주요시설 일부(예를 들면, 관중석, 전광판, 조명등 기둥 등)를 부분 존치하여 공원 디자인의 모티프로 작용하도록 남겨두거나, 또는 경기장의 원래 이미지나 볼륨을 상기하는 2차원 혹은 3차원의 매개체로 작용하게끔 하기 위한 다양한 경관 디자인 방법이 제안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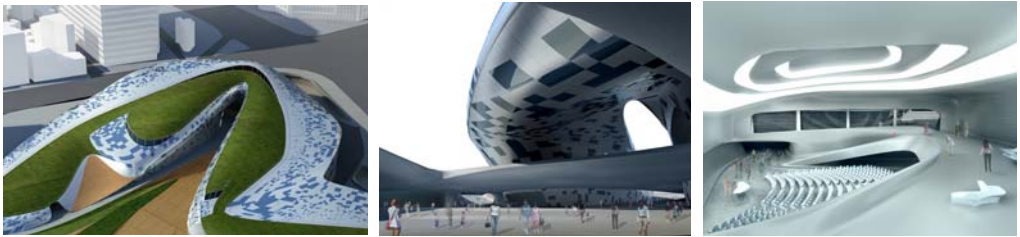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 파크 건설을 위한 국제지명초청설계경기』, 서울 : 도서출판 에이앤씨, 2007, pp.23-24

130) Ibid., pp.24-25

###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컨벤션 시설과 전시시설의 비중이 21.3%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기계전기실·주차장·로비·복도·화장실 등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을 볼 때, 21.3%는 매우 큰 비중이다.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정보교육시설이 6.4%를 차지한다. 디자인의 분야에 대해서는 ‘패션 및 산업디자인’으로 표현되어 있다.

100여일의 설계기간을 거쳐, 응모안들이 접수되었고, 조나단 바넷(Jonathan Barnett)을 심사위원장으로 하는 7인의 심사위원은 자하하디드의 ‘환유의 풍경’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3-49] 자하하디드의 당선작 ‘환유의 풍경’ 내외부 컴퓨터그래픽 이미지 (출처 : 서울시 보도자료)

심사위원들은 1등 당선안에 대한 심사평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다음의 이유로 자하하디드 건축사무소의 계획안이 선정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당선안은 분리된 개체라기보다는 조경과 건축의 성공적인 결합을 보이고 있다. 당선안은 보행자의 시야에 강력한 디자인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어 이는 도시의 중요한 존재로서 디자인 센터를 부각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세련된 조소적 형태와 함께 당선 안은 모든 도로로부터 건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거리의 보행자의 시각이나 주변 건물에서 내려다보는 다양한 시각에서 일관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sup>131)</sup>

그리고 2등 조성룡의 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설계경기에 초청된 8개의 작품 중에서 3번 작품은 동대문 패션 상가의 컨텍스트와 에토스를 분석하는 일을 가장 훌륭하게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 작품은 두 개의 지하철 역사를 연결하는 보행통로를 통해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 및 대지 주변의 소규모의 상점들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패션 관련인들의 일상적 패턴을 잘 수용하고 있다. …… 오래된 운동장의 일부 구조물 내에 성장하는 패션 디자이너들을 위한 인큐베이터 공간을 창조하기 위한 이 제안은 동대문 야구장이 가지는 80여년의 기억을 되살리는 아주 우수한 제스처이다. 동시에 이 제안은 동대문 지역을 그들의 일종의 요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있다. 심사위원단은 이 제안이 가지는 건축적 디자인의 이미지가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지는 못하지만, 이 제안의 지적이고 창조적인 도시설계적 접근 방식을 높이 평가한다.<sup>13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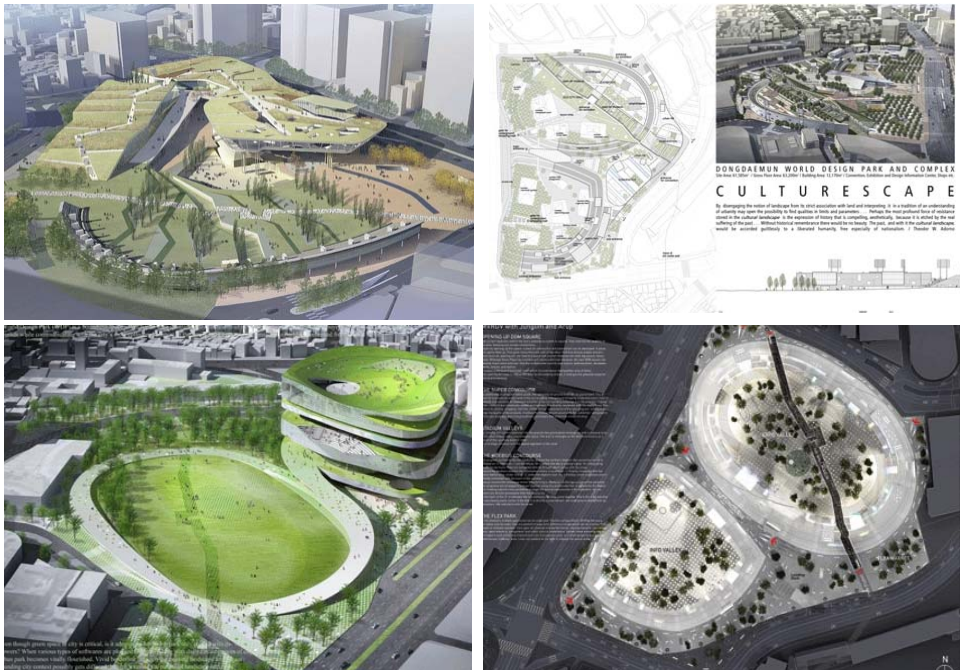
심사평을 통해 판단해 볼 때, 심사위원들이 조성룡의 안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 점

131) Ibid., p.11

132) Ibid., p.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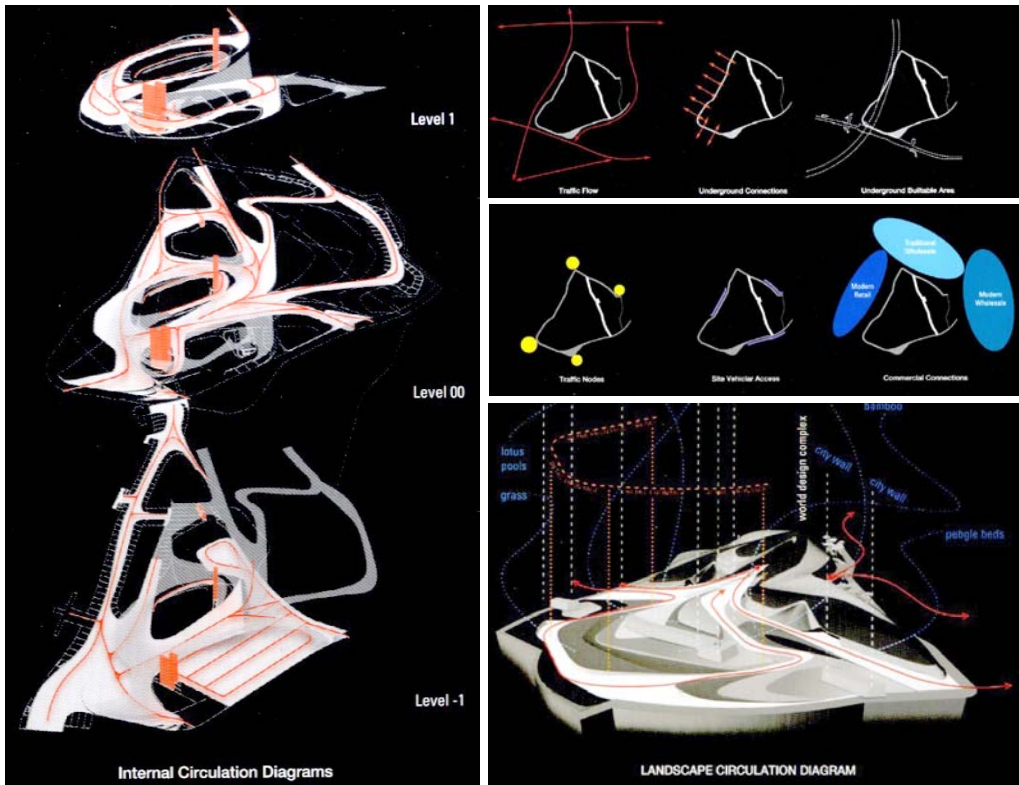
은 사람들의 활동을 잘 수용하였다는 점과 동대문운동장의 기억을 재해석하였다는 부분이였다. 그리고 자하하디드 안에 대해서는 보행자의 시야에서 ‘디자인의 이미지’ 를 일관되게 보여주었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부지를 가로질렀던 성곽을 복원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이었으므로 당선작인 자하하디드의 안을 포함한 모든 응모 안에서 준수되었다. 그러나 동대문운동장을 일부 보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모작마다 이를 반영한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8개의 응모안 중 6개의 안은 동대문운동장을 일부 남기거나 형태적인 재해석을 시도했으나 자하하디드와 스티븐 홀의 안에서는 운동장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기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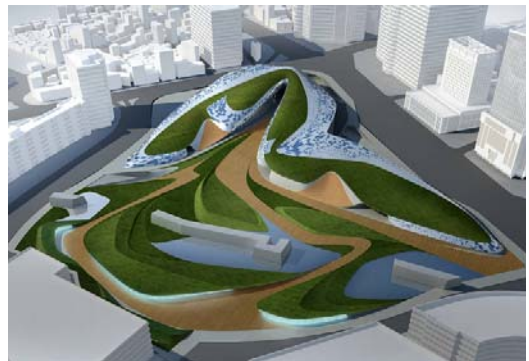
[그림 3-50] DDP 현상설계경기 출품작. 왼쪽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조성릉(2등안), 승효상, MVRDV, 최문규의 안 (출처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홈페이지 ddp.seoul.go.kr)

자하하디드가 설계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부지에 대한 역사적인 재해석보다는 부지와 그 주변에서 현재 발생하는 사람·교통·물자의 순환과 흐름으로 보인다. 이것은 그가 설계안에서 제시한 다이어그램에서 잘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건물로 연장되면서 비정형의 내외부공간을 만들어 내는 듯하다.



[그림 3-51] 자하하디드가 설계안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순환 다이어그램  
(출처 :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 파크 건설을 위한 국제지명초청설계경기」)

물론 자하하디드의 안도 충분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부지에 대한 실제적인 분석을 통해 주변의 흐름을 건물 내부로 자연스럽게 이어주었으며, 심사위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조경과 건축을 하나로 통합해내면서 기획 의도에 맞게 ‘디자인의 이미지’를 잘 표현해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참여했던 다수의 국내 건축가들과 많은 사람들이 동대문운동장의 보존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부분은 자하하디드의 설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널리 공론화되기도 못하였다.



[그림 3-52] 자하하디드의 설계안과 부지를 가로지르는 서울 성곽  
(출처 : 서울시 보도자료)

이러한 문제는 서울성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지침에 따라 자하하디드의 안에서도 서울 성곽은 복원되었다. 하디드가 선택한 접근방식은 성벽을 일부

끊어서 부지 전체의 동선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성벽은 ‘동대문디자인파크’ 부분에서 바라보는 대상이 된다. 그런데, 건축가마다 접근 방식은 모두 달랐다. 조성룡과 최문규는 성벽 자체를 복원하지 않고 지표에 그 흔적만을 남겼으며 승효상은 성벽의 한쪽 벽 위주로 복원하고 성벽의 안쪽과 바깥쪽에 대해 레벨차를 두어 다른 부분들과 다리 혹은 경사램프로 연결하는 방식을 취했다. MVRDV는 보존된 축구장 상부로 성벽을 들어 올려 부지를 가로지르며 하부의 공원을 내려다볼 수 있도록 했다. 해석은 모두 달랐지만, 그 차이점과 역사의 해석방식에 대해서는 역시 공론화되지 못했다.



[그림 3-53] 성벽 복원에 대한 접근방식의 차이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자하하디드, 조성룡, MVRDV, 승효상의 안)  
(출처 :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 파크 건설을 위한 국제지명초청설계경기』)

물론 설계에서 드러나는 모든 차이점들이 대중적으로 공론화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동대문운동장과 서울성곽에 대한 부분은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문제였으므로 충분한 공론화의 가치를 지닌다.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개발에 직면한 도시의 공유된 기억에 대해 사람들의 의중을 모을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이다.

‘설계경기’ 라는 이벤트가 전문가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표현하면서 겨루는 ‘전문가토론장’ 이라고 한다면, 동대문운동장의 보존과 서울성곽의 복원에 대한 주제들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은 설계경기 과정에서도 응모 안에 따라 상이한 입장들을 드러내며 충분히 토론장의 주제로서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다. 응모자들이 자신의 설계 안을 설명하면서 언급했던 말들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표 3-17] 현상설계 응모작 설명

건축가	제목	내용
자하하디드 (당선작)	환유의 풍경	‘환유’는 주변의 사물을 참조하기 위해 특정한 사물을 간접적으로 묘사하는 수사학적 전략을 의미하며, ‘풍경’은 인간과 그 환경 사이의 관계를 물질적으로 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 작품은 동대문 프로젝트가 가지는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도시적, 사회적, 경제적 요소들을 환유적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풍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액체의 흐름을 연상시키는 건축물과 공원의 형태를 통해 제공되어지는 공간적 유연성은 한국적 전통과 끊임없이 변모하는 디자인의 미래가 하나로 합쳐져 연속적인 건물 내부와 외부를 통해 표현된다.
조성룡 의 (2등 안)	친밀한 희망의 공간	도시는 복잡계이다. 서울과 같이 열린 공간이 적고 밀도가 높은 도시의 풍경은 건조하고 분주함이 강조되어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WDPC가 친밀한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 도시적 전략과 개념 : ‘The floating Cloud’ (떠있는 구름): 제안된 공원은 친밀한 희망과 욕망이 직조된 재 창조화를 의미한다. 즉 풍경과 건물, 옛것과 새것, 과거와 현재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이중교배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스티븐 홀 (3등 안)	WEAVE	WEAVE의 개념은 네 가지의 다른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다. WEAVE의 형태에서 발생되는 북측공원과 수직공원, 역사적인 건축물 전통정원 자연발생적인 길들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서울 강북의 형태, WEAVE의 개념은 패션과 각종 섬유 중심인 주변지역의 새로운 역할의 상징, 21세기의 새로운 지향점으로서의 조경 도시 건축의 융화를 의미한다.
승효상 (참가작)	컬처 스케이프	과거에 이 장소는 남산과 낙산을 연결하는 중간지역으로 낮은 구릉이 있고, 그 위로 성벽이 지나가는 옛 서울의 경계부분으로 남산에서 내려와 청계천으로 이어지는 물길이 통과하였다. 특히 서울의 4개주산 중 하나인 남산과 낙산을 이어주는 장소로서 현재까지도 장충동과 대학로 두 개의 문화지구를 이어주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곳은 기념비적인 건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장소에 대한 기억을 남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므로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설정한다. 지형의 복원-인공지형(urban-hill)과 물길 복원 / 역사의 복원-서울성곽 / 현상의 기억 - 경기장 공간구조 및 단편시설들의 존치

\* 출처 : 건축문화 2007.09

1,2,3등과 참가작 중 승효상의 작품설명을 보면, 전략 설정은 모두 다르지만 연결과 통합이라는 점에서는 모두 공통된 시각을 갖고 있다. 하디드는 ‘역사, 문화, 도시, 사회, 경제적 요소들을 환유적으로 통합’ 하였다고 말했고, 조성룡은 ‘풍경과 건물, 옛것과 새것, 과거와 현재를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한다고 했다. 스티븐 홀은 ‘공원, 서울 강북의 형태, 주변의 패션과 섬유산업에 대한 상징, 조경·도시·건축의 네 가지를 엮는다(weave)’ 고 했으며, 승효상 역시 ‘물길이 통과하고 문화지구를 이어주는 부지에서 지형, 역사, 기억을 통합’ 해내려 하고 있다.

접근하는 취지 자체부터가 다르다면 설계안에 대한 토론장에서의 논의가 수렴되지 못하고 확산되기만 할 가능성이 크지만, 설계를 진행한 기준이 어느 정도 공통된다면 그 표현방식의 차이에 대해서는 토론장에서 적절한 논의의 한계를 설정한 채로 다루어 질 수 있다. 그리고 디자인이라는 것이 추상적 생각을 물질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이므로,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이 ‘옳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겠지만, 일반 시민이 사용하게 될 공공시설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견해를 듣고 서로 공유하는 것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설계경기와 같은 이벤트들을 대중에게 알리는 첫 번째 단계로서의 역할을 맡은 것이 미디어라고 한다면, 설계경기의 당선작을 보도한 신문 기사에서는 당선작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만을 언급했다.

서울 동대문운동장 부지에 물결치는 모양의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동대문운동장(아구장, 축구장)을 철거한 자리에 공원과 월드디자인플라자를 짓는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에 대한 국제 현상설계 공모 결과, 영국 건축가 자하 하디드(Zaha Hadid·56)씨의 작품 ‘환유의 풍경’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하디드는 이라크 출신의 세계적 건축가로, 2004년 건축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받았다.

당선작품은 공원과 월드디자인플라자(지하 1층, 지상2층) 건물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마치 물결치는 파도나 사막의 모래언덕 같은 힘찬 울동감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월드디자인플라자의 벽이 자연스럽게 공원과 이어지게 설계해, 언덕처럼 펼쳐진 잔디 공원을 따라 걷다보면 어느새 건물 옥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했다. 공원 한쪽에는 조선시대 서울성곽의 모양을 그대로 살려 전통의 맛을 살렸다.<sup>133)</sup>

서울 동대문운동장 터에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처럼 서울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건축물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을 위해 실시한 국제현상 공모에서 영국의 여류 건축가 자하 하디드(56) 씨가 제출한 ‘환유의 풍경(Metonymic Landscape)’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모에서 당선된 이라크 바그다드 출신의 하디드 씨는 2004년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Pritzker)’ 상을 여성으로는 처음 받은 세계적인 건축가다.

▽동대문운동장, 서울의 상징 건물로 재탄생=동대문운동장 주변 6만6500m<sup>2</sup>(약 2만116평)에는 아구장과 축구장(풍물시장) 등이 들어서 있다. 이 자리에 하디드 씨의 설계에 따라 공원과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월드 디자인 플라자’가 들어선다. 환유의 풍경’은 사막의 모래언덕이나 소용돌이치는 파도처럼 독특한 울동감을 주는 형상이다. 또 공원 한쪽에는 조선시대 성곽을 그대로 살려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꾀했다.<sup>134)</sup>

서울 동대문운동장 부지에 기하학적인 물결 무늬의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선다. …… 당선작은 ‘환유의 풍경(Metonymic Landscape)’으로 명명된 작품으로, 공원과 월드디자인플라자(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기하학적인 물결 무늬를 빚어낸다. 정형화되지 않고 사막의 모래 언덕이나 소용돌이 치는 파도의 물결처럼 군데군데 솟은 형태가 반복되면서 독특한 울동감을 주는 형상이다. 또 공원 한 쪽에는 조선시대 서울성곽을 그대로 살려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꾀했다. 하디드는 “액체의 흐름을 연상시키는 건축물과 공원의 형태를 통해 공간적 유연성을 제공하고 한국적 전통과 끊임없이 변모하는 디자인의 미래를 연속적인 건물 내·외부를 통해 표현하려 했다”고 밝혔다. …… 심사위원회는 “조경과 건축의 성공적인 결합을 선보이고 있다”며 “도시의 랜드마크는 건축물의 높이보다 디자인이나 특색 있는 문화 콘텐츠에 있음을 다시 입증했다”고 평가했다.<sup>135)</sup>

서울 동대문운동장 부지에 물결 무늬의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동대문운동장을 헐고 공원과 월드 디자인플라자를 짓는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에 대해 국제 현상설계 공모를 실시, 영국의 여류 건축가 자하 하

133) 최홍렬, “동대문운동장 터에 ‘물결모양’ 건물,” 조선일보, 2007.8.14, A14면

134) 이헌재, “동대문운동장 터에 물결무늬 랜드마크,” 동아일보, 2007.8.13, 14면

135) 정성호, “영국 여류건축가 하디드의 ‘환유의 풍경’ 당선,” 한겨레, 2007.8.13

###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디드(56)의 '환유와 풍경'을 당선작품으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하디드는 이라크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로 2004년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받았다. 월드디자인플라자에는 패션관련 업종이 들어선다. 이 사업은 2010년 상반기에 완공되며 동대문운동장 철거는 오는 11월부터 시작된다.<sup>136)</sup>

네 기사에서 모두 ‘물결무늬’, ‘파도나 모래언덕 같은 독특한 울동감’, ‘전통과 현대의 조화’ 등의 수식어구를 사용하며 비슷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배포된 보도자료를 근간으로 기사를 작성하였기 때문이다. 관련된 기사들 중 다른 응모작을 다루며 비교하는 기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일반 시민들은 건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신문과 같이 대중적인 매체에서 사건을 전달하며 다른 가치를 지닌 가능한 대안을 함께 제시해주지 않는다면, 대상에 대한 즉흥적인 반응 이상을 대중에게서 끌어내기는 힘들 것이다. 시애틀공공도서관의 설계 과정에서 미디어의 구체적인 보도 이후 시민들이 디자인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항의 서한을 보냈던 것과 비교해보면, DDP에 대한 토론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원인 중 하나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건축 전문가들이 전문가토론장을 활성화시켜 대중의 토론장으로의 연계를 피할 수도 있다. 참여한 국내 건축가들은 응모안에서 모두 운동장과 성곽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했으나, 설계경기가 종료된 이후 DDP에 관한 문제는 건축계 내부에서도 특별히 공론화되지 못했다. 대중과의 접점으로는, 비록 설계경기로부터 4년이 더 지난 이후였지만 대중을 대상으로 극장에서 상영된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관련된 건축가들의 인터뷰가 실린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정기용 : 건축의 명품을 얻기 위해서. 명품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서울시의 자존심. 시장의 자존심. 서울시민의 자존심. 그렇지 않아요. 거거는 자하하디드의 자존심에 돈을 투자를 하는 거죠.

유 걸 : 시민들을 위한 퍼블릭스페이스가 메인스페이스가 되는건데(공공공간이 주된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게 참 드물어요. …… 축구장 야구장에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다구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공간을 어떻게 해놓아야지 될까? 결론이, 오픈 스페이스. …… 그런 점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거기가 지금 건물로 너무 크라우드 해지지 않았나(가득차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승효상 : 이 동대문에 관해서는 건축을 통해서 우선 기억을 재생시키자고하는게 굉장히 큰 목표였죠. …… 스탠드도 남겼고, 타워도 남겼고, 그 성벽도 다 복원했고, 물도 다 남겼고, 운동장이 옛날에 뒤에 언덕이 있었거든요. …… 서울이라는게 6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면서 이 역사적 흔적을 알 수 있게 일상에 없으니까, ……

조성룡 : 공적인 성격을 띠는 장소는……단지 물리적인 것만 아니고, 역사, 그 다음에 시민들이 조금조금씩 이렇게 각각의 인생에서 다 기억하고 있는 조그만 파편들. 나중에 언제든지 리콜해 낼 수 있는(기억해 낼 수 있는)

136) 김기범, “동대문운동장의 재탄생-공원화 설계에 영건축가 선정.” 경향신문, 2007.8.14, 13면

근거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면 안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그것이 그때서부터 그 의미를 갖게 되고, 새로운 시설이나 장소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또 시작이 되는거죠.<sup>137)</sup>

인터뷰를 통해 건축가들은 스타건축가의 자존심에 투자된 과도한 공사비, 장소를 압도하는 거대한 건물, 역사적 흔적과 기억의 상실이라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들은 이후에 다루어질 미디어 보도의 피크구간에서 나타난 중심 이슈들과 대부분 일치한다. 즉, 토론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졌다면 구체적으로 논의되면서 충분한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문제들이었지만, 공사가 완공되기까지 관련된 담론들은 중심적인 이슈로 부상하지 못했다.

## (2) 피크 1 : ‘보존-개발’ (2007.08~2008.07)

자하하디드가 설계경기의 당선작으로 발표될 무렵 축구장 부지의 풍물시장이 신설동 부지로 이전하기로 결정되었다(2007.08.22). 2007년 말에 동대문야구장이 먼저 철거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듬해 4월에 풍물시장 이전을 반대하던 상인들을 강제로 철거시키고 축구장 역시 철거에 들어갔다



[그림 3-54] 철거중인 동대문축구장과 풍물시장  
(출처 : 뉴스시스)

(2008.05.15). 이러한 사건들은 신문을 통해 보도되었으며, 따라서 [그림 3-44]의 그래프에서 드러나듯이 기사 수가 전체적으로 크게 증가한다. 이때의 기사들은 철거를 위주로 다루면서 보존과 개발이라는 상반되는 개념을 환기시킨다. 따라서 이 시기에 토론장에서 오고간 담론을 ‘보존-개발’ 담론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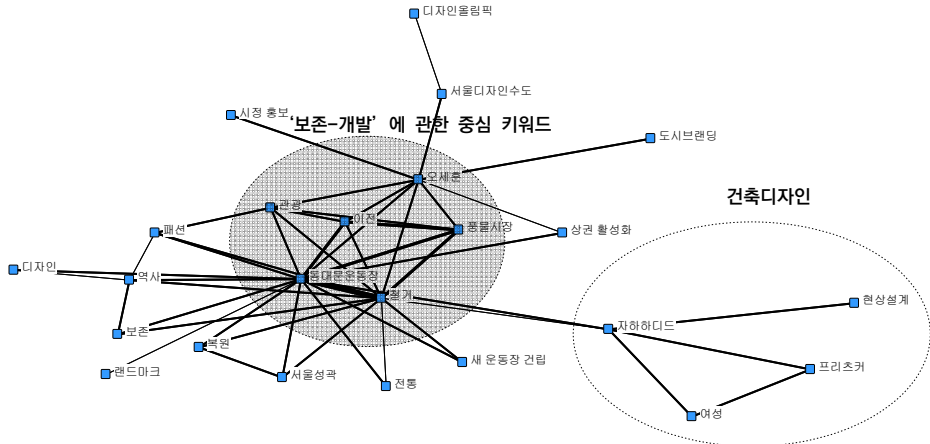
### ① 토론장의 논의

기사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은, 해당 기간 124개의 기사들에서 키워드들 간의 공동 참여연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55]는 연결망에서 8개의 연결선 이상을 표시한 것으로, 진하게 강조한 부분에 나타난 ‘동대문운동장, 철거, 풍물시장, 이전(移轉)’ 등이 담론의 중심에 있음을 보여준다.<sup>138)</sup> 또한 진하게 강조한 부분을 중심

137) 정재은 감독, 『말하는 건축가』, (주)두타연, 2011

138) 이 과정에서 약한 연결망과 키워드들은 필터링되어, 그림에서 표시되지 않는다. 이렇게 많은 연결을 지닌 연결망만을 필터링하여 봄으로써, 주요한 관계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수월해진다.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그림 3-55] 2007.08~2008.07 까지 전체 신문기사에 등장한 키워드들의 공동참여연결망 ( links ≥ 8 )

으로 하여 역사에 대한 키워드들(왼쪽 하부)과 서울시 디자인정책에 대한 키워드(상부)들이 발견된다. DDP의 건물에 대한 건축담론은 중심 담론과 약한 연결고리를 맺으며 주변부에 형성(점선으로 강조)된다. 실제 기사를 살펴보면, 이것은 2007년 8월 14일의 자하하디드 현상설계 당선 기사이후로 특별히 집중되어 보도되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sup>139)</sup> 즉, ‘자하하디드, 프리츠커, 여성, 현상설계’에 대한 기사는 한 기간에만 편중되었고, 따라서 시간적인 간격으로 인하여 다른 기사들과 관계 맺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 연결망에서 주변부에 그룹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결망에서 보이는 건축담론 그룹의 ‘자하하디드’와 ‘철거’에서 ‘동대문운동장’ 사이의 연결도 실제 기사에서 “동대문운동장이 철거된 부지에 건설되는”과 같은 수식어구로 맺어진 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건축담론은 동대문운동장이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한 담론과 긴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기사의 내용들을 살펴보자.

하지만 동대문축구장의 말년은 그리 폼나지 못했다. 시설물이 낡아 2003년 3월부터 폐쇄조치 됐고, 임시 주차장과 청계천 노점상들이 옮겨온 풍물시장으로 이용돼 '운동장'으로서의 수명은 다했으며, 뒷부분은 중구의 쓰레기 집하장으로 이용되기까지 했다.<sup>140)</sup>

그나마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달던 동대문운동장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사업 때문에 헐리는 바람에 지난달 이곳으로 옮긴 뒤에는 매출이 더 떨어졌다. …… “아무리 시장이라지만 분위기가 이런 데 물건 사러 올 기분이 나겠어요? 동대문에만 디자인한다 그러지 말고 여기도 좀 신경 써 주면 좋을 텐데.”<sup>141)</sup>

139) 2007.8.14~17일까지 7개 신문에서 해당 주제를 보도하였다.

140) 정지섭, “동대문 축구장, 그동안 수고했어,” 조선일보, 2008.05.14, A14면

141) 최선옥, “값싸고 신기한 물건 많은데 손님은 왜 없죠?,” 중앙일보, 2008.05.29

가림막 주변에는 동대문 풍물시장 사수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생계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 동대문야구장의 퇴장은 아쉬움이 남는다. 진구 구장은 전광판을 바꾸고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등 80년이 넘도록 살아 숨신다. 그런데 우리는 ‘야구의 고향’을 너무 쉽게 허물 생각만 한 건 아닌지…<sup>142)</sup>

서울시는 16일 새벽 5시께 동대문운동장에서 공무원 100명, 용역업체 직원 800명, 경찰 등 모두 1600여명을 동원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풍물시장 상인 조아무개(59)씨가 벽돌로 추정되는 물체에 오른쪽 눈을 맞아 눈 주위가 함몰되는 중상을 입는 등 5명이 다쳐 서울대병원 등으로 실려갔다.<sup>143)</sup>

서울 동대문운동장 철거 논란과 관련해 문화재청이 일부 설비만 남기고 외벽 등 대부분 시설물은 철거에 동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 문화연대 등이 참여한 동대문운동장 철거반대와 보존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거를 중단하고 보존계획을 수립할 것, 노점상 생계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sup>144)</sup>

여로 든 기사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은 운동장을 보존하지 않는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거나, 철거로 인해 일터를 이전한 풍물시장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서울시는 동대문운동장 야구장 터에 대한 시굴 트렌치 조사 과정에서 조선시대 것으로 보이는 기와시설물과 석렬 유구(石列遺構), 그리고 나무기둥열 등의 흔적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본부석과 스탠드 자리에서 발견된 보행로 추정 시설물은 돌을 깔아, 배수로 추정 시설물은 기와를 깔아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다.<sup>145)</sup>

일부 기사에서는 철거 과정에서 발견된 조선시대의 유구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러한 기사들로 인하여 ‘보존-개발’에 대한 키워드들의 그룹은 ‘역사’에 대한 키워드들과 연결된다.

당시 서울시는 공모 지침서에서 성곽 복원은 물론, 운동장 일부를 문화재적 가치로 보존하는 방안을 동시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하디드는 일제가 파괴한 성곽을 ‘돌보이게’ 복원하고 디자인플라자 건물이 성곽을 품어 싸고 있는 형태를 취하게 함으로써, 일제의 운동장보다 조선시대의 성곽을 절대적인 문화적 실체로 인정하고 이를 작품의 핵심적 요소로 자리매김했다.<sup>146)</sup>

위의 기사는 독자 투고란의 의견이다. 하디드의 안에 복원된 성곽을 거론하면서 운동장을 일제의 유산으로, 성곽을 우리나라의 유산으로 대비시키고 있다. 즉, 하디드의 디자인을 언급하지만 디자인 자체에 대해서 비평하는 것은 아니다.

설계경기에서 많은 건축가들이 운동장을 일부 보존하는 대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불

142) 황태훈, “[스포츠 산책] 메시지 진구-동대문 구장의 ‘생과 사’,” 동아일보, 2008.05.09, 29면

143) 이정훈, “동대문 풍물시장 철거중 ‘충돌’,” 한겨레, 2008.04.17, 10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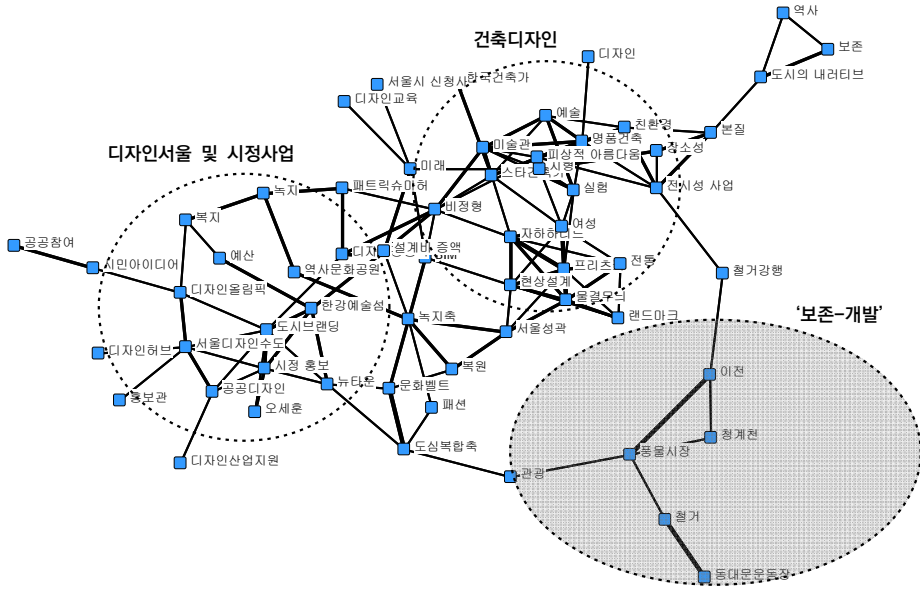
144) 진중휘, “문화재청도 ‘동대문운동장 철거’ 동의,” 한겨레, 2007.12.17, 14면

145) “철거 동대문 야구장서 조선시대 건물 흔적 발견,” 경향신문, 2008.05.18

146) 문승국, “[독자 칼럼]경성운동장, 동대문운동장,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조선일보, 2007.12.19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구하고, 운동장이 철거되는 시점에서 운동장이 사라지는 것을 아쉬워하는 기사들은 있었지만, 그에 대한 문제가 설계의 대안으로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 거론하는 기사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것은 유사성연결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56] 2007.08-2008.07 까지 전체 신문기사에 등장한 키워드들의 유사성연결망 (  $r \geq 0.27$  )

[그림 3-56]의 유사성연결망을 공동참여연결망과 비교하여 보면 이 시기에 다루어진 기사들의 양상이 보다 확실히 드러난다. 공동참여연결망을 통해서 보았을 때 ‘보존-개발’에 대한 키워드들은 전체 기사들에서 매우 높은 빈도로 등장했으나, 유사성연결망을 통해 보면 전체 담론에서 주변부에 자신들만의 그룹을 만들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이 시기에 토론장에서 가장 많이 오고 간 ‘보존-개발’에 관한 담론들이 나머지 담론들과 공유하는 이슈가 적다는 것을 말해준다. 반면, DDP에 대한 건축디자인을 다룬 기사는 주로 디자인서울 및 시정사업과 연관되어 다루어졌고 풍물시장과 철거, 그리고 동대문운동장에 대한 내용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요약컨대, 첫 번째 피크 구간동안의 토론장에서 ‘보존-개발’에 대한 담론은 왕성하게 다루어졌다. 그러나 건물의 입장에서 보자면, 보존 아니면 개발이라는 ‘전체’로서만 다루어졌으며, 신축하는 DDP 건물을 통해 구체적인 디자인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거의 없었다.

② 작업장의 전개

일반적인 공공기관 설계 과정과 마찬가지로, DDP도 설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동안(2007.12~2009.05) 발주처를 중심으로 주 설계자인 자하하디드 측(ZHL)과 발주처(서울시청), 그리고 국내 로컬 설계자인 삼우, 그리고 발주처에서 구성한 자문위원간에 공식적 문건이 오고갔다.<sup>147)</sup> 문서의 내용을 통해 설계 과정에서 각 주체들간에 어떠한 안건을 협의하였는지 알 수 있다. 첫 번째 피크 구간동안 오고간 협의 문건들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18] 첫 번째 피크 구간 설계과정에서의 협의 및 자문회의 관련 문건

문서작성일	문서 제목	문서번호
2008.02.21	설계자와 Conference Call 결과 보고	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1183
2008.02.27	설계자와의 공정협의 내용 보고(4차)	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1326
2008.02.29	RFI 관련 협의(동대문디자인프라지&파크)	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1427
2008.03.07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건립 설계용역 추진회의 결과보고	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1613
2008.03.10	DDP 스페이스 프로그램 등 검토의견 송부	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1659
2008.03.12	설계자와의 공정협의 내용 보고(5차)	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1727
2008.03.13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설계자 RFI에 대한 회신(1)	디자인기획담당관-2146
2008.03.18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설계자 RFI에 대한 회신(2)	디자인기획담당관-2259
2008.03.27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DDPP)계획설계보고도서 검토의견 송부	디자인기획담당관-2585
2008.03.25	동대문디자인파크 설계자문(문화재 복원관련)	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2017
2008.03.27	설계자문 결과 보고 및 기본설계 착수	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2103
2008.03.28	RFI 협의(계획설계의 설계검토 관련)	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2120
2008.03	기본설계 착수 질의 관련 RFI(성곽복원관련)에 대한 회신	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2188
2008.03	DDP(가칭) 계획설계 검토결과 보완사항 제출 촉구	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3854
2008.07.22	자문회의의 검토의견 조치계획 보고	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5113

\* 출처 :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청구 자료(www.open.go.kr)

자하하디드 측과 용역 계약이 체결된 2007년 12월 27일 이후부터 본격적인 건물의 설계가 진행되었다. 우선 건물의 규모가 전체적으로 조정되었다. 설계경기 당시 지상 2층, 지하 1층이었던 건물은 계약 당시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증가되었고, 다시 계획설계 납품(2008.03.26)도면에서 지하 3층, 지상 4층으로 변경되었으나 높이는 24.5m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연면적은 계약당시 74,524㎡에서 각 개실의 면적이 조정되면서 77,300㎡로 소폭 증가했다. 계획설계 기간에는 주로 건물의 규모와 개실의 면적 및 층고를 시설 프로그램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sup>148)</sup>

147) 자문위원회 구성은 아래와 같다.(출처 : 서울시 내부 문건)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전기설비	기계설비	통신설비	조경	토목	문화재
대학교수	2	1	0	2	0	1	0	0	2
실무전문가	2	2	2	0	2	1	2	2	0
계	4	3	2	2	2	2	2	2	2

###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또한 건축분야의 자문위원들은 동선, 출입구, 색채계획 등에 대해서 언급하였으며 촉박한 공사기간과 디자인 코디네이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하기도 했다. 문화재 위원들은 성벽이 끊어지지 않도록 모두 연결하도록 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가로지르는 출입통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밖에 구조, 조경, 각종 설비 분야의 자문 위원들이 건물이 완성도 있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술적인 부분들을 지적했다.<sup>149)</sup>

그러나, 이미 현상설계에서 동대문 운동장을 설계안에 반영하지 않은 자하하디드의 안을 선정한 뒤였던 까닭인지, 설계 진행과정에서 ‘보존-개발’에 대한 담론, 즉 운동장의 보존 여부를 새롭게 거론하는 안건은 찾아볼 수 없다.<sup>150)</sup> 당선 안에서 전체적 규모가 변경된 안으로 설계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2007년 12월 27일, 계획 설계 도면을 납품한 시기가 2008년 3월 26일, 축구장 철거를 시작한 것이 2008년 5월 15일이라는 점에서 생각해 볼 때, 만약 토론장이 시애틀공공도서관의 경우처럼 활성화 되어 작업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토론장이 작업장에 개입하여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다준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부지를 둘러싸고 철거와 보존에 대한 담론이 부상했던 시기와, 설계의 첫 단계인 계획설계가 이루어진 기간이 대체적으로 일치한다는 점이다. 즉, 다 되어진 결과를 두고 벌어지는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 생산과 변화의 가능성을 지닌 담론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 (3) 피크 2 : ‘역사’ (2008.12~2009.10)

운동장 하부에 조선시대의 성곽과 옛 유구들이 매립되어 있다는 것은 사업의 이전부터 알려진 사실이었다. 따라서 성곽이 지나가는 곳은 설계경기 지침서 상에서도 건축제한 영역으로 공고하였으며, ‘성벽 복원과 관련된 계획안은 문화재청의 최종 심의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조정될 수 있다’고 명시되었다.<sup>151)</sup>

동대문야구장이 철거된 직후였던 2008년 1월부터 문화재청은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2008년 5월에 야구장 터에서 기와로 만든 배수로와 석렬(石列·돌이 줄지어 이어진 흔적)등의 유구가 발견되었다.<sup>152)</sup> 이어서 서울성곽과 그

148) [표 3-18]에서 문서번호 [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2103] 참고

149) [표 3-18]에서 문서번호 [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2103] 참고

150) 단, 협의과정에서의 근거는 찾을 수 없지만, 운동장 시설이었던 조명탑 2기와 성화대를 보존할 것이라는 결정은 당선 안 선정시기부터 서울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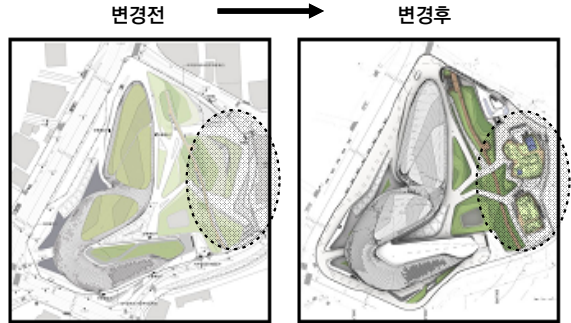
151)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op. cit., p.24



에 부수된 치성과 이간수문이 드러났으며 조선시대의 혼련도감이던 하도감 터가 예상보다 온전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문화재청은 조사 경과에 대해 보도하였으며, 발굴과 관련된 언론의 보도가 계속되었다.<sup>153)</sup>



[그림 3-57] 운동장 부지의 조선시대 건물 터  
(출처 : 문화재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그림 3-58] 유구 이전과 관련한 DDP 설계 변경 전후 비교  
(출처: 서울시 보도자료)

결국 서울시는 문화재청과의 협의 하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물 부지에서 발굴된 유적들 2개소를 동대문디자인파크 쪽으로 이전하고, 1개소는 높이만을 달리하여 복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대문디자인파크’ 라는 명칭도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으로 변경되었으며 2009년 10월에 건물과 별도로 부분개장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기간 동안 관련된 이슈들이 등장하면서 신문기사의 빈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토론장에서 오고간 담론을 ‘역사’ 담론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 ① 토론장의 논의

전체적으로 DDP를 다루는 기사 수가 한 달에 5건 내외로 줄어들 무렵 운동장 터에서 서울성곽의 일부를 이루는 치성이 발굴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2008.12.17).

전체 둘레 약 17km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성곽에서 처음으로 방어용 부속 시설의 일종인 치성(雉城)이 확인됐다. …… 서울성곽은 일제강점기 동대문운동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없어진 것으로 추정됐지만 최고 잔존높이 4.1m(내벽 기준)에 바닥 폭 8~9m에 이르는 규모로 남아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 성벽 중간에는 성벽 바깥으로 돌출해서 만든 방어 시설물 일종인 치성이 드러났다. 치성은 평면 방형이며 규모는 남북 10.2m에 동서 8.3m에 이른다.<sup>154)</sup>

152) 유석재, “옛 동대문 야구장에서 조선시대 유적 나와 17~18세기 건물 흔적,” 조선일보, 2008.05.19, A22면

153) 문화재청 보도자료,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건립부지내 지도위원회,” 문화재청, 2008.09.10

154) 한승주, “서울성곽서 치성(방어용 시설) 첫 확인,” 국민일보, 2008.12.18, 9면

###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물론 치성의 존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고, 2008년 여름부터 옛 유구들은 지속적으로 발견되며 간간이 보도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대부분의 신문에서 치성 발굴 기사를 보도하면서 사업 부지를 가로지르는 서울성곽의 존재가 부각되고, 역사담론이 편입된 DDP 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실계변경작업이 진행된 후,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라는 명칭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으로 분리 개명되었다는 기사들이 보도되었다(2009.06.18).

서울시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에 당초 녹지·편의시설 위주의 공원을 조성하려던 계획을 변경, 역사문화공원(조감도)으로 조성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동대문운동장을 헐어낸 자리에서 서울성곽과 옛날 토목건축 구조와 양식을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유구(遺構)가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 또 야외 유구전시장에는 하도감터를 비롯한 발굴과정에서 드러난 조선 전후기 건물터, 우물터 등 44기의 유구가 이전 전시된다. …… 시는 이와 함께 휴게 공간을 갖춘 이벤트홀과 동대문운동장의 역사를 보여주는 운동장기념관 등의 시설물도 건립해 역사문화공원을 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sup>155)</sup>

기사들에서는 역사문화공원으로 발굴된 유구들이 이전 복원된다는 것과 운동장기념관이 들어선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역사문화공원으로 이름을 바꾼 것은 문화유산이 D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는데 디자인만 강조한 이름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내부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sup>156)</sup>

그로부터 4개월 뒤, 예정대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이 개장되었다는 기사들이 보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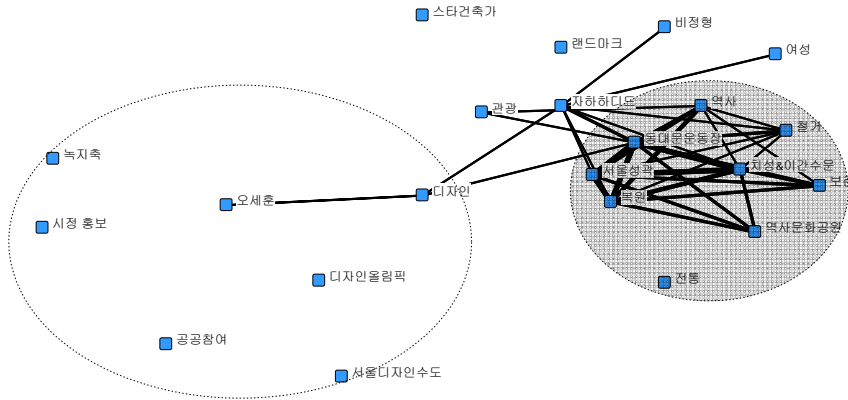
서울시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8만 5 320㎡)와 공원(3만 7398㎡)으로 구성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조감도) 가운데 공사를 완료한 1만 9597㎡를 27일 우선 개장한다. …… 성곽이 발굴된 142m는 그대로 복원하고, 성곽이 멸실된 123m 구간은 지적도에 있는 추정 성곽선을 통해 흔적만 표시해 뒀다. 복원된 142m 구간엔 도성 안쪽에서 바깥 쪽으로 물을 빼기 위해 만든 ‘이간수문’ 과 방어시설인 ‘치성’ 1곳이 포함됐으며, 태조와 세종, 숙종 이후까지 시대별 축성기법이 반영됐다. …… 야외에 있는 유구전시장에는 훈련도감의 분영 자리인 ‘하도감터’ 를 비롯해 발굴 과정에서 발견된 우물터·건물터 등 조선시대의 토목건축의 구조와 양식을 파악하는 실마리가 되는 자취인 유구가 전시됐다. …… 디자인갤러리와 이벤트홀에서는 다채로운 디자인 작품이 전시되고 각종 체험 프로그램이 열린다.<sup>157)</sup>

전체 성곽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142m 구간과, 그 일부분인 이간수문과 치성이 복원되었다. 또한 건물 부지의 유구를 공원 부지로 이전하여 복원하였으며, 동대문운동장 기념관, 유구를 전시한 동대문 역사관, 그리고 각종 전시가 열리는 디자인 갤러리 및 이벤트 홀의 3동의 건물이 공원 부지에서 개관하였다.

155) 이태무, “동대문운동장 아래 묻혔던 역사 ‘부활’ .” 한국일보, 2009.06.19, 15면

156) 변희원, “문화재 잇따라 발굴…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改名추진.” 조선일보, 2009.06.25

157) 이은주, “동대문역사문화공원 27일 부분 개장,” 서울신문, 2009.10.27, 27면



[그림 3-59] 2008.12~2009.10 까지 전체 신문기사에 등장한 키워드들의 공동참여연결망 ( links ≥ 8 )

해당기간의 121개 기사를 대상으로 8개 이상의 연결선으로 맺어지는 키워드들의 공동참여연결망을 보면(그림3-59), ‘서울성곽, 치성&이간수문, 복원, 보존, 역사 문화공원, 동대문운동장, 철거’ 등의 키워드들이 강한 연결고리를 이룬 채 중심에 존재함을 볼 수 있다(진하게 강조한 부분). 연결망에 존재하나 연결되지 않은 키워드들은 6~7개의 연결선을 가지는 관계망이다. 디자인올림픽을 비롯한 서울시 디자인 정책이 지속적으로 홍보되어 전체적으로 꾸준히 등장하기 때문에 지난 구간에 이어 이번에도 키워드들의 그룹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실제 기사를 살펴보면, 이것은 동대문운동장 부지가 전시 공간으로 쓰이거나 자하하디드의 디자인 작품이 디자인올림픽의 전시 콘텐츠에 포함되어 다루어진 것으로 DDP 건물 자체와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sup>158)</sup>

그림 상에서 중심담론의 상부에 형성된 ‘자하하디드, 랜드마크, 비정형, 스타건축가’ 등이 8개 이상의 연결선을 가지는 것은 DDP 착공관련 기사와 이 기간에 방한한 자하하디드를 다룬 기사 때문이다.

건물(디자인 플라자)이 공원과 자연스레 이어지며 물결 치는 형태의 작품으로, 공원에 조선시대 서울성곽 모양을 남겨 전통의 맛도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디드는 "동양에선 '지형'을 중시하며 공간을 이용하므로 건물과 공원이 함께 주변 지형에 녹아들어 갈 수 있도록 만들려고 고민했다"고 말했다. …… 그는 …… "발굴된 역사 유적을 건물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건물 일부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작품의 배경을 설명했다.<sup>159)</sup>

158) “세계건축디자인 초대전'에선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한식을 위해 만든 반상기와 천의영 올림픽 총감독이 플라스틱 컵 1만개로 만든 재활용 조명을 놓치지 말 것.” 김미리, “잠실은 지금 '서울디자인올림픽',” 조선일보, 2009.10.16, A2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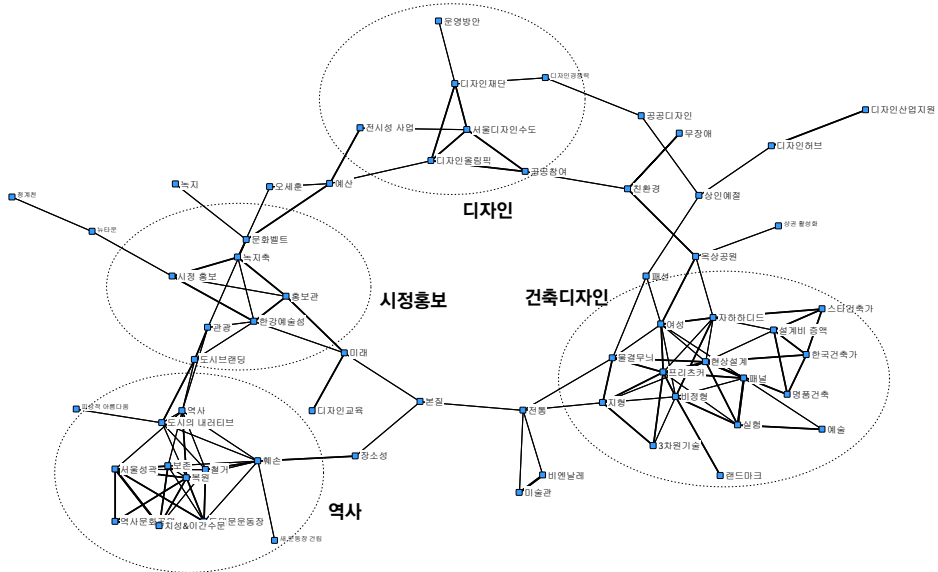
159) 김진명, “디자인 서울 건설의 주역\_동대문 디자인플라자&파크 설계자 자하 하디드,” 조선일보, 2009.04.29, A27면

###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주로 여행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하디드는 "특히 한국의 고궁(古宮)은 매우 흥미롭다"고 말했다. 그는 "궁의 선은 무한히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을 주면서도 모던하다"면서 "약간 어긋난 듯 열린 문은 어떤 기운이 들어오고 나가는 듯하다"고 표현했다. 최근 하디드의 작품에는 영속적이면서도 유기적인 곡선이 많이 등장하는데, 한국의 궁에서 발견되는 유려한 곡선과 맥락이 닮아 보였다.<sup>160)</sup>

즉, 건축 담론은 자하하디드라는 개인을 매개로 디자인과 역사 담론에 연결되어 있으며, 건물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중심 담론과 별다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물론 하디드의 인터뷰에서 '역사 유적을 건물과 유기적으로 연계' 하겠다는 언급은 있으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된 바 없었다.

이 때의 기사들이 DDP에 관한 담론에 영향을 끼친 부분은, 바로 '역사'와 '건축디자인'을 분리시켰다는 점이다. 전체 부지를 통합적으로 일컫던 '플라자&파크'라는 명칭이 분리되고 실제로도 공정을 분할하여 역사문화공원 부분만 우선 개장하였다. 이것은 전체 건물이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볼 때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부분이 '역사'와 관련이 적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 되어버린 것이다. 실제로 역사문화공원에서 설계변경을 거쳐 많은 유구들을 복원하여 전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괄하는 계획안



[그림 3-60] 2008.12~2009.10 까지 전체 신문기사에 등장한 키워드들의 유사성연결망 ( r ≥ 0.3 )

160) 손정미, "한국에 온 세계적 건축가 자하 하디드 " 살아있는 곡선으로 새로운 우주 창조 ", 조선일보, 2009.05.05, A16면

인 DDP는 그와는 분리된 채 역사라는 개념과 대립되는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다.<sup>161)</sup>

이것은 해당 기간 키워드들의 유사성 분석을 통해 뚜렷하게 드러난다(그림3-60). 건축디자인에 대한 담론은 역사담론과 반대편 먼 곳에 놓이며, ‘서울시 공공디자인사업’과 ‘시정홍보’의 연관관계를 거치거나 ‘본질, 전통, 장소성’과 같은 약한 연결고리를 거쳐야만 역사담론과 연결된다.<sup>162)</sup> 역사 담론과 건축디자인에 대한 담론 간의 연결고리를 볼 수 있는 기사는 전체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

서울 도심에서 가장 크고 생생한 도시 생활사 유적의 상당 부분을 훼손할 것이 분명한 자하 하디드의 디자인 플라자 설계 콘셉트나 축선을 대폭 수정하거나, 아예 백지화하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 학계와 문화재 시민단체 등은 △유적 중심 공원으로의 성격 전환 △디자인 공원안 설계 전면 변경 등의 강경론을 내놓기 시작했다. 성벽 주위 보존만을 전제로 하디드 설계안을 밀어붙였던 서울시 쪽은 서울시청사 기슭철거 때처럼 문화재 학계와의 대립 구도가 재연될까봐 고심하는 눈치다. ……반면 문화재 학계에선 유적 보존 상태가 양호한데다 고종이 갑신정변 때 피난했던 하도감 등의 역사적 상징성이 커 적극적인 보존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 일단 문화재위원회는 27·28일 매장문화재 분과, 사적분과 회의를 열어 드러난 성벽, 이간수문의 보존 방안부터 협의할 예정이다. 사적이 될 성벽 보존 원칙에는 서울시도 동의한 상태다.<sup>163)</sup>

서울시가 동대문운동장을 헐어버린 자리에서 발견된 유구를 새로 조성하는 역사문화공원에 옮겨 보존·전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황영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은 “유구와 유적은 원래 자리에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인데, 유구를 옮겨 전시하는 것은 역사를 훼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 양윤식 한얼문화유산연구원장은 “일본 오사카에 있는 엔에이치케이(NHK) 건물 지하에는 천년 전 배수로 유적을 그대로 보존해 놓았다”며 “시골집을 뜯어 서울로 옮기면 그건 더이상 시골집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이에 대해 서병룡 서울시 동대문디자인파크 사업지원팀장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지하에 유구를 보존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설계상 건물 벽이 유구 가운데 들어서게 돼 있었다”며 “문화재청과 함께 검토한 결과, 유구를 흙으로 덮어 보존하는 것보다 다른 곳으로 옮겨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sup>164)</sup>

디자인 행정을 이유로 국내 최초의 근대 체육시설인 동대문운동장도 철거됐다. …… 김민수 서울대 디자인학부 교수는 “동대문운동장은 철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며 “외국 작가의 작품이 엉뚱하게 동대문운동장 자리에 놓임으로써 서울의 흔적은 사라지고 국적 불명의 장소가 됐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디자인 행정은 도시의 정체성·역사성·상징성 등이 도시계획 전반에 걸쳐 구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sup>165)</sup>

예로 든 기사들에서 알 수 있듯이 모두 복원되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의견들이다. 물론, 두 키워드 그룹 사이를 이어주는 긍정적인 분위기의 기사들도 있다.

161) ‘피크 3’ 분석 과정에서 언급되는 트위터 분석을 참고하여 알 수 있다.

162) 그러나 동시에 이 세 개 키워드들이 만들어내는 약한 연결고리는 DDP의 건축디자인 담론이 역사 담론과 긴밀하게 엮일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결고리에 대해서는 3.2.3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163) 노형석, “‘운동장 밑 조선유적을 지켜라’,” 한겨레, 2008.11.27, 17면

164) 송채경화, 김경옥, “서울시, 동대문운동장 터에 역사문화공원 조성 / 집터·가마터 등 옮겨 보존 ‘역사훼손’ 논란,” 한겨레, 2009.06.19, 12면

165) 심혜리, “〈디자인 행정, 왜 이래!〉 (3)역사·문화자원 파괴,” 경향신문, 2009.10.17, 13면

###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유물이 나왔을 때 누구보다 반가워한 건 하디드였다고 한다. 지난해 6~7월 유물과 유구가 대량으로 나왔다는 소식을 접한 그녀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고, 건물에 역사성을 입힐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 하디드는 역사문화공원을 만든다는 서울시 계획을 듣고서 공원과 건물 일부의 설계를 변경하는 데 동의했으며, ……시는 "이왕 유물과 유구가 나왔으니 이를 DDP에 접목시켜 잘 활용하자"는 방침이다. 한규상 DDP 담당관은 "유물과 유적이 발견되면서 DDP에 스토리가 생겨 오히려 랜드마크 역할을 확고히 하게 됐다"고 말했다.<sup>166)</sup>

그(자하하디드)는 "동대문프로젝트에서도 건물을 매우 유니크하게 만들지만 주변 지형과 어울리도록 할 생각"이라며 주변과의 조화를 통해 새로운 우주를 창조해낼 것이라고 말했다.<sup>167)</sup>

이러한 기사들 역시 두 그룹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기사에서 언급된 ‘건물에 역사성을 입히는 것’, ‘주변지형과 어울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언급되지 않는다. 만약 구체적인 묘사가 많이 있었다면 각 그룹에 해당 키워드들이 등장하고, 그 키워드들간의 연결선들이 나타났을 것이다. 시애틀공공도서관의 유사성연결망에서 다른 그룹들 사이에 여러 갈래의 연결선이 있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DDP의 유사성연결망에서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구체성의 부족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사성연결망으로는 ‘역사’에 대한 키워드와 ‘건축디자인’에 대한 키워드의 두 그룹이 연결되었다는 것만을 알 수 있으며, 실제 어떠한 서술을 통해 연결되었는지는 파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다량의 기사를 분석할 때, 유사성연결망을 통해 그룹 간의 연관성을 살펴볼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실제 기사의 샘플을 통해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 ② 작업장의 전개

‘역사’ 담론에 관한 안전, 즉 서울성곽에 대한 내용은 설계 지침에도 복원을 위해 설계불가능영역으로 명시된 바 있었다.<sup>168)</sup> 자하하디드의 당선안도 물론 이를 준수하였다. 그러나 복원해야 할 성곽 모습에 대한 정보는 사전에 완벽히 갖추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치성과 이간수문의 발굴과 함께 결정되어야 했으므로 설계안과의 조율이 지속적으로 필요했다. 그리고 터파기 과정에서 발굴된 하도감 터 등 조선시대의 유구들이 예상보다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결국 해당부분을 반영한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 2008년 12월에서 2009년 5월로 설계 종료일이 연기되었다.

166) 변희원, 2009.06.25, A35면, op.cit.

167) 손정미, 2009.05.05, A16면, op.c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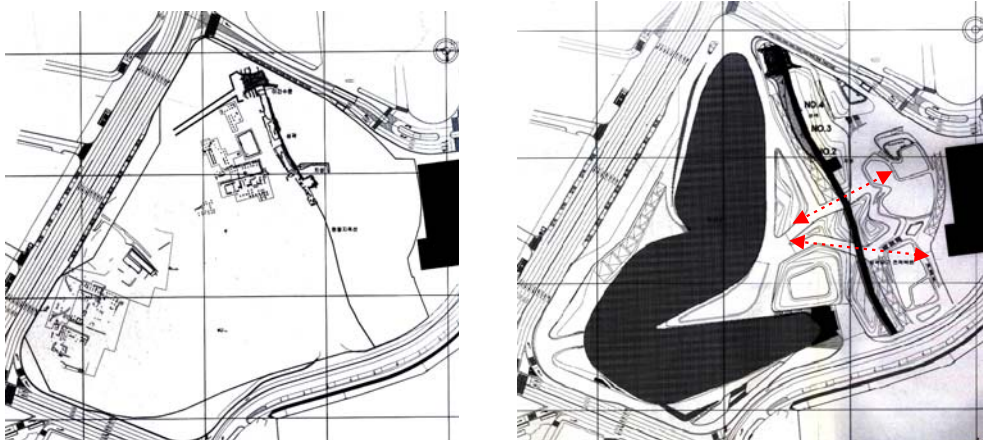
168) 3.2.1장의 [그림 3-39]를 참고한다.

[표 3-19] 두 번째 피크 구간의 설계과정에서의 협의 및 자문회의 관련 문건

문서작성일	문서 제목	문서번호
2008.08.06	기본설계 자문회의 자문결과 및 실시설계 착수 통보	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5523
2008.08.06	DDP 기본설계 설계 자문 결과 보고	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5528
2008.08.	제38차 서울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결과통보	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6048
2008.08.18	DDP 기본설계(DD) 최종 프레젠테이션 공간계획 검토의견 송부	WDC담당관-2989
2008.09.25	제47차 서울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결과통보	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6785
2008.11.19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조성부지발굴조사서울성곽보존관련자문위원회의결과보고및조사단의견서제출건	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8219
2008.12.28	DDP 실시설계(CD) 도면 검토의견 송부	WDC담당관-5619
2009.03.02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건설공사공원부분재설계(안)보고및자문회의결과보고	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2076
2009.06	DDP 설계도서 검토서 통보	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6083

\* 출처 :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청구 자료(www.open.go.kr)

두 번째 피크 구간 동안 생산주체 사이에 오고 간 문서들 중 일부는 위의 표와 같다. ‘역사’에 대한 문제는 첫 번째 피크구간부터 꾸준히 거론되었다. 2008년 3월에도 성곽부분의 관련자료를 확보하여 복원계획을 수립할 것과 이와 관련한 조경설계에 대한 대안제시가 요구되었다.<sup>169)</sup> 부지 안에서의 성곽은 전체가 연결되어야 할 것, 주변 지형에 맞게 높이가 일부 조절될 수도 있다는 점, 조선시대에도 여러차례 변형된 성곽의 모습 중 어떤 시기를 택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의 자문도 이루어졌다.<sup>17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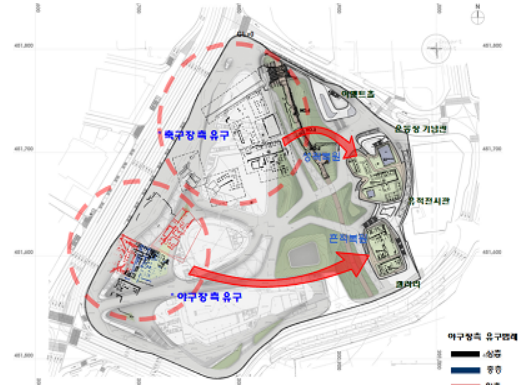
[그림 3-61] 출토된 유구 위치(좌)와 성곽복원계획 및 건물(우)  
(출처 : 서울특별시, 「서울성곽정비 복원공사」)

169) [표 3-18]에서 문서번호 [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1326] 참고

170) [표 3-18]에서 문서번호 [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2017] 참고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그 후 [그림 3-6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건물 부지에서 하도감 터 등 옛 조선의 유구들이 발굴되었다. 이에 따라 토론장의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문제들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 설계 변경 과정에서 성곽 및 수문을 통한 공원과 본 건물의 동선 연계, 문화재유구를 반영한 흥미로운 설계의 가능성 등이 제안되기도 했다. 결국 총 발견된 3개소의 건물 터 중 2개소는 공원 부지로 이전하고(그림 3-62) 1개소는 기존 설계안을 크게 변경시키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수직 위치만 변경하여 복원하였다(그림 3-63, 그림 3-64).<sup>171)</sup>



[그림 3-62] 야구장과 축구장 부지에서 발굴된 하도감 터 등의 이전 방안 (출처: 서울시 보도자료)



[그림 3-63] DDP 지하 2층 (설계변경 이전)  
(출처 : ddp.seoul.go.kr)



[그림 3-64] DDP 지하 2층에 위치한 유구전시장(변경 이후)  
(출처 : ddp.seoul.go.kr)

성곽의 복원 문제는 건물 부분과 크게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문화재 위원들로부터의 여러 차례 자문을 거쳐 복원 방안이 결정되었다. 2008년 8월의 내부 보고에서 언급된 자문위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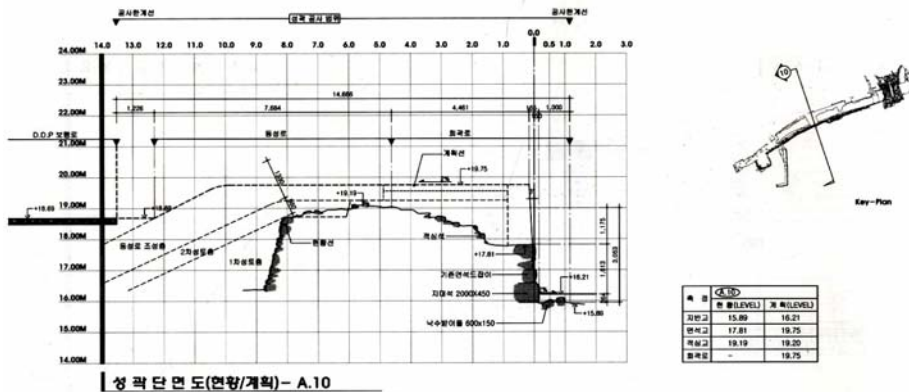
- 1) 성곽 복원 안은 2안(통로가 있되, 여장을 연결한 안)이 적절
- 2) 성벽을 중심으로 성벽 내외 10m에 순심로(회곽로)를 조성
- 3) 성곽 안쪽 조경시 꽃나무 식재 최소화<sup>172)</sup>

171) [표 3-19]의 [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2076] 참고

172) [표 3-19]의 [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5528] 참고



본격적인 성곽 복원 공사는 2009년 4월 2일에 시작하여 2009년 9월 6일에 종료되었다. 성곽복원 공사에는 수리공사, 성벽공사, 이간수문공사, 치성공사, 흔적부공사가 포함되었다.



[그림 3-65] 성곽복원계획도 중 일부  
(출처 : 서울특별시, 「서울성곽정비 복원공사」)

한편, 이 시기에는 건물의 설계가 종료되고 착공(2009.05)에 들어갔던 시기였으므로 작업장에서는 설계의 완성도를 높이는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었다. 계속되는 자문 회의에서 건물 서남쪽 부지의 공공공간에 대한 접근성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sup>173)</sup> 실시설계가 진행되는 시기에는 주로 내부 마감, 디테일, 데드스페이스의 활용, 계단실의 안전 여부 등 건물의 큰 틀에 대한 언급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언급이 발주처와 자하하디드 사이에 오고 갔다.<sup>174)</sup>

두 번째 피크 구간에서는 토론장과 작업장이 비교적 가까운 관계 속에서 진행되었다. 물론, 발굴된 유구 이전을 결정하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직접적인 원인이 토론장에서 나온 담론이라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해당 기간 동안 작업장에서 발생한 일들이 신문을 통해 다루어졌으며 이러한 미디어의 보도가 만들어낸 여론이 작업장 주체들의 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토론장의 논의와 작업장의 결정이 유사한 경과를 보인다는 점은, ‘역사’ 라는 가치에 대한 상식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173) [표 3-19]의 [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5523] 참고

174) [표 3-19]의 [WDC담당관-5619] 참고

#### (4) 피크 3 : ‘토건-복지’ (2011.03~2012.02)

세 번째로 기사의 빈도수가 증가한 구간은 2011년 3월부터 2012년 2월에 걸쳐 나타났다. 이 구간에 이슈가 되었던 문제는 DDP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서울시 예산의 쓰임새에 대한 것이었다. 폭우에 의한 수해와 무상급식이 차례로 도마 위에 오르면서 서울시의 방재 예산과 복지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비교의 대상으로서 DDP를 비롯한 과도한 토건 사업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토론장에서 오고간 담론을 ‘토건-복지’ 담론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 ① 토론장의 논의 : 신문기사

2011년 7월에 서울에 기록적 폭우가 내리자, 수해 방지 예산의 부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서울시의 토건사업 지출이 과다하다는 점과 연결되었다.

이번에 서울에 쏟아진 비는 시간당 최대 113mm에 이르렀다. 104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작년 폭우에 놀란 서울시가 세운 하수관거 용량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그렇다면 우리도 여기에 맞춰 대비해야 한다.…… ‘하수관거 통수능력 부족’이 이유였다.……문제는 돈이다. 서울만 해도 1만km에 이르는 하수관거를 다 넓혀야 이 기준에 맞출 수 있다. ……서울시는 도시 외관을 단장하는 ‘디자인 서울’에 매년 1000억원을 써왔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같은 번듯한 건물을 짓는 데 400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sup>175)</sup>

서울시가 폭우로 물바다가 되자 ‘오세훈 책임론’ 이 끊어오르고 있다. 지난해 추석에 발생한 침수 피해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적절한 수방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한강 르네상스,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등 보여주기식 사업에만 치중해왔다는 비판이다.<sup>176)</sup>

그리고 2010년부터 정치적 쟁점이 되었던 ‘무상급식’ 이슈가 주민 투표라는 이벤트로 이어지면서 각종 신문의 1면을 장식해가고, 이 과정에서 예산의 불균형 문제가 연일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된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일부 핵심 사업안을 부결시켰음에도 시는 이를 계속 추진하겠다고며 맞받는 등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양측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오 시장은 “한강예술섬은 완공되면 40년간 7조3961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4만6000여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는 미래투자형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서해벚길 사업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립 공사 등 핵심사업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sup>177)</sup>

175) 이위재, “[기자수첩] 서울 폭우 받아낼 시설 만드는데 10兆… 세금은 이런 데 써야,” 조선일보, 2011.07.30, A4면

176) 엄지원, “중부권 물폭탄/ ‘디자인 서울’ 오세훈 시장 책임론 “우리가 동등 떠내려가게 생겼다”,” 한겨레, 2011.07.29, 03면

177) 김경택, ““시의회 반대해도 행복타운 등 계속 추진” 오세훈 시장 밝혀,” 국민일보, 2010.12.22, 10면

그런데 서울시는 700억원밖에(?) 안 되는 무상급식 예산 배정에 대해서는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태도를 절대 굽히지 않으면서, ……남산공원 재정비 사업에 316억원, 한강 예술섬 조성 사업에 243억원, 동대문 디자인플라자&파크 건립에 701억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들 사업이 필요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서민을 위하고 복지를 위한 예산이 우선적으로 배정되어야 하는 게 상식 아닌가? 구체적으로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가 2009년 21만720명에서 22만1852명으로 늘어났는데도 해당 예산은 오히려 2009년 5292억원에서 2010년에 4759억원으로 533억원을 줄인 데서 볼 수 있듯이 정작 필요한 곳에는 세금이 쓰이지 않고 있다.<sup>178)</sup>

각종 언론에서 오고 간 논의 상에서 한강예술섬, 서해 뱃길 사업, 남산 공원 재정비 사업등과 함께 DDP가 대표적인 토건사업으로 거론되었다.

결국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주민투표 무산으로 오세훈은 공언했던 것처럼 시장직을 내놓게 되었다.<sup>179)</sup> 이에 따라 보궐선거가 진행되면서 담론은 단순히 토건 사업과 복지 사업이라는 대립구도를 넘어서서 진보와 보수라는 거대 담론과 연관된다. 당시 보궐 선거에서 대표적 보수정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나경원 후보는 오세훈의 토건사업에 대한 가치를 부분적으로 인정했으며, 야권 단일후보였던 박원순은 토건사업을 비판하면서 복지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이다.

나 후보는 “이제 서울시의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갖춰졌기에 앞으로는 생활 시정으로 가야 하지만 (이명박, 오세훈 두 전임시장의) 모든 행정을 전시성 콘크리트 행정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서울을 10년 전과 비교하면 국제적 위상이 달라진 것을 박 후보도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후보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등에 많은 돈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종로2가 피맛골을 철거하지 않고 놔두는 게 서울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라며 “역사의 기억과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고향 같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경쟁력 강화의 길”이라고 밝혔다.<sup>180)</sup>

그리고 그 과정에서 DDP와 같은 서울시의 대형 토건사업은 복지문제를 소홀히 하고 개발에만 치중한 정치노선에 기반을 둔 사업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이 단체는 “서울시 재정운용을 대규모 토건사업에 집중하다 보니, 사회복지예산을 보여주지식,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방식으로 사용해 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02~2006년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뉴타운 사업 등으로 서울을 ‘공사판’으로 만들었고, 시장직을 이어받은 오세훈 전 시장은 한강까지 공사판을 키웠다. 오 전 시장은 2006년 취임 이후 5년간 한강르네상스, 광화문광장 단장, 동대문디자인파크플라자 조성 등에 1조353억원을 투입했다.<sup>181)</sup>

따라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진보적’인 박원순 시장은 DDP의 프로그램을 변경

178) 민진우, “왜냐면/영똥한 데 쓰이는 우리들의 세금,” 한겨레, 2011.04.30, 25면

179)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8월 24일 이루어지는 무상급식 투표가 33.3%에 미달하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오세훈 시장 “주민 투표율 33.3% 미달하면 시장직 사퇴”, ” 경향신문, 2011.08.21

180) 김종철,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 나경원 “서울 브랜드 가치 더욱 높여야” 박원순 “한강사업 투자비 시민에 써야”, ” 한겨레, 2011.10.12, 06면

181) 권혁철, “[서울시 이렇게 바꾸자] ① 토건에서 복지로/ 청계천·한강 번지르르해질 동안… 노인시설 확장실은 돈없어 못고쳐,” 한겨레, 2011.10.14, 0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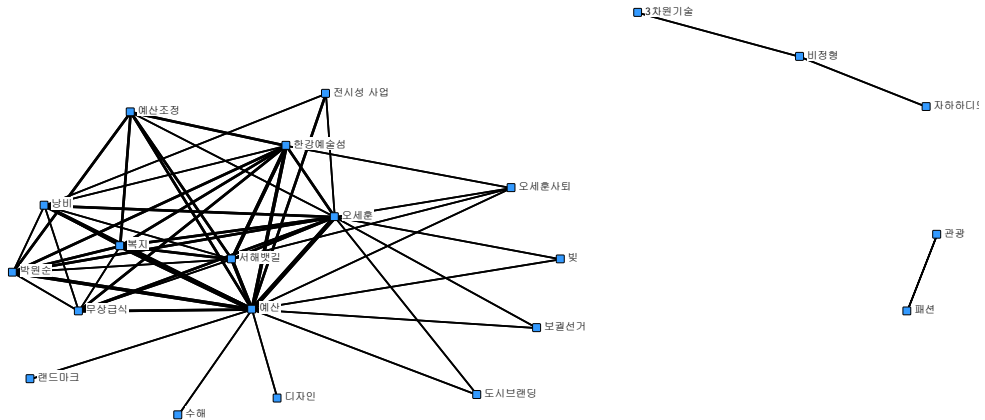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하고 공사에 할당된 당해연도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이에 따라 DDP의 완공 일정이 늦추어지기에 이른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은 올해보다 5.9%(1조2123억원) 늘어난 21조7973억원으로 편성됐다. 복지 분야는 실질 예산(19조8920억원)의 26%에 해당하는 5조1646억원으로, 올해보다 6045억원이 늘어났다. 서울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서울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5년간 지속된 전시성 토건 중심의 시정 패러다임을 사람중심, 복지중심으로 바꾸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강르네상스 사업 등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대표 사업들은 유보됐다. 오 전 시장이 추진하던 한강예술섬·서해벚길 사업, 노인복지시설인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사업도 예산을 받지 못했다. 상암동 DMC의 IT복합plex,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사업은 내년 예정이었던 준공 시기를 2013년으로 늦추기로 했다.<sup>182)</sup>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신의 공약을 서울시 예산안에 대부분 반영함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시의 복지 사업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했던 대규모 토건 사업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 이미 2,000억원 넘는 재원이 투입돼 60%정도 공사가 진행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사업에는 72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당초 내년에 1,500억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예산을 줄여 사업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sup>183)</sup>

이와 같이 토론장에서 벌어진 일련의 ‘토건-복지’ 담론 속에서, DDP는 구체적인 디자인이 언급되는 대상이 아니라, ‘지나친 공사비’ 를 지출하게 만든 ‘사업 전체’ 로서 다루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연결망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66] 2011.03~2012.02 까지 전체 신문기사에 등장한 키워드들의 공동참여연결망 ( links ≥ 5 )

5개 이상의 연결선으로 이루어진 연결망을 보면 ‘예산, 복지, 예산조정, 낭비’ 와 같은 주요 쟁점들과, 관련 주체들인 ‘박원순, 오세훈’, 그리고 전시성 사업의 예로

182) 한경진, “복지 예산(전체 26% 차지)은 6000억원 증가… 한 명당 세금은 122만원,” 조선일보, 2011.11.11, A16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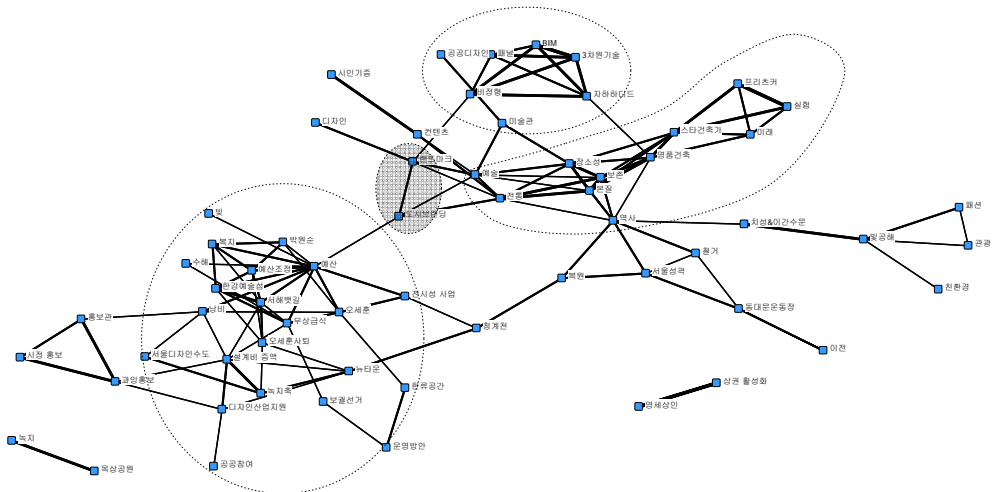
183) 류호성, “서울시 2012 예산 복지부문 대폭 확충/ 오세훈 사업 보류… 보육·주거 등 중점,” 한국일보, 2011.11.11, 08면

서 ‘한강예술섬, 서해벚길’ 등의 사업들이 주요 담론의 키워드로 드러나고 있다.<sup>184)</sup>

또한 그림 오른쪽 상단에 ‘3차원기술, 비정형, 자하하디드’와 같은 건축디자인에 대한 키워드가 연결망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토건-복지’에 관한 담론과의 연결고리는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2011년 3월 23일에 배포된 서울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기사가 3~4월에 걸쳐 여러 언론사에서 보도된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해당 기사들은 BIM을 부각시킨 기술적 성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DDP는……비정형의 건물이다. 이런 독특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비밀은 ‘3D 입체설계 기법’인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때문이다.……BIM은 일반적인 3D 입체설계와 달리, 각 재료의 규격과 자재사양 등의 각종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즉 건설비용이 예측 가능하다는 것. ……DDP 운영 주체인 서울디자인재단의 건축지원과 박진배 과장은 “BIM 기법을 도입하면 평면적 검증이 곤란한 부위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또한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면서 “자하 하디드의 디자인 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 기법을 통해 시공 품질이 좋아졌고, 공사기간을 맞출 수 있어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sup>185)</sup>

실제로는 비정형 디자인이 공사비증가의 주요 원인이었지만, 관련 기사들은 3~4월 이후에는 보도되지 않았다.<sup>186)</sup> 그리고 8월 이후에 불거져 나온 예산관련 담론들은 DDP를 ‘4000억원의 건물’이라는 전체로서만 다루었다.



[그림 3-67] 2011.03~2012.02까지 전체 신문기사에 등장한 키워드들의 유사성 ( $r \geq 0.3$ )

184) DDP는 모든 기사에 한 번씩 키워드로 등장하게 되므로, 키워드를 조사한 자료에는 생략하였다. 예산과 관련된 이 담론에서는 전시성 사업의 예로서 DDP가 연결되어 있다.

185) “[경제]동대문디자인플라자 3D 입체설계,” 경향신문, 2011.04.19, 55면

186) “실계공모 당시 2000억원대였던 공사비도 현재 3000억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독특한 디자인과 소재 탓에 입체(3D) 설계·시공 등이 불가피해서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곽수근, “다시 태어날 동대문운동장… 성곽 일부도 복원,” 조선일보, 2007.12.31, A15면

이것은 위의 유사성 분석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두 가지 담론을 연결하는 고리는 ‘랜드마크-도시브랜딩-예산’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그림에서 진하게 강조한 부분). 이러한 연결고리는 다음과 같은 기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디자인 서울’을 표방하면서 디자인을 서울의 특징으로 만들어 나가려 했다. 하지만 실제 사람들의 삶보다는 걸치장에 몰두하며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디자인보다 ‘사람들의 삶’을 바꾸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 서울은 압축적인 근대화를 거치면서 전통과의 단절을 겪고 개성 없는 도시로 전락해 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라이크만 교수는 “도시를 꾸미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을 보존하느냐의 문제”라며 …… 서울도 오세훈 전 시장이 현재 건설 중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서울의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 의지를 갖고 노력했다. 라이크만 교수는 “눈에 띄고 더 크게 잘 만드는 것에만 신경을 쓰면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애정이나 정성이 사라진다”며 ……라이크만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채워 넣는 데 있어서 1987년 6월항쟁의 역사도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sup>187)</sup>

기사의 내용을 보면 유사성연결망에서 드러난 ‘장소성, 보존, 본질’ 등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그리고 장소성에 대한 내용은 예산에 대한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기술에 대한 비용’ 문제가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고서는 건축디자인은 예산에 관한 담론과 연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 ② 토론장의 논의 : 트위터

‘트위터(Twitter)’는 국내에서는 2010년 초중반부터 본격적으로 가입자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sup>188)</sup> 이 시기는 DDP의 착공 이후에 해당하기 때문에, 디자인기간(2008년 전후)의 대중반응은 알아내기 힘들지만, 2010년 이후 DDP에 대해 사람들이 어떠한 주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지 알아볼 수 있다. 특히 140자 이내의 단문메시지라는 점에서 생각이 간결하고 압축적으로 게시되기 때문에 분류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구글의 사이트 검색기능을 통해 ‘동대문 플라자’로 검색하여 트윗을 수집했다.<sup>189)</sup> 결과의 상당수가 동일 트윗을 ‘리트윗’한 것이었으며 파급력의 측면을 고

187) “미 컬럼비아대 미술사학과 교수 존 라이크만 “도시 디자인, 뭘 보존할까가 중요”, 경향신문, 2011.11.16, 04면

188) 트위터는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일종으로 140자 이내의 메시지를 기록할 수 있다. 메시지는 기존에 맺어진 ‘친구’들에게 자동으로 전송되지만, 친구 이외의 사람들도 접근하여 열람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스마트폰이 급속히 보급된 2010년 초중반부터 보편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주소는 <http://www.twitter.com>

189) 검색어는 ‘동대문 플라자 site:twitter.com’으로 하였으며 2012.03.16에 검색하였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DDP를 ‘동대문 플라자’라고 지칭하였으므로 검색어를 그와 같이 설정하였고, ‘동대문 플라자’로 검색하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라고 작성한 메시지도 결과에 포함된다.

려할 때 리트윗한 메시지도 별도의 한 건으로 간주하였다.<sup>190)</sup>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20] 트위터에서 생산된 개인의 DDP 관련 메시지 (~2012.03.16)

입장	분류	내 용	건 수
부정	사업비	서울시의 주요 전시성 사업 비용과 무상급식 비용을 대조하면서 비판	122
		우면산 관리비용 삭감과 DDP 공사비용 상승을 대조	11
		서울시 주요 정책과 무상급식 정책을 대조	3
	예산운용	DDP 설계비와 공사비가 당초보다 두배가량 상승되었음을 지적	15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한 서울시 빛의 원인 중 하나를 DDP로 지목	11
		기타 전시성 사업비용 비판	6
	인력투자	DDP 공사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디자인인력 투자비용을 지적	7
	서울시 정책	서울시의 토건사업 후 경제효과를 이룰 것이라는 것이 거짓이라 주장	4
		서울시 홍보관의 거창함을 비판	1
		역사	DDP와 역사 보존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봄
기타		기타 비판적 의견	4
공정	서울시 정책	도시브랜딩의 일환으로 DDP의 역할을 언급	4
	역사	DDP와 역사 보존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봄	2
기타	건축디자인	DDP에 대한 관련 전공자 입장의 관심	19
		DDP 공정 진행 관련 신문기사 리트윗	13
	시정 정보	서울디자인재단 등 관(官)에서 게시한 홍보성 트윗	26
		안상수의 디자인재단이사장 취임	4
		전시컨텐츠 수집 홍보	4
	관광의 대상	포스퀘어 등 '발도장' 관련 트윗 / 방문기념 사진	37
	기타	기타 다른 주제 트윗에 연관된 노출	15

\*. 검색은 www.google.com에서 검색어 '동대문 플라자 site:twitter.com' 으로 검색하였음

우선 검색된 트윗의 수가 총 321건으로 매우 적었다. 같은 검색방법으로 트윗을 수집했을 때, '무상급식'의 경우 59,100건, '오세훈'의 경우 65,700건, '서울성곽'의 경우 2,420건, '역사'와 같은 일반명사는 223,000건으로 검색되는 것을 보면, 321건이라는 것이 얼마나 작은 수치임을 가늠해 볼 수 있다.<sup>191)</sup>

전체적으로 DDP가 부정적인 대상으로 다루어진 트윗이 긍정적인 트윗보다 197건 대 6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즉, 전체 321건의 트윗 중 61%가 부정적인 트윗이며, 긍정적인 트윗은 2%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부정적 트윗 중 175건이 DDP의 사업비에 대한 것이고, 그 중의 122건은 무상급식이 쟁점으로 떠올랐을 때 작성된 2-3개의 유사한 트윗이다. 즉, DDP와 관련하여 전체의 38%(122건)가 유사한 내용

190) 리트윗이란 다른 사람의 트윗을 복사하여(원문 작성자의 아이디가 함께 표시된다)자신의 친구들에게 재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191) 여러 키워드를 구글(www.google.com)에서 검색어+'site:twitter.com'의 방식으로 검색하였다.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의 트윗이다. 122건에 포함된 트윗은 아래와 같다.

@twin0808 2011.08.02  
 나라재정 걱정에 무상급식 반대하는 오세훈. 서울시청사 건립에 3000억,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 4200억, 한강르네상스에 5400억,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비용에 180억. 4대강 사업엔 침묵.

@Phlebus1 2011.08.24<sup>192)</sup>  
 서해벚길2250억.서해벚길양화대교공사415억.동대문디자인플라자4200억.한강르네상스5400억.남산르네상스1800억.디자인서울870억.서울디자인올림픽834억.서울시홍보비500억.오세훈 시장된이후 서울시 빛 25조원.이자만 1조원

@mindgood 2011.07.27  
 서울시 신청사 건립 3천억,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4천200억, 한강르네상스 5천400억, 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비용 180억...그러나 비만 오면 물난리...이것이 오세훈의 생얼입니다.

표에서는 ‘사업비’ 부분을 세분하여 ‘토건-복지, 예산운용, 인력투자’ 로 구분하였고, 다른 분류로 ‘서울시 정책’ 이 있으나, 이것을 전 장에서 구분하였던 답론의 묶음으로 분류하면 크게 ‘토건-복지’ 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답론의 묶음으로 전체 트윗을 다시 분류하면 아래 표와 같다.<sup>193)</sup>

[표 3-21] 트위터에서 생산된 개인의 DDP 관련 메시지의 답론에 따른 분류 (~2012.03.16)

답론의 유형	토건-복지	역사	보존-개발	디자인 서울	건축디자인
건 수	184	15	0	0	19
비 율*	57.3%	4.7%	0	0	6.0%

\*. 비율은 전체 321건에 대하여 계산하였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토건-복지’ 에 대한 답론이 57.3%로 전체의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 즉, DDP과 관련한 트윗의 절반 이상이 DDP를 단순히 사업비의 차원으로 환원하여 다룬 것이다. 이것은 신문 기사를 통해서 분석해 낸 부분과 일치한다. 신문 기사에서도 DDP는 구체적인 디자인에 대한 접근 대상이 아니라, ‘과도한 공사비의 건물’ 이라는 전체로서 다루어졌고, 트위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드러났다.

역사 답론도 5%를 넘지 못하며, ‘건축디자인’ 은 그보다 약간 많지만 트윗 내용을 볼 때 전공자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중’ 답론이라고 보기 힘들다. 또한 모두 비전공자라고 할지라도, 국내에서 트위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DDP의 건축디자인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한 건수가 단 19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얼마나 건축디자인에 대한 대중 답론이 활성화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지표가 된다.

192) 해당 트윗에는 무상급식에 대한 언급은 직접적으로 없지만,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일에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트윗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193) ‘시정 정보’ 및 ‘관광의 대상’ 은 답론이라고 분류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표에서 제외하였다.



### ③ 작업장의 전개

이 기간은 DDP 착공 이후 공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디자인의 변경은 공사의 시공성에 관련된 것이 대다수였으며, ‘토건-복지’ 담론과도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토론장에서 주요한 비판의 대상이 된 ‘공사비’가 작업장에서 어떻게 언급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루어 보겠다.

공사비는 설계기간을 포함한 총 사업기간과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부터 설계기간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졌다.

우선, 내부의 시설프로그램이 확정된 상태에서 설계경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획설계 단계에서 시설 프로그램이 협의되어가면서 건물의 윤곽이 결정되었다.<sup>194)</sup> 그 과정에서 내부공간의 적절한 천장고 확보를 위해 건물 전체적인 층수가 변경되기도 했다.<sup>195)</sup> 이러한 일련의 조율과정에 따른 계획 설계 납품기한 연기 요청과 그에 대한 발주처의 대응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sup>196)</sup> 또한 이와는 별도로 설계 초기부터 공사기간이 너무 짧게 계획되어 있다는 지적이 이루어졌으며, 비정형 건물이므로 고도의 시공성이 요구되어 충분한 공사기간이 계획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sup>197)</sup>

또한, 공사 진행 관련 문건에서는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용역금액이 증가되거나, 공사가 진행되면서 부분적으로 비용이 증가하는 일이 다수 발견되었다.

[표 3-22] 2011년 중 공사비용 변경

문서작성일	변동 비용	변경 사유	문서번호
2011.04.18	약 17억 증가	7개월 공기 증가로 건설사업관리용역 변경	동대문디자인파크부-101026
2011.05.27	약 51억 증가	물가 인상, 설계보완 및 주변 환경정비로 건설공사 금액 변경	동대문디자인파크부-101860
2011.09.	약 2억 8천 증가	물가 변동으로 전기공사 금액 변경	동대문디자인파크부-103934
2011.10	약 12억 감소	주변 버스 주차장 변경에 따른 용벽 공사 변경	동대문디자인파크부-105101
2011.11	약 2억 증가	설계 보완 및 운영부서 요구사항 반영, 주변환경정비	동대문디자인파크부-105790
2011.12	약 92억 증가	공기연장(1년)에 따른 사업비 증가 (시공사 59.6억, 감리비 14.8억, 물가인상 17.8억)	동대문디자인파크부-106489

\* 출처 : 서울특별시, 인터넷 공개 자료(www.seoul.go.kr)

194) 서울시 정보공개 자료 중, [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1326], [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1659], [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2103] 참고

195) 2012.04.02 서울시청 DDP정책과 담당자 인터뷰

196) 서울시 정보공개 자료 중, [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1721] 참고

197) [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2103] 참고

###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2011년의 공사비 변동자료를 보면, 7개월 공기 증가로 공사비가 증가되거나, 공정별 재계약 시 물가인상 등으로 공사비가 변경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2011년 말 현재 총 사업비가 4,228억원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1% 안팎의 비용이므로 건설 기간 중에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로 보아야 한다.<sup>198)199)</sup>

그러나 2011년 12월에 발생한 92억의 공사비 변동은 1,521억원이었던 2012년 예산을 722억원으로 삭감하여 공기가 연장됨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이것은 복지를 강조하는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결단에 따른 것으로, 보궐선거 당선 후 토건사업의 1년 예산 분을 줄이면서 내부 콘텐츠를 변경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결정은 한 해 예산의 할당량을 줄이면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전체 사업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 (5) 내부 콘텐츠 변경

2011년 말에 ‘토건-복지’ 담론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서울 시장이 교체되었다.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원순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언급한대로 토건사업의 예산을 취소하거나 일부 삭감하였다. DDP 역시 2012년에 할당된 예산이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완공이 2013년으로 1년가량 늦추어졌다.

한편, 사업 과정에서 DDP의 콘텐츠 및 서울시의 유사한 사업들이 지나치게 디자인 위주로 구성되었다는 지적들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 디자인 혁명을 시도하고 있다. 이른바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다. 동대문운동장 자리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를 조성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 문제는 디자인 일변도의 탈바꿈(metamorphosis)이 과연 서울의 매력과 경쟁력을 높여주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엔센은 서울의 미래를 위한 제언에서 “서울의 모습이 아닌 서울의 이야기를 팔라” 고 주문했다.<sup>200)</sup>

2011년 말에 새로 서울 시장이 된 박원순 시장은 이러한 의견을 수용하는 한편, 전 시장인 오세훈 시장의 ‘디자인서울’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차원에서 DDP의 내부 시설 프로그램 또한 변경하려는 의사를 내비추었다.

그러나 ‘디자인 서울’ 사업과 대규모 공사에 비판적 입장인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뒤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운명이 바뀌고 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용도는 재검토하고, 공사는 늦춰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계자는 “박 시장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198) [동대문디자인파크부-105768] 참고

199) 자하하디드가 당선되었던 2007년 말 당시에는 총 사업비가 3,752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으므로 4년의 사업기간동안 총 476억원 증가한 것이다.(2007년 예산 대비 12.6% 증가) 산업지원과-10594 참고

200) 윤재석, “디자인보다 내러티브를,” 국민일보, 2010.04.01, 26면

건물 용도를 디자인에만 국한하지 말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디자인 위주에서 영역을 확장해 미술 조각 패션 한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시는 지난달 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1차 소장품 구입 공고, 전시시설 제작 및 설치 용역사업시행 입찰공고,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감리용역사업시행 입찰공고 등을 이달 들어 모두 취소했다.<sup>201)</sup>

그리고 그 과정으로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2012년 6월에 내부 시설 프로그램을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sup>202)</sup> 또한, 변화하는 콘텐츠에 대한 운영 준비를 감안하여 개관도 2014년 4월로 연기하였다. 콘텐츠 운영에 관련되었던 내부의 자문회의부터 공청회를 거친 콘텐츠 변경안에 대해서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다.

### ① 자문회의

DDP의 경우 사업기간동안 비정형의 독특한 외관 위주로 홍보가 이루어졌는데, 건물이 담는 콘텐츠 역시 중요하다는 점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토론장에서 내부 콘텐츠가 중심 주제로 부각된 적은 없었지만, 주변 상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다.<sup>203)</sup> 또한,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관련된 질문이 종종 등장하였고, 홈페이지의 FAQ 코너에서도 콘텐츠에 관련된 게시물이 가장 높은 비중의 조회수(13.6%)를 보여주고 있다.<sup>204)</sup>

또한 내부의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는 건축디자인보다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 수월한 주제로서 토론장에서 활발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주제이지만, 서울시 내부의 콘텐츠 담당부서가 별도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초기부터 내부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하였다.<sup>205)</sup><sup>206)</sup>

DDP의 콘텐츠 마련 및 운영준비는 자하하디드가 당선되고 계약이 진행되던 시기인 2007년 11월부터 시작되었다. 관련된 자문회의가 당시부터 2011년 5월까지 총 8회 열렸으며, 디자인 학계·산업계·단체·지원기관, 경영, 언론 등 외부 전문가 29명이 참여하였다. 회의에서 주로 다룬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 류호성,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복합 문화시설로 바뀐다,” 한국일보, 2011.11.24, 16면

202)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시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바뀐다,” 한국경제, 2012.06.27, 28면

203) 여기에 대한 것은 2012년 4월24일에 개최되었던 ‘정책워크숍’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어지는 내용 참고

204) 3.2.3장 참고

205) 서울시에서 DDP 사업에 관련된 부서는 총 2 곳으로 각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다. 하나는 동대문디자인파크부로 건설공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DDP정책팀(오세훈시장 재임 시절 초기에는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속, 2012년 현재는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디자인정책과 소속)으로 내부 콘텐츠를 담당하고 있다.

206) 2012.04.02 서울시청 DDP정책과 담당자 인터뷰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표 3-23] DDP 운영 준비사업 관련 자문회의 개최 결과

구분	개최일자	참석위원	회의 결과 (자문 내용)
1차	2007.11.05	총 27명 (외부 23명)	DDP운영에 대한 구체적 방향(컨셉) 및 정체성 확립 우선 필요 국제적 인상 심어주는 명칭 필요
2차	2007.11.22	총 25명 (외부 20명)	DDP는 디자인산업 활성화, 도심상권 개발, 문화관광 거점이 되어야 함 주차 관련 종합 대책 마련 및 주변에 국제회의를 위한 호텔 유치 필요
3차	2007.12.13	총 21명 (외부 17명)	ZahaHadid의 오리지널 설계 컨셉이 건물 내·외부에 잘 유지되어야 함 주변 부지 활용한 버스 주차장 마련 및 역사성·지역성 반영한 네이밍 필요
4차	2008.1.25	총 30명 (외부 25명)	DDP의 공간을 비우고 유명 디자이너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 운영주체 인력 최소화, 아웃 소싱 적극 활용, CEO타입 리더 선임 필요
5차	2008.4.22	총 20명 (외부 15명)	공공성과 재정자립성 동시 확보 위해 재단법인 형태의 운영주체 설립 필요 학구적 분위기 지양, 쉬운 콘텐츠 구성 필요, 패션 진흥콘텐츠 배려 필요
6차	2008.8.22	총 19명 (외부 14명)	큐레이터 시스템 채택하여 시설 활용의 양과 질 유연하게 조절 필요 세계적 비정형 외장패널 시스템 완성위해 정교한 공정의 성공적 개발 필요 DDP가 세계적인 것, 한국 디자인의 가치와 정체성 보이는 곳이 되어야 함
7차	2010.5.12	총 20명 (외부 13명)	디자인, 패션 외에도 건축, IT 등 이질적 디자인 교류의 장이 되어야 함 집단 지성 활용 콘텐츠 개발 필요, 주변부 경관 및 지구단위 계획 필요
8차	2011.5.25	총 27명 (외부 19명)	세계적 명물 되기 위해 건물 특성 기반의 스토리텔링 기법 적극 활용 필요 고유의 핵심 콘텐츠포커싱 필요, 주변지역 정비 및 주변상권 연계 필요

\* 출처 : 서울특별시 DDP 정책팀 자료, 정보공개청구 자료

자문회의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다. 디자인산업을 활성화하고, 도심 상권을 부흥시키며, 문화관광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설정되기도 했고(2007.11.22), 유명디자이너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2008.01.25). 2010년에는 디자인과 패션 위주로 된 콘텐츠를 지적하며 건축, IT 와 같은 분야도 디자인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으나, 논의상에서 ‘디자인’이라는 공통 기반은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박원순 시장 당선 후에는 자문위원이 ‘신진전문가 그룹’으로 교체되었다. 2012년 1월 27일에 13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2시간동안 첫 회의를 가졌으며,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24] DDP 신진전문가 그룹 운영 회의 내용

항 목	자문 내용
내부 콘텐츠 관련	한국 가전제품의 디자인 발전사 등을 전시하고 체험하는 공간 마련 필요
	한국에서 전시하는 모든 콘텐츠가 집결되는 장소가 되어야 함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공간으로서 서울의 특징을 잘 잡아내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길러 콘텐츠를 개발해야 함
운영 재정	DDP 프로젝트 전체를 이끌어가는 '문화'가 없으므로, DDP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정체성 속에서 핵심 정체성을 추출해야 함
	재정자립방안에 대한 계획이 필요함
시민 참여	콘텐츠 구성에 있어서 전문가가 어떻게 활용되는 가, 시민과 어떻게 화합해가는가가 관건임
	전문가, 지역주민 의견 수렴시 집단토론 형식보다는 개별 집중 인터뷰를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어 낼 수 있으므로, 주민참여 방법론 개발이 필요함

\* 출처 : 서울특별시 내부 문건

새롭게 구성된 인원으로 운영된 회의에서 역시 ‘디자인’에 대한 제안이 나왔으나, 그 밖에도 ‘서울의 특징’, ‘시민과의 소통’, ‘핵심 정체성’과 같은 이슈들이 새롭게 제시되었다. 방법론에서도 시민 참여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 ② 공청회 : ‘청책(聽策)워크숍’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의 사업기간동안 공식적으로 열렸던 공청회는 2007년 8월에 환경운동연합이 참여하여 개최되었던 것이 유일하다.<sup>207)</sup> 서울 시장이 교체된 이후 거론되기 시작하였으며 신진전문가그룹 역시 제기하였던 ‘시민 참여’는, 비록 부분적이지만 ‘청책워크숍’에서 구체화되었다.<sup>208)</sup>



[그림 3-68] DDP 청책워크숍 (출처 : 직접 촬영)

때문에 물리적 외형을 바꾸는 것이 아닌, 내부에 담는 콘텐츠를 결정할 때 참고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sup>209)</sup>

총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1시간 30분가량은 사전에 준비된 이해관계자(동대문 지역발전위원회,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 문화연대, 패션봉제아카데미,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그 후, 20여분 정도 자발적 참여에 의한 발언이 이루어졌으나 시간적 제한으로 인하여 약 다섯 명 정도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다.

동대문 상인들의 이익대변기구인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에서는 상업 기능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영화, 연극 등의 문화시설과 편의공간을 제안하였

207) 2012.04.02 서울시청 DDP정책과 담당자 인터뷰

208) 청책워크숍은 참여를 강조하는 박원순 시장이 주거, 교육, 소득, 건강 등 여러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개최한 공청회 성격의 워크숍이다. 약 3시간동안 박원순 시장 참석 하에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자발적으로 참가한 시민들의 발언이 이어진다.

209) <http://mayor.seoul.go.kr/archives/4957> 참고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다.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패션쇼, 음악 한마당 등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 및 상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주기적 이벤트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상업 지원시설로서 패션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상설 기구의 필요성도 거론하였다.

사업 과정에서 사업 자체를 반대하기도 했던 문화연대에서는 ①수 많은 서울시의 시설과 기관들과 관계되는 기구가 되도록 할 것 ②서울의 다양한 창의 인력들에게 개방되도록 할 것 ③ 정책수립에서 운영방안에 이르기까지 공공프로세스를 설계할 것을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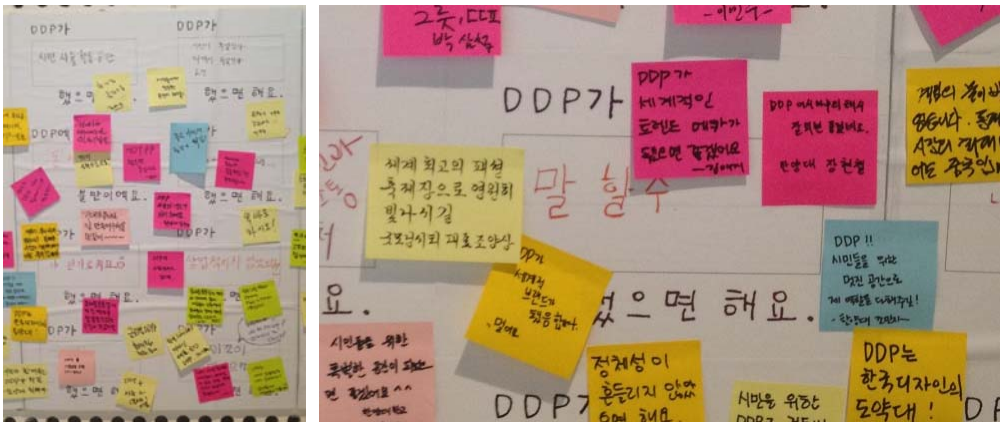
패션봉제아카데미에서는 패션 비즈니스, 관광, 문화, 역사가 공존하는 세계적인 패션허브가 되어줄 것과 동시에 한국의 중심지로서의 DDP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의 준비된 발표 후 이어진 자유 발언 시간에는 “37개 상가와 수십·수백군데의 공장에 노동자들이 흩어져 있지만 이들은 실질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이 정책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는 미싱사의 의견제시가 있기도 했다.



[그림 3-69] 자유발표 시간의 시민 발언 (출처 : 직접 촬영)

정책워크숍이 진행되었던 행사장의 한편에는 행사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적어서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 여기에서는 ‘DDP가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디자이너들이 활동할



[그림 3-70] 정책 워크숍에서의 시민 의견 (출처 : 직접 촬영)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 , '시민을 위한 DDP로 거듭나 달라' , '좋은 휴식터가 되었으면 좋겠다' , '아이와 함께 하는 안전한 창의교육공간으로 만들어 달라' 와 같은 기대와 요구들이 표현되는 한편, '꼭바로 하시오!' 와 같은 질책도 있었다.

종합하여 볼 때, 참여 주체와 요청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상인이거나 주변 노동자, 디자이너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관련 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문화연대와 같은 일반적 시민단체나 특별한 관련이 없는 일반 시민들은 서울시의 공공공간으로서 콘텐츠를 제공함과 동시에 참여와 같은 공공프로세스를 기획해달라고 요청하였다.

### ③ 내부 콘텐츠 변경 결정 : 2012.07

2012년 상반기에 걸친 의견수렴 후, 서울시는 콘텐츠를 변경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디자인 정보체험 및 유행선도' 라는 기존 방향에서 '시민 및 커뮤니티 참여 공간' 으로 변경하고 2012년 말까지 새로운 안을 확정하도록 했다. 보도에 따르면, 단순히 디자인 중심이 아니라, 지역창조산업 및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 목표다.

콘텐츠의 부재, 서울시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 외관 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지만 건물의 정체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내부를 채울 알맹이를 준비하지 못해서다. 오세훈 전 시장 때 DDP는 '세계 디자인 메카' 를 표방했다. 그러나 이 구상은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뒤 폐기됐다. '시민 참여' 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박 시장은 DDP에도 이 가치를 담은 콘텐츠를 주문했다. 사업을 맡은 서울디자인재단이 지난 5일 긴급 발주한 콘텐츠 보완 연구 용역에서도 박 시장의 의중이 읽힌다. 디자인재단이 설정한 콘텐츠 방향은 '함께 만들고 누리는 시민디자인의 장' 이다. 이번 연구 용역에 2억원이 들어간다. 콘텐츠 보강을 위해 당초 2013년 4월이던 개관 시기도 1년 늦췄다.<sup>210)</sup>

이와 관련하여 DDP의 콘텐츠 및 운영을 담당한 서울디자인재단에서는 2012년 10월을 목표로 하여 DDP의 콘텐츠를 검토하고 보완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정보체험시설, 전시시설, 컨벤션 시설이라는 3개의 큰 범주는 기존과 다름없으나,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변경되었는데 '복합문화' 와 '참여' 를 강조한 것이 특징적이다. 정보체험시설은 '시민과 커뮤니티가 참여·체험·소통하는 "참여·체험마당"' 으로, 전시시설은 '디자인복합문화의 확산을 위한 "창조·전시마당"' 으로, 컨벤션 시설은 '서울 창조산업 진흥을 위한 "시민컨벤션마당"' 으로 기획 방향을 설정하였다. 변경 전후의 구체적인 DDP 콘텐츠는 다음과 같다.

210) 유길용, 2012.07.10, op.cit.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표 3-25] DDP 콘텐츠의 변경 전후 비교

구분		기 존 안	보 완 안
개념	비전	세계 디자인의 메카, DDP (세계 디자인의 사람·자본·정보가 모이는 곳)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시민디자인의 장 (디자인을 통한 시민 참여, 체험, 창조로 서울 미래비전 견인)
	목표	- 디자인 정보체험 - 런칭패드 - 트렌드세터	- 시민 및 커뮤니티 참여의 장 - 서울 창조 산업의 요람 - 디자인·복합문화의 거점
핵심 가치	컨셉	보다 나은 도시생활을 위한 디자인	참여적 가치, 산업·경제적 가치, 문화적 가치
	대상	세계 최고의 IT기술과 융합된 의·생·주 컨템포러리 & 이머징 디자인	체험, 소통하는 시민·공동체 신성장, 창조, 나눔의 일·일자리 혁신, 융·복합하는 상상·트렌드
공간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개 시설, 11개 공간</li> <li>정보체험시설 : 도서관, 소재체험실, 디자이너스튜디오</li> <li>컨벤션 시설 : 컨벤션홀1,2, 대회의실</li> <li>전시시설 : DDP안내센터, 특별전시관, 박물관, 상상체험관, 디자인들레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개 시설, 11개 공간</li> <li>: 기능과 목표에 따른 공간 재설정</li> <li>참여체험마당, 창조전시마당, 시민컨벤션마당</li> </ul>
개관		2013년 4월 (준공 '12.7월)	2014년 4월 (준공 '13.7월)

\* 출처 : DDP 콘텐츠 검토 및 보완 연구 용역 공고 문건,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디자인’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세계시장 속의 경쟁이라는 개념이 반영된 ‘세계 디자인’이라는 문구가 ‘함께 누리는 시민 디자인’으로 변경되었다. 7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는 건물을 변경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3개 시설, 11개 공간이라는 전체적인 큰 틀은 유지하되, 그 안에서 공간을 재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세부시설 별로 역점사항과 이용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모호하다’는 그 간의 지적에 대처하기도 했다.

[표 3-26] DDP의 시설별 역점사항과 이용 대상자

시설	위치	역점사항	타겟	면적
정보 체험 센터	1층	시민이 주체가 되어 서울에 대한 생각을 만들고 나누는 정보의 숲	시민 및 전문가 (Public)	3,400㎡
	2층	동대문의 잠재적 가치를 현대적 가치로 아카이빙 하는 동대문 아카이브즈	동대문 상인 및 업계종사자· 전문가 (Glocal)	1,702㎡
	3층	지역산업, 창조산업,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플랫폼	지역 공동체 및 전문가(Professional)	1,930㎡
전시 시설	지하2층	DDP와 동대문을 대표하는 동대문의 창	국내외 방문객	354㎡
	지하2층	장르간 융복합을 통해 최신 트렌드를 발신하는 영감 충전 공간	국내외 디자이너, 예술가, 공예가	1,216㎡
	연결통로	시민·공동체 참여와 소통을 위한 DDP 순환공간	시민 및 전문가	3,358㎡
	2층	서울·동대문의 멋과 매력을 재조명하는 서울 창의특화 공간	시민 및 전문가	1,462㎡
	4층	청소년+디자이너·예술가 협력형 10대 창작 체험공간	청소년, 어린이/가족	1,892㎡
컨벤션 시설	지하2층	지속가능한 사회적 이슈를 발신하는 창조산업마켓플레이스	시민 및 전문가	4,953㎡

\* 출처 : DDP 콘텐츠 검토 및 보완 연구 용역 공고 문건을 토대로 재구성,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물론, 연구 용역 공고에 제시된 시설별 구상은 구체적인 콘텐츠가 결정되면서 일부 조정될 것이지만, 대략적인 면적 배분에 있어서 시민 및 전문가의 공간이 총 15,419 m<sup>2</sup>로서 전체의 76%에 해당한다. 전문가 및 지역공동체 위주로 할당된 면적은 나머지인 23%다. 물론 ‘시민 및 전문가’ 공간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전시 형태인, 전문가들이 전시하고 시민이 관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나 연구 용역 공고의 취지상 시민의 참여가 강조되었기 때문에, 실제 콘텐츠 기획 과정에서도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의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제까지 내부 콘텐츠 변경에 대한 자문회의와 공청회, 그리고 변경된 내부 콘텐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자문회의가 작업장 내부에서의 논의과정이고, 공청회가 토론장 영역에서의 공론화과정이며, 내부 콘텐츠를 변경하기로 결정한 것이 자문회의와 공청회 등을 거친 결과라고 할 때, 결과를 만들어 낸 원인이 토론장과 작업장의 직접적 상호관계 때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양 측에서 비슷한 경과가 진행되기는 했지만, 직접적인 교류가 확인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콘텐츠 변경 기획 안에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공간들 역시 공청회인 ‘청책워크숍’에서 제안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다만, ‘토건-복지’ 담론 기간 동안 당선된 박원순 시장의 정책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청책워크숍에서 제안된 의견의 큰 틀과 콘텐츠 변경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볼 때, 두 가지의 측면의 영향관계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 한 가지는 토론장을 통해 작업장의 주체를 교체함으로써 작업장의 진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 다른 하나는 토론장을 통해 형성된 담론의 합의가 작업장의 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 3.2.3. 토론장에서 다루어진 디자인에 관한 담론

이제까지 DDP 생산과정의 진행에 따라 토론장과 작업장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았다. 건축디자인에 대한 담론은 2006년 7월부터 5년 5개월의 기간 동안 DDP가 관련된 담론에서 중심 위상을 차지하지 못했으며, 토건사업과 복지예산이 대립각을 세운 정치적 쟁점이 부상한 이후로 더욱 주변부로 밀려났다. 다시 말해, 초기에 동대문운동장을 철거하고 서울성곽이 발견될 즈음에는 근대문화유산과 조선시대의 유구를 보존하거나 복원할 것인가라는 물리적인 실체에 대한 쟁점이 전면 재개발이었던 DDP 사업과 대립각을 이루었으나, 정치적 쟁점이 부상한 시기에는 DDP가 ‘4000억원’이라는 정량화된 수치로 단순 환원 되었다.

이것은 대중이 인식하는 DDP, 즉 DDP에 대한 대중적 의미의 층위가 물질적인 것에서 점차 추상적으로 변해갔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던 이유는 ‘보존-개발’ 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와 건축디자인이라는 주제를 이어주는 담론의 연결 고리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추측에 대한 확인 작업이자 가능성의 모색으로서 전체 기간(2007.10~2012.02)을 대상으로 토론장에서 다루어진 담론 들 중 구체적인 디자인이 차지하는 위상에 대해 분석한다.

우선 전체 기간 동안 DDP를 주제로 다루면서 건축디자인에 대해 언급한 모든 기사들을 수집한 후, 해당 기사들이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DDP 홈페이지 게시판과 FAQ 게시물에 대한 조회수를 통해 대중이 어떠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아보고 여기에 대한 원인을 바로 앞의 분석에서 유추하여 본다. 앞 장에서 드러난 ‘토론장과 작업장의 연결고리의 부족’이라는 문제는 이러한 분석의 과정에서 더욱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3.2.2 장에서 분석했던 피크구간의 주요 이슈들과 건축디자인에 대한 담론 사이에 어떠한 연결의 가능성과 한계점이 있었는지 분석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토론장 측의 논의인 신문 기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다른 담론들과 디자인 담론에 대한 연결의 가능성을 찾는 과정은, 디자인을 다루는 작업장과의 연결 관계에 대한 힌트를 던져 줄 것이다.

## (1) DDP를 주제로 다루면서 건축 디자인에 대해 언급한 기사

여기서는 DDP를 중심으로 다루면서 동시에 건축디자인을 구체적으로 다룬 기사들을 분석해보기로 한다. 우선 5년 5개월의 전체 기간 동안 9개 언론사의 해당 기사 분포는 [표 3-27]과 같다.

[표 3-27] DDP를 중심 주제로 다루면서 건축디자인 내용을 포함하는 기사들의 전체 분포

신문	유효 기사 수	A: DDP를 중심 주제로 다룬 기사	B: 건축디자인 내용을 다룬 기사	A와 B의 교집합	
				기사 수	비율
조선일보	108	24	18	13	12%
중앙일보	37	5	0	0	0%
동아일보	48	9	8	2	4%
한겨레	44	13	3	2	5%
국민일보	31	7	0	0	0%
한국일보	45	12	5	3	7%
경향신문	36	8	4	1	3%
문화일보	39	4	4	3	8%
서울신문	62	14	5	4	6%
총 계	450	96	47	28	6%

\* 검색 기간 : 2006.10.19 ~ 2012.02.29.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DDP의 건축디자인을 다룬 기사가 450건 중 단 28건으로서 전체의 평균 6%에 불과하다. 조선일보를 제외한다면, 아예 없거나 다섯 건을 넘지 않는다.

[표3-28]과 [표3-29]는 28개 기사들에 대하여 DDP 프로젝트의 진행단계에 따라 구분하여 주요한내용들을 살펴본 것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비슷한 날짜에 유사 주제로 게재된 기사들이 있다. 예를 들어 자하하디드가 현상 설계에 당선되었다는 내용의 기사(2007.08.14)나 건설 단계에서 BIM과 메가트러스에 대해 다룬 기사들이 그러하다. 그리고 그 기사들은 내용조차도 비슷하다. 이것들은 서울시에서 홍보용으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들이라 추측할 수 있다. 물론 언론사에 따라 대상에 대해 가치를 투사하여 서술한 기사도 있지만 대부분은 보도자료를 요약한 것에 불과했다.

또한 전체적으로 볼 때, 설계 및 착공부근에는 디자인의 개념에 대해 서술하고 평가하는 기사들이 주를 이루는 반면, 건설 단계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디자인에 대한 평가는 없고, 시공 기술 위주로 기사들이 작성되어 있다.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표 3-28] DDP를 중심 주제로 다루면서 건축디자인을 다룬 기사 ① (2006.10~2010.06)

날 짜	언론사	기사 제목	주요 내용
설 계 기 간	2007. 08.14	조선 동대문운동장 터에 '물결모양' 건물	DDP의 현상설계당선작을 묘사한 후, 대상부지의 풍물시장 철거문제를 언급함
	2007. 08.14	동아 동대문운동장 터에 물결무늬 랜드마크	현상설계당선작 묘사, 성곽복원을 통해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었다고 평가. 풍물시장 철거는 부수적으로 다룸
	2007. 08.14	한국 동대문운동장에 '물결무늬 랜드마크'	현상설계당선작 묘사, '조경과 건축,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었다고 평가'
	2007. 08.14	문화 동대문운동장 터에 물결무늬 랜드마크	현상설계당선작 묘사, 전통과 디자인의 미래를 표현했다는 하디드 인터뷰를 여과없이 수용
	2007. 08.14	서울 Zoom in 서울/ '물결' 입는 동대문운동장	현상설계당선작 묘사, 시의 도시브랜드 입장 설명, 건축가에 대한 추가 설명
	2007. 08.17	한겨레 '동대문공원' 설계하는 자 하 하디드 /그녀의 '명품건축' 서울을 바꾼다	하디드의 디자인경향을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주요 공공 건물의 설계를 스타건축가에게 의뢰하는 도시 브랜딩에 대해 서술
	2007. 11.06	한겨레 왜냐면/반론 - '동대문운동장 철거 논쟁을 보며 '서울 공간재편' 담론을 던진 적 있나	'역사적 기억의 보존과 도시공간의 효율적 재편' 이라는 하디드 디자인에 대해 '역사적 기억을 지우는 도시공간의 퇴행적 배치'라고 주장하며 디자인 요소에 대해 비판함
	2007. 11.16	조선 "내 건축은 실용적... 영감에 의존하진 않아" : 이라크 출신 건축가 자하 하디드 런던 현지 인터뷰	DDP 건물이 주변 컨텍스트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문을 제기함
	2007. 12.19	조선 경성운동장, 동대문운동장,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설계공모당시 성곽복원이 설계지침에 명시되어 있음을 거론하면서, 하디드의 작품이 이를 잘 해석해냈다고 평가함
	2007. 12.31	조선 다시 태어날 동대문운동장... 성곽 일부도 복원	비정형적 디자인을 설명하고 성곽도 복원됨을 알림, 경제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함. 그러면서 독특한 디자인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를 언급, 대상부지의 노점상 문제도 거론.
2008. 07.30	조선 "동대문운동장 자리에 '작품'을 세울 겁니다"	'낯선것은 좋은것' 이라는 가치의 연결, DDP 디자인이 자연경관을 살렸다고 주장함	
착 공 및 설 계 변 경 기 간	2009. 04.29	조선 '디자인 서울 건설'의 주역 '동대문 디자인플라자&파크' 설계자 자하 하디드	주변 지형요소와의 조화를 이루었으며 옛것과 새것을 누적시키는 디자인이라는 하디드의 인터뷰를 여과 없이 전달
	2009. 04.29	동아 건축/ "도시 디자인은 '생활' 을 디자인 하는 것"	지형과 역사유적을 유기적으로 연계했으며, DDP 디자인이 채움이 아닌 비움의 디자인이라는 하디드의 인터뷰를 여과 없이 수용
	2009. 04.29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 파크 설계 하디드, 오시장과 대담	DDP의 유기적 디자인이 유동성과 개방성을 지님을 설명. 주변 지형을 유기적으로 연결했다는 하디드의 인터뷰를 그대로 수용
	2009. 05.05	조선 한국에 온 세계적 건축가 자하 하디드 "살아있는 곡선으로 새로운 우주 창조"	알루미늄 패널을 연결한 유기적인 디자인으로 유니크하면서도 주변 지형과 어울리도록 한다는 하디드의 인터뷰를 여과 없이 수용. 불편한 것이 아니며 실용적이라는 점도 강조함
	2009. 06.25	조선 문화재 잇따라 발굴...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改名추진	DDP 부지에서 유물이 출토되어 하디드는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고 건물에 역사성을 입힌다' 고 했지만(공정적여조), '디자인' 과 '역사' 가 공통점이 없다는 점이 지적됨.

[표 3-29] DDP를 중심주제로 다루면서 건축디자인을 다룬 기사 ② (2010.07~2012.02)

날 짜	언론사	기사 제목	주요 내용
2010.07.20	문화	삼성물산, 동대문디자인플라자 &파크 건설현장	비정형 외장 패널에 대한 시공 기술을 '도전과 성취' 관점에서 서술
2010.08.26	조선	건물 전체가 곡선... 판넬 4만 5000장의 예술	비정형 외장 패널에 대한 시공 기술
2010.10.07	조선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529t 초대형 지붕' 설치	'메가트러스' 지붕과 유선형 디자인
2010.10.07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지붕 '메가트러스' 설치공사 완료	'메가트러스' 가 만들어내는 넓은 실내공간
2010.10.29	조선	[건설 CEO & 뉴테크] 반도체 공장 짓는 이 기술 없었으면... 곡선미 압권 '디자인플라자' 못볼뻔	4만5천개의 알루미늄 패널 생산 및 시공기술과 대공간을 지지하는 메가트러스, 기술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미적 효과를 서술
2011.01.10	한국	DDP에 세계 최대 '3차원 비정형 외장패널' 설치	비정형 알루미늄 외장패널을 BIM을 이용하여 시공한다는 점을 간략히 소개
2011.01.10	서울	DDP 벽에 패널 4만5000장 설치	비정형 알루미늄 외장패널을 BIM을 이용하여 시공한다는 점을 간략히 소개하면서 실용적 효과도 서술
2011.03.24	한국	동대문역사공원 3D 설계로 짓는다/ 건물 전체에 BIM기법 도입	BIM을 이용한 시공이라는 점을 간략히 소개
2011.04.11	문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변신 시작했다!	BIM을 도입한 외장패널 설치작업을 간략히 설명
2011.04.12	조선	동대문디자인플라자 3차원 입체 설계로	유선형 형태를 만드는 패널제작과 시공기술위주로 설명
2011.04.19	경향	동대문디자인플라자 3D 입체 설계	BIM을 도입하여 시공하는 비정형 공간으로 인해 경계가 모호해지고 형태가 복잡해지며 내외부 공간이 겹치게 된다는 효과를 설명
2011.08.08	조선	[건설 프런티어 현장을 가다] (4)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복잡한 유선형디자인을 만들어내는 시공 기술을 설명

두 개의 표에 나타난 전체 28개 기사를, 기사 내용에 따라 재분류하면 [표 3-30]과 같다.

설계 기간에서 등장한 12건의 기사들은 디자인을 언급하지만 심사위원이나 건축가의 설명을 여과와 검증 없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혹은 주장은 있지만 그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기사를 접하는 이가 다시 판단할 수 없게 만든다.

또한 건설 기간에 보도된 기사들 12건은 모두 기술적 성취에 대해 다루고 있다. 비정형의 형태로 이루어진 알루미늄 패널은 BIM을 이용하여 설계하고 시공하는 내용에 대한 것 혹은 대형 공간을 기둥 없이 구축해내는 메가트러스에 대한 것이다. '그러한 기술적 성취를 통해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라도 언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표 3-30] DDP를 중심 주제로 다루면서 건축디자인을 다룬 기사들 내용 분류 (2006.10~2012.02)

단계	대분류	소분류	내용	해당 기사	건수
설계 기간 / 착공 및 설계 변경 기간	디자인과 그 해석	심사위원이나 건축가의 설명을 여과 없이 전달하거나 주장만 있고 근거가 나와 있지 않은 것	현상설계 당선	2007.08.14(조선, 동아, 한국, 문화, 서울), 2007.08.17(한겨레)	6
			건축가 인터뷰	2008.07.30(조선), 2009.04.29(조선, 동아, 서울), 2009.05.05(조선)	5
			기타	2007.12.19(조선)	1
		가치가 개입되어 서술	해석에 대한 문제제기 디자인과 역사	2007.11.06(한겨레), 2007.11.16(조선) 2009.06.25(조선)	2 1
		디자인과 비용	가치가 개입되어 서술	디자인과 건설 비용	2007.12.31(조선)
건설 기간	디자인과 건설 기술	고난도 작업에 대한 기술적 성취 위주로 서술된 것	외장 패널, 메가 트러스, BIM 시공	2010.07.20(문화), 2010.08.26(조선), 2010.10.07(조선, 서울), 2011.01.10(한국), 2011.03.24(한국), 2011.04.11(문화), 2011.04.12(조선), 2011.08.08(조선)	9
		기술적 성취와 그 효과에 대해 언급한 것	미적, 실용적, 경험적 효과	2010.10.29(조선), 2011.01.11(서울), 2011.04.19(경향)	3

급한 것은 단 세 건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28건 중 남은 4 건만이 DDP의 디자인에 대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해준다. 해당 기사들은 [표 3-30]에 진하게 표시하였다.

…… 다음으로 ‘서울이라는 역사도시가 가진 공간적 딜레마, 즉 역사적 기억의 보존과 도시공간의 효율적 재편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자하 하디드의 설계안’에 대해서 말해 보자. 그러나 하디드 작품 속 어디에도 역사적 기억은 보이지 않는다. 혹시 서울 도성처럼 보이는 오브제를 갖다 놔다 해서 그렇게 말했다면 오독이다. 서울 도성이라고 갖다 놓은 오브제 밑에 물(해자)을 배치했는데 서울 도성 어디에도 해자가 없다. …… 211)

위의 기사는 물과 결합된 성곽은 우리나라에 없음을 근거로 하여, 역사적 모티프의 해석에 있어서, 단순히 형태를 모방하는 것이 역사의 재해석이 아님을 지적한다. 동시에 ‘역사적인 것’으로 DDP에서 그러한 요소 이상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DDP는 역사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 ▲김=건축을 할 때 콘텍스트(context·주변 여건과 상황)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국내에서는 하디드의 동대문 프로젝트가 서울의 역사와 주변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디드=건물을 디자인할 때 반드시 주변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콘텍스트는 디자인한 건물과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A라는 건물은 이래야 하고, B 건물은 이래야 한다’는 식의 사고는 혐오합니다.

211) 김란기, “왜냐면/반론 - ‘동대문운동장 철거 논쟁을 보며 ‘서울 공간재편’ 담론을 던진 적 있다,” 한겨레, 2007.11.06, 33면

▲김=그렇다면 디자인할 때 어떤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요. 일부에서는 선생님의 건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는데요.

▲하디드=일단 건물이 들어설 대지의 지형을 읽고, 거기에 적합한 개념을 설정한 뒤 어떻게 재료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해요. 작품 대부분이 곡선 형태여서 재료와 구축 방식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당연히 기술적인 측면이 중요하지요. (하디드는 자신의 건축이 ‘실용적’ 이라고 몇 번이나 강조했다.) .....<sup>212)</sup>

위의 인터뷰는 하디드의 디자인을 비판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하디드의 건물이 역사와 주변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 . 혹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라는 비판적 관점이 있다는 점을 환기시킨다. 또한 “건물을 디자인할 때 반드시 주변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콘텍스트는...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 는 말을 인용함으로써 ‘주변 맥락(context)’ 에 대한 것이 건축에서 중요하다는 점과 그것을 해석하는 상반된 관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

..... 설계공모 당시 2000억원대였던 공사비도 현재 3000억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독특한 디자인과 소재 탓에 입체(3D) 설계·시공 등이 불가피해서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sup>213)</sup>

여기서는 아주 간략히 언급하고 있지만, 건축디자인에 있어서 ‘독특함’ 이란 단순히 예술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비용의 문제가 수반된다는 점을 환기시킨다. 그러나 비용이 증가하는 이유나, 그만큼 비용을 더 사용할만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

..... 시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중 '플라자'는 디자인 센터 역할을 계속 맡기지만, 공원에 대해선 역할 자체를 바꿔 놓았다. 애초 구상은 갤러리·이벤트홀·휴식공원을 갖춘 문화공간이었지만 과거를 간직한 '역사문화공원'으로 대체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화유산이 D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는데 디자인만 강조한 이름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내부 지적이 설득력을 더한 것이다..... 하디드는 동대문운동장 부지에 성곽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초기 설계 단계서부터 발굴될 성곽이 지나갈 자리를 남겨 놓았다. .... 시는 공원 설계를 바꾸는 데 약 12억원이 들었으며, 역사문화공원과 전시관을 짓는 데 180억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간다고 설명했다.....<sup>214)</sup>

이 기사는 DDP에서 역사적 유구가 예상보다 많이 출토됨에 따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와 ‘역사문화공원’ 으로 분리되던 즈음에 보도된 것이다. 기사 자체에 비판적 어조는 강하지 않지만, 분별력 있는 독자라면 ‘왜 초기단계부터 성곽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설계변경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름을 분리해서 운영해야 할 만큼 DDP 건물은 역사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모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셈이기도 하다.

212) 김미리, “‘내 건축은 실용적... 영감에 의존하진 않아”,이라크 출신 건축가 자하 하디드 런던 현지 인터뷰,” 조선일보, 2007.11.06, A27면

213) 광수근, 2007.12.31, op.cit.

214) 변희원, 2009.06.25, op.cit.

###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비록 DDP의 디자인을 모든 측면에서 심도 있게 분석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위에서 예로 든 네 건의 기사들은 각각 건축디자인에 대한 대중담론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5년 5개월 동안 9개 신문사에서 발견된 것이 단 네 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접한 DDP에 대한 건축디자인에 대한 기사는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한 설명적인 기사에 불과했다.

DDP 관련 기사, 특히 건축디자인을 다루는 내용은 대부분 서울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전체 기간 중 발표된 25건의 보도자료에서 건축디자인을 다룬 것은 6건에 불과하다. 또한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보도자료의 특성상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실 위주로 기사가 구성되고, 언론사가 특별한 여과 없이 이를 수용한다면 역시 설명적으로 대상을 다루게 된다. 실제로 실험적인 비정형적 형태를 강조하거나, BIM의 도움으로 2차 곡면 외장패널을 효율적으로 시공하는 기술에 보도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표 3-31] DDP 관련 서울시 보도자료

보도 자료 배포일	보도 자료 제목	건축디자인을 다룬 기사
2007-05-10	동대문운동장, 공원 및 디자인 메카로 부활 날개짓	
2007-07-23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 현상설계 심사위원 7명 확정	
2007-08-13	동대문 운동장에 새롭게 태어날 서울의 명물	●
2007-11-23	동대문 운동장 부지에 들어설... 디자인플라자&파크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2008-01-29	도심복합문화축(대학로~동대문~남산) 조성사업 본격 추진	
2008-03-18	동대문운동장 입주상가 이주 자금 지원	
2008-03-20	서울시, 동대문운동장 주변 제정비 밑그림 마련 착수	
2008-04-03	동대문 풍물벼룩시장, 신설동으로 이전	
2008-05-13	시민 길을 떠나는 동대문운동장(축구장)	
2008-05-14	오세훈 시장,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건립 본격 시동	
2009-03-01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무장애, 친환경 건물 및 공원으로 태어난다	●
2009-04-27	디자인 서울의 첨단 엔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파크 착공	
2009-06-18	오는 10월 최첨단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조선시대를 만난다	
2009-10-26	서울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일부 27일 우선 개장	●
2010-01-14	29년만에 타오르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성화'	
2010-04-21	동대문, 세계디자인의 메카로 태어난다	
2010-05-19	도심속열린문화공간, 동대문역사문화공원	
2010-10-06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초대형 지붕 위용 드러나	●
2010-10-14	올 연말, 동대문-낙산공원-혜화문 2,160m 서울성곽길 연결(1)	
2010-12-06	QR코드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백배 즐기기	
2011-03-23	서울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 3D 입체설계기법 BIM 도입	●
2011-06-27	동대문디자인플라자, 3차원 비정형 형태의 '노출콘크리트'착공	●
2011-07-25	어름방학,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로 건축투어 가자	
2011-08-29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TV타고 시간여행하자	
2012-01-16	서울시-환경부, 동대문 일대 빗공해 환경 개선	

\*. 검색 기간 : 2006.10.19 ~ 2012.02.29.

\*.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www.seoul.go.kr)



## (2) 디자인에 대한 대중의 인식

신문기사에서 건축디자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부족했다는 사실은 디자인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정도와 무관하지 않다. 여기서는 대중의 인식에 대한 하나의 지표로서, DDP 홈페이지의 질문 답변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들과 FAQ의 조회수를 분석한다.

### ① DDP 홈페이지의 게시판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질문은 총 44건이다.<sup>215)</sup> 질문들을 그 성격에 따라 분류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32] 동대문역사문화공원 홈페이지의 질문 유형 분석

구분	건수	질문의 성격	질문 내용
단순 정보 문의	15	간략히 답변 가능한 정보에 대한 질문	개장일, 기존홈페이지접속, 입장료, 전시여부, 현장사진, 임대수익원천, 전체사진, 전시물구매, 공연정보, 완공일, 상가종류, 편의시설여부, 상가구성, 전시물 이용, 개장일
과제 자료 요청	15	학교 과제를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	내부프로그램, 이미지, 포스터, 주변영향, 구조설계, 마케팅방식, 조명시설, 렌더링이미지, 3D파일, 조감도, 주변현황, 사업타당성, 예산내역, 시공입찰과정
사업 & 구직	4	개인 영리 추구를 위해 정보를 요청	입점입찰, 판매컨텐츠, 채용계획, 상가입점
문제제기 & 제안	4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정을 요청하거나 시설 프로그램을 제안	공사불편사항, 프로그램제안(전통찻집), 건물디자인개선방안, 프로그램제안(기념품)
문화재	3	개발/보존의 이슈와 관련된 정보를 문의	발굴문화재, 서울성곽(2건)
격려	1	격려	사업 격려
기타(스팸성 글)	2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글	
합계	44		

\*자료 출처 : <http://ddp.seoul.go.kr/room/qna.php> 의 게시물을 토대로 분석함. 2012.03.04 접속

개인적인 필요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단순정보문의, 과제자료요청, 사업&구직)가 대부분으로 77%(44건중 34건)에 해당하며, 참여의 성격을 지닌 질문들(문제제기 & 제안, 문화재)은 16%(44건중 7건)를 차지한다.<sup>216)</sup>

다시 말해, 건축디자인에 대한 문의내용은 과제자료요청이나 건축학과 학생들의 개선방안 제시(1건)를 제외하고는 단 한건도 없었으며, 건물과 관련해서는 내부 프로그램을 제안한 것이 3건으로 드러났다.

215) 첫 질문이 게시된 2009.01.06부터 2012.03.04 현재 마지막 게시물이인 2012.02.03 까지의 게시물들을 분석함. 게시물은 총 82건이며, 관리자의 답변을 제외한 질문은 44건임.

동대문역사문화공원 홈페이지의 참여마당 - Q&A 참고 (<http://ddp.seoul.go.kr/room/qna.php>)

216) 문화재에 관한 질문들은 공공기관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감시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참여의 일부로 보았다.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발굴 문화재와 서울 성곽의 복원 여부 대한 관심을 보인 것이 3건으로 ‘답론’ 으로 분류할 수 있는 유일한 게시물이다.

② FAQ

FAQ의 조회수는 사업을 운영하는 측에서 공개한 정보에 대해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관심을 지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된다.

[표 3-33] 동대문역사문화공원 홈페이지의 FAQ 조회수 분석

이슈	이슈의 성격	조회수	조회수 백분율
DDP 개관 후 구체적인 운영사업과 수익모델 및 경제적 효과는?	경제성	1047	13.6%
DDP의 주된 기능은?	시설 용도	578	7.5%
쇼핑몰 같은 수익시설을 찾아볼 수 없는데 재정자립도는 확보 되는지?	경제성	557	7.2%
해외의 디자인센터들과는 어떻게 다른가?	사업의 성립 - 차별성	526	6.8%
DDP의 설계 컨셉은 무엇인가?	디자인 - 컨셉	490	6.4%
타 기관 및 시설과 구별되는 차별화 요소로서 준비하는 사업은?	사업의 성립 - 차별성	470	6.1%
DDP 건립이 시급히 필요한 이유는?	사업의 성립 - 필요성	450	5.9%
DDP는 몇층인가?	디자인 - 형태	419	5.5%
‘환유(換喻)의 풍경(風景)’ 이란 무슨 의미인가?	디자인 - 컨셉	406	5.3%
DDP의 층별 용도 및 사용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시설 용도	405	5.3%
DDP를 왜 동대문 지역에 건립하는가?	사업의 성립 - 필요성	401	5.2%
정말 2011년경에 건립이 완료되는지?	완공시기	395	5.1%
해외 주요도시에도 이 같은 디자인센터 건립사례가 있으며, 정책적 지원수단은 주로 무엇인가?	사업의 성립 - 유사 사례	349	4.5%
조명탑은 왜 남아 있는지?	문화재&보존	290	3.8%
외장 재료는 무엇인지?	디자인 - 특정 부분	254	3.3%
현재 발굴중인 문화재로 인하여 건립의 정상적 추진이 방해 받지는 않겠는지?	문화재&보존	230	3.0%
옥상에도 걸어 올라갈 수 있는지?	디자인 - 특정부분	220	2.9%
옥상은 무엇으로 조경을 하게 되는지?	디자인 - 특정부분	201	2.6%

\*자료 출처 : <http://ddp.seoul.go.kr/room/faq.php> 의 게시물을 토대로 분석함. 2012.03.04 접속

홈페이지의 FAQ를 조회수를 토대로 분석해보면, 사업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사업의 ‘경제성’ 이다. 이것은 구체적인 운영 사업과 수익모델, 혹은 주변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그리고 재정자립도와 관련된 것으로 두 개의 질문의 조회수는 전체 조회수의 약 20%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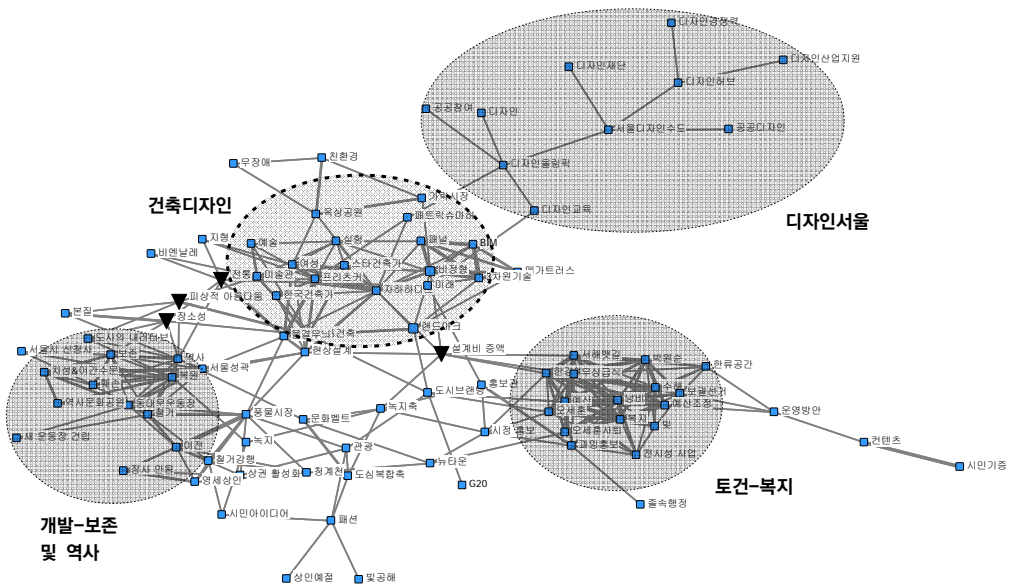
디자인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설계 컨셉은 대체적으로 상위에 있었으나 옥상, 외장재와 같은 특정한 부분에 대한 상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201~250회의 매우 낮은 조회수를 보였다. 또한 문화재에 관한 두 개의 질문도 각각 230회와 290회의 조회수를 보였다. 경제성에 관한 질문 두 개가 1047회, 557회의 조회수를 보여준 것과 대조적이다.

홈페이지에서의 반응과 앞서 진행되었던 트위터 분석에서 드러난 대중 반응과의 공통점이라면 ‘돈’에 관련된 것에 대중이 관심을 보인다는 점이다. 물론 크게 볼 때 정치적인 쟁점 때문에 부각된 이슈이긴 하지만 ‘과도한 사업비’ 역시 ‘돈’에 관한 것이고 홈페이지의 정보에서도 수익모델과 경제 효과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다.

물론 디자인에 대한 조회수도 5개 게시물의 조회수를 모두 합산하면 22.7%에 해당한다. 그러나, 질문답변 게시판에서 과제자료 요청을 한 학생들이 34%(44건 중 15건)에 해당하는 것을 볼 때, 같은 학생들이 조회한 횟수가 반영되었을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으므로 ‘경제성’에 대한 관심과 대등하다고 보기 어렵다.

### (3) 담론 그룹을 이어주는 연결 고리

그렇다면 DDP 생산과정의 토론장에서 전체에서 디자인에 대한 담론은 어떠한 위치에 있었으며 다른 담론과는 무엇을 매개로 연결되었는가? 이 문제에 대한 것은 키워드들의 유사성 분석을 통해 보다 확실하게 드러난다.



[그림 3-71] 전체 기간 동안 모든 키워드들의 유사성연결망 (  $r \geq 0.15$  )

[그림3-71]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연결망에서의 키워드들은 크게 볼 때, ‘개발-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보존, 역사’ , ‘토건-복지’ , ‘건축디자인’ , ‘디자인서울’ 의 네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디자인서울’ 그룹은 중심에서 주변부로 밀려나고 ‘건축디자인’ 이외의 담론들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sup>217)</sup>

이 연결망에서 눈여겨 볼 것은 ‘건축디자인’ 과 ‘개발-보존 및 역사’ 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인 ‘전통, 피상적 아름다움, 장소성(연결망에서 ▼로 강조)’ , 그리고 ‘건축디자인’ 과 ‘토건-복지’ 를 이어주는 ‘설계비중액’ 이라는 키워드다. 이것들은 연결망 상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담론 그룹 간에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중 ‘피상적 아름다움’ 과 ‘설계비 중액’ 을 언급한 대표적인 기사는 아래와 같다.

[표 3-34] 특정 키워드를 언급한 신문기사

이슈	날짜	신문	제목	포함 키워드
피상적 아름다움	2008.02.05	조선	명품도시, 짝퉁도시	미술관, 명품건축, 랜드마크, 전통, 동대문운동장, 철거, 보존, 역사, 관광, 디자인, 피상적 아름다움, 도시의 내러티브
	2009.09.19	문화	역사-건축-철학을 하며 파리를 걷다	복원, 역사, 녹지축, 피상적 아름다움, 도시의 내러티브
설계비 중액	2007.12.31	조선	다시 태어날 동대문운동장... 성곽 일부도 복원	자하하디드, 현상설계, 랜드마크, BIM, 비정형, 미래, 동대문운동장, 철거, 서울성곽, 복원, 패션, 서울디자인수도, 디자인경쟁력, 녹지축, 설계비 중액
	2008.12.19	경향	외국인 설계 매달리다...동대문디자인 플라자 설계비 늘고 착공 지연	자하하디드, 스타건축가, 설계비 중액
	2009.06.25	조선	문화재 잇따라 발굴...DDP 개명 추진	자하하디드, 랜드마크, 비정형, 미래, 동대문운동장, 철거, 서울성곽, 역사문화공원, 치성&이간수문, 역사, 디자인, 설계비 중액

우선 ‘피상적 아름다움’ 의 키워드를 포함한 기사들의 일부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보존할 만한 특이한 건물이나 가로가 없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보행자 도로와 쉽게 길을 찾는 표지판으로 유명한 영국의 브리스톨, 자전거·보행자 전용도로로 도시를 재구성한 스웨덴 스톡홀름,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천국을 만든 브라질库里티바도 전세계 도시들이 벤치마킹하는 명품 도시들이다. 이들 도시는 행정 당국의 정책과 지역 특유의 전통을 지키고 아름다운 생활공간을 만들겠다는 주민들의 오랜 노력이 빚어낸 성과물이다. 디자인 코리아는 환영할 만한 정책이지만 성공하려면 우리만의 독창성과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가 있어야 한다. 외국 유명 도시만을 모방하려 한다면 국적 불명의 짝퉁 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정책 당국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sup>218)</sup>

217) 이것은 앞에서 살펴봐왔듯이 디자인올림픽에 전시된 자하하디드의 전시물, 혹은 디자인올림픽기간에 방한한 패트릭슈마허의 기사들과 관계를 맺고 있거나, 디자인올림픽의 일부 행사가 역사문화공원에서 열렸기 때문에 검색 결과 안에 포함된 것이다.

218) 차학봉, “명품 도시, 짝퉁 도시,” 조선일보, 2008.02.05, A30면

……저자는 파리란 거울에 자주 서울과 우리의 다른 도시들을 비추게 만든다. 청계천 복원에 이어 광화문 광장이 조성되고, 서울시 청사, 반포 브리지파크,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세운 녹지축, 마곡동 워터 프런트 공사 등에 분주한 서울. 하지만 서울에서 별로 건지 않던 저자는 파리에서 훨씬 더 많이 걸었다. 파리의 분위기에 취해 지치는 줄도 모르고……파리에서 걸으며 사유한 결과물인 책은 표면적인 도시 디자인의 변화에만 바쁜 서울이, 지치는 줄도 모르고 걸을 만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한지도 생각하게 만든다.<sup>219)</sup>

조선일보 기사는 랜드마크 건물이 아닌, 작은 것들의 집합이 만들어내는 특성, 편리한 교통시설, 그리고 그것들을 만들어낸 정부와 주민의 참여를 강조하면서 ‘명품 도시’를 만들어내는 것은 피상적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점을 역설한다. 그리고 문화일보에서 역시 피상적 도시 디자인과 도시를 천천히 거닐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비를 통해 서울의 디자인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즉, ‘피상적 아름다움’은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크게 볼 때 스펙터클한 랜드마크 건물을 만드는 서울시 정책과 기존의 도시가 지니고 있던 가치를 대비시킨다. 그러면서 홍보 위주로 DDP를 다루는 기사들로 이루어진 ‘건축디자인’ 담론과 동대문운동장 터의 역사 복원을 위주로 한 ‘역사’ 담론을 연결시켜주고 있다. 이것은 유사성연결망(그림 3-71)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다음으로 ‘설계비 증액’의 키워드를 포함한 대표적 기사들의 일부를 옮겨보면 아래와 같다.

……설계공모 당시 2000억원대였던 공사비도 현재 3000억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독특한 디자인과 소재 탓에 입체(3D) 설계·시공 등이 불가피해서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sup>220)</sup>

……서울시는 지난 10월 동대문플라자 현상공모 당선자인 영국인 여류 디자이너 자하 하디드 측의 요구로 설계비를 155억7000만원으로 증액했다고 18일 밝혔다. 자하 하디드가 지하 1층·지상 3층에서 지하 3층·지하 4층으로 설계를 바꾼 것 등이 이유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월 자하 하디드와 136억원에 설계를 계약했다. 서울시는 설계공모 당시 설계비를 79억원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처음 예상액보다 76억7000만원이 늘어난 셈이다. 이 같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설계기간 마감도 11월10일에서 12월23일로 늦어졌다. 올해 말 착공 계획도 내년으로 늦어졌다. 2007년 계약 당시 3441억원으로 추정됐던 총사업비 역시 3758억원으로 늘어났다. 현상공모 당시 추정 사업비는 2274억원이었다. 시는 외장재를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교환율로 사업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sup>221)</sup>

……하디드는 동대문운동장 부지에 성곽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초기 설계 단계서부터 발굴될 성곽이 지나갈 자리를 남겨 놓았다. 하디드는 역사문화공원을 만든다는 서울시 계획을 듣고서 공원과 건물 일부의 설계를 변경하는 데 동의했으며, 지난달 말 역사문화공원 설계 작업을 마쳤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공원 설계를 바꾸는 데

219) 김종락, “다이제스트/ 역사·건축·철학을 ‘사유’ 하며 파리를 걷다,” 문화일보, 2009.09.19, 12면

220)곽수근, 2007.12.31, op.cit.

221) 심혜리, “외국인 설계 매달리다...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설계비 늘고 착공 지연,” 경향신문, 2008.12.19, 16면

###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약 12억원이 들었으며, 역사문화공원과 전시관을 짓는 데 180억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간다고 설명했다.……222)

조선일보의 2007년 7월 31일 기사는 전체 기간의 9개 신문에서 ‘독특한 디자인’과 3D 시공이 설계비의 주된 증가요인임을 지적하는 유일한 사례다. 독특한 디자인을 다루는 다른 기사들은 예술적인 실험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BIM과 같은 3D 시공 기술을 설명하는 기사들은 기술적 성과에만 중점을 둔다. 이러한 기술이 설계비와 공사비라는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은 업계에서 상식으로 통하는 것이지만, 대중담론에서 그러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50건 중 단 한건일지라도 이런 내용을 다루는 기사는 전체 담론에서 디자인과 설계비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단 하나의 사례에 불과할지라도, 이러한 기사는 통계적 관점에서 ‘오류’ 혹은 ‘정상 범위를 벗어난 이상 값’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건축디자인의 문제를 다른 담론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잠재성으로 보아야 한다.

2008년 12월 19일의 경향신문 기사와 2009년 6월 25일의 조선일보 기사도 각각 외국 건축가와 역사문화공원으로의 설계변경, 즉 건축가와 디자인 내용의 문제가 DDP 예산 증가와 어떤 식으로 결합될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까지 건축디자인과 피크 구간에서의 담론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했던 기사들을 살펴봄으로서, 작업장의 구체적인 작업이 토론장에서 다루어지려면 어떠한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알아보았다. 전체 기간에 걸쳐 건축디자인을 지칭하는 단어들도 다른 쟁점들보다 현저히 낮은 비중으로 다루어졌는데, 그런 중에서도 건축디자인이 다른 담론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디자인의 구체적인 내용들 때문이 아니라, 비판적이거나 가치판단이 개입된 개념들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시애틀공공도서관의 사례와는 분명히 차이를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시애틀공공도서관의 경우는 도서관을 완성해가는 작업 자체에만 집중하여 토론장의 담론들이 다루어진 것에 반해, DDP의 경우는 이해관계자들과 정치적인 쟁점이 만들어낸, 작업 외부적 사건들과 많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

222) 변희원, 2009.06.25, op.cit.

### 3.2.4. 정리 및 분석

이제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특히 토론장에서 디자인에 대한 담론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분석하였다.

사업 초기의 시민아이디어공모전은 명목상으로는 작업장의 진행을 토론장에 개방한 것이었지만, 비전문가로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성의 진입 장벽이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대중매체에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공모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과물을 보고 의견을 개진할 간단한 정보조차 얻을 수 없었다.

또한 자하하디드의 당선 직후에도 대중매체들은 당선작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다루었을 뿐, 당선작의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비평하거나 다른 응모작들을 비교하면서 평가하지 않았다. 8개의 응모 안 중 6개의 안이 동대문운동장을 일부 보존하는 것이었지만 자하하디드는 운동장의 보존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물론 어떤 대안이 나온 것인가의 문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문제 자체가 토론장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공론화 되지 못한 원인 중 하나는 방금 전에 언급한 미디어의 보도여부에 있으며, 다른 하나는 전문가토론장에 있다. 건축가들은 ‘개발-보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이 있었지만, 그 문제는 전문가토론장에서조차 활성화되지 못했다. 즉, 당선되지 못한 다른 작품들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대안을 직접 상상하고 그려낼 수 없는 대다수의 대중은 당선작 이외에 어떤 대안이 가능한지(혹은 가능했는지)에 대해 접근할 방도가 없었던 것이다.<sup>223)</sup>

그 후로부터 2012년 2월까지 이어진 미디어의 보도를 보자면, 전반적으로 DDP를 보도한 신문기사 수가 매우 적었다. 각 신문사마다 평균 1달에 1건 이하였으며, DDP를 중심 주제로 다루면서 건축디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룬 기사는 전체 450건 중 6%인 28건에 불과했다.

신문 기사 수는 5년 5개월 동안의 기간에 걸쳐 크게 세 번 증가했다. ‘보존-개발’에 대한 기사들이 주를 이루었던 첫 번째 구간에서는 동대문운동장의 철거와 풍물시장의 이전에 대한 담론이 오고갔다. 그러나 계획 설계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23) 물론 DDP 홈페이지에는 지금도 출품작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 접속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홈페이지의 특성상 신문과 TV가 지닌 대중매체의 영향력과는 비교하기 힘들다.

###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운동장을 보존하자는 논의가 작업장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작업장에서는 설계경기에서 당선된 안을 바탕으로 시설 프로그램과 건물의 규모를 재조정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두 번째 피크 구간에서는 ‘역사’에 대한 문제가 다루어졌다. 치성과 이간수문의 흔적이 발굴되고 운동장 하부에서 옛 건물 터가 드러나면서 복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던 것이다. 하디드는 건물과 주변을 ‘유기적으로’ 연결 하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 문제는 토론장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유구 이전에 따른 설계 변경을 진행하는 등 작업장은 역사 문제에 대해 토론장과의 공통된 합의를 토대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희박하다. 토론장에서 이전 복원과 관련되어 구체적인 논의가 오고 간 흔적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세 번째 피크 구간에서는 ‘토건-복지’에 대한 담론이 다루어졌다. 토론장에서 양성하게 논의된 정치적 담론은 시장(市長), 즉 DDP 작업장의 주체를 교체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신문과 트위터를 통해서 볼 때 DDP는 그 과정에서 ‘4,000억원’이라는 사업 전체의 차원으로만 다루어졌다. 점점 증가하는 대규모의 공사비와 관련된 구체적인 디자인 항목이 언급되지는 않았던 것이다.<sup>22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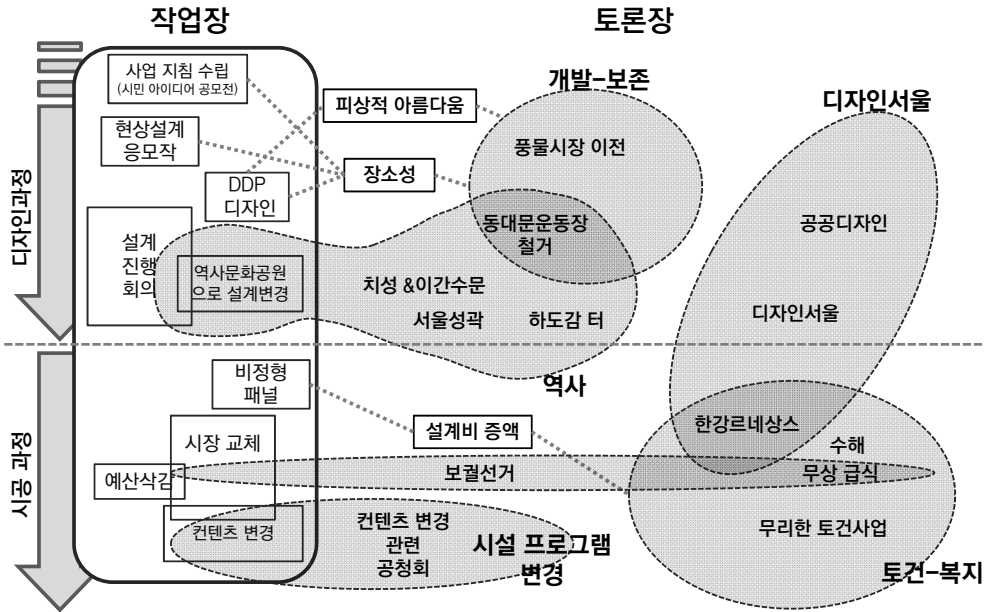
교체된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공언해 온대로 DDP의 예산을 줄이면서 내부 콘텐츠를 시민 참여 공간 위주로 재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물론 결정은 시장, 즉 작업장 진행의 주요 결정권자가 내린 것이지만, ‘토건-복지’ 담론이 바꾸어 낸 작업장의 장(長)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토론장이 작업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전체 생산과정에서 볼 때, 토론장과 작업장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두 영역은 보편적 공감대 안에서 움직이거나, 서로 간에 간접적 영향을 주고받으며 생산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디자인에 대한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전개 과정은 [그림 3-72]와 같이 도식화 해 볼 수 있다.

---

224) 이것은 세부적인 항목을 언급하며 공사비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그라운드 제로의 사례와 비교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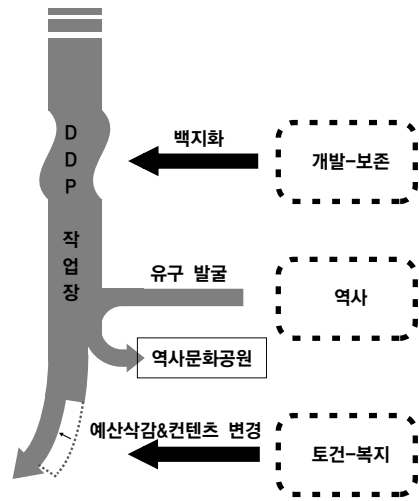
[그림 3-72] DDP의 진행과정에서 형성되었던 토론장과 작업장

본문의 분석을 통해서 드러났던 것처럼, 디자인과정에서 토론장이 작업장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은 것은 역사담론이 이슈가 되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던 시기다. 그리고 착공 후 건물이 건설되어가면서, DDP 자체와는 무관한 무상급식 담론이 부상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때 DDP가 무리한 토건사업으로서 정치적 담론에 편입되며 결국 시장이 교체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 교체된 시장은 콘텐츠를 변경을 위해 토론장에 진행을 공개하면서 참여를 유도했다. 이 세 번의 긴밀한 작용은 위의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역시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토건-복지’ 담론 자체가 디자인과 무관한 것이었고, 시장이 교체된 시기는 이미 건물이 완공되어가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시공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두 번의 긴밀한 상호작용은 전체 건물의 구체적인 디자인과는 크게 관련되지 못하였다.

즉, DDP의 설계과정에서 대상에 대해 가까운 거리에서 세밀하게 들여다 볼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DDP는 ‘일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항상 ‘전체’로서 다루어졌다. 풍물시장 이전과 관련한 ‘개발-보존’이 주요 담론으로 떠올랐을 때나 역사적 유구들이 발견되었을 때는 ‘전면 백지화’가 때때로 제기되었

으며, ‘토건-복지’ 담론이 부상했을 때도 ‘예산 삭감 대상’ 이 되어버렸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막대한 사업비에 대한 합의기 반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체’로서 다루어 졌다는 것은, 담론이 지닌 힘이 구체적으로 디자인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담론 자체가 전체 사업에 대한 외부적인 힘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말한다(그림 3-73).



[그림 3-73] 사업진행과정에 따라 형성된 담론의 영향이 DDP 건축디자인에 대해 외부적으로 작용함

시애틀공공도서관과 비교하여 볼 때, 토론장과 작업장이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영향을 주고 받지 못한 이유는 이슈가 된 담론들이 작업 자체의 문제가 아닌, 사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문제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닐 테지만 전적으로 그러하다고도 할 수는 없다. [그림 3-71]에서 본 연결망을 통해서 분석한 바와 같이 건축디자인과 다른 중심 담론들 사이에서 충분한 구체적인 연결의 가능성을 찾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크 구간에서 이슈가 되었던 문제들을 생각해보더라도, 동대문운동장에 대한 기억을 존중하는 것, 혹은 역사적 유산인 서울 성곽과 어울리도록 디자인하는 것, 혹은 과도한 공사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재료와 구조물을 만드는 것 모두 건축디자인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전문가토론장이나 미디어가 비 전문적인 대중 앞에서 충분한 역할을 해 주었더라면, 토론장 속에서 작업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룰 수도 있었을 것이다.

작업장에서 토론장의 담론을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는 다른 차원이다. 시애틀공공도서관의 사례에서 도서관장 데보라 제이콥스가 주민투표를 추진하거나 워크그룹을 조직했던 것처럼, 혹은 DDP의 사례에서 보궐선거를 통해 시장 직에 오른 박원순이 여론을 수용하여 콘텐츠 변경을 지시했던 것처럼 작업장 주체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작업장에서 역시 토론장의 정치적 담론들을 구체적 작업으로 바꾸어 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관계한다면, 토론장과 작업장이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 시점은 매우 중요하다. 시애틀공공도서관은 초기의 설계안부터 대중에게 공개하면서 논쟁을 촉발시

켰고, 그에 따라 디자인의 많은 부분이 수정되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사업의 리스크(risk)를 줄여 나가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이것은 DDP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업의 초기일수록 변경 작업에 대한 비용은 줄어든다.

그리고 DDP의 경우에도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 DDP의 생산과정에서 설계경기에 당선된 자하하디드의 설계는 끝까지 거의 변하지 않은 듯하지만, 층수도 지상·지하 3개 층에서 7개 층으로 늘어났으며 건물 연면적도 약 6만 2천 제곱미터에서 8만 5천 제곱미터로 늘어났다. 이러한 변화의 정도를 감안할 때, 계획설계(SD)가 이루어지던 시기가 동대문운동장 철거·보존 문제가 거론되던 시기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돌이켜 보면, 충분히 토론장의 담론을 수용하면서 설계안이 변화될 여지가 있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혹은, 만약 사업의 초기부터 동대문운동장을 중심으로 기존에 형성되었던 지역적 이해관계자와 시민들을 담론 영역에 끌어들였다면,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평가받는 자하하디드의 안을 선정하여 발생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었을지도 모른다.<sup>225)</sup>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건축디자인 과정에서 토론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물론 현상설계과정 혹은 그 이전에 동대문운동장의 존치여부에서부터 대중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졌더라면, 자하하디드의 건물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혹은 하디드의 디자인에 대폭적인 수정이 가해져 딱히 형태적 특징을 드러내지 못하는 건물이 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러한 디자인에 대해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의 중요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행여 공론화 과정에서 건물이 키치적 디자인으로 변질될지라도, 대중의 합의가 바탕이 된다면 그 문화의 수준이 반영된 건물이 완성될 수 있다.<sup>226)</sup> 그리고 단번에 완벽한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 합의 과정에서 말과 행위가 자유롭게 오고갔다면, 그 다음 기회 또한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다면 대중담론에서의 부정적인 평가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 이러한 일련의 담론들은 그 다음에 다른 기회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련의 경과들이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토론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225) 동대문운동장의 철거 여부를 둘러싸고 이해관계자들이 관여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에서 4장과 5장을 참고. 황진태, *op.cit.*

226) 물론 키치적 디자인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도록 대중을 ‘유도’ 하는 것은 전문가의 역할이 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좋은 것’ 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으면서 다원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스타건축가의 건물이라고 해서 충분한 설명 없이 ‘좋다’ 는 것만을 부각시켜서는 안 된다. 만약 DDP에서와 같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는 시점이 이미 디자인이 결정된 이후라면, 그 디자인이 왜 좋은 것인지, 어떤 부분이 건축적으로 뛰어난 것인지, 비슷한 해외의 건축물과 비교하여 어떤 점들이 ‘세계 속의 서울’ 로 만들어 줄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존재하지 않는 사실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의 가치에 집중하여 부각시켜야 한다. 이러한 설득이 지니는 근거가 토론장에서 인정된다면, 비록 생산과정에서 직접적인 ‘참여’ 가 부족했다라도 건물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다원성의 원칙은 역의 방향도 성립한다. 토론장에서의 형성된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건축가, 즉 소수의 의견보다 항상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서로가 말과 행위를 공유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비록 그러하지는 못했지만,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사례에서도 구체적인 디자인에 관한 토론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 앞서서도 계속 언급했듯이 토론장과 작업장에서 다루어졌던 안건들이 상호 유사했기 때문이다. 비록 긴밀하게 연결되지는 못하였지만, 이러한 현상들은 DDP에서의 토론장 또한 작업장과 함께 제작의 범위로 포괄해 낼 수 있다는 잠재성을 충분히 보여준다.

그리고, 대중은 DDP와 같은 공공건설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관심이 없는 것 같았지만, 결정적으로 입장을 드러내야 하는 주민투표와 같은 정치적 이벤트에서 시정에 대한 누적된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나 대중은 대개 목표와 의지는 지니고 있지만 건축에 있어서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방법은 서투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중의 관심이라는 또 다른 잠재성을 단순히 돈으로 환원된 수준에서 다룰 것인지, 혹은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으로 유도할 것인가는 작업장을 이끄는 주체들 혹은 관련 전문가, 그리고 미디어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 3.3. 사례 3 : 그라운드제로



[그림 3-74] 그라운드 제로 공사현장 (2011.09)  
출처 : Architectural Record 2011.09

이번 장에서는 2001년 이후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사업이 진행 중인 뉴욕 맨하탄의 그라운드제로(Ground Zero)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sup>227)</sup> 2001년 항공기 테러로 인해 도심 안에 있는 16에이커 넓이의 부지가 건물과 함께 모두 소실되었고 2,7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곧이어 이를 재건하기 위한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총 사업비가 2012년 현재 235억 달러(환율 1,000원 계산 시 23.5조원)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항만청이라는 공공기관이 토지를 소유하고 민간투자회사가 전체 연면적의 절반 이상에 대한 개발 권리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뉴욕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워크숍과 공청회가 이루어졌으며, 미디어를 통한 여론은 프로젝트의 성격을 공공적으로 변모시켜 초기의 설계안을 완전히 바꾸

227) 부지 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 전체에 대한 공식적인 명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부지를 지칭할 때는 'WTC site' 혹은 'Ground Zero'로 불리며, 개별 공중으로 분할되어 진행되고 있다. 부지 안에 있는 4동의 고층빌딩은 WTC(World Trade Center)로 불리고 나머지 건물들은 각각의 이름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체 사업을 지칭할 때 '그라운드제로(Ground Zero)'로 부르기로 한다.

###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어버렸다.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선정하는 과정은 TV를 통해 생중계를 하고 온오프라인 투표를 실시함으로써 전혀 없는 공적 건축담론을 만들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10년에 걸친 사업기간동안 구체적인 진행과정이 신문을 통해 낱낱이 보도되었는데, 이러한 양상은 복잡한 프로젝트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이 어떠한 관계를 이루면서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예가 된다.

그라운드제로는 단일 건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애틀공공도서관이나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는 직접적 비교가 힘들다. 초기부터 건물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는 공유되었으나 시애틀공공도서관처럼 워크그룹을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규모도 아니었다. 그리고 부지 내 고층건물들은 민간 디벨로퍼가 개발에 대한 권리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참여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다. 또한 희생자 추모공원을 제외하면 오피스, 공연장, 교통환승센터와 같은 건물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토론장에서 구체적인 디자인에 대해 언급할만한 적절한 이슈들도 찾기 힘들었다. 게다가 희생자 추모와 임대 수익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해야만 하는 복잡한 발주처 조직의 이해관계가 있었고, 그에 따른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사업 기간이 계속해서 연장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시민들이 ‘신속하게 진행하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10여 년 동안 시민들은, 작업장 외부에서 사건의 경과를 관찰하는 한편 주요한 문제에 대해 토론장에서 형성된 담론을 바탕으로 작업장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우선,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토론장이 어떠한 방법으로 작업장과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다루었는지에 대해서 분석한다. 그리고 특별히, 이슬람 무장단체의 항공기 테러로 인해 시작된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종교, 정치, 보안, 윤리 등의 문제들이 토론장의 담론 속에서 어떻게 작업장과 연관되는지 분석하기로 한다.

또한 토론장에서 합의를 이루어 제안한 내용은 설계안이나 프로젝트 진행에 그대로 반영되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 - 제안한 내용의 문제였는지 혹은 외부적 힘이 개입되었는지 - 에 대해서 분석할 것이다.

### 3.3.1. 프로젝트 개괄

#### (1) 프로젝트 진행 과정

앞의 두 사례와는 달리 10년에 걸쳐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전개양상도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모든 진행사항을 언급한다기보다 주요한 사건들을 되짚어 보면서 대략적인 흐름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

2001년 9월 11일, 항공기 테러로 인해 110층 높이의 세계무역센터(WTC)건물 2동이 무너져 내렸으며, 건물이 무너지면서 같은 블록 안의 인접한 건물들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 그리고 9/11테러 이틀 후, 해당 부지를 재건하는 것이 당시 뉴욕 시장이었던 줄리아니를 통해 처음으로 언급되었다.<sup>228)</sup> 이에 따라 주변 건물을 포함한 16에이커(64,750m<sup>2</sup>) 면적의 부지 전체에 대한 재개발이 추진되었다.

뉴욕시의 맨하탄에 위치한 해당 부지는 뉴욕주와 뉴저지주 공동 산하의 항만청(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의 소유였는데, 테러 사건이 일어나기 6주 전 부동산개발회사인 실버스타인 자산(Silverstein Properties)에 임대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인 소유와는 별도로 2,700여명이 사망한 장소라는 점은 희생자 유가족과 다른 시민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들은 직·간접적으로 프로젝트 진행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재건사업이 결정된 후 시민 및 전문가 단체들이 결성되었다. 이들은 마스터플랜에 대한 계획안과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라운드제로 재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던 가운데, 항만청과 LMDC는 독자적으로 진행한 마스터플랜을 공개하였다(2002.07.16).

그리고 며칠 후, 5,000여명이 모인 대규모 공청회가 열렸다. ‘리스닝투더시티(Listening to the City)’ 라는 이름의 이 공청회에서 재건 사업의 물리적, 제도적, 사회적 측면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냈으며, 제안된 마스터플랜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게 되었다(2002.07.20).

항만청은 여론을 수렴하여 계획안을 백지로 되돌리고 세계적 건축가들을 상대로 지명초청설계경기를 공모하였다. 그 해 말에 그라운드제로 부지 옆의 윈터 가든에서

228) 당시 뉴욕 시장이었던 줄리아니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려낼 수 있는가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이 곳은 다시 살기 좋은 장소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JOHN TIERNEY, "The Big City; Restore the Skyline, but Do It the New York Way," *New York Times*, 14 Sept. 2001 :11

###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열린 건축가들의 발표 현장은 대중에게 공개되었으며, 동시에 이 행사는 TV를 통해 생중계되기도 했다(2002.12.18). 시민 단체들은 워크숍을 진행하여 공공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항만청은 이러한 의견을 참고하여 리베스킨트의 안을 마스터플랜으로 결정하였다. 마스터플랜이 결정되자 재건 사업에서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두었던 추모공원(9/11 Memorial)을 위한 국제공모전이 개최되었다. 추모공원은 기존 쌍둥이 빌딩 자리에 계획되었으며, 역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마이클 아라드(Michael Arad)의 안이 선정되었다(2004.01.06).

한편 실버스타인은 독자적으로 SOM에게 맡겨 1WTC 설계를 진행하고 있었다. 재건 사업에서 오피스 부분은 장기 임차자인 실버스타인에게 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항만청과 LMDC는 실버스타인과 협상하여 마스터플랜 당선자인 리베스킨트가 1WTC 설계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2003.12).

관련 주체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프로젝트는 매우 더딘 속도로 진행되었다. 임차자였던 실버스타인이 항공기 테러에 대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문제는 법정 소송까지 진행되기도 했고, 항만청과 실버스타인은 재개발에 대한 권리 문제로 여러 차례 장기간의 협상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던 중에 뉴욕경찰청은 계획되고 있는 건물의 안정성 문제를 지적하게 되고, 이에 따라 1WTC 디자인이 전면적으로 수정되기도 했다(2005.06).

2006년 3월과 4월에 추모공원과 1WTC의 공사가 각각 시작되었다. 그러나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추모공원에 인접한 뮤지엄의 입주업체가 ‘미국의 국익과 상충되는 전시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모든 입주업체가 제외되기도 했다. 교통환승센터는 공사비 문제로 여러 차례 디자인이 수정되었으며, 1WTC 옆의 공연장 역시 교통환승센터가 완공되고 난 후에 공사가 가능했으므로 입주업체가 선정되는 단계에만 머물렀다(2007.03). 그리고 한편, 2010년 3월에 이르러서야 실버스타인과 항만청의 협상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어 2WTC, 3WTC, 4WTC의 개발방향이 결정되기에 이르렀다.

테러 10주기인 2011년 9월에 추모공원과 지하 뮤지엄이 개관하였다. 나머지 건물들은 2012년 6월 현재 공사 중이거나 건설 보류 중에 있다. 전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의 주요한 사건들을 다음의 표에 정리하였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재건 논의 및 설계경기를 통해 토론장과 작업장이 긴밀하게 관련되었으며, 2005년 이후에는 주로 작업장 주체 사이의 협상이 진행되면서 토론장의 주체들이 간접적으로 연관되었다.



3.3. 사례 3 : 그라운드 제로

[표 3-35] 그라운드 제로 사업 진행 과정 - ① (2001-2004)

날 짜	주요 진행과정
2001.07.24	실버스타인(Larry Silverstein)이 WTC를 항만청(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으로부터 입차함
2001.09.11	<b>WTC 테러</b>
2001.11.01	16개의 건축, 엔지니어링, 계획 회사가 연합하여 공익과 사익을 모두 만족시키는 뉴욕뉴비전(New York New Vision)을 만들기로 함
2001.11.29	<b>파타키 주지사와 줄리아니 시장, 새로운 시장당선자 블룸버그가 LMDC(Lower Manhattan Development Corporation) 설립을 공표함(a joint state-city corporation)</b>
2002.01월	이매진뉴욕(Imagine New York) 출범, 1월~3월 동안 회의 진행
2002.01.17	프로테치 갤러리(Protetch Gallery)에서 새로운 WTC 디자인에 대해 전시함
2002.02	뉴욕뉴비전(New York New Vision) 에서 로어맨하탄 재건을 위한 원칙을 공표함
2002.02.07	첫번째 리스닝투더시티(Listening to the city) 포럼, 600여명 모임
2002.03.11	뉴욕시예술협회(Municipal Art Society)와 Creative Time에서 임시 추모비로서 'Tribute in Light' 를 켜
2002.05.	Beyer Blinder Belle이 WTC 부지의 마스터플래너로 선정됨(RFQ를 제출한 총 6개팀 가운데서 선정)
2002.05.23	LMDC가 첫번째 대규모 공청회를 열, PACE 대학에서 750명이 3시간동안 논의
2002.06.10	이매진뉴욕(Imagine New York)에서의 첫번째 보고서 발간, 사람, 장소, 사회적 형평성, 계획에서의 공공참여, 정책에 대한 기초적 의견 취합
2002.07.16	<b>항만청과 LMDC의 주최하에 6개의 계획이 공개됨, 항만청이 고용한 BBB가 2개안, LMDC가 고용한 Peteson/Littenberg가 2개안, 실버스타인이 고용한 SOM이 1개 안, 브룩필드 자산(Brookfield Properties)이 고용한 쿠퍼로버트슨(Cooper Robertson &amp; Partners)이 1개안을 담당함</b>
2002.07.20	두번째 리스닝투더시티(Listening to the city), 5000여명 모임
2002. 7월 말 ~ 8월 중순	새로운 마스터플랜에 대한 2주간의 온라인 대화, 800명의 추가적인 인원들이 참가함
2002.08.14	<b>LMDC와 항만청이 마스터플랜에 대한 '보다 혁신적인 디자인'을 약속함</b>
2002.12.18	<b>월드파이낸셜센터(World Financial Center)의 윈터가든(Winter Garden)에서 7개 회사가 9개의 안을 겨룬, 뉴욕의 지역방송인 NY1 TV 통해 생중계.</b>
2003.01.13	1월 13일과 1월 14일에 LMDC 주관으로 Pace Univ.에서 공청회(public meeting)를 열
2003.02.27	LMDC와 항만청은 리베스킨트의 안을 WTC사이트의 마스터플랜으로 선정함
2003.04.28	LMDC는 WTC 추모공원을 위한 국제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함
2003.07.	SOM의 데이비드 차일즈(David Childs)와 리베스킨트(Daniel Libeskind)는 Freedom Tower(1WTC)를 위한 협력에 동의함
2003.11.19	<b>LMDC가 5,201개의 추모공원 응모안으로부터 8개의 당선 후보작을 선정함</b>
2003.11.20	이매진뉴욕(Imagine New York)에서 추모공원에 대한 6일간의 워크숍을 진행함. 결과물은 NY1 News, Gotham Gazette, New York Daily News등을 통해 알려짐
2003.12.19	파타키와 블룸버그는 새로운 프리덤타워의 디자인을 발표함(SOM의 데이비드 차일즈가 설계를 맡고 마스터플래너 리베스킨트가 협력)
2004.01.06	<b>추모공원 현상설계의 당선자로 마이클 아라드(Michael Arad)가 선정됨</b>
2004.01.22	칼라트라바(Santiago Calatrava)의 교통허브 디자인 안이 발표됨
2004.12.01	<b>추모재단(World Trade Center Memorial Foundation) 출범, 추모공원을 위한 모금과 운영 담당</b>

\*자료 출처 : 여러 문헌을 참고하여 직접 작성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표 3-36] 그라운드 제로 사업 진행 과정 - ② (2005-2011)

날 짜	주요 진행과정
2005.05.19	파타키와 블룸버그는 스노헤타(SnØhetta)의 디자인을 International Freedom Center과 Drawing Center를 위한 문화센터 설계자로 선정
2005.05.	Freedom Tower(1WTC)가 뉴욕경찰청의 보안문제 지적으로 인해 디자인 수정에 착수함
2005.06.29	파타키, 블룸버그, 실버스타인, 차일즈는 뉴욕 경찰청의 보안문제 지적에 대한 수정안을 내놓음
2005.09.25	드로잉센터(Drawing Center)가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포기한 후, 주지사 파타키는 국제자유센터(International Freedom Center)를 문화센터 입주대상에서 철회시킴. 스노헤타(SnØhetta)는 방문자센터를 다시 디자인함
<b>2006.03.13</b>	<b>추모공원과 뮤지엄의 건설이 시작됨</b>
2006.04.25	실버스타인이 Freedom Tower(1WTC)의 재건에 대한 조정권을 항만청에게 넘김. 그러나 2,3,4 WTC Towers 에 대한 권한은 유지함
<b>2006.04.27</b>	<b>Freedom Tower(1WTC) 건물 착공</b>
2006.05.01	실버스타인의 주도로 건설이 진행된 7WTC가 오픈. David Childs/SOM 이 디자인했음.
2006.06.22	추모공원의 공사비가 10억달러에 육박할 것이라는 보고 후, 디자인 수정에 착수하여 감축안을 발표함.
2006.07.26	LMDC가 그 임무를 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조직의 해체가 거론됨
2006.09.07	파타키와 실버스타인이 2,3,4 WTC의 디자인을 공개함
<b>2006.10.03</b>	<b>뉴욕시장인 블룸버그가 추모재단의 대표로 취임</b>
2006.12.14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던 추모공원의 사망자명단 표기 순서를 결정함
2007.03.28	공연장(Performing Arts Center)의 입주업체로 무용 위주의 Joyce Theater가 선정됨
2007.05.23	뉴욕시에서 WTC 붕괴시의 먼지와, 호흡기 질병 사망자의 직접적 연관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함
<b>2007.05.23</b>	<b>소송을 통해 실버스타인이 보험사로부터 45억 달러를 받기로 결정됨</b>
2007.08.06	‘생존자 계단’ 의 보존 문제가 일단락됨. 2 WTC부지에서 추모공원으로 이전하기로 함.
2007.08.17	도이치뱅크 건물 철거 중에 일어난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2명이 사망함.
2008.04.28	기존 WTC하부의 슬러리 월을 유물로서 보존하기로 결정함
2008.07.25	뉴욕경찰(NYPD)이 항만청경찰(PAPD)로부터 WTC의 보안에 대한 통제권한을 넘겨받기로 함.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보안을 강화할 것. 항만청경찰은 교통환승센터의 보안을 담당하기로 함.
2009.03.26	Freedom Tower가 1WTC(One World Trade Center)로 이름을 바꿈
<b>2009.05.20</b>	<b>7개 시민단체가 실버스타인의 건물 3동에 더 이상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말라고 요청함. 3개 건물에 대한 실버스타인과 항만청 사이의 분쟁이 재개됨</b>
2010.03.25	항만청과 실버스타인 사이의 분쟁이 일단락됨. 2,3,4 WTC에 대한 자금 지원과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함.
2010.05.10	Park51(무슬림 커뮤니티 센터)에 대한 것이 Community Board 1(뉴욕시의 시민 심의기구) 회의에 처음 등장함. 이후 9월까지 시민들의 반대 운동이 진행됨
2010.06.24	뉴욕시와 9/11당시의 구호활동을 벌였던 작업자 사이의 건강문제와 관련한 보상문제가 일단락됨.
2011.03	무슬림센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됨. 그러나 센터 자체적인 자금 문제로 건설은 보류중임
2011.05.01	9/11 테러의 배후로 지목되었던 오사마 빈라덴이 미국 특수부대 작전으로 사살됨
2011.05.04	1 WTC의 골조가 64층까지 올라감. 4 WTC는 23층. 2,3 WTC의 기초가 완성됨
<b>2011.09.11</b>	<b>10주년 기념행사, 추모공원 개관</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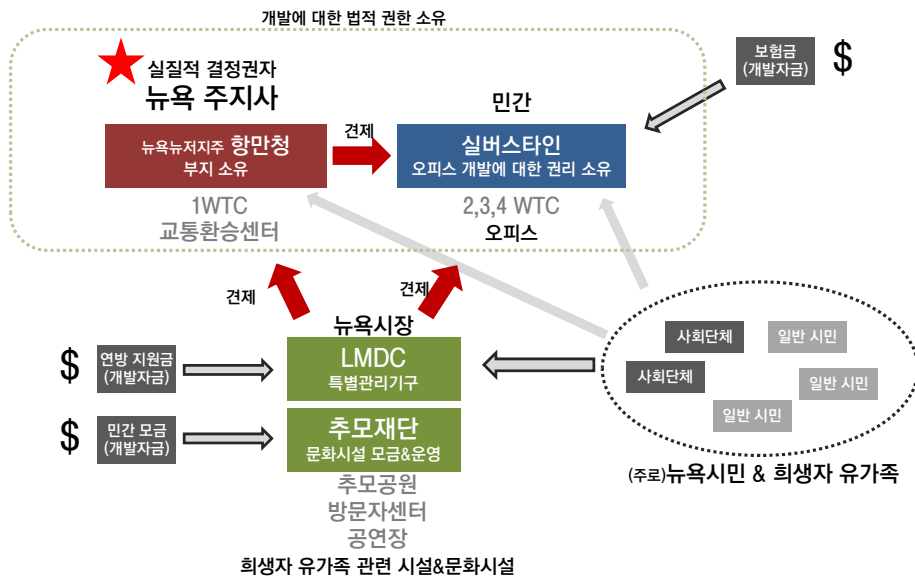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여러 문헌을 참고하여 직접 작성

(2) 관련 주체

그라운드제로 사업에는 매우 복잡한 행위주체들이 관련되어 있다. 발주처에 해당하는 기구도 뉴욕뉴저지항만청(이하 항만청), 실버스타인 자산회사, LMDC 등 3개에 해당하는데, 이들 간의 권리가 명확하게 분할된 것도 아니었다. 이 불분명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협상과 소송은 사업 전체에 걸쳐 사업의 주요 향방을 결정하는 동시에 사업이 지연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또한 희생자들의 유가족을 비롯하여 전문가 및 시민 등, 여러 가지 단체들이 결성되어 자체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프로젝트 진행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그라운드 제로, 즉 세계무역센터 재건 사업에 연관된 주요 조직은 다음과 같다.



[그림 3-75] 권력구도와 여론이 계획안에 영향력을 행사한 메커니즘

개발에 대한 법적 권리를 소유한 기구는 항만청과 실버스타인의 두 곳이었다. 항만청은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전체 사업에서 1WTC와 교통환승센터를 담당하고 있었다. 실버스타인은 오피스 개발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오피스 건물인 2,3,4 WTC를 담당하고 있었다.

LMDC(Lower Manhattan Development Corporation)는 그라운드제로 부지 및 로어맨하탄 주변의 효과적인 재개발을 위하여 설립된 기구다. 이 기구는 연방에서

###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지원받은 사업자금을 관리하였으며, 민간 모금을 위하여 설립된 추모재단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지 안의 추모공원 및 문화시설 건립을 담당하였다.

항만청과 실버스타인 사이에서는 재개발 하는 건물에 대한 권리문제로 지속적인 분쟁과 협상이 지속되었다. 항만청과 항만청의 실질적 의사 결정권자인 조지 파타키 뉴욕 주지사는 부지 전체에 대한 조정권을 항만청의 통제 하에 두려고 했고 실버스타인은 하루라도 빨리 오피스 건물을 완공하여 임대수익을 얻으려고 했다.

재개발 사업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들 중 하나는 바로 사업자금이었는데, 실버스타인은 보험 계약에 의해 4조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게 될 예정이었다. 이 보험금의 규모는 전체 재건사업에서 매우 큰 비중이었기 때문에 항만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실버스타인을 유리한 위치로 만들어주기도 했다.

LMDC 는 초기에는 항만청의 영향 하에 있었으나, 사업이 진행되면서 뉴욕 시장과 뉴욕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항만청이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오피스 개발 권리가 실버스타인에게 있었던 반면 부지의 재개발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될 주변 사람들은 바로 뉴욕 시민들이었다. 따라서 LMDC는 전체 사업에서 이들의 역할을 대변하면서 항만청과 실버스타인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

한편 시민단체 및 일반 시민들은 주로 LMDC를 통해 추모공원과 문화시설들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때때로 항만청과 실버스타인을 견제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각 기구 및 단체의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한다.

#### ① 관련 주체 - 작업장

- 뉴욕뉴저지항만청(PANYNJ : 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 이하 항만청)

그라운드제로 부지의 소유기관으로서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항만청은 뉴욕과 뉴저지 주에 위치한 여러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며 자체조례(By-Laws)에 의하여 운영된다.<sup>229)</sup>

뉴욕과 뉴저지의 주지사가 12명의 위원에 대한 임명권을 절반씩 지니고 있다. 그러나 프로젝트 진행과정 동안 뉴저지 주지사는 특별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뉴욕 주지사에 따라 대부분의 결정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2006년 12월에는 새롭게 당선된 스피처(Spitzer) 뉴욕 주지사가 12명의 위원들을 자신에게 유리한 사

229) 항만청 웹사이트 참고. <http://www.panynj.gov/>

람들로 구성하기도 했다.<sup>230)</sup>

항만청은 1973년에 WTC를 건립했으며, 2001년 7월까지 임대를 관리하며 직접 운영하였다. 그 후 래리 실버스타인에게 매 월 1천만 달러의 임대료로 건물 전체를 99년동안 임대하였다. 항만청은 기존 WTC에 입주해 있었기 때문에 9/11 테러로 본부 건물은 물론 임원을 포함한 74명의 직원을 잃기도 했다.

재건 사업에서는 교통환승센터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2006년 4월 25일 이후 협상을 통해 1WTC(Freedom Tower)의 건설 및 운영권을 실버스타인으로부터 돌려받았다.<sup>231)</sup> 또한 부지 전체의 기반시설(infrastructure) 공사를 담당하고 있다.

- 실버스타인 자산의 래리 실버스타인(Larry Silverstein, Silverstein Properties, 이하 실버스타인)<sup>232)</sup>

실버스타인은 WTC 연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업무시설에 대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

9/11 테러 6주 전인 2001년 7월 WTC건물의 업무시설에 대한 99년간의 임대계약을 맺었다. 월 1천만 달러의 임대료를 항만청에 납부하는 것이 계약조건이었는데, 계약에 따르면 WTC건물이 파괴될 경우 그는 업무공간에 대한 재건 의무와 권리를 지니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주가 건물 재건에 대한 권리를 지니는 반면, 99년이라는 장기 임대의 경우 소유에 준하는 권리를 인정받는 것이었다.<sup>233)</sup>

그는 계약대로 WTC가 모두 무너진 이후에도 항만청에 월 1천만달러의 임대료를 납부해야만 했다. 따라서, 그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월 1천만달러 이상의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공간만큼의 오피스를 지어야만 했다. 물론 그러한 권리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전체 개발에서 오피스 공간을 많이 지으려고 했고, 이로 인하여 오피스 공간을 줄이고 로어맨하탄 전체에 이로운 개발을 유도하려는 뉴욕시와 반대 입장에 서기도 했다.<sup>234)</sup>

230) PATRICK HEALY, "Spitzer Names Port Authority Head and Fills 11 Other Top Positions," *New York Times*, 16 Dec. 2006 : 2

231) CHARLES V. BAGLI, "DEVELOPER TAKES A FINANCIAL DEAL FOR GROUND ZERO," *New York Times*, 26 Apr. 2006 :1

232) <http://www.silversteinproperties.com/>

233) Mary L. Clark, "A Fresh Start at Ground Zero," *New York Times*, 5 May 2004 :27

234) 2002년 당시의 분석에 따르면 다운타운의 오피스 공실률이 15% 이상이였기때문에, 뉴욕시는 그러한 상황에서 오피스를 더 짓는 것보다는 주거와 호텔을 지어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고 주변 오피스와 조화를 이루도록 개발하려는 입장이었다.

###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개발의 세부적 권리와 거래 금액에 대한 항만청과 실버스타인간의 법정 소송은 재건사업이 더디게 진행된 가장 큰 원인이었다. 물론 재계약과 소송을 통해 민간 회사인 실버스타인을 재건사업 밖으로 축출하는 것이 불가능 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항만청 입장에서는 재건사업 전체 예산 금액인 235억 달러 중 최대 70억달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실버스타인과 함께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다.<sup>235)236)237)</sup> 실버스타인은 보험사와의 소송을 거쳐 2007년 5월에 결국 45.5억달러를 받기로 결정되었다.<sup>238)</sup>

그는 9/11 사건 이후 16에이커 부지에 대한 마스터플랜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부지 북측의 7WTC 건물을 SOM에게 설계를 맡겨 독자적으로 재건한 후 2006년 5월에 오픈하였다. 전체 마스터플랜이 계획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주지사와 뉴욕시의 견제가 있었지만, 그는 건설을 계속 진행하였다.<sup>239)</sup>

또한 리베스킨트가 2003년 2월에 마스터플랜 공모전의 당선자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에서 가장 상징성을 지닌 1,776피트(약 541m)의 1WTC 설계자가 SOM의 차일즈(David M. Childs)가 된 것은 실버스타인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sup>240)241)</sup>

#### • LMDC(Lower Manhattan Development Corporation)<sup>242)</sup>

그라운드제로 재건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뉴욕주지사 파타키와 뉴욕시장 줄리아니가 공동으로 설립한 기관이다.<sup>243)</sup> 설립 당시의 취지는 항만청과 LMDC가 공동으로

235) CHARLES V. BAGLI, "Downtown's Rebirth, 10 Years and \$24 Billion Later," *New York Times*, 11 Sept. 2011 :4

236) 실버스타인의 보험에 의하면 WTC에 사고 발생시 최대 35억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실버스타인은, 9/11 사건 당시 2대의 비행기가 시간간격을 두고 각각의 건물에 충돌하였으므로 2건의 사고로 계산하여 70억달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일부 승소하여 45.5억달러를 받게 되었다.

237) CHARLES V. BAGLI, "VISIONS OF GROUND ZERO: NEWS ANALYSIS; Commercial Space Mix Could Affect Revenues And Race for Governor," *New York Times*, 17 Jul. 2002 :7

238) CHARLES V. BAGLI, "INSURERS AGREE TO PAY BILLIONS AT GROUND ZERO," *New York Times*, 24 May 2007 :1

239) 그가 항만청과 뉴욕시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속행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건물이 소실된 상태, 즉 임대수익이 없는 상태에서도 항만청에게 매월 1천만달러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공사를 강제로 중지시키면 실버스타인은 소송을 걸었을 것이다.

EDWARD WYATT, "Bloomberg and Pataki Say Rebuilding of Downtown Should Wait for Overall Plan," *New York Times*, 27 Feb. 2002 :4

240)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바로 1776년 7월 4일이다. 1WTC의 높이는 이러한 상징성을 반영하고 있다.

241) 사업 초기에는 프리덤 타워(Freedom Tower)로 불리우다가, 2009년 3월 보안 등의 이유로 1WTC로 이름을 바꾸었다.

"Freedom to Name That Tower," *New York Times*, 28 Mar. 2009 :20

242) <http://www.renewnyc.com>

243) EDWARD WYATT, "A NATION CHALLENGED: REBUILDING; Committee Leader Says

재건사업을 관리하자는 것이었으나, 두 기관간의 업무분장이 확실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요한 결정에 이르러서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다. 더구나 LMDC 는 뉴욕주의 경제 및 개발사업을 관리하는 엠파이어스테이트개발회사(Empire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의 보조금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뉴욕 주지사의 입김이 상대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었고, 임원 임명권도 초기에는 11명중 7명을 뉴욕주지사인 파타키가 가지고 있었다.(나머지 4명은 당시 뉴욕 시장인 줄리아 니가 지님)<sup>244)</sup><sup>245)</sup> 그러나 이후에 화이트헤드(John Whitehead)가 LMDC의 회장으로 임명되고 뉴욕시와 뉴욕주가 동등한 임명권을 가지게 되자, LMDC는 항만청 및 뉴욕주지사에게 대한 견제 역할을 하게 된다.

LMDC는 첫째, WTC 부지의 재건축에 대한 운영 및 공공참여를 보장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LMDC는 초기에 공공의 지지에 기반으로 권력을 형성하여 프로세스에 개입할 수 있었다. 2002년 7월에 열린 대규모 공청회인 리스닝투더시티(Listening to the city)를 주관하고 이후 리베스킨트의 마스터플랜 안을 지켜나가는 역할을 맡았으며,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의 의견을 프로세스에 반영하는 역할을 주로 맡게 되면서, 추모공원(Memorial) 및 지하의 뮤지엄, 그리고 지상의 방문자센터(Visitor Center)의 자금과 건립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권력의 성립배경에 대중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열린 프로세스를 가져야 할 의무도 안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법적인 권리와 경제적 인센티브를 강하게 엮어줄 것인가, 시민들의 심리적 충격에 대한 상징적인 사회적 요구를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 어떤 프로세스를 고안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했다. LMDC는 그라운드 제로에 대해서 열려있고 참여적인 프로세스를 만들겠다고 했다.<sup>246)</sup>

둘째, 부지와 부지 주변의 로어맨하탄의 조화로운 개발을 맡고 있었다. 대상 부지가 뉴욕시 안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뉴욕주 소속인 항만청의 소유 아래 있었기 때문에 LMDC는 뉴욕시의 입장을 대변하여 부지 주변과의 조화로운 개발을 주장하면서 부지 내부의 개발을 견제하게 된다.

Victims' Memorial Will Be Main Priority," *New York Times*, 30 Nov. 2001 : 8

244) 엠파이어스테이트 개발회사에 대해서는 다음의 웹사이트 참고. <http://www.esd.ny.gov>

245) 물론 이것은 민주당에 대해 공화당이 결정권을 지속시켜가려는 정치적 결정이었다. 즉, 2001년으로 공화당원 루돌프 줄리아니는 뉴욕시장 임기를 마쳐야 했기 때문에, 다음 시장선거에서 민주당원인 그린(Green)이 당선 될 경우, 총 11명 중 7명의 임명권을 공화당원인 파타키가 가져가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다음 시장으로 공화당원인 블룸버그가 당선되자 곧 임원 수를 12명으로 늘리고 6:6으로 뉴욕주와 뉴욕시 사이에 임원 임명권을 동등하게 분배하게 된다.

246) Maarten A. Hajer, "Rebuilding Ground Zero. The Politics of Performance," *Planning Theory & Practice*, 6(4) (2005) : 445-464, pp.445-446

###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셋째, 연방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공공부문 자금의 운용을 맡고 있었다. 연방 자금은 LMDC가 내부 프로세스에 개입할 수 있는 또 다른 권한을 주었다. 개발이 점차 진행되면서 LMDC는 힘을 잃어가고 회장인 화이트헤드가 사임하면서 LMDC는 공공 자금 관리로 역할이 축소된다.

- **추모재단(World Trade Center Memorial Foundation)<sup>247)</sup>**

추모재단은 LMDC와 더불어, 재건 사업에 뉴욕시의 입장을 반영시키는 역할을 했다.

2004년 12월에 추모공원과 내부의 뮤지엄, 그리고 공연장을 위한 추모재단이 설립되었다.<sup>248)</sup> 재단은 초기에 각각의 건물에 대한 모금을 진행하고, 공사 관리 또한 맡게 되었다(디자인 관리는 LMDC의 몫이었다). 그러나 2006년 7월에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공사를 항만청에게 일임하고 디자인 관리와 공사비 모금, 그리고 개관 이후의 운영 및 운영자금조달을 맡게 되었다.

초기에는 5억달러 모금을 목표로 하였으며, 도중에 모금의 중단 및 속행 압력으로 대표가 사임하는 등 정치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sup>249)</sup> 그러다 2006년 10월에 뉴욕시장인 블룸버그가 대표로 취임하면서 뉴욕시와 긴밀한 관계에 놓이게 된다.<sup>250)</sup>

- **뉴욕 주지사**

토지 소유자인 항만청을 통해 재건 사업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했던 기구로서, 2001년부터 2012년 사이에 총 네 명의 인물이 주지사를 거쳐갔다.<sup>251)</sup> 사업 초기의 전반적 구도 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은 2006년 말까지 재임했던 조지 파타키(George Pataki)다.

공화당의 실력가이기도 했던 그는 실질적으로 항만청과 초기 LMDC의 인사권을

---

247) <http://www.911memorial.org/>

248) DAVID W. DUNLAP, "Panel Is Picked To Raise Funds For Memorial," *New York Times*, 2 Dec. 2004 :1

249) DAVID W. DUNLAP, "Memorial Chief Quits as Plans Grow Confusing," *New York Times*, 27 May 2006 :1

250) DIANE CARDWELL, "Bloomberg Is Set to Take Reins Of 9/11 Memorial Foundation," *New York Times*, 4 Oct. 2006 :1

251) 네 명 주지사의 재임기간은 다음과 같다.

파타키(George Pataki) : 1995.01.01~2006.12.31 / 공화당

스피처(Eliot Spitzer) : 2007.01.01~2008.03.17 / 민주당 / 파타키 시절 뉴욕주 검찰총장을 지냄. 성매매 추문으로 사임

페터슨(David Paterson) : 2008.03.17~2010.12.31 / 민주당

쿠오모(Andrew Cuomo) : 2011.01.01~



주고 있었다. 초기 LMDC 설립시 11명의 위원 중 7명의 임명권을 지니고 있었으며, 화이트헤드를 회장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따라서 주요한 결정들에 있어 실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2005년 9월에는 국제자유센터(International Freedom Center)가 추모공원에 입주하는 것에 결정적 제동을 걸기도 했다. 물론 이것은 국제자유센터를 반대하는 시위와 여론에 따른 것이었지만, 추모공원과 부속시설이 LMDC의 관리 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sup>252)253)</sup>

파타키는 2008년 미국 대선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목표는 2006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라운드제로 사업을 주요 치적으로 남기기 위해 프로젝트를 상당한 정도로 진척시키는 것이었다.<sup>254)</sup> 이렇게 프로젝트를 서둘러야만 했던 그의 입장은 대중의 참여 정도를 줄이고 현상설계 당선자 선정과 같은 과정에서 외부로의 정보유출을 차단시켰던 것과 관계가 깊다. 또한 재정 지원 여부와 개발방향을 결정하는 실버스타인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시간에 쫓겼던 그는 종종 불리한 입장에 놓이곤 했다. 결국 소송 등으로 사업 진행이 매우 더디게 흘러가자 ‘임기 내 착공’으로 목표를 낮추었으며, 원하던 대로 2006년 3월과 4월에 각각 추모공원과 1WTC의 건설이 시작되었다.

#### • 뉴욕시

뉴욕시 자체는 재건사업에 대한 법적권한이 없었다. 사업부지는 뉴욕시 내부에 위치하였지만, 항만청의 소유부지였기 때문에 뉴욕시의 대규모 개발시 거쳐야 하는 토지이용심의절차(ULURP : Uniform Land Use Review Procedure)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즉, 시의 심의위원회와 지역커뮤니티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뉴욕시는 대상부지를 제어할 권한이 없었다.<sup>255)</sup>

그러나 2002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재임중인 블룸버그 시장의 노력으로 LMDC와 추모재단을 통해 희생자 유가족과 관련된 시설들에 대한 권한을 얻었으며, 실버스타인과 항만청 사이의 협상에서도 토론장에서의 담론, 즉 시민의 여론과 미디어를 기반으로 개입하기도 했다.

252) DAVID W. DUNLAP, "GOVERNOR BARS FREEDOM CENTER AT GROUND ZERO," *New York Times*, 29 Sept. 2005 :1

253) David W. Dunlap, "BLOCKS: An Unclear Role for an Oversight Agency at Ground Zero," *New York Times*, 10 Nov. 2005 :3

254) 그러나 그는 2008년 대선과정에서 공화당 경선후보가 되는 것에 실패했다.

255) ULURP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http://www.nyc.gov/html/dcp/pdf/luproc/lur.pdf>

- 건축가

그라운드제로는 많은 건축가들이 관계되었으며 상대적으로 건축가의 성향이 반영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1,2,3,4 WTC 디자인이 지금과 같은 모습(혹은 방향)으로 결정된 것은 건축가들을 선택한 래리실버스타인의 개인적 성향과 관계가 깊다고 볼 수 있다.

리베스킨트가 마스터플랜에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피스 건축을 하나도 말지 못한 것은 ‘대규모 오피스 경험이 없다’ 는 실버스타인의 견해 때문이었으며, 내심 말으려고 했던 교통환승센터를 말지 못한 것도 연방에서 ‘대규모 역사 설계 경험이 없다’ 는 지적 때문이었다.<sup>256)</sup>

## ② 관련 주체 - 토론장

토론장의 주체들은 수많은 공청회와 워크숍을 자체적으로 진행하였으며, LMDC와의 연계 하에 여론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이러한 주체들이 직접적 의사결정을 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2002년 7월의 대규모 공청회였던 리스닝투더시티에서 수렴된 의견들도 작업장의 의사결정권자들이 ‘참고’ 하는데 그쳤으며, 2002년 12월의 마스터플랜 심사 과정에서도 수많은 의견들이 수렴되고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었으나, 최종 결정은 그 의견들을 ‘참고’ 한 심사위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 뉴욕도심재건시민연합(The Civic Alliance to Rebuild Downtown New York)

9/11 이후에 결성된 첫 번째 민간 그룹으로서 85개 이상의 시민, 기업, 학계, 노동단체, 환경조직들이 연합하여 결성하였다. 2002년에 뉴욕 다운타운 재건에 대한 상세한 레포트를 내놓기도 했다. 이 단체는 9/11 재건사업을 로어맨하탄 재개발에 대해 토지 이용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보았으며, 중·저소득층의 요구조건을 대변하기도 했다.

- 뉴욕뉴비전(New York New Visions)

20개의 건축, 엔지니어링, 계획, 디자인 회사들이 연합하여 조직하였다. LMDC에게 플래닝과 디자인에 대한 조언을 하기도 했다. 2002년 1월에 어느 단체보다도 먼

---

256) ROBIN POGREBIN, "ARCHITECTURE: The Incredible Shrinking Daniel Libeskind," *New York Times*, 20 Jun. 2004 :1

저 로어맨하탄 재개발에 대한 원칙을 게시하기도 했다.<sup>257)</sup> 대중토론을 활성화할 계획으로 LMDC의 회장인 화이트헤드에게 공개서한을 보내기도 했는데, 여기에는 기념비의 디자인프로세스와 재건 나머지를 통합할 것, 보다 활기 있고 복합용도의 커뮤니티를 조성할 것, 대중교통 연결을 할 것과 같은 제안이 담겨있었다.<sup>258)</sup>

- **이매진뉴욕(Imagine New York)**

이매진 뉴욕은 911과 관련된 사람들의 발언을 수렴할 목적으로, 2002년 봄에 뉴욕시예술협회와 관련단체의 후원을 받아 설립되었다.<sup>259)</sup> 단기적인 이벤트로 I,II,III 과 같은 프로젝트 성 사업을 개최해왔다.

‘이매진뉴욕 I’ 은 2002년 6월에 열렸으며 사업 초기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3,500명의 참여자들이 230개의 워크샵과 온라인 게시판 및 이메일을 통해 19,000개의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으며 보고서를 결과물로 남겼다.<sup>260)</sup>

‘이매진뉴욕 II’ 는 WTC 디자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2002년 12월에 조직되었다.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2개의 워크샵에 참여하였으며, 5,000개 이상의 코멘트를 남겼다. 이 역시 보고서로 만들어졌으며 LMDC에 전달되어 계획안의 중요한 피드백으로 이용되었다. ‘이매진 뉴욕 III’ 은 2003년 12월에 열렸으며 추모공원 디자인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sup>261)</sup>

이매진뉴욕은 참여의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공공에게 직접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공공의 의견 전달을 통해 관료들이 의견 대립을 조율하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sup>262)</sup>

257) EDWARD WYATT, "GROUND ZERO: THE PROPOSALS; Everyone Weighs In With Rebuilding Ideas," *New York Times*, 12 Jan, 2002 :3

258) Susan Rosegrant, "Listening to the City : Rebuilding at New York's World Trade Center Site,"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Case Program, 2003, p.5

259) 뉴욕시예술협회는 1893년에 건축가, 화가, 조각가, 시민지도자들이 모여서 뉴욕 공공공간의 벽화와 기념물들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오늘날에는 그 역할을 확대하여 공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역할은 크게 ①시의 관청, 공원, 기념비에 대한 디자인관련 논의 ②민영 디벨로퍼의 공적 의무 ③도시 랜드마크와 역사지구 보존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뉴욕시예술협회는 많은 공적기구들의 설립을 가능하게 했다. 계획위원회(Planning Commission), 랜드마크 보존위원회(Landmark Preservation Commission) 등의 설립을 도왔고, 공공예술자금(Public Art Fund), 뉴욕랜드마크관리단(New York Landmark Conservancy), P.S.1, 역사지구자문위원회(Historic Districts Council), 파크아버뉴병참기지관리단(Park Avenue Armory Conservancy), 메트로폴리탄워터프론트연합(Metropolitan Waterfront Alliance)과 같은 다수의 시민조직과 예술조직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다. 또한 수많은 공공조각과 벽화의 보존사업을 진행했다

<http://mas.org/aboutmas/history/>

260) 자세한 내용은 3.3.2. 장 참고

261) 자세한 내용은 3.3.2. 장 참고

262) Susan Rosegrant, op.cit., p.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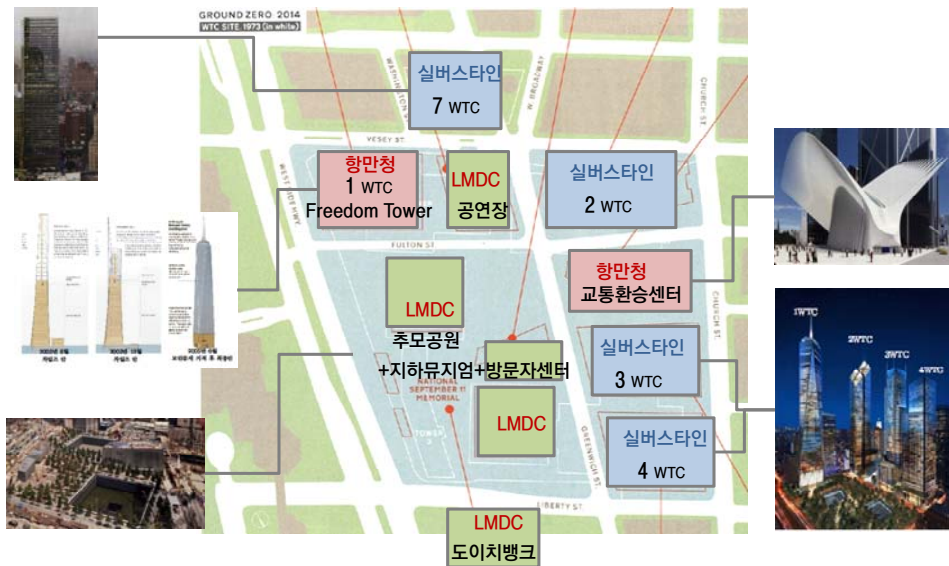
• 기타

희생자 유가족들은 주로 추모공원에 관심을 두면서, 재건사업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보다 추모에 대한 것들을 우선시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추모공원에 대한 생각에서 내부적인 의견의 불일치를 겪기도 했다.

로어맨하탄 거주자와 주변의 기업 소유자들은 16에이커 부지의 주변 지역이 이전처럼 활기를 띠게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학교, 도서관, 소매상점, 교통시설 등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되게 하도록 노력했다.<sup>263)</sup>

(3) 주요 건물

전체 부지에 진행되거나 완료된 건설공사는 다음 그림과 같다. 총 6동의 고층빌딩, 추모공원과 지하뮤지엄 및 방문자센터, 공연장, 교통환승센터가 계획되어 있다. 항만청은 1WTC와 교통환승센터 및 부지 전체의 기반시설을 담당하고 있으며, 실버스타인은 2WTC, 3WTC, 4WTC의 건설을 맡고 있으며 7WTC는 2006년에 문을 열었다. LMDC는 추모공원, 지하뮤지엄, 방문자센터, 공연장 등 주로 시민에 관련된 시설을 맡고 있다.



[그림 3-76] 2014년 개발 완료 후의 주요 건물 (기존의 타워1과 타워2 부지에는 지하로 패인 형상의 추모공원이 들어선다)  
출처 : Architectural Record 2011.09.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263) Susan Rosegrant, op.cit., pp.5-6

- 추모공원, 지하뮤지엄, 방문자센터

그라운드제로는 2,700여명이 사망한 장소였기 때문에 희생자들을 존중하는 것이 경제적 재개발보다 앞서야 했다. 재건 사업이 처음 논의될 때부터 추모공원(Memorial) 건립이 결정되었으며, 그에 대한 제안들이 쏟아져 나왔다.<sup>264)</sup>

2002년 7월에 파타키는 기존 쌍둥이빌딩 부지에는 아무것도 짓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으며, 곧이어 항만청에서 발표된 6개의 임시 계획안들은 그 선언을 준수한 것이었다.<sup>265)</sup> 2003년 2월에 국제지명현상설계를 통해 당선된 리베스킨트의 마스터플랜도 기존 건물 부지를 그대로 남겨 두고 있었다.

마스터플랜과는 별도로 진행된 추모공원 현상설계에서 전 세계로부터 5,201개의 안이 접수되었고, LMDC는 8개의 최종후보를 선정하여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를 참고하여 2004년 1월에 마이클 아라드(Michael Arad)가 당선자로 선정되었으며, 조경설계를 위해 피터 워커(Peter Walker)가 협력자로 지명되었다. 4월에는 데이비스 브로디 본드(Davis Brody Bond)가 지하뮤지엄 설계를 위한 건축가로 지명되었다.<sup>266)</sup>



[그림 3-77] 추모공원과 방문자센터  
(출처 : Architectural Record 2011.09)

지상의 방문자센터는 초기에 국제자유센터(International Freedom Center)와 드로잉센터(Drawing Center)가 입주하는 문화센터로 계획되었으나, 일련의 사건 이후 시민들의 반대로 입주가 무산되고 방문자 센터로 재설계되었다. 건축가는 스노헤타(Snøhetta)가 선정되었다.<sup>267)</sup>

이 건물들은 전체 소요비용인 약 9억달러 중 추모재단의 모금 4억달러가 투입되었다. 추모공원과 지하뮤지엄은 10주년인 2011년 9월 11일에 맞추어 개관하였으며

264) DINITIA SMITH, "Hallowed Ground Zero; Competing Plans Hope to Shape a Trade Center Memorial," *New York Times*, 25 Oct. 2001 :1

265) EDWARD WYATT, "Pataki's Surprising Limit On Ground Zero Design," *New York Times*, 2 Jul. 2002 :1

266) DAVID W. DUNLAP, "Architectural Team Is Chosen For Trade Center Memorial," *New York Times*, 14 Apr. 2004 :4

267) DAVID W. DUNLAP, "GOVERNOR BARS FREEDOM CENTER AT GROUND ZERO," *New York Times*, 29 Sept. 2005 :1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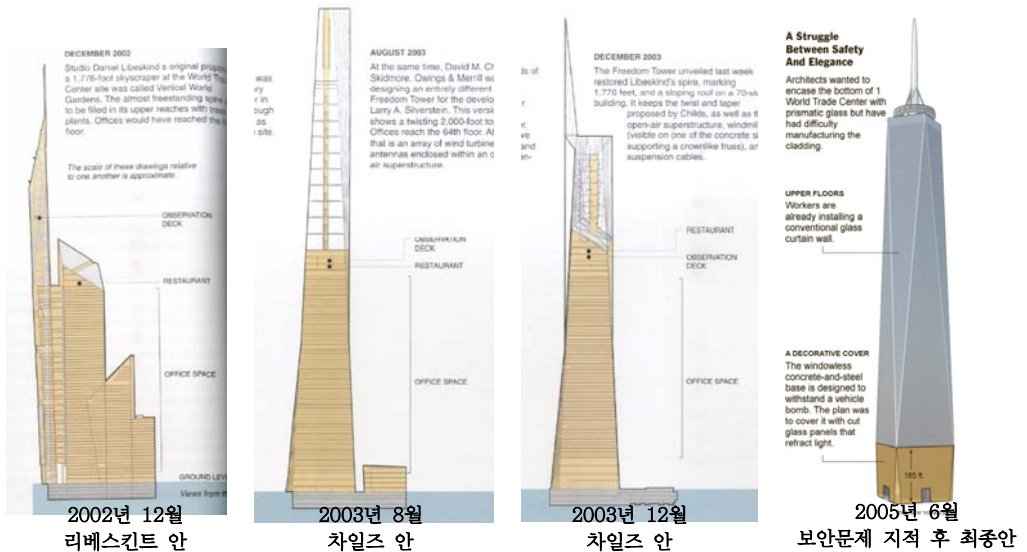
방문자센터는 11주년 기념일에 개관할 예정이다.

2012년 현재 추모재단이 디자인조정 및 모금과 운영을 맡고 있으며, 항만청이 공사를 관리하고 있다. LMDC는 초기의 의견수렴과 디자인 진행을 맡은 바 있었다.

• 1WTC (One World Trade Center, Freedom Tower)

16에이커 부지 내부에는 총 4동의 고층빌딩이 지어지는데, 부지 북서측에 위치한 건물로 가장 높고(1,776피트) 상징성이 크다. 초기에는 프리덤타워였던 명칭이 2009년 3월에 1WTC로 변경되었다.

설계는 실버스타인이 지명한 SOM의 데이빗 차일즈(David Childs)가 진행하였다. 그는 처음부터 1WTC의 공식적 건축가였으며, 2003년 2월에 당선되었던 리베스킨트의 마스터플랜에 포함된 계획을 참고하여 진행하였다.<sup>268)</sup> 2005년 5월에 뉴욕경찰청에서 테러 공격에 대한 건물의 보안문제를 지적한 후 건물이 전면적으로 수정되었는데, 하부 디자인이 두터운 콘크리트로 변경되면서 초기의 리베스킨트 계획의 특징이었던 형태의 비대칭성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림 3-78] 1WTC 디자인 변화  
출처 : Imagining Ground Zero, New York Times

268) 리베스킨트도 설계에 협력하였으나, 진행은 차일즈의 의견대로 주도되었다. 의견 충돌이 있을 때는 주로 차일즈의 의견을 반영하였다고 한다. 다음을 참고  
DEBORAH SONTAG, Clifford J. Levy, "The Hole in the City's Heart," *New York Times*, 11 Sept. 2006 :1

초기에는 실버스타인이 SOM의 차일즈에게 의뢰하여 설계를 진행하다가 2006년 4월에 항만청에게 모든 권리를 넘긴다. 거래 완료 직후 착공에 들어갔으며, 2013년 완공 예정이다. 총 공사비용은 초기에 20억달러를 예상하였으나 공기 지연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32억달러로 증가하였다.

• **교통환승센터 (Transportation Hub)**

교통환승센터는 기존 WTC 부지에 있었으며, 소실 후 원활한 소통을 위해 3.2억달러를 들인 임시환승센터를 2004년 1월에 오픈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항만청에서 몇몇 회사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은 후 2003년 8월에 칼라트라바를 교통환승센터의 디자이너로 선정하였다.<sup>269)</sup>



[그림 3-79] 칼라트라바의 교통환승센터 예상도  
(출처 : Architectural Record 2011.09)

이후 2004년에 1월에 디자인이 공개되고 예산은 20억 달러로 책정되었다. 1WTC와 마찬가지로 2005년에 뉴욕경찰청으로부터 보안 문제를 지적받아 갈비뼈모양의 구조물을 2배 강화하는 방향으로 디자인이 수정되었다.<sup>270)</sup> 2008년에는 공사비를 25억달러로 유지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디자인 수정을 가했으며, 그러면서 열릴 수 있는 가변형 천장에 대한 부분을 폐기하였다.<sup>27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 지연과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2012년 2월에는 40억달러까지 예산이 증가한 상태다.<sup>272)</sup>

• **2WTC, 3WTC, 4WTC**

Church St.를 따라 늘어선 2WTC, 3WTC, 4WTC는 해당 건물의 개발 권리를 지

269) 리베스킨트는 현상설계 당선 후, 항만청에서 담당할 교통환승센터 설계를 맡고 싶어했으나, 연방정부에서 보다 숙련된 해당시설 유경험자를 선정하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에 칼라트라바에게 설계권을 넘겨야 했다.

EDWARD WYATT, "Trade Center Arguments Fade, And a Single Vision Is Emerging," *New York Times*, 1 Aug. 2003 :1

270) DAVID W. DUNLAP, "Approval Expected Today For Trade Center Rail Hub," *New York Times*, 28 Jul. 2005 :3

271) DAVID W. DUNLAP, "Citing Budget, Port Authority May Trim Plans for Hub at Trade Center Site," *New York Times*, 16 Apr. 2008 :4

272) CHARLES V. BAGLI, "Port Authority Called 'Dysfunctional' as Trade Center Costs Rise," *New York Times*, 8 Feb. 2012 :22

닌 실버스타인의 주도하에 건축가가 선정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리베스킨트의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는 건물의 높이가 시계방향을 따라 차차 낮아지는 정도만 반영되었다.

세 동의 건물은 각각 20억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2WTC는 노먼 포스터가, 3WTC는 리처드 로저스가, 4WTC는 후미히코 마키가 설계를 맡았다.

부지에 1WTC를 포함한 네 동의 건물이 비슷한 시기에 완공될 경우 로어맨하탄의 오피스 공급 과잉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항만청과의 협상을 통해 지원금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각각의 개발 시기를 조정하였다.<sup>273)</sup> 2WTC는 일단 건설이 연기되었으며, 3WTC는 실버스타인이 임차자를 구하는 조건부로 6억달러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2012년 2월 현재 임차자를 구하지 못하여 하부 몇 개층만 건설하여 소매시설로 운영할 예정이다. 4WTC에는 전체 면적의 절반가량에 항만청이 입주하기로 하였으며, 2013년 완공 예정이다.



[그림 3-80] 2WTC, 3WTC, 4WTC의 예상도  
(출처 : New York Times)

#### • 공연장 (Performing Arts Center)

추모공원, 뮤지엄, 방문자센터와 함께 WTC부지의 문화시설을 이루고 있으며, LMDC와 추모재단에서 공동 담당하고 있다. 1WTC의 동측 부지에 계획 중이며, 2012년 현재 해당 부지는 임시 교통환승센터로 사용되고 있다. 칼라트라바의 교통환승센터 완공 후 공사가 시작될 것이다.

설계는 프랭크 게리가 맡았다. 입주 업체는 초기에 4개였으나, 2007년 3월에 무용을 위주로 하는 조이스 극장(Joyce Theater)만 남게 되었다.<sup>274)</sup> 2009년에는 비용 절약 및 공기단축을 위해 16에이커 부지 남쪽의 도이치뱅크 빌딩 부지로 옮겨가는

273) CHARLES V. BAGLI, "Tentative Deal Is Reached For 2 Trade Center Towers," *New York Times*, 26 Mar. 2010 :20

274) ROBIN POGREBIN, "Ground Zero Arts Center Won't Have Theater Company, Only Dance," *New York Times*, 28 Mar. 2007 :1



방법도 제안된 바 있다.<sup>275)276)</sup> 2011년 말에 모금을 위한 추모재단의 이사를 새로 임명하려는 등, 자금 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sup>277)</sup>

#### • 7WTC

항만청 소유부지이며, 실버스타인이 개발에 대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 실버스타인이 마스터플랜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진행하여 2006년 5월에 오픈하였다. 설계는 SOM에서 맡았으며 52층의 오피스 건물이다. 역시 항만청 소유부지이므로 뉴욕시의 토지이용심의절차(ULURP)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조속하게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절차와는 별개로 뉴욕시의 시민자치위원회 1(CB1)은 실버스타인에게 부지 동측의 삼각형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LMDC를 통해 제안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실버스타인 측에서 3백5십만달러를 들여 공원으로 조성되었다.<sup>278)279)</sup>



[그림 3-81] 7WTC (출처 : wikipedia.org)

#### (4) 전체 기간 동안의 미디어 보도 추이

테러리스트들의 비행기 공격이 발생했던 2001년 9월 11일부터 2012년 3월 31일 까지 뉴욕타임즈에 실린 그라운드제로 관련 기사들 수는 총 5,587건이다.<sup>280)</sup> 2001년 9월 한 달 동안에만 662건(전체의 12%)의 기사가 실렸으며, 1주기를 맞는 2002년 9월까지 13개월간의 기사 수가 3,698건으로 전체의 39.4%에 해당한다.<sup>281)</sup>

275) 120 Liberty St. 에 위치한 도이치뱅크빌딩은 2001년 WTC붕괴시 15개 층이 손상을 입었으며, 붕괴 당시의 유독물질 오염으로 인해 사용되고 있지 않다가 LMDC가 매입 후 2009년에 철거하였다.

276) ROBIN POGREBIN, "Planned Downtown Arts Center May Be Relocated to Deutsche Bank Building Site," *New York Times*, 18 Jul. 2009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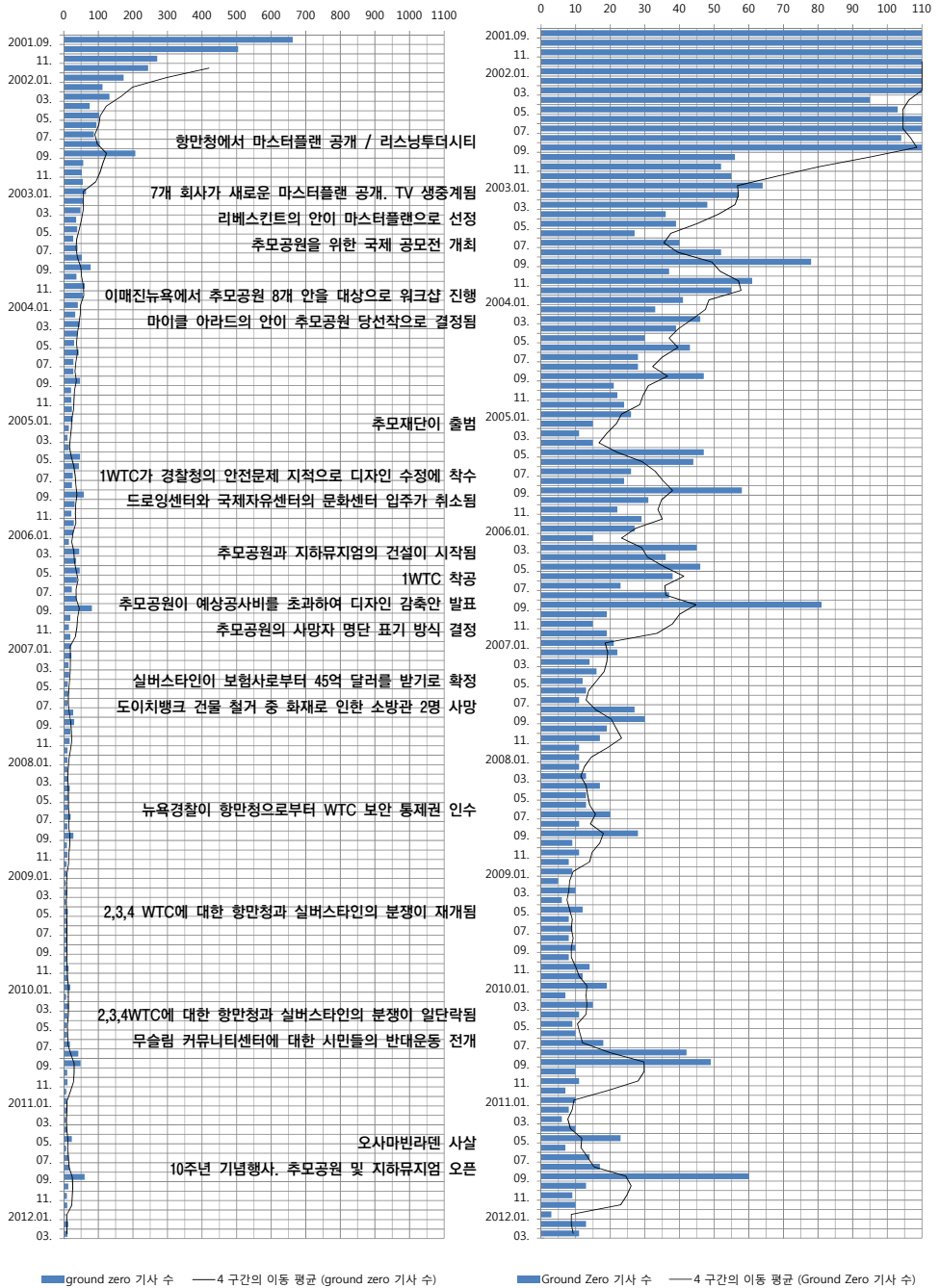
277) PATRICIA COHEN, "Board for Arts Center At Trade Center Site," *New York Times*, 31 Dec. 2011 :2

278) EDWARD WYATT, "7 World Trade Is Envisioned As a Gateway," *New York Times*, 14 May 2002 :1

279) DAVID W. DUNLAP, "Design for Peaceful Park At Ground Zero Is Revealed," *New York Times*, 12 Nov. 2004 :4

280) 엡스코(EBSCO)의 Newspaper Source Plus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하였다. 검색어는 'Ground Zero or World Trade Center and New York' 로 설정하였고, 검색 결과중에서 2001년 9월 11일 이전은 제외하였다. 또한 기사의 종류 중, Obituary, Letter, Image, Erratum, Excerpt, Interview, Proceeding(총 62건)은 제외하고 Article만 추출해냈다.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그림 3-82]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기사 추이 (기간 : 2001.09~2012.03)

좌 : 그래프의 최대 표시값을 1100으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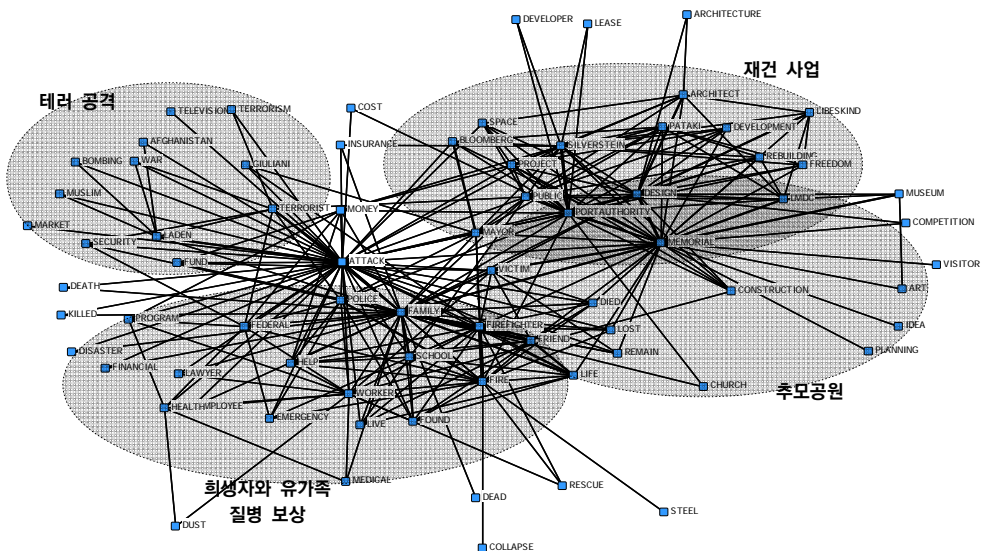
우 : 그래프의 최대 표시값을 110으로 설정(좌측의 그래프를 확대)

281) 단순 부고 기사는 제외하였다.

관련 기사는 해마다 9월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2002년 10월 이후로는 5주기를 맞은 2006년 9월에 최대값(81건)을 보인다.

해마다 9월에 증가하는 ‘○주기 기념’에 대한 기사수를 제외하고 보았을 때, 전체 기간 중에 기사들이 급증하는 피크 구간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건들의 기사가 혼합되어 증가하기 때문에 DDP의 사례처럼 특정한 주제들로 해당 기간 기사의 내용이 수렴되는 것은 아니다. 주요한 사건들을 시간 순에 따라 그래프에 나란히 표시하였다.

다음으로 전체 기사들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주요한 189개의 단어를 바탕으로 공동참여연결망을 만들어보았다.<sup>282)</sup> 9/11 테러는 미국의 패권주의를 겨냥한 이슬람 무장세력의 공격으로서, 전 세계를 뒤흔든 정치적 사건이었다. 9/11 이후 이라크전쟁이 시작되었으며, 오사마 빈 라덴이 사살(2011.05.01)되기까지 수많은 군사작전이 전개되었다. 뉴욕타임즈에서 다룬 전체 기사들은 다음과 같은 키워드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3-83] 그래운드제로 관련 뉴욕타임즈 전체 기사에 대한 공동참여연결망 ( links ≥ 3000)

공동참여연결망을 보면 전체 기사들이 대부분 ‘공격(attack)’을 언급하면서 다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기사의 내용을 참고하여 키워드 분포들을 구분해보면 네 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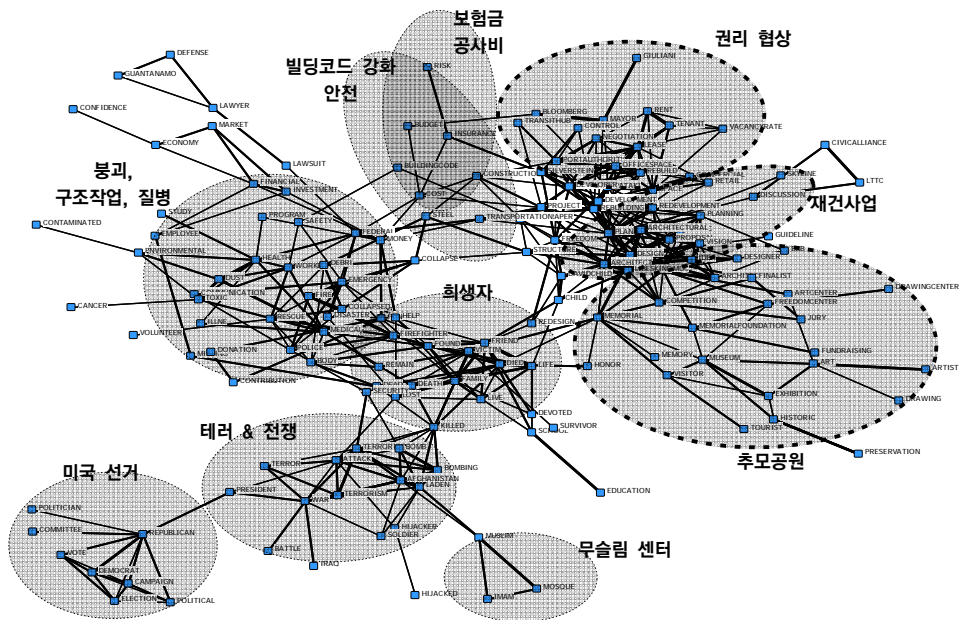
282) 우선, 추출한 기사들(약 3천만 자, A4용지로 8,700쪽분량)을 바탕으로 키워드 빈도분석을 하였다. 빈도분석 후 주요 단어를 자동·수동적으로 추출하여 189개의 단어를 선정한 후 연결망분석을 실시하였다.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그룹으로 묶어 볼 수 있다. 좌측의 두 그룹은 테러 공격과 그로 인한 희생자를 다룬 기사들이다. 우측의 두 그룹은 재건사업에 대한 것인데, 우측하단은 ‘추모공원(Memorial)’ 을 중심으로 키워드들이 분포하고 있고 우측상단에는 재건사업과 관계된 다수의 키워드들이 분포한다. 중심에 위치한 것은 ‘실버스타인(Silverstein)’ , 뉴욕주지사 ‘파타키(Pataki)’ , ‘항만청(PortAuthority)’ 으로서 전체 기간동안 개발권리에 대한 분쟁이 기사에서 주로 다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283)</sup>

또한 위의 연결망은 연결선 3,000개 이상을 본 것으로서, 자주 등장하지 않은 키워드들은 제외된 것이다. 즉, DDP와는 달리 건축디자인에 대한 기사가 매우 많은 빈도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284)</sup>

다음으로 주제들의 그룹을 보다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 유사성연결망을 만들어보았다.



[그림 3-84] 그래운드제로 관련 뉴욕타임즈 전체 기사에 대한 유사성연결망 (  $r \geq 0.20$  )

유사성연결망을 보면 전체 담론들이 어떠한 관계망을 지니고 분포하는지 보다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다. 우측에 굵은 점선으로 표현한 그룹들은 건축디자인에 대한

283) 공동참여연결망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일수록 중심에 위치할 확률이 높다.

284) 이것은 신문기사를 통해 작업장에서의 논의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근거가 된다. 물론 기사 내용을 검토하여 검증해야 할 것이다.

것이다. 각각의 담론들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모공원’ 그룹 부터 반시계방향으로 설명하였다.

[표 3-37] 그라운드제로 전체 유사성연결망에서 나타난 담론 그룹의 개요

담론 그룹	개략적 내용
건축디자 자인	<b>추모공원</b> 그림상에서 해당 그룹의 맨 좌측에 있는 추모공원(memorial)으로부터 우측으로 키워드들이 분포한다. 키워드들은 추모공원, 현상설계, 뮤지엄, 방문객센터 등을 포함한다. 또한 문화시설이라는 점에서 공연장(artcenter)도 그룹 안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추모공원에 인접한 문화센터의 입주 단체로 거론되었던 국제자유센터(Freedom Center), 드로잉센터(Drawing Center) 등도 포함되어 있다. 그림상으로 재건사업 그룹과 구분하였지만, 실제적으로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다.
	<b>재건사업</b> 추모공원, 재건사업, 권리협상 그룹이 모두 재건사업에 해당되지만, 추모공원과 권리협상 부분을 우선 구분하고 나머지 부분을 하나로 묶었다. 건축디자인과 관련된 키워드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b>권리협상</b> 실버스타인, 파타키 등 사업기간 내내 개발권리에 대한 협상을 벌였던 인물들의 이름과 그 내용(협상, 임대, 입차자, 공실률, 오피스면적 등)에 대한 키워드들 위주로 포함되어 있다.
건축디자 자인	<b>보험금, 공사비</b> 재건사업의 공사비용은 여러 가지 재원으로 이루어졌다. 크게 볼 때, 연방의 지원금, 실버스타인의 보험금, 민간 기부금 등이다. 해당 그룹은 그러한 키워드들로 이루어져 있다.
	<b>빌딩코드 강화, 안전</b> WTC 붕괴 이후, WTC에 코어가 하나 더 있었다면 사망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화재 발생시 붕괴하지 않는 안전성에 대한 내용들도 거론되었다. 이러한 내용이 이 그룹의 키워드들에 반영되었다.
	<b>붕괴, 구조작업, 질병</b> WTC건물 붕괴 전후로 구조작업이 실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소방관과 봉사자들이 사망하였다. 그리고 현장의 많은 작업인부들이 작업 이후에 암이나 호흡기 질병을 앓거나 사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었으며, 연방정부의 지원과 보상도 이루어졌다.
	<b>희생자</b> 건물붕괴로 인하여 2,700여명이 사망하였으며, 2008년까지도 주변 건물에서 시신의 일부를 수거하는 작업이 계속되었다. 또한 희생자 유가족이 지속적으로 재건사업 및 사후 처리 문제에 관계되었다.
	<b>테러 &amp; 전쟁</b> 미국은 9/11 직후 관련자들을 응징할 것을 선언하였고, 이것은 10여년에 걸친 이라크 전쟁과 빈라덴 암살 등으로 이어졌다.
외	<b>미국 선거</b> 전쟁과 관련한 내용은 10년간 미국의 각종 선거에서 이슈로 거론되었다.
	<b>무슬림 센터</b> 2010년 5월에 그라운드제로로부터 북쪽으로 두 블록 떨어진 곳에 한 이슬람단체가 모스크를 표현한 이슬람센터를 지으려고 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것은 곧 대대적인 반대 시위로 이어지고 시장, 주지사, 대통령까지 관련 문제에 입장표명을 하는 등 전국적인 문제로 번져나갔다.

다음으로 건축디자인에 그룹과 인접 그룹과의 연결에 대해 살펴보겠다. 건축디자인 그룹으로 분류되는 ‘추모공원’, ‘재건사업’, ‘권리협상’은 다른 담론들과 크게 3가지 경로로 연결된다.

###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첫째, ‘추모공원’ 과 ‘희생자’ 간의 연결 관계다.

9/11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추모하고 존중하는 의미에서 기존 건물 부지에 아무것도 짓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그 자리에 추모공원을 건립하게 되었다. 추모공원에는 희생자와 구조작업자들 모두 안치되었다. 희생자들의 이름을 추모공원 둘레에 어떠한 순서로 나열하여 새길 것인가의 문제가 계속 논란 위에 올랐다.

둘째, ‘재건사업’ 과 ‘붕괴’ 사이의 연결관계다.

테러로 인한 사망, 그리고 건물 붕괴로 인한 2차적 사망이 발생하였다. 테러는 보안에 관계되고 건물붕괴는 빌딩코드와 관계된다. 새로 짓는 건물들, 특히 1WTC와 추모공원, 교통환승센터의 보안이 계속해서 강조되었다. 빌딩코드 강화도 뉴욕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는데, 2007년에 도이치뱅크를 철거하면서 소방관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다시 발생하자 빌딩코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즉, 건물 붕괴와 재건 사업 사이에는 보안과 안전이라는 연결고리가 있다.

셋째, ‘질병’ 과 ‘재건사업’ 사이의 연결 관계다.

이것은 연방(federal), 돈(money), 비용(cost), 보험(insurance), 교통(transportation) 등의 중간 키워드들을 거친다. 그러나 이것은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질병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방의 보상 문제와 연방이 교통환승센터 설계자 선정에 개입하고 재건 사업 전반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관련 키워드(연방, 비용, 돈)들로 연결된 것으로 내용상으로 질병과 재건사업은 별로 관계가 없다.

이처럼 전체 기간 동안의 연결망을 통해서 볼 때, 건축디자인과 나머지를 연결해주는 것은 희생자와 관련된 추모공원, 그리고 보안과 안전 문제였다. 물론 이러한 관계는 전체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음에 틀림이 없지만, 전체적으로 일어났던 사건과 역학관계를 모두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sup>285)</sup>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특정한 주제들에 관련된 기사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

285) 5,587개의 기사를 198개의 키워드로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1차적 분석 프로그램인 'fulltext' 는 255개의 키워드가 분석 한계이므로 많은 키워드들을 담아 분석할 수도 없었다.

### 3.3.2. 토론장과 작업장의 전개 양상

여기서는 주요한 사건의 전개에 따라 토론장이 작업장과 영향을 주고받은 내용을 분석한다. 단, 시애틀공공도서관이나 동대문디자인파크의 사례와는 달리, 토론장의 담론을 위주로 분석할 것이며 작업장의 전개 내용도 토론장에 드러난 것들을 위주로 다룰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다. 첫째, 신문기사에서 작업장 주체들의 분쟁, 건물의 디자인 및 그 변화에 대해 매우 상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토론장의 하나로서 신문기사 상에서 다루어진 작업장의 전개 내용을 보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둘째, 건물의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토론장의 담론에 대한 작업장의 변화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셋째, 재건 사업과 관련한 폭 넓은 사회적 담론의 확산과 수렴을 보는 것이 앞의 두 사례와 비교할 때 그라운드제로를 통해 볼 수 있는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분석은 전체적으로 다음의 열 가지 주제에 대해 진행하였다. 각 주제마다 표기된 기간은 담론의 정확한 시작과 끝을 가리킨다기보다, 각각의 주제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진 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 (1) 재건에 대한 사회적 합의 (2001.09~2002.06)

##### ① 신문 기사를 통해 본 토론장과 작업장의 논의

테러 사건 이틀 뒤인 9월 13일에 뉴욕 시장 줄리아니(Rudolph W. Giuliani)는 재건사업을 통해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sup>286)</sup> 테러 6주 전에 쌍둥이빌딩 두 동에 대한 99년 임대계약을 맺었던 실버스타인도 무역센터를 다시 지을 것을 확실히 했으며 동시에 죽은 이들을 기리는 추모공원을 만들어야 하는 점에도 동의했다.<sup>287)</sup> 그는 9월에 바로 SOM을 고용하여 계획안을 만들고 10월에 50층의 타워 디자인을 공개하기도 했다.<sup>288)289)</sup>

286) JOHN TIERNEY, "The Big City; Restore the Skyline, but Do It the New York Way," *New York Times*, 14 Sept. 2001 :11

287) 실버스타인은 200여명의 재계약사가 모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곳에 추모공원이 있어야 할까요? 물론입니다. 높이는 110층이 되어야 할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월드트레이드 센터, 즉 뉴욕의 상징을 새로 건설해야 할까요? 물론입니다. 망설임 없이 그래야만 합니다"

TERRY PRISTIN, "A NATION CHALLENGED: REPORTER'S NOTEBOOK; A Vow to Rebuild," *New York Times*, 18 Sept. 2001 :8

288) ALESSANDRA STANLEY, "A NATION CHALLENGED: THE REAL ESTATE; Trade Center Leaseholder Pledges to Rebuild," *New York Times*, 5 Oct. 2001 :1

###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재건사업이 진행될 것이 점차 확실해지자 사업의 주도권에 대한 신경전이 시작되었다. 뉴욕시의원들은 재건사업이 시의 고유권한이라고 말했으며, 뉴욕시 행정당국은 이에 대해 항만청과 뉴욕주정부, 그리고 뉴욕시의 3개 기관이 관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강력한 새로운 관리 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sup>290)</sup> 그러나 사실상 부지의 소유권은 항만청에게 있었으므로 항만청의 실질적 결정권자인 뉴욕주지사 파타키의 뜻대로 재건사업을 결정하여 진행할 수 있었다.<sup>291)</sup>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관련되어 있었고 사업 자체가 계속해서 공론화되었기 때문에, 파타키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될 것을 우려하여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았다.

부지와 그 주변을 한 데 엮어 관리할 새로운 관리기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2001년 11월 29일에 LMDC의 설립이 공표되었다. LMDC 의장인 화이트헤드(John C. Whitehead)는 취임연설에서 추모공원(memorial)을 짓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말했다.<sup>292)</sup> 그는 거대한 오피스빌딩을 짓는 것에 반대하면서 희생자 유가족, 주변 거주자 및 상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sup>293)</sup> 2001년에 임기가 만료되는 뉴욕시장 줄리아니 역시 그라운드제로가 경제논리로 재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sup>294)</sup>

전문가들과 각종 단체의 전시와 발언이 이어졌다. 리베스킨트, 자하하디드와 같은 50여명의 건축가들이 2002년 1월 17일부터 한 달 동안 맥스프로태치갤러리(Max Protetch Gallery)에서 재건사업에 대한 제안을 표현한 전시회를 열었다.<sup>295)</sup> 뉴욕 뉴비전(New York New Visions)역시 52페이지의 레포트를 발간하여 추모공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로어맨하탄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교통 경로를 제안하기도 했다. 뉴욕도심재건시민연합(The Civic Alliance to Rebuild Downtown New York)에서도 시민 포럼을 열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경제 단체나 학계에서도 자체

---

289) DINITIA SMITH, "Hallowed Ground Zero: Competing Plans Hope to Shape a Trade Center Memorial," *New York Times*, 25 Oct. 2001 :1

290) ERIC LIPTON, "A NATION CHALLENGED: TURF BATTLES; Conflicting Visions of How to Rebuild Lower Manhattan," *New York Times*, 21 Sept. 2001 :1

291) "Rebuilding Downtown New York," *New York Times*, 20 Oct. 2001 :22

292) EDWARD WYATT, "A NATION CHALLENGED: REBUILDING; Committee Leader Says Victims' Memorial Will Be Main Priority," *New York Times*, 30 Nov. 2001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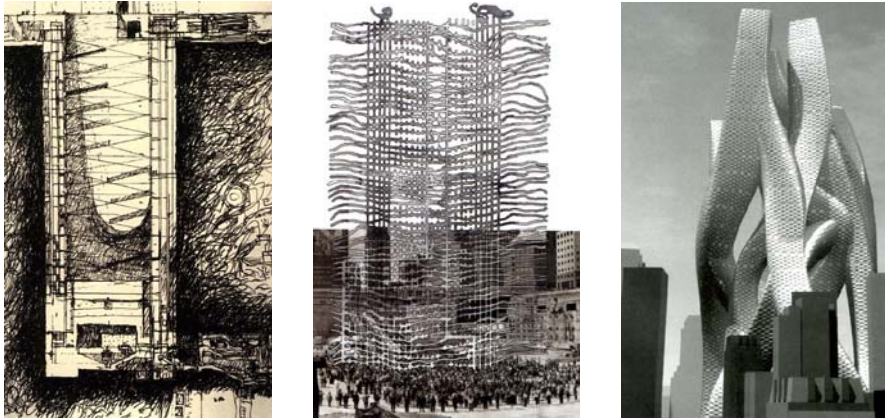
293) EDWARD WYATT, "Bloomberg Vision For Ground Zero: Memorial and More," *New York Times*, 4 Jan. 2002 :1

294) DIANE CARDWELL, "IN FINAL ADDRESS, GIULIANI ENVISIONS SOARING MEMORIAL," *New York Times*, 28 Dec. 2001 :1

295) AMY GOLDWASSER, "CURRENTS: ARCHITECTURE; Optimistic Visions For Trade Center Site," *New York Times*, 10 Jan. 2002 :3



적으로 포럼을 개최하였다.<sup>296)</sup> 이매진뉴욕(Imagine New York)에서도 250개의 위크샵을 주도하여 4,000여명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그 결과를 2002년 6월에 보고서로 발간하기도 했다.



[그림 3-85] 맥스프루태치갤러리 전시회에 출품된 건축가들의 제안. 좌로부터 사무엘 막비, 자하히드, 녹스  
(출처 : Imagining Ground Zero)

그러나 사업에 대한 목소리가 엇갈리면서 확실한 방향은 아직 불투명하게 남아있었다. 실버스타인은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 많은 상업공간을 만들기를 원했으며, 줄리아니는 부지 전체에 아무것도 짓지 말고 추모공원으로 남겨두자고 했으나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뉴욕시장인 블룸버그와 LMDC의장 화이트헤드는 로어 맨하탄 전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복합용도(mixed-use)로 개발하기를 원했다. 이렇게, 부지에 대한 법적 권한을 지닌 기구의 목소리들이 높아지는 반면 공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치는 없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그들은 마구 지어버리려는 듯하다” 며 비판하기도 했다.<sup>297)</sup>

2002년 5월 23일에는 LMDC와 항만청의 후원으로 PACE 대학에서 750여명이 모인 3시간동안의 공청회가 열렸다. 이 공청회에서 전체의 75%가 재건축을 찬성함으로써, 재건에 대한 사실상의 합의가 확인되었다. 이들은 ‘미국의 정신을 보여주자’, ‘재건을 통해 테러리스트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자’, ‘건물 이름은 WTC 그대로 하자’ 등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재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추모공원 건립, 소기업 및 저소득층 지원, 부지의 기반시설 투자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다.<sup>298)</sup>

296) EDWARD WYATT, "GROUND ZERO: THE PROPOSALS; Everyone Weighs In With Rebuilding Ideas," *New York Times*, 12 Jan, 2002 :3

297) EDWARD WYATT, "GROUND ZERO: PLANNING; Many Voices, but Little Dialogue On Memorial for Trade Center Site," *New York Times*, 26 Jan, 2002 :1

###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재건 사업에 대한 의견과 비판의 목소리가 교차되는 가운데, 임시 추모공원의 운영이 거론되었다. 희생자 유가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WTC 건물 앞에 있던 프리츠 쾨니히(Fritz Koenig)의 ‘손상된’ 구(Sphere)와 함께 88개의 고성능 써치라이트를 이용한 ‘빛의 헌사(Tribute in Light)’가 임시 추모비로 결정되었다.<sup>299)</sup>



[그림 3-86] 쾨니히의 구(sphere) (출처 : Daily News)



[그림 3-87] Tribute in Light (출처 : 뉴욕시예술협회)

재건사업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오고가면서 대체적인 원칙들이 세워졌다. 기존 쌍둥이빌딩이 있던 7에이커 부지에는 추모공원을 짓고, 나머지 9에이커의 부지에는 연 1억 2천달러 이상의 임대수익을 낼 수 있는 오피스 및 상업시설을 포함하여 개발하기로 했다.<sup>300)</sup> 그리고 7에이커의 부지는 도로를 경계로 나머지 대지와 분리시키기로 했는데, 이것은 70년대에 쌍둥이빌딩이 들어서기 전의 가로조직 일부를 회복시키는 것으로서 로어맨하탄 전체의 교통 흐름을 고려한 것이었다.<sup>301)</sup>

이제까지 테러사건부터 2002년 6월까지의 재건사업에 관련된 논의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2001년 9월부터 2002년 6월 까지의 뉴욕타임즈 기사들 중 재건사업에 관계된 기사들을 대상으로 주요 키워드에 대한 유사성 0.3 이상의 연결망을 표현해 보았다.<sup>30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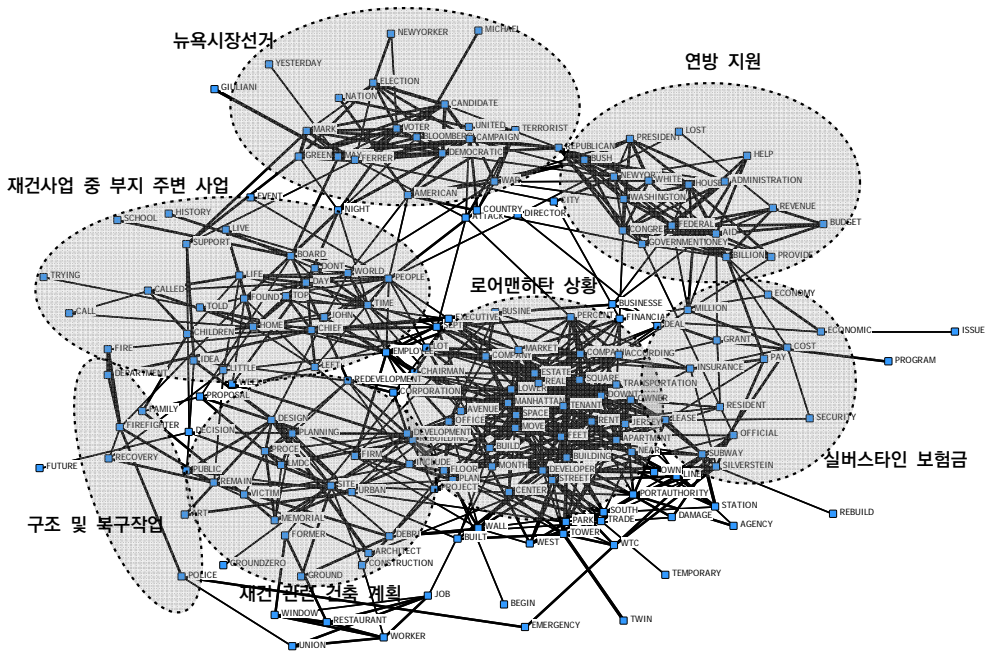
298) EDWARD WYATT, "At Hearing, A Resolve To Rebuild Twin Towers," *New York Times*, 26 May 2002 :33

299) 쾨니히의 ‘구(Sphere)’는 WTC 건물 앞 공원에 있었는데, 테러 공격에서 약간의 정도만 찌그러진 채 온전하게 보존되었다. ‘빛의 헌사(Tribute in Light)’는 88개의 고성능 써치라이트를 이용하여 2002.03.11부터 2002.04.13일까지 매일 밤 18시부터 23시까지 하늘을 향해 빛을 수직으로 쏘아올렸다. DAN BARRY, "A NATION CHALLENGED: MEMORIALS: Minutes of Silence and Shafts of Light Recall New York's Dark Day," *New York Times*, 12 Mar. 2002 :1

300) 실버스타인은 99년의 임대기간동안 월 1천만달러의 임대료를 항만청에 지급해야 했다. 따라서 계약상 임차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오피스 공간을 지어야만 했다.

301) EDWARD WYATT, "Blueprint for Ground Zero Begins to Take Shape," *New York Times*, 4 May 2002 :1

302) 해당 기간동안 ‘rebuild’라는 단어를 포함한 276개의 기사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이 기사들에서 출현빈도가 높은 197개 키워드를 대상으로 유사성연결망을 만들었다.



[그림 3-88] 2001.09~2002.06 까지 재건사업을 다룬 기사들의 주요 키워드들의 유사성연결망 ( $r \geq 0.3$ )

우선 논의의 중심에는 ‘로어맨하탄 상황’ 을 보여주는 키워드들이 있다. 재건사업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문제는, 안전에 대한 문제로 로어맨하탄의 입주자들이 서서히 미드타운으로 이동해가는 상황에서 건물을 지어서 오피스 공간을 공급할 경우 임차자를 찾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해당 키워드들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바로 인접한 ‘실버스타인 보험금’ 은, 실버스타인이 테러공격으로 인한 재산손실에 대한 보험금을 타는 것과 관련한 키워드들이 있다. 이 그룹이 ‘로어맨하탄 상황’ 과 인접한 까닭은, 실버스타인의 보험금은 모두 받을 경우 70억 달러가 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재건사업의 규모와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실버스타인이 로어맨하탄에 오피스를 무리하게 공급할 경우에 대한 우려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 위로는 ‘연방 지원’ 에 대한 키워드들이 있다. 연방 지원금은 실버스타인의 보험금과 더불어 재건사업의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 그룹의 왼쪽 옆은 2001년 하반기에 있었던 뉴욕시장선거에 대한 키워드들이다. 시장 후보들이 각종 공약을 내거는 가운데 그래운드제로 재건사업이 포함되었음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리고 해당 부지가 항만청의 소유인 만큼, 뉴욕시에서는 주변 부지에 대한 약속 위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 그룹에서는 ‘아이들(children)’ 과 ‘학교

(school)' 등이 눈에 띈다. 다시 이 키워드들은 다시 '재건 사업에 관련된 건축계획' 그룹과 연결된다. 아직 사업의 초기라 구체적인 디자인에 대한 단어는 크게 눈에 띄지 않으며, LMDC, 절차(process), 추모공원(memorial), 디자인(design)등 비교적 범주가 크거나 일반적 상황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키워드들의 분포는 재건사업과 관련한 토론장의 담론들이 어떠한 범주의 이슈들과 관련되어 있는지 말해 준다. 우선 물리적 계획에 대한 측면부터 보자면, 재건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은 부지 주변의 공실률과 오피스 수요의 문제였다. 그리고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한 고민이 함께 논의되었으며 부지 주변의 교육시설 문제도 같이 거론되었다.

그리고, 물리적 계획에 대한 담론이 비-물리적이거나 정치적인 담론과 연결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연결 관계다. 재건사업의 계획은 실버스타인의 보험금을 거쳐 연방정부의 지원금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었다. 다른 하나는 부지주변 계획과 관련된 뉴욕시장선거다. 테러 직후였던 2001년의 선거에서 9/11의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고 부지 자체의 권리는 향만청에게 있었으므로 뉴욕시장 후보들은 주로 부지의 주변에 대한 계획을 언급하면서 선거운동을 했던 것이다.

## ② 단체들의 보고서

여기서는 노동커뮤니티연합과 이매진뉴욕의 재건사업 관련 보고서를 통해 시민들이 그라운드제로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지니고 있었는지 알아본다. 이 두 단체가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유사한 두 단체의 의견을 통해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떠한 생각을 지니고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 • 노동커뮤니티연합(Labor Community Advocacy Network)<sup>303)</sup>

노동커뮤니티연합은 50개 이상의 노동조합, 커뮤니티 그룹, 연구와 이익단체, 서비스제공업체 들의 연합이다.<sup>304)</sup> 6개월 동안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사려 깊고 자

303) 이 부분은 다음의 보고서에서 참고함

*Policy Statement*, Labor Community Advocacy Network to rebuild New York, 24 Apr. 2002  
[http://www.gothamgazette.com/rebuilding\\_nyc/features/ican-report.pdf](http://www.gothamgazette.com/rebuilding_nyc/features/ican-report.pdf) 참고. 2011.11.12 접속

304) 재정적으로는 로키펠러 재단과, 오픈소사이어티협회(Open Society Institute)의 후원을 받은 Fiscal Policy Institute와 AFL-CIO(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의 Central Labor Council 에 의해 조직되었다.

세한 재건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들을 취합하였으며, 그 결과로서 2002년 4월 24일에 ‘정책강령’을 발표하였다. 정책강령에서 선언한 5가지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 ① 재건에서의 의사결정과정은 광범위하고, 투명하며 배제 없이 다루어져야 한다. 주요 주체는 정부, 민간부문, 시민단체가 될 것이다.
- ② 재건사업은 반드시 9/11에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 기업, 커뮤니티들과 연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로어맨하탄이나 고임금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 ③ 재개발의 자원은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교통수단, 통신, 주거, 학교, 그린에너지, 고품 폐기물 처리시스템)에 집중되어야 한다.
- ④ 우리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재건하여야 한다.
- ⑤ 국고 세입은 세금 증가를 의미할지라도, 공공의 요구와 맞아떨어져야 한다.

#### • 이매진뉴욕 I (Imagine New York I)<sup>305)</sup>

이매진뉴욕은 미국에서도 전례가 없는 참여 민주주의에 관한 역사적 이벤트였다. 이 조직은 MAS(뉴욕시예술협회)가 주관하여 만들어졌으며 다방면의 조직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였다. 이매진뉴욕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였다. 즉, 폭넓은 공공의 의견을 수렴해내는 것과 그 의견들을 실제 계획과 정책을 만들어내는 의사결정권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2001년 11월과 12월에 시민조직, 정부기관, 기업체들에 속한 개인과 대표들이 3개의 포커스 그룹을 만들어 단순한 물리적 복구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지역의 요구사항과 감정적 치유에 관해서 다루는 시민참여 프로세스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림 3-89] 이매진뉴욕 I의 일환으로 230개의 워크샵이 열린 지역 (출처 : 이매진뉴욕 보고서)

그리고 이듬해인 2002년 1월, 뉴욕시예술협회는 책임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프로세스를 기획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운영위원회는 희생자들의 친지, 로어맨하탄 거주자, 예술가, 건축가, 계획가, 정부기관의 대표, 기업과 커뮤니티 조직으로 구성되었다. 1월부터 3월간의 격월간 회의를 통해 앞으로 다룰 안건을 정립하고 그 이름을 ‘이매진뉴욕(Imagine New York)’이라고 정하여 출범시켰다.

305) 이 부분은 다음의 보고서를 참고함

ImagineNY, *The People's Visions : summary report*, ImagineNY, 10 Jun, 2002

###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이매진뉴욕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해나갔다.

- 참여자의 나이, 교육적 배경, 언어에 관계없이 참여를 독려한다.
- 참여자들의 모든 의견을 기록하고, 그들의 의견을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 로어맨하탄이나 WTC에 국한하지 않고 보다 넓은 지역으로 대화를 확대한다.
- 지역의 풍부한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다층적 비전을 추구한다.

또한 자발적으로 모인 200명의 전문가들이 워크샵 운영을 보조해 나갔다. 뉴욕과 그 주변의 학교, 박물관, 커뮤니티센터 등에서 230개의 워크샵이 구성되었다. 워크샵에 참여한 사람들은 인종, 나이, 가계수입 등에서는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뉴욕의 분포와 일치했다. 다만 교육경험에 있어서는 대학원 이상 졸업자가 12.7%인 뉴욕 평균치에 비해 워크샵 참여자는 35.2%에 달했다. 즉, 고학력자들의 워크샵 참여가 저학력자에 비해 적극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워크샵과 웹사이트, 이메일을 통해 19,000건의 아이디어가 모였다. 이를 바탕으로 2002년 6월 1일에 개최된 ‘the Summit’ 회의에는 300명의 사람들이 모여, 49개의 주요한 원칙들을 세웠다. 49개의 원칙들은 크게 사람, 장소, 사회적 형평성, 계획에서의 공공참여, 정책과 같은 다섯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각각의 분류에 따른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3-38] 이매진뉴욕의 'the Summit' 회의에서 세워진 49개의 주요 원칙

대분류	소분류	세부항목
사람		희생자 추모, 개발속도 완화, 커뮤니티와 연대 조직 등
장소	현지의 기념비	WTC부지의 보존, 평화로운 장소 조성, 마음의 치유, 생활과 연계되는 기념비 조성, 기념공원 조성, 뮤지엄 건립 등
	WTC 부지	다문화주의와 관용도 장려, 지속가능한 개발, 복합시설로의 개발, 가로의 방향성 유지, 재건축에서의 디자인 중시, 스카이라인 보존, 트윈타워의 복구 등
	로어맨하탄	중심가의 활성화, 새로운 예술과 문화시설 조성, 다양한 기업과 거주자 유지, 관광 산업 유지, 녹지와 공공공간 조성, WTC 부지와 로어맨하탄의 전체적 연결,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상태 개선 등
	도시와 지역	살기좋은 도시 조성, 중심가의 교통 허브 구축, 워터프론트의 접근성 증대 등
사회적 형평성		희생자 가족, 구조 인력, 생존자에 대한 물질 지원, 고용기회 증대, 커뮤니티 서비스 개선, 저렴한 주택 공급, 뉴욕시 교육시스템 개선 등
계획에서의 공공참여		민주적 의사결정체계 구축, 911과 미래에 대한 대화 지속, 전체 계획에서의 공공참여 등
정책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촉진, 커뮤니티를 존중하고 참여와 책임을 강조하는 종합적 지역 계획 구축, 기업 입지의 탈 중심화, 공공 안전 증대, 응급상황 대처 계획 개선, 911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대중 교육, 사회 안전과 테러의 종식 추구, 미국의 대외 정책 재평가

\*자료 출처 : ImagineNY, *The People's Visions : summary report*

이상, 두 단체가 발간한 보고서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두 단체 모두 재건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노동커뮤니티연합은 재건 사업의 주요 주체를 정부, 민간, 시민의 세 부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때 진뉴욕도 계획에서의 공공참여를 전체 5개 항목 중 하나로 설정하였다.

사업의 초기인 만큼 구체적으로 건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기보다는, 주로 전반적인 방향성 설정에 대한 내용들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물론 소실된 것은 16에이커의 부지였지만, 도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공공사업의 영향을 의식하는 입장에서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한편, 중심가 전체의 활성화를 거론하는 등 WTC 부지와 로어맨하탄이 전반적으로 원만하게 연결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러한 의견들이 제시되는 가운데, 부지 경계의 안쪽뿐만 아니라 로어맨하탄 전반적인 사업을 관장하는 LMDC가 설립된 것은 위와 같은 토론장의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LMDC는 연방 지원금을 관리하는 법적 기구로서 주변과의 조화에 대해 공식적으로 관장하는 한편, 시민자치위원회(Community Board)가 개발 과정에 관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sup>306)</sup>

## (2) 여론의 수렴을 통한 마스터플랜 결정 (2002.04~2003.03)

### ① 신문기사를 통해 본 토론장과 작업장의 논의

사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한편, 이러한 의견을 수용하는 장치가 없다는 문제들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항만청과 LMDC에서는 이러한 여론을 고려하여, 시민 5,0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공청회를 7월에 열기로 결정하였다.<sup>307)</sup>

2002년 7월 16일에는 그라운드제로 부지에 대한 6개의 마스터플랜이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이것은 발주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각각 진행한 것으로서, 항만청이 바이어블라인더벨(Beyer Blinder Belle, 이하 BBB)에게 의뢰한 2개 안, LMDC가 페터슨/리텐베르그(Peterson Littenberg Architects)에게 의뢰한 2개 안, 그리고 실버스타인이 SOM에 의뢰한 1개 안, 브룩필드자산(Brookfield Properties)이 쿠퍼로버트슨(Cooper Robertson & Partners)에게 의뢰한 1개안으로 이루어졌다.<sup>308)</sup>

306) 시민자치위원회의 개발과정 관여는 뉴욕시의 토지이용심의절차(ULURP)에 명시된 것이지만, 그라운드제로 부지는 항만청의 소유부지였기 때문에 뉴욕시의 토지이용심의절차와 관계가 없었다. 이에 관한 것은 3.3.1장의 관련주체 설명 참고

307) EDWARD WYATT, 4 May 2002, op.cit.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그림 3-90] 2002년 7월에 공개된 그라운드제로 마스터플랜. (설계자와 의뢰기관은 각 계획안에 표시하였음)  
(출처 : Architectural Record 2002.08)

이어서 6개 안들에 대해 언론의 혹평이 시작되었다. “6개의 안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다” , “1년에 1억 2천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계획안에 불과하다” , “21세기의 계획안이라고 볼 수 없다” 와 같이 새로운 계획안에 어떠한 비전을 담은 것이 아니라, 그저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평범한 계획안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여기에 대해 발주처의 관계자들은 “이 제안들은 출발일 뿐이며 이 중에 어느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장점들을 추출하고자 한 것이다” 라고 응수했다. 건축가들은 “갑자기 많은 면적을 담아야만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이며, 정치경제적 결정이 따른다면 전체 규모를 줄여나갈 수 있다” 고 말했다.<sup>309)</sup>

실제로 각각의 안은 100만㎡의 오피스, 5만5천㎡의 소매시설, 800실 규모의 호텔

308) 브룩필드자산은 실버스타인과 같이 WTC 부지에 대한 임대 계약을 통해 개발에 대한 권리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초기에는 계획과정에 개입하였으나, 이후 권리를 청산하고 전체 사업에서 빠져나갔다.

309) CHARLES V. BAGLI, "6 Plans for Ground Zero Share Striking Similarities," *New York Times*, 11 Jul. 2002 :1

EDWARD WYATT, "Memorial Park Plays Large Part In Preliminary Trade Center Plans," *New York Times*, 16 Jul. 2002 :1

EDWARD WYATT, "VISIONS OF GROUND ZERO: THE OVERVIEW; Six Plans for Ground Zero, All Seen as a Starting Point," *New York Times*, 17 Jul. 2002 :1



을 필요로 했으며, 동시에 기존 쌍둥이빌딩 부지를 추모공원을 위한 빈 땅으로 남겼기 때문에 디자인의 자유도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일부에서는 오피스 면적에 대한 이해관계를 지닌 실버스타인을 사업에서 배제시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버스타인이 받게 될 최대 72억달러의 보험금을 사업에 투입하지 못한다면 전체 계획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를 배제하는 방향은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sup>310)</sup>

며칠 후 5,000여명의 시민들이 모인 대규모 공청회인 ‘리스닝투더시티 (Listening to the City)’ 가 열렸다. 이것은 같은 해 4월부터 예정되어 있던 것으로서, 뉴욕도심재건시민연합에서 주도하고 LMDC와 항만청에서 후원한 공식 행사였다. 총 6시간동안 열린 이 행사에서 1시간은 재건축 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3시간은 공개된 6개의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시간은 일자리, 경제, 주거 등의 특정한 주제에 대해 다루었다.<sup>311)</sup>

사람들의 의견은 다양했다. “추모공원만 만들어주면 다른 것에는 상관 안하겠다”, “추모공원을 줄이고 건물을 많이 짓자”, “어린이가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 “24시간 열려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달라”, “기존 WTC 만큼 높게 지어달라”, “뮤지엄을 지어달라”, “국제현상설계를 해라” 와 같이 재건계획의 물리적, 제도적 사회적 측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sup>312)</sup>

이러한 반응에 직면하여, 사업을 진행하던 관료들은 계획안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것을 약속했다. 전체적인 건물의 규모도 줄여 볼 것이며, 시간을 두고 천천히 계획할 것이라고 말했다.<sup>313)</sup> 그리고 다음 달인 8월 15일에, 기존 마스터플랜을 백지로 되돌린 후 국제현상설계경기를 통해 새로운 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발표했다. 마스터플랜은 항만청이 아닌, 이해관계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LMDC가 진행하기로 했다.<sup>314)</sup>

310) CHARLES V. BAGLI, "VISIONS OF GROUND ZERO: NEWS ANALYSIS; Commercial Space Mix Could Affect Revenues And Race for Governor," *New York Times*, 17 Jul. 2002 :7

311) EDWARD WYATT, "A Forum on Rebuilding Lower Manhattan," *New York Times*, 20 Jul. 2002 :4

312) "VISIONS OF GROUND ZERO: VOICES: Proposals for Downtown Draw Array of Opinions," *New York Times*, 21 Jul. 2002 :30

313) EDWARD WYATT, CHARLES V. BAGLI, "VISIONS OF GROUND ZERO: THE PUBLIC; OFFICIALS RETHINK BUILDING PROPOSAL FOR GROUND ZERO," *New York Times*, 21 Jul. 2002 :1

314) EDWARD WYATT, "Further Designs Are Sought In Rebuilding of Downtown," *New York Times*, 15 Aug. 2002 :1



[그림 3-91] 윈터가든에서의 프레젠테이션과 건축가들의 응모안

새로운 계획을 제안하기 위한 일곱 팀이 9월에 선정되었으며, 설계의 조건 중 하나는 100만㎡의 오피스 면적 중 2/3 이상을 넣는 것이었다. 그들의 디자인은 12월 18일, 그라운드제로 부지 근처에 있는 월드파이낸셜센터(World Financial Center)의 1층 로비 윈터가든(Winter Garden)에서 발표 행사를 통해 공개되었다. 건축가들은 청중 앞에 직접 나서서 3시간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했으며, 이 행사는 지역방송인 NY 1 TV에서 생중계되었다.<sup>315)</sup> 뉴욕도심재건시민연합에서 리스닝투터시티와 같은 대규모 공청회를 요청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대신 PACE 대학에서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계획안은 6주 동안 윈터가든에서 전시되었다. 첫 3주 동안 7만명이 계획안을 관람했고, 4,000개의 의견을 서면으로 남기고 갔다. 같은 기간동안 LMDC 웹사이트는 6백만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2,400명이 의견을 남기고 갔다.<sup>316)</sup> 노만 포스터(Norman Foster), 리베스킨트, 리텐베르그의 안이 대중의 호응을 얻었다. 그리고 ‘건물을 높게 올리는 것’, ‘지하로 파고 들어간 추모공원의 형태’, ‘넓은 공공공원’의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고 피드백되었다. LMDC는 이러한 의견들을 참고하여 리베스킨트(Daniel Libeskind)와 건축가연합인 THINK를 최종 후보로 선정하였다.<sup>317)</sup> 두 팀은 건물, 교통환승센터, 추모공원에 대한 디자인을 보완하여 다시 평가를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리베스킨트의 안이 마스터플랜으로 결정되었다

315) 다음 웹사이트에서 방송의 하이라이트를 볼 수 있다. 2011.12.01 접속

<http://www.ny1.com/content/26607/detailed-views-of-the-nine-wtc-site-proposals> ,

316) EDWARD WYATT, "In Public Input, a Hint Of Rebuilding Fatigue," *New York Times*, 15 Jan, 2003 :4

317) EDWARD WYATT, "Two Finalists Are Selected For the Void at Ground Zero," *New York Times*, 5 Feb, 2003 :1

(2003.02.27).<sup>318)</sup>

그러나 문제는 ‘과연 누구와 계약할 것인가’ 였다. 공모전은 LMDC에서 진행한 것이었는데, 전체 부지 소유자인 항만청은 나름대로 부지의 마스터플랜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실버스타인도 관료들이 자신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불만을 표현하였다. 동시에 실제 설계는,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SOM과 협력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sup>319)</sup>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간 후, 리베스킨트는 모든 개발프로젝트를 ‘관리’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추모공원과 뮤지엄에 대해서는 LMDC와 계약할 것이며 상업공간에 대해서는 뉴욕시, 뉴욕주, 실버스타인 및 브룩필드자산과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것은 그가 배제될 것이라는 우려를 종식시키는 결정이었다. 그는 계약 후 5~6개월동안 마스터 디자인 아키텍트(master design architect)의 역할을 하기로 했으며, 상업공간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만들게 되었다.<sup>320)</sup> 리베스킨트는 마스터플랜을 가다듬어 같은 해 9월에 공개하였으며, 11월에는 치수와 재료를 포함한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sup>321)</sup>

이제까지 초기의 계획안 공개에서부터 2003년 3월까지의 마스터플랜에 대한 논의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2002년 4월부터 2003년 3월까지의 뉴욕타임즈 기사들 중 마스터플랜에 관계된 기사들을 대상으로 주요 키워드에 대한 유사성 0.4 이상의 연결망을 표현해 보았다.<sup>322)</sup>

높은 등장빈도를 보이는 키워드들 중에 가장 많은 수가 관련된 것은 사업비와 연방의 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재건사업에 드는 비용(cost, million, billion)과 이에 대한 연방(federal)의 지원(money, aid)과 관련된 논의들이 여기에 속한다.

양측으로 인접한 키워드들이 마스터플랜 안에 포함되는 입주시설에 대한 키워드들

318) EDWARD WYATT, "REBUILDING AT GROUND ZERO: OVERVIEW; PRACTICAL ISSUES FOR GROUND ZERO," *New York Times*, 28 Feb. 2003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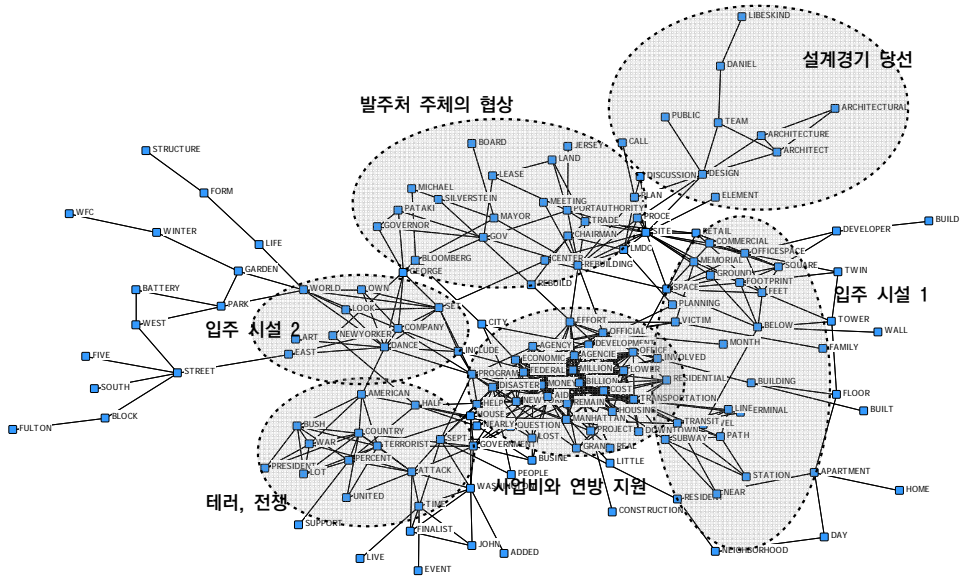
319) EDWARD WYATT, "Trade Center Leaseholder Says Officials Are Ignoring His Right to Rebuild as He Wants," *New York Times*, 1 Feb. 2003 :3

320) EDWARD WYATT, "Libeskind to Oversee Most of Trade Center Development," *New York Times*, 21 Mar. 2003 :3

321) DAVID W. DUNLAP, "Master Plan for New Trade Center Gets Down to the Finest Detail," *New York Times*, 8 Nov. 2003 :1

322) 해당 기간 동안 'design'과 'plan' 이라는 단어를 동시에 포함한 기사들 중 'firefighter'가 포함된 기사들을 제외하여 223개의 기사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이 기사들에서 출현빈도가 높은 203개 키워드를 대상으로 유사성연결망을 만들었다.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그림 3-92] 2002.04~2003.03 까지 마스터플랜을 다룬 기사들의 주요 키워드들의 유사성연결망 ( $r \geq 0.4$ )

이다. ‘입주시설 2’ 그룹은 문화시설에 대한 키워드들이다. 맨하탄 북쪽의 링컨센터가 새로운 이주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그라운드제로가 거론되기도 했다. ‘입주시설 1’ 그룹 중 교통시설(transportation, subway, station, terminal, transit)은 초기부터 임시 교통시설이 계획되면서 건설비용이 같이 언급되었다. 그리고 교통시설이 거론되면서 로어맨하탄 중심가(downtown)의 활성화를 위해 주거시설(resident, apartment, home)이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언급되곤 했다. 그 위쪽으로는 추모공원(memorial)과 오피스(officespace), 상업공간(commercial), 소매상점(retail) 등의 시설에 대한 키워드를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상업공간과 오피스 공간은 발주처 주체에 해당하는 실버스타인과 LMDC 및 항만청의 협상에서 중요한 이슈였다. 따라서 두 그룹이 인접하면서 키워드들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설계경기를 진행하고, 그 당선자인 리베스킨트가 누구와 계약하여 업무를 분배받을 것인가의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따라서 우측 상단의 ‘설계경기 당선’ 그룹도 ‘발주처 주체의 협상’ 그룹과 인접하게 되었다.

이러한 키워드들의 분포와 그룹간의 연결망은 마스터플랜의 결정과정이 전체 담론에서 어떠한 문제들과 밀접하게 관련되는지를 보여준다. 즉, LMDC의 주최로 열린 설계경기에서 당선된 리베스킨트가 누구와 계약하여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마스터플랜에 들어가는 시설들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하는

문제는 당시 일어났던 사건들 및 나라 전체의 정세와 관련이 있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부의 시설을 결정하는 것은 순수하게 계획적으로 주변을 고려하여 필요한 시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발주처 주체 간의 경제적 계약관계(항만청과 실버스타인의 관계)에 깊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거대 프로젝트라는 측면에서 그라운드제로는 연방의 지원과 같은 국가 전체의 정치적 흐름이 관계되어 있다. 그리고 문화시설(링컨센터)의 이주와 같은, 맨하탄이라는 같은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특정 시설의 변화 역시 그라운드제로 사업과 관계되어 있었다. 그리고 연결망 전체를 이루는 키워드들을 통해 내부의 시설을 결정하는 문제가 초기 마스터플랜에서 주요한 이슈였음을 알 수 있다.

## ② 리스닝투더시티(Listening to The City)

여기서는 디자인을 다룬 공청회 중에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많은 수인 5,000여 명이라는 대규모의 사람들이 참여한 리스닝투더시티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리스닝투더시티는 항만청과 LMDC의 후원을 받아 뉴욕도심재건시민연합에서 주최한 행사다. 일반적인 공청회가 주최측의 발표와 청중의 질의응답으로 이어진다면, 이 행사는 보다 조직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따라서 전문기관인 아메리카스피크스(AmericaSpeaks)의 도움을 받았으며, 아메리카스피크스는 소단위의 토의그룹과 중앙관리그룹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구성하였다.<sup>323)</sup>



10~12명이 1개조로 구성  
1명의 주최측 요원 : 의견정리&취합  
중앙에서 진행 통제 & 최종 결정

[그림 3-93] 2002년 2월 7일에 South Street Seaport에서 열렸던 첫 번째 리스닝투더시티 (출처 : 리스닝투더시티 보고서)

한 테이블에는 10-12명의 사람들이 앉게 된다. 그리고 그 중 한 사람은 숙련된 전문요원이다. 이 사람들은 노트북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의견들을 듣는 즉시 분류하고 취합하여 중앙관리그룹으로 보낸다. 중앙관리그룹에서는 회의장 맨 앞의 전광판에

323) 아메리카스피크스에 대해서는 다음의 웹사이트 참고. <http://americaspeaks.org/>

###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선별된 의견들을 송출시키고, 다시 이 선별된 의견을 보고 참가자들이 버튼을 누르는 전자식 투표과정을 거쳐 최종 의견들이 결정된다.<sup>324)</sup>

첫 번째 리스닝투더시티는 2002년 2월 7일에 열렸다. 희생자 유가족, 테러공격에서 살아남은 사람, 그라운드제로 주변에 사는 사람, 구조 활동에 참여했던 사람, 정부 관료, 기타 관심을 지닌 시민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다. 이 회의에서는 토지 이용, 교통, 기업 활동과 경제개발, 지역 커뮤니티, 문화 시설 및 행사, 사회경제적 요인, 건강과 환경문제, 재건사업의 프로세스, 안전과 보안 등의 주제에 대해 다루었다.

그라운드제로 사업이 나아갈 바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활기넘치는 24시간 이용 가능한 복합용도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다. ‘주변 지역과 매끄럽게 연결되는 교통환승시설’, ‘전체 계획과 조화되는 추모공원’, ‘열린 공간, 활기찬 수변공간 조성’ 등이 차례대로 중요한 목표로 결정되었다.

추모공원에 대해서는 ‘죽은 이의 이름과 성격, 살아온 자취를 표기해 줄 것’, ‘방문객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교육의 공간이 될 것’, ‘빛과 조명을 포함시켜 줄 것’, ‘기도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이 될 것’과 같은 요청이 있었다. 또한 그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는 기존 건물이 있던 자리(footprint)에 만들어지기를 원했다.<sup>325)</sup>

두 번째 리스닝투더시티는 7월 20일과 22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85개의 시민단체, 노동단체, 업계종사자, 환경단체, 학교로 구성된 5,000여명의 인원이 참가했다. 이 행사는 모두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취지였으며, 뉴욕 인종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동시통역도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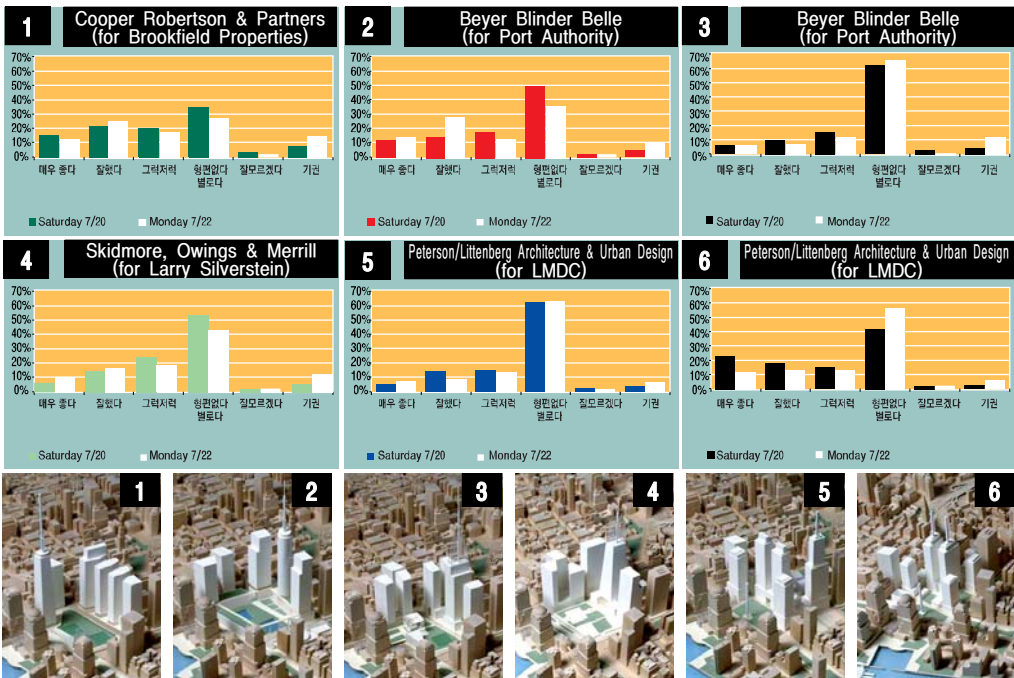
또한 사업의 실질적 결정권자인 항만청의 공식적인 후원이 있었다. 이 날 행사에서 항만청의 간부인 조셉 세이무어(Joseph Seymour)는 행사장에서 “우리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대안들을 발전시켜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림 3-94] 7월 20일의 리스닝투더시티  
(출처 : Report of Proceedings)

324) Babara Faga, op.cit., pp.27-28

325) *Listening to the City : Report of Proceedings*, Civic Alliance, 2002.02



[그림 3-95] 공개된 6개 마스터플랜에 대한 워크숍에서의 시민들의 평가. '형편없거나 별로다'가 대부분이다. ( 그래프 출처 : Listening to the City : Report of Proceedings / 그림 출처 : Architectural Record 2002.08 )

라고 말했다. 물론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참고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셈이었다.

6시간동안 진행된 행사에서 3시간은 4일전 발표된 6개의 계획안을 다루는 것에 할당되었다. LMDC, 향만청, 실버스타인, 브룩필드자산에서 제시한 6개의 계획안에 대해, 시민들은 밀도가 너무 높고 상업적이라는 이유로 강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물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오피스와 소매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상업적 취지에만 기초하고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6개중에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대해 불평했다.

부지 전반에 걸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고갔다. 기존의 슈퍼블록을 가로질러 부지의 양측을 이어주는 보행로에 대해 90% 이상이 중요하다라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기존 슈퍼블록을 모두 해체하여 이전의 도시가로를 회복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20%정도가 불필요하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온라인을 통한 의견수렴과정에서는 40%정도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블록 안의 공지(open space)에 대해서는 50%정도가 다양한 크기를 지닌 다수의 공지를 원했으며, 35%정도는 하나의 커다란 공지를 원했다. 스카이라인을 만들어내

###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는 주요한 상징적 구조물의 여부에 대해서는 60%에 가까운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다’ 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그 밖에도 추모공원과 전체 계획의 연결 정도, 교통환승의 범위, 주거공간, 보안과 안전에 대한 주제가 다루어졌다.<sup>326)</sup>

#### ③ 윈터가든의 설계설명회 (Winter Garden Presentation)

리스닝투더시티를 통해 대중의 의견이 수렴되면서 초기에 공개된 6개의 안은 모두 백지 상태로 되돌려졌다. LMDC는 마스터플랜에 대한 국제 설계경기를 기획하게 되었으며, 7개 회사를 지명 초청하는 방식으로 설계경기가 이루어졌다. 참가한 건축가들은 다음과 같다.

- ① 다니엘 리베스킨트 (Studio Daniel Libeskind)
- ② 노만 포스터 (Foster and Partners)
- ③ 네 명의 건축가 팀 : 리처드 마이어(Richard Meier), 피터 아이젠만(Peter Eisenman), 찰스 과스메이(Charles Gwathmey), 스티븐 홀(Steven Holl)
- ④ 유나이티드아키텍츠(United Architects) : 3개 회사(Foreign Office Architects, Imaginary Forces, UN Studio)와 3명의 건축가(Greg Lynn, Reiser Uemoto, Kevin Kenon)로 이루어짐
- ⑤ SOM이 이끄는 건축가 연합 : 5개 건축회사(Tom Leader, Michael Maltzan, Neutelings Riedijk, Field Operations, SANAA)와 4명의 예술가(Inigo Manglano-Ovalle, Rita McBride, Jessica Stockholder and Elyn Zimmerman)
- ⑥ THINK : Shigeru Ban, Frederic Schwartz, Ken Smith, Rafael Viñoly, , Arup, Buro Happold Engineers, Jorg Schlaich, William Moorish, David Rockwell, Jane Marie Smith
- ⑦ 페터슨/리텐베르크(Peterson/Littenberg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설계안에 대한 발표는 2002년 12월 18일에 윈터가든(Winter Garden)에서 TV를 통해 생중계되며 진행되었다. TV를 통해 설계경기가 생중계 된 것은 건축 역사상에서 처음 있는 일이기도 했다.<sup>327)</sup>

헤이저(Maarten A. Hajer)는 여기서 리베스킨트가 화법과 설명 내용을 통해 대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고 평가한다. 리베스킨트는 교통시설을 강조하고 랜드마크를 다시 세우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공공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THINK 역시 마찬가지였다. 반면 노먼 포스터는 비교적 건조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대중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sup>328)</sup>

---

326) 리스닝투더시티 항목에서 서술한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요약함  
*Listening to the City : Report of Proceedings*, Civic Alliance, 2002.09

327) Babara Faga, op.cit., p.31

328) Maarten A. Hajer, op.cit., pp.458-459



TV 생중계를 통한 프레젠테이션 이후에 여러 가지 설문수렴장치가 기획되었다. 이날의 행사를 포함한 각각의 장치들은 다음과 같다.

- ① 7개 팀의 디자인 프레젠테이션 : 2002.12.18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동안 생중계로 진행됨
- ② 윈터 가든 전시회 : 12월 20일부터 약 40일간 전시회를 가짐. 방문객들은 계획안과 모델, 그리고 비디오 프레젠테이션을 관람할 수 있음. 또한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남길 수도 있음
- ③ 비디오 프레젠테이션 : LMDC는 7개 팀이 계획안을 설명한 영상을 시 도서관과 관련 기관에 배포함
- ④ 공청회 : LMDC 주관으로 1월 13,14일에 Pace 대학에서 공청회를 진행함
- ⑤ 추모공원 건립에 대한 계획안 : 1월 14일의 공청회를 바탕으로 추모공원 건립에 대한 계획을 추진함
- ⑥ 인터넷 : www.LowerManhattan.info 나 www.RenewNYC.com 사이트를 통해 전체 사업의 진행과정을 볼 수 있었음

LMDC의 웹사이트에서도 질문과 의견이 제시되었다.<sup>329)</sup> 834여명의 의견이 웹사이트를 통해 수집되었으며, 이 중 25%는 노먼 포스터의 안을 지지했다. 그리고 리베스킨트와 페터슨 리텐베르그의 안이 18%의 지지를 얻었고, 유나이티드아키텍츠가 14%의 지지를 받았다.<sup>330)</sup>

그러나 이러한 시민투표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었다. 뉴욕타임즈의 독자투고란에 게재된 글을 통해 대중의 시각을 볼 수 있다.

기념비를 원하는 사람은 리베스킨트, 가장 크고 좋은 빌딩을 원하는 사람은 포스터, 도시조직에 잘 합치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리텐베르그의 안을 뽑았다.<sup>331)</sup>

이러한 전반적 현상에 대해 비들러(Anthony Vidler)는 “이러한 방식으로 대중은 건축이 하나의 문제에 대한 예스노우 표를 찍는 정도로 축소되었다고 믿게 되었다.” 고 평가하였다.<sup>332)</sup>

설계설명회가 열린 후 한 달 후에 7개 안은 리베스킨트와 THINK의 두 팀으로 압축되었고, 2003년 2월 27일에 리베스킨트의 안이 최종안으로 결정되었다. 최종 후보로 선정된 후 디자인을 발전시켜 나갔던 THINK의 안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점이 결정적 문제로 지적되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사결정과정의 명료성 결여를 지적하기도 했다.<sup>333)</sup> 대중의 의견은 폭넓게 수렴되었지만, 그 의견이

329) 이와는 별도로 이루어진 cnn.com의 온라인 투표에는 약 30만명이 참여하였다.

330) EDWARD WYATT, "Three Designs for Ground Zero Emerge as Favorites," *New York Times*, 17 Jan. 2003 :1

331) CHARLES BOXENBAUM, "Ground Zero: Where's the Vision?," *New York Times*, 20 Jan. 2003

332) Anthony Vidler, *Redefining the Public Realm, Hunch : the Berlage Institute Report No. 6/7*, Episode : Rotterdam, 2003, pp. 482-483., p.474

333) EDWARD WYATT, "REBUILDING AT GROUND ZERO: OVERVIEW; PRACTICAL ISSUES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2003년 1월에 최종후보작으로 선정된 후 한달 동안 발전시킨 리베스킨트의 안(상단)  
 동일한 조건에서 발전시킨 THINK의 안(하단)  
 THINK는 추모공원에 프레임만으로 구성된 타워를 제안하였다.

[그림 3-96] 2003년 1월 이후 발전 시킨 리베스킨트와 THINK의 두 번째 제안 (출처 : Imagining Ground Zero)

최종 결정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쳤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리스닝투더시티와 윈터가든의 설계설명회는 건축디자인에 대해 논의한 전례를 찾기 힘든 행사였다. 하나는 5,000여명이 모인 대규모의 조직적 의견수렴행사였다는 점에서, 다른 하나는 TV를 통해 건축가들의 설명이 여과 없이 대중에게 전달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이러한 방식은 그 자체로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참여방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대규모 공공건축물의 생산과정에서 공공의 관심을 유도하여 토론장의 담론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는 집중적 이벤트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물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여기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효과적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접목시키는 방법론이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도시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공사업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모으는 동시에, 건축계 혹은 작업장 내부의 논의들이 토론장에 전달되는 과정을 통해 건축물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비전문가인 대중이 배워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배우는 과정’은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 차이를 확인하면서 다른 사람의 관점을 배워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FOR GROUND ZERO," *New York Times*, 28 Feb, 2003 :1

## (3) 추모공원 설계경기 (2003.04~2004.04)

약 2,700명의 사람들이 사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추모공원은 초기부터 가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였다. 2002년 3월에는 ‘빛의 헌사(Tribute in Light)’ 라는 이름의 임시 추모비가 88개의 써치라이트를 통해 가동되었고, 시민과 관료들 사이에서 기존의 쌍둥이빌딩 자리에는 아무것도 짓지 않을 것이라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계획안에 참여할 당위적 권리가 있다고 믿었으며, LMDC는 시민을 대변하여 추모공원 디자인을 진행하였다.

## ① 신문기사를 통해 본 토론장과 작업장의 논의

LMDC가 맡아서 진행하는 추모공원의 설계경기가 가시화 되면서, 진행에 대한 방침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추모공원의 선정 절차에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포함할 것이지만, 리스닝투더시티와 같은 대규모 공청회가 아닌 선별된 그룹의 공공이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최종 결정은 심사위원들이 할 것이며, 심사위원은 공공의 의견을 ‘참조’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sup>334)</sup> 심사위원으로는 베트남전 추모공원의 설계를 맡았던 마야 린(Maya Lin)을 비롯한 13명의 건축가, 예술사가, 유가족대표들이 추대되었다.<sup>335)</sup> 마스터플랜을 담당한 리베스킨트는 기술 자문위원의 역할을 맡았다.

2003년 4월 28일에 추모공원을 위한 국제현상설계가 시작되었다. 마야 린은 “추모한다는 것에 대한 새로운 방식이 정의 될 것” 이라고 공모전의 취지를 설명하였다.<sup>336)</sup> 7월에 62개국과 알래스카를 제외한 미국 전역으로부터 5,201개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베트남전 추모공원 때의 3배에 달하는 지원자는 그라운드제로에 대한 전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11월에 이 작품들은 교통환승센터에서 모두 전시되었다.<sup>337)</sup>

11월 19일에 심사위원들은 8개의 최종 후보작을 선정하였다. 추모공원은 사업 초기부터 관심의 주요한 대상이었기 때문에 신문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었다. 뉴욕타임

334) EDWARD WYATT, "Panel, Not Public, Will Pick Final 9/11 Memorial Design," *New York Times*, 9 Apr. 2003 :3

335) "Planning the 9/11 Memorial," *New York Times*, 11 Apr. 2003 :24

336) EDWARD WYATT, "In 9/11 Design, Rules Are Set To Be Broken," *New York Times*, 29 Apr. 2003 :1

337) DAVID W. DUNLAP, "Jury Wants All 5,201 Plans For 9/11 Memorial Shown," *New York Times*, 14 Nov. 2003 :7

즈는 후보작에 선정된 사람들이 무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개략적 발자취를 각각 다른 8개의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후보작은 여러 가지 대립되는 의견들을 촉발시켰다. 각각의 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엇갈리기도 했다. “추모공원의 목적은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것이며 언제 끝나야 하는가?” 와 같은 근본적인 의문들도 제기되었다. 어떤 이는 치유에 대해서 말했으며, 어떤 이는 살아남은 사람의 관점에서 말했고, 교육에 대한 것, 미래에 대한 교훈, 개인의 희생, 지나치게 긴 프로세스 등 작품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과정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폭 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뉴욕시예술협회에서 후원하고 이매진뉴욕에서 주최한 워크숍이 곳곳에서 개최되었다. 디자인에 대한 의견들이 수렴되었는데 칭찬보다는 비판적 의견이 우세했다. 이매진뉴욕은 이러한 의견들을 정리하여 LMDC에 전달했다.<sup>338)</sup> 이러한 와중에 공공프로세스 자체를 비판하는 의견도 표출되었다. 비평가인 킴멜만(Michael Kimmelman)은 현상설계를 통해 무명의 작품들을 받는 것이나 공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나 모두 ‘김빠진 포퓰리즘’ 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투표에서 최고 표를 받은 ‘부재의 반영(Reflecting Absence)’ 도 리베스킨트의 안을 베껴 그린 것이라고 폄하했다. 그는 8개의 안을 모두 떨어뜨린 후, 엘리티즘에 입각하여 숙련된 전문가들이 다시 제안하고 심사위원들이 곧바로 선정할 것을 요구했다.<sup>33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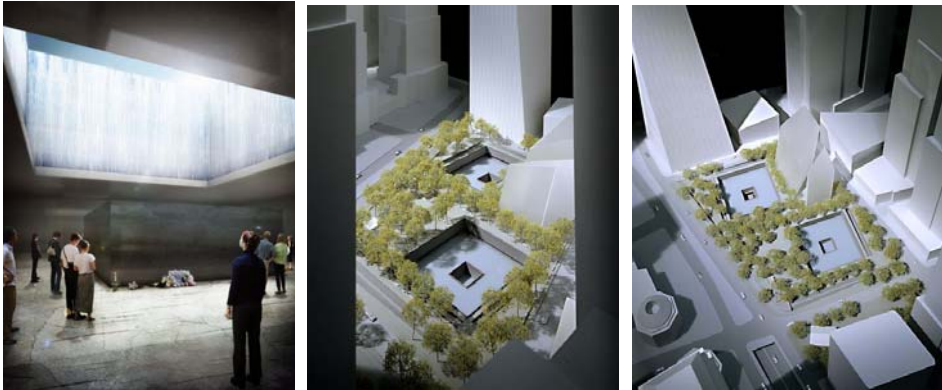
2004년 1월에 마이클 아라드(Michael Arad)의 ‘부재의 반영(Reflecting Absence)’ 가 최종 안으로 당선되었다. 기존 쌍둥이 빌딩이 있던 자리 각각을 파낸 계획안이었다. 당선작은 12시간의 최종 회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었으나, 구체적인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 LMDC가 과정에 대한 발언을 금지시켰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이러한 불투명한 프로세스를 비판하기도 했다. 물론, 결과에 대해서는 5,201개의 안과 함께 웹사이트를 통해 전시되었다.<sup>340)</sup>

마이클 아라드의 제안을 현실화하기 위해 피터 워커(Peter Walker)가 조경설계의 협력자로 지정되었다. 물론 마스터플랜 담당인 리베스킨트와 조율하기로 했다.<sup>341)</sup>

338) ALAN FEUER, "On Memorial, Criticism Outstrips Praise," *New York Times*, 23 Nov. 2003 :34

339) MICHAEL KIMMELMAN, "ARCHITECTURE; Ground Zero's Only Hope: Elitism," *New York Times*, 7 Dec. 2003 :1

340)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wtcitememorial.org/> 2012.01.31 접속



[그림 3-97] 마이클 아라드의 당선작, '부재의 반영(Reflecting Absence)'

또한 지하에 뮤지엄을 만들기로 하고 데이비스 브로디 본드(Davis Brody Bond)가 지하 뮤지엄에 대한 협력 건축가로 선정되었다.<sup>342)</sup>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여러 가지 기념물들을 선정하기 위해 관료 및 유가족 등으로 이루어진 24인의 위원회가 구성되었다.<sup>343)</sup>

이제까지 추모공원 설계경기의 시작부터 당선자가 선정되고 본격적인 설계조직이 갖추어지기까지의 논의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2003년 4월부터 2004년 4월까지의 뉴욕타임즈 기사들 중 추모공원에 관계된 기사들을 대상으로 주요 키워드에 대한 유사성 0.36 이상의 연결망을 표현해 보았다.<sup>344)</sup>

'추모공원(memorial)' 이 포함된 모든 기사들을 수집하였기 때문에 관련된 폭넓은 기사에 등장한 키워드들이 전체 연결망에 등장하고 있다. 추모공원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룹들은 그림상에서 연결망의 상부에 분포한다. 논의의 중심에 위치하는 것은 마스터플랜이다. 해당 기간은, 마스터플랜의 건축가가 리베스킨트로 선정된 후 추모공원을 포함한 여러 시설들의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기간이기도 했다. 따라서 마스터플랜에 대한 키워드들은 추모공원 부지에 관계된 그룹과 인접하여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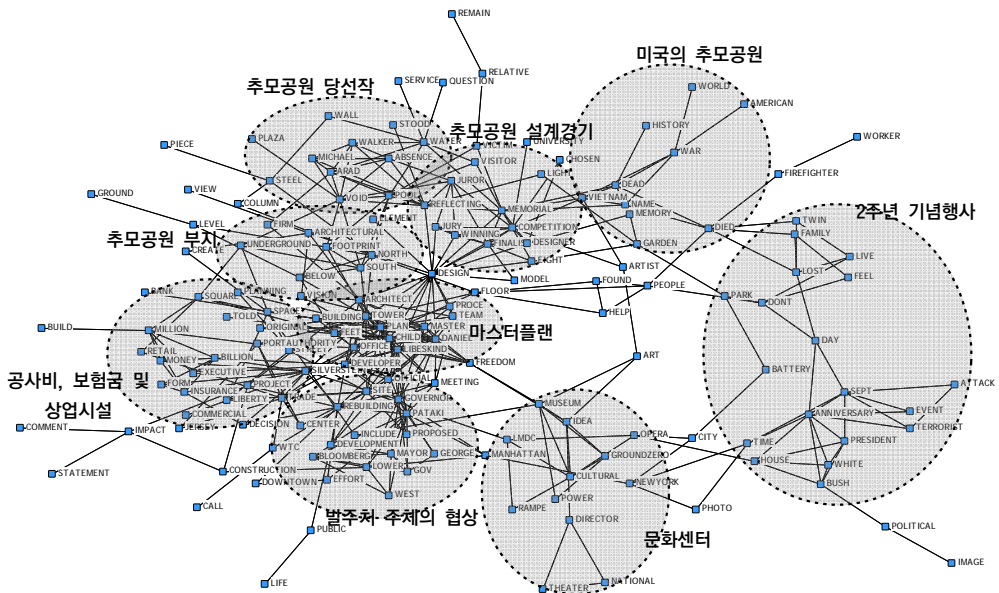
341) DAVID W. DUNLAP, "Revised Ground Zero Memorial Will Include an Artifact Center," *New York Times*, 14 Jan. 2004 :1

342) DAVID W. DUNLAP, "Architectural Team Is Chosen For Trade Center Memorial," *New York Times*, 14 Apr. 2004 :4

343) DAVID W. DUNLAP, "24 Are Appointed to Set Details of Museum at Ground Zero," *New York Times*, 9 Apr. 2004 :4

344) 해당 기간 동안 'memorial'을 포함한 223개의 기사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이 기사들에서 출현빈도가 높은 203개 키워드를 대상으로 유사성연결망을 만들었다.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그림 3-98] 2003.04~2004.04 까지 추모공원을 다룬 기사들의 주요 키워드들의 유사성연결망 ( $r \geq 0.36$ )

‘추모공원 부지’ 그룹에는 빌딩이 있던 자리(footprint)에 지하(underground, below)로 파고들어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마스터플랜’ 그룹의 바로 위에는 ‘디자인(design)’ 이라는 단어가 여러 키워드들과 연결되고 있다. 위쪽으로 따라가 보면 추모공원의 설계경기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 설계경기(competition), 디자이너(designer), 심사위원(jury), 8개의 안(eight)등의 키워드가 해당 그룹 안에 등장하고 있다.

그 그룹의 왼쪽에는 추모공원 당선작에 대한 키워드들이 있다. 마이클 아라드(Michael Arad), 피터 워커(Walker), 작품 이름인 부재의 반영(Reflecting Absence) 등이 등장한다.

그리고 추모공원에 대한 논의는 미국의 다른 추모공원(Vietnam) 및 이와 관련된 미국의 전쟁(war)과 역사(history)에 대한 담론들과 일부 연결되고 있다. 그리고 다시 이 그룹은 사망자(died)를 매개로 9/11의 2주년 기념행사(2003.09.11)를 다룬 기사에 등장한 키워드들과 이어져간다.

추모공원이 전체 사업을 구성하는 하나의 시설이라는 측면에서 왼쪽 하부에는 ‘공사비, 보험금 및 상업시설’ 을 다루는 그룹과 연결된다. 이러한 그룹이 ‘발주처 주체의 협상’ 과 관련되는 것은 마스터플랜에 대해 다룬 지난 장에서 논의한 바 있다.

위의 유사성연결망을 추모공원 설계경기 과정에서의 토론장이라고 한다면, 토론장에서 논의된 담론들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위의 연결망을 통해 알 수 있다. 추모공원의 디자인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전체 사업의 일부라는 측면에서 마스터플랜에 대한 논의와 연관되었고, 마스터플랜에 대한 논의는 디자인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 공사비와 수익구조의 문제와도 일부 관련되었다. 한편으로 추모공원 디자인을 다루면서 미국에 있는 또 다른 추모공원, 그리고 멀리는 전쟁에 관련된 담론까지도 거론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사업의 후반부에 가서 희생자 이름을 추모공원에 어떠한 순서로 새겨나갈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져 나가기도 한다.

## ② 이매진뉴욕 III (Imagine New York III) : 기념공원에 대한 합의

여기서는 뉴욕시예술협회에서 후원하여 이매진 뉴욕에서 주최한 워크샵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본다. 이매진뉴욕은 2003년 11월 19일에 발표된 911 기념공원에 대한 8개 최종 결선 대상자 공고 후,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워크샵을 조직했다. 2003년 11월 20일부터 6일간 워크샵이 진행되었으며, 행사의 개요는 아래 표와 같다.

[표 3-39] Imagine New York III 개요

구분	내용
개최	2003.11.20,21,22 : 로어 맨하탄의 Pace University 2003.11.21 뉴저지 Elizabeth의 역사 협회(Historical Society) 2003.11.22 코네티컷의 New Canaan 공공 도서관 2003.11.25 뉴욕시의 September Space
형식	10~20명의 참가자들이 원형 테이블에 둘러 앉음(6개 워크샵 모두 합하여 21개 그룹이 만들어짐) 1명의 훈련된 전문가가 테이블마다 1명씩 배치되어 진행과 기록을 담당 최종 심사에 오른 8개 디자인에 대한 요약서를 제공받음
참가인원	6개 워크샵 총 300명
토의 내용	테이블마다 배치된 전문가가 주로 디자인에 관련한 3개의 질문을 설명함 · 이 디자인의 어떤 점들이 마음에 드는가/어떤 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가? · 각각의 디자인은 리베스킨트의 대지계획 및 주변 환경과 얼마나 잘 호응하는가? · 후속 세대에게 이 기념공원 디자인은 어떻게 인지되고 이해될 것 같은가? 그 외에 일반적인 의견들도 취합함

출처 : Imagine New York, *Toward the People's Memorial : Summary Report*, The Municipal Art Society, 2003

코네티컷의 뉴 캐난(New Canaan)과 뉴저지의 엘리자베스(Elizabeth), 그리고 PACE 대학 및 뉴욕의 셉템버스페이스(September Space)에서 약 300명이 6개의 워크샵에 참여하였다. 워크샵에 참여한 300명 중 총 152명이 설문지를 제출하였는

###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그림 3-99] 여러 장소에서 진행된 이매진뉴욕 워크샵 (출처 : Imagine New York, *Toward the People's Memorial* )

데, 응답자는 백인, 중산층,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자가 대부분이다.

또한, 이매진뉴욕 측은 NY1 뉴스, 고담가제트(Gotham Gazette), 뉴욕데일리뉴스(New York Daily News)와 파트너를 맺고 웹사이트에 디자인을 올려놓은 후 방문자에게 5개의 질문을 던졌다. 5개의 질문들은 아래와 같으며, 기본적으로 워크샵에서의 질문과 유사하다.

- 이 디자인은 마음에 드는가? (예/아니오)
- 이 디자인의 어떤 점이 가장 좋은가?
- 이 디자인의 어떤 점이 가장 덜 좋은가?
- 이 디자인은 리베스킨트의 대지계획 및 주변환경과 얼마나 잘 호응하는가?
- 후속 세대에 이 기념공원 디자인은 어떻게 인지되고 이해될 것 같은가?

첫 번째 질문만이 단답형이며, 나머지 네 개의 질문은 서술형이다. 방문객들은 모든 디자인에 대해 대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만큼만 응답하고 떠날 수 있다. 12월 12일까지 약 2,800명의 사람들이 이매진뉴욕 사이트를 방문했으며, 15,000개 이상의 코멘트를 남겼다.<sup>345)</sup> 이매진뉴욕은 워크샵과 웹사이트의 결과물을 보고서로 만들어 LMDC와 기념공원 심사위원회에 전달했다.

진행과 설문문의 초점은 어떤 안을 가장 선호하는가에 대한 단순 투표가 아니라, 대중이 디자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혹은 어떤 요소가 가장 대중에게 인상적으로 다가갔는지를 알아보는 것에 맞추어졌다. 참여자들은 디자인들이 희생자를 기리는 느낌을 준다는 점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느낌과 연결되는지를 지적하지는 못했다.

예를 들어 ‘빛의 통로 : 추모의 구름(Passage of Light : The Memorial Cloud)’ 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 의견들이 있었다. 긍정적인 의견으로는,

345) Imagine New York, *Toward the People's Memorial : Summary Report*, The Municipal Art Society, 2003, p. 1

[http://imagineny.org/docs/imagine\\_final\\_report.pdf](http://imagineny.org/docs/imagine_final_report.pdf) 에서 내려받음. 2011.12.11 접속





좌측 상단부터 작품 제목 :

Votives in Suspension / Dual Memory / Passages of Light: Memorial Cloud  
 Suspending Memory / Lower Waters / Inversion of Light  
 Garden of Lights

[그림 3-100] 추모공원 현상설계 중 7개의 최종 후보작 (당선작 제외) (출처 : <http://www.wtcsitememorial.org/>)

‘묘지를 연상시키지 않아서 좋다’, ‘광장을 비추는 방식이 맘에 든다’, ‘매우 의미있고 혁신적이다’, ‘과거 WTC를 올려다보는 느낌이 든다’, ‘보행자와 빛 구름을 연결한 것이 좋다’ 등이 있었다. 그리고 부정적 의견으로는 ‘행덩그레한 동굴같다’, ‘밀실공포증을 유발할 것 같다’, ‘유지보수 문제가 있다’, ‘기념하는 것 같다기 보다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에 불과하다’, ‘실제 지어지는 것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등이었다.

‘부재의 반영(Reflecting Absence)’에 대해서는 ‘이 계획안은 응모작들 중 유일하게 진정한 감정을 자극한다’, ‘직감적으로 슬픔과 상실에 대해 알 수 있다’, ‘추모의 느낌이 가장 강하다’ 등의 긍정적 반응이 있었다. 반면에 상실의 느낌이 너무 강하다는 측면이 부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즉, ‘너무 황량하고 차갑다’, ‘너무 상실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미래 세대에게도 극복하기보다는 상실감과 패배감을 강조할 것이다’ 라고 응답하기도 했다. 또한 너무 많은 오픈스페이스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추모객들과 일상의 이용자들이 뒤섞여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sup>346)</sup>

응모작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들은 다음과 같다.

346) 이 안은 이듬해인 2004년 1월 6일에 최종 당선안으로 선정되었다.

###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 너무 건축적 오브젝트에만 관계되었기 때문에 장소에 특화된 점을 찾아볼 수 없다. 사건이 벌어진 날 사람들이 협동으로 구조 및 복구작업을 벌인 일에 대해서도 아무런 표현이 없다.
- 구태여 추상적 상징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기념하려고 하기보다, 프리츠 쾨니히의 지구본처럼 무너진 건물의 잔해에서 건져낸 것들이 테러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 희생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알파벳 순서가 아니라 발견된 자리 혹은 친지관계에 따라 묶어주어야 한다.
- 투명한 유리, 각각의 희생자들을 나타내는 빛, 폭포 등 유지보수에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많다. 전등 하나가 꺼지거나, 물이 얼거나 하는 일상적인 사태에 대한 대응이 힘들 것이다.
- 바로 옆의 뮤지엄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기념공원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뮤지엄에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혹은 뮤지엄과 기념공원은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선정된 8개의 안 이외의 5,193개의 안에 대해서도 재검토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어떤 참가자들은 자신의 응모 안에 포함된 요소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심사의 과정은 과연 공정하게 진행된 것인가

이매진뉴욕 측은 자발적 참여자들의 의견을 모아 LMDC측에 전달하면서, 디자인 당선안이 결정된 후에도 우리가 전달한 의견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영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sup>347)</sup>

비록, 수렴된 대중의 의견으로 추모공원의 최종 안이 결정되거나 의사결정과정에서 투명한 절차에 의해 명확한 역할을 맡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매진뉴욕의 워크숍을 통해 대중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의견은 감각과 경험적 측면에서 제시되거나, 유지보수와 같은 실용적 측면에서 제안되기도 했다.

또한 대중은 조용하고 경건하게 추모하는 분위기와 ‘굽히지 않는 자존심’ 과 활력을 상징하는 표현과 같이 대립된 가치 사이에서 고민할 수 있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민이 물질적으로 표현된 구체적인 대안을 놓고 토론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당선안에 대해 모든 사람들의 선호가 일치한 것은 아니었지만, 의견을 달리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나와 동등한 사람이 제시한 다른 의견’ 을 확인한다는 것은 결과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심사위원의 일방적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과는 중요한 차이점을 만들어 줄 것이다.

---

347) Imagine New York, *Toward the People's Memorial : Summary Report*, op.cit., p.5

#### (4) 뮤지엄 입주업체 반대 (2004.05~2005.10)

이 장에서는, 추모공원에 인접한 뮤지엄의 입주업체가 시민들의 반대로 입주대상에서 제외 되면서 뮤지엄이 방문자센터로 변경되는 과정을 다룬다. 앞의 주제들과 마찬가지로 신문기사를 통해 토론장과 작업장의 영향관계를 분석할 것이며, 작업장의 경우 구체적인 디자인까지 관계된 사안은 아니었기 때문에 전체 건물의 시설이 변경되는 수준에서 다룰 것이다.

마스터플랜이 진행되고 문화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LMDC는 2003년 6월에 예술단체들로부터 그라운드제로의 공연장과 뮤지엄에 대한 입주 제안서를 받았다. 총 113개의 제안서를 받은 LMDC는 시정부와 주정부와 함께 해당 내용을 협의해오기 시작했다.<sup>348)</sup> 2004년 5월에 뮤지엄의 입주 업체가 거론되었는데, 그 중 하나는 그라운드제로 부지에 인접해 있던 뮤지엄인 국제자유센터(International Freedom Center)였으며, 다른 하나는 드로잉센터(Drawing Center)였다.<sup>349)</sup>

그런데, 6월에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제자유센터의 입주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현하는 집회를 열었다. 국제자유센터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자유에 대한 범세계적 대화를 지향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9/11 사건으로 희생된 사람들이 미국의 강경한 대외정책과 관련되어 다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 연관성과 교육적 의



[그림 3-101] 시민들의 뮤지엄 입주업체 반대 시위  
(출처 : 뉴욕타임즈)

미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한 논쟁이 ‘이 신성한 땅에서 벌어질 필요는 없다(but not here – not on sacred ground)’는 것이 유가족들의 주장이었다.<sup>350)</sup> 국제자유센터가 그라운드제로에서 그러한 취지의 전시를 진행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드로잉센터 역시 마찬가지였다. 당시 드로잉센터는 부시대통령이 이라크, 이란, 북한을 ‘악의 축(the Axis of Evil)’으로 설정한 것에 대한 전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348) ROBIN POGREBIN, "Arts Groups Call for Openness at Ground Zero," *New York Times*, 3 Jun. 2004 :1

349) "Culture in Lower Manhattan," *New York Times*, 27 May 2004 :28

350) JANON FISHER, "Relatives Protest Plan for Museum at 9/11 Memorial Site," *New York Times*, 21 Jun. 2005 :4

###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데, 전시에서 전달하는 미 정부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가 그라운드제로라는 추모의 공간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다.<sup>351)</sup>

시민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주지사 파타키도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하자, 국제자유센터와 드로잉센터 측은, “예술단체로서의 문화적 소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부상하고 있는 갈등을 (문화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지만, 어떤 경우에도 희생자들을 폄하하는 일은 없을 것” 이라고 응답했다.<sup>352)</sup>

그러나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7월에 드로잉센터는 그라운드제로 부지가 아닌 다른 곳을 찾아보기로 결정하였다.<sup>353)</sup> 국제자유센터 역시 같은 길을 걸었다. 국제자유센터는 전체 부지 안에서 추모공원에 인접한 기존 위치가 아닌 다른 장소를 물색하려 했지만, 9월에 주지사 파타키는 “국제자유센터는 그라운드제로 부지에 지어질 수 없을 것” 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퇴출시켰다.<sup>354)</sup>

이제까지 뮤지엄의 입주업체가 거론되면서 퇴출되기까지의 논의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2004년 5월부터 2005년 10월까지의 뉴욕타임즈 기사들 중 뮤지엄에 관계된 기사들을 대상으로 주요 키워드에 대한 유사성 0.5 이상의 연결망을 표현해보았다.<sup>355)356)</sup>

분석과정에서 추출되었던 224개의 키워드들 중에 국제자유센터(freedomcenter)는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하고 드로잉센터(drawingcenter)는 열다섯번째로 많이 등장하지만, 전체 연결망 상에서 중심보다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이것은 해당기간동안의 주요한 논의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두 기관은 비교적 초기단계에 입주 여부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의 전체 흐름에 중요한

351) PATRICK D. HEALY; Glenn Collins, Robin Pogrebin, "Pataki Warns Cultural Groups For Museum At Ground Zero," *New York Times*, 25 Jun. 2005 :1

352) Ib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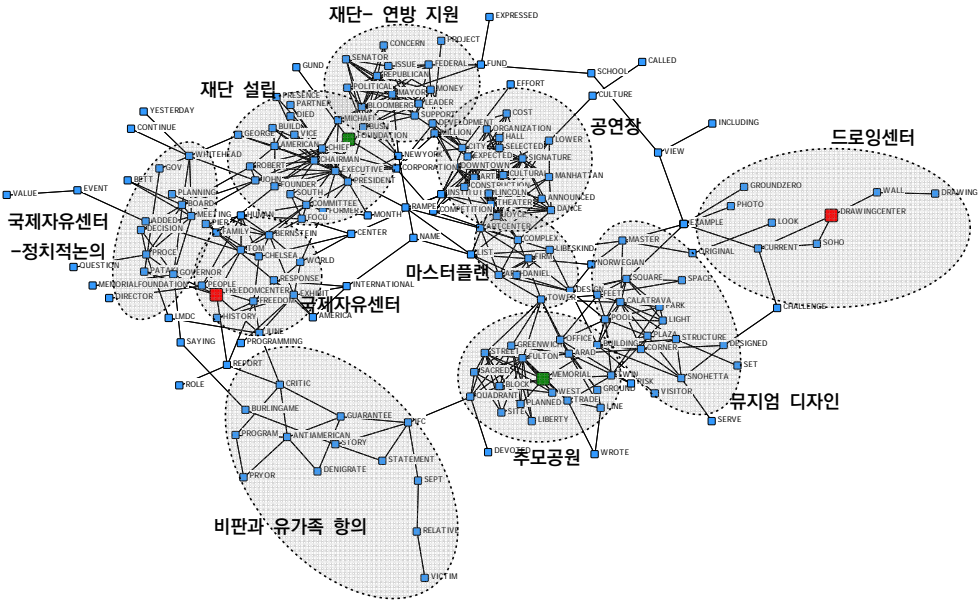
353) DAVID W. DUNLAP, "Drawing Center May Drop Plan to Move to Ground Zero," *New York Times*, 23 Jul. 2005 :3

354) DAVID W. DUNLAP, "GOVERNOR BARS FREEDOM CENTER AT GROUND ZERO," *New York Times*, 29 Sept. 2005 :1

355) 해당 기간동안 'Drawing Center' 혹은 'Freedom Center'를 포함한 78개의 기사를 수집하였다. 그 후에 내용을 직접 검토하여 드로잉센터와 국제자유센터에 대해 다룬 기사 48개를 다시 선별하였다. 그리고 이 기사들에서 출현빈도가 높은 224개 키워드를 대상으로 유사성연결망을 만들었다.

앞의 경우와 다르게 수동적인 선별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샘플의 수가 적기 때문에, 두 센터가 가법계 언급되면서 다른 주제를 다룬 기사들의 키워드들로 인하여 결과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356) 연결망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연결망에서 추모재단(foundation), 추모공원(memorial), 드로잉센터(drawingcenter), 국제자유센터(freedomcenter)를 강조하여 표현하였다.



[그림 3-102] 2004.05~2005.10 까지 뮤지엄을 다룬 기사들의 주요 키워드들의 유사성연결망 ( $r \geq 0.5$ )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며, 해당기간의 논의는 추모재단(foundation)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체 연결망은 ‘재단 설립’ 그룹과 ‘마스터플랜’ 그룹을 중심으로 읽어나가면 파악하기에 수월하다. 그라운드제로 사업에서 추모공원과 공연장, 뮤지엄 등 LMDC에 관계된 시설들은 추모재단을 설립하여 민간의 모금을 통해 건설하기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사업진행에 따라 재단이 설립되었고, 여기에 대한 연방의 지원문제도 함께 오고 갔다.<sup>357)</sup> 그리고 재단이 설립되면서 LMDC와 항만청 사이에는 그 역할 범위에 대한 논의가 오고갔다. ‘재단 설립’ 그룹의 왼쪽에서 ‘파타키(Pataki)’와 ‘LMDC’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국제자유센터에 대한 논의는 바로 이 지점에 위치한다. 재단이 설립되면서 부지 내에 추모공원 외에 어떤 문화시설을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가 함께 거론되었고, 뮤지엄과 공연장(Performing Art Center)을 넣기로 결정하였다. ‘재단’에 대한 키워드들 양쪽으로 ‘국제자유센터’와 ‘공연장’ 그룹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357) DAVID W. DUNLAP, "Panel Is Picked To Raise Funds For Memorial," *New York Times*, 2 Dec. 2004 :1

사실 때문이다. 즉, 국제자유센터는 재단의 기금으로 건설되는 동시에(‘재단설립’ 그룹과 인접) 주요 관료들의 정치적 파워게임과 연관(‘재단설립-정치적논의’와 인접)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자유센터는 그 전시내용으로 인하여 비평가들과 희생자 유가족들의 항의를 받고 퇴출되었다. 국제자유센터 하단에 ‘비판과 유가족 항의’에 관련된 키워드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유가족들이 항의한 이유는 뮤지엄 부지가 ‘신성한(sacred)’ 추모공원 바로 옆이기 때문이었다. 그룹 오른쪽에 인접한 ‘추모공원’ 그룹에서 관련 키워드들을 찾아볼 수 있다.

추모공원 상부로는 마스터플랜에 대한 키워드들이 있다. ‘마스터플랜’ 그룹 주변으로 마스터플랜에 포함되는 ‘공연장’, ‘뮤지엄디자인’, ‘추모공원’ 그룹이 있다.

국제자유센터가 많은 논란을 야기하는 키워드들과 인접하여 있다면, 드로잉센터는 상대적으로 다른 키워드들과 많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드로잉센터가 논란 위에 오른 후, 논란이 심화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다른 곳을 이전 장소로 물색하였기 때문이며 상대적으로 국제자유센터보다는 이념의 문제를 덜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sup>358)</sup> 따라서 국제자유센터와는 달리 비판의 정황을 보여주는 키워드들을 주변에서 찾아볼 수 없다.

지금까지 살펴 본 연결망은 뮤지엄의 입주업체를 정하는 과정이 어떠한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는지 보여준다. 업체 선정과정은 단순히 제안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입주 업체는 인접한 추모공원에 대해 ‘추모’라는 상징성을 존중해야 하며, 동시에 업체가 입주할 건물의 건립예산과도 관련되었다. 그리고 후속작업과도 관련된다. 두 업체의 입주의 자격이 박탈당함에 따라 스노헤타(Snohetta)는 건물을 다시 디자인해야만 했다.<sup>359)</sup>

그리고 사건 전체를 통해, 시민들이 추모공원이라는 장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다. ‘신성한 장소(sacred ground)’라는 인식은 뒤에 무슬림 센터의 문제에서 또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

---

358) ROBIN POGREBIN, "Exiled From Ground Zero, Arts Center Loses Leader," *New York Times*, 18 Mar. 2006 :1

359) DAVID W. DUNLAP, "For Ground Zero Building, It's Back to Drawing Board," *New York Times*, 3 Oct. 2005 :2

## (5) 보안문제로 인한 1WTC의 설계변경 (2005.04~2006.06)

여기에서는 1WTC가 보안과 안전에 대한 우려(security concerns)로 건물 전체의 디자인이 변경된 사건을 다룬다.<sup>360)</sup> 보안과 안전이라는 문제는 테러로 인해 부지 전체가 소실된 그라운드제로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였다. 그라운드제로는 금융가의 중심이라는 점에서 자본주의의 상징이기도 하면서 미국의 자존심과도 같은 곳이므로 건물을 다시 짓더라도 또 다시 공격당할 위험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었다. 2005년과 2006년 사이에 1WTC 뿐만 아니라 교통환승센터(PATH terminal)와 추모공원도 같은 문제로 다시 설계되었다. 그 중에서 특별히 1WTC를 다루는 이유는, 1WTC의 경우에는 다른 건물과 달리 실버스타인과의 협상 문제 등 다른 복잡한 문제들과 동시에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2005년 5월에 1WTC에 대한 테러 위협으로부터의 보안과 안전 문제가 지적되었다. 뉴욕 경찰청은, 미국 국방부와 연방기관의 보안 규정에 따라 건물은 부지 서측의 도로로부터 약 30m 떨어져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일종의 안전 이격거리로서, 도로에서 차량이 폭발물을 터뜨려 공격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당시 계획안에서의 이격거리는 7.5m에 불과했다. 경찰청에서는 이에 대해, 충분히 안전하도록 60m를 이격시키거나 아예 부지 전체에서 서측으로 건물을 이동할 것을 권고했다.<sup>361)</sup>

물론 항만청과 LMDC도 보안 전문가를 고용하여 계획안을 만들어 왔지만, 경찰청이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한 것이었다. 파타키는 지적은 받아들이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면서 경찰청과 뉴욕시의 행정에 불만을 터뜨렸지만, 시는 검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반박했다. 이렇게 잠시 논쟁이 오고갔지만 보안 규정은 지켜져야 하는 요소였다.<sup>362)</sup>

디자인이 수정될 것이라는 결정과 함께 여러 가지 사건과 우려가 이어졌다. 실버스타인은 경찰청의 지적을 수긍하지만,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공공재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기존에 2009년으로 예정되었던 1WTC의 완공이 2011년 이후로 미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경찰청의 지적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가 크게 이

360) 2005년 당시에는 1WTC를 ‘프리덤타워(Freedom Tower)’로 불렀으나, 서술 전체에서의 통일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1WTC’로 표기하였다.

361) PATRICK D. HEALY, "SECURITY ISSUES FORCE A REVIEW AT GROUND ZERO," *New York Times*, 1 May 2005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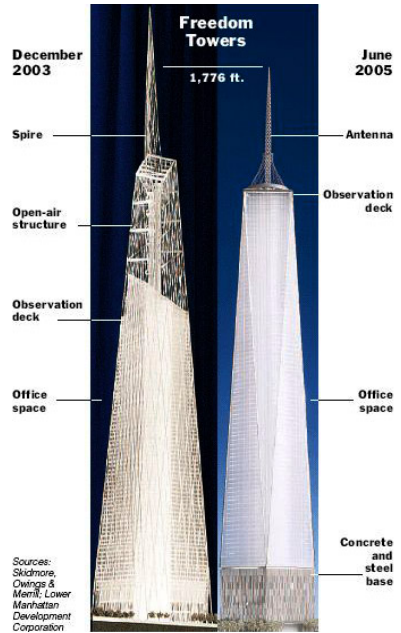
362) Ibid.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슈화 되었기 때문에, 향후 업체들의 건물 입주에도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 또한 제기되었다. 그리고 디자인의 수정으로 건물이 너무 요새처럼 되어버린다면, 건물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sup>363)</sup> 뉴욕타임즈의 건축비평가인 니콜라이 우루소프는 논평을 통해 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프로젝트의 방향성에 대해 건축가와 대중이 공개적으로 말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sup>364)</sup>

두 달 후에 SOM이 디자인한 새로운 안이 공개되었다. 도로로부터 약 20m 이격시키는 대신 60m 높이의 콘크리트 벽으로 기반부를 강화했다. 건물은 전체적으로 많이 변화되었다. 풍력발전도 없어지고, 비틀린 건물의 형태는 대칭적 형태로 바뀌었다. SOM의 데이비드 차일즈는 건물을 다시 디자인하면서 이미 진행된 기초공사를 함께 고려해야 했다고 말했다. 변경된 디자인은 15억 달러라는 기존의 예산을 어느 정도 초과하게 될 것이었으며 누가 강화비용을 지불할 것인가의 문제가 새롭게 떠올랐다.<sup>365)</sup>

칼라트라바의 교통환승센터도 같은 문제로 인하여 디자인이 수정되었다. 건물 상부에서 전체를 갈비뼈처럼 감싸던 구조물의 부재 수가 두 배로 추가되는 등 여러 가지 수정이 이루어진 후 뉴욕경찰청의 검토를 받았다.<sup>366)</sup> 추모공원 역시



[그림 3-103] 2003.12월(좌측 입면도, 상부 평면도)과 2005.06월(우측 입면도, 하부 평면도)의 1WTC 디자인 비교 (출처 : 뉴욕타임즈)

363) Ibid.

364) NICOLAI OUROUSSOFF, "CRITIC'S NOTEBOOK; For Freedom Tower and Ground Zero, Disarray Reigns, and an Opportunity Awaits," *New York Times*, 2 May 2005 :1

365) DAVID W. DUNLAP, "Redesign Puts Freedom Tower on a Fortified Base," *New York Times*, 30 Jun, 2005 :1

366) DAVID W. DUNLAP, "Approval Expected Today For Trade Center Rail Hub," *New York*



마찬가지였다. 비상구를 통한 탈출 문제와 스프링클러와 제연시스템 등의 설비문제가 함께 거론되었다.<sup>367)</sup>

같은 시기에 새로운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1WTC의 디자인 수정이 공사비 문제와 공사지연이라는 두 가지 문제와 관련되면서, 그 동안의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 여부와 점점 늘어나는 공사비를 누가 감당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항만청과 실버스타인 사이에 논쟁이 오고갔던 것이다. 또한 항만청은 협상 과정에서 네 동의 건물(1WTC, 2WTC, 3WTC, 4WTC)에 대한 공사비와 운영을 실버스타인이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일부 건물을 항만청의 소유로 두고자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항만청은 로어맨하탄 주변 오피스의 공실률이 14%에 달한다는 분석을 제시하면서 전체 개발에서 오피스 비율을 줄여나가려고 했다.<sup>368)</sup> 이 문제는 2006년 4월에 일단락되었다.<sup>369)</sup>



[그림 3-104] 2006년 6월에 공개된 1WTC의 설계안. 1층 평면도(좌), 1층 진입부 투시도(가운데), 건물 하부 모형(우)  
(출처 : 뉴욕타임즈)

2006년 6월에, 수정된 1WTC의 상세한 설계가 공개되었다. 1년 전에 발표되었던 계획안을 기초로 발전시킨 것이었다. 두께가 공개되지 않은 고밀도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건물 하부를 강화하고, 외장에는 자동차 앞 유리와 같은 종류의 라미네이트 유리를 사용하여 콘크리트가 주는 외관의 무거운 느낌을 상쇄시키면서 폭발 시에도 파편으로 부서져 깨지지 않도록 했다. 출입구도 보다 여러 방향에 두는 등 가장 높은 수준의 보안 규정을 준수하도록 했다.<sup>370)</sup>

*Times*, 28 Jul. 2005 :3

367) DAVID W. DUNLAP, "Critics Raise Concerns Over 9/11 Memorial Exits," *New York Times*, 29 Mar. 2006 :1

368) CHARLES V. BAGLI, "5 Weeks Left For Decisions On Rebuilding," *New York Times*, 6 Feb. 2006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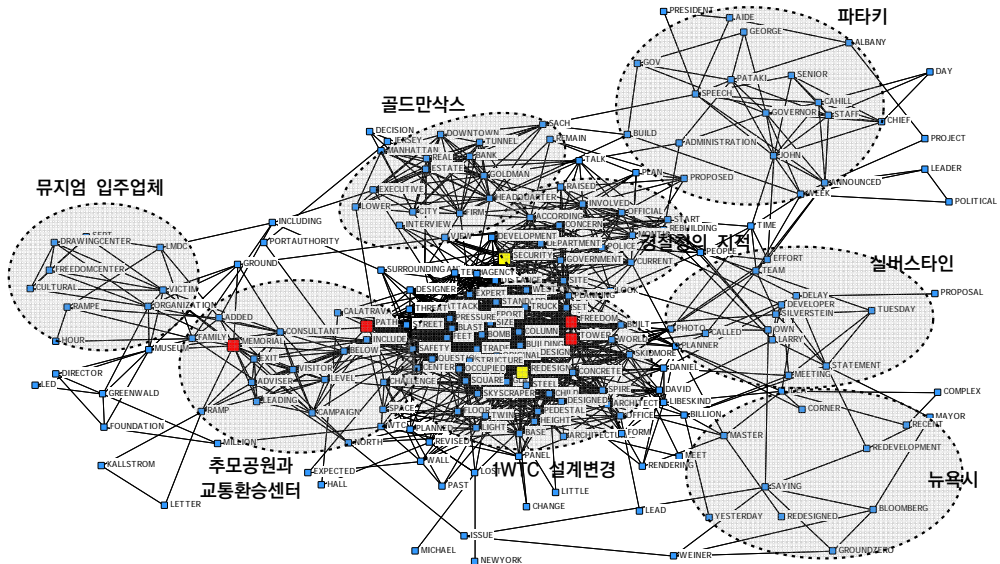
369) 항만청이 1WTC에 대한 권리를, 실버스타인이 2,3,4WTC에 대한 권리를 갖기로 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다룰 것이다.

CHARLES V. BAGLI, "DEVELOPER TAKES A FINANCIAL DEAL FOR GROUND ZERO," *New York Times*, 26 Apr. 2006 :1

370) DAVID W. DUNLAP, "Redesign Puts Freedom Tower on a Fortified Base," *New York*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이제까지 1WTC의 보안 문제가 지적되고 나서부터 상세한 수정안이 제시될 때까지의 논의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2005년 4월부터 2006년 6월까지의 뉴욕타임즈 기사들 중 1WTC에 관계된 기사들을 대상으로 주요 키워드에 대한 유사성 0.5 이상의 연결망을 표현해 보았다.<sup>371)</sup>



[그림 3-105] 2006.05~2006.6 까지 1WTC 설계변경을 다룬 기사들의 주요 키워드들의 유사성연결망 ( $r \geq 0.5$ )

전체 연결망은 ‘1WTC 설계변경’ 그룹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 그룹에는 폭탄을 싣고 있는 트럭의 폭발 공격(bomb, truck, blast, attack), 빌딩 하부의 콘크리트(concrete), 웨스트 가(west, street)로 부터의 이격거리(feet)등 설계변경에 관련된 키워드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좌측에는, 역시 설계변경작업을 거친 추모공원 및 교통환승센터와 관련된 키워드들을 찾아볼 수 있다.

설계변경에 관한 그룹 상부에는 경찰청의 지적에 대한 키워드들이 있으며, 그 왼쪽에는 ‘골드만삭스’ 그룹이 있다. 이 기간 동안 골드만삭스는 1WTC의 서측도로인 웨스트 가(West Street)옆 부지에 40층의 본사 건물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라운드제로를 목표로 한 테러 공격이 웨스트 가에서 감행될 경우, 폭발은 커다란 구덩이를 남기며 골드만삭스 건물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을 보고받았다. 이에 따라 골드만삭스는 본사 건립 계획을 철회하고 미드타운으로 새 보금자리를 물색하

Times, 30 Jun, 2005 :1

371) 해당 기간동안 'security'와 'redesign'을 포함한 30개의 기사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이 기사들에서 출현빈도가 높은 211개 키워드를 대상으로 유사성연결망을 만들었다.

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바로 초기에 1WTC의 보안 문제를 이슈화 시킨 주요 원인이기도 했다.<sup>372)</sup>

그림의 오른쪽에는 위쪽부터 파타키, 실버스타인, 뉴욕시에 관계된 그룹이 있다. 로어맨하탄의 공실률 문제와 세 주체 사이의 협상에 대한 키워드들이 잘 드러나지 않은 것은, 분석 대상 기사가 30개로 적은 수에 해당하며 211개의 주요 키워드들 역시 상대적으로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연결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보안문제로 인한 설계변경 과정에서는 비교적 디자인의 문제에 집중되어 사안이 다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버스타인과 항만청 간의 협상 문제는 같은 시기에 연관되어 다루어졌으나 설계변경을 언급한 기사들에는 적게 등장했던 것이다. 물론, 파타키, 실버스타인, 뉴욕시에 대한 키워드들이 느슨할지언정 주변에 분포하고 있다는 것은 설계변경에 대한 문제가 발주처 주체들의 관계와 무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보안과 안전이라는 문제는 비록 경찰청의 지적을 통해 드러났지만, 골드만 삭스와 같은 대기업이 주변의 입주를 꺼리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라운드제로 부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로어맨하탄 전반의 사회적 문제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 (6) 공사비 절감을 위한 추모공원 설계 변경 (2006.05~2006.06)

이번 장에서는 추모공원의 과도한 공사비가 지적되면서 설계변경안이 제시되기까지의 논의를 다룬다. 문제가 제기 되면서부터 약 45일 동안의 짧은 기간에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원가절감안을 제시했으며, 관련된 문제로 추모재단의 이사장이 사임하기도 했다. 여기서는 비용이라는 문제가 어떻게 공론화되면서 디자인의 문제로 해결되어나가는지에 주목하여 본다.

2006년 5월에 그라운드제로의 공사비가 10억달러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추모재단의 공사관리업체인 보비스렌드리스(Bovis Lend Lease)는 추모공원의 공사비를 6억7천2백만달러로 산정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냉각장치, 지하도로, 슬러리월 안정화, 경찰초소, 인도, 각종 설비 등을 합하면 9억7천3백만달러가 든다고 했다. 이

372) PATRICK D. HEALY, "SECURITY ISSUES FORCE A REVIEW AT GROUND ZERO.", op.cit.

###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것은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보험료나 전시디자인비용이 포함된 것이기는 했지만, 5억달러로 추정되었던 기존의 계산보다 두 배 가까이나 증가한 것이었다.<sup>373)</sup> 기존에는 항만청이 1억달러를, LMDC가 연방지원금 2억달러를 내고 추모재단의 민간 모금으로 나머지를 충당할 예정였으며 추모재단은 1억 3천만달러까지 모금을 진행한 상태였다.<sup>374)</sup>

과도한 금액의 공사비는 미국에서 지어졌던 다른 추모공원들과 비교되었다. 1982년의 베트남전 기념공원은 7백만달러가 소요되었으며, 2000년에 개관한 오클라호마시 추모공원은 2천9백만달러가 소요되었다. 2004년에 개관한 2차대전 추모공원도 1억8천만달러 수준이었다.<sup>375)</sup>

문제의 해결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하나는 우선 디자인을 변경하여 공사비를 줄이는 것이고, 동시에 모금을 더 진행하여 증가한 공사비를 충당하는 것이었다.<sup>376)</sup>

언론에서는 공사비 내역을 분석하여 원가 절감안을 제시하였다. 지하로 파고 들어간 전체 구조물의 형태를 지면과 같은 레벨로 변경하거나 지하무지엄과 방문자센터를 1WTC로 옮기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그리고 기존 북쪽타워 자리의 구조물에서 명상실이나 폭포를 없애는 방법과 같이 일부 요소를 디자인에서 삭제하는 방안도 거론되었다. 2004년에 당선된 설계의 원 안에서는 지하무지엄이나 방문자센터, 주변의 나무들은 없었다는 사실이 이러한 제안의 근거로 제시되었다.<sup>377)</sup>

일부에서는 공적 프로세스를 거쳐 합의를 이룬 추모공원이 공사비 문제로 전체 사업이 흔들리게 되는 사실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마이클 아라드의 초기 디자인대로 진행한다는 원칙이 있어야 공공의 의견이 존중되는 것이라는 주장이었다.<sup>378)</sup>

---

373) 2005년 11월 23일에 추모공원의 공사비가 4억9천만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계산이 발표된 바 있다. 다음의 기사를 참고.

DAVID W. DUNLAP, "Ground Zero Memorial Cost Estimated at \$490 Million," *New York Times*, 23 Nov. 2005 :3

374) CHARLES V. BAGLI, "MEMORIAL'S COST AT GROUND ZERO NEARS \$1 BILLION," *New York Times*, 5 May 2006 :1

375) Ibid.

376) Ibid.

377) DAVID W. DUNLAP, "Trimming Down to a Less Costly Design at Ground Zero," *New York Times*, 6 May 2006 :5

378) James E. Young, "A Last Chance for Ground Zero," *New York Times*, 18 May 2006 :29

한편 문제가 불거져 나오자 추모재단은 모금을 중단했다. 재단은 2006년 초에 계산된 5억달러에 맞추어 기부자들에게 홍보활동을 진행하면서 모금을 진행하였으나, 전체 공사비가 불투명하게 된 이상 새로운 안이 확정될 때까지 모금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sup>379)</sup>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추모재단과 LMDC 사이의 책임범위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면서 갈등이 생겨났다. 애초에 재단은 추모공원에 대한 모금과 운영만을 맡고, LMDC가 디자인과 건설을 책임지는 것이었는데, 재단이 모금과 디자인의 문제를 결부 짓는 월권행위를 한다는 것이 파타키와 뉴욕시장 블룸버그의 입장이었다. 결국 모금중단 결정을 내린 재단의 이사장 다익스트라(Gretchen Dykstra)가 내부적 압력에 의해 이사장을 사임하면서 문제는 일단락되었다.<sup>380)</sup>

6월 21일에 새로운 원가 절감안이 발표되었다. 파타키와 블룸버그의 지시로 싸이암 개발(Frank J. Sciame)이 마이클 아라드와 리베스킨트를 포함한 팀을 구성하여 디자인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하였다. 이 절감 안은 6억7천2백만달러였던 추모공원 부분의 공사비를 5억천만달러로 줄인 것이었다. 지하의 거대한 공간, 폭포, 담겨진 물, 그 주변의 사망자명단과 같은 주요한 디자인 요소는 유지하였다. 대신 사망자 명단을 새긴 부분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려보내고 지하로 들어가는 긴 램프를 삭제하였다. 또한 지하무지엄의 8개 전시관중 6개를 삭제함으로써 기존 뮤지엄 면적의 20%를 줄였다. 그리고 주변 기반 시설의 양도 줄여 3억 달러의 해당 예산을 1억8천만달러로 절감하였다. 그렇게 하여 45일전 10억달러로 예상되었던 총공사비는 7억달러까지 줄어들게 되었다.<sup>38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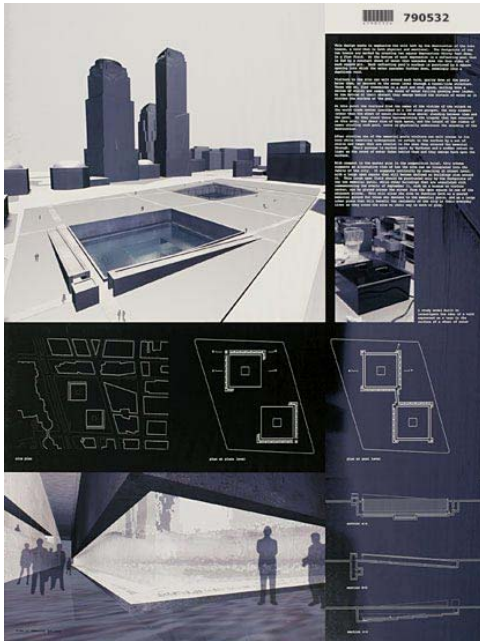
[그림 3-106] 사망자 이름 표기 위치의 변경. 기존 안(좌)과 변경 안(우) 지하에서 지상으로 변경되었다.(흰색 원으로 표시)  
(출처 : wtcsitememorial.org 및 renewnyc.org)

379) DAVID W. DUNLAP, "9/11 Group Suspends Fund-Raising For Memorial," *New York Times*, 9 May 2006 :6

380) DAVID W. DUNLAP, "Memorial Chief Quits as Plans Grow Confusing," *New York Times*, 27 May 2006 :1

381) DAVID W. DUNLAP, "New Look At Memorial Lowers Cost," *New York Times*, 21 Jun. 2006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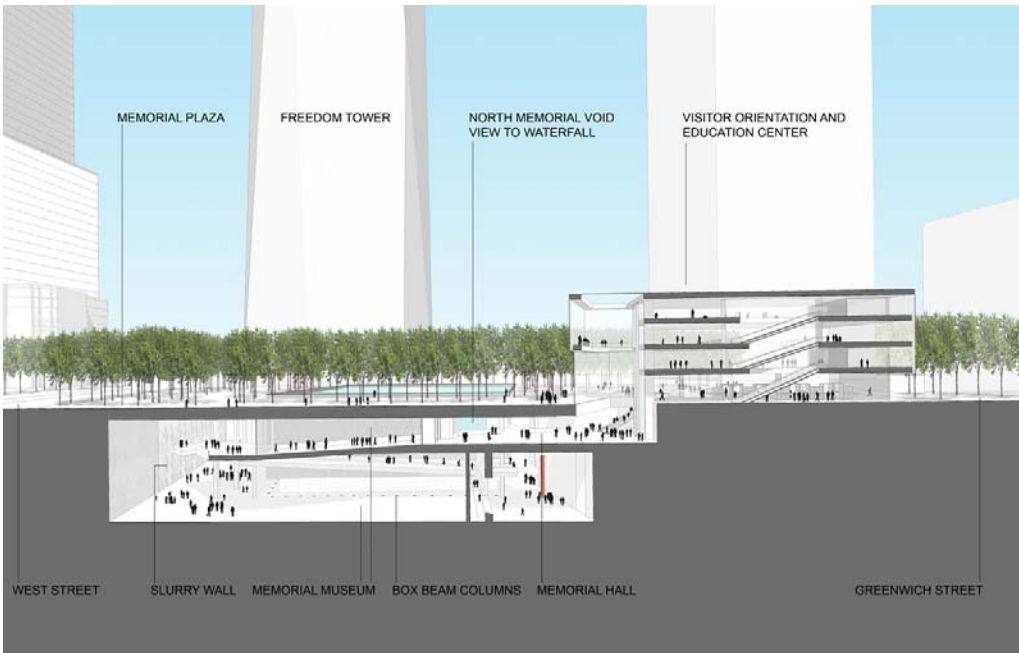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그림 3-107] 설계경기 당시 마이클 아라드의 응모안 투시도와 단면도를 통해 지하로 들어가는 램프를 강조했다. 주변 광장에 나무는 없다. (출처 : wtsitememorial.org)



[그림 3-108] 원가 절감에 따라 변경된 디자인. 조감도 지하로 들어가는 램프가 삭제되고 광장의 나무가 추가되었다. (출처 : renewnyc.org)



[그림 3-109] 원가 절감에 따라 변경된 디자인. 단면도. 기존의 진입 램프가 삭제되고 방문자센터를 통해 지하로 내려간다. (출처 : renewnyc.org)

추모공원이 많은 시민들의 관심사였던 만큼 새로 디자인된 계획안은 LMDC의 보도자료와 컴퓨터그래픽 이미지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었다.<sup>382)</sup> 그리고 싸이암 개발의 개략적 보고서 역시 웹사이트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었다.<sup>383)</sup>

변화에 대한 반응은 상반된 양상으로 드러났다. 뉴욕타임즈 비평가 니콜라이 우루소프는 “기존 디자인의 핵심이었던 지하로 들어가는 경사로를 삭제함으로써, 혼한 기업 광장의 분수가 되어버렸다”고 비판했다.<sup>384)</sup> 반면, 싸이암의 변경안이 핵심을 남긴 것이며, 마이클 아라드도 이에 대해 협력적으로 동의했다면서 전체적인 진행을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었다.<sup>385)</sup>

이제까지 공사비 초과 문제가 지적되면서부터 추모공원의 설계변경이 결정되기까지의 논의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2006년 5월부터 2006년 6월까지의 뉴욕타임즈 기사들 중 추모공원에 관계된 기사들을 대상으로 주요 키워드에 대한 유사성 0.6 이상의 연결망을 표현해 보았다.<sup>386)</sup>

전체 키워드들은 ‘비용문제-디자인변경’ 그룹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 그룹은 비용(cost)이 문제가 되면서 디자인(design)을 변경을 결정하는 과정에 관계된 키워드들로 이루어져 있다. 바로 위에는 보비스렌드리스(Bovis, lens, lease)그룹이 산정한 추모공원 공사(construction) 비용이 10억달러에 가깝다는 문제제기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있다.

그리고 그림의 오른쪽에는 디자인 변경안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지칭하는 키워드들이 그룹을 이루고 있다. 변경안을 도출한 싸이암(Sciame)과 더불어 폭포(waterfall), 입구(entrance), 램프(ramp)와 같은 단어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 그룹과 ‘비용문제제기’ 그룹은 ‘슬러리 월’ 그룹을 사이에 두고 연결된다. 슬러리 월은 기존 쌍둥이빌딩의 지하부에 토압을 견디기 위해 만들어 놓았던 것으로, 이것을 보존할 것인지 혹은 다시 새로 디자인 할 것인가의 문제가 사업기간 내내 논의되었다. 추모공원은 기존 쌍둥이빌딩의 자리에 조성하는 것이므로 슬러리 월을

382) <http://www.renewnyc.com/News/MediaResources.asp> 참고. 2012.02.01 접속

383) 다음의 주소를 참고. 2012.04.25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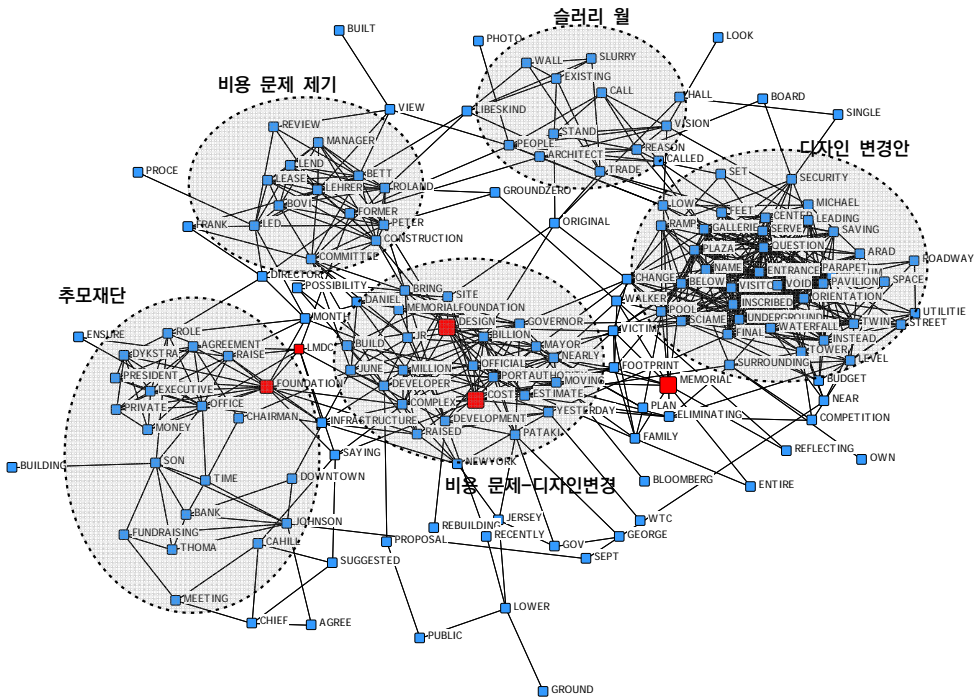
[http://graphics8.nytimes.com/packages/pdf/nyregion/FRANK\\_SCIAME\\_Draft\\_Rec\\_Analysis.pdf](http://graphics8.nytimes.com/packages/pdf/nyregion/FRANK_SCIAME_Draft_Rec_Analysis.pdf)

384) NICOLAI OUROUSSOFF, "CRITIC'S NOTEBOOK: The Ground Zero Memorial, Revised but Not Improved," *New York Times*, 22 Jun. 2006 :5

385) "9/11 Memorial, Version 2.0," *New York Times*, 22 Jun. 2006 :24

386) 해당 기간동안 'memorial', 'cost', 'design', '\$500'을 포함하는 14개의 기사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이 기사들에서 출현빈도가 높은 162개 키워드를 대상으로 유사성연결망을 만들었다.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그림 3-110] 2006.05~2006.06 까지 추모공원 설계변경을 다룬 기사들의 주요 키워드들의 유사성연결망 ( $r \geq 0.6$ )

보존하고 안정화 하는 비용이 추모공원 공사비와 함께 논의되었다.

그림의 왼쪽에는 ‘추모재단’ 그룹이 있다. 앞에 설명하였듯이 공사비의 모금과 이사장의 사임이 전체적인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

추모공원의 공사비용 초과가 문제되면서 디자인이 변경되기까지의 논의는 비용과 디자인의 문제에 집중하여 전개되었다는 것이 연결망 분석을 통해서 드러났다. 마이클 아라드의 초기 안에서 나무, 뮤지엄, 방문자센터와 같은 요소들이 추가되면서 공사비가 상승했으며, 이것이 대중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초기 디자인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이러한 대립은 연결망 상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연결망 상에 드러난 재단 관련 사건이 바로, 대중을 상대로 한 모금에서 ‘기부자로서의 알 권리’에 대한 다익스트라의 신념, 즉 디자인 외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sup>387)</sup>

387) 재단 이사장인 다익스트라가 모금을 중단했던 주요한 이유는 ‘민간 기부금을 받을 때는 그들에게 명확한 목표 금액과 사용처를 알려야 한다’는 다익스트라의 생각 때문이었다. 따라서 전체 공사비가 수정되고 어떠한 디자인으로 지어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결정될 때까지 다익스트라는 모금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DAVID W. DUNLAP, "Memorial Chief Quits as Plans Grow Confusing.", op.cit.



## (7) 추모공원의 희생자 이름 배열 (2003.05~2006.12)

이 장에서는 추모공원에 새겨지는 희생자 이름 배열과 관련된 논의들을 다룬다. 희생자들은 크게 나눌 때, 테러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와 구조 작업 중 사망한 사람들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테러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들도 비행기에 탑승했던 사람과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로 나눌 수 있는 등, 구분하자면 모든 희생자들은 여러 가지 입장과 소속으로 나눌 수 있다. 추모공원에는 확인된 모든 사망자들의 이름을 새겨 넣기로 했는데, 어떠한 순서로 새겨 넣을 것인지, 혹은 어떻게 사망자들을 구분할 것인지의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여기서는 이러한 논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들을 아우르면서 논의가 확장되어 나갔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이름 배열의 문제는 추모공원 설계경기가 공고되었을 때부터 거론되기 시작했다. 추모공원 설계경기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추모공원은 모든 삶의 상실과 모두의 기여에 대해 특정한 위계를 두지 않고 동등하게 기념해야 한다” 고 명시함으로써 이름 배열에 대한 기본적 원칙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런데 동시에, “구조와 복구 및 치료 작업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는 내용을 포함시켜 해석의 모호함을 주기도 했다. 그런데 소방관 단체가 구조 작업 중 사망한 사람들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구분해 달라는 로비작업을 벌였고, 이에 따라 ‘응모작에 포함된 내용에 따라 이름배열 순서나 그룹의 구분이 달라질 수 있다’ 고 방침이 변경된 것이었다. 이때부터 서로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논쟁이 시작되었다.<sup>388)</sup>

관련된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오다가, 2006년 6월에 공사비 절감을 이유로 추모공원의 디자인이 변경되자 다시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떠올랐다. 2004년에 주지사 와 시장이 ‘이름은 특정한 순서 없이 배열될 것이며, 구조자의 이름 옆에는 휘장이 붙을 것’ 이라고 말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이들을 위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라면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sup>389)</sup> 그러나 또 다른 의견도 있었다. 일부는 사망자들이 무작위가 아닌, 소속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390)</sup> 의견은 분분했다. 마이클 아라드의 안에서는 희생자들이 특정한 순서

388) EDWARD WYATT, "Memorial Jury to Decide How to List 9/11 Rescuers," *New York Times*, 31 May 2003 :3

389) DAVID W. DUNLAP, "New Look At Memorial Lowers Cost," op.cit.

390) DAVID W. DUNLAP, "Pessimism Is Growing On Rebuilding Of 9/11 Site," *New York Times*, 8 Jul. 2006 :5

###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에 의해 배열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친구나 친척 혹은 동료들끼리 한데 묶어 배열할 수는 있다고 했다. 또한, 소속과 사망한 장소(비행기 번호, 건물의 층수)에 따라 이름들을 구분하고 나이를 함께 표기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sup>391)</sup>

다른 장소의 선례들도 함께 거론되었다. 조직에 따라 구분하고 알파벳 순서로 배열한 곳도 있었고, 사망 장소에 따라 구분한 곳도 있었다. 군인의 경우에는 계급이나 병과가 표기되기도 했다. 인접한 배터리파크(Battery Park)에 있는 9/11 경찰 기념관에는 23명의 사망자들이 계급과 알파벳 순서에 따라 구분되어 있었다. 베트남전 기념관에서는 알파벳 순서로만 배열되었다.<sup>392)</sup>

계급에 따른 구분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계급 때문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중요한 것처럼 표현되어야 하는가” 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편의에 따라 구분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죽은 이들 간의 위계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sup>393)</sup> 직업에 대한 구분도 마찬가지였다. 차이를 뚫으로써 차별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었다.<sup>394)</sup> 그러나 대부분의 희생자 유가족과 소방관들은 구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은 받아들여졌다. 2006년 12월에 추모재단은 기존의 무작위 배열 방침을 철회하고 특정한 원칙들을 새로 정했다.

우선 소방관과 경찰들은 관할부대나 관할구 혹은 중대에 따라 구분하기로 했다. 그러나 계급은 표시하지 않기로 했다. 남쪽 못(pool) 주변에는 그 자리에 있던 건물에서 사망한 사람과 그 건물에 충돌한 비행기의 사망자, 펜실베니아와 펜타곤에서의 테러 사망자, 1993년의 WTC 폭탄 테러 사망자 6명, 그리고 사망 장소를 확실히 알 수 없는 사망자들을 표기하기로 했다. 북쪽 못 주변에는 그 자리에 있던 건물에서 사망한 사람과 그 건물에 충돌한 비행기의 사망자를 표기하기로 했다. 같은 회사의 직원들은 한데 묶여서 배열되지만 회사의 이름은 표기하지 않기로 했다. 부부, 형제자



[그림 3-111] 추모공원의 난간에 표기된 희생자들의 이름

391) David W. Dunlap, "BLOCKS; Deciding How to Arrange the Names of the 9/11 Fallen," *New York Times*, 17 Aug. 2006 :2

392) Ibid.

393) Ibid.

394) "Names on the Memorial," *New York Times*, 23 Sept. 2006 :10

매나 친인척도 한데 묶일 수 있었다. 그러나 나이와 사망한 건물 층 수는 표시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시민들은 무작위로 배열하기로 했다.<sup>395)</sup>

결정은 되었지만 논란이 완전히 가라앉은 것은 아니었다. 만족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일반 시민들의 무작위 배열을 문제 삼는 사람도 있었고, 나이와 층수, 회사이름을 표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제까지 추모공원의 희생자 이름 배열에 대한 논의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2001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의 뉴욕타임즈 기사들 중 해당 주제에 관계된 기사들을 대상으로 주요 키워드에 대한 유사성 0.5 이상의 연결망을 표현해 보았다.<sup>396)</sup> 논의가 집중된 기간은 2003년 5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였지만, 관련된 문제들이 해당 기간 외에도 간간히 등장하였기 때문에 기간을 확장하여 관련된 기사들을 일부 포함하였다.

유사성연결망에서 키워드들은 주요한 3개의 그룹과 나머지 ‘발주처 주체’ 및 ‘소방관’ 그룹으로 명확하게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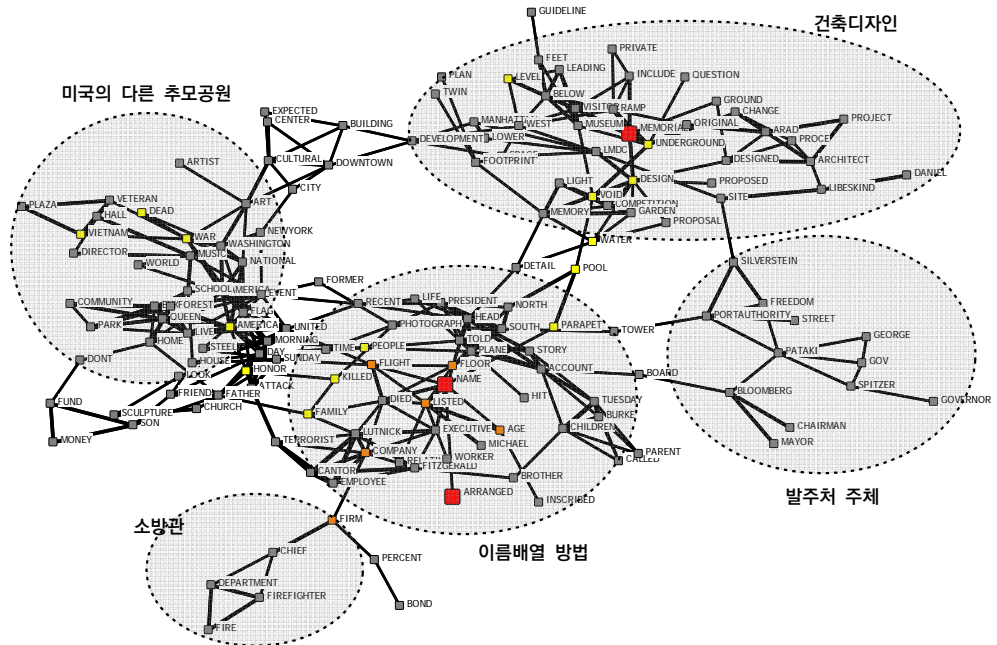
우선 이름배열에 관계된 키워드들로 이루어진 그룹을 보면, 층수(floor), 나이(age), 회사(company, firm), 비행기(flight) 등 논란 속에서 다루어졌던 주요한 기준들을 가리키는 키워드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왼쪽으로는 미국의 다른 추모공원에 대한 키워드들을 찾아볼 수 있다. 배열문제에 대한 논의가 불거져 나오면서 참조할 만한 다른 추모공원의 사례가 거론되었기 때문이다. 이 두 그룹의 사이에 있는 키워드들, 즉 두 그룹을 연결해주는 키워드들은 사망한 사람(killed, people) 가족(family), 기리는 것(honor), 미국(america)과 같이 ‘죽은 자를 어떻게 예우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소방관’ 그룹이 있다. 소방관들은 이름배열의 문제를 결정할 때 소방관들을 별도로 묶어달라는 로비활동을 벌인 바 있다.

건축디자인에 대한 내용은 논의 자체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관련된 많은 기사들에서 함께 등장한다. 내용상으로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연결망에서도 ‘이름배열 방법’ 그룹과 다소 이격되어 있다.

395) DAVID W. DUNLAP, "Plan Is Changed for Arranging Names on Trade Center Memorial," *New York Times*, 14 Dec. 2006 :3

396) 해당 기간동안 'name', 'memorial', 'arrange'을 포함한 55개의 기사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이 기사들에서 출현빈도가 높은 200개 키워드를 대상으로 유사성연결망을 만들었다.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그림 3-112] 2001.09~2011.09 까지 추모공원 이름배열을 다룬 기사들의 주요 키워드들의 유사성연결망 ( $r \geq 0.5$ )

그런데 이 두 그룹을 연결해주는 키워드들을 보면 서로 다른 담론의 집합 간에 어떠한 연결고리가 존재하는가를 볼 수 있다. 북쪽(north), 남쪽(south), 난간(parapet), 못(pool), 물(water), 빈 공간(void)과 같은 키워드들이 ‘이름배열 방법’ 그룹과 ‘건축디자인’ 그룹 사이에 위치한다. 즉, 이름이 배열되는 곳이 바로 ‘빈 공간에 담겨 있는 물(북측 못, 남측 못) 주변의 난간’ 이기 때문에 이름배열과 관련된 논의에서 해당 단어들이 등장했던 것이다. 한편, 이름이 새겨지는 위치는 추모공원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지하의 벽에서 지상의 난간으로 이동했다. 이러한 이유로 이름배열 그룹과 건축디자인이 느슨하게라도 연결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물론 두 그룹은 주지사, 시장과 같은 발주처 주체들과 연관되어 있다. 다익스트라 사임 이후 뉴욕시장인 블룸버그가 추모재단의 이사장을 맡았기 때문에 이름배열순서를 정하는 최종 승인권은 블룸버그가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추모공원의 설계변경문제 역시 뉴욕주지사 파타키 및 LMDC 그리고 블룸버그가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발주처 주체’ 그룹은 ‘건축디자인’ 과 ‘이름배열 방법’ 을 우회적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희생자의 이름을 배열하는 것은 ‘죽은 이를 어떻게 예우할 것인가’ 의 문제와 더불어 ‘물리적으로 특정 위치에 새겨 넣는 문제’ 였다. 그리고 이러한 담론의 관계는 연결망 상에서 각각의 그룹이 동시에 공유하고 있는 키워드들을 매개로 연결되었다.

이름을 새겨 넣은 것은 ‘건축디자인’ 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엽적인 세부사항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추모공원’ 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이름을 배열하는 문제야말로 ‘추모’ 와 가장 관련이 깊은 주제이기도 했다. 그리고 전체 사업을 완성해 가는 생산과정에서 불거져 나왔던 중요한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인간의 동등함과 차별’ 이라는 이슈와 더불어 거론되었던 이름 배열의 문제는, ‘만든다는 것’ 의 의미를 물리적 작업 이상으로 확장해주는 토론장의 담론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8) ‘생존자 계단’ 의 보존 (2006.05~2007.08)

그라운드제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도 ‘보존’ 의 문제가 논의되었다. 건물이 무너진 후에 계단과 기둥 등 온전하게 남겨진 몇몇 구조물들이 발견되었던 것이다. 그 중에 비교적 많이 거론되면서 사업의 다른 부분과 연관되어 다루어졌던 것은 ‘생존자 계단(Survivors' Stairway)’ 이었다.

이 계단은 전체 부지의 북동쪽에 있는 것으로, 기존 쌍둥이 빌딩 중 북쪽 타워의 화재로부터 탈출하던 사람들이 거리로 빠져나오던 경로의 마지막 부분이었다. 기존의 6WTC 위치에 있던 계단이며, 새로 지어질 노만 포스터의 2WTC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건물이 모두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두 높이에 해당하는 계단이 남겨졌고, 하층부는 많이 손상된 반면 상층부는 화강석의 발판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이러한 정황과 남겨진 상태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하여 ‘생존자 계단’ 이라 명명되었으며, 미국 국립역사보존신탁(National Trust for Historical Preservation)에서 역사적 장소로 지정하였다.<sup>397)398)</sup>

397) DAVID W. DUNLAP, "Ground Zero Staircase Is Put on List of Most Endangered Sites," *New York Times*, 11 May 2006 :2

398) 이미 2004년 2월에 계단을 비롯한 기둥과 기차레일 및 2쌍의 지하 파이프 등이 미 국립사적지(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로 등록된 바 있었다. 본래 미 국립사적은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지 50년 이상이 지나야만 등록될 수 있었는데, 그라운드제로의 잔해들이 등록된 것은 ‘많은 사람의 죽음과 관계되었을 때는 예외로 한다’ 는 조항이 적용된 것이었다.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그림 3-113] 생존자 계단과 그 위치(오른쪽 그림에서 점선, 진한 부분이 2WTC) (출처 : 뉴욕타임즈)

2WTC의 개발 권리를 지니고 있었던 실버스타인은 ‘보존하는 방향으로 협의해보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항만청은 ‘계단은 보존하되 반드시 그 자리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설계자인 노만 포스터는 ‘새로운 건물에 생존자계단을 포함하여 디자인해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sup>399)</sup>

2006년 9월에는 실버스타인이 2,3,4 WTC의 디자인을 공개하였다. 계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2WTC가 지어지려면 우선 계단이 철거되어야만 했다.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의 안이 거론되었다. 외부에 구조 틀을 덧씌워 공사기간동안 온전히 보존하는 안, 전체를 떼어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안, 전체를 몇 조각으로 분해하여 추모공원의 뮤지엄으로 옮기는 안이 제시되었다.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로어맨하탄의 시민자치위원회 1(Community Board 1)은 ‘계단의 상징적인 가치는 인정하지만 공사 지연과 비용 증가 때문에 보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그룹인 웨스트스트리트연합(West Street Coalition)은 보존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미래의 방문자가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는데 있어서 계단은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이라는 의견이었다.<sup>400)</sup>

몇 달이 더 지났지만 계단의 향방은 결정되지 않았다. 2WTC의 터파기 공사가 임박하면서 어떤 안으로든 결정을 해야만 했다. 2007년 1월에는 계단의 일부를 2WTC로 진입하는 계단과 통합시키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위치는 거의 그대로 유지하되

DAVID DUNLAP, "In Depths of Ground Zero, Historic Notice Can't Wait," *New York Times*, 8 Feb. 2004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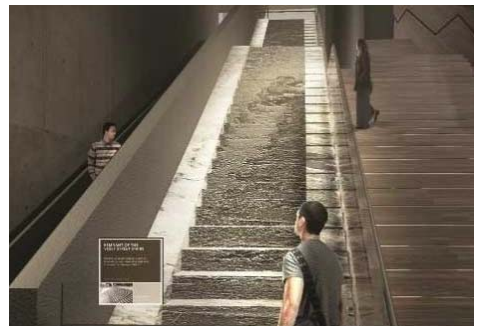
399) DAVID W. DUNLAP, "Ground Zero Staircase Is Put on List of Most Endangered Sites," *op.cit.*

400) David W. Dunlap, "BLOCKS; No Home Yet for 9/11's 'Survivors' Stairway," *New York Times*, 14 Sept. 2006 :2

각도를 틀어야만 했다. 그리고 일부는 추모공원으로 이전하고 다시 일부는 추모공원 옆의 방문자센터로 보내자는 생각이었다. 보존운동가들은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면서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sup>401)</sup>

결정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파타키의 뒤를 이은 새 주지사 엘리엇 스피처(Eliot Spitzer)는 보존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대중의 의견을 받아보겠다고 했으며, 실버스타인은 ‘계단을 그대로 두자는 것은 마스터플랜을 거스르자는 것’ 이라면서 보존주의자들에 응수하기도 했다. 실질적으로 계단을 그대로 두는 방안은 방문객의 흐름을 끊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었다.<sup>402)</sup>

결국 2007년 8월에 계획방향이 결정되었다. 38단의 계단을 모두 보존하되 방문자센터에서 추모공원으로 내려가는 길로 전체를 옮기게 되었다. 기존에는 분해하여 곳곳으로 옮겨 전시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었으나, 이제 사람들은 ‘온전한 계단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sup>403)</sup> 이 계획에 따라 계단을 옮겼으며, 2012년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림 3-114] ‘생존자 계단’ 이전에 대한 계획 이미지  
(출처 : <http://www.pcah.us/>)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생존자 계단이 이전되어 보존되기까지 각기 다른 입장의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다. 그대로 보존할 경우에는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후대에 남길 수 있었지만 건물의 나머지 계획이 변경되어야만 하는 실질적인 기간과 비용의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다. 물론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유구 이전과는 역사적 깊이와 대상의 성격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나지만, 제자리 복원이 아니라 이전 복원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결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 때,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자신과 다른 의견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은, 가치를 저울질하면서 결과를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sup>404)</sup>

401) DAVID W. DUNLAP, "Partial Demolition Planned For a Reminder of Sept. 11," *New York Times*, 19 Jan. 2007 :5

402) DAVID W. DUNLAP, "Spitzer May Try to Save Beloved Staircase at Ground Zero," *New York Times*, 11 Feb. 2007 :38

403) DAVID W. DUNLAP, "Stairs to Remain Intact In Ground Zero Plan," *New York Times*, 6 Aug. 2007 :3

404) 이 문제에 있어서는 관련 기사가 전체 기간 동안 7개에 불과했기 때문에, 연결망 분석은 직접 읽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이외에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해주지 못했다. 따라서 연결망 분석은 생략하였다.

### (9) 항만청과 실버스타인의 협상 (2001.10~2010.03)

항만청과 실버스타인은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여나갔다. 항만청은 부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었던 반면, 실버스타인은 부지 내의 오피스 개발에 대한 권리를 지니고 있었다. 실버스타인은 테러 6주전에 맺은 임대계약에 따라 건물이 소실되어 임대수익이 없는 상황에서도 매달 천만달러의 임대료를 항만청에게 지불해야만 했다. 따라서 그에게는 하루라도 빨리 1년에 1억 2천만 달러 이상의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을 만큼의 오피스를 지을 권리가 있었다.

이러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두 주체는 테러 직후부터 충돌했다. 실버스타인은 자신이 선호하는 건축가를 고용하여 독단적으로 디자인을 진행해 나갔던 것이다. 항만청의 입장에서 볼 때, 실버스타인은 전체 사업을 조화롭고 신속하게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장애물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렇다고 실버스타인과의 계약관계를 청산하고 그를 사업에서 퇴출시킬수도 없었다. 실버스타인이 수령하여 사업에 투입 될 보험금은 45억달러에 달했기 때문이었다. 부지 안에서 가장 높은 1WTC의 초기 추정 공사비가 20억달러였다는 것을 감안할 때, 45억 달러는 고층 빌딩 두 동 이상을 지을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항만청이 사업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민간업체인 실버스타인과 계속해서 협상을 해야만 했다. 전체 사업기간에 걸쳐 진행되었던 이 협상의 과정을 되짚어봄으로써, 대형 공공사업에서 작업장의 주요한 결정들이 어떠한 이해관계와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테러 직후인 2001년 10월부터 실버스타인은 건설을 서둘렀다. SOM을 고용하여 디자인한 네 동의 50층 빌딩 투시도를 공개하는 한편, 2002년에 16에이커 부지 위쪽의 7WTC를 착공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sup>405)</sup> 그가 이렇게 사업을 서두를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최소 36억달러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소송의 판결 여부에 따라 최대 72억달러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sup>406)</sup>

405) 50층 건물계획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DINITIA SMITH, "Hallowed Ground Zero: Competing Plans Hope to Shape a Trade Center Memorial," *New York Times*, 25 Oct. 2001 :1

7WTC의 건설 계획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DIANE CARDWELL, "Developer Briefs Bloomberg On Plans to Rebuild Towers," *New York Times*, 22 Nov. 2001 :3

406) 실버스타인은 테러가 일어난 직후부터 72억달러의 보험금을 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한 번의 사건 당 36억달러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항공기 두 대가 충돌했으므로 두 개의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나온 주장이었다.

ALESSANDRA STANLEY, "A NATION CHALLENGED: THE REAL ESTATE; Trade Center



파타키와 블룸버그는 실버스타인에게 전체 마스터플랜이 정해지지 전까지 7WTC의 계획을 진행시키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하루라도 빨리 상업공간을 지어서 임대수익을 올려야만 했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건물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버스타인이 매달 임대료를 내야만 했던 상황은 한편으로 그에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던 것이다. 실버스타인은 2002년 6월 착공을 목표로 7WTC 계획을 진행시켜나갔다.<sup>407)</sup>

실버스타인은 SOM에 의뢰하여 1WTC, 즉 프리덤 타워(Freedom Tower)의 설계도 동시에 진행해나갔으며 2002년 5월에 70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의 계획안을 공개하기도 했다.<sup>408)</sup> 또한 항만청 및 LMDC 역시 실버스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작성할 때 많은 면적의 오피스공간을 포함시켰다. 그런데 이러한 진행 방향은 2002년 7월에 열렸던 ‘리스닝투더시티’ 로 인해 대중의 반발에 부딪치게 된다.<sup>409)</sup>

그 결과로 항만청과 LMDC, 그리고 실버스타인이 진행했던 초기의 계획안이 폐기되고, 마스터플랜에 대한 국제현상설계가 진행되었다. 리베스킨트와 THINK의 두 개 안으로 당선작이 좁혀질 즈음, 실버스타인은 “누가 당선되더라도 그들은 SOM과 작업해야 할 것” 이라면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하게 표시했다.<sup>410)</sup>

LMDC에 의해 마스터플래너로 결정이 된 리베스킨트는 디자인을 발전시켜 나갔다.<sup>411)</sup> 리베스킨트는 부지 안의 고층건물들이 반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점차 낮아지도록 디자인했다. 실버스타인은 오피스 건물들이 보다 밀집된 형태로 만들어지기를 희망했으며, 1WTC를 교통환승센터 옆으로 옮기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접근성을 높여 높은 임대료를 받기 위함이었다.<sup>412)</sup> 결국 오랜 시간의 협상 끝에 실버스타인과

---

Leaseholder Pledges to Rebuild," *New York Times*, 5 Oct. 2001 :1

407) EDWARD WYATT, "Bloomberg and Pataki Say Rebuilding of Downtown Should Wait for Overall Plan," *New York Times*, 27 Feb. 2002 :4

408) EDWARD WYATT, "Redevelopment Goes Public: Workshops Produce Ideas," *New York Times*, 9 Jun. 2002 :41

409) EDWARD WYATT with CHARLES V. BAGLI, "VISIONS OF GROUND ZERO: THE PUBLIC; OFFICIALS RETHINK BUILDING PROPOSAL FOR GROUND ZERO," *New York Times*, 21 Jul. 2002 :1

410) EDWARD WYATT, "Trade Center Leaseholder Says Officials Are Ignoring His Right to Rebuild as He Wants," *New York Times*, 1 Feb. 2003 :3

411) 초기 LMDC의 의사결정에는 항만청의 영향력이 매우 강했다. 따라서 사업 초기의 LMDC의 결정은 항만청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고 보아야 한다.

412) EDWARD WYATT, "Architect and Developer Clash Over Plans for Trade Center Site," *New York Times*, 15 Jul. 2003 :1

###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리베스킨트는 합의를 보았다. 합의에 따라 실버스타인이 고용한 SOM이 1WTC 디자인의 책임을 맡아 이끌어가고 리베스킨트가 ‘협력 건축가’의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일부에서는 민간 개발업자인 실버스타인이 지나치게 큰 역할을 가져갔다는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sup>413)</sup>

2003년 12월에 1WTC의 디자인이 공개되었다. 70층까지만 사람이 거주하고 그 이상은 풍력발전장치가 있는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두 건축가간의 합의에 따라 SOM이 주도하여 계획한 것이었다. 리베스킨트가 마스터플랜에서 보여주었던 안은 거의 사라져 있었다.<sup>414)</sup>

한편 실버스타인은 보험회사와의 소송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최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45억 달러로 정해졌다. 기존의 계획은 55억달러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디자인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비평가들은 전체적인 오피스의 규모를 축소할 것을 권했다.<sup>415)</sup> 결국 2004년 12월에 실버스타인이 받게 될 최종 금액이 46억 5천만 달러로 정해졌고,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확정됨에 따라 계획안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sup>416)</sup>

그러나 항만청, 실버스타인, 뉴욕시의 입장이 서로 달랐으므로 계획안은 확정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착공이 지연되었다. 더구나 2005년 5월에 경찰청이 보안문제를 지적하면서 1WTC의 디자인이 다시한번 변경되는 일이 발생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 실버스타인을 제외한 나머지 주체들은 오피스의 면적을 줄이려고 했으며, 문화시설의 재배치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었다.<sup>417)</sup>

오피스 면적을 줄이고자 하는 논의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우선 블룸버그는 뉴욕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 유세에서 뉴욕 시민들에게 그라운드제로에 대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주거, 호텔, 상점등의 복합 개발을 추진하여 그라운드제로의 개발이 주변과 조화되도록 유도할 것이며 오피스를 많이 지으려고 하

---

413) EDWARD WYATT, "Officials Reach An Agreement On Rebuilding Downtown Site," *New York Times*, 16 Jul. 2003 :1

414) DAVID W. DUNLAP, "Plans Reveal World's Tallest Tower, But Only 70 Stories Will Be Inhabited," *New York Times*, 10 Dec. 2003 :1

415) DAVID W. DUNLAP, "How a Verdict Could Change The Future Of Downtown," *New York Times*, 1 May 2004 :1

416) DAVID W. DUNLAP, "Developer at Ground Zero Has Twice the Capital, and Extra Clout," *New York Times*, 8 Dec. 2004 :1

417) PATRICK D. HEALY, "Pataki and Bloomberg Endorse Changes in Ground Zero Tower," *New York Times*, 5 May 2005 :1

는 실버스타인을 사업에서 퇴출시키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sup>418)</sup> 또한, 정작 오피스 면적을 증가시키려고 했던 실버스타인은 임차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다. 보통의 대형 오피스 개발사업의 경우, 건물의 계획 단계에서 주요한 입주자들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 수순이었다. 자금 운용이 수월해지고, 주요 입주자의 요구에 따라 건물의 설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듬해인 2006년에 완공 예정이었던 7WTC도 임차자를 전혀 구하지 못하고 있었다. 게다가 로어맨하탄 주변 오피스의 공실률이 14%에 달하기 때문에 당분간 임차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되었다.<sup>419)</sup>

이러한 문제들로 계획안의 확정이 지연되자, 파타키는 착공을 서두르기 위해 실버스타인에게 16억7천만달러에 달하는 자유채권(Liberty bond)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2008년의 대선에 도전하기 위해 2006년에 주지사 임기를 마치는 파타키로서는 임기 안에 WTC를 착공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업을 서둘러 진행하려 했던 것이다.<sup>420)</sup> 블룸버그는 뉴욕 시장으로서 자신의 입지를 확대시키기 위해 향만청을 통한 로비활동을 벌였다. 그는, 실버스타인이 현재 자금을 대고 있는 1WTC를 짓고 나면 도산할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했다. 지속적 수익을 보장해주는 임차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다.<sup>421)</sup> 로비 과정에서 오피스 면적을 줄이려는 블룸버그의 노력은 일부 받아들여졌다. 향만청이 실버스타인에게 제안했던 안은 ① 실버스타인이 1WTC와 2WTC를 맡아서 짓고 ② 향만청이 3WTC의 주요 임차자로 들어가면서 소매상업시설을 계획하며 ③ 4WTC는 디벨로퍼에게 맡겨서 호텔, 오피스, 주거 시설로 개발하자는 것이었다.<sup>422)</sup>

협상은 2006년 3월이 되도록 교착상태에 있었다. 파타키의 목적은 1WTC를 실버스타인으로부터 인수받는 것이었고, 실버스타인은 교통환승센터에 인접하여 수익성이 높은 2,3,4 WTC에 대한 권한을 유지하려고 했다.<sup>423)</sup> 여기에 부지 전체의 기반 시설도 문제가 되었다. 향만청은 실버스타인에게 기반시설 개발비용의 일부를 부담

418) DAVID W. DUNLAP, "Mayor Calls for Mixed Uses In Ground Zero Development," *New York Times*, 25 Oct. 2005 :5

419) CHARLES V. BAGLI, "5 Weeks Left For Decisions On Rebuilding," *New York Times*, 6 Feb. 2006 :1

420) CHARLES V. BAGLI, "Pataki Offers Liberty Bonds To Keep Tower on Schedule," *New York Times*, 15 Dec. 2005 :3

421) CHARLES V. BAGLI, 6 Feb. 2006, op.cit

422) CHARLES V. BAGLI, "A Blueprint For Conflict At Ground Zero," *New York Times*, 19 Feb. 2006 :33

423) CHARLES V. BAGLI; Sewell Chan, "Ground Zero Still in Limbo As Talks Fail," *New York Times*, 31 Mar. 2006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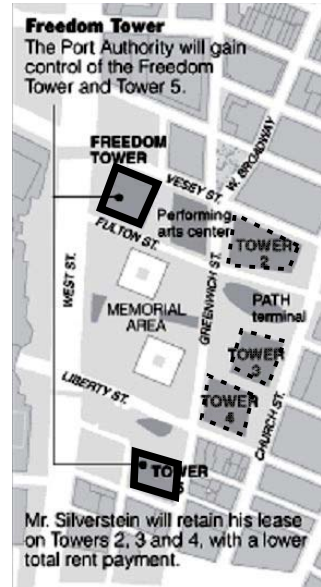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시킬 예정이었다.<sup>424)</sup>

2006년 4월 25일에 최종 협상이 성사되었다. 항만청이 1WTC와 5WTC(도이치뱅크 부지)에 대한 조정권을 갖고, 실버스타인은 2WTC, 3WTC, 4WTC를 맡아서 진행하기로 했다. 항만청은 연방기관으로 하여금 1WTC에 입주하도록 하여 자금을 운용할 계획이었다. 또한 항만청은 4WTC의 상당부분을 임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1WTC와 4WTC의 건설은 확정되었으며 나머지 건물의 하부에는 상업공간을 계획하기로 합의하였다.<sup>425)</sup>

그러나 또 다른 문제들이 남아있었다. 항만청과 실버스타인은 4WTC의 임대료를 합의하지 않았고, 실버스타인은 자금 운용을 위해서 임차자를 순조롭게 구해야만 했다. 그런데 실버스타인은 높은 임대료를 요구했다. 7WTC의 임차자를 구하는 과정에서도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여 거의 이루어질 뻔 했던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평이 있었으며, 4WTC를 임대하기로 한 항만청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임대료 수준의 150% 정도를 요구했다.<sup>426)</sup>

2006년 9월에 관련된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항만청이 2007년 말까지 두 건물에 대한 부지 정리 작업을 완료하기로 했으며, 2008년 중순까지 나머지 한 건물에 대한 부지 정리 작업을 하기로 했다. 만약 기일을 못 지킬 경우 실버스타인 측에 하루에 30만 달러의 범칙금을 물기로 했다. 반면 실버스타인이 2012년까지 세 건물 모두를 완공하지 못한다면 실버스타인은 모든 건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만 했다. 4WTC의 항만청 임대 문제도 마무리되었다. 지역의 평균보다는 높지만 실버스타인이 제시한 제곱피트당 78달러보다 많이 낮은 59달러에 합의를 보았다.<sup>427)</sup>



[그림 3-115] 2006년 4월의 최종 합의에 따른 항만청의 건물(실선)과 실버스타인의 건물(점선)  
(출처 : 뉴욕타임즈의 삽화를 가공함)

424) "A Ground Zero Summit," *New York Times*, 8 Apr. 2006 :12

425) CHARLES V. BAGLI, "DEVELOPER TAKES A FINANCIAL DEAL FOR GROUND ZERO," *New York Times*, 26 Apr. 2006 :1

426) 7WTC의 임대계약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GLENN COLLINS, "Developer Pulls Out of Ground Zero Deal Despite Officials' Efforts," *New York Times*, 27 Jul. 2006 :1

4WTC의 임대계약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CHARLES V. BAGLI, "Amid Talk of Three Impressive Buildings, Silence on One Crucial Issue," *New York Times*, 8 Sept. 2006 :6

427) CHARLES V. BAGLI, "An Agreement Is Formalized on Rebuilding at Ground Zero," *New York Times*, 22 Sept. 2006 :2

협상 과정에 대해 설명하는 신문기사에서 실버스타인은 종종 ‘탐욕스럽다 (greedy)’ 고 묘사되었다.<sup>428)</sup> 물론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 실버스타인은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었지만,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그라운드제로 사업에서 그의 이윤추구 노력은 종종 공익에 거스르는 것으로 비추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으로 형성된, 실버스타인에 적대적인 여론은 항만청과의 협상 과정에서 실버스타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다.<sup>429)</sup> 그가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그의 명분은 ‘도시 전체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재건 사업을 완료하는 것’ 이었으나 대중은 그 이면에 있는 그의 이윤추구에 대한 열망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항만청의 지반정리공사는 예측하지 못한 지하의 암반으로 인하여 예정보다 48일 늦은 2월 17일에 완료되어 실버스타인에게 인계되었다. 이 기간 동안 항만청은 약속했던 30만 달러의 지체상금을 실버스타인 측에게 매일 지불하였다.<sup>430)</sup> 공사의 인계가 완료되자 2WTC의 재건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곳에서 불거져 나왔다. 2008년 말에 발생한 금융위기가 미국과 전 세계의 경제를 경색시킴에 따라 임차자를 구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던 것이다. 항만청은 상황을 감안하여 실버스타인에게 경제적 원조를 해주려고 했다.<sup>431)</sup> 항만청은 3동의 건물 중 한 동에 대해서만 8억달러를 지원해주려고 했다. 그리고 공실률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여, 지원의 댓가로 개발의 속도를 조정하려는 시도를 했다. 항만청의 제안은 나머지 두 동의 건물 중 하나는 2022년에, 다른 하나는 2030년에 완공하는 것이었다.<sup>432)</sup>

이에 대해 시민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일곱 개 시민단체에서 실버스타인의 3개 건물에 대해 더 이상 공적 자금을 투입하지 말라는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그들의 주장은, 투입할 자금이 있다면 교통환승센터와 같은 공공시설에 지출하라는 것이었다. 민간 개발의 위험부담은 민간이 지고 나가는 것이 원칙임을 강조했다.<sup>433)</sup>

428) CHARLES V. BAGLI, 8 Sept. 2006, op.cit.

429) CHARLES V. BAGLI, "Master of Slow And Deliberate At Ground Zero," *New York Times*, 24 Mar. 2006 :1

430) Collins, Glenn, "Between Rock and the River, the Going Is Slow, and Costly," *New York Times*, 13 Jan. 2008 :25

Collins, Glenn, "Work on Site at Trade Center Is Completed 48 Days Late," *New York Times*, 20 Feb. 2008 :2

431) RAY RIVERA, "Port Authority May Help Financing of Tower," *New York Times*, 22 Mar. 2009 :26

432) CHARLES V. BAGLI, "As Finance Offices Empty, Developers Rethink Ground Zero," *New York Times*, 15 Apr. 2009 :19

###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그러나 실버스타인은 굽히지 않고 2동의 건물에 대하여 32억달러의 재정을 보증하라고 요구했다.<sup>434)</sup> 항만청이 계속해서 부지정리 작업과 기반시설 공사를 늦추어 왔고, 이에 따라 건물의 개발이 늦어져 자신으로 하여금 ‘ 좋지 않은 시기’ 에 투자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실버스타인이 제시하는 지원요청의 근거였다. 그러나 항만청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교착상태가 계속되었다.<sup>435)</sup> 협의가 진행되면서 3동의 건물(2,3,4 WTC)을 모두 짓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의가 도출되었다. 문제는 항만청이 얼마만큼의 지원을 하고 실버스타인이 자기자본을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였다.<sup>436)</sup>

최종 합의는 이듬해인 2010년 3월 25일에 이루어졌다. 부지 동쪽에서 제일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항만청이 임대하기로 한 4WTC에 대해서는 1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3WTC에 대해서는 실버스타인이 3억달러의 자기자본을 투자하고 3만7천 m<sup>2</sup>의 면적에 대한 임차자를 구할 경우 6억달러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북측에 위치한 2WTC는 공사가 연기되었다.<sup>437)</sup> 이렇게 하여 테러 사건으로부터 8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야 대략적인 공사의 윤곽이 결정되었다.

이제까지 항만청과 실버스타인의 협상 과정에서 오고 간 논의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2001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의 뉴욕타임즈 기사들 중 해당 논의에 관계된 기사들을 대상으로 주요 키워드에 대한 유사성 0.37 이상의 연결망을 표현해보았다.<sup>438)</sup>

8년이 넘는 긴 시간에 걸쳐있는 만큼 다양한 주제에 대한 키워드들의 그룹이 관찰

---

433) CHARLES V. BAGLI, "Groups Seek to Stop Public Financing of New Towers at Ground Zero," *New York Times*, 20 May 2009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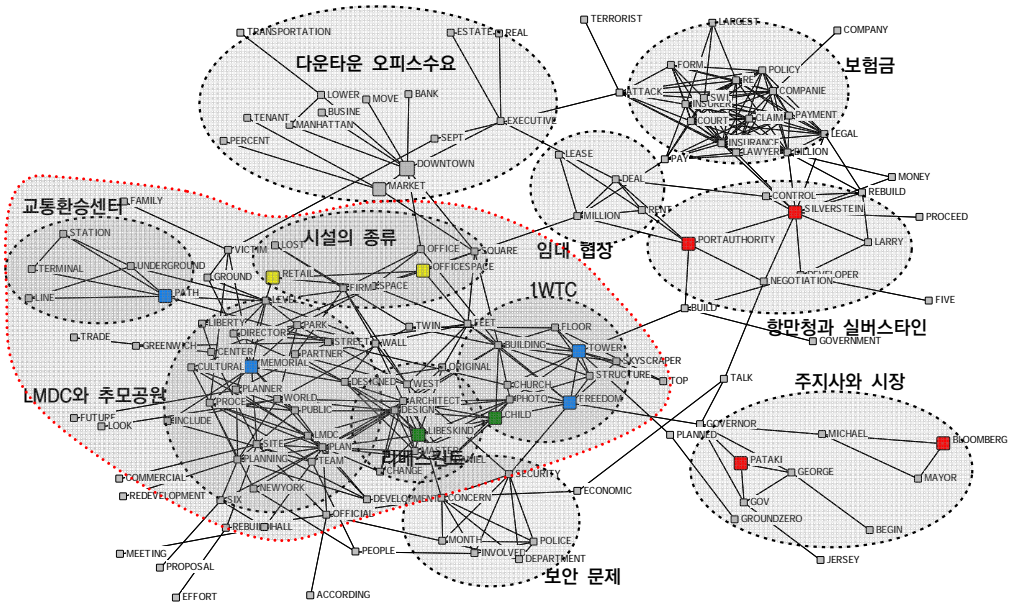
434) CHARLES V. BAGLI, "Getting Trade Center Parties in a Room, if Not on the Same Page," *New York Times*, 21 May 2009 :32

435) CHARLES V. BAGLI, "Port Authority Is Blamed For Trade Center Delays," *New York Times*, 7 Jul. 2009 :18

436) CHARLES V. BAGLI, "Panel Sets a Deadline In Ground Zero Dispute," *New York Times*, 28 Jan. 2010 :24

437) CHARLES V. BAGLI, "Tentative Deal Is Reached For 2 Trade Center Towers," *New York Times*, 26 Mar. 2010 :20

438) 해당 기간동안 'port authority'과 'silverstein'를 포함하는 295개의 기사들 중에서 'cantor'를 포함하는 기사는 제외하였다. 해당 단어를 포함하는 기사는 내용상 두 주체의 협상과 관련 없었기 때문이다. 그 후에 'negotiation, deal, control, market, insurance, tenant, financial'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기사들로 다시 선별하였다. 최종적으로 243개의 기사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이 기사들에서 출현빈도가 높은 201개 키워드를 대상으로 유사성연결망을 만들었다.



[그림 3-116] 2001.10~2010.03 까지 향만청과 실버스타인의 협상을 다룬 기사들의 주요 키워드들의 유사성연결망 ( $r \geq 0.37$ ) 된다. 다양한 주제의 그룹들로 구분되는 만큼 개별 그룹의 키워드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향만청(portauthority)과 실버스타인(silverstein)의 협상(negotiation)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키워드들의 그룹이 그림의 우측 가운데 있다. 이 그룹의 위쪽으로는 실버스타인이 수령하게 될 보험금에 관련된 그룹이 보인다. 사업 자금으로 쓰였던 보험금은 실버스타인이 전체 사업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해주는 중요한 요소였다.

실버스타인은 초기에 1WTC를 맡아서 진행하였다. 그러나 2006년 이후 협상을 통해 향만청에게 조정권(control)을 넘겼다. 이 과정에서 주지사(pataki, governor)와 뉴욕시장(bloomberg, mayor)도 관여하였다. ‘향만청과 실버스타인’ 그룹과 ‘주지사 시장’ 그룹이 ‘1WTC’ 그룹을 통해 연결되는 것은 이러한 협상의 흔적을 보여준다.

또한 ‘1WTC’ 그룹 밑에는 ‘보안 문제’ 그룹이 있다. 이것은 2005년에 뉴욕 경찰청(police)이 1WTC의 보안문제(security, concern)를 지적하여 디자인이 수정된 것과 관련된 키워드들의 그룹이다. 당시에 실버스타인이 보안문제를 수정하는 대가로 공공자금을 요청했었던 사건이 두 그룹(실버스타인과 보안문제)사이의 느슨한 연결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1WTC의 건축가는 실버스타인이 지명한 SOM의 데이비즈 차일즈(child)였

다. 그는, LMDC가 주최한 설계경기를 통해 당선된 리베스킨트와 협력하여 건물을 완성해나갔다. 관련된 그룹이 인접하여 위치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건 전개와 관련이 있다.

그림의 상단에는 ‘다운타운 오피스 수요’, ‘임대 협상’, ‘시설의 종류’ 그룹들이 인접하고 있다. 이것은 그라운드제로 전체 부지 안에서 오피스면적(officespace)과 소매시설(retail)의 비율을 정하는 문제가 로어맨하탄(lower, manhattan)을 포함한 다운타운(downtown)의 부동산 시장(real, estate, market) 상황과 깊게 관련되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실버스타인은 임차자와 계약하는 문제(lease, rent)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림의 좌측에 있는 다섯 개 그룹을 하나로 묶어 보았다. 이 그룹은 물리적 계획에 관련된 키워드들로 이루어져 있다. 즉, 이 그룹의 관점에서 주변 여섯 개 그룹을 살펴보면, 실버스타인과 항만청의 협상이 전체 사업기간에서 어떠한 이슈들을 발생시키면서 디자인에 관련되었는지 알 수 있다. 물론 그들의 협상이 직접적으로 결정한 것은 각 주체간의 권리배분 문제였지만, 앞서 자세히 살펴보았듯이 그 과정에서 전체 시설의 물리적인 측면도 많이 변하게 되었던 것이다.

1WTC의 디자인이 마스터플랜 당선자인 리베스킨트의 제안대로 가지 못하고 SOM의 디자인을 따르게 된 원인도, 결국은 실버스타인과 나머지 주체들 간의 권한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또한 오피스 면적이 조정되고 2WTC의 경우 건설이 잠정 중단되었던 것도 단순히 두 주체 간에 이루어진 협상의 결과가 아니라 테러가 야기한 안전의 문제와 더불어 금융위기라는 경제적 상황이 반영된 결과였다. 키워드들의 연결망은 바로 이러한 연관관계를 한 눈에 보기 쉽게 드러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은 항만청과 실버스타인의 협상 과정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에 대해 더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했던 협상 과정은 작업장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신문에 기사로 드러난 내용이기 때문에 토론장으로 보아야 하는가?

물론, 협상의 주체가 작업장에서 발주처에 해당하는 주체라는 점, 그리고 대중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기보다 작업장 내부에서의 이해관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보면 ‘작업장’으로 보는 것이 옳다. 그러나 온전하게 작업장으로 볼 수는 없다. 바로 앞에서 말했지만 대중이 보는 일간지에 공개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토론장에 드러난 작업장’ 으로 보아야 한다. 이 때 대중은 작업장에 일어나는 생산과정을 감시하는 토론장의 관찰자가 된다. 토론장의 주체들은 작업장에 직접 개입하지 않지만, 작업장 주체들은 자신의 결정과 행위들이 관찰된다는 점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실버스타인이 자신의 이윤추구 행위가 공익과 관계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표현했던 사실, 그리고 언론에서 ‘탐욕스럽다(greedy)’ 고 묘사되는 것에 반응한 사실은 이러한 ‘간접적 개입’ 에 대한 근거가 되어 줄 것이다.

#### (10) 그라운드제로 주변의 무슬림커뮤니티센터 건설 반대 (2009.12~ )

이 장에서는 그라운드제로 부지가 아닌, 부지 두 블록 위쪽에 계획되고 있는 무슬림커뮤니티센터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사건에 대해서 다룬다. 2009년에 이슬람 단체가 모스크 문양의 무슬림 센터를 짓기로 계획하면서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 시위가 이어졌고, 이에 대하여 시장과 대통령까지 입장 표명을 했다. 이 이슈를 통해 종교에 대한 뉴욕 사람들의 인식과 더불어 그들이 그라운드제로의 영역을 어디까지로 생각하는지가 드러나게 되었다.

2009년 12월, 그라운드제로로부터 북쪽으로 두 블록 떨어진 51파크플레이스(Park Place)에 한 이슬람 사원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 곳은 9/11 당시 5층 규모의 상점이었으나 테러 사건 이후 얼마 후부터 계속 빈 건물로 남아 있었다. 그러던 것이 2009년 7월에 이맘 압둘 라우프(Abdul Rauf)가 사들이면서 다원주의를 표방하는 이슬람 사원의 모습을 갖추어 가게 되었다. 이곳에서는 정기적인 예배가 진행되었으며 동시에 낡고 오래된 건물을 보수하여 제대로 된 이슬람 사원의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었다.<sup>439)</sup>



[그림 3-117] 그라운드제로와 이슬람 센터  
(출처 : Google Map을 가공하여 표현)

문제가 된 것은 라우프가 본격적으로 새로운 건물을 기획하면서부터였다. 사람들은 ‘성지’ 라고 여기는 그라운드제로와 인접한 곳에 이슬람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했다. 여기에 대해 시 당국은 “합법적이기만 하다면, 그들은 건물을

439) RALPH BLUMENTHAL, "Muslim Prayers and Renewal Near Ground Zero," *New York Times*, 9 Dec. 2009 :1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지를 권리가 있다” 는 입장을 밝혔다. 라우프 역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신이 기획하는 무슬림커뮤니티센터는 범종교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그 곳을 통해 여러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테러를 일으킨 것은 이슬람교와는 관계가 없다” 고 하면서 사람들이 테러와 이슬람을 동일시하는 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아무리 합리적으로 설득을 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장소는 반 이슬람 세력의 공격 대상이 될 위험이 충분했다.<sup>440)</sup>



[그림 3-118] 2009년 당시의 51 Park Place  
(출처 : 뉴욕타임즈)

있다고 해도, 그 장소는 반 이슬람

2010년 5월에 무슬림커뮤니티센터 문제는 본격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코르도바 하우스(Cordoba House)’ 로 이름 붙여진 이 건물은 15층의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었으며, 예배당과 500석 규모의 공연장, 요리학원, 수영장, 음식점 및 다른 편의시설을 계획안에 포함하고 있었다. 이 건물은 건립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해당 구역의 시민자치위원회 1(Community Board 1)의 자문회의에 상정되었는데, 네 시간에 걸친 열띤 토론 끝에 40명의 위원 중 29명 반대, 1명 찬성, 10명 기권으로 제안이 반려되었다. 물론 이 회의는 자문의 성격을 띤 것이었으므로 건립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을 지녔던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이 센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 준 사건이었다. 실제로 회의가 개최되기 며칠 전부터 시민자치위원회는 수백 통의 항의 전화를 받았다. 뉴욕이 아닌 곳에서 걸려온 전화들도 있었다. 100여명의 사람들이 자문회의 당일 주변에서 시위를 했으며, 이들은 “9/11에 대한 존중을 표하라. 모스크는 안된다!” 는 피켓을 들고 있었다.<sup>441)</sup>



[그림 3-119] 무슬림커뮤니티 센터 계획안  
(출처 : inhabitat.com )

정치권에서도 입장을 표명했다. 대통령 오바마는 라마단을 맞아 무슬림을 초청한

440) Ibid.

441) JAVIER C. HERNANDEZ, "After Fiery Debate, Vote Endorses Muslim Center Near Ground Zero," *New York Times*, 26 May 2010 :23



[그림 3-120] 무슬림커뮤니티센터 반대 시위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자리에서 “한 명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나는 이 나라에서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무슬림 또한 종교 행위의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뉴욕주의 공화당 주지사 후보는 “오바마는 뉴욕시민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덧붙여 그는 “이미 100여개의 모스크가 있는 뉴욕에서, 논란의 핵심은 종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안전과 보안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종교 자체가 아니라 ‘위치’가 문제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알래스카 주지사인 사라 페일린(Sarah Palin)도 “불필요한 도발”이라고 촌평했다. 센터 건립의 디벨로퍼인 샤리프 엘 가말(Sharif el-Gamal)은 “대통령 오바마의 발언에 감사를 표시한다”며 응답했다.<sup>442)</sup>

논란은 계속되었다. 공화당의 하원의원인 피터 킹(Peter King)은 “그들이 지을 권리가 있는 것은 맞지만, 불필요하게 사람들을 자극하고 있다”면서 본질적인 부분과 상황에 따른 대응의 문제를 구분하였다. 전(前) 하원 의장인 뉴트 깅리치(Newt Gingrich) 역시 오바마의 의견에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그는 “이것은 종교 자유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논의의 핵심을 분명히 했다. 덧붙여 “모스크는 이슬람의 승리주의(triumphalism)를 나타낸다”면서, “모스크를 그라운드제로 근처에 짓는 것은 홀로코스트 뮤지엄 옆에 나찌 문양을 박아넣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비유했다.<sup>443)</sup> 뉴욕주 주지사인 페터슨은 무슬림커뮤니티센터의 사람들과 접촉하여 뉴욕시가 아닌 뉴욕주의 부지로 옮길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센터의 디벨로퍼인 가말은 “우리는 옮기지 않을 것”이라고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sup>444)</sup>

442) SHERYL GAY STOLBERG, "Obama Backs Islam Center Near 9/11 Site," *New York Times*, 14 Aug. 2010 :1

443) SHERYL GAY STOLBERG, "Obama Says Mosque Upholds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New York Times*, 15 Aug. 2010 :1

444) ANNE BARNARD, "Governor Seeking Talks on New Site for Muslim Center," *New York Times*, 18 Aug. 2010 :19

###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다른 시각의 접근도 있었다.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인 클라이드 하버만(Clyde Haberman)은 ‘거리’의 측면에서 접근했다. 센터 건립의 반대자들이 “종교의 자유가 핵심이 아니라, 그라운드제로와 가까운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 과연 ‘어느정도의 거리가 충분한 것인가’라는 문제를 던졌다. 예를 들어, 현재 맨하탄에 있는 이슬람 사원은 그라운드제로로부터 4블록에서 12블록까지 떨어져 있는데, 4블록 떨어진 거리는 용인되는 반면, 2블록 떨어진 거리는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람들은 “4블록이면 괜찮다”, “1마일 이상 떨어져야 한다”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하버만은 여기에 대해서 “밀도 높은 뉴욕에서의 두 블록은 미국 다른 지역에서의 수 마일과 같다”면서 지지하는 의사를 던지시 비추기도 했다.<sup>445)</sup>

이맘 라우프는 이러한 논란을 보면서 “이렇게 문제가 될 줄 알았으면 제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계획안을 철회하게 된다면 이슬람의 급진주의자들을 자극하여 불의의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sup>446)</sup> 9/11의 9주년을 맞아 찬성과 반대의 집회가 동시에 열리기도 했다. 대통령 오바마는 계속해서 종교의 관용을 주장하는 등 찬성과 반대의 사람들은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sup>447)</sup> 센터 측 역시 장소를 옮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라우프는 대신, 이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sup>448)</sup> 그러나 이 문제로 인하여 라우프가 센터의 대표 위치에서 경질되었으며, 디벨로퍼인 가말은 시설의 이용 대상을 로어맨하탄의 무슬림 거주자와 미국의 무슬림 커뮤니티에 맞추어 계획안을 진행하였다.<sup>449)</sup>

그런데 건립은 실질적인 문제에 부딪혔다. 건립 예산인 1억달러를 마련해야 했는데, 2010년 9월 당시의 모금액은 목표의 30%에 못 미치는 것이었다.<sup>450)</sup> 그러던 중에 대표 위치에서 경질된 압둘 라우프가 별도의 다종교문화시설을 기획하고, 두 단

---

445) CLYDE HABERMAN, "Ground Zero: Its Boundaries Are Elastic," *New York Times*, 24 Aug. 2010 :16

446) ANNE BARNARD, "Imam Says Moving Center Could Embolden Radicals," *New York Times*, 9 Sept. 2010 :26

447) HELENE COOPER, "Obama Tries to Calm Tensions In Call for Religious Tolerance," *New York Times*, 11 Sept. 201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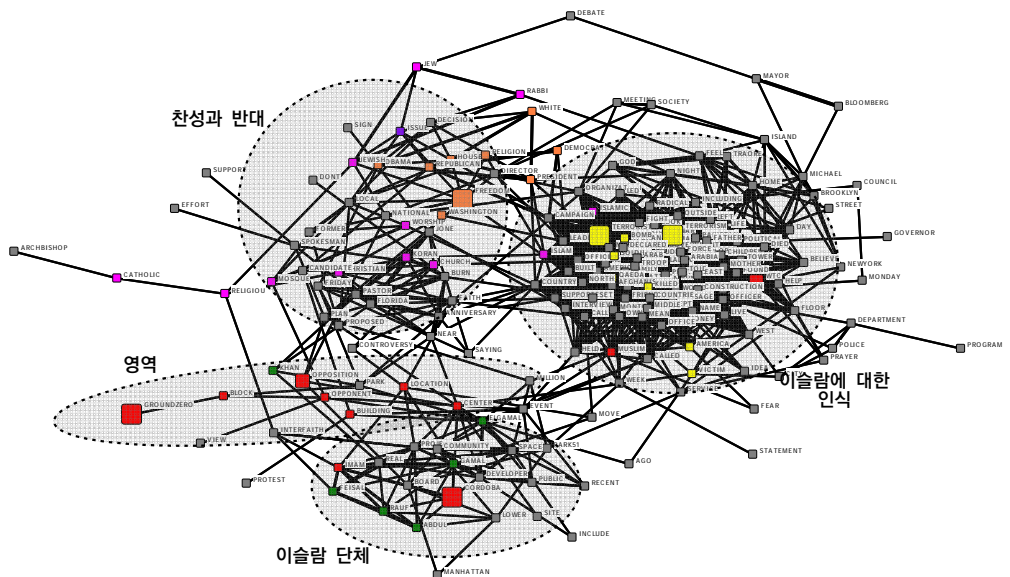
448) ANNE BARNARD, "Imam Talks Compromise on Islamic Center, but Says Site Isn't on Hallowed Ground," *New York Times*, 14 Sept. 2010 :25

449) PAUL VITELLO, "Amid Rift, Imam's Role In Islam Center Is Sharply Cut," *New York Times*, 15 Jan. 2011 :17

450) ANNE BARNARD, "Muslim Center's Developer To Use Islamic Loan Plan," *New York Times*, 30 Sept. 2010 :32

체는 각각의 센터 건립을 위한 1억달러의 모금운동을 별도로 진행하였다.<sup>451)</sup> 2012년 3월 현재, 모금액에 따라서 건립이 무기한 연기되거나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sup>452)453)</sup>

이제까지 이슬람 단체가 그라운드제로 부지 주변에 이슬람 센터를 지으려고 하면서부터 발생한 반대 시위와 논쟁에서 오고 간 논의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2010년 5월부터 2012년 3월 까지의 뉴욕타임즈 기사들 중 이슬람 센터에 관계된 기사들을 대상으로 주요 키워드에 대한 유사성 0.4 이상의 연결망을 표현해 보았다.<sup>454)</sup>



[그림 3-121] 2009.12-2012.03 까지 이슬람 센터를 다룬 기사들의 주요 키워드들의 유사성연결망 (  $r \geq 0.4$  )

전체 연결망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오른쪽에 수많은 키워드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룹의 존재다. 이슬람(Islam), 테러(terror, terrorism), 폭탄(bomb), 미국

451) PAUL VITELLO, "Newly Chosen Imam Quits Proposed Islamic Center," *New York Times*, 5 Feb. 2011 :14

452) ANNE BARNARD, "After Uproar, a New Tack To Build an Islamic Center," *New York Times*, 2 Aug. 2011 :21

453) 2011년 8월 이후로 검색 기간이었던 2012년 3월까지 무슬림커뮤니티센터의 경과에 대한 특별한 기사가 보도되지 않았다.

454) 해당 기간동안 'muslim'과 'center'를 포함하는 62개의 기사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이 기사들에서 출현빈도가 높은 200개 키워드를 대상으로 유사성연결망을 만들었다.

(america), 희생자(victim), 사망(killed)과 같은 키워드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 그룹은 신문기사에서 다루어진 이슬람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 물론 연결망분석의 알고리즘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키워드들이 밀집된 것은 센터 건립 사건을 전반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이슬람 단체의 테러에 대해서만 다루는 특정 기사들이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기사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슬람’이나 ‘무슬림’이라는 말이 거론될 때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떠올리게 되는지 알 수 있는 단서가 된다. 다시 말해, 이슬람 센터에 대한 논란 속에서 센터 건립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9/11 테러와 이슬람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말했을 때, 물론 이 말은 합리적으로 설득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말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일반적으로 회자되는 담론들 안에서 ‘이슬람’에 대한 인식은 ‘테러’와 같은 집합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센터 건립을 반대했던 것이다.

나머지 그룹들 역시 비교적 명료하게 구분된다. 코르도바(Cordoba), 이맘(Imam), 라우프(Rauf), 가말(Gamal) 등 센터의 이름과 건립주체에 해당하는 키워드들이 그림 하부에 하나의 집합을 이루고, 그림 상부에는 센터 건립에 대한 입장표명에 대한 키워드들의 집합이 폭넓게 분포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공화당원(Republican), 민주당원(Democrat), 오바마(Obama) 등 정치에 관련된 키워드들과 종교(religion), 랍비(rabbi), 유대교인(jewish), 코란(koran), 모스크(mosque)등의 종교관련 키워드들이 ‘자유(freedom)’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찬성과 반대’ 그룹과 ‘이슬람 단체’ 그룹 사이에는 ‘영역’ 그룹이 있다. 이 그룹에는 논란에서 결정해야 했던 부분인 장소의 물리적 장소, 즉 위치(location), 블록(block), 그라운드제로(groundzero)에 대한 키워드들이 있다. 센터 건립에 대한 논란이 결국, ‘두 블록 떨어진 장소에 허용할 것인가, 혹은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사업을 폐기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되었다고 볼 때, 이 그룹을 이루는 키워드들은 많지 않지만 전체 논의가 수렴되는 지점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즉, 도심의 한 장소에 종교관련 시설을 건립하려 했던 문제는 단순한 물리적 입지의 차원을 넘어서서, 두 블록 떨어진 장소에 응집되어 있던 사람들의 생각들과 충돌하게 되었던 것이다. 테러 사건으로 인해 시작되었던 그라운드제로 재건 사업은 그 영역의 범위를 확장하면서 주변의 문제들까지도 ‘그라운드제로’ 안에 포함시켜 다루도록 만들었다.

또한, 장소에 대한 담론이 국제자유센터와 드로잉센터의 입주 반대에서 ‘애국심’의 측면으로 드러났다면, 무슬림커뮤니티센터에서는 ‘종교에 대한 관용’의 문제와 관련되어 전개되었다. 센터 건립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양 측의 주장에 대한 옹고 그름은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담론이 벌어지는 양상은 건물의 입지조건에 대한 물리적인 결정이 사회적인 거대 담론과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 3.3.3. 토론장에서 다루어진 디자인에 관한 담론

이제까지 10여년에 걸친 그라운드제로 사업기간동안의 주요한 이슈들을 열 가지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사안에 따라서 토론장의 주체들은 작업장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도 하고, 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기도 했다. 한편, ‘물리적 실체’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슈가 되었던 사안들도 사업의 큰 틀을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건물의 운영에 관련된 것, 구체적인 디자인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희생자의 이름배열처럼 디자인의 지엽적인 부분에 관련된 것들도 있었다. 이번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지점이다. 여러 건물들로 이루어진 대형 사업의 토론장에 대한 하나의 예로서, 그라운드제로에서 디자인에 관한 담론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 (1) 전체 기간 동안 다루어진 디자인에 관한 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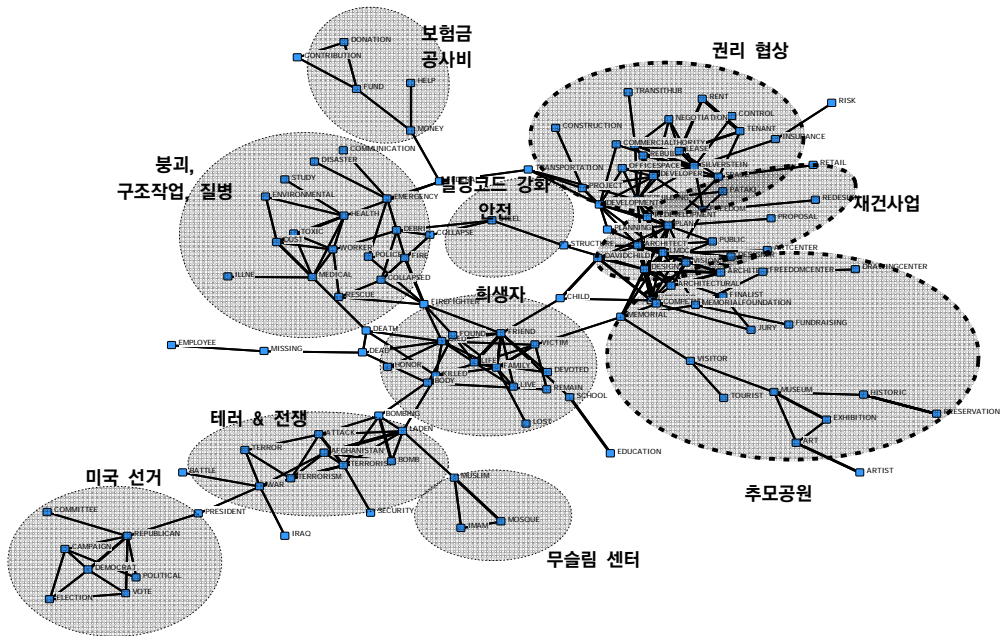
우선 처음에 거론했던 논의를 환기해보도록 하겠다. 3.3.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전체 기간 동안의 신문 기사들을 대상으로 198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유사성연결망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유사성지수를 보다 높여 0.25 이상의 유사성지수들에서 드러나는 연결망을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다.<sup>455)</sup>

시애틀공공도서관(3.1.3장)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3.2.3장)의 유사성연결망과 비교해 볼 때, 위 연결망의 특징적인 점은 디자인에 대한 키워드들과 다른 주제에 대한 키워드들이 각각 절반 정도의 비율을 지니면서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애틀공공도서관에서는 건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집중했기 때문에 키워드들은 구체적인 작업에 관련된 것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반면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는 보존, 역사, 복지 와 같은 사회적 가치의 문제와 연관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작업을 지칭하는 키워드들은 별로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위의 연결망을 보면 우측에 디자인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집중되어 분포하고 있으며(굵은 점선으로 강조함), 좌측에는 기사에서 함께 다루어진 9/11 사건에 대한 내용이나 연관된 정치사회적 문제들이 배열되어 있다.

연결망 분포에서 보이는 이러한 특징은 전체 생산과정의 토론장에서 ‘어떻게 만

455) [그림 3-84]와 비교했을 때, 보다 강한 유사성에 대해서만 표현된다. 적절한 정도로 유사성 지수를 높이는 것은 관계를 보다 명료하게 알아보는데 도움이 된다.





[그림 3-122] 그라운드제로 관련 뉴욕타임즈 전체 기사에 대한 유사성연결망 ( $r \geq 0.25$ )

들 것인가’의 문제도 폭넓게 다루어졌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가 ‘추모’, ‘보안’ 등의 주제를 통해 사회적인 문제로 확장되어 나가거나, 혹은 사회적인 문제들을 디자인으로 수렴시켰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물론, ‘추모’와 ‘보안’에 관한 주제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 디자인과 사회적 문제들이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3.3.2장의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 (2) 구체적인 디자인을 다루는 과정에서의 전문가의 역할

디자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토론장에서 다루어진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사람들이 직접 모여서 논의한 경우다. 마스터플랜에 관련된 리스닝투더시티 및 워크샵과 추모공원 설계경기 과정에서의 워크샵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는 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다루어진 경우다. 보안문제로 인하여 1WTC의 설계변경을 진행한 경우와 공사비 문제로 추모공원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방식의 차이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직접 모여서 논의하는 경우

2002년 7월 20일에 열렸던 리스닝투더시티의 경우 토론이라기보다 의견을 ‘듣는’ 행사였다. 10명에서 12명이 함께 앉은 테이블에서 의견을 말하면, 그 중에 포함된 한명의 전문 요원이 실시간으로 의견을 기록하여 중앙으로 전송하였다. 그리고 중앙에서 의견들을 취합하여 주요한 주제 항목을 도출해내고, 중앙의 전광판에 띄워진 주제들에 대해서 ‘투표’ 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과가 도출되었던 것이다.

이 방식은 5,000여명이라는 대규모의 인원의 의견을 모으는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사안들이 단순화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행사 당시 도마 위에 올랐던 여섯 개의 안은 ‘매우 좋다, 좋다, 그럭저럭, 형편없다’ 의 정도로 단순화 되어 실시간 투표에 상정되었다.<sup>456)</sup>

그렇다고 해서 여섯 개의 안이 전체로서 다루어진 것만은 아니다. 각각의 안을 통해 보행로, 오픈스페이스, 랜드마크로서의 고층빌딩, 도시가로조직, 공원 등의 구체적 요소들이 추출되어 다루어졌다. 그렇지만 이러한 요소들 역시 투표를 통해 선호도의 차원으로 환원되었다. 예를 들어 수퍼블록을 가로지르는 보행로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조금 중요하다, 불필요하다’ 의 정도로 단순화되었다.<sup>457)</sup>

비슷한 문제가 2002년 12월에 윈터가든에서 진행된 건축가들의 프레젠테이션에서도 반복되었다.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대중이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응모작이 마음에 드는가’ 였다. 뉴욕타임즈에서는 ‘기념비를 원하는 사람은 리베스킨트, 가장 크고 좋은 빌딩을 원하는 사람은 포스터, ...’ 라고 말했으며, 여기에 대해 비들러(Anthony Vidler)는 대중의 의견표현이 ‘yes-no’ 의 차원으로 축소되었다고 평가했다.<sup>458)</sup>

또한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도 있었다. 헤이저(Maarten A. Hajer)는 리베스킨트가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한 1인칭의 화법이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갔다고 평가한다.<sup>459)</sup> 리베스킨트의 설명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나는 10대 시절에 이주자로서 배를 타고 뉴욕에 도착했다. 수백만명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내 앞에 처음으로 보였던 것은 자유의 여신상과 맨하탄의 멋진 스카이라인이었다. 나는 그 장면을, 그리고 그 장면이 상징하

456) *Listening to the City : Report of Proceedings*, op.cit, pp.10-11

457) *Ibid.*, pp.12-13

458) 3.3.2장 중 윈터가든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분석한 부분을 참고할 것.

459) Maarten A. Hajer, op.cit., p.459

는 바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이것이 바로 이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것이다.……460)

이에 비해 다른 건축가들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다.

세계무역센터의 재건은 가장 중요한 도시 계획임과 더불어 우리 시대의 건축적인 도전이다.(노먼 포스터)

이 계획은 새로운 도시 전체에 다양한 장소들과 경험을 만들어낸다.(페터슨/리텐베르크)

우리의 제안은 공공공간과 문화공간의 다양한 지층들을 가능하게 하는 밀도 있는 수직적 구조물의 그리드를 만듦으로써 도시를 다시 연결하고자 하는 것이다.(SOM 외)

그라운드제로를 제언함에 있어서의 도적적 의무는 이 비극에서 누가 소멸해갔는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기억을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영감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THINK)

부지 전체는 다섯 개의 건물을 상호 연결함으로써 9/11의 비극에 대한 기념비가 된다.(United Architects)

록펠러 센터와 유니온스퀘어의 전통에 따라 우리는 뉴욕을 위한 거대한 공공공간을 건설할 것을 제안한다.(4 명의 건축가 연합)<sup>461)</sup>

물론 리베스킨트가 온라인 투표에서 많은 표를 얻은 것이 화법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헤이저가 지적한 ‘1인칭 화법’의 효과가 크지 않더라도, 화법을 중요하게 보는 시각은 또 하나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작업장의 디자인을 비전문가인 대중에게 설명하고 전달하는 ‘중간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점과 시사점은 전문가들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말해준다.

리스닝투더시티의 진행된 형식을 통해 판단할 때, 이 행사는 마스터플랜에 대한 다양한 제안들을 토론장으로 끌어내는 것보다는 이미 토론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던 문제들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물론, 투표 이전 단계, 즉 어떠한 내용들을 투표에 상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들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향후의 디자인과정에서 이러한 항목들이 반영되고, 설계경기에서 평가의 주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면, 행사에서 진행되었던 과정이 단순히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으로 그쳤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작업장 주체들의 역할 또한 중요한 이유다. 토론장의 주요 주체인 대중들은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할 권리와 역량은 있지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460)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2012. 06.01 접속

[http://www.renewnyc.com/plan\\_des\\_dev/wtc\\_site/new\\_design\\_plans/firm\\_d/default.asp](http://www.renewnyc.com/plan_des_dev/wtc_site/new_design_plans/firm_d/default.asp)

461) 다음의 웹사이트 각각의 항목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2012. 06.01 접속

[http://www.renewnyc.com/plan\\_des\\_dev/wtc\\_site/new\\_design\\_plans/default.asp](http://www.renewnyc.com/plan_des_dev/wtc_site/new_design_plans/default.asp)

###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는 미숙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직접 무엇인가를 제안하고 그리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미리 준비한 안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것에 그칠 것인가의 문제는 쉽게 결정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sup>462)</sup> 또한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생산과정에 참여하기도 힘들다. 따라서 토론장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어떠한 변환과정을 거쳐 작업으로 피드백 되는가의 문제, 이것은 바로 작업장의 주체인 전문가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달과정이 중요하다면, 그림과 도면으로 표현된 계획안을 대중에게 말로 풀어내는 것 또한 전문가들이 해야 할 역할이다. 1차적으로는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는 설계자의 몫이지만 직접 설계한 건축가들이 충분히 해내지 못한다면, 다른 전문가들이 제 3자의 입장에서 미디어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비교적 소규모의 인원으로 진행되는 워크숍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일부 보완될 수 있다. 이매진뉴욕에서 진행한 추모공원 관련 워크숍을 보면 질문을 통해 대상을 보는 시각을 제시하기도 했다.

디자인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드는가?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가?  
각각의 디자인은 리베스킨트의 대지계획 및 주변 환경과 얼마나 잘 호응하는가?  
후속 세대에게 이 기념공원 디자인은 어떻게 인지되고 이해될 것 같은가?<sup>463)</sup>

그러나 이러한 행사가 지닌 더욱 중요한 장점은 사람들 간에 대화가 오고갈 수 있다는 점이다. 구성 인원 중에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디자인에 대하여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점에 대해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잘 모르고 있던 장점을 인지하게 되었다면 최종 판단을 변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추모공원의 후보작을 대상으로 진행된 소규모의 워크숍과 같은 행사들은 사람들 간에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향상된 ‘토의민주주의’로 불리기도 한다.<sup>464)</sup>

462) 이 문제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제기 하는 정도로 그치기로 한다.

463) [표 3-39] 참고

464) 토의민주주의란 대의민주제와 직접민주제를 결합하려는 시도로서, 시민들이 공공문제에 대하여 피상적인 관심과 지식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상호 참여와 심도 깊은 토의를 통하여 개명된 결정에 이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 방식의 하나로서 공론조사(opinion poll)는 ‘설문 → 학습 및 토론 → 2차 설문’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서, 중간 단계의 학습과 토론을 통해 참여자는 주어진 안건을 심도 있게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승중, 김혜정, 『시민참여론』, 서울 : 박영사, 2011, pp.39-49

## ② 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다루는 경우

미디어를 통해 구체적인 디자인이 다루어질 때는, 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더 증대된다. 이것은 시애틀공공도서관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경우를 비교해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다만, 시애틀공공도서관의 경우 전문가들이 특정한 디자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어 변화를 유도한 것이라면, 그라운드제로에서는 ‘공사비’ 나 ‘보안’ 과 같은 문제들을 디자인의 문제로 변환하여 해결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뉴욕타임즈의 건축전문 비평가인 니콜라이 우루소프(Nicolai Ouroussoff)는 보안 문제 지적으로 1WTC의 디자인이 변경되기로 결정된 다음 날 가능한 대안과 진행상황의 문제점에 대해 논평을 썼다.

……그(Kevin Rampe)의 관점은 1WTC를 동쪽으로 옮기는 것은 단지 새로운 보안 문제를 야기할 뿐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그린위치 가 밑을 지나는 열차 선로와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반면 부지의 마스터플래너인 리베스킨트는 파타키에게 개인적으로 제안했다. 그 내용은 1WTC를 건물의 동쪽 바로 옆이자 그린위치와 플톤 가의 코너에 있는 공연장과 결합하여 보다 넓은 방어의 거리를 확보하자는 것이었다. 리베스킨트는 건물의 비틀린 형태를 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한 조치는 건축가로 하여금 건물 하부의 면적을 줄일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서쪽의 도로로부터 보다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리베스킨트에 따르면 새롭게 확보할 수 있는 거리는 대략 12m가 될 것이다.…… 465)

글에서 보면,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몇몇 입장의 시각을 서술하고 있다. 비전문가인 대중은 글을 통해 건물을 동쪽으로 단순히 옮기는 것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알 수 있으며, 두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결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게 된다. 또한 비틀어진 형태의 건물을 곧게 펼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물론 형태를 변화시킴으로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비전문가라도 쉽게 알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거리가 떨어지는지, 내부의 엘리베이터 코어의 작동을 가능하게 하면서 어느 정도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면 제시하기 힘들다.

2006년 5월에 추모공원의 공사비가 1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된 후에도 공사비 절감을 다루는 다수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무엇보다도, 추모공원에 사용되는 스테인레스스틸 파이프를 플라스틱 파이프로 바꾸면 8백만달러를 절약할 수

465) NICOLAI OUROUSSOFF, "CRITIC'S NOTEBOOK; For Freedom Tower and Ground Zero, Disarray Reigns, and an Opportunity Awaits," *New York Times*, 2 May 2005 :1

###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있다. 좋다. 이제, 1억6천4백만달러만 줄이면, 5억달러에 맞출 수 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한 어떤 방법이 가능한가? …… 이러한(지하로 내려가는 경사로로 이루어진) 회랑을 없애고 희생자의 이름이 새겨진 난간을 광장 레벨로 올리면, 비용을 보다 절약할 수 있다. 이것은 추모재단의 간부에 의해서 제안된 방법이다. …… 블룸버그 시장은 어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지하의 뮤지엄과 옆의 방문자센터를 1WTC의 하부로 옮기는 것이다. …… “그렇게 하면 1WTC는 ‘완벽한 장소’ 가 될 것이다. 여러 가지 물건들을 전시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그 장소에서 일어난 일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블룸버그 시장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말했다. “그렇게 하면 건물의 로비를 잘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향만청의 입장에서 두 개 지어야 되는 건물을 하나만 지으면 되는 것이다”. 다른 가능한 대안은 북쪽 건물 하부에 있는 폭포와 사색의 방을 없애는 것이다. 그렇지만 추모재단의 이사장은 어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누구로부터도, 그리고 어떤 쪽으로부터도 마이클 아라드의 ‘반영하는 못(pool)’ 의 아름다움과 위엄을 침범할 것이라고 들은 적 없다” …… 2003년의 공모전에 제출한 마이클 아라드의 안에는 상부의 건물, 지하의 뮤지엄, 공원의 나무가 없었다. …… LMDC는 조경가인 피터워커를 프로젝트에 끌어들이면서부터 지하의 뮤지엄과 문화센터가 들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 466)

여기서도 역시 추모재단의 입장과 시장의 제안 등, 주요 인사들이 생각하는 추모공원에 대한 생각부터, 광장 나무에 물을 대는 지하의 파이프 재료를 변경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설명하였다. 동시에, 공사비 증가의 원인이 초기에 시민들의 합의로 이루어진 안에 여러 가지 요소를 덧붙인 것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부가적 요소를 없애거나 다른 건물로 통합함으로써 초기의 안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대중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경로는 별로 없다. 그러나 대중은 미디어를 통한 전문가의 해설을 통해, 비용이나 보안과 같은 추상적 개념이 구체적이고 물리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알 수 있었으며, 진행되는 과정을 관찰하는 감시자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수준의 변화와, 작업장에서 발표한 결과가 많이 차이가 났다면 항의나 시위 같은 직접 행동에 나섰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 경우 모두, 작업장의 변경 안 발표내용은 미디어에서 제시되었던 대안들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 (3) 담론이 다루어진 방식과 시설의 성격

바로 앞에서, 그라운드제로 사업에서 구체적인 디자인을 다루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식의 차이는 어떻게 생겨나는가? 물론, 리스닝투더시티나 워크샵처럼 직접적인 담론 수렴 이벤트가 벌어지려면, 특정한 단체나 작업장의 주체들이 행사의 주최를 결정하고 기획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

466) DAVID W. DUNLAP, "Trimming Down to a Less Costly Design at Ground Zero," *New York Times*, 6 May 2006 :5

사안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직접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까? 공사비 문제로 추모공원 설계의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한 토의가 힘들 것이다. 기술적으로 비용과 디자인을 연결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마스터플랜과 추모공원 현상설계의 경우, 우선 공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 공청회나 워크숍의 정당성을 만들어주었다. 우선 무엇보다도 그라운드제로는 테러단체의 공격으로 인하여 시작된 사업이었다. 많은 사람이 사망하였고, 뉴욕 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부지에 무엇인가를 다시 만드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자존심’ 을 세우는 것이기도 했다.

또한, 16에이커의 면적은 정사각형의 부지일 경우 가로세로 각각 255m에 이르는 큰 면적이다. 도시 안에서 이러한 면적의 땅이 새로 개발되는 것은 주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초기에 계획했던 오피스 면적이 100만㎡에 달했던 사실도 로어맨하탄 전체의 오피스 시장에 커다란 영향력을 예고했던 것이었다.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주거 기능을 포함시켜서 전체 로어맨하탄을 활성화시키려 했던 것도 개발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력이 반영된 것이며, LMDC가 그라운드제로부지 이외의 로어맨하탄 사업을 동시에 진행한 것도 이러한 영향력이 전제된 것이었다. 가장 간단히 말한다면, 부지 옆에 사는 사람이 부지를 가로질러 반대편 끝으로 갈 수 있는가, 아니면 돌레를 빙 돌아가는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무너지기 전의 기존 WTC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스터플랜의 결과물과 추모공원의 디자인은 사람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었다. 디자인 저변에 깔린 사상과 기술적인 부분은 이해하기 힘들지라도, 건물의 높이, 길의 여부, 시설의 비중, 공원의 면적, 형태가 주는 느낌, 공간의 분위기와 같은 부분들은 일반인들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내용이였다.

추모공원의 경우에는 희생자들의 지인들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던 곳이기도 했다. 가족과 친구가 사망한 장소라는 점, 그리고 그 곳에 갔을 때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된다는 점은 ‘그 장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보안적 측면과 공사비용의 경우는 조금 다른 문제였다. 보안문제의 경우에는 폭발과 같은 물리적 타격에 건물이 견뎌내도록 만들어야 했다. 고강도 콘크리트

###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로 하부를 보강하고 묵직한 느낌을 상쇄시키기 위해 유리로 외부를 치장하는 것과 같은 대안은 대중이 제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추모공원의 경우도 어떠한 요소가 얼마만큼의 비용을 소요시키는 것인지 계산하고, 전체적으로 무리가 없도록 디자인을 수정하는 것은 작업장의 주체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다만, 그 공적 성격으로 인해 대중 또한 알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미디어에서 사건의 추이가 계속해서 보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슈의 성격을 볼 때, 뮤지엄의 입주업체나 무슬림커뮤니티센터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항목으로 나누어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적은 문제였다. 대중이 원하는 것은 ‘그들을 퇴출시키는 것’ 이었다. 따라서 대중이 선택한 담론 전달 방식은 시위라는 직접행동이였다.

이슈의 성격과 더불어 시설 자체의 성격에도 차이가 있다. 마스터플랜은 공공에게 드러나는 도시 가로와 건물의 형상을 다룬다는 점에서, 추모공원 역시 공공에게 개방된 장소라는 점에서 대중은 그 ‘사용자’ 의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피스 건물의 경우는 다르다. 건물의 사용자는 건물에서 근무하는 기업의 근로자들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피스 시설이 지니는 공적 성격은 추모공원이 지니는 공적 성격의 정도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차이점으로 인하여 담론을 다루는 방식 역시 달라졌다. 재건 사업에 대한 초기의 합의, 그리고 마스터플랜과 추모공원 현상설계의 경우 직접 참여에 가까운 담론수렴 이벤트가 열렸으며, 뮤지엄 입주업체와 무슬림커뮤니티센터의 경우 시위를 통해 의견이 표출되었다. 생존자 계단을 다루는 일이나 보안문제와 공사비용 문제의 경우 미디어의 디자인 해설을 통해 대중은 관찰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했으며, 항만청과 실버스타인의 기나긴 협상과정 역시 미디어를 통해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는 역할을 했다. 물론 필요할 경우에는 ‘실버스타인에게 더 이상 공적 자금을 투입하지 말라’ 는 직접적인 항의를 하기도 했다. 희생자이름 배열의 문제 역시 미디어를 통해 제시되는 대안들을 지켜보는 한편, 유가족들은 직접적인 의사전달을 하기도 했다.



### 3.3.4. 정리 및 분석

이제까지 그라운드제로의 생산과정에서 토론장의 전개 과정과, 토론장에 드러난 작업장의 전개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테러로 인하여 건물이 무너진 직후부터 재건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재건 사업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첫째는 테러로 인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것, 둘째는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것, 셋째는 재건사업을 통해 지역 전체를 활성화 하는 것이었다. 건축가들은 전시회를 열어 어떠한 모습으로 부지가 재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으며, 사회단체에서는 자체적인 회의를 통해 사업에 대한 원칙들을 공표하였다.

그러나 사업의 진행은 수월하지 않았다. 사업자금을 확보해야만 했는데, 재원의 가능한 출처는 크게 연방 지원금, 항만청의 자금, 민간 모금, 그리고 실버스타인의 보험금이었다. 테러 직전의 99년 임대계약에 따라 오피스 개발에 대한 권리를 지니고 있었던 실버스타인은, 부지 안에 되도록 많은 오피스를 지으려고 했다.

이러한 부분은 사업의 초기부터 대중의 여론과 충돌하였다. 5,000명이 모인 공청회에서 시민들은 항만청을 비롯한 발주처 주체들이 제시한 여섯 개 안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결국 계획은 백지화되고 건축가들을 초청하여 설계경기를 진행했다. 5개월 후, 일곱 팀은 자신들의 계획안을 대중 앞에서 직접 설명하였고, 이 행사는 TV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시민들은 6주 동안 전시된 계획안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선호도를 표현하였다. LMDC는 대중의 의견을 참고하여 리베스킨트의 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였다.

마스터플랜은 대중의 합의에 의해 도출되었지만, 실제 진행 여부는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오피스개발에 대한 권리를 지닌 실버스타인이 독자적으로 SOM을 건축가로 지목하여 설계를 진행했던 것이다. 결국, 1WTC의 설계는 SOM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리베스킨트가 협력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리베스킨트는 전체 부지에 대한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마스터플랜이 확정되자 추모공원의 설계경기가 시작되었다. 추모공원은 부지 안에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시설이었다. 5,201개의 응모작으로부터 8개의 안이 선정된 후, 워크숍을 통하여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역시 LMDC는 이러한 의견을 참고하여 마이클 아라드의 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였다. 비록 시민들의 결정이 의사결정과정에서 투명하게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마스터플랜과 추모공원에

###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대한 토의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서로의 의견을 확인하면서 서로 다른 가치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다.

건물의 디자인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변경되기도 했다. 1WTC가 보안에 대하여 취약하다는 경찰청의 지적에 따라 건물의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변경되었다. 추모공원의 경우에는 급격하게 증가한 공사비가 문제되어 디자인이 변경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능한 대안들이 전문가들을 통해 미디어에서 제시되었으며, 대중은 보안과 비용이라는 문제를 디자인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

비용에 대한 문제는 순수하게 디자인의 변화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추모공원 비용의 경우, 대중의 합의로 이루어진 안을 변경했다는 문제제기가 뒤따랐고, 목표가 확실하지 않은 모금을 진행할 수 없다는 추모재단의 입장 표명 후, 재단의 이사장이 사임하기도 했다.

특정 시설의 입주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운동도 있었다. 국제자유센터와 드로잉센터가 미국의 대외정책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그라운드제로의 희생자들이 지니는 의미를 가볍게 만들 수 있다는 근거로, 시민들은 퇴출운동을 전개해 나갔으며, 결국 이들 업체는 전체 사업에서 제외되었다. 그로 인하여 뮤지엄이었던 추모공원 옆의 건물은 방문자센터로 프로그램이 변경되었다. 건물의 디자인도 다시 진행되었다.

이처럼 시민들은 그라운드제로를 단순한 재건사업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역(sacred grounds)’으로 생각했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하여 그라운드제로 주변에 이슬람센터가 건립하려고 했을 때, 시민들은 강한 반대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이슬람교에 대한 인식이 드러났다. 이성적인 차원에서 종교의 자유는 인정되었지만, 이슬람교는 분명히 그라운드제로가 지니는 장소의 성격과 섞여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원칙은 부지 바깥으로까지 확대되었던 것이다.

재건사업의 과정에서 ‘유물’로 인정된 기존 쌍둥이 건물의 흔적을 남기는 것들도 논의되었다. 2WTC의 공사 진행에 영향을 주었던 ‘생존자 계단’에 대한 거취가 논란에 올랐고, 결국 전체를 들어내어 방문자센터로 옮기기로 결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역사적 가치의 문제와 실질적 비용의 문제가 저울질되었다.

추모공원에서는 희생자 이름을 배열하는 순서가 문제되기도 했다. 미국의 또 다른 추모공원의 사례들도 함께 논의되면서, 인간의 동등함이라는 윤리적 문제까지 같이 거론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만드는 것의 의미는 사회 윤리적 문제로 확장되었다.

한편 오피스 개발에 대한 문제는 사업의 처음부터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문제되었다. 실버스타인은 되도록 많은 오피스를 지으려고 했으나 로어맨하탄 지역의 오피스 수요가 줄어들자 항만청과 뉴욕시 측은 오피스의 개발 시기를 조절하려고 했다. 결국 실버스타인이 임차자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부지 동측에 계획되었던 세 동의 건물 중 한 동의 건물만 개발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 협상의 과정에서 건물의 물리적 규모를 결정하는 문제는, 경제적 상황, 보험금의 문제, 그리고 각 주체들의 파워게임과 연관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중이 직접적으로 참여한 부분은 드물었지만, 미디어의 상세한 보도를 통해 관찰자와 감시자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대중으로 하여금 주체들의 결정을 간접적으로 견제하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지금까지 그라운드제로 사업의 주요한 문제들에 관하여 전개된 생산과정의 양상을 요약해 보았다. 각각의 이슈에서 드러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표 3-40] 그라운드제로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항 목	토론장에서 다루어진 내용 중 구체적 작업에 관계된 내용	토론장이 작업장에 영향을 준 주요한 방법
재건에 대한 사회적 합의	사업의 방향성	담론 수립 이벤트
여론의 수렴을 통한 마스터플랜 결정	구체적 디자인	담론 수립 이벤트
추모공원 설계경기	구체적 디자인	담론 수립 이벤트
뮤지엄 입주업체 반대	시설(대상) 전체	단체의 직접 행동
보안문제로 인한 1WTC의 설계 변경	구체적 디자인	미디어를 통한 관찰과 감시
공사비 절감을 위한 추모공원 설계 변경	구체적 디자인	미디어를 통한 관찰과 감시
추모공원의 희생자 이름 배열	디자인의 세부 표현	미디어를 통한 관찰과 감시 단체의 직접 행동
'생존자 계단' 의 보존	시설(대상) 전체	미디어를 통한 관찰과 감시 단체의 직접 행동
항만청과 실버스타인의 협상	시설(대상) 전체	미디어를 통한 관찰과 감시
그라운드제로 주변의 무슬림커뮤니티센터 건설 반대	시설(대상) 전체	단체의 직접 행동

토론장에서 구체적인 작업에 대해 언급한 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드러났다. 사업의 방향성을 결정하거나, 구체적인 디자인에 대해서 다루거나, 시설 전체의 거취나 시설에 대한 입주업체를 다루거나, 혹은 디자인의 세부적 표현에 관련된 문제를 논의

하는 경우였다.

즉, 토론장의 주체가 건물에 대해 다룰 때 반드시 디자인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사업 전체적으로 볼 때 시민과 관계된 시설은 LMDC가 담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LMDC가 담당하고 있는 건물들 중 공연장과 뮤지엄에 대한 문제들은 종종 언론에서 보도되었지만 입주업체에 대해서만 다루어졌을 뿐, 구체적인 디자인에 대해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건축가가 선정되는 과정도 전적으로 발주처에서 결정하였다. 공연장의 경우 프랭크 게리(Frank Gehry)가 맡았고, 방문자 센터(초기에는 뮤지엄)의 경우 스노헤타가 맡았는데, 추모공원이나 마스터플랜과는 달리 그 선정과정에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은 없었다.

그렇다고 대중이 그 시설들에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뮤지엄 입주업체의 경우 강한 반대시위를 통해 입주 자체를 무산시켰지만, 그렇게 고조되었던 관심이 건물의 디자인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었다.

또한 오피스타워의 경우에도 대중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1WTC의 경우 ‘높이’ 라는 상징적 요소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디자인이 급격하게 변경되는 가운데서도 특별한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었다. 실버스타인이 독단적으로 세 명의 건축가를 선정하여 2,3,4 WTC의 디자인을 결정했지만, 나선 방향으로 점차 낮아진다는 마스터플랜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자 구체적인 디자인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교통환승센터도 마찬가지였다. 오피스의 경우 특정 기업의 직원들이 이용하는 건물이라고 해도, 교통환승센터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게 될 공공시설이었다. 그러나 건축가 선정과정에서 대중이 참여한 일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은 전문가들과 대중의 찬사를 받았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대중이 작업장에 관심을 지닌다고 해서 그 관심이 반드시 구체적인 디자인으로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추모공원의 경우에는 ‘어떠한 분위기가 느껴지는가’ 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디자인의 표현에 관심을 두었지만,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입주 업체의 자격’ 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또한 보안과 비용이 문제되었을 때도 구체적인 디자인이 언급되기는 했다. 그러나 이때 대중이 관심 있었던 것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혹은 초기의 비용을 지켜내기 위해 행하여진 ‘합리적으로 납득할만한 변화의 정도’ 였으며, 그러한 변화가 만들어내는 ‘공간의 분위기’ 는 중요한 거론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또한 토론장이 작업장에 영향을 준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다. 단체의 자체적인 회합이나 발주처에서 주최한 행사를 통해 집중적으로 담론을 수렴한 경우, 시위나 항의 서한 전달과 같은 단체의 직접 행동을 통한 경우,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사건 전개를 관찰하면서 작업장 주체에 대한 감시의 역할을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경우였다.

집중적으로 담론을 수렴하는 이벤트가 만들어졌던 것이 2004년까지 크게 세 번이었다고 볼 때, 그 이후, 그리고 사업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미디어를 통해 관찰함으로써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토론장 역할의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물론 미디어를 통해 상세한 보도가 이루어졌지만, 모든 부분이 공개되었던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만족했던 것도 아니었다.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공개하지 않았던 것과 더불어, 대중의 의견이 투명한 과정을 거쳐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은 그라운드제로 사업의 특징이기도 하다. 초기부터 LMDC는 설계를 맡은 건축가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공표하거나 논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밀 협정을 맺었다.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각 건물을 맡은 여러 건축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협력하게 하는 일도 없었다. 작업에 대한 내용이 지나치게 공론화되는 것을 경계하였던 것이다.<sup>467)</sup>

그리고 집중적인 담론 수렴 이벤트를 통해 대중의 합의가 모아졌더라도 이것이 작업장에 그대로 반영된 것은 아니었다. 초기에 대중의 합의를 반영한 결과가 리베스킨트를 마스터플래너로 선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발주처간의 권력 관계, 특히 실버스타인의 영향력 때문에 리베스킨트의 역할은 점점 축소되었다. 더구나 리베스킨트가 교통환승센터의 설계를 맡으려고 했을 때도, 연방기관은 그가 해당 시설에 대한 경험이 적다는 이유로 설계를 맡기지 않았다. 실버스타인 역시 고층빌딩에 대한 경험부족을 근거로 들어 리베스킨트 대신 SOM에게 작업을 맡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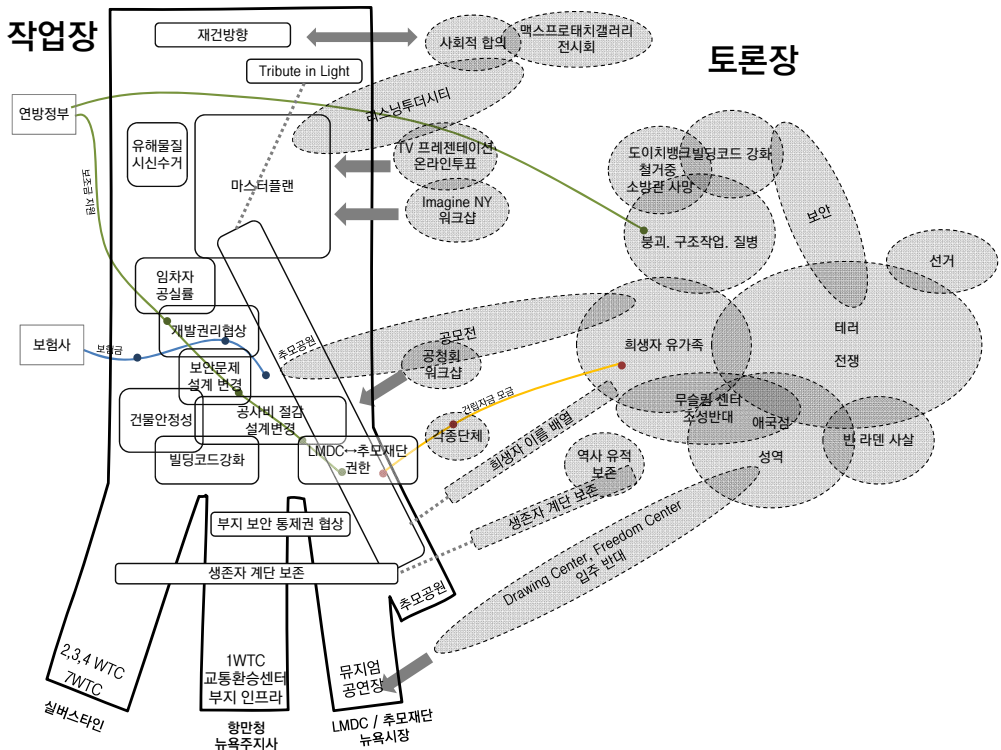
추모공원의 경우 역시 공공프로세스를 반영하여 마이클 아라드가 당선되었지만, 실시 설계를 이끌어가기에 그는 경험이 부족했을 뿐더러, 당선 당시 건축사사무소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LMDC는 조경가와 건축가들 파트너로 붙여주었고, 설계를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광장에 무수한 나무가 추가되고 이를 위한 관개시설이 지하에 인공적으로 들어가는 등, 초기의 당선 안은 많이 변경을 거쳐야만 했다.

467) NICOLAI OUROUSSOFF, "CRITIC'S NOTEBOOK: For Freedom Tower and Ground Zero, Disarray Reigns, and an Opportunity Awaits," op.cit.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이렇게 토론장이 작업장에 끼친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서 논하자면 그라운드제로 역시 ‘많이 반영되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매턴(Shannon Mattern)의 지적처럼 시애틀공공도서관에서 건물의 큰 틀이 초기부터 최종까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참여가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라운드제로 역시 대중은 ‘참여하고 있다’는 감각만을 가지게 되었을 뿐, 엄밀하게 판단했을 때 직접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론장이 작업장과 관계하면서 가지게 되는 의의란 비단 참여 여부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다. 본문에서의 이슈별 분석을 통해 도출해낸 주요한 내용은, 작업장에서의 작업이라는 물리적인 행위가 토론장의 담론과 관계하면서 어떠한 사회적 문제들을 담아내는가였다. 특히, 그라운드제로와 같은 대규모 공공사업에서는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경제, 보안, 윤리, 종교 등의 다양한 문제들과 관련을 맺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경우 사회적인 문제와 관계를 맺으면서도 사회적인 문제의 차원에서만 토론장의 담론이 이루어졌다면, 그라운드제로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디자인



[그림 3-123] 그라운드 제로 진행과정에서 형성되었던 토론장과 작업장

의 내용과 연관되면서 다루어졌다. [그림 3-123]은 전체 사업에서 벌어졌던 작업장과 토론장의 이슈들이 어떠한 관계로 얽혀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연결해내는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전문가의 역할이다. 시애틀공공도서관의 경우 전문가와 평론가들이 사용성과 접근성처럼 주로 실용적인 문제들을 디자인과 결부지어 건물을 비판했다고 하면, 그라운드제로에서는 보안과 비용처럼 추상적 문제들을 구체적인 디자인으로 변환해내면서, 대중으로 하여금 디자인이 지닌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알 수 있도록 했다.

토론장이 작업장과 관계 맺는 시기 역시 중요하다.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대중의 의견이 수렴되었기 때문에, 기존 쌍둥이빌딩 부지를 남겨놓은 채 마스터플랜을 진행할 수 있었고, 초기에 제시되었던 여섯 개의 안이 좋지 못하다는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버스타인의 오피스개발 의지를 견제하면서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 만약 초기에 제시되었던 여섯 개의 안들 중 하나로 결정되어 사업이 진행되었더라면,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경우처럼 대중의 누적된 불만으로 인해 사업의 외부적 요인을 통해 다시 작업이 변경되었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 사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업이 복잡해지고 대형화 될수록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는 점이다. 우선, 진행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리스닝투더시티같은 직접적 담론수렴 이벤트를 조성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이 커지고 테러와 같이 미디어의 큰 주목을 받는 정치적 사건이 결합될 경우,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의 범위가 도시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서 멀리 확장되기 마련이다. 이런 사람의 관심을 충족시키는 방법이 바로 ‘미디어를 통한 상세한 보도’가 된다. 미디어를 통한 ‘간접적 참여’야말로, 80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도시에서 다수의 사람들을 토론장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중 주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 3.4. 종합적 분석

이제까지 토론장이 작업장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해 세 개 사례 각각의 생산과정을 따라가면서 분석하였다. 이 장에서는 세 개의 사례 모두를 대상으로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첫 번째로, 세부적 요소들에 대해 다룬다. 토론장과 작업장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관계, 그 중에서도 특히 토론장의 담론이 변환되어 작업장의 요소에 대응되는 구조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토론장에서 이루어지는 담론은 건물에 대한 요소들을 지시적으로 지목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추상적 가치나 세분화되지 않은 개념에 대해 다룬다. 이러한 담론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건물의 요소에 대응하는지에 대해 세 개 사례에서 나타난 관계들을 바탕으로 종합해본다.

세 가지의 사례를 통해 관계구조를 도출하는 것처럼 귀납적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적용되는 일반적 구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른 프로젝트를 분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지침이 되어줄 것이다.

두 번째로, 보다 넓은 시각에서 각 생산공간을 비교한다. 각각의 생산과정이 다르게 전개된 원인 중 하나로서 생산공간이 처한 하부구조와 컨텍스트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각 사례에서 생산에 참여한 주체들이 이러한 조건들 안에서 어떠한 판단과 결정을 통해 프로젝트를 전개시켜나갔는지 분석해본다.

이러한 분석을 시도하는 것은 단순히 토론장과 작업장이 영향을 주고받은 정도의 많고 적음으로 각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다만, 각 프로젝트 안에서 벌어진 특수한 상황 속에서 주체들이 내린 판단에 초점을 맞추어 보는 것은, 새로운 생산과정을 기획해 나갈 때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 3.4.1. 토론장과 작업장의 요소별 대응 구조

이 장에서는 제작 단계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을 세부적인 요소들로 분해하여 각 요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작용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토론장의 주체들은 비전문가이며 토론장의 담론이란 건물을 만들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발화행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 디자인요소들을 명시적으로 지적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그리고 작업장은 물리적인 건물을 만드는 영역이지만, 실체를 만들기 이전 단계다. 따라서 토론장의 주체들은 직접 경험을 통해서 작업장의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공청회와 같은 참여 이벤트나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접하는데 그 정보란 이미지, 도면, 모형, 텍스트들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얻은 정보를 통해 관련된 담론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생산되는 건물에 대한 의견들은 일반적이고 추상적 단어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 그러한 의견들은 작업장에 반영된다. 토론장과 작업장은 본질적으로 분리된 영역이므로 주체들이 의도적으로 두 영역을 연결하기 전에는 토론장의 담론이 작업장에 반영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양상을 종합해보기 위해, 우선 작업장의 요소와 토론장의 요소를 나열하고, 그 작용에 대해 예측해본다. 그리고 앞의 사례에서 분석한 내용 중 각 사건별로 필요한 부분들을 추출할 것이다. 그 후에, 여러 가지의 개별 사례들이 집합되어 만들어내는 종합적 관계 양상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 (1) 대응 구조의 개괄

##### ① 토론장과 작업장의 요소

토론장에서 회자되는 건물에 관련된 담론은 그 내용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건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다. 건물의 높이, 바닥 재료와 같이 디자인 요소를 다루는 것, 개발 규모 혹은 내부 프로그램의 적합성에 대한 것처럼 시설프로그램을 다루는 것, 건축예산이나 공사비처럼 비용에 관계된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건물과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다. 보안문제가 이슈가 된다면, 시민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문제, 세계적 도시를 목표로 하자는 것, 혹은 역사를 보존하자는 것처럼 추상적 개념에 대해 논의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작업장에서 진행되는 제작과정에서는 디자인 요소, 재료, 예산, 내부 프로그램 등 모든 것들이 밀접한 인과관계로 엮여 있지만, 토론장과의 대응관계를 보기 위하여 몇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첫째는 물리적 디자인 요소다. space program, 배치, 평면, 입면, 재료, 디테일과 같은 것들로 나누어 보았다. 둘째는 디자인 외적 요소다. 시설 프로그램, 일정, 운영 제도 법규 비용으로 대체적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것들은 프로젝트의 특수성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많다.

#### ② 요소들의 대응 구조

토론장과 작업장이 관계 맺는 방식은 정보의 방향성에 따라 작업장에서 토론장으로의 정보전달과 토론장에서 작업장으로의 영향이라는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작업장의 정보는 대부분 대중 매체를 통해서 토론장에 전달된다. 공청회와 같은 시민 대상 이벤트를 통해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매체의 2차적 보도를 통해 참가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보를 얻는다.

토론장의 의견이 작업장으로 전달되는 것은 크게 볼 때 직접적으로 수렴되는 경우와 간접적으로 수렴되는 경우가 있다.

직접적으로 수렴되는 경우는 워킹그룹처럼 일정기간동안 구성된 조직에 참여하여 긴밀하게 의견을 주고받는 경우, 공청회나 워크샵처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담론을 수렴하는 경우, 시위 및 단체행동을 통하여 작업장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 그리고 이메일, 게시판,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토론장의 주체들이 개별적으로 작업장에 접촉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간접적으로 수렴되는 경우는 미디어의 보도를 통해 전달된 작업장의 정보를 토대로 토론장에서 담론이 형성되고, 이렇게 형성된 담론을 토대로 작업장에서 참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작업장에서 토론장의 담론을 참고할 때는 정책적으로 담론의 수용을 결정하거나 작업장의 주체간의 관계에서 여론을 토대로 상대방과의 협상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sup>468)</sup>

토론장에서 작업장으로 전달되는 경우 토론장 주체들의 의견은 작업장 자체의 해석과정을 거쳐서 건물에 반영된다. DDP의 경우 대중의 담론은 서울시가 토건사업에 과도하게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무상급식’ 이슈와 관계되어 시장이 교체되는 사건으로 이어졌으며 복지를 강조했던 새 시장은 DDP의 1년 할당 예산을 축소하고 내부 프로그램에 대해 다시 고려할 것을 지시했다. 그라운드제로의 경우에도 리스닝투더시티 이벤트에서 대중은 기존 작업에 대한 불만을 표시함과 동시에 주요한 몇 개의 요소들을 도출해냈다. 그 이후, 작업장 내부에서는 새롭게 지명 현상설계를 기획하고 추진하였다. 즉, 토론장의 담론은 방향성을 잡아 주는 역할에 그치며 구체적인 부분이 전개되는 것은 작업장 내부의 해석 과정이다.<sup>469)</sup>

이 해석과정에서 담론은 수렴과 발산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지닌다. 대부분의 담론은 특정한 요구사항으로 수렴될지라도 다른 담론들과 연계되며 발산하는 성질을 지닌다. 예를 들어 시애틀공공도서관에서 시민들이 와이어메쉬의 유리 입방체가 지그재그로 올라간 낮선 형태를 반대했을 때, 스타건축가의 전위적 디자인이라는 문제와 시애틀이라는 도시와의 어울림이라는 문제가 동시에 다루어졌다. 그라운드제로 사업 초기에 사람들은 ‘다시 예전의 높이만큼 건물을 지을 것’을 요구했다. 이것은 무너진 건물로 인한 자존감을 회복하겠다는 생각, ‘민주주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생각 등에서 연유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함께 덧붙여 있던 ‘이슬람 테러단체로부터의 성역’이라는 생각은 종교의 차원으로 확장되어 2010년에 무슬림 커뮤니티센터의 반대 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또한 리스닝투더시티에서 수렴된 의견은 기존의 진행을 모두 철회시키고 새로운 건축가들로 하여금 계획을 만들도록 했다. 그리고 동시에 재건 사업과 로어맨하탄 개발의 방향성에 대해 폭넓게 확산되기도 했다.

468) 항만청과 실버스타인의 협상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실버스타인에게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말라고 했던 것과, ‘실버스타인은 탐욕적(greedy)’이라는 여론을 토대로 실버스타인을 압박했던 경우를 가리킨다.

469) 그리고 토론장과 작업장 양 방향 모두, 전달 과정에서의 변형이나 왜곡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대중에게 건물이 완성된 상태를 미리 보여줌으로서 호의적인 여론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경우, 투시도를 만들어 공개하는 경우가 있다. 영국에서 로얄오페라하우스 증축이 문제가 되었을 때, 오페라 하우스 측은 컴퓨터로 투시도의 기본 틀을 만든 후 수작업으로 덧대어 역사적이며 친숙한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이는 의도한 바대로 많은 이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매티(Shannon Mattern) 또한 시애틀공공도서관의 대중설명회에서 콜하스의 현란한 수사적 기술을 지적한다.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능한 콜하스가 대중과 ‘소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도대로 대중을 유도했다고 지적한다. 또한 현상설계안을 투표로 결정할 경우 건물의 복잡성이 단순한 선호도의 문제로 환원되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대응 구조가 일반적인 관계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라면, 변형과 왜곡은 일반적 관계에 대한 예외 혹은 역기능적 측면이 될 것이다. 이것은 본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주제와 별도의 독립적 연구주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 하였다.

또한 해석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특별한 역할을 한다. 이들은 작업장의 주체와 마찬가지로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있으며 업계 관련자간의 직접적 접촉이나 전문지를 통해 대중에 비해 작업장과 긴밀하게 되어 있다. 현상설계가 진행된 경우 낙선된 응모안들도 건축전문지에 게재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구독자들은 나름의 관점을 가지고 당선작을 포함한 응모안 모두에 대해 평가하며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그리고 이들은 작업장의 대상을 다루는 관점에서 대중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논의의 범위는 정치사회적 이슈보다 건축 자체에 집중되며, 형태에 대해 언급할 때도 경험적 감상과 더불어 건축사적 새로움이나 기술적 진보와 연관 짓기도 한다. 전문가들의 토론장은 독자적으로 형성될 때도 있으나, 대중매체에 글을 실는 방법 등을 통해 일반대중의 토론장과 작업장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할 때도 있다. 예를 들어 그라운드제로의 경우 2002년 7월에 항만청이 6개 안을 공개한 이후, 전문가들은 미디어를 통해 계획안을 비판했다. 그리고 이것은 신문을 읽은 대중의 의견에 분명히 영향을 끼쳤을 것이고, 그 결과는 며칠 후 이어진 리스닝투더시티에서 드러났다.

## (2) 사례에서 드러나는 대응 구조

여기서는 사례에서 드러난 토론장과 작업장의 요소, 그리고 그 대응구조를 분류에 따라 모아볼 것이다. 분류는 크게 작업장에서 토론장으로의 정보전달과 토론장에서 작업장으로의 영향이라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토론장에서 작업장으로의 영향은 사업의 방향성, 디자인 요소, 시설 프로그램, 비용, 추상적 개념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 ① 작업장에서 토론장으로의 정보 전달

작업장의 정보는 대부분 발주처에서 작성한 보도자료를 대중매체에서 편집하여 보도하거나 대중매체에서 자체적인 취재를 통해 보도하는 방식으로 토론장에 전달된다. 그 밖에 [표 3-41]과 같은 특별한 이벤트들도 전달되는 경우도 있다.

렘콜하스는 시애틀공공도서관 사업의 초기에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디자인을 설명하기 위해 주요 설계 개념을 담은 ‘개념설명서(concept)’ 를 만들어 직접 배포하고 도서관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도록 했다.

[표 3-41] 작업장에서 토론장로의 정보 전달

구분	작업장의 전달 요소	전달 방법	토론장에 미친 영향
설계개념 설명서 (SPL)	대략적인 외형, 설계의 주요 개념 및 특징	도서관의 새 디자인을 설명하는 개념설명서(concept book)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배포함	디자인에 대해 이해함 특정 부분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함
복스파이럴 모형 (SPL)	논란이 되었던 서가공간 경사로의 체험	복스파이럴의 실물모형(mock-up) 제작을 통해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함	경사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고 디자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감
TV 프레젠테이션 (GR)	설계경기의 참가작품에 대한 개념과 형상	특정 장소에 모인 대중 앞에서 건축가들이 직접 설명함과 동시에 TV를 통해 생중계됨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디자인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디자인의 선호도에 대한 투표를 유도함.

\*. SPL은 시애틀 공공도서관, DDP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GR은 그라운드제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그라운드 제로 사업에서 작업장의 주체들은 건축가들로 하여금 자신의 디자인을 대중 앞에서 설명하고 평가받게 했다. TV를 통해 현상설계 프레젠테이션이 반영된 것은 건축 역사에서 전례 없는 일로 평가받는다.

## ② 사업의 방향성

[표 3-42] 토론장에서 작업장로의 영향 - ①사업의 방향성

구분	토론장의 요소	내용 구조	작업장로의 영향
각종 단체의 성명서 (GR)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	전문가 연합단체인 New York New Vision에서 성명서를 발표. 각종 단체에서 성명서와 토론 결과를 레포트로 발표함	건물 재개발의 방향, 주변 도시에 대한 사업, 복구 사업의 방침 등이 정해짐
건축가들의 전시회 (GR)	전체 사업에 대한 투시도, 이 미지, 도면	사업 초기에 건축가들이 대중을 대상으로 한 전시회를 개최	재건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들이 그려지기 시작함

\*. SPL은 시애틀 공공도서관, DDP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GR은 그라운드제로

그라운드제로 사업의 초기에, 아무것도 없는 16에이커의 빈 대지를 다시 재건하는 방법에 대해, 전문가들이 맥스프로태치 갤러리에서 한달동안 전시회를 열어 대중 담론을 선도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각종 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하여 사업에 대한 원칙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 ③ 디자인 요소

토론장에서 논의된 디자인 요소에 대한 지적은 많지만, 특징적인 것 두 가지에 대해서 언급한다. 초기 시애틀공공도서관 계획안의 믹싱챔버 부분에는 정보가 디스플레이되는 전광판이 바닥에 설치되고 그 위를 투명한 유리가 덮고 있었다. 그런데 이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것이 ‘투명한 바다’ 으로 오해받고, 여기에 대한 반대 담론이 형성되어 미디어를 통한 비평과 항의메일 등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반대가 이루어졌다. 결국 투명한 바다는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일부 반사재가 들어간 비슷한 계획안도 모두 철회되었다.

또한 그라운드제로의 추모공원에서조차 난간에 희생자 이름을 새기는 순서가 문제된 바 있었다.

[표 3-43] 토론장에서 작업장으로의 영향 - ②디자인 요소

구분	토론장의 요소	대응 구조	작업장으로의 영향
투명한 바다 (SPL)	도서관 초기 계획안에 공개된 요소 중 투명한 바다에 대해 스킵트 등을 입을 경우 속이 보일 수도 있다는 윤리적 문제가 지적됨.	평론가들이 신문을 통해 비판 대응은 항의 메일 및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여 항의의사를 표현함	‘투명한 바다는 원래부터 없었다’고 오해에 대해 해명함. 반사재가 다소 들어간 일부 계획에 대해 철회함
희생자 이름 배열 (GR)	추모공원의 난간에 희생자이름을 새기는 순서에 대해 사람과 사람을 구별하는 문제에서 근본적인 인간의 동등함 문제까지 거론됨	언론을 통해 대안과 문제점, 사람들의 의견, 진행상황등에 대해 보도됨	희생자 이름 새기는 순서와 구별방법의 원칙이 결정됨

\*. SPL은 시애틀 공공도서관, DDP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GR은 그라운드제로

④ 시설 프로그램

[표 3-44] 토론장에서 작업장으로의 영향 - ③ 시설 프로그램

구분	토론장의 요소	대응 구조	작업장으로의 영향
내부 프로그램 배열 (SPL)	도서관 이용자로서 내부 시설 이용에 대한 편의성 및 주요 고려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워크그룹이라는 제도적 반영장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됨	대중의 의견이 반영되어 프로그램 배열이 일부 반영됨
시설 프로그램 선정 (DDP)	DDP의 내부 프로그램에 있어서 동대문 주변 상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였으며, 패션산업의 비중이 축소되고 지나치게 ‘디자인’ 위주로 치중되었다는 의견들이 제기됨	정치적 사건으로 인하여 새로 교체된 시장이 시설 프로그램 변경을 추진함	시민의 의견을 듣는 ‘청책워크샵’ 이 신설되고 자문회의도 다방면의 인원들로 교체됨. 스페이스 프로그램이 변경될 예정(2012.06. 현재)
특정 시설의 뮤지엄 입주 반대 (GR)	추모공원의 문화센터 입주 대상 단체가 미국에 대해 비판적인 전시를 열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이유로 입주를 반대함.	시민들은 반대 시위를 진행하는 한편 탄원서를 제출함	입주가 취소됨. 문화센터의 스페이스프로그램 계획이 전면 수정되어 방문자센터로 변화됨
오피스 비중의 축소 (GR)	오피스 위주의 재개발보다 로어맨하탄 주변과 융합될 수 있는 주거를 포함한 복합시설이나 추모공원 등의 방향으로 재개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초기부터 제기됨. 로어맨하탄에서 오피스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제시됨	리스닝투터시티에서 초기 계획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수렴됨. 시장이 시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입장으로 블룸버그가 항만청 및 실버스타인과 협상을 진행함	실버스타인이 임차자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전체적으로 오피스 비율이 조정됨 (2WTC 및 3WTC의 개발이 늦추어짐)

\*. SPL은 시애틀 공공도서관, DDP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GR은 그라운드제로

시애틀공공도서관에서는 설계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10개의 워크그룹을 조직하여 이들과 공동으로 프로그램 배치 작업을 진행하였다.

DDP에서는 시설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져왔다. 시장이 교체된 2011년 말부터 기존의 ‘디자인산업’ 위주의 내부 프로그램을 벗어나고자 ‘정책워크샵’ 을 도입하고 자문회의의 전문위원들을 다양한 영역의 대표들로 구성하였다. 본 건물의 공정률이 70%를 넘은 시점인 탓에, 건물의 물리적 외형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 프로그램을 조정하였다.

그라운드제로에서 시민들은 국제자유센터와 드로잉센터의 뮤지엄 입주반대운동을 전개하여 해당 업체들을 그라운드제로 부지로부터 퇴출시켰다. 그리고 리스닝투더시티와 같은 공청회를 통해, 그리고 뉴욕시장과 LMDC를 통해 오피스개발의 비중에 지속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⑤ 비용

[표 3-45] 토론장에서 작업장으로의 영향 - ④ 비용

구분	토론장의 요소	대응 구조	작업장으로의 영향
초기 예산의 유지 (SPL)	초기 예산을 주민 투표로 결정함	건물 외피 디자인을 실현하기 위해 예상보다 많은 공사비가 필요하게 되었으나, 작업장의 주체들은 토론장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예산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진행함.	예산을 준수하는 상태에서 디자인을 조정하였고, 일부는 건축가가 주도적으로 모금을 진행하여 해결
정치적 사건으로 인한 시장 교체 (DDP)	서울시에서 무상급식이 이슈가 되면서 DDP를 포함한 토건사업 지출과 비교됨	주민 투표 무산, 시장 사퇴, 보궐선거의 과정을 거쳐 새 시장이 당선됨	기존 시장과 정책 노선을 달리하는 새 시장이 DDP의 1년 예산을 조정하고 공기를 늦춤. 시민참여 비중 증가. 시설프로그램 변경.
비용 증가로 인한 추모공원 디자인 변경 (GR)	대중에게 공개된 초기 디자인의 수정(공원의 나무 추가 등)으로 공사비가 증액되었다는 문제가 지적됨	시민의 합의로 이루어진 예산을 준수하기 위해 작업장 주체들이 디자인 변경을 결정함 변경에 대한 대안들이 미디어에서 보도됨	처음의 예산을 준수하도록 결정. 희생자 이름이 새겨진 부분 이동, 8개의 지하 갤러리 중 6개 삭제 등 여러 가지 내용을 변경함.
민간 개발업자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GR)	개발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실버스타인에게 지속적으로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여기에 대한 협상과정이 언론에 지속적으로 집중 보도됨	시민단체에서 민간개발업자인 실버스타인에게 공적 자금(연방기금 및 항만청 자금) 지원을 중단하라고 청원함	실버스타인이 개발을 담당한 오피스 위주로 된 2WTC 및 3WTC의 개발 일정이 늦추어짐.

\*. SPL은 시애틀 공공도서관, DDP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GR은 그라운드제로

시애틀공공도서관에서는 초기에 주민의 합의로 이루어진 예산을 지켜나가기 위해 외피의 와이어 메쉬 격자 모듈 크기 등 주요한 디자인들을 조정해 나갔다.

###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복지사업과 토건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출이 문제가 되어 서울시장이 교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새로운 시장은 DDP 사업에 대해, 1년 예산을 축소하여 공기를 연장시키는 한편 시설프로그램 변경을 지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시민참여의 폭을 확대시켰다.

그라운드 제로의 예산은 2006년 5~6월경에 여러 건물들과 관련하여 언론에서 다루어졌으며 이로 인하여 추모공원 및 교통환승센터 디자인의 상당 부분이 변경되었다. 그라운드제로의 예산은 연방지원 기금과 항만청의 자금, 실버스타인이 수령하는 보험금 등 복잡한 재원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특히 LMDC에서 주관하는 추모공원, 방문자센터, 공연장의 경우에는 추모재단의 활동을 통한 민간 모금이 재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임의적 비용의 증감은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비용 증가를 최소화 하거나 정해진 비용 안에서 디자인을 변경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디자인 요소가 비용을 주로 상승시켰으며 어떠한 부분을 줄임으로 해서 전체 비용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중매체를 통해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였다.<sup>470)</sup>

항만청이 실버스타인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빠른 개발 진행이라는 명목으로 여러차례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결정을 내리자, 시민단체에서 강력한 반발의사를 표시하였다. 이후에 이루어졌던 협상에서 실버스타인은 비용 지원을 적게 받는 방향으로 결정되었고 따라서 임차자를 구하지 못했던 실버스타인은 4WTC를 제외한 2WTC, 3WTC 두 건물에 대해 개발 일정을 늦추어야만 했다.<sup>471)</sup>

#### ⑥ 추상적 개념

시애틀공공도서관에서 콜하스가 제안하였던 낮선 디자인이 ‘시애틀에 어울리는 것인가’의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램콜하스는 논쟁의 초점을 외관의 이미지에서 내부에서의 조망으로 이동시킴으로서 많은 이들을 설득할 수 있었다.

DDP에서도 자하하디드의 디자인이 동대문이라는 지역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적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문제는 전문가 토론장에서 일부 논의되었으며, 대중매체

470) 추모공원의 비용조정에 대해서는 3.3.2장의 해당 항목에 대한 분석을 참고

교통환승센터 비용조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사를 참고

David W. Dunlap, "Citing Budget, Port Authority May Trim Plans for Hub at Trade Center Site," *New York Times*, 16 Apr. 2008 :4

471) CHARLES V. BAGLI, "Tentative Deal Is Reached For 2 Trade Center Towers," *New York Times*, 26 Mar. 2010 :20



### 3.4. 종합적 분석

[표 3-46] 토론장에서 작업장으로의 영향 - ⑤ 추상적 개념

구분	토론장의 요소	대응 구조	작업장으로의 영향
지역에 어울리는 외관 (SPL)	렘콜하스가 설계한 전위적 외관이 시애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됨	신문을 통해 비판적 평론과 그에 대한 방어적 글이 지속적으로 게재됨 대중이 홈페이지와 메일을 통해 항의의사를 전달하고 발주처에서 각각에 대해 모두 답변을 보냄	외관 이미지에 집중되었던 담론의 초점을 내부에서의 조망으로 옮겨옴 외관의 디자인은 유지됨
주변과의 조화 (DDP)	자하하디드의 디자인이 동대문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이 일부 제시됨	보도자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디자인이 홍보됨 미디어를 통한 일부 비판적 의견개진이 있었으나 여론으로 형성되지 못함	자하하디드의 당선안이 그대로 진행됨
역사 (DDP)	문화재청의 발굴작업 결과 치성과 이간수문 등 운동장 하부의 유적들이 온전하게 드러나자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됨 출토된 위치 그대로 복원하고 건물설계를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됨	기존부터 민감하게 다루어져 왔던, 개발에서의 역사보존 문제와 엮이면서 여론을 의식한 작업장 주체들은 자체적으로 설계변경을 결정	건물 부지에서 출토된 유적중 일부는 공무원지로 옮겨고 다른 일부는 레벨을 조정하여 건물과 통합함 전체 건물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역사문화공원으로 분리함. 공원을 먼저 개장 설계변경에 따라 설계비 및 공기 연장.
생존자 계단 (GR)	2WTC예정 부지의 생존자 계단의 잔해를 보존하기로 함.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 됨	희생자를 존중하는 초기의 원칙에 대한 여론을 의식하여 작업장 주체들이 이전 보존하기로 결정	생존자 계단을 이전하기로 한 추모공원과 방문자 센터의 디자인이 변경됨 철거하지 못한 생존자계단은 2WTC의 신축 예정부지에 있었으므로, 작공이 늦어지고 공기가 일부 지연됨
보안과 안전 (GR)	테러 공격으로 인한 보안에 대한 우려 화재 발생과 같은 피난 상황에서 대응	전반적인 토론장의 공감대가 작업장에서의 방향성을 결정하도록 함.	1WTC 건물 하부 강화 및 전체 건물 형태 변경 추모공원 탈출경로에 대한 상세 계획 유도 빌딩 코드 개선 각 건물에서의 보안에 대한 대응 강화 (특히 1WTC의 재설계) 결정 완공 이후 보안에 대한 항만청과 뉴욕시의 통제권 협상
자존감 회복 (GR)	테러로 인해 미국의 민주주의가 공격받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재건사업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자는 의견이 형성됨	설문조사 및 리스닝투더시티, 집중적 워크샵 등에서 대중의 의견이 수렴되고 인론을 통해 알려짐	1WTC의 높이가 1776 ft (541.3m)로 결정됨. 이것은 기존의 417m, 415m 였던 쌍둥이 빌딩보다 높은 높이임

\*. SPL은 시애틀 공공도서관, DDP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GR은 그라운드제로

에도 관련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으나, 비중은 크지 않다. 디자인이 주변과 조화롭지 않다는 논란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2012년 6월 현재 건물은 거의 완공되었다.

DDP 신축을 위해 동대문운동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조선시대의 유구들은 서울시 주도의 전략적 사업이라는 점에서 관련된 과거 행정에 대한 담론과 연결되어

다루어지기도 했다.<sup>472)</sup>

이것은 언론 상에 ‘서울시와 문화재청의 갈등’으로 다루어졌는데, 미디어 상의 보도는 대중 담론으로 확장되어 갔다.<sup>473)</sup> 서울시가 문화재를 대하는 태도도 과거 개발중심시대와는 차이가 있었고, 여론 또한 바탕이 되어 서울시는 적정선에서 절충안을 내놓게 되었다. 건물 내부의 동선이나 실 배치와 관련이 많은 위치에서 출토된 유적은 공원 부지로 이전하였으며, 한 곳은 수직 레벨만 조정하여 흥인문로 방향의 진입 부분에 복원하였다. 또한 과거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라는 이름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역사문화공원’으로 변경하였고 역사문화공원부분을 완공되는대로 먼저 개장하였다.

그라운드제로의 기존 WTC 건물에서 사람들이 탈출하였던 마지막 경로였던 지상층 계단 일부가 붕괴 과정에서 형태를 유지하였고, 그것을 ‘생존자계단(survivors' stairway)’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토론장과 작업장의 주체들은 이 계단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보존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따라서 그 방법이 문제되었다. 결국 추모공원 부지로 이동하여 보존하기로 결정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해당 부분의 공사 일정이 늦추어지기도 했다.

9/11 당시 2,700여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은 두 단계의 사건에 의해서였다. 1차적으로는 비행기 테러 직후 비행기 탑승자와 충돌부분의 건물 입주자가 사망하였으며, 2차적으로는 화재로 인해 건물이 붕괴되면서 미처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망하였다. 따라서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는 담론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즉, 토론장에서 특정한 요구사항이 수렴되었다기보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보안을 강화하고 안전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하였다.

작업장에서는 1차적 공격에 대한 예방으로 WTC 부지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였는데, WTC 부지 주변과의 연계가 잘 되도록 항만청 자체 경찰(PAPD)이 아닌 뉴욕경찰청(NYPD)에서 보안을 담당하도록 결정되었다.<sup>474)</sup> 또한 트럭 폭탄과 같은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청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하였으며, 이것이 받아들여져 대대적인 디자인 변경이 이루어졌다. 또한 화재 시 건물이 붕괴되지 않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1968년 이후 처음으로 빌딩코드를 강화하였다.<sup>475)</sup> 내용은 자동 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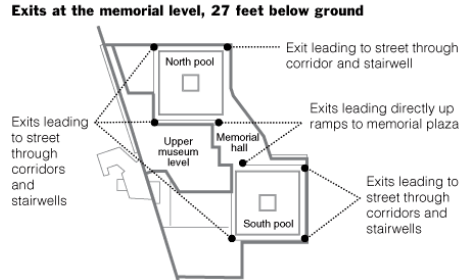
472) 관련 내용은 다음의 연구를 참고

최인기, “동대문 운동장 공원화 사업과 사회적 합의,” 진보평론, 35 (2008) : 158-168

473) 한겨레신문에서는 2008.7.22, 08.27, 09.12, 09.21, 11.27일 등 여러차례에 걸쳐 서울시청과 문화재청의 갈등에 대해서 다루었다.

474) LIZ ROBBINS, "By Sept. 11, Unit At Trade Center Will Be Policing," *New York Times*, 19 Jan. 2011 :18

프링클러, 계단 폭 넓게, 야광비상구 표시등 설치, 주거에서 코어의 벽 두께를 강화하는 것 등이다. 또한 LMDC는 보도자료를 통해 추모공원의 피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개하였고 이는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통해 상세히 설명되었다.<sup>476)</sup>



[그림 3-124] 2006.03.29 일자에 보도된 추모공원 피난 계획 (출처 : 뉴욕타임즈 2006.03.29)

### (3) 요소별 대응 구조의 종합

토론장과 작업장의 영향관계를 종합하여 도식화 하면 [그림 3-125]와 같다.

작업장에서 토론장으로의 정보전달은 앞서 TV 프레젠테이션, 설계개념설명서, 북스파이럴 가설 체험 등의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중매체, 공청회,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토론장에서 작업장으로의 영향을 볼 때, 그림 오른쪽의 토론장에서 디자인 요소와 시설 프로그램을 직접 언급하는 경우는 작업장의 특정 항목이 변화하기를 원하는 것이므로 토론장과 작업장의 요소가 대체적으로 1:1 대응 관계에 있다.

그런데 비용과 추상적 개념에 대한 담론이 형성될 경우에는 디자인 및 일정, 시설 프로그램, 운영제도법규에 관한 사항 등과 다양하게 대응된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항목으로 분산되는 과정은 작업장 자체적으로 요구조건을 해석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전문가 토론장과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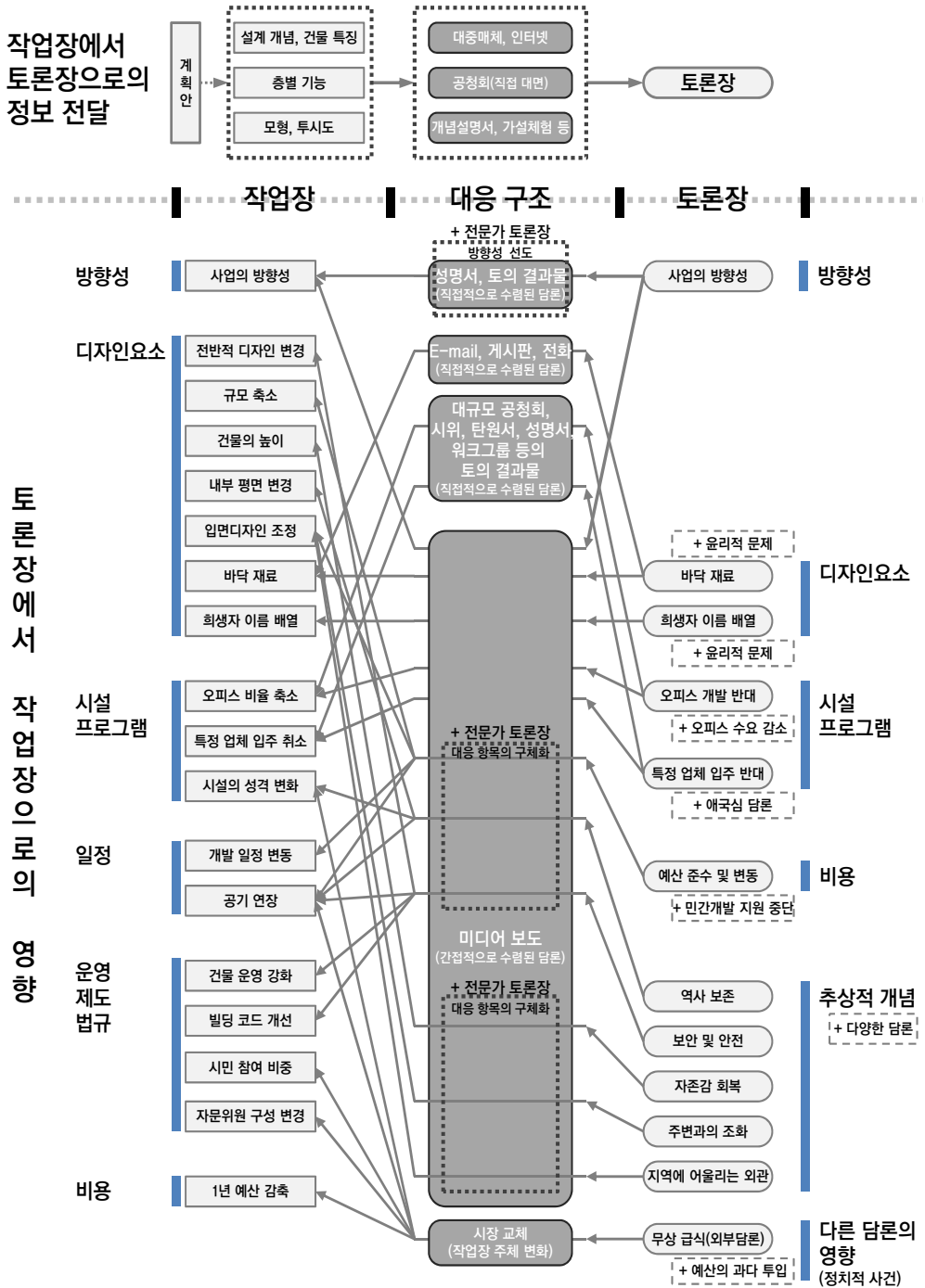
그리고 외부의 정치적 사건이 프로젝트와 연관되어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다. DDP의 경우에는 많은 권한을 지닌 발주처의 장(長), 즉 시장이 교체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림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전문가 토론장은 추상적 요구조건이나 비용과 같은 디자인 외적 담론들을 구체적 작업장과 엮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며, 또한 사업 초기에 대중보다 한 발 앞서 재건 사업의 방향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대중 담론을 유도해 나가기도 한다.

475) DIANE CARDWELL, "Bloomberg Outlines Plan to Rewrite City's Construction Codes," *New York Times*, 4 May 2007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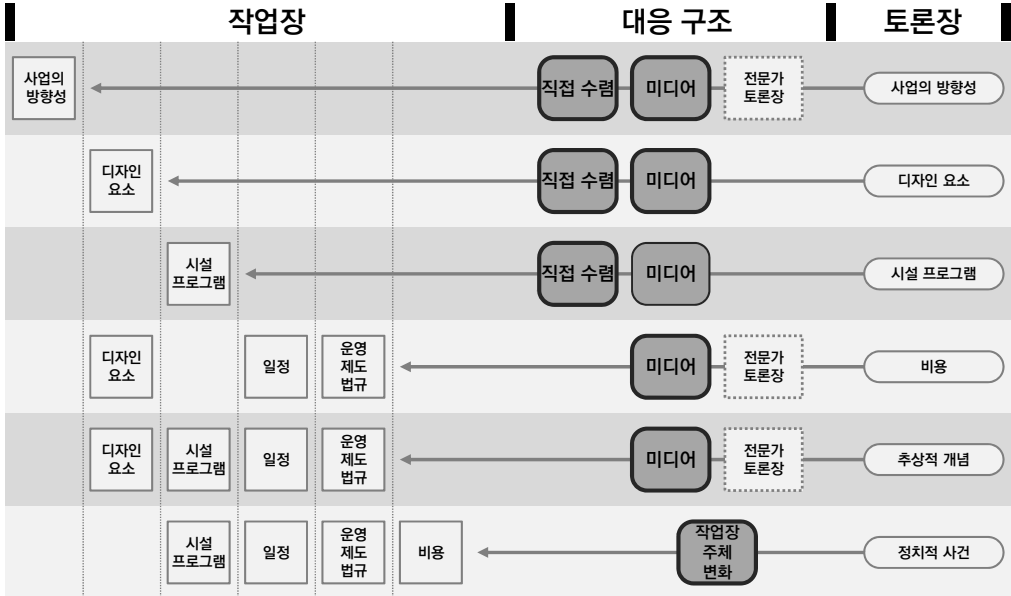
476) DAVID W. DUNLAP, "Critics Raise Concerns Over 9/11 Memorial Exits," *New York Times*, 29 Mar. 2006 :1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그림 3-125] 토론장과 작업장의 요소별 대응 구조

앞의 다이어그램에서 토론장에서 작업장으로의 영향에 대해, 세부 항목들을 포괄하는 항목들로 다음과 같이 단순화하여 표현할 수 있다.



[그림 3-126] 토론장과 작업장의 요소별 대응 구조 - 단순화

구조를 단순화 시키면 전문가 토론장의 역할이 보다 명확해진다. 엄밀히 표현하자면, 비용이나 추상적 개념에 대한 요구사항들은 작업장의 주체들의 해석 과정에서 디자인요소, 시설프로그램, 일정, 운영·제도·법규 등의 요소들로 변환되는 것이다. 전문가토론장은 이러한 변환과정을 대중에게 설명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작업장 주체들의 변환과정이 작업장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반하여, 전문가들은 토론장에서 비 물리적 요소들을 물리적 요소들에 대응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토론장의 담론을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토론장의 담론들은 직·간접적인 수렴 방법에 의해 작업장의 요소들에 영향을 준다. 물론 본 연구에서 거론한 3개의 예를 통해 일반화에 이르는 것은 오류의 소지가 있으며 위에서 표현한 것들이 3개 사례의 모든 대응구조를 담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구조를 기초로 하여 다른 사례들을 누적해간다면, 토론장과 작업장 요소의 관계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구조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 3.4.2. 생산공간의 조건과 생산주체의 결정

앞서 시애틀공공도서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그라운드제로의 사례를 통해, 토론장과 작업장이 어떻게 관계 맺으면서 프로젝트가 특수하게 진행되어나가는지 분석하였다. 세 사례에서 전체적으로 다루어진 내용은 ‘무엇을 만들 것인가’의 문제와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 ‘무엇’은 건물의 시설프로그램의 큰 틀을 정하는 것이다. 도서관을 만들 것인가, 혹은 오피스를 만들 것인가의 문제에 관련된다. ‘어떻게’는 디자인의 표현이나 내부의 시설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관련된다. 물론 무엇을 만들 것인지 결정한 후에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라 할 수 있다.

시애틀공공도서관에서는 ‘무엇을 만들 것인가’의 문제는 처음부터 확실했다. 다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진행했으며 예산을 위한 채권발행이 통과된 이후로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집중할 수 있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역시 ‘무엇을 만들 것인가’는 초기부터 결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주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이었으며 ‘어떻게 만들 것인가’도 작업장 자체적으로 진행하였다. 결국 시장 교체라는 정치적 사건에 의해,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결과가 완성되어가야 하는 시점에서 ‘무엇을 만들 것인가’ 즉 내부의 시설프로그램을 다시 논의하게 되었다.

그라운드제로는 초기의 마스터플랜에 대한 담론 수렴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물론 구체적인 부분까지 논의된 것은 아니었고, 시민의 결정에 따라간 것이 아니라 여론을 참고 하여 작업장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지만, 여론과 전혀 다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대중은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는 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가 생산과정에서의 본격적이고 상세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토론장과 작업장이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집중하여 전개되었던 시애틀공공도서관을 가장 ‘잘 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다. 그러나 이것은 각 프로젝트가 처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결과만을 놓고 서로 다른 프로젝트 간에 비교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는 어떠한 조건에서 비롯되는가?

우선 프로젝트가 전개된 장소의 하부구조와 컨텍스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하부구조란 세계화의 정도, 미디어의 일반적 성향처럼 프로젝트의 성립과 관계없는 평소에 그 생산공간의 저변에 형성되어 있는 조건들을 말한다. 그리고 컨텍스트란 퍼블리시티(publicity) 즉, 프로젝트가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정도, 혹은 주변의 도시적 상황 등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부터 주변과 정치사회적이나 물리적으로 얽여있는 조건을 말한다. 하부구조와 컨텍스트는 관련 주체들의 결정과 상관 없이 시작 당시에 프로젝트에 안겨진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사례를 비교하는 것은 주체들의 특정한 결정들이 개인적 성향에 따른 것이라 전제하는 오류를 내포하게 된다.

그런데 하부구조와 컨텍스트는 토론장과 작업장에 영향을 준다. 작업장의 양상은 생산에 참여한 주체,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 혹은 세계화라는 관점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결정짓는 이동성(mobility), 계약의 조건이나 테리와 같은 특수한 조건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토론장 역시 하부구조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미디어의 차이, 참여의 시스템, 프로그램의 성격, 이슈가 지닌 영향력, 공론장의 성숙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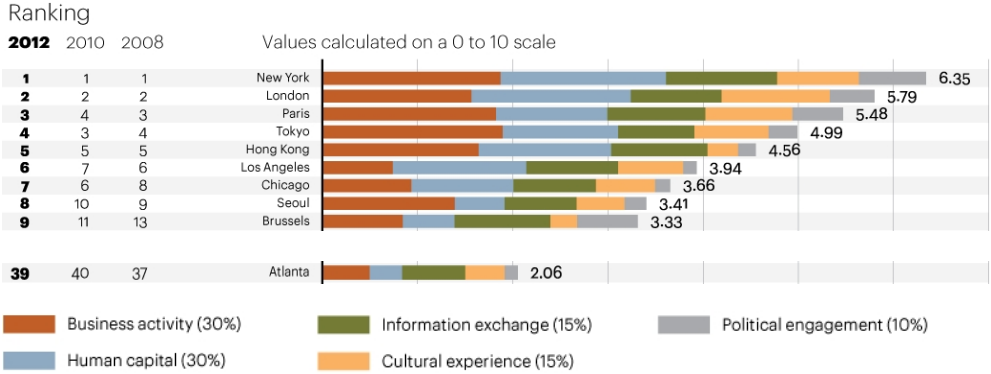
그리고 설령 다른 조건이 모두 같더라도, ‘도서관’은 사용자가 이용 공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실용적인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논의의 소재가 풍부하다. 그래서 그 전개 양상에 대해 다른 프로젝트들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전시’ 공간이고, 그라운드제로의 1WTC는 대중을 위한 건물이 아니며, 추모공원도 도서관에 비해 반복적 이용 빈도가 낮을 것이고 내부의 동선을 긴밀하게 조직해야 할 필요성도 적다.

그렇다고 해서 조건들에 따라 프로젝트의 결과가 필연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주체들의 의도와 의지에 따른 선택이 프로젝트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친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사업의 초기에 주변 이해관계자들과 대중담론을 바탕으로 시설프로그램을 결정했다면, 시장이 바뀌더라도 다시 ‘무엇’의 문제로 돌아가 내부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일은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세 가지 프로젝트를 어떻게 비교하여야 하는가? 우선은 각 프로젝트의 저변에 깔린 하부구조와 컨텍스트를 살펴보아야 한다. 평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프로젝트 각각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각 프로젝트가 처한 조건 하에서 이루어졌던 주체들의 선택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 (1) 생산공간의 조건

### ① 도시의 위상과 ‘도시브랜딩’의 필요성



[그림 3-127] 각 도시의 세계화 지수

(출처 : 2012 Global Cities Index and Emerging Market Outlook study by A.T. Kearney and The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각 프로젝트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의 규모와 세계적 위상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선 ‘세계화 지수’를 볼 때, 뉴욕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세계화가 진행된 나라다.<sup>477)</sup> 서울도 2012년에는 전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세계화 된 도시로 평가받았다. 시애틀은 비교 대상에 오르지 않았지만, 순위에 나타난 미국 도시 중 가장 낮은 지수를 보이는 아틀란타(39위)보다 낫다는 것만을 알 수 있다.<sup>478)</sup> 참고로 시애틀에 취항하는 항공기 노선을 보면, 뉴욕, 샌프란시스코, LA와 비교해 보았을 때, 국내선의 비중이 크다.<sup>479)</sup> 그렇다고 해서 시애틀이 지역경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마존과 스타벅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기업들이 시애틀 및 주변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다.<sup>480)</sup>

따라서 뉴욕의 로어맨하탄 한가운데서 진행된 그라운드제로 프로젝트에서 ‘세계

477) 세계화 지수란 기업 활동(30%), 인적 자본(30%), 정보 교류(15%), 문화 생활(15%), 정치 참여(10%)의 다섯가지 항목으로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을 평가한 것으로 ATKearney에서 2년마다 한번씩 발표하고 있다.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고. 2012.05.15 접속

<http://www.atkearney.com/index.php/Publications/2012-global-cities-index-and-emerging-cities-outlook.html>

478) 포춘지가 선정한 미국의 500대 기업 중 세 곳(아마존, 스타벅스, 노드스트롬)이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시애틀 주변 지역에는 코스트코, 마이크로소프트, 닌텐도 미국이 입지하고 있다. 또한 1998년 당 시애틀에는 보잉사도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었다.

479)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Statistics 항목 참고. 2012.05.15 접속

[http://en.wikipedia.org/wiki/Seattle%E2%80%93Tacoma\\_International\\_Airport](http://en.wikipedia.org/wiki/Seattle%E2%80%93Tacoma_International_Airport)

480) <http://en.wikipedia.org/wiki/Seattle> 참고. 2012.05.15 접속



화’에 관한 것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았다. 뉴욕은 계속해서 명실상부한, 전 세계에서 가장 세계화가 진행된 도시였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그라운드제로 부지는 스스로 임대수익을 발생시켜 자립해 나가야 하는 곳이고 대규모 오피스 면적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므로 임차자를 찾기 위해서 스스로를 홍보해야 했으며 대규모 상업시설도 입지할 예정이었지만 ‘뉴욕이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곳’이라는 홍보를 할 필요가 없었다. 뉴욕은 자연스럽게 전 세계에서 기업인들과 관광객이 유입되는 도시였다. 일정하게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던 상태에서 로어맨하탄의 오피스 공실률이 점점 증가해가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sup>481)</sup> 뉴욕은 도시브랜딩, 즉 ‘빌바오효과’를 노려야 할 이유도 없었으며 이미 수많은 스타건축가가 뉴욕에 사무실을 두고 주요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라운드제로 초기의 현상설계에서도 리베스킨트, 라파엘비놀리, 노만포스터와 같은 건축가들이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들이 ‘스타건축가’라는 점도 사업 과정에서 특별히 부각되거나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서울은 세계화지수가 9위로 나타나지만, 도쿄, 홍콩, 베이징, 상하이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오세훈 시장은 2006년 7월 3일 취임식 연설에서 “서울을 세계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하였는데, 이것은 거대도시들의 몸집불리기를 통한 힘겨루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서울 역시 그 경쟁선상에 위치시킨 것이다.<sup>482)</sup> 이에 따라 전통적인 제조업보다는 문화, 관광, 금융,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의 육성에 집중하는 정책을 세우면서 2007년을 ‘서울을 세계 속에 각인시키는 <서울 브랜드 마케팅의 원년>’으로 선언하기에 이른다.<sup>483)</sup> 그 중 DDP는 ‘도시브랜딩’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었으며, 물론 공정한 현상설계과정을 거쳤지만 세계적 지명도가 높은 자하하디드가 당선된 것은 예견된 수순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동대문 지역은 서울에서도 외국인 관광객과 국내 상인들의 교류가 활발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은 디벨로퍼의 관점에서 보자면 당연한 논리적 귀결일 수도 있다.

481) 임차자를 찾는 문제에서 로어맨하탄과 미드타운의 임대료 차이가 비교되기도 했다.

482) 2006.7.3 SBS 뉴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137870](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137870)

483) “최근 기업과 도시 경영에 있어서…… 전통적인 제조업으로는 ……세계적인 도시들과의 경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래 성장동력인 문화와 관광산업, 금융·비즈니스산업 등 이른바 창조산업의 육성이 시급한 과제이며…… 또한 서울만의 고유한 브랜드 파워를 만들고 서울을 세계 속에 각인시키는 ‘서울 브랜드 마케팅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서울을 세계 10위권의 도시로 만들고 시민 고객들의 행복 총량을 증대해 나갑시다”

서울특별시, 『시정운영 4개년 계획(2006~2010)』, 서울특별시, 2007, 中 발간사에서 발췌.

시애틀은 뉴욕과 서울에 비하면 인구 80만의 소도시다. 주변 지역의 인구를 합쳐도 340만으로 서울과 뉴욕에 비해 3-40% 수준이다. 그리고 프로젝트 자체도 ‘도서관’이었기 때문에 관광객을 많이 끌어 모을 필요가 없었다. 다만, 도서관 건립 사업이 시작되었던 1998년의 시애틀은 건설 붐이 한창이던 시절이었다.

90년대 말의 시애틀에서는 도시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었다. 90년대 초부터 건물 허가는 점차 증가했으며, 1997년에 당선된 시애틀 시장 폴 셸(Paul Schell)이 빈곤층 위주의 공공정책을 중산층 중심으로 바꿈에 따라 건설의 양은 더욱 더 증가했다. 1997년에 10억달러 규모의 건물 허가 수가 사상 최고점에 달했으며 이듬해인 98년에는 20%가량 더 증가했다. 시민회관인 베나로야 홀(Benaroya Hall), 72,000석 규모의 미식축구 경기장, 5억달러 규모의 야구장, 39억달러의 역 주변 재개발 사업, 1억달러의 음악당, NBBJ의 대형 쇼핑몰 등 대규모 사업들이 시 곳곳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시민들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도시의 분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했으며, 기존 공공시설 디자인에 대한 불만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공공시설로서 도서관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대단했다.<sup>484)</sup> 도서관장 제이콥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이 “역동적이고 세계 최고 수준의(world-class)” 도서관을 건설하는데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스타건축가인 램콜하스가 시애틀 출신의 스티븐홀을 제치고 현상설계에 당선된 이유는 ‘시민들과 의사소통을 잘 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 밖에, 대형 글로벌기업이 입지해 있다는 것은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모금을 하기에 유리했다는 장점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빌게이츠는 2천만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 ② 미디어

미디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신문을 중심으로 알아보겠다.

시애틀의 지역신문으로서 당시에는 시애틀타임즈와 Seattle PI 의 두 가지 종합 일간지가 있었다.<sup>485)</sup> 도서관 건립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보도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건축에 대한 비평을 심는 논객들이 있었다. 이들은 도서관 공개

484) Sheri Olson, “As Construction Continues to Boom in Seattle, a Mayor and a Mogul Are Shaping the Future Look of the City,” *Architectural Record*, 187(1) (1999) :37-41

485) 2010년에는 Seattle PI가 인쇄된 신문사업을 그만두고 온라인 매체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지금(2012년)은 The Seattle Times만이 유일한 인쇄물 일간지로 남아 있다.

설명회를 기점으로 디자인을 자세히 다루는 논평을 게재했으며, 일간지의 수가 두 개였던 까닭에 신문을 구독하는 대다수의 시애틀 시민들은 논평을 접할 수 있었다. 찬성과 반대의견으로 나누어졌던 미디어의 보도는 사람들이 도서관을 바라보는 입장에 영향을 미쳤으며, 비판적 보도에 자극받은 사람들은 도서관측에 항의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서울은 지역신문보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와 같은 전국종합 일간지의 구독률이 높다. 그러나 건축물의 디자인에 대한 보도 자체가 적으며,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대해서도 5년 5개월 동안 9개 일간지에서 450건이 다루어졌다. 평균적으로 볼 때 한 개 일간지에서 4개월에 3건 정도 다룬 셈이다. 전체 신문기사에서 DDP가 중심으로 다루어지거나 일부 언급되면서 비평적 어조로 게재된 기사는 아래와 같다.

[표 3-47] DDP에 대해 다룬 비평적 어조의 기사 (2006.10~2012.10)

날 짜	신문	제목
2007.09.07	경향	〈김민수교수의 한국도시디자인탐사〉 (1)연재를 시작하며
2007.11.17	조선	명품 건축물? 알고보니 불만투성이
2008.02.05	조선	[조선데스크] 명품 도시, 짝퉁 도시
2008.08.01	조선	중국에 빠진 건축가 송효상 " 중국의 전통 위에 한국 건축을 심습니다 "
2008.10.10	동아	서울디자인올림픽 개막...디자인 거장 4인에 '디자인 서울' 을 묻다
2008.10.21	조선	[조선데스크] '빌바오 효과'와 도시마케팅
2009.01.16	서울	책/ '한국 도시디자인 탐사' 도시는 지금 성형미인이 되고 있다
2009.06.24	한겨레	[한겨레 프리즘]후쿠오카 돔과 동대문운동장
2010.03.11	경향	8억 들여 '4D 시정 영상관' 서울시 또 과잉 홍보 논란
2010.07.07	동아	[진화하는 한옥의 재발견]〈1〉황두진의 휘닉스프링스 게스트하우스
2010.09.30	한국	[세계의 소프트시티를 가다] (17) 헬싱키 - 100년을 내다보는 공공디자인
2010.10.07	한국	[세계의 소프트시티를 가다] (18) 런던 - 랜드마크,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다
2011.11.16	경향	미 컬럼비아대 미술사학과 교수 존 라이크만 "도시 디자인, 뭘 보존할까가 중요"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DDP를 주제로 삼아 본격적으로 다룬 기사는 없다. 다만, 서울에 대해 언급하면서 DDP를 다룬 기사들이 다수 있을 뿐이다. 그것도, 5년 5개월이라는 시간과 9개 일간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사를 접한 사람의 수는 매우 적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전반적으로 도시와 건축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신문의 칼럼이 적은 것과도 관련이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연재되었던 신문 별 건축·도시 전문 칼럼은 다음과 같다.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표 3-48] 신문 별 건축·도시 전문 칼럼 (DDP 진행 기간 위주로 수집)

신문	칼럼 제목	내용	연재 정보
조선일보	집이 변한다	'건축가'가 설계한 단독주택 위주로 집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	2012.01.13부터 월 2~3회 연재
중앙일보	승효상의 아기택처(我記宅處)	주변 환경과 건축에 누적되어 있는 시간의 이야기를 관조적으로 서술	2011.01.29.부터 월 1회가량 연재
동아일보	함성호의 옛집 읽기	고택과 절터, 누각 등 고건축에 대한 칼럼	2012.02.01.부터 주 5회 1100자 내외 분량
국민일보	매혹의 건축	근정전, 성공회 성당, 이화여대 강당 등 근현대 건축물을 간단히 소개	2012.01.05.부터 주 1회 500자 내외
	공간+너머	테헤란로, 영동시장, 말죽거리 등 도시 공간을 문화지리학의 시선으로 바라봄	2008.11.11~2010.12.03 월 1~4회 연재. 2500자 내외
한국일보	세계의 소프트시티를 가다	마르세유, 교토, 베를린 등 세계 주요 도시의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	2010.5.27~2010.12.30 주 1회 연재. 5000자 내외
경향신문	이일훈의 사물과 사람사이	담장, 골목, 꽃, 방 등 일상의 소재를 건축가의 관점에서 해석	2008.11.14부터 주 1회 500자 내외
	한국도시디자인 탐사	인천, 부산, 대구 등 국내 도시들의 근현대를 도시디자인 관점에서 서술	2007.09.07~2008.2.15 주1회 연재. 4800자 내외
	테오도르 폴 김의 도시·사회·시민 이야기	국내 도시건축관련 정책을 도시사회학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접근	2010.01.03~2010.04.26 주 1회 연재. 2000자 내외
서울신문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재개발로 부활한 드레스덴',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 등 도시와 도시를 부흥시킨 테마를 함께 서술	2010.10.04~2011.01.03 총10회 연재. 4000자 내외

연재되는 칼럼 모두 우리 주변의 물리적인 건조환경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경험을 스스로 해석해낼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도움을 주지만, 그 대상이 과거에 머무르거나 시사성과 관계가 적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경향신문의 '테오도르 폴 김의 도시·사회·시민이야기' 만 유일하게 현 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뉴욕 역시 많은 신문사가 있다. 구독 수로 비교해 보면, 뉴욕타임즈가 1위,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USA today가 1위이며 온라인에서는 전국적으로도 뉴욕타임즈가 1위의 구독 수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뉴욕타임즈는 그라운드 제로 사업과 관련하여 1년 평균 500건 이상의 기사를 보도했으며, 작업장 내부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나, 건축의 세부적인 내용들도 상세하게 다루었다. 시애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디자인이 공개되거나 보안문제 등으로 주요한 디자인이 변경 되었을 때, 혹은 비용문제로 디자인이 재고되고 있을 때, 전문가들의 해설을 통해 대중은 사업의 진행과 구체적인 디자인에 대해 상세히 접할 수 있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에는 허버트 무상(Herbert

Muschamp), 니콜라이 우르소프(Nicolai Ouroussoff) 와 같은 저명한 건축전문비평가들이 지속적으로 건축에 대한 자세한 논평을 신는다.

미디어가 대중의 담론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이러한 미디어의 차이는 프로젝트의 전개에 큰 영향을 준다. 공청회와 같은 이벤트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면, 미디어의 보도는 유일하게 대중이 사업진행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경로다. 그리고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건축 디자인을 바라보는 판단기준은 미디어의 논조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 특히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전문가의 시각은 정보가 적은 사업 초기일수록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디어에 의해 형성되는 담론은 대중으로 하여금 집단 행동을 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대중의 관심은 높는데 참여의 경로가 없다면, 단체행동을 통해 개입의 여지를 만드는 일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DDP 사업에서 이해관계자들을 제외한 일반 대중의 참여가 적었던 원인 중 하나에는, 적극적이지 않은 미디어의 보도라는 점이 있을 것이다.

### ③ 퍼블리시티(publicity)

미디어의 보도는 퍼블리시티, 즉 사건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것은 서로 순환 관계에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만한 사건이 미디어에 보도되고, 미디어에 집중적으로 보도된 내용은 사람들의 관심을 더욱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그라운드제로 사업은 전 세계적인 퍼블리시티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2001년의 쌍둥이빌딩 테러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사건이다. 전 세계에 미치는 정치경제적 파급력 또한 엄청난 것이었다. 이라크 전쟁을 포함한 이후의 주요한 진행도 세계인의 지속적인 주목을 받았다. 뉴욕 한복판에 갑자기 빈 땅으로 드러났던 그라운드제로와 그 재건 사업도 미디어를 통해 알려졌다.

뉴욕이라는 지역적 테두리에서 보아도 우선 2,7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었기 때문에 가족과 지인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다.

###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시애틀공공도서관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그라운드제로처럼 정치적 사건과 연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의 정도를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볼 때, 시애틀공공도서관은 지역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신문기사에도 드러나듯, 많은 시민행사가 도서관의 강당에서 열리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되었다.

그리고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도시에 건설 붐이 한창이었고 공공시설의 디자인에 대해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도서관 신축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매우 높았다. 오픈하우스 때마다 1,000여명 혹은 그 이상이 참석한 사실이 이를 증명해준다.

물론 도서관이 완성된 후에는 다른 지역과 외국에서도 건물을 구경하러 다녀가곤 했지만 그것은 건축적 완성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건립당시의 퍼블리시티와는 다른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세계적으로 볼 때는 관심의 정도를 비교할 수 없다. 자하하디드의 건물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형체가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국내에서는 살펴본 바와 같이 5년 5개월의 기간 동안 크게 세 차례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본격적 사업 이전에 어떠한 시설프로그램을 넣을 것인가를 정하는 과정에서 품물시장 상인들과 주변의 상인들과 스포츠업계 사람들이 이해관계자로서 활동을 했다.<sup>486)</sup> 그러나 미디어에서는 일부만 다루어졌으며 상인들이 지닌 이해관계는 시민들의 입장과는 또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대중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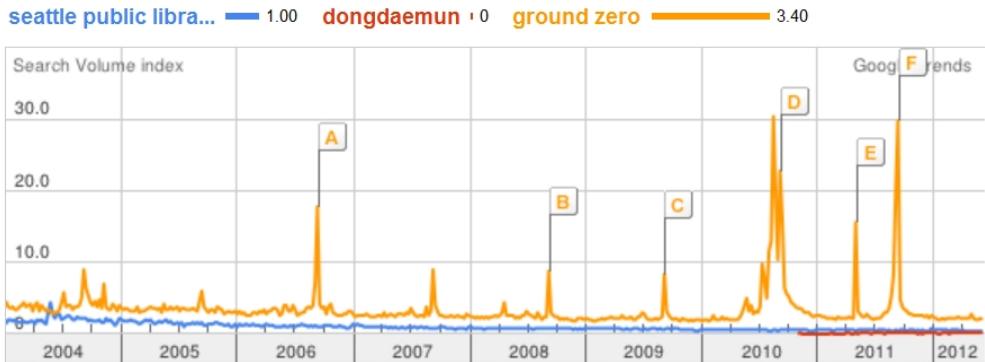
전 세계적으로 주목되는 정도, 즉 퍼블리시티의 관점에서 볼 때도 세 프로젝트에 차이가 크다. 구글 트렌드를 통해 사람들이 구글에서 해당 검색어를 얼마나 입력했는지 비교해 볼 수 있다.<sup>487)</sup> 이것은 퍼블리시티를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sup>488)</sup>

---

486) 황진태, op.cit. 4장 참고

487) [www.google.com/trends](http://www.google.com/trends)에서 검색어를 입력하면 2004년부터 사람들이 그 검색어를 검색한 추이에 대해 결과를 볼 수 있다. 다수의 검색어를 입력할 경우 각각의 추이를 한 그래프에 표현하고 상대적인 지수를 비교하여 보여준다.

488) 단,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영문인 dongdaemun 으로 검색하였다. dongdaemun design plaza 혹은 ddp 로 검색할 경우 결과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림 3-128] google.com 에서의 검색어 추이 및 지수 비교  
(출처 : www.google.com/trends)

동대문디자인플라자보다 넓은 범위의 개념인 ‘dongdaemun’ 조차 시애틀공공도서관과 50배의 검색 지수 차이를 보인다. 그라운드제로는 시애틀공공도서관보다 3.4 배 많이 검색되었다. 시애틀공공도서관의 경우 개관일이었던 2004년 5월 전후로 검색 횟수가 급격히 증가한다. 그라운드제로는 1년에 한번씩 9월에 증가한다. 2010년 9월에 증가한 것은 이슬람센터 건립사건과 연관된 것이며, 2011년 5월의 급격한 증가는 빈라덴 사살사건과 연관된다. 이러한 검색의 추이는 미디어 보도의 정도와도 대략적으로 일치한다.

물론 사업이 지닌 퍼블리시티는 토론장이 활성화되도록 만들면서 작업장과 긴밀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추동력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관련주체들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는 프로젝트 진행을 더디게 만들기도 한다. 퍼블리시티를 생산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야말로 참여 주체들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 ④ 대상부지의 지리적 맥락

대상 부지가 인접부지와 관계되는 지리적 맥락 또한 프로젝트에 큰 영향을 미친다. 주변과 복잡하게 얽혀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진행 자체만을 놓고 볼 때, 이해관계자가 많아지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들로 작용한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들을 풀어가는 것 또한 프로젝트가 완결된 이후에 사람들로부터 평가받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시애틀공공도서관은 시애틀 시내 변화가의 중심에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일반적인 도시계획구역과 마찬가지로 사각형의 개별 필지로 분할되어 있으며, 부지 안에서 건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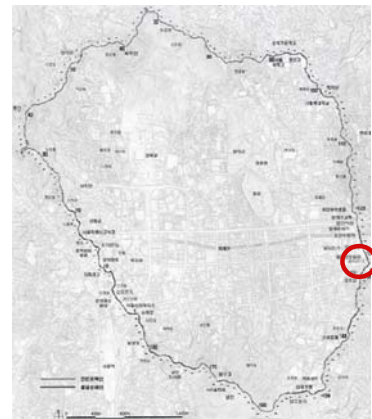


[그림 3-129] 좌 : 시애틀공공도서관 분관의 위치와 중앙도서관의 위치 / 우 : 시내 변화가 중심에 위치한 공공도서관 (출처 : 시애틀 시 재정경제부 및 구글 맵)

축할 경우 별다른 제약조건은 없었다. 오히려 이 도서관은 시애틀 전역에 위치한 26개 분관의 중앙 도서관이라는 맥락에서 읽혀야 한다. 즉, 프로젝트에 영향을 준 조건은 인접 부지한 부지와와의 관계보다는 공공도서관이라는 도시의 문화 인프라의 허브라는 맥락이었다.



[그림 3-130] 동대문 시장 개략 지도 (출처 : 인터넷 이미지 검색)



[그림 3-131] 서울성곽 구간에서 동대문의 위치 (출처 : 서울성곽정비복원공사)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의 중심가인 종로의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의류시장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은 개발 과정에서 시장의 상인들이라는 이해관계자를 만들어냈으며, 이들은 시설프로그램이 동대문시장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디자인 진흥 센터로 정해진 후에도 지속적인 갈등관계를 만들어왔다.



또한 역사적 관점에서는 서울 전체를 두르는 서울성곽의 동쪽 한 부분에 위치한다. 서울성곽 복원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부지를 관통했던 서울성곽과, 이와 관련된 유구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로젝트 진행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다.



[그림 3-132] 로어맨하탄에서 WTC 부지의 위치  
(출처 : bing map)



[그림 3-133] WTC부지와 로어맨하탄 주변의 연결  
(출처 : 구글 맵)

그라운드제로 부지는 로어맨하탄 중에서도 전 세계 금융허브인 월스트리트 한복판에 위치한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뉴저지와 스탠턴 아일랜드 등의 뱃길로 향하는 페리 터미널이 있으며 브룩클린으로 가는 지하철이 부지를 관통하는 등, 뉴저지와 브룩클린을 이어주는 사이 길목에 놓여 있다.

인접부지와와의 관계를 볼 때, 기존 1970년대의 WTC는 주변과의 가로를 단절시키는 메가블럭으로 계획되었다. 재건 사업에서는 이러한 단절상태를 다시 이어주어 지역 전체의 소통을 진작시키도록 방향이 설정되었고, 이는 마스터플랜 작업의 주요한 이슈가 되기도 했다.

## (2) 생산주체의 결정

여기서는 세 프로젝트의 토론장과 작업장으로 이루어지는 생산공간이 하부구조의 영향 속에서 어떠한 차이를 드러내는지를 여러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분석해본다.

건축가가 한 일만을 본다면 세 프로젝트 모두 유사하다. 그들은 초청되어 설계경기

를 가졌고,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는 설계를 했으며, 당선되었다. 그러나 시애틀공공도서관에서 사람들은 낮설은 외관의 디자인에 대해 이해하고 만족했으며, DDP에서는 낮선 디자인이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차이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라운드제로의 1WTC는 초기의 ‘낮선’ 디자인이 폐기되고 평범한 디자인으로 변화되었다. 이것은 스타건축가가 지닌 역량의 차이인가, 아니면 발주처의 운영능력의 차이인가? 혹은 참여 과정에서 대중이 지닌 역량의 문제인가? 어느 하나가 원인이라고 답할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① 시애틀공공도서관

시애틀공공도서관을 설계한 렘콜하스는 대표적인 전위적 성향의 건축가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여러 차례 대중 앞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설계안에 대해 설명하는 사람이기도 했다. 그리고 반대 여론을 포섭해가면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성시켰다. 다른 프로젝트에서 볼 수 없는 이러한 그의 모습을, 과연 무엇이 가능하게 한 것일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발주처가 공개설명회와 같은 기회를 만들어 건축가로 하여금 대중 앞에서 설명하게 하고, 워크그룹 등을 통해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축가에게 전달하는 등, 단순한 사업의 ‘발주’ 역할을 넘어서서 프로세스를 기획하는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이 받쳐주지 않았더라면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90년대 말의 건설 붐 속에서 기존 공공기관에 대한 실망은 대중으로 하여금 새로운 건물을 기대하도록 만들었다.<sup>489)</sup> 콜하스의 설계는 이러한 ‘새로움’에 잘 부응하는 것이었다. 또한 콜하스의 설계에 적대적인 여론이 등장했을 때, 미디어에서 좋은 점들을 부각시키는 담론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콜하스는 설계의 주요한 개념들을 계속 가져갈 수 있었다. 물론 완공된 건물의 경험에서 돌이켜 보았을 때, 그것은 미디어의 포장이 아니라 프로젝트가 실제로 가지고 있었던 장점이었다.

그런데 만약 시애틀의 도서관 부지가 동대문운동장과 같은 복잡한 맥락에 있었다라든가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 추측으로 결과를 재단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당시의 진행보다는 많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다. 공개설명회를 열어 대중에게 디자인을 공개하고 미디어를 통해 담론이 확산되면서 건물은 많은 논란에 휩싸였지만, 그것은 모두 ‘건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슈들이었다. ‘과연 도서

489) O. Casey Corr, "The Hiring Of Rem Koolhaas And The Shock Of The Shoes," op.cit.

관을 지어야 하는가' 와 같은 근본을 흔드는 문제들은 없었다. 이것은 대상 부지가 역사적이거나 지리적인 차원의 컨텍스트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었다. 낯선 모습의 외관에 대한 논란이 되었을 때, '시애틀다움'이라는 장소성의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지만, 서울과 비교하자면 강남과 같이 규격화된 블록으로 구획되어 개발되던 곳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표현의 제약이 덜했다. 즉 대중과 발주처, 그리고 건축가는 '무엇을 만들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도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시켜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하부구조의 조건들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보장해 준 것은 아니다. 참여한 주체들의 노력과 결단에 의해 프로젝트는 앞으로 나아갔다. 여기서, 그 시작점으로서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발주처의 결단이다. 토론장과 작업장을 밀착시키는 참여의 프로세스를 설계 과정에 넣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은 어디까지나 발주처의 몫에 속한다. 또한 시애틀공공도서관은 작업장에서 설계 초기에 3개월간의 스터디를 통해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즉, 진행의 초기에 3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면서 도서관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단단한 기초를 다듬어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역시 전체 사업의 스케줄을 결정하는 발주처의 몫이다.

물론 그 이후의 일도 중요하다. 대중의 의견을 설계안에 포용해 내는 것은 건축가의 역량에 달렸다. 만일 콜하스가 고답적인 자세로 자신의 개념이 가지는 장점만을 강요했다면 반대 여론은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콜하스는 다양한 다이어그램과 이미지 및 컴퓨터그래픽을 곁들여 대중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계안을 설명해냈고, 의구심을 받았던 복스파이럴의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크기의 모형을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직접 걸어보도록 했다. 워크그룹의 요청사항은 물론이고 미디어의 비평에서 다루어졌던 부분도 설계안이 진행되면서 상당부분 반영되었다. 이러한 소통의 노력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신의 의견이 디자인에 반영된 것에서 오는 만족감이 바로, 대중이 콜하스의 디자인을 받아들이려 했던 이유라고 할 수 있다.

## ②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주변과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진행되었다.

서울에서 개발과 역사보존은 끊임없이 충돌해왔다. 서울은 조선의 500년 도읍으로 많은 역사 유적이 남아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일제 강점기부터 많은 부분

###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이 훼손되거나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보존이 소홀히 다루어져왔다. 그러나 21세기에 즈음하여 보존과 복원의 문제들도 개발의 가치와 저울질되기 시작했으며, 관청 주도의 개발이 문화재와 관련될 경우 대중의 집중적 관심을 받곤 했다. 특히 청계천 복원 과정에서 광고와 수표교 등의 복원 문제가 이슈가 된 바 있었고, 서울시청 신청사 건립과정에서의 구 청사에 대한 보존철거문제가 DDP 유적 문제와 비슷한 시기에 다루어졌다.<sup>490)</sup>

이렇게, 개발과정에서의 유적 발굴은 종종 민감한 문제로 다루어졌으며, 서울시는 만족할만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DDP에서도 유적이 발굴된 시기가 건물 설계가 한창 진행되었던 시기였으므로, 그 자리에 유적을 복원하고 건물을 다시 설계한다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지나치게 소모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여론은 적대적이었다. DDP 건물에 불만을 지니고 있던 사람들은 건물 신축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2개소를 이전복원하고, 1개소는 건물 평면을 크게 수정하지 않는 방향에서 수직위치만을 변경하여 복원하였다.

DDP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서울 성곽도 복원하였고, 부지의 절반을 역사문화 공원으로 할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것은 토론장에서 과거 누적되어 왔던 역사에 대한 담론과의 연계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3-134] 서울 성곽 중 이간 수문 복원  
(출처 : 서울성곽정비복원공사)

동대문운동장 철거 역시 많은 반대에 부딪혔다. 서울 시민들의 여가생활과 함께 해 온 장소를 갑자기 없앤다는 결정은 관련 단체와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짓는 건물도 기능적으로 볼 때 운동장과 관계가 적은 것이었다. 반대 여론이 많았지만 서울시는 대체구장을 건설하는 것을 타협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운동장을 점유하고 있던 풍물시장을 강제 이주 시켰는데, 그들은 서울시의 또 다른 사업이었던 청계천개발 당시 그 곳으로 이주된 사람들이었다. 이런 상황들이 맞물려가면서 운동장 전면 철거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자리매김 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지리적 맥락의 하부구조가 프로젝트의 진행에서 절대적인

490) 수표교는 1959년 청계천 복개공사 때 장충단 공원으로 이전하였으며, 2000대의 청계천 복원 시 다시 옮겨오지 않았다. 2012년 2월말에 다시 옮겨오기로 결정 후 추진중이다.

것은 아니다. 이러한 컨텍스트에 대해서는 이미 상세하게 조사되어 있었기 때문에 운영 방침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디자인과정에서 포괄해 낼 수 있는 문제였다.<sup>491)</sup> 그런데 ‘경쟁력 있는 서울’ 을 만들기 위해 오세훈 시장이 택한 도시브랜딩의 전략은 동대문을 디자인메카로 만드는 것이었다. 물론 이것은 시장의 독단적인 결단이라기보다,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전 세계의 메가시티(Mega-city)들이 경쟁하는 가운데 아시아의 주변 도시들에 대한 비교우위를 점하려는 맥락에서 결정된 일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현상설계에서 운동장을 일부 보존하면서 부지의 맥락을 존중한 응모작이 아니라, 과감하게 전위적 형태를 드러내는 자하하디드의 안을 선택했다는 것이 이후의 진행을 ‘어렵게’ 만든 결정의 시작이었다.

스타건축가로서 자하하디드는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현상설계에 당선되었지만 설계과정에도 그리고 당선 이후에도 대상부지에 오지 않았다. 그가 처음으로 동대문에 온 것은 착공식 때였다. 또한 하디드는 미디어에서 ‘여성건축가, 가구디자이너, 스타건축가, 프리츠커 상 수상자’ 등으로 다루어졌다. 그리고 ‘디자인서울’ 사업과 연계되어 ‘건축가’ 가 아닌 ‘건축디자이너’ 로서 미디어에 오르내렸다. ‘예술’ 에만 치중된 보도와 담론은 낯설은 디자인과의 거리를 좁히기 힘들게 만들었다. 주변과 조화를 이룬다는 그의 언급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은 쉽게 납득할 만한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건축가의 성향이 이후의 모든 경과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 임기 내에 사업을 완성시켜 치적으로 삼겠다는 생각을 한 오세훈 시장은, 우선 서둘러 사업을 진행시켰으며 여론의 수렴을 통해 디자인을 재고하기보다 하루빨리 완성시켜 결과물로 평가받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미디어도 DDP 사업의 부족한 점을 조명하기보다는 홍보성 보도자료 위주로 보도를 했다. 초기에는 작업장에서 ‘유선형 형태의 지형적 어울림’ 으로 보도의 초점을 맞추었고, 후기에는 ‘메가트러스와 비정형 패널’ 이라는 기술적 측면을 강조하는 등 외부에서의 경험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에 따라 대중도 디자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결정적인 문제를 발생시킨 것은 사업비였다. 오세훈 시장은 DDP와 같은 토건 사업에 많은 예산을 지출했고, 이것은 다른 정치적인 이슈(무상급식)가 문제되었을 때,

491) 상세한 조사는 다음의 문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2007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그리고 토건 사업의 대표적 예로서 DDP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예산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예산이었다. DDP 하나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은 아니었지만, 문제는 시 자체적으로 결정내리는 토건사업 예산이 과도하다는 것이었다. 시민들은 세금으로 이루어진 DDP 사업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더 이상의 토건사업 지출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다.

교체된 시장은 DDP 사업의 1년 예산을 감축시키고 사업의 완결시기를 1년가량 연기하였다. 그리고 참여가 없었다는 그 간의 지적을 받아들여 몇 번의 시민 이벤트를 거쳐 콘텐츠를 시민중심으로 새롭게 변경하기로 결정을 내렸다.<sup>492)</sup>

DDP는 2012년 7월 현재 아직 공사가 진행중이며 내부 시설프로그램 또한 2012년 말에 새롭게 결정이 된다. 비록 그간 지적되었던 부족한 점들이 다소 반영되고 토론장에서의 논의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지만, ‘디자인메카’로 계획된 하드웨어와 새롭게 변경되는 소프트웨어가 잘 어울릴 것인가의 문제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 ③ 그라운드제로

그라운드제로 사업은 9/11 사건이 만들어낸 특수한 조건 - 추모의 장소와 보안 문제 - 과 부지에 대한 복잡한 권리관계라는 복합적 조건 하에 놓여 있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같이 도시브랜딩을 통해 장소의 위상을 높여야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테러로 인한 아픔을 딛고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시민들의 열망이 있었다. 그런데 부지의 소유주는 항만청이었고, 주요 개발 권리는 민간 개발업자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공적 프로세스를 거쳐야 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부지가 지니고 있는 퍼블리시티, 즉 부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대단한 것이었다. 작업장의 주체들은 해당 부지의 공적 성격과 주변 도시조직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받아들여 LMDC를 설립하였다.

LMDC가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마스터플랜을 통해 건물의 배치와 가로에 대한 계획을 주도할 수 있었고, 추모공원과 공연장 등 부지 내의 시민 공공시설에 대한 권한을 지니게 되었다.

492)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시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바뀐다.” 한국경제, 2012.06.27, 28면

사업의 주요한 결정은 작업장 주체 간에 이루어졌으나 LMDC를 통해 많은 담론 이벤트들이 조직되기도 했다. 사람들은 담론 이벤트에서 수렴된 결과와 작업장 주체의 결정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확인하면서, 자신들의 의사가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물론 담론 이벤트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것은 ‘21세기 마을회의’와 같은 기술적인 성숙이 바탕이 되기도 했으며, ‘뉴욕시예술협회(Municipal Art Society)’와 같이 경험이 풍부한 주도적 단체가 지원했다는 이유도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행사를 공적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인정한 발주처의 결정과 참여에 대한 시민들의 의지가 없었다면 이루어지기 힘든 일이었다.

그 결과, 그라운드제로의 디자인은 시민들의 여론에 의해 한차례 크게 변화했다. 리스닝투더시티는 발주처 중심의 진행에 경종을 울리고, 스타건축가들을 초청하여 다시 설계를 진행하도록 했다. 그리고 6개월 뒤, 스타건축가들은 TV에서 ‘건축에 대해 설명하는 사람’이었다. 비록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평가받았다는 비판도 있지만, 그들은 건축에 대한 평가를 공공담론 위에 올려놓은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고, 작업장의 주체들은 그 의견을 참고하여 리베스킨트의 안을 선정했다.

그러나 계약관계로 인하여 1WTC의 설계는 SOM의 데이비드 차일즈가 맡게 되었다. 물론 디자인은 리베스킨트의 마스터플랜을 참고하여 진행되었다. 그런데 중간에 디자인이 크게 변경되었다. 대중의 합의를 바탕으로 했던 안은 모두 사라지고 전혀 다른 건물이 남았다. 유지된 것은 1776피트라는 미국독립기념일을 상징하는 높이 뿐이었다. 주된 이유는 ‘보안’이었는데, 대중은 그것을 수용했다. 보안과 안전에 대한 담론 또한 9/11 이후에 크게 공감을 얻던 것이었고, 그것은 뉴욕 시민에게 있어서 건물의 예술성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다.

한편 그라운드제로는 문화재로 등록된 생존자 계단에 대해서 이전 보존을 결정하였다.<sup>493)</sup> 물론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는지 생각해 볼 때, DDP와 그라운드제로는 보존(혹은 복원)의 진정성 문제에서 비교하기 힘들다. 다만 무엇인가를 남기고자 할 때 자리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생존자계단의 경우는 자리 그대로 존치하였

493) 2004년 2월, 그라운드제로 부지에서 기둥, 생존자계단, 기차 레일, 6층 지하주차장, 2쌍의 파이프 등이 National Register of Historical Places에 등록되었다. 통상적으로 50년 이상이 된 것들만 등록이 가능하지만 그라운드제로는 예외조항에 적용되었다.

DAVID DUNLAP, "In Depths of Ground Zero, Historic Notice Can't Wait," op.cit.

을 경우와 옮겼을 경우에 대한 내용을 미디어에서 상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대중을 납득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사업을 전체적으로 돌아볼 때, 그라운드제로에서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다. 담론은 활성화 되었지만, 정작 작업장의 주체들은 이러한 담론을 ‘참고’ 하는데 그쳤던 것이다. 그리고 참여하는 건축가들로 하여금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밀 협정도 맺었다. 대중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따금씩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경우처럼 누적된 불만을 정치적 행동을 옮기는 일은 없었다. 10년간 있었던 몇 번의 선거에서 그라운드제로를 이끄는 발주처 주체들이 그 사업으로 인하여 공격받는 일은 없었던 것이다.

여기에 대한 원인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정황을 토대로 유추해볼 수는 있다. 사업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그리고 사업의 초기에 발주처 주체에 의해 조직되었던 담론 수렴 이벤트들은 대중으로 하여금, 전체 사업의 흐름이 대중의 의견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만족감을 주었을 것이다. 최종적인 결정을 대중이 했던 것은 아니지만, 리베스킨트의 안은 시민들이 선택한 3개 계획안 중의 하나였으며, 마이클 아라드의 추모공원 역시 시민들이 가장 원하던 계획안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적절한 시기에 대중을 끌어들이는 발주처의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시애틀공공도서관과 그라운드제로 모두 비판적 관점에서 ‘참여가 아니다’라고 말하더라도, 상당수의 대중이 사업의 경과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은, 작업장의 ‘모든’ 프로세스에 토론장을 공식적으로 개입시키는 시간과 비용의 투입 없이도 전문가와 대중 모두에게 프로젝트에 대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 3.5. 소결

1장과 2장을 통해, 오늘날의 복잡한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건물생산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하나의 틀로써 토론장과 작업장을 상정하였다. 그리고 이번 장에서 세 가지 공공건축물 생산과정을 따라가면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가 어떻게 드러났는지 분석하는 동시에, 두 개의 영역으로 생산과정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한 시사점들을 던져주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3.4장에서는 각각 다르게 전개되었던 세 프로젝트들의 하부구조와 컨텍스트의 차이를 알아보고, 생산과정의 전체 흐름을 결정하는 데에는 이 조건들과 맞물린 생산주체들의 결정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각각의 생산과정에서 드러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시애틀공공도서관의 토론장에서는 어떠한 모습의 도서관을 만들 것인가가 주요한 논의의 주제였다. 예산에 대한 문제도 잠시 부각되기는 했지만, 외관의 모습이나 내부 시설의 배치와 같은 건물 자체에 대한 담론들이 주로 오고갔다.<sup>494)</sup>

사업은 토론장에서 합의된 약 2억달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행되었다. 공개설명회라는 형식을 통해 작업장의 상황이 건축가의 해설을 통해 여러 차례 토론장에 공개되었다. 일부 시민들은 워크그룹에 참여함으로써 작업장의 일부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알려진 정보들을 바탕으로, 초기 단계에 건물의 구체적인 디자인은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분석되거나 비판을 받았다. 미디어를 통해 전달된 비판적 시각에 자극받은 시민들은 항의 서한이나 전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장에 개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처럼 토론장은 설계의 초기에 활성화 되었으며, 비록 건물의 주요한 개념과 틀은 변하지 않았지만 워크그룹과 미디어에서 지적된 많은 내용들이 설계가 진행되면서 차차 건물에 반영되어갔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의 토론장에서는 어떠한 모습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보다 사업의 성사에서부터 사업 전체와 관련된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었고 그러한 내용이 토론장에서 주로 논의되었다.

사업의 예비단계로서 시민아이디어공모전이 있었으며, 국제지명초청설계경기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었다. 서로 다른 응모작들은 운동장과 서울성곽이라는 부지가 처한 역사적인 맥락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토론장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역사에 대한 해석이 가장 적게 드러났던

494) 여기서 예산의 문제란, 빌게이츠의 기부금에 대한 예산 전용을 말한다. 3.1.1.장의 4번 각주 참고

###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자하하디드의 안이 당선되었다. 토론장에서 동대문운동장과 발굴된 유구, 그리고 공사비의 문제가 논의되는 동안 건물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해부의 대상으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결국 시민들의 누적된 불만은 정치적 사건과 얽혀 들면서 발주처 주체인 시장(市長)이 교체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교체된 시장은 토론장의 주체들을 포용하려고 하였으며, 건물이 완성되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부의 시설프로그램을 변경하겠다는 결정을 하기에 이른다.

그라운드제로의 토론장은 무엇을 만들 것인가의 논의에서부터 출발하였다. 미디어를 통해 상세한 작업장의 진행상황이 드러나는 한편, 일부 시설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갔으며,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위와 같은 단체 행동으로 작업장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사업은 테러로 인한 2,700여명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동시에 아픔을 딛고 자존심을 일으켜 세우려는 합의에서 시작되었다. 사업의 초기에 마스터플랜과 추모공원이 현상설계를 통해 진행되는 한편 대규모 공청회와 워크숍을 통해 토론장의 의견이 수렴되었다. 비록 직접적인 결정은 작업장 내에서 이루어졌으나, 지속적으로 토론장을 포용해내면서 대중의 합의를 바탕으로 주요한 결정들을 내리거나 프로젝트의 방향을 선회시키기도 했으며, 관료들은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에서 대중의 여론을 이용하기도 했다. 대중은 미디어에서 공개된 작업장의 정보를 바탕으로 토론장에서 끊임없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문화센터 입주와 이슬람센터 건립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작업장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이렇게 토론장에서의 의견들은 전체 부지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전체 배치, 건물의 규모, 비용결정에 따른 세부적 디자인, 나아가서는 부지 주변의 건물 입지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제작과정에서 오고가는 대중의 말과 행위는 발주처 및 건축가와 같은 생산주체들의 영역과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말할 수 있다. 즉, 공공건축물의 생산과정은 작업장과, 작업장에 대한 상대적 영역으로서 ‘토론장’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작업장은 느슨하거나 긴밀하거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사회 안에서의 체계와 조건들을 반영하면서 토론장으로부터 영향을 주고받는다.

토론장과 작업장이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방식은 여러 가지로 드러났다.

첫째, 토론장의 주체들이 일정기간동안 작업장에 참여하여 긴밀하게 의견을 주고

받는 경우다. 시애틀공공도서관의 경우 시민들이 참여한 워크그룹이 결성되어 발주처 및 건축가와 협의를 진행하였다.

둘째, 공청회나 워크샵처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담론을 수렴하는 경우다. 마스터플랜을 다룬 리스닝투더시티와 이매진뉴욕에서 진행한 추모공원 관련 워크샵들은 짧은 기간 안에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는 역할을 했다. 이 경우에는 의견이 그대로 반영된다는 보장은 없다. 다만 살펴본 예를 통해 볼 때, 공개적이며 공식적인 이벤트라는 점에서 작업장 주체들의 결정은 수렴된 여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셋째, 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경우다. 기본적으로 미디어는 작업장의 정보를 토론장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시애틀공공도서관의 경우 비판적인 신문의 기사는 대중으로 하여금 작업장의 주체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또한 그라운드제로의 경우에는 작업장 주체들의 협의 과정이 신문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됨으로써, 대중은 관찰자와 감시자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사례분석을 통해 대규모의 공공건축물일수록 미디어를 통해 작업장과 토론장이 영향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넷째, 시위 및 단체행동을 통하여 작업장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다. 그라운드제로에서 시민들은 시위를 통해 국제자유센터와 드로잉센터가 뮤지엄에 입주하는 것을 저지했으며, 부지 주변의 이슬람센터의 입지를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또한 시민단체가 항만청에게 공적자금의 민간 투입에 대한 항의 표시를 함으로써 작업장 주체들의 협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작용을 통해 작업장의 정보가 토론장에 공개되었으며 토론장의 요구사항은 작업장에 전달되었다. 토론장의 요구사항이란 평면의 요소, 재료, 시설프로그램과 같이 건축물의 물리적 요소를 지시적으로 언급하는 것들도 있었다. 그리고 보존, 보안, 자존감, 주변과의 조화처럼 추상적 가치에 대한 것들도 있었다. 이러한 물리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들이 오고가는 건물의 생산과정에서 작업장과 토론장은 사회적 기능을 해낼 수 있었다. 사회적 기능이란 두 가지 방향성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작업장이 토론장에 하는 역할이다. 즉, 작업장의 디자인은 토론장의 사회적 문제들을 수렴하면서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시애틀공공도서관의 경우 지역성의 문제가 건물을 통해 논의될 수 있었다. ‘시애틀답다는 것은 무엇인가’의 문제는 추상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었던 것이 아니다. 시민들은 그 문제를 놓고, 외관의 모습을 기존의 건물들과 비슷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외관이 다소 낮설게 보이더라도 그 안

###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에서 주변 경관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동시에 맑은 날이 적은 시애틀의 기후에서 자연광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고민할 수 있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경우도 개발과 보존의 문제, 혹은 역사적 유적의 복원 문제, 그리고 공사비의 문제는 모두 디자인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였다. 특히 동대문운동장의 보존 문제는 설계경기의 다른 안들을 통해 충분히 다양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었음을 살펴본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사업의 진행과정에서는 관련된 사회적 문제들이 작업장에서 다루어지지 못했다. 그라운드제로에서도 시민들은 죽은 이를 예우하면서 추모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디자인으로 어떻게 다양하게 드러낼 수 있는지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나 비용이라는 문제가 디자인으로 어느 정도까지 해결 가능한지도 알 수 있었다.

둘째 토론장이 작업장에 하는 역할이다. 즉, 토론장에서 다루어지는 작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담론들은 작업장의 물리적 생산행위가 지닌 의미와 영향력을 보다 넓게 확장시킨다. 이것은 바로 위에서 다른 작용관계와 기본적으로는 같은 내용에 대한 것이다. 즉 지역성에 대한 토론장의 담론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건물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물리적 실체일 뿐 아니라 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구현된 사회적 담론의 응집체가 된다는 것이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경우는 디자인에 대한 충분한 담론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적인 것에 반대되는 건물’, 혹은 ‘과도한 시 예산이 투입된 건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그라운드제로에서 500m가 넘는 1WTC의 높이는 테러행위에 대해 미국인의 꺾이지 않는 자존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추모공원의 존재는 그 장소를 ‘성역(sacred grounds)’으로 만들면서 영향력을 부지 주변까지도 확장시켰다. 그 장소의 영향력이란, 본래부터 땅이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사건 이후로 끊임없이 토론장에서 논의되어 온 담론들 그리고 그 담론들이 관계한 건물들 전체가 만들어 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경우에는 역사 및 보존과 같은 문제와 관련된 건물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주의 깊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우연한 기회에 다른 정치적 담론과 결합되면서 생산주체의 존립에 관계된 문제로 옮겨가기도 했던 것이다.

이제까지 세 가지의 사례에서 드러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이제 여기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더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합의’에 대한 문제다. 본 연구에서 ‘합의’는 문맥에 따라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

첫째는 결과로서의 합의다. 즉, 사람들의 의견이 하나로 수렴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일이다. 시애틀공공도서관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외관에 대한 의견은 입장에 따라 달랐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도 역사에 대한 해석은 설계경기에 참여한 건축가마다 달랐다. 그라운드제로에서도 마스터플랜의 제안 역시 건축가들마다 달랐으며, 사람들의 선호도도 여러 가지로 나누어졌다. 추모공원을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했을 때도, 마이클 아라드의 안에 대해 모두가 찬성을 한 것은 아니었다.

둘째는 과정으로서의 합의다. 이것은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합의’는 바로 과정으로서의 합의에 해당한다. 시애틀공공도서관의 사례에서 결과적으로 외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합의과정을 통해 서로의 다른 의견을 확인하고 관점의 차이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비록 그 결과로서 의견이 완전히 일치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과정의 유무는 사람들의 인식에, 그리고 프로젝트의 안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경우 의견들이 서로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들이 논의되고 조율될 수 있는 합의의 과정이 마련되지 않았다. 사업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시민들은 토건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과다지출과 DDP 사업비의 점진적인 증가에 대한 불만이 있었지만 이 문제는 토론장에서 공개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무상급식여부가 논란이 되었을 때 서울시의 토건사업이 복지 예산의 대척점이 되어 도마 위에 올랐던 것은 합의과정이 없었던 사실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토론장과 작업장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도 합의과정을 어느 정도 대신할 수 있다. 그라운드제로에서 보안문제와 공사비가 문제되었을 때 신문기사에 보도된 문제해결방안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워크숍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합의의 과정을 거친 것은 아니었지만 실제 설계변경안이 발표된 후에도 별다른 반대 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합의의 과정이 없을 경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칼라트라바의 교통환승센터는 추모공원이나 마스터플랜처럼 토론장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공사비가 문제되었을 때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미디어에서 상세한 보도가 이루어졌지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 제 3 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건축가 선정이나 디자인의 대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 건물은 특이한 외형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와 시민들로부터 모두 만족을 얻어냈다.<sup>495)</sup> 또한, 합의에 의해 디자인되지 않았더라도 빌바오의 구겐하임미술관은 말 그대로 ‘빌바오 효과’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DDP도 그 생산과정에서 토론장의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과 관계없이 준공 이후 세계적인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존의 지역생산자 및 일반 시민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공된 디자인과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면,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이 지역에 근거한 문화생산자들의 자원을 흡수해버렸다는 지적처럼, 모두를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배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sup>496)</sup>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비록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시장이 DDP의 시설프로그램을 공론화 시켰던 것은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합의의 과정에서 도출된 토론장의 요구사항이 작업장에 반영되어 진행을 변화시켜야만 하는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매턴(Shannon Mattern)은 “콜하스의 설계설명회는 대중과 소통한 이벤트가 아니라 대중 앞에서 자신의 디자인을 관철시키는 방법이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시애틀공공도서관에서 이루어진 의사소통의 공공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sup>497)</sup> 셀리그먼(Ari D. Seligmann)역시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여 시애틀공공도서관은 ‘참여(participation)’가 아니라 ‘관여(engagement)’였다고 평가한다.<sup>498)</sup> 참여인가, 혹은 단지 관여한 것인가를 가르는 문제는 쉽지 않다. 이것은 건물의 생산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대중의 의견을 반영할 것인가라는 복잡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은 ‘반영의 정도’ 혹은 ‘참여인가 아닌가’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프로젝트의 성격과 개별적으로 주어진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다. 그 보다는, 갈등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직접적·간접적 토론장이 형성되는가의 문제에 중점을 두어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의 결과로 발견했던 점은 특정 주제에 대해 형성되었던 토론장이 갈등을

495) Babara Faga, op.cit., pp.36-37

496) Donald McNeill, *The Global Architect : Firms, fame and urban form*, New York & London : Routledge, 2009, p.96

497) Shannon Mattern, "Just How Public Is the Seattle Public Library? : Publicity, Posturing, and Politics in Public Design," op.cit., p.17

498) Seligmann, Ari D., op. cit., pp. 237-240

어느 정도 해소해 주었다는 것과, 작업장과 토론장의 관계를 통해 건물은 물리적·사회적 문제를 풀어가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동시에 만든다는 것의 의미가 물리적인 차원 이상으로 확대되어 사회적 의미를 담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토론장이 풍성하게 만들어지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선 공론화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 작업장과 연결되어야 한다. 세 사람 정도가 자발적으로 모인 자리에서 건물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헤어지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리고 아무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모른다면, 그것은 ‘사회적 기능’을 지니지 않은 개인적 대화일 뿐이다.

우선은 공론화 되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단위에서 이루어진 대화들이 느슨한 연결을 통해 전체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혹은 여론이 형성되어갈 즈음에 누군가 주도하여 담론을 집중적으로 수렴하는 이벤트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토론장이 보다 힘을 지니려면 작업장과 연결되어야 한다. 작업장과의 연결이 전제 되었을 때, 즉, 토론의 과정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이 실제 작업을 바꿀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으면 토론장이 지닌 잠재력은 현실화되며 증폭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토론장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증가할 수 있다. 항만청과 LMDC가 공식적으로 후원한 리스닝투더시티 행사에 5,000여명의 시민들이 모였던 사실은 ‘작업장과 연결된 토론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물론 ‘연결’ 과, 바로 앞에서 말했던 ‘반영’은 다른 문제다. 연결 가능성을 보장할 수는 있지만, 반영을 보장할 수는 없다. 반영이 보장된다면, 반영 과정에서의 어떠한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원칙은 일반적으로 정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때, 다수가 원하는 것이라고 해서 소수가 원하는 것보다 옳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반영에 대한 문제는 어디까지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

그렇다면, 주체의 결정은 매우 중요해진다. 특히 생산과정에 대한 공식적인 권한을 지니고 있는 작업장의 주체, 특히 그중에서도 발주처 주체의 결정은 전체 생산과정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지닌다. 계약관계상 작업장과 토론장을 특정한 시점에 연결시키는 것은 발주처 주체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토론장의 요구조건

에 대한 반영여부도 일반적으로 발주처 주체의 결정에 따른다.

예를 들면, 시애틀공공도서관에서 도서관장인 데보라 제이콥스,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과 박원순, 그라운드제로에서 뉴욕주지사인 조지 파타키가 그와 같은 위치에 있었다. 시애틀공공도서관에서 설계설명회를 통해 건물을 대중 앞에서 설명했던 것은 램콜하스였지만, 그러한 이벤트는 계약관계상 건축가의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이콥스의 리더십이 없었다면 설계설명회나 워크그룹 모두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sup>499)</sup>

그라운드제로를 생각해 보더라도, 초기에 대규모 공청회나 워크샵과 같은 토론장의 이벤트를 작업장과 연결시킨 것은 사업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다. 사업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개발의 규모가 상당했다는 것을 볼 때, 실질적으로 디자인 과정에서 참여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초기의 이벤트마저 없었더라면, 대중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업이 진행되어가는 양상을 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켜보는 일에 그쳤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연결에서의 ‘시점’의 문제도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

사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중요한 것은, 진행에서의 ‘어느 시점’에 ‘어떠한 만큼을 어떻게’ 대중의 담론을 작업과 연결시킬지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 연결의 시점이 사업의 초기일수록 효과를 발휘한다. 시애틀공공도서관과 그라운드제로는 모두 사업의 초기에 토론장과 작업장이 집중적으로 연결되었다. 건립예산에 대해 주민투표를 진행한 점, 계획설계(Schematic Design)단계에 미디어의 비판과 시민의 항의를 포용하여 디자인에 반영한 점 모두 시애틀공공도서관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게 만들어 주었던 중요한 결정이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건물이 완공되기까지 토론장과 작업장은 거의 연결되지 못했다. 그러나 초기의 연결이 없었더라도 ‘최선의 시점’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존재할 수도 있다. 시민의 투표에 따라 발주처의 주체가 박원순 시장으로 변경되었고, 그는 DDP의 시설프로그램을 새롭게 바꾸는 과정에서 시민 참여의 과정을 일부 포함시키면서 공론화의 노력을 했다. 전체 사업과정을 볼 때, 시기가 이른 것은

---

499) 물론, 한 인물이 프로젝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발주처 구성원 중 누구라도, 혹은 작업장의 주체들 중 누구라도 같은 제안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부여된 권한 안에서 프로젝트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발주처 장(長)의 결정으로 작업장과 토론장의 성공적 관계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발주처 장이 프로젝트 전체의 진행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 중 하나라는 것은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지적받아온 ‘컨텐츠의 모호함’에 대해 공론화 시키고 토론장을 만들어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했던 것은, 완성까지 남겨진 부분 중에서 최선의 선택 지점이었을 것이다.

토론장과 작업장의 연결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전문가’ 들이다. 전문가들이 만들어내는 토론장은 두 영역의 연결을 매끄럽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시애틀공공도서관에서도 전문가이자 건축가로서 렘콜하스는 디자인을 대중 앞에서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역할을 했으며, 다른 전문가들은 미디어를 통해 디자인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했다. 그라운드제로에서도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해설을 통해 추상적인 주제들을 구체적인 건물의 요소들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경우 토론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한 가지 원인은 전문가 토론장의 형성이 미미했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건축가였던 자하하디드도 자신의 건물과 개념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지 않았으며, 신문에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건물을 다루는 일도 적었다. 실제 생산과정에서도 전문가들은 보존과 역사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를 통해서든 자체적인 전문가들의 담론영역에 있어서든 그 문제는 공론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간과해서 안 될 것은 대중의 역할이다. 토론장의 주체로서, 공공건축물의 작업장에 대한 관찰자로서, 그리고 건물에 대한 사용자로서 의식과 행동이 성숙해진다면 발주처 주체의 결정이나 전문가들의 역할을 얼마든지 유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세 가지의 사례에서 도출해 낸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서 드러나는 시사점들에 대해 논하였다. 현상을 해석하는 것이 3장의 목표였다면 다음 장에서는 어떠한 행동을 유도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룬다. 이것은 직전에 논의 하였던 주체들, 즉 발주처, 건축가, 전문가, 그리고 대중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 제 4 장 토론장과 작업장의 역할

이번 장에서는 3장에서 분석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를 바탕으로 토론장과 작업장의 역할에 대해서 논할 것이다. 토론장과 작업장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한다.

첫 번째는 하나의 건물을 생산하는 작업장에서 부분적으로 만들어지는 개별 토론장의 역할에 대한 것이다. 이 역할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토론장과 작업장의 주체들과 그 작용을 일반적 모형으로 치환한 후, 3장에서 거론했던 사례들에 다시 대입해 볼 것이다. 사례들에서 드러나는 개별 토론장이 그 개별 토론장과 전체 생산공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분석한 후, 다른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생산조건을 고려하여 유형화를 시도해 본다.

두 번째는 하나의 생산공간에서의 토론장과 작업장 전체로서, 혹은 다수의 생산공간에서 형성되는 토론장과 작업장들 전체의 역할에 대한 것이다. 그 역할이란 본 연구에서 토론장을 강조하고 그 역할에 대해 체계화를 시도한 작업의 사회적 의의가 되기도 한다.

개별토론장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이 구체적인 작용관계를 통해 관련주체의 대응전략을 유도하는 실행의 차원을 다루는 것이라면, 토론장과 작업장 전체의 역할에 대해 논하는 것은 왜 대응전략을 세우고 토론장을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가치의 차원을 다루는 것이다.

두 가지 차원의 접근은 4.1장과 4.2장에서 각각 논하기로 한다.

## 4.1. 작업장과 관계 맺는 개별 토론장의 역할

이번 장에서는 작업장과 관계 맺는 개별 토론장들의 역할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3장에서 살펴본 세 가지 사례에서 나타난 생산 과정의 양상을 구조적으로 분석해보고 토론장이 관계하는 방식을 일반화 모형으로 표현해본다. 이 때, 3장의 분석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도출하였던 ‘주체의 역할’이 강조되도록 모형의 표현방법을 고려해 볼 것이다. 그리고 일반화된 모형을 통해 유형화를 시도함으로써 또 다른 사례의 분석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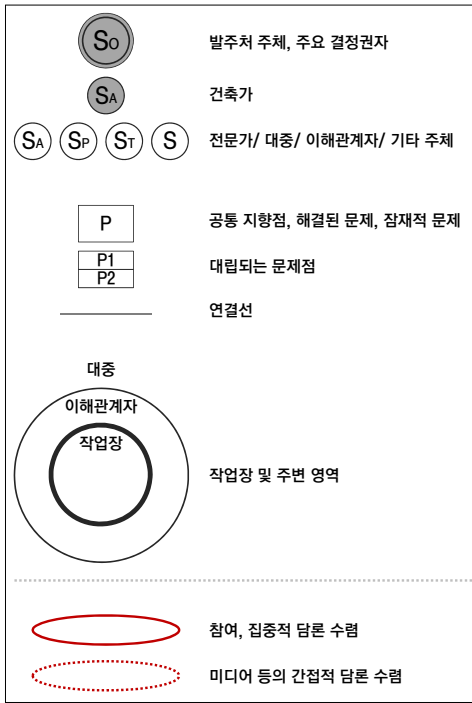
### 4.1.1. 기본적 요소의 설정

일반화 모형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만들 수 있다. 모형이 도해(圖解)되어 드러날 때, 하나의 축을 시간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프로젝트 전체의 방향성을 어떠한 사분면 위에서의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특정 시간의 단면을 표현한, 혹은 시간들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주체들의 갈등구조로 표현해보겠다.

앞에서 밝혔듯, 토론장이라는 개념을 설정하여 연구를 시작한 동기는 대중이라는 주체가 작업장 -발주처와 건축사사무소 등의 계약관계로 맺어지는 영역 - 중심으로 간주되던 생산과정에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일반화의 모형에서도 발주처, 건축가, 대중, 이해관계자 등의 주체들을 상정하고, 그 주체들 간의 공통적 지향점은 무엇인지, 혹은 주체간의 대립되는 문제가 있는지, 그 과정에서 형성된 담론의 장이 상황을 어떻게 바꾸어냈는지에 대한 역학관계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선 생산에 참여하는 주체(S)는 원으로 나타낸다. 그 중에서도 발주처 혹은 프로젝트에 있어서 주요한 결정권자(예를들어 그라운드제로의 LMDC)는 두겹의 원(S<sub>O</sub>: Ordering agency)으로 진하게 표시한다. 그리고 설계를 맡은 건축가(혹은 건축사사무소)는 한겹의 원(S<sub>A</sub>: Architect)으로 진하게 표시한다. 전문가 역시 한겹의 원(S<sub>A</sub>)으로 표시되 색깔을 칠하지 않음으로써 설계를 맡은 건축가와 구분하였다. 대중은 한 겹의 원(S<sub>P</sub>: Public)으로 표시한다. 나머지 주체들은 한 겹의 원(S)으로 표시한다. 여러 구성원들이 이러한 주체들이 될 수 있다. 예로, 작업장 안의 자문위원이나 협력업체, 혹은 관련 공공기관이 될 수 있다. 또한 프로젝트와 가까운 이해관계자들이 될 수 있

제 4 장 토론장과 작업장의 역할



[그림 4-1] 기본적 요소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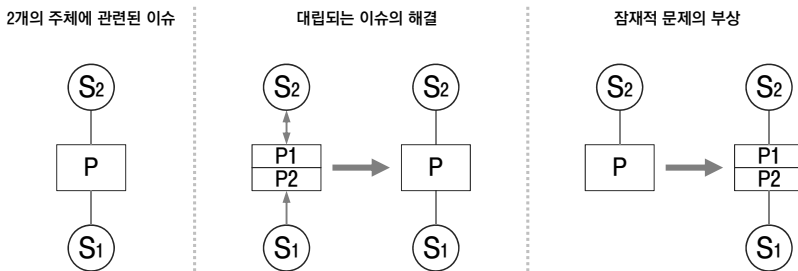
다.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은 많은 경우에 단체를 구성하여 작업장에 시위와 탄원서, 로비 등의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한다. 이해관계자는 한 겹의 원( $S_T$ : sTakeholder)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주체와 주체의 사이에는 특정한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발주처와 건축가 사이에는 건물이라는 공통 지향점이 있다. 혹은 특정한 이익단체들이 공청회라는 공통된 이벤트로 만나기도 한다. 이렇게 공통으로 관계하는 것은 두 주체 사이에서 사각형(P)으로 표시한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두 주체는 지향하는 바를 달리하면서 대립을 이룬다. 이때는 사각형을 각각의 주체 방향으로 분할하여 표현한다(P1, P2). 또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공통 지향점이 생기게 되므로 다시 P로 표현할 수 있다.

고 나면 공통 지향점이 생기게 되므로 다시 P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발주처에서 공사비가 점점 불어나는 것과 같이 문제점이 생겨나는 것도 주체와 연결된 사각형(P)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잠재적 문제점이 그것을 지적하거나 흐름에 반대하는 주체를 만나게 되면 P1과 P2로 분할되면서 갈등구조를 이루기도 한다. 이러한 관계는 아래와 같이 표현 가능하다.



[그림 4-2] 주체 간의 관계 양상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 볼 것은 가운데 그림에서 나타난 화살표다. 이것은 갈등 관계에서 요구와 수용이 오고간 것을 표현한 것으로, 그림에서 표현한 것은 S1과 S2가 갈등구조를 이루되 S1이 주장한 것을 S2가 대부분 받아들인 경우를 나타낸다.(갈등

내용을 표현한 사각형에서 S1으로 향한 화살표가 없음)

이러한 주체들이 위치하는 영역을 세 가지 단계로 나누었다. 중심에는 굵은 선으로 작업장이 위치한다. 발주처와 건축가, 관련 공공기관 등 건물 생산을 직접적 목표로 설정하고 행위하는 주체들이 작업장 안에 놓인다. 이해관계자는 작업장 바로 바깥 원 안에 놓았다. 이들은 작업장의 구성원이 아니지만, 건물 생산에 의도적으로 개입하려 하고, 특정한 단체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 대중과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반 대중은 원의 바깥 영역에 놓인다. 이들은 일시적으로 이해관계자와 같이 행동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상을 영위하면서 산발적으로 건물에 관심을 가진다. 따라서 특정한 테두리로 한정하여 표현하지 않았다.(그림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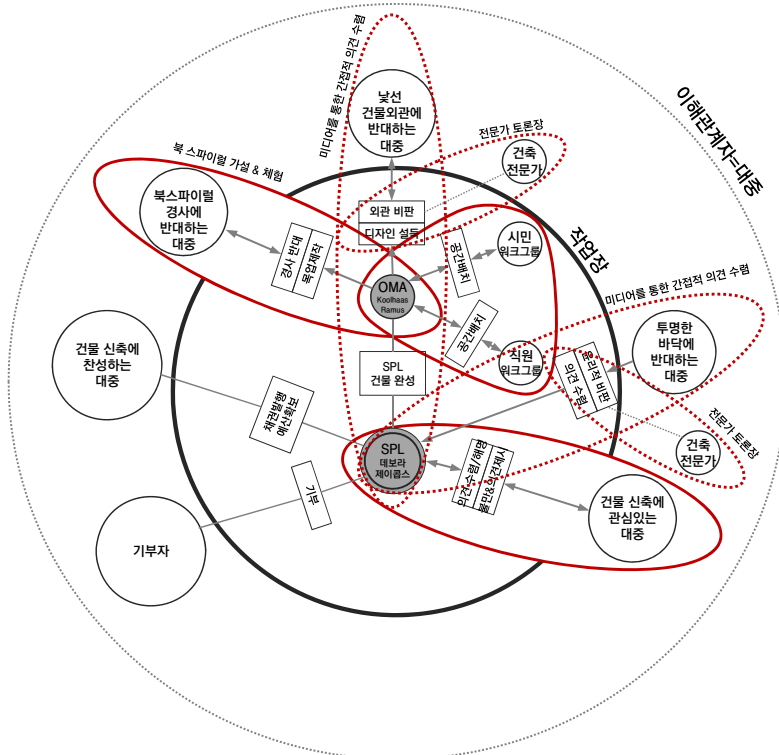
여기까지가 건물 생산이 시작되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다. 이를테면, DDP 건설이 결정되면서 서울시가 자하하디드와 설계용역을 계약하거나, 기존 운동장 부지의 풍물시장 상인들, 운동장 철거를 반대하는 체육협회, 문화재 보존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갈등을 이루게 되는 양상이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 작업장과 관계 맺는 개별 토론장은 ‘인위적으로 구성’ 되는 공간이다.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혹은 리스닝투더시티와 같은 집중적 담론수렴을 통해 작업장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토론장을 진한 실선의 타원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신문, 잡지 등 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형성되는 담론은 점선으로 표현하였다. 간접적으로 형성되는 담론은 일반적으로 직접적 담론수렴보다 영향력이 약하지만,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 작업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3장에서 설명한 바 있다.

#### 4.1.2. 개별 생산과정의 구조 분석

우선, 설정한 기본적 요소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3장에서 분석한 세 개의 사례를, 앞서 설정한 요소들로 표현해 볼 것이다.

그림에서의 배열 원칙을 설명하자면, 그림에서 주체들을 배치할 때 실질적인 권한을 많이 지니고 있는 주체들을 가장 중심에 오도록 했다. 따라서 발주처(So)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림의 중심에 오게 된다. 그리고 진한 선의 원형 테두리는 계약관계로 이루어진 작업장의 한계선을 가리킨다. 따라서 대중은 작업장의 바깥인 원의 주변부에 위치하게 된다.



[그림 4-3] 시애틀공공도서관 생산구조에서의 개별 토론장의 작용

따라서 대중과 발주처를 포함하는 타원을 그리게 되면 주변에서 중심을 향해 쫓혀 있는 썩기 형태가 된다. 개별 토론장이 형성될 때 이러한 형상이 되도록 한 것은 토론장이 작업장과 관계 맺는 상황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하기 위함이다.

### (1) 시애틀공공도서관

시애틀공공도서관은 늘어나는 장서 공간과 디지털도서 공간 확보를 위해 기존의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로운 도서관을 지은 사례다. 그리고 시민투표로 예산을 위한 채권발행을 결정했는데, 이것은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었다는 것과 동시에 도서관 신축에 대해 시민들이 동의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업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없었고, 기존과 용도가 변화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해관계자들도 없었다. 모든 일의 진행은 건물을 신축하는데 맞추어 졌으며 문제는 ‘어떠한’ 건물을 지을 것인가였다.

사업 진행에 있어서의 주된 갈등 구조는 건축디자인에 대한 이슈들에서 발생했다.

투명한 바닥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북스파이럴의 경사에 대해서 의구심을 지니거나, 낮은 건물의 외관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있었다.

도서관측은 이러한 시민들과의 갈등해소를 위해 여러 가지 형태의 참여경로를 만들어 놓았다. 건물 신축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웹사이트, 전화, 이메일 등 지속적인 소통 창구를 열어 놓았으며, 시민들로 구성된 10개의 워크그룹을 구성하여 37개의 도서관직원 워크그룹과 함께 프로그램 배치를 진행하면서 도면 결과물을 검토하였다. 또한 북스파이럴 실물모형을 제작하여 경사에 의구심을 지니는 사람들로 하여금 직접 걸어보고 확인하도록 했다. 이러한 직접적 참여는 그림에서 실선의 영역으로 표현되었다.

투명한 바닥과 관련되었던 안은 미디어의 집중적인 비판으로 폐기되었으며, 낮은 모습의 외관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시애틀의 전망을 담아낸다’는 장점을 부각시켜 반대자들을 설득하였다. 폐기와 설득과 같은 의사전달의 방향성은 그림의 연결선에서 화살표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개별 토론장의 형성은 그림에서 점선으로 표시되었다. 즉, 그림에서 썩기 형태로 작업장에 관입된 토론장을 통해, 도서관 이용자로서의 시민은 생산과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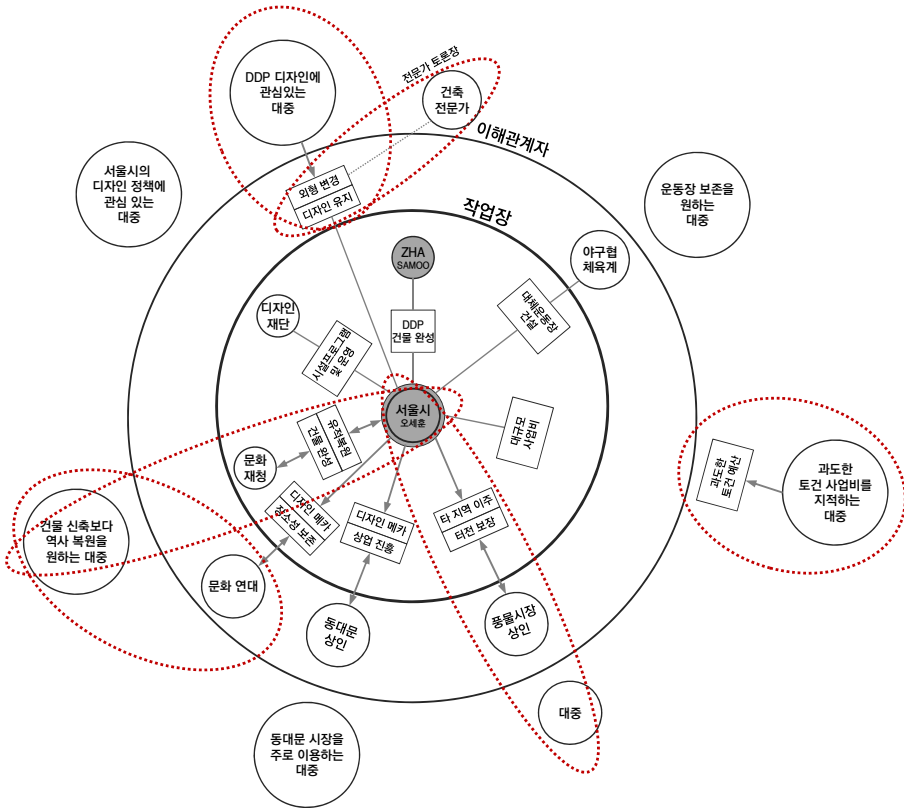
또한 토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미디어에 관련 내용에 대한 상세한 비평을 게재하였다. 전문가들은 대중이나 작업장 주체와 갈등관계를 이룬다기보다 해결하는 내용 자체에 관계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갈등관계를 표현한 사각형에만 선을 연결하여 보조적인 역할임을 나타냈다. 물론 전문가들이 발주처에 특정한 사항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면서 집단행동을 할 경우에는 다른 주체들과 마찬가지로 다르다.

그림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많은 토론장이 작업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작업장의 중심 또한 발주처보다 건축가 쪽으로 이동한 양상을 보인다. 이것은 생산과정에서 시민들이 디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했다는 것을 말한다.

## (2)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사업 후기에 발생한 시장교체 사건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판도가 크게 변한다. 따라서 시장 교체시기를 기준으로 한 세 가지의 단계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제 4 장 토론장과 작업장의 역할



[그림 4-4]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생산구조에서의 개별 토론장의 작용 - 1단계(2006.07~201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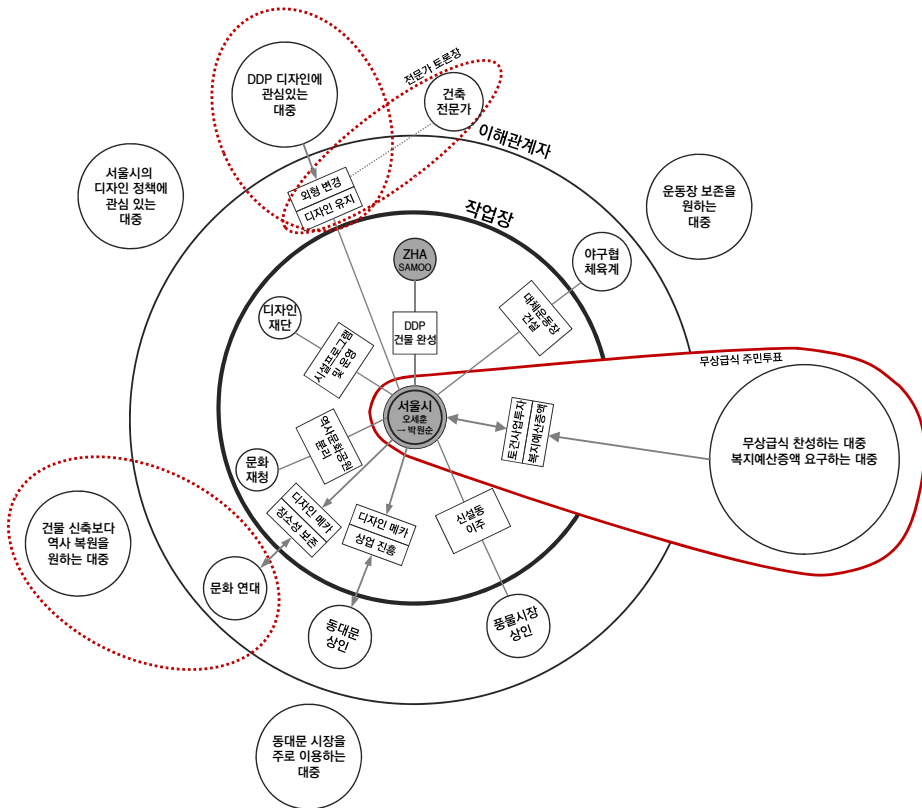
① 1단계

우선 2011년 10월까지의 1 단계를 보면, DDP 사례는 사업의 시작부터 많은 이해관계자와 얽혀있었다는 점이 그림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난다. 우선 축구장에 입점해 있던 풍물시장 상인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야 했으며, 동대문상인들은 건물신축이라는 기회를 통해 패션상업지역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지려고 했다. 운동장 철거를 반대하던 체육계와는 대체구장 건설로 매듭지었고, 문화연대는 과거 성곽의 자리임과 동시에 하도감 터 등 가치 있는 유구들이 매장되어 있는 자리로서 사업 자체를 반대해왔기 때문에 지속적인 갈등관계에 있었다.

자하하디드의 새로운 디자인에 대해서 관심 있는 대중 중 일부와 국내 건축가들 그룹에서 주변과 조화롭지 못한 디자인을 지적하는 담론이 형성되었으나 작업장과 관계를 맺지 못하였다. 과도한 사업비를 지적하는 여론 또한 있었으나, 역시 사업진행과는 밀접한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연결선의 화살표를 보면 역사에 관련된 협의 이외의 다른 이슈들은 서울시가 수용하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4.1. 작업장과 관계 맺는 개별 토론장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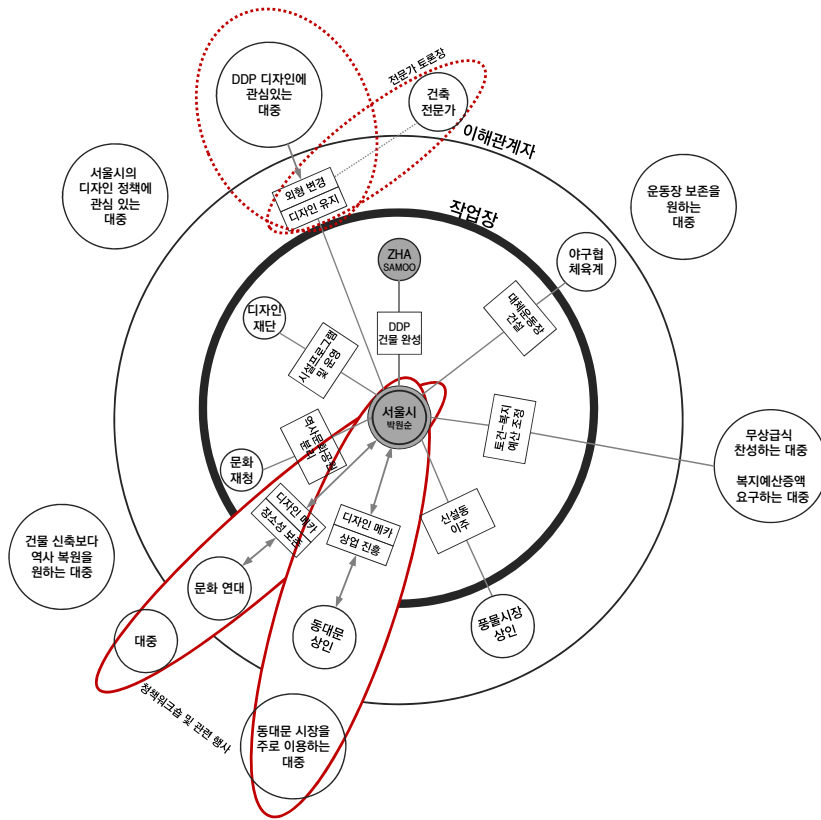
[그림 4-5]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생산구조에서의 개별 토론장의 작용 - 2단계(2011.10)

이 시기에 작업장과 연결되어 형성된 토론장은 두 가지다. 하나는 문화재청과 서울시의 협의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이다. 대중은 이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미디어의 보도를 통해 관찰자의 역할을 했다. 다른 하나는 풍물시장 상인들의 이주 문제다. 역시 대중은 관찰자의 역할에 머물렀다. 이처럼 대중이 갈등관계를 이루는 주체들과 연결되지 않은 채 토론장에 포함되는 것은 미디어 보도에 의한 간접적 토론장이다.

② 2단계

사업이 진행되어가면서 유적복원에 관련된 문화재청과의 갈등은 DDP를 디자인플라자와 역사문화공원으로 분리해 내는 것으로 일단락 짓게 되었고, 풍물시장 상인들은 사업 초기인 2007년에 신설동으로 이주시켜 표면적인 갈등을 가라앉히게 되었다. 즉, 토론장을 만들어내고 담론을 수렴하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내부적 협상과 강제적 공무집행을 통해 사업을 진행시켜 나아갔다. 건물이 서서히 완공되어가자(작

제 4 장 토론장과 작업장의 역할



[그림 4-6]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생산구조에서의 개별 토론장의 작용 - 3단계(2011.10~)

업장의 경계를 보다 진하게 표시함), 작업장에 대한 개입의 가능성이 낮아지고, 따라서 디자인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는 점점 줄어들어갔다.

그런데, 사업과 무관하게 발생한 2011년 8월의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 사건은 거대한 정치적 토론장을 만들어내고, 기존의 사업비 증가에 대한 부정적 담론과 결합하게 된다. 이 담론은 결국 작업장 중심부로 깊숙이 들어와 시장을 교체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건물 공정이 60%를 넘어설 때까지 디자인과 관련되어 형성된 토론장이 거의 없었다. 풍물시장, 패션디자인관련시설, 동대문운동장의 보존, 역사적 유구의 복원 등은 디자인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지만, 발주처는 건축가로 하여금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고 수렴하여 디자인하라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 ③ 3단계

보궐선거를 통해 2011년 10월에 부임한 박원순 시장은 DDP의 1년 예산을 삭감하고 개관 시기를 연기한다. 그리고 DDP의 시설프로그램을 다시 구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기존에 소통의 창구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된 행사로서 동대문상인, 문화연대를 비롯하여 DDP에 관심 있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청책워크숍’을 개최한다.(2012.04.24) 물론 건물 공정은 70%를 넘어섰지만 내부의 시설프로그램은 바꿀 수 있다는 전제하에 갈등구조에 있던 단체들을 포섭하는 참여 이벤트를 만든 것이다. 청책워크숍은 2시간에 걸친 짧은 행사였지만, 그 후에도 ‘어울림마당(2012.05.27)’ 등 지속적인 이벤트를 만들었으며, 견고해진 작업장의 경계(그림에서 매우 진하게 표현)를 일시적이지만 부분적으로 확장시켰다. 이는 그림에서 작업장의 진한 경계를 뚫고 관입된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건물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가면서, DDP의 외관에 대한 담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해소되지 않은 갈등은 우연한 기회에 수면위로 떠오를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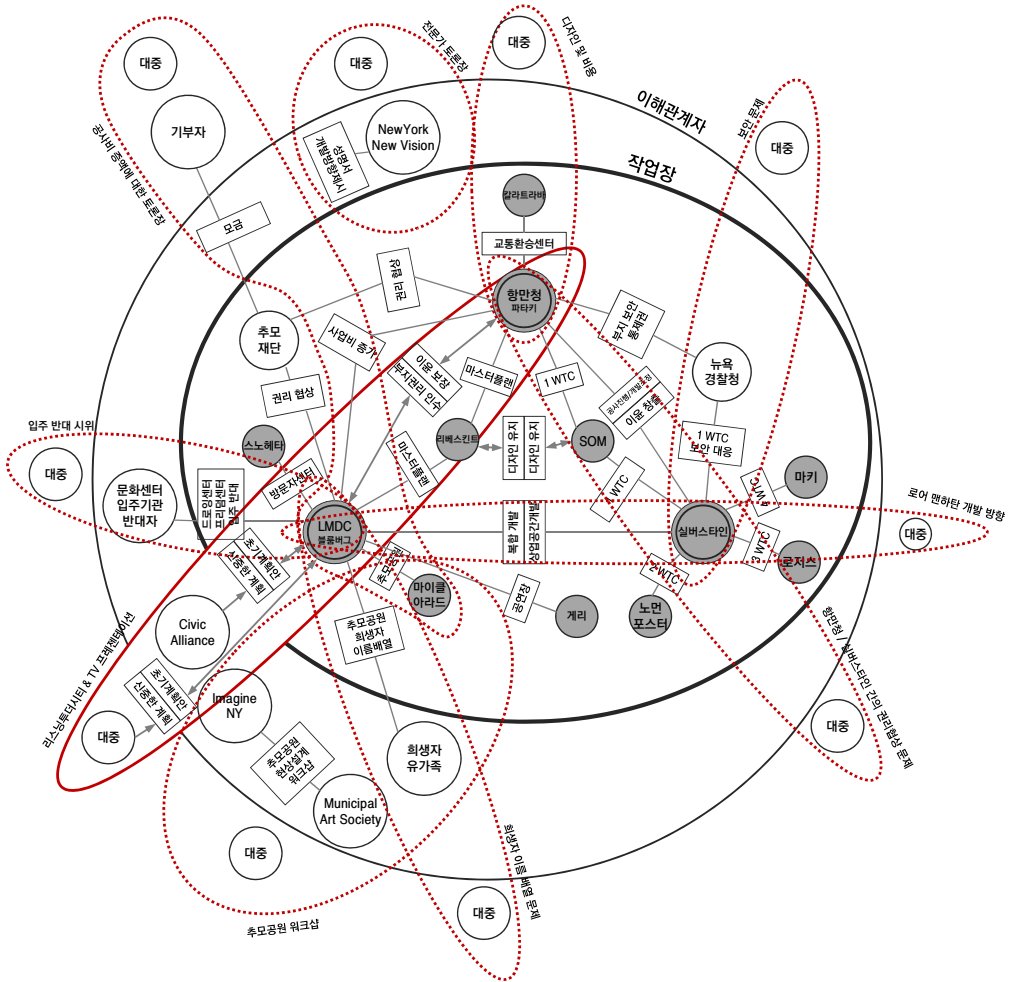
시애틀공공도서관과 비교해 볼 때, DDP의 특징은 작업장 주변에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담론수렴이나 참여가 거의 없었을 뿐더러, 미디어조차 건축디자인에 대한 내용을 활발하게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토론장의 주체인 대중은 건물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점들을 해소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던 것이다.

### (3) 그라운드제로

그라운드제로는 두 사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사례다. 따라서 그림에서는 작은 사건들은 제외하고 비교적 영향력이 큰 사건들만을 표현하였다. 대다수의 개별 토론장에 전문가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토론장의 작용도 그림에서 별도로 표현하지 않았다.

우선 특징적인 면을 보자면, 발주처에 해당하는 주체가 셋(항만청, LMDC, 실버스타인)이고, 주체들이 각각 소속된 건축가들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사이의 갈등구조가 매우 다양하게 드러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다른 사례에 비해 작업장이 크게 표현된다.

제 4 장 토론장과 작업장의 역할



[그림 4-7] 그라운드제로 생산구조에서의 개별 토론장의 작용

작업장 주체간의 갈등(예를 들어 실버스타인과 항만청을 대표하는 뉴욕주지사 파타키)은 그 경과는 물론이고 주체들의 개인적 이력까지 미디어에서 상세히 다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대중은 사건에 대한 관찰자 역할을 했다. 이것은 그림에서 점선으로 이루어진 다수의 타원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토론장 안에서 대중은 작업장 주체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또한, 시민들로 이루어진 많은 이해관계단체들이 작업장 주변에 군집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LMDC를 중심으로 군집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 중심으로 토론장이 다수 형성되었다. 이것은 LMDC가 시민 관련 시설인 추모공원과 방문자센터, 공연장

등을 담당하였기 때문이다.

사례 전체에 걸쳐서 ‘참여’ 이벤트는 2002년 7월에 이루어진 ‘리스닝투더시티’와 그 해 겨울에 있었던 ‘건축가들의 TV 프레젠테이션 후 온라인 투표’의 두 가지뿐이었다. 리스닝투더시티는 분명히, 항만청과 초기 LMDC의 주관 하에 추진했던 초기 6개 안을 폐기시키고 작업의 전환점을 만들어낸 참여 이벤트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이어진 선정 과정은 결과를 제외하고는 철저하게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토론장은 미디어의 보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대부분이 점선의 영역으로 표현되었다.

또 한편으로 위의 그림은 그라운드제로에서 건축에 대한 미디어보도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나타내기도 한다. 복잡한 생산구조 속에서의 거대한 건물들의 정보를 상세히 얻는 것, 그리고 그러한 정보들이 납득할만하다면 일방적인 정보전달만으로도 갈등해소에 상당한 보탬이 된다. 보안문제로 인한 건물 디자인변경을 수용하거나 추모공원 공사비 부족으로 디자인이 변경되는 사건들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 미디어에서 상세히 보도됨으로서, 대중은 일방적인 작업장의 결정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수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상세한 정보 전달로 만들어지는 토론장은 작업장 주체간의 협상에 이용되기도 한다. 항만청과 실버스타인의 갈등 상황에서 블룸버그는 실버스타인을 ‘탐욕스럽다(greedy)’고 언론을 통해 지적함으로써 여론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이를 통하여 협상 과정에서 실버스타인을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었다.

#### (4) 각 생산구조의 특징

시애틀공공도서관의 모형(그림 4-3)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건축가와 관계 맺은 토론장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특징이기도 하다. 워크그룹이나 북스파이럴 같은 경우 건축가와 시민 간에 직접적인 토론장이 형성된다. 이것은 물론 발주처가 건축가에게 권한을 이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물론 권한을 이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해당 갈등이 디자인의 문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건축가가 대중과 관계하는 부분이 많아지면서, 전체적인 연결 관계가 발주처보다는 건축가 쪽으로 집중되었다. 이것은 사례분석에서 지적했듯이, 시애틀공공도서관이 디자인의 문제, 즉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집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제 4 장 토론장과 작업장의 역할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첫 번째 모형(그림 4-4)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작업장에 침투하지 못하는 토론장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발주처로 인입되는 연결선의 화살표도 거의 없다. 이것은 담론이 작업과 긴밀하게 연결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며, 발주처가 외부의 요구들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DDP에서는 세 장의 그림을 통해 시간순서대로 표현하였는데, 마지막 모형(그림 4-6)에서도 작업장이 진한 선으로 굳게 닫혀가는 상황에서 여전히 작업장의 외부에 존재하는 토론장이 존재함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디자인의 문제를 지적하는 담론으로서 DDP의 생산과정에서 작업장과 관련되어 논의되지 못한 이슈다. 이렇게 작업장 외부에 지속적으로 토론장이 남아 있다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은 끌고 있으나 그 해소방안을 찾지 못하는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사업의 완료 후에도 건물 혹은 발주처를 향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라운드제로의 모형(그림 4-7)에서 특징적인 점은 점선으로 이루어진 토론장이 많다는 것이다. 많은 수의 주체들과 복잡한 연결 관계를 따라가면서 형성되는 이 개별적 토론장은 사업이 벌어지는 장소에 미디어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또한 실선으로 이루어진 토론장이 거의 없다는 것도 특징이다. 작업장 내부의 복잡한 주체들의 연결 관계는 실선으로 표현되는 직접적 토론장이 적은 이유를 추측하게 해준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특징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통해 판단해 볼 때, 사업이 상당 정도로 복잡해 질 때 미디어가 갈등관계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면서 참여나 집중적 담론수렴 이벤트와 같은 직접적 토론장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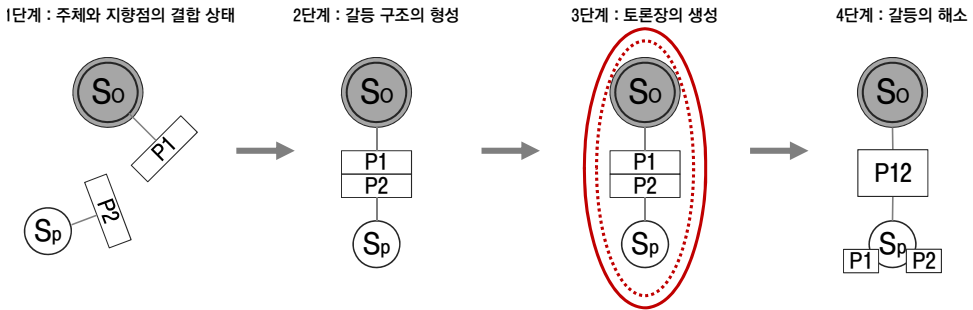
### 4.1.3. 생산구조의 일반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도해된 관계는 다시 기본적 요소들로 환원하여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는 세 가지 사례에서 드러난 구체적인 관계들을 통해 토론장과 작업장이 시간에 따라 진행되는 일반적인 구조를 도출해보기로 한다. 물론 일반화는 특수한 사례의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표현해내지는 못하지만, 공통적인 현상에서 환원하여 단순화 작업을 거치는 일반화는 다수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비교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1) 부분적 관계

① 토론장이 생성되는 기본적인 4단계 구조

앞의 사례들을 통해 발주처와 대중의 기본적인 관계를 추출할 수 있다. 작업장이라는 계약관계의 영역을 생략하고 단순화 시키면 다음의 4단계로 나타내 볼 수 있다.



[그림 4-8] 토론장의 생성에 대한 기본적 4단계 구조

1단계는 프로젝트 시작 이전의 상황이다. 프로젝트 시작 이전 단계에도 각 주체들이 원하는 지향점은 존재한다. 시애틀공공도서관 사례에서 도서관측은 늘어나는 장서 수에 대한 대응방향을 찾고 있었고, 대중은 편리하고 장애 없는 도서관 서비스를 바라고 있었다. DDP 사례에서도 서울시측은 노후한 운동장을 허물고 공원화 사업을 기획하고 있었으며, 주변 상인들은 운동장 재개발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이 증대되기를 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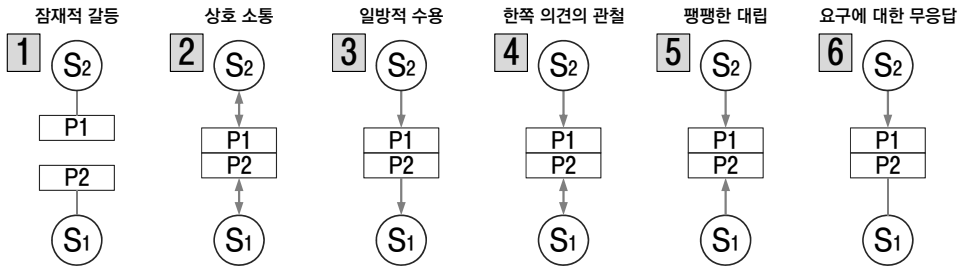
2단계는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갈등 구조가 형성되는 단계다. 발주처와 대중의 지향점이 일치하지 않을 때, 각각 원하는 바를 두고 팽팽한 갈등 관계가 형성된다. DDP 사례에서 의류 상인들은 패션디자이너와 관계된 시설이 들어오기를 원했지만, 서울시가 DDP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것은 시각디자인이나 산업디자인 쪽에 치중되어 있었다. 그라운드제로 사업 초기에도 향만청과 LMDC측은 상업공간 위주의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대중은 새로운 부지가 상업공간 위주로 만들어지는 것을 거부했다.

3단계는 직·간접적인 토론장이 생성되는 단계다. 간접적인 토론장은 미디어의 보도에 의하여 생성될 수도 있으나, 그것을 실제 생산과정에 반영하는 직접적 토론장은 어디까지나 계약주체인 발주처의 결정에 의해 생성된다. 시애틀공공도서관에서 발주처가 지속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나 그라운드제로 초기에 ‘리스닝투더시티’ 이벤트가 열렸던 것이 바로 직접적 토론장에 해당한다.

4단계는 토론장을 통해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갈등이 해소되는 단계다. 발주처와 대중은 공통의 합일점을 찾는다. 물론 시애틀공공도서관에서 디자인이 고수된 것처럼 발주처의 의지대로 진행될 수도 있고, 그라운드제로에서 국제자유센터(International Freedom Center)가 문화센터에 입주하지 못한 것처럼 대중의 요구가 모두 수용될 수도 있다. 물론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지속되기도 한다.

4단계를 거친 후 한 가지 눈여겨 볼 것은 대중에게 토론장의 기회가 하나의 학습 과정이 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안들이 오고가면서 어떠한 결론으로 가든 간에, 대중은 건물에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체득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또 다른 작업장이 형성되었을 때, 보다 구체적인 시각으로 대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

② 요구와 수용에 따른 갈등관계의 유형



[그림 4-9] 갈등관계의 유형

앞서, 연결선의 화살표는 두 주체 간에 오고 간 요구와 수용을 나타내는 것이라 했다. 주체로부터 뻗어나오는 화살표는 요구를 말하며, 주체를 향하는 화살표는 수용을 뜻한다. 토론장 안에서 벌어지는 두 주체 간의 갈등관계는 요구와 수용의 방향성에 따라 위의 여섯 가지의 경우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이 중에는 시간의 진행에 따른 변화가 압축되어 나타난 것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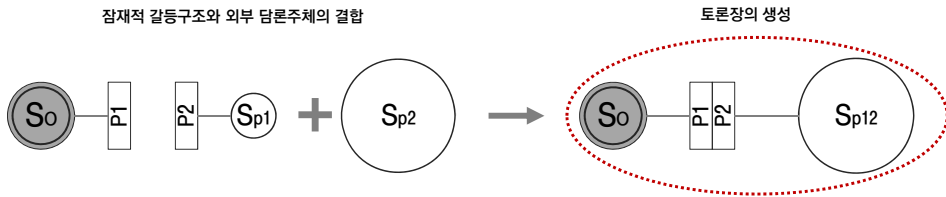
- ① 잠재적 갈등 : 두 주체 간에 아무런 요구가 없는 경우
- ② 상호 소통 : 요구와 수용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③ 일방적 수용 : 한쪽에서 요구하고 다른 쪽에서 수용하는 경우
- ④ 한쪽 의견의 관철 : 양쪽에서 서로 요구하다가 한 쪽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 ⑤ 팽팽한 대립 : 서로 요구만 하는 경우
- ⑥ 요구에 대한 무응답 : 한쪽은 요구하지만 다른 한쪽은 특별히 반대하지도, 수용하지도 않는 경우



물론 생산과정의 전개에 따라 갈등관계는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변화될 수 있다.

③ 외부 담론주체에 의한 토론장의 생성

토론장이 생성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내부적인 작용으로 생성되는 것이 위에서 설명한 예라면 아래 그림과 같이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생성되는 경우도 있다.



[그림 4-10] 외부 담론 주체의 결합에 의한 토론장의 생성

DDP의 사례에서 서울시(So)는 사업비가 점차 증가한다는 문제점(P1)을 지니고 있었고, 사업에 대해 관심있는 대중(Sp1)은 대규모 예산으로 이어지는 DDP에 대한 불만(P2)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잠재적 문제였을 뿐 특별하게 갈등양상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무상급식이 이슈가 되면서 서울시의 토건 사업 예산은 복지 예산과 정면으로 대립하게 된다. 즉,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대중(Sp2)이 등장하면서 DDP 사업도 ‘서울시의 대표적 토건사업’으로 지적받고, 갈등구조를 둘러싼 토론장이 본격적으로 생성되었다.<sup>1)</sup>

④ 미디어 보도에 의한 간접적 토론장의 생성



[그림 4-11] 미디어 보도에 의한 토론장의 형성

그라운드제로 사례의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한 쌍의 갈등구조와 대중(Sp)으로 구성된 토론장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것은 미디어의 보도에 의한 토론장을 의미한다.

1) DDP 사례는 이러한 토론장이 직접적 참여로 전환되어 작업장에 깊게 영향을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 즉,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여부를 주민투표로 전환하고 자신의 시장직을 내걸게 됨으로써, 결국 그 결과에 따라 DDP 발주처의 주체(서울시장)가 교체되는 사태를 맞게 되었던 것이다.

제 4 장 토론장과 작업장의 역할

여기서 한 쌍의 갈등구조를 이루는 양측의 주체는 발주처(So), 건축가(Sa), 대중(Sp), 이해관계자(St) 모두가 해당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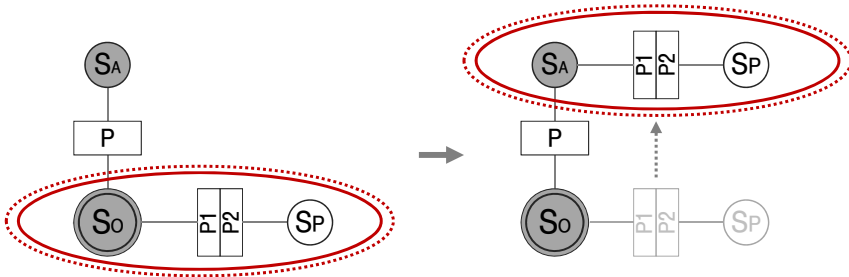
이 때, 대중(Sp)은 미디어의 보도를 통해 발생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관찰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단, 사건의 인과관계에 대해 충분히 수궁하고 이해하는 경우에만 간접적 토론장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예를 들어 그라운드제로의 경우 뉴욕 경찰청이 1WTC의 보안 문제를 지적하면서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크게 변경된 경우, 이것은 작업장 내부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대중은 미디어의 보도를 통해 사건의 전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그리고 보안문제라는 대대적 설계변경의 원인은 충분히 수궁할 만한 것이었으므로, 대중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리베스킨트의 설계안이 타워 디자인에서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특별히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

물론 미디어를 통해 사건을 관찰하는 대중이 특정한 입장을 지니고 작업장 내부의 주체와 갈등관계를 이룰 수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기본적 4단계 구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토론장은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작업장 외부의 주체인 대중과 이해관계자가 관련되어야만 성립되는 것으로 보았다. 작업장 내부 주체인 발주처와 건축가, 혹은 발주처와 자문위원 간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작업장 내부의 소통이며 토론장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⑤ 관계 구조의 이양과 건축가의 역할

관계 구조의 이양 : [발주처-대중] 에서 [건축가-대중] 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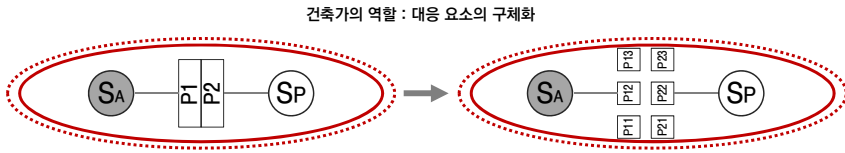


[그림 4-12] 관계구조의 이양

기본적으로 대중이 갈등구조를 갖게 되는 대상은 발주처다. 사업 진행의 결정 권한

을 가진 기관이 발주처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건축가의 건물 디자인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건축가를 비난하더라도 구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설계변경을 결정하고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발주처의 권한이다. 계약관계상 건축가의 결정과 비용으로 직접 대응을 작업장에 포함시키는 일은 매우 드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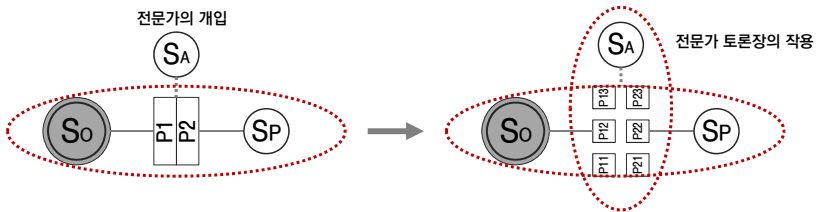
그런데,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 이러한 갈등 구조를 건축가에게 이양하는 경우가 있다. 시애틀공공도서관의 경우 건축가가 대중에게 프레젠테이션하는 기회를 여러 차례 제공함으로써, 건축가로 하여금 디자인을 직접 대중 앞에서 설득해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시민으로 이루어진 워크그룹을 공식적 작업장에 포함시키는 등 디자인에 대한 많은 이슈들에 대해 건축가가 대중과 직접 소통하도록 했다.



[그림 4-13] 건축가의 역할

이 때 건축가의 역할은 대중의 추상적 요구를 디자인을 이루는 여러 가지 요소들로 구체화 하여 생산과정에 대응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대응관계에 대해서는 3.4.1장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 ⑥ 전문가 토론장의 역할



[그림 4-14] 전문가 토론장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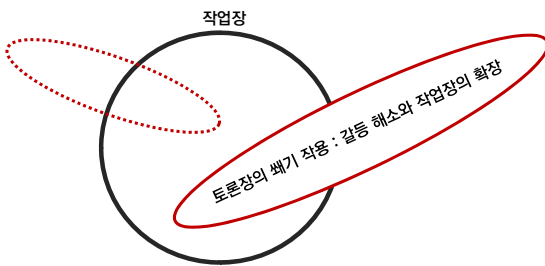
건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설계를 맡은 건축가가 아닌 주체들을 ‘전문가(Sa)’로 구분하였다. 이들 역시 특정한 목적을 지니고 이해관계자가 되어 작업장 주체와 대립각을 세우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많은 경우에 전문지를 통해 해당 이슈에 대해 상세하게 다룬다.

이것을 ‘전문가토론장’ 이라고 할 때, 전문가토론장은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대중매체에의 기고를 통해 해당 문제를 상세하게 구체화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그라운드제로에서 추모공원의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지적 되었을 때, 디자인의 어떤 요소를 변경함으로써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뉴욕타임즈 기사를 통해 상세하게 다룬 바 있다.<sup>2)</sup> 즉, 위의 그림과 같이 전문가토론장이 대중과 발주처 사이의 토론장과 교차됨으로서 대중의 추상적 요구가 어떠한 방식으로 디자인에 연결될 수 있는지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작업장에서의 건축가가 대중과 직접 관계 맺을 때 수행하는 역할과 유사하다.

⑦ 작업장에 대한 토론장의 위상 관계

3장에서 많은 사례를 통해 보여주었던 것은 ‘토론장’ 이 존재하며, 이것이 작업장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련을 맺으며 작업에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것이었다. 이제 특정 사업에서 드러나는 갈등을 해결하는 입장에서 접근한다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토론장을 작업장에 관입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토론장에서는 갈등을 이루는 양 주체간에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갈등을 해소하는 기회가 마련된다. 또한 이것은 일시적으로 대중을 작업장에 포함시키면서 작업장의 영역을 확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직접적인 참여의 기회에서는 적극적인 의사교환이 가능하지만, 직접적 참여가 아니더라도 토론장에서 수렴된 담론을 작업장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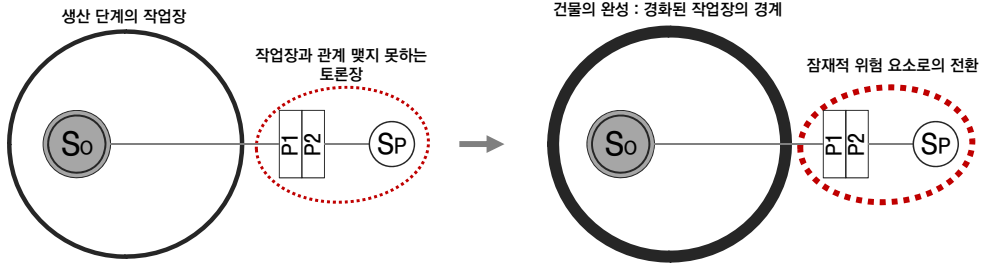
[그림 4-15] 작업장에 대한 토론장의 관입

주체들이 참고하거나, 작업장에서 벌어진 사건의 인과관계를 수궁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직접적 소통 없이 대중이 이를 수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작업장에 관입하여 토론장이 수행하는 역할을 ‘토론장의 썬기 작용(Talkshop Wedge Action)’ 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썬기작용 없이 작업장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토론장도 있다. DDP의 사례에서 건물

2) CHARLES V. BAGLI, "MEMORIAL'S COST AT GROUND ZERO NEARS \$1 BILLION," *New York Times*, 5 May 2006 :1  
 DAVID W. DUNLAP, "Trimming Down to a Less Costly Design at Ground Zero," *New York Times*, 6 May 2006 :5

디자인이 공개됨에 따라 디자인을 비판하는 대중들이 생겨났다. 전문가토론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작업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자하하디드의 디자인은 유구 발굴로 인한 설계변경을 제외하고는 원안대로 고수되어 건물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그림 4-16] 작업장에 관입되지 못하는 토론장

즉, 그림에서 표현한 것과 같이 건물이 완성되어감에 따라 토론장의 의견은 작업장에 반영될 여지가 거의 없어진다. 그러나 해소되지 않은 갈등은 잠재적으로 존재하면서 사업의 리스크가 된다. 앞서 설명했던 ‘기본적 4단계’의 마지막에서, 대중이 토론장에서의 논의를 통해 건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체득하게 되어 다른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작업장에 개입하지 못하여 불만이 누적된 대중은 비판의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특정한 계기를 통해 불만을 표출할 가능성이 있다. 리스크의 예방이라는 차원에서도 발주처의 주체는 갈등이 발생하는 곳에 토론장의 생성을 고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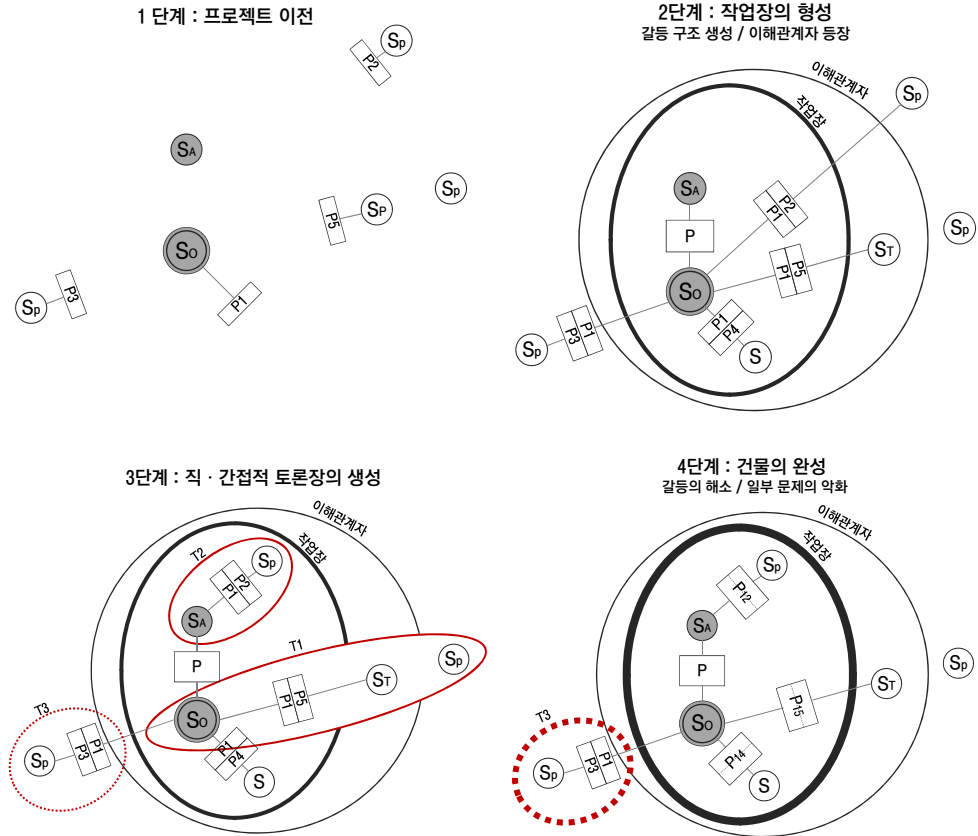
## (2) 생산구조의 4단계 변화

지금까지 설명한 요소간의 부분적 관계들은 다음과 같은 생산구조의 4단계 변화 안에서 설명할 수 있다.

1단계는 프로젝트 이전 단계다. 각 주체들은 각각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존재한다.

2단계는 발주처(So)가 건축가(Sa)와 건물이라는 공통 목표(P)를 두고 결합되면서 작업장이 형성된다. 자문위원이나 다른 기관이 작업장 내부의 주체(S)가 될 수 있다. 특정한 목표(P5)를 지닌 대중의 집합은 이해관계자(St)가 되어 작업장에 대한 영향

제 4 장 토론장과 작업장의 역할



[그림 4-17] 토론장과 작업장이 관계 맺는 생산구조의 단계별 양상

력 행사를 시도할 수 있다. 일부 대중은 발주처와 갈등관계(P1/P2)를 이루고 있다.

3단계에서는 갈등관계의 해결을 위해, 혹은 미디어나 대중간의 직접적 접촉에 의해 토론장이 생성된다. 이해관계자들(St)은 발주처와 직접 교섭의 장을 마련하여 갈등요소(P1/P5)를 다루게 되고, 이러한 과정은 미디어의 보도를 통해 대중(SP)에게 노출되는 토론장(T1)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또한, 발주처의 결정으로 특정한 갈등관계(P1/P2)를 건축가(Sa)에게 이양한 후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작업장 내부의 토론장(T2)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토론장이 만들어지지만 작업장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경우(T3)도 있다.

물론 토론장은 관련 주체들의 의지에 따라 ‘인위적으로’ 생성되는 공간이다. 대중이 담론의 장을 형성한 후 작업장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으며, 발주처의 의지로 직접적 토론장을 만드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만들어진다.

4단계는 작업장이 마무리되는 단계다. 토론장의 썩기작용에 의해 갈등은 중재된

다.(P12, P14, P15) 그러나 한편으로, 작업장 외부의 갈등은 누적된 불만으로 악화될 수 있다(P1/P3)

물론 모든 프로젝트에서 동일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그라운드제로처럼 발주처가 여럿 존재한다든지, 혹은 토론장의 생성 후 해결된 갈등이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여 4단계에서 부분적으로 2단계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생산구조가 전개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요소와 기본적 전개 양상은 지금까지 설명한 구조를 바탕으로 만들어 질 것이다.

### (3) 특수한 생산 조건의 반영

이제까지 부분적 관계의 표현 방식을 정의하고 이 관계들을 조합하여 전체 구조의 일반화 모형을 구성해보았다. 여기서는 주체간의 갈등구조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모형이 3장의 분석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특수한 생산조건들을 반영하는지 확인해보기로 한다.

#### ① 하부구조

‘도시의 세계적 위상’ 이나 ‘미디어에서 건축을 다루는 정도’ 와 같이 사업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형성되어 왔으며, 사업의 시작으로 인해 발생한 조건 또한 아닌 것들을 하부구조라 부를 수 있다. 이러한 하부구조는 생산구조의 일반화 모형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도시의 세계적 위상, 그리고 그 도시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정도는 사람, 물자, 정보의 이동량(mobility)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므로 사업에 대해 다른 이해관계에 놓인 사람들이 많아질 확률이 크고, 갈등구조가 복잡하게 드러나기 쉽다. 그라운드제로 사업에서의 복잡한 발주처의 관계는 이러한 조건들이 반영된 것이며, 마스터플랜 공모전에 세계적인 스타건축가들이 초청된 것, 그리고 연방 지원금과 보험금 등 대규모 자본이 집중되면서 16에이커 부지의 재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도시의 세계적 위상과 관련이 있다.

미디어에서 건축을 다루는 정도는 점선으로 표현되는 간접적 토론장의 수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따라서 모형의 2단계까지는 드러나지 않다가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 특징이 드러나게 된다. 물론 이것은 미디어에서 그 사업에 대해 다루게 되는 등

기, 즉 사업이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정도와 관련이 있다.

## ② 사업의 지향점

사업의 지향점은 사업의 진행 주체인 발주처와 연결된 사각형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이 또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분산되어 표현되거나,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DDP에서 노후한 지역의 재개발과 도시브랜딩이라는 사업의 지향점은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구조로 표현되었다. 기존의 운동장을 철거하면서 풍물시장 상인 및 체육협회의와 갈등이 발생하였고, 도시브랜딩을 지향하면서 ‘스펙터클’ 한 건물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주변과의 조화라는 문제가 부상하였다. 그리고 도시브랜딩이라는 지향점은 도시의 세계적 위상이라는 하부구조의 상황과도 관련이 깊다.

그라운드제로에서의 지향점은 희생자들의 추모공간 마련, 적절한 임대수익을 올리는 경제적 자립지구의 재건, 기존 도시가로의 회복 등을 들 수 있다. 추모공간을 마련하는 것과 기존 도시가로를 회복하는 것 자체는 특별히 반대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갈등구조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지향점은, 2002년 7월 16일에 발표한 항만청과 LMDC의 계획안을 반대하게 된 주된 요인이 되었으며, 전체 생산구조에서 LMDC를 중심으로 여러 주체와 갈등구조가 생성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sup>3)</sup> 또한 경제적 자립지구를 만들기 위해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의 비중을 높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충돌이 발생하였다.

시애틀공공도서관에서는 장서 수 증가에 따른 공간 확보라는 지향점이 있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은 사업 전체에서 갈등구조로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계속 증가하는 장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제안한 ‘복스파이럴’에 대해 사람들이 동의하지 못했던 사건과 같이, 지향점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갈등구조가 드러날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 확보하려고 했던 공간의 양에 비하여 예산이 부족하였다면 지향점의 조정과정에서 갈등구조가 드러났을 수도 있다.

## ③ 땅의 성격

땅의 성격 역시 직접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다른 주체와의 갈등구조에서 드러

3) 상업공간의 비중을 축소하고 ‘보다 추모를 위한 공간’으로 디자인하라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였다.



난다. 물론 땅의 성격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문제되지 않는다면 생산구조의 모형에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시애틀공공도서관에서 기존 도서관 부지라는 땅의 성격은 특별히 갈등구조로 드러나지 않았다. 물론 세세하게 사업에서 발생했던 일을 표현한다면, 사면이 도로로 둘러싸인 부지의 특성상, 도서관 부지 동측과 서측의 대로변에 어떻게 입구를 낼 것인가의 문제가 시설프로그램배치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조정된 것을 표현할 수도 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성곽이 관통하고 유구가 매장되어 있고 기존 운동장 부지였으며 동대문시장에 인접하였다는 땅의 성격은 조건들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인 문화재청, 문화연대, 체육협회, 시장상인들과의 갈등구조로 드러났다.

그라운드제로 역시 테러로 소실된 부지라는 땅의 성격이 전체 사업 진행 구조에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뉴욕시 내부에 위치하지만 뉴욕뉴저지항만청의 부지라는 소유관계의 특성도 여러 가지 갈등 구조로 드러났다.

#### ④ 예산

사업자금은 그 출처에 따라 주체들 간의 갈등관계에 포함되어 표현된다.

시애틀공공도서관은 채권발행에 대한 합의가 생산구조에 표현되었으며,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경우 예산의 원천인 시민들의 권리 행사가 발주처 주체의 교체라는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라운드제로 역시 민간 디벨로퍼의 자금출처인 보험사와의 소송과 갈등(생산구조 그림에서는 생략하였다), 항만청이 연방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교통시설 경험이 적은 리베스킨트에게 설계를 맡기지 않은 점, 민간 디벨로퍼에게 지원을 중단하라고 시민단체가 항만청에 항의서한을 보낸 사건 등 생산구조의 세부적 표시정도에 따라 갈등관계로 표현될 수 있다.

#### ⑤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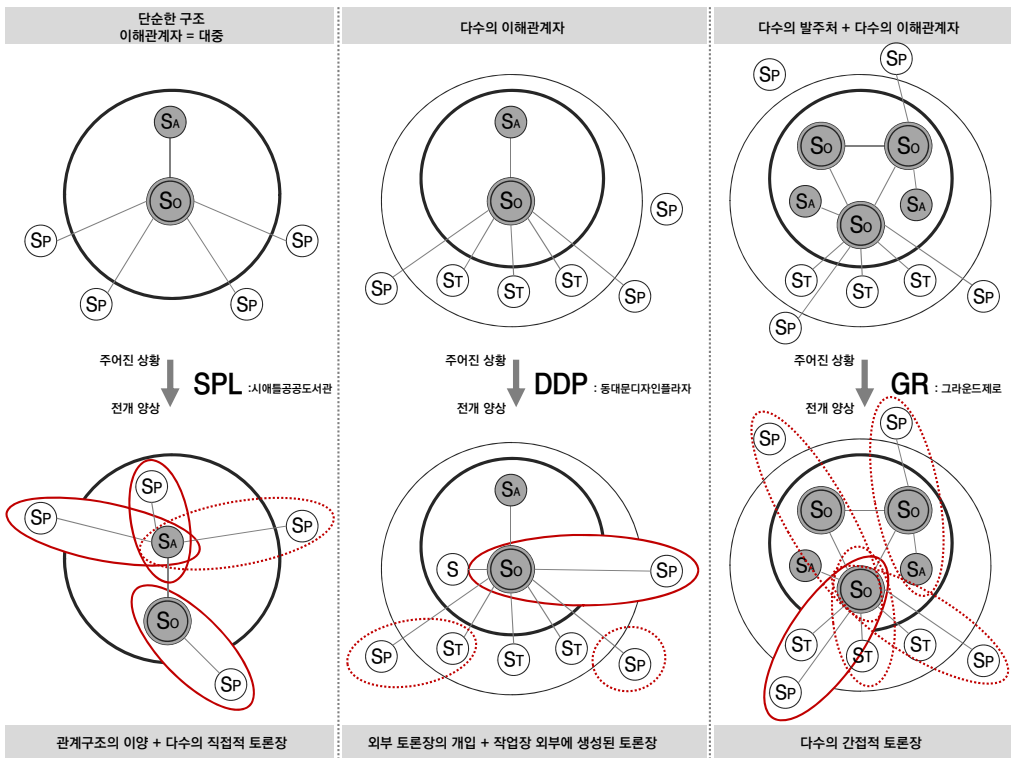
그 외에도 발주처가 건축가에게 부여한 역할(설계에 한정, 대중을 대상으로 한 프레젠테이션 등)도 연결 관계로 표현된다. 특히 토론장이 형성된 정도, 시민들이 전체 사업에 관계한 역할 등 주체들의 관계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서 제시한 생산구조도의 강점이라 할 수 있다.

### 4.1.4. 사례의 유형화와 주체의 역할

#### (1) 사례의 유형화

여기서는 일반화 모형을 참고하여 4.1.2장에서 자세하게 도해한 각각의 사례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한다. 물론 세 개의 사례를 통해 유형을 추출해내는 작업은 분명한 한계지점을 내포한다. 다만, 단지 세 개의 사례를 종합하려는 것보다는 다른 사례에의 적용을 통해 단순화된 모형을 축적해나간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 출발지점으로서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보통의 경우에 유형화를 통해 일반화에 다다른 것과 순서가 반대인 이유이기도 하다. 즉,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사업을 다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례들을 통해 특정한 법칙을 찾아내려는 접근보다는 일반화에서 출발하여 유형을 축적해나가는 접근방법이 사업 진행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유용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림 4-18] 사례의 유형화

우선, 세 개의 사례에서 갈등구조를 생략하고 주체간의 관계만을 표현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특징적인 부분만 추출하였다. 그리고 사업이 시작되는 초기에 생산조건이 구성되는 단계와 사업이 진행되면서 토론장이 생성되는 단계를 구분하여 보았다.

시애틀공공도서관(이하 SPL) 유형은 발주처(So)와 건축가(Sa), 그리고 사용자로서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하는 대중(Sp)으로 구성된다. 등장하는 주체 모두가 건물을 짓는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발주처에 대한 대중의 요구사항은 ‘어떻게’ 건물을 짓는가, 즉 디자인의 문제에 집중된다. 이러한 경우에 발주처는 디자인에 관한 갈등구조를 건축가에게 이양하기 용이하며, 실제 SPL 사례에서는 대중과의 많은 문제를 건축가가 직접 다루도록 했으며, 그 과정에서 다수의 직접적 토론장이 구성되었다.

DDP 유형은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하는 다수의 이해관계자로 구성된다. 디자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이전에 사업의 방향과 결부된 것들이 대부분이었으므로 발주처가 직접 갈등구조를 관리하게 된다. 그런데 전개과정에서 작업장은 토론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또한 외부의 정치적 사건으로 인하여 생성된 토론장이 작업장 깊숙이 개입하기도 했다.<sup>4)</sup>

그라운드제로(이하 GR)유형은 다수의 발주처로 구성되는 경우다. 그리고 다수의 이해관계자 또한 존재한다. GR 유형에서 벌어지는 갈등구조는 [발주처-발주처]와 [발주처-이해관계자 및 대중]으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다. 미디어가 발달한 하부구조는 다수의 간접적 토론장을 만들어 냈으며, 이는 [발주처-발주처]의 갈등구조 전개양상을 대중에게 전달함으로써 대중이 관찰자의 역할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발주처-이해관계자 및 대중]의 갈등구조 역시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거나 직·간접적 담론수렴장치를 통해 토론장의 일부가 되었다.

그림 상단에 표현된 생산조건이 구성된 단계와 하부에 그려진 전개 양상 사이에 필연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DDP의 경우도 시장(市場), 운동장, 패션관련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복합하여 건물을 만들기로 결정한 후 세부적인 조정을 건축가에게 이양하는 전개 양상, 즉 SPL 유형처럼 나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디어에서 건축에 대해 많이 다룰 경우 GR 유형의 전개양상처럼 다수의 간접적 토론장이 형성되면서 작업장 내부로 관입될 수도 있다.

4) 2011년 10월 이후에 시장이 교체되면서 새롭게 토론장이 전개된 것은 반영하지 않았다. 2012년 6월 현재, 정책워크숍 등 서울시에서 DDP와 관련하여 주최하는 행사들이 유형화에 반영할 수 있을 만큼의 ‘실질적인 토론장’이 되는 것인지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보다 사례가 더 축적된다면 주어진 상황과 전개 양상 사이의 개연성이 새롭게 드러날 수도 있다. 세 개의 사례분석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것은 ① SPL 유형의 경우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돌이 없기 때문에 디자인 자체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점 ② GR 유형의 경우 발주처의 이해관계가 달랐기 때문에 이들 모두를 포괄하는 토론장은 만들어낼 수 없었으며 부분적으로만 토론장이 생성되었다는 점 ③ DDP 유형에서 정치적 사건에 의한 외부 토론장의 개입은 사업 내부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불가항력적이라는 점이다.<sup>5)</sup>

## (2) 생산과정에서 주체의 역할

여기서는 모든 유형 전체에서 토론장의 형성을 위해 각 주체들이 어떻게 생산구조에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우선, 발주처의 역할이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발주처의 결정이 생산구조가 전개되는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발생한 갈등 관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건물을 만드는 것’ 임을 감안하여 정치적인 해결방법 이외에도 설계작업을 통해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인지 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설계작업에 관련된 것이라면 그 부분은 건축가(Sa)에게 권한을 이양하여 해결하도록 하거나 전문가토론장을 적극적으로 개입시켜 문제를 세분화시켜 대응해야 한다.

건축가 및 전문가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갈등구조를 발주처로부터 이양 받았을 때 설계 작업을 통해 갈등을 풀어내는 것이다. 물론 대중의 요구를 수용하여 디자인에 반영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설득하여 해결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시애틀공공도서관의 사례처럼 외관의 이미지에 대한 비판을 받는다면 그러한 외관을 가지게 됨으로써 얻는 장점에 대해 논의의 초점을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작업을 맡은 건축가와 전문가 모두의 역할이다. 대중의 추상적 요구를 가능한 대안 안에서 구체화하는 것이다. 비용에 대한 문제제기나 상징적 요소에 대한 요구들을 디자인 언어로 해석해내고, 이것

---

5) GR유형의 경우, 실제로 리스닝투더시티에서 시민들의 의견은 상업공간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었으나, 실버스타인이 (건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만청에게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버스타인의 권리 또한 존중되어야 했고, 따라서 상업공간은 일정정도 유지될 수 밖에 없었다.

을 대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즉, 건물을 만든다는 것은 대중이 지니지 못한 전문성을 통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접근하는 것이기도 하므로 대중과는 다른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실행해야 한다.

대중의 역할은 ‘내가 한 말과 나의 행동이 제작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건물을 바꿀 수 있다’ 는 생각을 가지고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 관여하는 것이다. 어떻게 대중의 말과 행동이 건물에 영향을 미치는가는 ‘토론장’의 개념을 통해 연구 전체에 걸쳐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렇게 관련 주체들이 생성하는 토론장과 이러한 토론장이 작업장에 관입되어 이루어내는 전개의 새로운 양상은 새로운 생산구조의 틀이 된다. 이를테면, 정치적인 문제로 작업장의 주체가 변경되는 것은 사업 내부적으로는 불가항력적인 것이지만, 다수의 주체들이 만들어낸 토론장과 작업장의 구조가 이미 튼튼하다면 한 개인의 결정에 따라 사업을 좌지우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그라운드제로에서 가장 영향력 있었던 뉴욕주지사는 사업의 초기부터 2012년까지 네 번 변경되었다.<sup>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업은 다수의 주체가 만들어놓은 큰 구도 안에서 진행되었던 것이다.

---

6) 3장의 그라운드제로 사례의 프로젝트 개요 참조

## 4.2. 생산공간 전체로서의 토론장과 작업장의 역할

4.1장을 통해 시애틀공공도서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그라운드제로 생산공간의 구조를 일반화된 모형으로 표현함으로써 개별 토론장들이 생산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보았다. 동시에 사례를 유형화함으로써 상이한 조건아래 있는 생산과정에서 개별 토론장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역할을 종합해봄과 동시에 토론장의 형성을 위해서 주체들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보다 시야를 확장하여 봄과 동시에 가치의 문제를 결부 짓는다. 하나의 생산공간 전체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상호관계가 이루어내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생산공간들로 이루어지는 세계 전체에 대한 토론장과 작업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한다.

### 4.2.1.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가 만드는 ‘장소’

개별 토론장들이 여러 가지 유형과 방법으로 토론장과 작업장 주체간의 갈등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때, 시야를 확장시켜 생산공간 전체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토론장과 작업장이 형성되었던 최초의 이유는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물론 갈등 해소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단지 전개 과정에서 거쳐 가는 부분적 역할에 불과하다. 과정 전체에서 본다면, 하나의 건물을 완성해내는 생산 과정에 관련된 사람들을 각각의 역할에 맞게 구분한 것이 바로 토론장과 작업장이었다. 그렇다면, 건물 전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토론장이 풍성하게 만들어지면서 작업장과 적극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았을 때, 혹은 그러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도래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시애틀공공도서관의 예를 다루면서, 전위적인 건축가의 디자인과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 중 어떤 것을 택하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과정 자체가 중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견을 나눌 때 바로 ‘건물’이 매개가 되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지역성에 대해 논하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건물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얻는다. 예를 들어 고전적인 의장요소를 차용한 건물이 시애틀답다는 의견을 들으면서, 그 동안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보았던 건물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 건축가가 건물 내부에서의 조망을 강조하는 주장을 듣거나 건축

가가 제시한 투시도를 보면서 쾌적한 건물 내부에서의 경험을 상상하기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서로 다른 두 가지 가치를 저울질하면서 어떤 공공도서관이 우리 지역에 더 필요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즉, 새롭게 지어지는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겉모습만 보고 ‘이상하다, 낯설다’고 평가하지 않고 ‘내부의 경험’이라는 관점, 즉 ‘밝고 쾌적한 공공공간’으로도 건물에 대해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림 4-19] 북스파이럴 경사(좌)와 밝고 쾌적한 실내공간인 '리빙 룸' (우)  
(출처 : GA Documents)

물론 논쟁의 도마 위에 올랐던 이슈들만이 건물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식과 연관된 것은 아니다. 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시애틀공공도서관은 시민들에게 ‘내 의견을 한 표로 표현하여 결정한 예산으로 지어진 건물’이라는 의미가 있었다. 투명한 바닥이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완공된 건물 안을 거닐며 바닥 재료에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살펴볼 것이고, 북스파이럴의 경사에 관심을 지녔던 사람은 실제로 건물 안을 거닐면서 경사를 오르내리는 다소 불편하고 불안정한 감각과, 별도로 계단을 오르내리지 않고도 연속적으로 책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생각하게 될 것이다.

즉, 토론장에서 다루어졌던 모든 이슈들을 통해 사람들은 건물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워나가게 된다. 건물의 입장에서 바꾸어 말하면 다른 관점과 기준의 모든 층위들이 건물에 누적되어어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건물이나 사물을 ‘물리적 실체’와 ‘실체에 투사된 상징적 층위’로 이해하는 관점과의 연관선상에서 볼 수 있다.<sup>7)</sup> 이러한

7) 캐리 윌슨(Carrie Wilson)은 건물을 만드는 행위라는 'edify'라는 단어의 원래 뜻을 언급하면서 건물은 물질적 기반의 건물(building)과 문화적 서사(cultural narrative)의 두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윌슨에 따르면 edify는 다음의 두가지 의미가 있다. 도시 안에 물질적 건물을 만드는 것(to create a substantial building within a city)과 의미로 가득 찬 파사드를 드러내는 것(to present a facade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이 건물에 대해 지니는 관점과 생각이 누적되었다는 것은 그 건물에 대한 상징적 층위가 형성되었다는 것과 같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징적인 층위가 어떤 건축가나 사상가가 사색을 통해 제시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의견을 교환하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통해 ‘점진적으로 형성’ 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물질적인 실체로 이루어진 건물과 더불어 하나의 ‘장소(place)’ 를 만들어낸다. 흔히 ‘장소’ 에 대해 논할 때 자주 언급되는 비토리오 그레고티(Vittrio Gregotti)의 말을 인용하자면, 그는 ‘사람은 미지의 우주 한 가운데 있는 장소를 인식하기 위해 돌을 놓았다’ 고 했다.<sup>8)</sup> 여기에 한 마디 덧붙이자면, ‘어디에 돌을 놓을지 논의한 후 돌을 놓음으로써 모두에게 의미 있는 장소가 되었다’ 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장소성은 건물과 주변과의 연결고리를 말한다. 프램턴이 현대건축의 문제로 ‘스펙터클에 치중한 점’ 을 지적한 것도 이 연결고리가 끊어졌다고 보았기 때문이다.<sup>9)</sup> 그러나 연결고리는 물리적 차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sup>10)</sup> 담론에서의 ‘새로운 연결고리’ 를 찾는 것이, 토론장과 작업장을 통해 건물의 생산과정을 바라보는 관점이 지닌 의의 중 한가지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프램턴이 현대도시 건축의 문제로 ‘건물이 주변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서 있게 되는 것(free-standing building)’ 을 지적했지만, 담론을 통한 상징적 차원에서는 건물과 주변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토론장이 작업장과 관계하면서 만들어지는 장소성이며, 물리적 차원에서 특정한 특질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일컬어지는 현대도시에서는 특히 중요한 의미

---

full of meaning). 다음을 참고.

Carrie Rose Wilson, *The Edification of the Citizen : The Relationship between Architecture, Political Representation and the Making of the Public Realm*, Diss. The University of Michigan, 2003, Ann Arbor : UMI, 2003, pp.1-3

또한, 프램턴은 ‘비판적지역주의(critical regionalism)’ 를 주장하면서 이질적 문화의 변증법적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물질적 층위 - 자연적 요소, 텍토닉, 촉각적인 것 - 가 만들어내는 것이 ‘미스(myth)가 담긴 지역’ 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미스(myth)’ 란 ‘어떤 집단이 공유하는 특정한 믿음, 가치관, 감성’ 을 의미한다. 다음을 참고

김승범, “케네스 프램턴의 비판적 지역주의가 지니는 한계점과 현대적 의의,”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7(8) (2011) : 217-224

8) Kenneth Frampton, *Megaform as Urban Landscape*, 1st ed., Michigan : Univ. of Michigan, 1999, p.40에서 재인용

9) 2.1.2장의 (2) 이론적 논의 부분 참고

10) 프램턴은 제작에만 집중하였기 때문에 그의 해답은 텍토닉, 메가폼, 비판적 지역주의 등 제작의 결과물인 형태에서 해답을 구했다. 물론 비판적 지역주의에서의 myth라는 의식의 차원도 있었고 의식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었지만, 그 의식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도 한 상호간에 오고가는 토론과정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공간적 수단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토론장과 작업장이란 그가 찾지 못한, 공간적 수단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를 지닌다.<sup>11)</sup>

물질적 건물과 상징적 층위로 장소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제작 과정에서의 의사소통을 통해 점진적으로 누적된 의미로 상징적 층위가 형성된다는 관점은 이렇게 전국토 혹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현대 도시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물론 상징적 층위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통해 어떻게 건물이 변해갔는가, 즉 상징적 층위와 물질적 실체가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는가에 관한 내용이 바로 본 연구에서 사례를 통해 검증한 내용이었다.



[그림 4-20] 무슬림 커뮤니티센터 건립 반대 시위 현장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테러리스트로부터 공격을 받고 다시 재건해가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사람들은 그라운드제로에 특별한 의미를 투사했다. 이들에게 그라운드제로란 ‘묘지(grave, burial site)’였으며 메카(Mecca)와 같은 ‘성역(sacred grounds)’이었다. 따라서 뉴욕은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는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뉴욕의 많은 곳에 이슬람센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라운드제로로부터 두 블록 떨어진 곳, 즉 ‘성역’의 범위라고 여기는 장소에는 모스크를 허용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되었던 오바마와 뉴욕 시장의 발언들, 허용과 비허용을 둘러싼 논쟁들은 하나의 담론으로서 그라운드제로가 이미 특별한 의미의 ‘장소’가 되었음을 말해준다. 이 특정한 사건을 대하는 사람들의 시각에는 10여 년간 그라운드제로를 둘러싼 토론장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담론들이 누적되어 있는 것이다. 문화센터의 입주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부정적인 전시를 기획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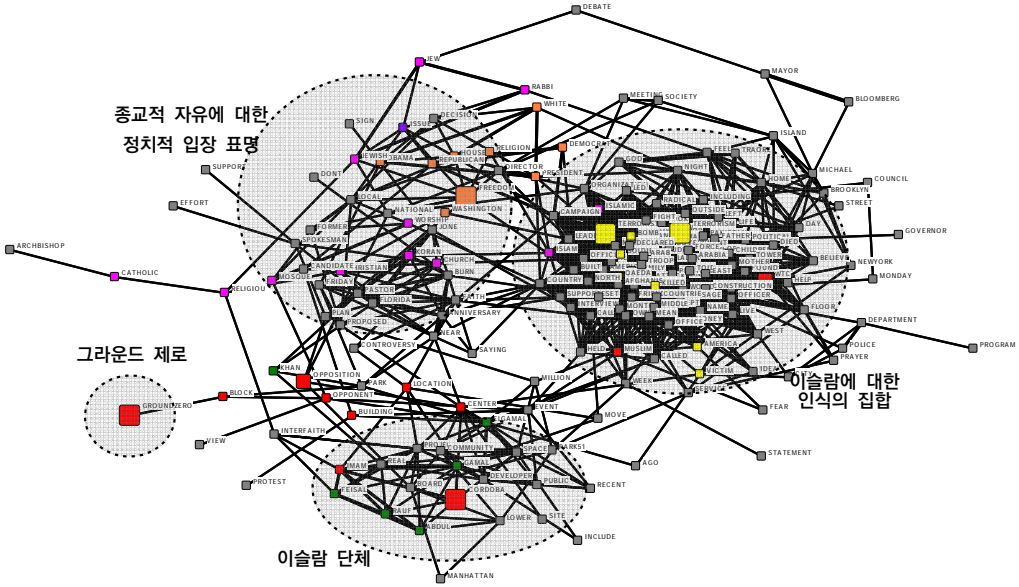
11) 램쿨하스는 현대도시에서 특정한 특질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면서 ‘generic’이라는 단어로 현대도시의 성격을 선언적으로 규정했다.

Rem Koolhaas, "The Generic City," *S,M,L,XL*, Ed. Jennifer Sigler. New York, NY: The Monacelli Press, 1995, pp. 1250-1252

콜린스코빌드 사전에 따르면, ‘언급되는 것들에 대해 아주 전형적인 경우, 혹은 특별하거나 색다른 성질을 지니지 않은 것을 generic이라고 말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출처 : Collins Cobuild Advanced Learner's English Dictionary, 6th edition

제 4 장 토론장과 작업장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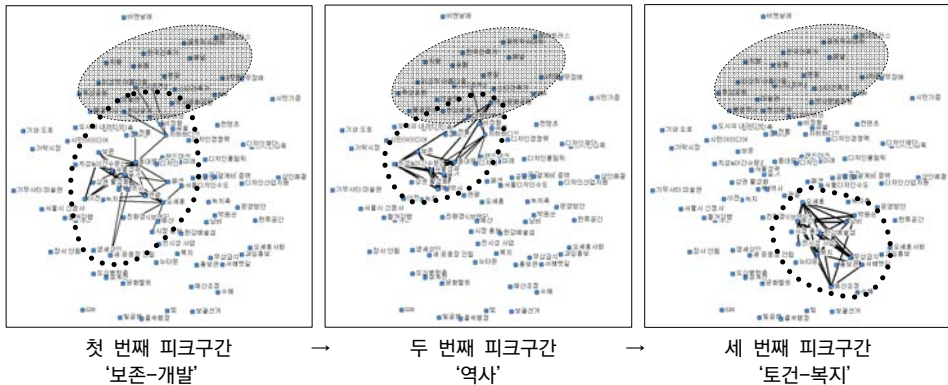


[그림 4-21] 2009.12~2012.03 까지 무슬림커뮤니티 센터를 다룬 기사들의 주요 키워드들의 유사성연결망 ( $r \geq 0.4$ )

잉센터와 국제자유센터를 시민들이 반대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는 허용되지만 그라운드제로라는 ‘장소’ 에는 안 된다는 것이다.

3장에서 이슬람 센터 반대에 대한 기사들의 주요 키워드들로 이루어진 연결망을 통해 어떠한 담론들이 다루어졌는지 볼 수 있었다. 이 담론들의 연결망을 ‘의미의 누적’ 이라는 차원에서 다시 보면, 바로 의미들이 물질적 실체들에 적층되는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그림에서 좌측 하단부에 자리잡은 그라운드제로(groundzero)키워드에서 뻗어나간 모든 연결선들을 통해 종교의 자유, 테러리즘, 희생자, 미국, 폭탄, 이슬람교, 유대교 등 관련된 담론의 모든 의미들이 수렴되어 오는 것이다.

파편화 된 키워드들이 은유적으로 보여주듯이, 개개인의 의견은 짧고 단순할 수 있으며 논의의 깊이도 부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들이 모여 하나의 응축된 담론의 집합을 만들고 다른 담론들과도 연결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 혹은 주변부 어딘가에는 물질적 실체가 있다. 건물이 땅으로부터 솟아올라 모습을 드러내게 되면 제작 과정에서 다루어졌던 담론들은 사람들의 기억과 의식을 통해 건물에 투사될 것이다.



[그림 4-22] 세 번의 피크구간에 따른 중심 담론의 변화를 보여주는 공동참여연결망 (links ≥ 9) (전체 구간의 450개 기사를 바탕으로 시각화 한 후, 각각 해당 구간만 보이도록 한 것임) (진하게 강조한 영역은 물리적 실체 관련 키워드들이 분포하는 곳)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는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세 번의 담론 피크 구간이 있었다. 그리고 그 구간은 각각, ①동대문 운동장 철거와 관련한 ‘보존-개발’ ②운동장 부지에 매장되어 있던 서울성곽, 그리고 치성 및 이간수문과 관련된 ‘역사’ ③ 오세훈 시장 재임기간 동안의 전시성 사업에 대한 예산운용과 관련된 ‘토건-복지’ 라는 세 가지 담론이 중심을 이루면서 형성되었다.

우선, 세 구간에서의 담론들의 연결망과 그 안에서의 중심적 논의 주제를 통해 DDP에 대한 의미가 어떤 차원에서 형성되었는지 알 수 있다. 첫 구간에서의 담론은 동대문운동장이라는 장소를 매개로 DDP와 연결되었다. 두 번째 구간에서의 담론 역시 그 장소에서 발굴된 유구가 담론의 이슈가 되었다. 따라서 처음 두 구간의 중심 담론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물리적 실체(진하게 강조한 타원부분)와도 비교적 가까운 관계를 맺는다. 그런데, 처음의 두 구간이 장소라는 물질적 매개로 DDP와 연결되어 있다면, 마지막 구간은 ‘공사비’ 라는 추상적 차원에서 DDP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디자인을 언급하는 담론 공간과는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서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각 구간에서 다루어진 담론들의 내용을 상기해보면, 사람들이 DDP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개발-보존’ 담론이 주를 이루었던 시기에 DDP는 ‘옛것을 허물고 들어서는 새것’ 이었다. 물론 이것은 양면적인 평가를 내포하기 때문에 긍정/부정을 판별할 수 없지만 ‘역사’ 담론을 거치면서 DDP는 ‘역사적인 것과 대립되는 것’ 이라는 의미를 더하게 되었다. 또한 ‘토건-복지’ 담론에 와서는 ‘무리한 토건사업의 대표적인 사례’ 라는 평가가 이루어짐으로서, 총체적으로 ‘기억과 역사와 복지’ 에 반대되는 의미의 층위들이 모두 누적되었다. 특히 ‘토건

-복지' 담론 구간에서 DDP는 구체적인 실체가 아니라, '4000억원의 세금으로 지어진 DDP', 즉 돈이라는 차원으로 환원되어 다루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DDP는 상세하게 접근하여 다룰 대상이 아닌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예산삭감의 대상' 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만약 현상설계부터 서로 다른 대안들이 대중 담론에서 회자되고 그것에 대해 비교하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하였더라면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운동장구조물을 일부 남겨서 다른 것으로 전용하거나 완전하게 없애는 대안들을 보고 의견을 나누었더라면, 도시의 오래된 건물을 전면 철거하지 않고 어떻게 '재생' 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운동장 구조물이 일부 남았다면, 그 곳을 직접 경험하면서 예측하던 바와 같은지, 혹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면서 평가내릴 수 있을 것이다. 혹은 남겨지지 않았더라도 의사소통과정을 통해 운동장 '대신' 들어서게 된 새로운 공간이 운동장과 비교하여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지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시각의 접근은 DDP가 4000억원이라는 '전체'로서 다루어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었을지도 모른다.

2012년에 들어서 박원순 시장은 DDP를 '시민의 공간' 으로 바꾸기 위해 '청책 워크숍' 등의 참여 과정을 통해 내부 콘텐츠를 새롭게 기획하고 있다. 물질적 실체는 완성 단계에 이르렀지만, DDP에 대한 담론을 '내부콘텐츠' 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참여과정을 통해 수렴된 의견이 실제로 건물에 반영된다면 DDP가 지니는 의미의 층위는 변화할 수도 있다. 제작 과정이 건물의 의미가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볼 때, 아직 제작 과정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 역시 실체와 영향을 주고받아가면서 변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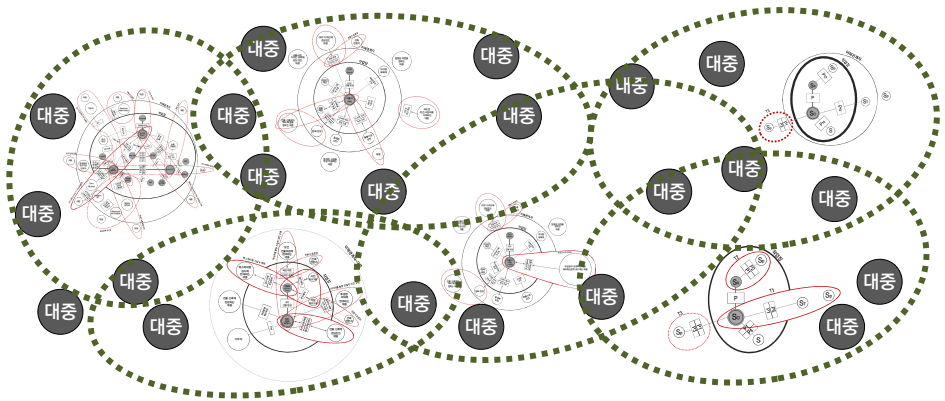
#### 4.2.2. 생산공간들로 이루어지는 공적(公的) 장소의 공공성

이제 토론장과 작업장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생산공간이 아니라, 그 생산공간들이 모여서 이루는 세계 전체로 시야를 확장하여 보도록 하자.

시애틀공공도서관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시애틀에는 전통적으로 참여의 전통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공개설명회와 같은 이벤트에 1,000여명이 참여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전통아래 만들어진 시민들의 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업에 종사하는 시민들로 이루어지는 워크그룹이 운영되었던 것, 그리고 도서관 건립

과정에서의 웹사이트 게시판 이용과 이메일 전화와 같은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은 모두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라운드제로 역시 마찬가지다. 신문사에서 신문지면에 상세한 건립과정을 할애했던 것도 시민들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며, 5,000여명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공청회나 사업 초기에 벌어졌던 단기 워크숍들은 지속적인 경험을 통해 형성되어 온 사람들의 참여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지속적인 경험이란 토론장과 작업장으로 이루어진, 그라운드제로 이전의 생산공간에 관여했던 경험을 말한다.



[그림 4-23] 생산공간들로 이루어지는 공적 장소

하나의 공공건축물을 목표로 하는 작업장이 형성되면 건물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토론장들이 생겨난다. 그렇게 건물이 완성되면서 작업장은 종료된다. 반면 토론장은 완성된 건물의 경험에 대해 말하면서 지속되기도 한다. 혹은 또 다른 건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그 건물에 대한 토론장 또한 생겨날 수 있다. 그런데 건물에 따라 작업장은 다르다 할지라도, 같은 도시일 경우 토론장은 공통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다. 위의 그림에서 점선으로 이루어진 영역이 하나의 생산공간이 포함하는 구성원의 범위라고 한다면, 작업장은 많은 수의 구성원들에게 드러나는 동시에 구성원 한명은 그 사회에 살아가면서 여러 생산공간의 토론장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의 세계가 여러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건물과 여러 건물에 관여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다고 볼 때, 세계 전체를 ‘공적(公的) 장소’ 라고 부를 수 있다. 즉, 우리가 사는 세계는 여러 사람과 여러 건물들이 서로서로 드러나면서 관계하게 된다는 점에서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공적 장소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것이 바로 아렌트가 강조했던 ‘말과 행위’ 다. 그리고 아렌트가 ‘제작 이후의 말과 행위’ 를 강조했다면, 본 연구에서 사례를 통해 보여주었던 것은 바로 제작의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말과 행위였다. 공공공간(public space)을 포함하는 공공건축물을 만드는 과정의 ‘토론장’ 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뿐 아니라 정보를 보고 듣는 일반 대중들이 의견들을 쏟아냈고, 전부는 아닐지라도 이러한 의견들은 건물에 반영되었다. 이것은 ‘공공성’ 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렌트에게 있어서의 공공성은 흔히 건축에서 말하는 ‘공공공간에 대한 물리적 접근’ 의 관점이 아닌, 각기 다른 사회구성원 사이의 말과 행위 즉, 의사소통행위를 통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sup>12)</sup> 따라서 아렌트가 말하는 공론영역(public realm)은 이러한 의사소통행위가 가능하도록 구성원들 사이의 다양성이 전제되는 곳이다.<sup>13)</sup> 그리고 하버마스는 이러한 공간 전체를 ‘공론장(public sphere)’ 이라고 불렀다.

아렌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론 영역(public realm)은 누구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공개성(publicity)과, 동시에 우리의 세계가 공동(common)의 것이라는 합의를 바탕으로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in-between) 존재하는 공동세계는 개별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과정과 상관없이 영속적이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가 유한한 존재라는 자각 때문에 삶의 유한성을 초월하여 무엇인가는 영속적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부터 공동의 세계에 참여하게 된다.<sup>14)</sup>

그런데 만약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두 같은 생각을 하거나 하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면 자신과 타인의 구분은 무의미하게 된다. 즉, ‘사람들은 타인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며, 타인도 자신을 보거나 듣지 못한다’<sup>15)</sup> 그러므로 공동 세계는 관점의 다양성 속에서만 실존한다.<sup>16)</sup> 그리고 사람들의 관점을 다양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즉 ‘말과 행위’ 가 된다. 그러므로 아렌트에게 있어서 말과 행위는 노동과 작업처럼 목적성을 가지고 추구되는 활동을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의 세 번째 조건임과 동시에, 다양성을 통해 공동 세계를 가능하

12) Hannah Arendt, 『인간의 조건』, 이진우·태정호 역, 파주 : 한길사, 1996, pp. 254-270

13) Ibid., pp.102-112

14) Ibid., pp. 105-110

15) Ibid., p.110

16) Ibid., p.111

게 하여 ‘공론 영역’을 만들어주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공적 장소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말과 행위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나와 타인의 차이를 인정하는 다원성(plurality)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다원성이란, 토론장의 담론형성 과정에서 구성원 모두를 하나의 의견으로 수렴시키는 것이 꼭 중요하지는 않다는 점을 말해준다. 오히려 관점이 차이가 있어야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시애틀공공도서관의 경우, 시민투표를 통해 전례 없는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도서관 신축을 결정하고 램콜하스에게 디자인을 맡겼다. 디자인을 처음 공개하면서부터 건물이 완공된 후 까지도 지속적인 논쟁의 도마 위에 올랐던 것은 건물의 독특한 외관에 관한 문제였다. 전통적인 시애틀의 도서관 건물이 지니고 있었던 지역적 모티프와 관계가 멀다는 의견과 주변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투명성을 갖추으로써 지역성을 새롭게 재해석했다는 의견이 대립되었다. 논쟁은 주로 신문의 논평을 통해 진행되었는데 결국 대립된 의견이 한 곳으로 수렴되는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논쟁이 지속되는 동안 시애틀 시민들은 ‘지역성(regionality)’을 다양하고 심도 깊은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었다.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역성을 논의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 콜하스의 안을 찬성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다수였다든가 아니라고 든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설령 ‘다수의 의견’이 수렴된다고 하더라도 소수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것은 아렌트가, 세계에서 내가 타인과 구별되는 자아로서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성질로 강조했던 것이다. 내가 남과 같은 의견을 가진다면 공동세계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울이라는 공적 장소에서는 다원성이 잘 드러나지 못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라는 생산공간을 둘러싸고 사람들은 개발에 직면한 운동장의 보존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지니고 있었지만, 이러한 생각들은 공개적으로 왕성하게 오고가지 못했다. 토론장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문제를 공론화 시키면서 작업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충분하지 못했다. 문제에 대한 말과 행위가 충분히 오고가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건물에 대해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각을 가질 기회 또한 충분히 얻지 못했다.<sup>17)</sup>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한 만큼, 사람들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라는 생

17) 이처럼 공적 장소의 다원성이라는 문제는 바로 앞장에서 거론하였던 ‘장소’의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다.

산과정을 통해 토론장의 주체로서 성숙해지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다음 기회는 있다. 서울이라는 공적 장소에는 또 다른 공공건축물이 연이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매번 소홀할 수는 없다. 생산공간 하나하나가 모여서 공적 장소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생산공간에서 배울 수 있는 정도는 동일하지 않다. 연구의 시작부분에서 사례 선정의 이유를 밝혔듯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문제가 되는 만큼 한편으로 토론장의 대상으로서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이처럼 토론장과 작업장으로 이루어지는 생산공간들은, 건물과 구성원 전체를 포괄하는 공적 장소에서 건물을 통해, 그리고 건물에 대해 사람들이 의사소통함으로써 장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토론장 없이 작업장으로만 이루어지는 공적 장소에서도 사람들은 의사소통할 수 있지만, 건물을 만드는 생산과정과 관계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장소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 즉, 의사소통으로서의 공공성은 높일 수 있을지 몰라도,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나 불특정 다수의 건물경험에 대한 공공성은 여전히 대중과는 단절된 채 작업장의 심사숙고를 거쳐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남게 된다.

이제 토론장과 작업장의 집합이 만들어내는 공적 장소가 건조환경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기회를 주는지 알게 되었다. 하나의 생산공간 안에서의 개별 토론장은 생산과정에서의 갈등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했으며, 하나의 생산공간 전체로 볼 때 토론장과 작업장은 사람들과 생각이 적층되는 ‘장소’를 만드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다수의 생산공간들로 이루어지는 공적 장소에서는 그 생산공간 여럿과 관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어 보아야 하는데, 생산공간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 특히 물리적 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면서 건조환경과 사람 모두의 다원성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토론장과 작업장이 다수 만들어진다고 해서 공공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즉, 공적 장소는 항상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단지 기회제공의 차원이기 때문에 공적 장소가 어느 정도의 공공성을 지니는가는 달라질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생산공간 주체들의 노력이다. 이와 관련하여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우선 작업장과 관계한 토론장의 대화에서 다수의 의견을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 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의사소통에서의 원칙이기도 한데, 고길섭 역시 ‘공공(성)이 ‘다수’ 로 치환되어서는 안된다’ 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sup>18)</sup> 고길섭은 아이리스 영(Iris Young)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보편이라는 이름으로 삶의 특수성을 억압하며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공공영역이 아니라, 이에 의해 배제 되고 억압된 특수한 집단들의 차이를 모두 포함하는 공공’ ,즉 ‘이질적 공공(heterogeneous public)’ 을 건설하자고 주장한다.<sup>19)</sup> 각각 다른 입장 중 한 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전체 의견이 한가지로 동질화되는 것도 아닌 상태, 그런 공공성이 바로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공공성이다.<sup>20)</sup>

물론, ‘공공(성)이 다수는 아니다’ 라는 말이 ‘전문성 있는 소수’ 의 의견을 중요하게 다루자는 것은 아니다. 앞의 분석에서 전문가 토론장의 역할에 대해 별도로 구분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사업 초기에 재건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가능한 계획안들을 만들어 전시하기도 하였으며, 비용과 지역성, 자존감, 역사처럼 물리적 요소들과 지시적 대응관계에 없는 담론들을 물리적으로 구체화하여 대중에게 설명하기도 했다. 그만큼 그들은 ‘전문성’ 이 있기 때문에 대중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능숙하게 제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토론장이 대중의 토론장보다 우월하거나 가치의 비중이 높게 다루어져서는 안된다. 일찍이 하버마스가 부르주아 사회에서의 ‘공론장(public sphere)’ 성립 과정에 대해 중요하게 포착했던 점은, 그것이 국가 중심의 ‘과시적(representative) 공공성’ 과 구분되어 비판적 공개성(publicity)의 성질을 지녔다는 것이었다. 즉, 토론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 홍보의 목적으로 과시적으로 일반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여 여론을 만들어내는 공개적 합의과정을 거쳤다는 점이였다.

18) 고길섭, "사회운동의 새로운 가로지르기 : 공공영역과 공공성의 정치," 『문화 과학』, 23 (2000) : 32-60, p.51

19) Ibid., p.48

20) 이러한 ‘다원성’ 에 대한 논의는 오늘날 영향력있는 사상가들의 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근대성’ 을 고수하는 하버마스와는 반대 입장에 있지만, 브루노 라투르(Bruno Latour)도 ‘공공적인 것(public)이란 특정한 하나의 성격으로 대표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구성원들이 제 역할을 하면서 전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이라고 말한 바 있다.

Bruno Latour, "The Ghost of the Public," *Domus*, 873 September (2004) : 56-57, p.57

글에서 라투르가 강조한 것은 public 의 속성과 더불어, public 역할을 하는 주체가 사람일 수도 사물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공공 건축물 설계 과정에서 현재의 공청회 제도가 형식적 구색은 갖추었더라도 실제적으로 ‘알리는 것’에 무게가 있을 경우 이는 ‘과시적 공공성’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사적 개인들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비국가적이고 비경제적인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일반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비공공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담아낼 수 있는, 즉 ‘비판적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 되는 것이다.<sup>21)</sup> 전문가토론장의 의견을 일반대중의 토론장보다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은 작업장 주체들만의 협의를 통해 건물을 만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만약 제작 과정에서의 담론이 없다면 사람들은 건물을 만드는 것이 막연히 어려운 것이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전문가들의 시각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제작 과정에서의 토론장과 작업장의 긴밀한 관계는, 사람들로 하여금 건조 환경을 이해하는 관점, 즉 물리적 실체를 어떻게 생각과 말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교육의 과정이기도 하다. 이 교육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등한 사람들과 마주하면서 스스로 관심을 기울인 만큼 얻는 것이다.

그리고, 제작과정의 토론장과 작업장의 긴밀한 관계가 이후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예상했던 바’와 ‘실제 건물’이 다르다면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예상하지 못했던 바’를 실제 건물에서 경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제작단계에서 부정적 담론이 형성되었지만, 완공 이후에 재평가 받을 수도 있다. 공간에서의 경험과 완성도 높은 건물의 실체는 과정에서의 부족함을 일정정도 만회할 수도 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물에 대한 경험과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 주변의 맥락이 변하고 사회적인 상황이 변화하면 건물의 위상이 달라진다. 또한 토론장의 주체들도 변하고, 담론에 참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어 ‘장소’는 변할 수 있다.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정황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도록 처음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 즉 소통의 창구를 열어놓는 것이다.

시애틀공공도서관에서는 개관 이후에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디자인 개선에 반영하는 것과 같은 공공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졌다. 일례로, 북스파이럴(Book Spiral)에서 사람들이 공간을 잘 인지하지 못하여 길 찾기에 혼란을 느낀다는

21) Jürgen Habermas, 『공론장의 구조변동』, 한승완 역, 파주 : 나남, 2001. p.51,345,361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BMD(Bruce Mau Design)에서 새 그래픽 신호체계를 제작하기도 했다.

컨설턴트에게 도서관의 경제성 평가를 의뢰하기도 했는데, 그 보고서에서 주중 아침시간과 일요일 전체에 대해 도서관 개관시간을 연장시킬 경우, 주변 음식점들의 수익성 증대에 기여할 것이며 음식점 운영자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이 제안되었다.<sup>22)</sup> 도서관측은 그들과 협의를 통해 운영시간을 연장했으며, 그 대가로 일종의 기부금을 제공받아 시 재정에서 삭감된 도서관 운영예산을 보충하기도 했다.<sup>23)</sup> 공공시설이 지역의 상업시설 운영자들과 전략적으로 상생관계를 이루어 낸 것이다.

2010년에도 ‘모두를 위한 도서관(Library for All)’ 프로그램을 갱신하는 ‘전략계획안(Strategic Planning Process)’을 수립하기 위하여 5번의 커뮤니티 오픈하우스, 2번의 공청회, 이용자별 토의 그룹 조직, 직원설문조사 등을 진행했으며, 이용자에 대한 광범위한 설문조사도 실시했다.<sup>24)</sup> 도서관은 물리적 건물뿐만 아니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도 시민들과 탄탄한 신뢰관계를 유지해 나갔던 것이다.

즉, 건물이란 작업장 주체, 그리고 전문가와 일반 대중을 포함한 토론장 주체들 간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내가 사는 세계’ 즉, 나를 둘러싼 건조환경의 한 부분에 ‘나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의견의 반영 과정에서 나와 동등한 사람들과 의견을 주고받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물리적 공공영역(public space)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론장(public sphere)를 통해 이루어낼 수 있는 공공성(publicness)이다.

물론 말과 행위를 교류하는 것이 공공성을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라운드제로에서의 무슬림 커뮤니티센터 논쟁은, 그라운드제로가 타자에게 배타적 장소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진정한 공공성이란 담론의 차원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나와 다른 존재에 대해 열려 있어야 한다.

22) [http://www.spl.org/Documents/branch/CEN/SPLCentral\\_Library\\_Economic\\_Impacts.pdf](http://www.spl.org/Documents/branch/CEN/SPLCentral_Library_Economic_Impacts.pdf) p.30  
참고

23) Ari D. Seligmann, *Architectural Publicity in the Age of Globalization*, Diss. UCLA, 2008, Ann Arbor : UMI, 2008, p. 261

24) <http://www.spl.org/about-the-library/strategic-planning> 참고

### 4.3. 소결

이제까지 토론장과 작업장의 역할을 생산공간 내부, 생산공간 전체, 생산공간들의 집합이라는 세 가지 크기의 범위에서 살펴보았다.

첫 번째는 하나의 생산공간에서 형성되는 개별 토론장의 역할이다. 세 가지 사례에서 드러난 작업장에 관계하는 토론장의 역할을 종합하기 위해,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들을 중심으로 유형화와 일반화의 과정을 거쳤다.

개별 토론장들은 주체간의 갈등관계를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생산과정을 단계별로 보았을 때, 사업이 시작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을 토론장이 형성되어 해결해 준다. 그 과정에서 작업장은 토론장의 요구조건들을 받아들이면서 점차 완성되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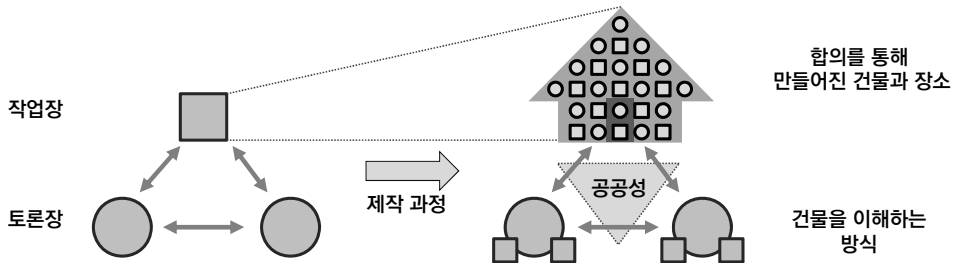
토론장이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대중 및 이해관계자와 작업장 내부의 주체들이 토론장 안에서 직접 협상하는 요구와 수용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그리고 미디어 보도로 토론장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때 대중은 직접 관계하지 않지만 사태의 추이를 바라보는 관찰자 역할을 한다. 미디어 보도로 이루어지는 간접적 토론장에서 직접적으로 대중과 작업장 주체들이 대면하는 일은 없지만, 생산공간에서 주체들의 관계가 복잡해질 때는 직접적 토론장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 과정에서 작업장 내부와 관계 맺지 못하는 토론장의 누적된 갈등은 다른 이슈들과 결합되면서 작업장에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지속적 위험요소로 남아있게 된다. 또한 작업장 내부에서 발주처에서 건축가로 대중과의 협상 권한이 이양되면서 토론장에서 대중과의 갈등구조를 이루는 역할을 건축가가 맡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토론장의 이양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 생산공간이,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에 집중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생산공간이 처한 조건들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발생한 갈등관계를 중심으로 토론장을 만들고자 할 때는, 이해관계자의 유무나 발주처 내부 조직의 복잡함에 따라 다르게 대응하여야 한다. SPL유형의 경우는 별도의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작업 자체에 집중하여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토론장을 구성할 수 있다. 반면 DDP유형의 경우는 사업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이들과 발주처 혹은 대중을 연결하는 토론장을 만들어 사업 진행이 수월하도록 갈등을 해결해주어야 한다. GR유형의 경우는

발주처 조직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을 포괄하는 토론장을 만들기는 힘들다. 더구나 발주처 조직 간의 분쟁은 대중으로 하여금 신뢰를 잃게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간접적 토론장을 만들어 대중으로 하여금 생산과정의 경과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각각 생산공간 전체와 생산공간들의 집합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역할에 대한 것이다. 생산공간 내부에서의 개별 토론장이 문제 해결의 측면과 관련되어 있었다면, 이것은 장소와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하나의 생산공간이 만들어내는 장소는 작업장에서 만들어지는 건물, 그리고 토론장의 주체인 일반 대중이라는 이중적 시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림 4-24] 생산 과정 : 장소성이 공적으로 형성되는 과정

우선 만들어지는 건물의 입장에서 볼 때, 건물이란 한정된 작업장의 주체들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중과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의사소통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사람들은 만들어지는 건물의 제작과정에 참여하면서 건물에 대해 이해하는 방법을 체득하게 된다. 건물을 중심으로 말하자면, 건물에는 사람들이 투사하는 사회적 의미들이 누적되어 간다. 그리고 생산공간들의 집합에서 이 과정들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건물을 매개로 한 의사소통행위는, 건물과 사람으로 이루어진 공적 장소의 공공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요약하자면, 현대도시에서의 장소성이란 물리적 실체와 더불어 그 실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의 의사소통행위로 형성되어간다. 이 ‘두 가지’가 장소를 이루어낸다 함은, 줄곧 구분하여 오던 실체와 인식이라는 이분화 된 차원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건물의 제작과정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장소를 이루어내는 두 가지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점진적으로 형성되어간다는 사실이다.

## 제 5 장 결론 : 토론장과 작업장으로서의 건축생산과정

본 연구는 물리적 실체인 건물을 직접 만드는 행위와 더불어 건물에 대해 말하는 행위도 작업 과정을 보다 신중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생산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의 진행을 위해, 건물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관계의 구성원인 발주처와 건축가 및 시공자의 전문영역을 ‘작업장’ 이라고 이름붙이고, 건물에 대해 말하거나 관련된 여러 주제로 확산되는 대중 및 전문가의 의사소통의 영역을 ‘토론장’ 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리고 건물의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담론과 작업의 영역을 확장시켜나가는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물론, 토론장이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100여 년 전에 아돌프로스가 로스하우스를 설계했을 때도, 대중은 주변의 장식적 외관과 어울리지 않는 건물의 미미한 입면에 대해 항의했으며 언론에서 이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신기도 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때때로 건물이나 공공예술작품의 문제점에 대한 담론의 장이 형성되어 사람들은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토론의 결과는 건물에 반영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특별히 ‘토론장’ 이라는 개념을 상정한 것은, 과거의 담론이 건축가의 표현과 대중의 반응이라는 범위에 국한되었던 것에 비하여, 오늘날은 세계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생산을 둘러싼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담론의 주제 또한 표현과 반응의 차원에서부터 사회·정치적인 문제로 확장되어 나갔기 때문이다.

현상을 해석하는 이론적 논의도 변화되었다. 과거에는 물리적 작업 자체에 중점을 두거나 작업과 토론을 분리된 순차적 과정으로 보았다면, 오늘날에는 건물이 만들어지는 복잡한 생산조건을 다루거나, 작업 과정에서 그러한 조건들을 담아내는 의사소통을 강조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널리 알려지는 건물이 지역 공동체에게 가져다주는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연구들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생산에 관련된 주체와 의사소통의 차원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과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토론장에서 이루어지는 담론의 확산현상과 담론을 증폭하거나 유도하는 미디어의 작용, 그리고 토론장에서 이루어지는 전문가의 역할을 염두에 두고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로서, 널리 알려진 동시에 건립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치·사회적 문제들이 관련되었던 국내외의 공공건축물인 시애틀 공공도서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그라운드제로의 세 가지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주요 분석 자료였던 신문기사들에 대한 분석방법론으로서 연결망 분석(network

analysis)을 사용하여 건물과 그에 대한 담론이 연관되며 확장되어가는 양상을 한눈에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였다.

시애틀공공도서관의 토론장에서는 어떠한 모습의 도서관을 만들 것인가가 주요한 논의의 주제였으며 이국의 스타건축가와 지역성의 문제, 책 읽는 공간의 환경, 공사비와 기부 등의 문제로 담론이 확장되어 갔다. 작업장의 주체와 대중이 직접 만났던 워크그룹에서는 내부 시설 배치의 문제가 주로 오고갔으며, 설계 초기의 공개설명회를 통해 건축가는 대중에게 건물의 개념과 형태에 대해 설명하였다. 미디어에서는 건물에 대한 기대와 비판이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전문가와 평론가의 시각을 통해 외관의 모습이나 주변 가로와의 조화, 서가 공간의 경사로, 장서공간의 부족에 대한 문제들이 거론되었다. 미디어에서 드러났던 비판적 시각에 자극받은 시민들은 항의 서한이나 전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장에 개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토론장은 주로 설계의 초기에 활성화 되었으며, 비록 건물의 주요한 개념과 틀은 변하지 않았지만 토론장에서 논의된 많은 내용들이 설계가 진행되면서 차차 작업장에 반영되어갔다. 그리고 시민들은 건물과 주변의 조화라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면서, 어울림이라는 것이 건물의 형태와 장식에 대한 차원 뿐 아니라 내부에서의 조망과 채광, 즉 지역의 풍경과 기후라는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함으로써 해석의 시야를 확장하여 나갔다. 또한 작업장에서 마련한 서가의 경사로 모형 체험 행사를 통해, 시민들은 상상했던 경사로의 느낌과 실제 경험을 비교해볼 수도 있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토론장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크게 세 가지의 문제가 다루어졌다. 첫 번째로는 사업의 초기에 해당 부지에 있던 동대문운동장의 철거와 기존 상인의 이주를 둘러싼 개발과 보존의 문제가 거론되었다. 그 과정에서 운동장을 보존하자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으나, 서울시는 운동장을 철거하고 상인을 이주시키는 방향으로 결정하였다. 두 번째로는 사업 도중에 예상보다 과거의 유적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면서 역사의 복원 문제가 거론되었다. 유적들은 이전 복원 되었으며 하나였던 전체 건물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역사문화공원으로 분리되어 명명되었다. 세 번째로는 사업의 후기에 무상급식이라는 외부의 정치적 문제가 개입되면서 서울시의 부족한 복지 예산과 지나친 토건 예산이 대비되며 도마 위에 올랐다. 그 결과로 시장이 교체되었으며, 그에 따라 사업의 1년 예산이 삭감되고 공기가 지연되면서 디자인에서 체험과 참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시설의 성격이 변화되었다.

한편 작업장에서는 스타건축가인 자하하디드가 건물의 설계를 진행하였는데, 주변과 조화롭지 못하며 과거의 기억을 단절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토론

장에서 크게 공론화되지 못한 채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현상설계에서 제시된 다른 응모작들을 되돌아볼 때, 자하하디드 설계의 문제로 지적되었던 조화와 기억에 대한 것이나 토론장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졌던 보존과 역사복원의 문제는 상당 부분 작업장과 의사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토론장과 작업장은 유사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었으나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전개 속에서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디자인에 대해 부분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지되지 못했다.

그런데 건물이 완공될 무렵 외부의 정치적인 사건으로 작업장의 영역이 토론장으로 열리면서 한 번도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던 ‘무엇을 만들 것인가’의 문제가 공론화 되었다.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및 일반 대중과의 소통은 이루어졌지만 이미 건물의 물리적 형상이 완성되어 가는 까닭에 성공을 담보해주지는 못한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사례는 적절한 시기에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토론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작업을 더 수월하게 해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그라운드제로의 토론장에서는 사업에 대한 방향성에서부터 마스터플랜과 추모공원에 대한 결정, 공사비와 디자인, 역사 보존, 윤리와 종교 같이 물리적이면서 사회적 주제들이 폭넓게 다루어졌다. 미디어를 통해 상세한 작업장의 진행상황이 드러나는 한편, 집중된 담론 수렴 이벤트를 통해 일부 시설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갔으며,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은 시위와 같은 단체행동으로 작업장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토론장은 전체 부지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전체 배치, 건물의 규모, 비용결정에 따른 세부적 디자인, 나아가서는 부지 주변의 건물 입지에까지 작업장에 영향을 끼쳤다.

그라운드제로는 사업의 초기에 ‘무엇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대중의 합의를 ‘추모’와 ‘자존심’라는 두 가지로 이끌어냈다. 이 합의 과정은 5,000여명이 모인 대규모 공청회나 뉴욕과 그 주변에서 이루어진 수백개의 소규모 워크숍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추모’는 직접적으로 추모공원을 만드는 일과 전체적으로 상업공간의 비중을 줄이는 것에 관계되었고, ‘자존심’은 1WTC를 통해 ‘높이’라는 요소로 드러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사업에 관계된 발주처간의 권리 분쟁이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중 합의로 이루어진 마스터플랜의 많은 부분이 수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모’와 ‘자존심’이라는 두 가지 원칙이 끝까지 지켜졌고, 사업진행에 대한 미디어의 자세한 보도를 통해 대중은 벌어지는 복잡한 상황을 관찰하고 수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업 자체의 안정성을 위협받는 일은 없었다.



세 가지의 사례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방식은 여러 가지로 드러났다. 첫째, 워크그룹과 같이 토론장의 주체들이 일정기간동안 작업장에 참여하여 긴밀하게 의견을 주고받는 경우다. 둘째, 대규모 공청회나 워크샵처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담론을 수렴하는 경우다. 셋째, 미디어를 통해 작업장의 정보를 얻는 동시에 현상을 관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경우다. 넷째, 시위 및 단체 행동을 통해 작업장에 직접 개입하려는 경우다.

그리고 이러한 작용을 통해 작업장의 정보가 토론장에 공개되었으며 토론장의 요구사항은 작업장에 전달되었다. 토론장의 요구사항이란 평면의 요소, 재료, 시설프로그램과 같이 건축물의 물리적 요소를 지시적으로 언급하는 것들도 있었다. 그리고 보존, 보안, 자존감, 주변과의 조화처럼 추상적 가치에 대한 것들도 있었다.

여기서, 추상적 가치가 작업장으로 전달될 때, 혹은 비용과 보안이라는 문제를 토론장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전문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들은 여러 가지 해설을 통해 추상적인 주제들을 구체적인 건물의 요소들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했다.

이처럼 사례에서 드러났던 구체적인 현상들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이 영향을 주고받는 방식을 종합해 볼 때, 세 가지 사례 모두 어느 정도의 공통된 체계를 갖추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제작과정에서 오고가는 대중의 말과 행위는 발주처 및 건축가와 같은 생산주체들의 영역과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말할 수 있다. 즉, 공공건축물의 생산과정은 작업장과, 작업장에 대한 상대적 영역으로서 ‘토론장’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동시에 세 가지 생산공간 - 건물의 생산에 관련된 모든 주체들이 활동하는 토론장과 작업장을 포함하는 물리적·추상적 공간 - 들은 전개 양상에서의 차이점들을 드러냈다. 이 차이는 우선 생산공간이 처한 조건에서 기인한다. 세 가지의 사례는 세계 시장에서 도시가 지니는 위상, 미디어에서 건조환경을 다루는 정도, 각 사업이 대중의 이목을 폭넓게 끄는 정도, 대상부지가 위치한 지리적 조건들에서 모두 차이점을 드러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조건 하에서 생산 주체들의 결정이 프로젝트의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시애틀공공도서관에서 공공도서관장 데보라 제이콥스는 워크그룹을 만들고 공개설명회를 기획하여 대중과의 소통에 대한 기본적인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디자인의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조건들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건축가 램콜라스는 주어진 기회를 통해 디자인을 대중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나갔으며, 미디어는

작업장과 토론장을 이어주는 매개 역할을 특독히 했고, 대중 역시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도서관 건립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라운드제로에서도 사업의 주요 결정권자가 맨하탄의 주변 부지와 이해관계가 적은 항만청과 민간 개발업자인 실버스타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시민의 권리를 대변하는 로어맨하탄개발공사(Lower Manhattan Development Corporation, 이하 LMDC)를 초기에 만들었다. 비록 LMDC가 전체 구도상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은 아니었지만 리스닝투더시티와 같은 이벤트와 추모공원 현상설계의 진행은 모두 LMDC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는 사업이 끝나가도록 이러한 기회가 마련되지 않았으며 지리적 맥락의 조건과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채 진행되다가 한 차례 위기를 맞기도 했다. 이처럼 사업의 커다란 방향이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 움직인다고 할 때 발주처의 장(長)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하여 기회가 만들어진다면, 그 이후는 건축가와 전문가, 미디어, 그리고 대중과 같은 모든 생산관련주체들의 몫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주체들의 역할에 보다 집중하여 생산구조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 개의 사례를 주체들의 갈등관계를 중심으로 표현한 일반화 모형으로 만들어 보았다. 갈등의 시작과 토론장의 형성, 그리고 갈등의 해소와 요구조건의 수용으로 이어지는 생산공간의 공통적 전개양상 속에서도, 각 프로젝트는 각각의 특수한 생산구조를 드러냈다.

시애틀공공도서관은 특별한 이해관계자가 없었기 때문에 작업장 내부에까지 워크그룹과 같은 시민참여조직을 만들면서 작업 자체에 집중하여 생산공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주처의 많은 권한을 건축가에게 이양하여 디자인에 대한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복잡한 이해관계자가 있었고 그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사는 디자인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사업이 전개되면서 토론장은 이해관계자들을 포용하지 못하거나 작업장의 경계를 뚫지 못하고 형성되었으며, 디자인도 작업장 내부에서만 다루어졌다. 그라운드제로는 복잡한 발주처 조직과 역시 복잡한 이해관계자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사업 전체적으로 볼 때, 대중의 직접 참여 이벤트는 초기를 제외하고는 없었지만, 미디어가 만들어 낸 간접적 토론장들이 전체의 거대한 생산구조를 유지해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때, 생산공간 안에 만들어지는 개별 토론장들은 주체 간의 소통을 이루어내면서 갈등관계를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방식은 기본

적으로 발주처 주체와 대중을 포함하는 토론장이 형성됨으로서 이루어졌으며, 경우에 따라 발주처와 대중은 직접 연결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관찰하는 위치가 되기도 했다. 또한 그 관계의 사이에 전문가가 개입하여 두 주체의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기도 했다.

토론장과 작업장의 역할은 갈등관계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생산공간 단위에서도 도출해 볼 수 있다. 사람과 건물의 두 가지로 생산공간을 나누어 볼 때, 사람들은 만들어지는 건물의 제작과정에 참여하면서 건물에 대해 이해하는 복합적 방법을 체득하게 된다. 그리고 건물을 중심으로 말하자면, 건물에는 사람들이 투사하는 사회적 의미들이 누적되면서 물리적 실체를 갖춘 공적 장소로 완성되어 간다. 그리고 보다 시야를 확장하여 세계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생산과정들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건물을 매개로 한 의사소통행위는, 건물과 사람으로 이루어진 공적 장소의 공공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토론장과 작업장의 역할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끌어내 봄으로써 왜 우리가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점에서 생산과정을 바라보아야 하고, 왜 토론장을 풍성하게 만들어 건물에 대한 담론을 공론화 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와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완성된 건물과 장소가 건조환경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라면 주체들은 여러 생산공간에 참여하면서 공동의 전체를 이룬다. 즉, 서로 대면하면서 동등하게 주고받는 교육과정을 통해 건물 해석의 복합적인 틀을 갖춘 대중은 또 다른 건물의 생산과정에서 보다 성숙한 토론장의 주체가 되어갈 수 있다. 그리고 현대의 복잡해진 생산조건에서는 그 이해관계들을 대변하는 생산주체들이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생산조건이 부과하는 잠재적 문제점 또한 해결해나갈 수 있게 된다. 물리적 공공공간만으로 공동체의 삶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대도시에서는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토론장과 작업장으로서의 건축생산과정 즉, 공공공간(public space)에 대한 담론을 다루는 공론장(public sphere)의 의의가 된다. 한나 아렌트의 생각을 빗대어보면 제작(work)을 통해 만들어진 물리적 공간(space)이란 공론장의 의사소통을 통해 그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대상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제작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과 행위를 통해, 사람은 건물을 만들고, 건물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다시 서로를 만들어간다. 이러한 순환과정을 통해 사물과 사람으로 이루어진 공동의 세계는 성장해가는 것이다.

이제 토론장과 작업장으로 이루어지는 건축생산과정의 의의를 이끌어 내 보았다면, 마지막으로 실행에서의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 거론해야 한다.

첫째, 토론장이 풍성하게 만들어져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오가야 한다. 생산의 조건이 다변화되고 이해관계가 이루는 갈등이 복잡할수록 그 문제들에 대응하는 개별 토론장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즉, 우선은 폭넓은 주제에 대한 공론화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토론장은 작업장과 연결되어야 한다. 토론장이 풍성하게 만들어져서 다양한 문제에 대한 논의들이 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업장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담론이 생산의 힘을 얻지 못하고 비판에서 그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토론장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공식적인 담론의 창구가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사례들에서, 말하는 행위도 충분히 생산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남은 문제는 ‘연결’을 효과적으로 이루어내는 기술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셋째, 연결의 ‘시점’이 중요하다. 시애틀공공도서관과 그라운드제로 모두 초기에 토론장과 작업장이 연결되어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넷째,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분석한 사례에서도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는 일은 없었다. 그 보다는 의견이 오가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입장의 차이를 확인하고 스스로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적 장소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생산공간에 참여할 기회는 지속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토론장의 의견이 작업장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시애틀공공도서관에서 콜하스는 건물의 중요한 뼈대에 있어서는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켜 나갔다. 만약 토론장에서 논의된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전제가 있었다면 밝고 쾌적한 도서관의 실내공간은 없었을 지도 모른다. ‘연결’은 중요하되, ‘반영’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담론의 내용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주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발주처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발주처로부터 의사소통의 권한을 이양 받았을 때, 건축가도 대중과의 의사소통에 능숙해야 한다. 그리고 미디어의 정보전달 기능도 사업이 복잡해질수록 중요하며, 전문가는 작업장과 대중의 사이에서 친절한 번역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물론 대중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이어야 한다. 이러한 주체들의 역할은 생산의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및 단행본에 수록된 글

- 김성홍, 『도시건축의 새로운 상상력』, 서울 : 현암사, 2009
- 사이토 준이치, 『민주적 공공성』, 윤대석·류수연·윤미란 역, 서울 : 이음, 2009
-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 파크 건설을 위한 국제지명초청설계경기』, 서울 : 도서출판 에이엔씨, 2007
- 안형준, "ANT 관점에서 본 한국 최초 우주인 논쟁," 『인간·사물·동맹 :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사이언스』, 홍성욱 엮음, 서울 : 이음, 2010, 227-257
- 양현미, "예술에서 <퍼블릭>개념의 변화에 대한 고찰 : 공공미술을 중심으로," 『공공성 :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접근』, 파주:미메시스, 2008 : 257-282
- 이승중, 김혜정, 『시민참여론』, 서울 : 박영사, 2011
- Arendt, Hannah, *The Human Condition*,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8
- , 『인간의 조건』, 이진우·태정호 역, 파주 : 한길사, 1996 (위 책의 번역본)
- Bijker, Wiebe E. 외, 『과학기술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가 : 자전거, 형광등, 미사일, 전기자동차, 항공기의 일생을 통해서 본 현대사회』, 송성수 편저, 서울 : 새물결, 1999
- Calinescu, Matei,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이영욱 외 역, 서울 : 시각과 언어, 1998
- Eastering, Keller, *Global Architecture and Its Political Masquerades*, Cambridge : The MIT Press, 2005
- Faga, Babara, *Designing Public Consensus : The Civic Theater of Community Participation for Architects, Landscape Architects, Planners, and Urban Designers*, New Jersey : Wiley, 2006
- Frampton, Kenneth, "The Status of Man and the Status of his Objects : A Reading of The Human Condition," *Modern Architecture and the Critical Present*, Ed. Kenneth Frampton, London : Architectural Design, 1982 , 6-19
- , "Toward a Critical Regionalism : Six Points for and Architecture of Resistance," *The Anti-Aesthetic : Essays on Post-Modern Culture*, Bay Press, WA, 1983
- , *Megaform as Urban Landscape*, 1st ed., Michigan : Univ. of Michigan, 1999
- , "On the Predicament of Architecture at the Turn of the Century," *Labour, Work and Architecture*, New York : Phaidon, 2002,
- , and Stan Allen and Hal Foster, "Stocktaking 2004 : Questions about the Present and Future of Design," *The New Architectural Pragmatism*, Minneapolis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7 , 101-135
- , "Introduction : The Work of Architecture in the Age of Commodification," *Commodification and Spectacle in Architecture*, 1st ed., Minneapolis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5, pp. ix-xviii
- Habermas, Jürgen, 『공론장의 구조변동』, 한승완 역, 파주 : 나남, 2001
- Koolhaas, Rem, "The Generic City," *S,M,L,XL*, Ed. Jennifer Sigler, New York, NY: The Monacelli Press, 1995
- Kubo, Michael and Ramon Prat Eds., *Seattle Public Library*, Barcelona:Actar, 2005
- Latour, Bruno,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홍철기 역, 서울:갈무리, 2009
- 외, 『인간·사물·동맹 :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사이언스』, 홍성욱 엮음, 서울 : 이음, 2010
- Lefaivre, Liane, "Critical Regionalism : A Facet of Modern Architecture since 1945," *Critical Regionalism : Architecture and Identity in a Globalized World*, Ed. Liane Lefaivre and Alexander Tzonis, New York : Prestel, 2003, 22-55
- Long, Christopher, *The Looshaus*, New Heaven and London : Yale University Press, 2012
- McNeill, Donald, *The Global Architect : Firms, fame and urban form*, New York & London : Routledge, 2009

- Mommaas, Hans, "City Branding : The Necessity of Socio-Cultural Goals," *City Branding: Image Building & Building Images*, Rotterdam : Nai Publishers, 2002
- Moore, Steven A., "Technology, Place, and Nonmodern Regionalism," *Constructing a New Agenda : Architectural Theory 1993-2009*, Ed. A. Krista Sykes, New York :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010
- Negri, Antonio and Michael Hardt, 『제국』, 윤수중 역, 서울: 이학사, 2001
- , 『다중 : 「제국」 이 지배하는 시대의 전쟁과 민주주의』, 조정환 외 역, 서울 : 세종서적, 2008
- Olds, Kris, *Globalization and urban change : capital, culture, and Pacific Rim mega-projects*, Oxford &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OMA/LMN, *Concept Book : Seattle Public Library Proposal*, OMA/LMN, Dec. 1999
- Rattenbury, Kester, "Naturally biased : Architecture in the UK national press," *This is Not Architecture : Media Constructions*, Ed. Kester Rattenbury, London & New York : Routledge, 2002, 136-156
- Santamaría, Gerardo Del Cerro, *Bilbao : Basque Pathways to Globalization*, Amsterdam & Boston : Elsevier, 2007
- Sennett, Richard, 『장인』, 김홍식 역, 파주 : 북이십일, 2010
- Smith, Michael Peter, 『초국적 도시이론』, 남영호 외 역, 서울:한울, 2010.
- Söderström, Ola, "Forms and Flows in the Contemporary Transformations of Palermo's City Center," *Re-shaping Cities : How global mobility transforms architecture and urban form*, Ed. Michael Guggenheim & Ola Söderström, London & New York : Routledge, 2010
- Stephens, Suzanne and Ian Luna and Ron Broadhurst, *Imagining Ground Zero: The Official and Unofficial Proposals for the World Trade Center Site*, Rizzoli, 2004
- Thompson, John B., *The Media and Modernity : A Social Theory of the Media*, Stanford, CA :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5
- , 『미디어와 현대성』, 강재호 외 역, 서울 : 이음, 2010 (위 책의 번역본)
- Vidler, Anthony, Redefining the Public Realm, *Hunch : the Berlage Institute Report No. 6/7*, Rotterdam : Episode, 2003

## 학술지 및 연속간행물

건축문화 2007.09

- 고길섭, "사회운동의 새로운 가로지르기 : 공공영역과 공공성의 정치," 『문화 과학』, 23 (2000) : 32-60
- 김원, "건축비평의 보편적 당위," 『공간』, 10 (1967)
- 김승범, "케네스 프랭틴의 비판적 지역주의가 지니는 한계점과 현대적 의의,"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7(8) (2011) : 217-224
- 김희원, "황우석 사태, 그후 1년," 『신문과 방송』, 431 (2006) : 122-125
- 김희춘,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국제경쟁 현상설계," 『대한건축학회』 30(6) (1986) : 9-13
- 박재영 외, "황우석 사건의 교훈," 『한국언론학보』, 52(2) (2008) : 226-253
- 박재창, "담론 민주주의와 시민참여 : 21세기 마을회의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7(1) (2009) : 57-98
- 임의영, "공공성의 개념, 위기, 활성화 조건," 『정부학 연구』, 9(1) (2003) : 23-50
- 전규찬, "신화의 선전에 의한 합리적 소통의 억압," 『쟁점과 진단』, 2월호 (2006) : 1-23
- 최인기, "동대문 운동장 공원과 사업과 사회적 합의," 진보평론, 35 (2008) : 158-168
- 한선희, "건축 : 미디어는 메시지다," 『건축과 사회』, 20 (2010) : 28-36
- Architectural Record*, 190(8), (2002)
- Architectural Record*, 191(2), (2003)
- Architectural Record*, 199(9), (2011)

- Cuff, Dana, "The Political Paradoxes of Practice : Political Economy of Local and Global Architecture," *Practice*, 3(1) (1999)
- Frampton, Kenneth, "Rappel à l'Ordre : The Case for the Tectonic," *Architectural Design*, 60(3/4) (1990) : 19-25  
*GA Documents*, 80 (2004)
- Harvey, David, "공간에서 장소로, 다시 반대로 : 포스트 모더니티에 대한 성찰," 박영민 역, 『공간과 사회』 5 (1995) : 32-71
- Hajer, Maarten A., "Rebuilding Ground Zero. The Politics of Performance," *Planning Theory & Practice*, 6(4) (2005) : 445-464
- Latour, Bruno, "The Ghost of the Public," *Domus*, 873 September (2004) : 56-57
- Levitt, Theodore, "The Globalization of Markets," *Harvard Business Review* 61(03) (1983) : 92-102
- Mattern, Shannon, "Just How Public Is the Seattle Public Library? : Publicity, Posturing, and Politics in Public Design," *Journal of Architectural Education*, 57(1) (2003) : 5-18
- Olson, Sheri, "As Construction Continues to Boom in Seattle, a Mayor and a Mogul Are Shaping the Future Look of the City," *Architectural Record*, 187(1) (1999) : 37-41
- Olson, Sheri, "How Seattle Learned to Stop Worrying and Love Rem Koolhaas' Plan for a New Central Library," *Architectural Record*, 188(8) (2000) : 121-125
- Polletta, Francesca, "The Big Idea : Citizen Planners," *City Limits*, Nov 15 (2003)
- Stadler, Matthew, "An Artificial Heart," *Nest*, 24 (2004) : 121-130
- Steen, Karen E., "The Making of a Library," *Metropolis*, (2004) : 97-115

## 학위논문

- 황진태, "지역성장연함과 스케일의 정치가 세계도시 서울의 형성과정에 미친 영향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 파크 프로젝트를 사례로," 서울대학교 교육학석사학위논문, 2010
- Mattern, Shannon, *Building Ideologies : A Case Study of the Seattle Public Library Building and Its Embodied Ideas, Ideals and Value*, Diss. NYU, Ann Arbor : UMI, 2002
- Seligmann, Ari D., *Architectural Publicity in the Age of Globalization*, Diss. UCLA, 2008, Ann Arbor : UMI, 2008
- Wilson, Carrie Rose, *The Edification of the Citizen : The Relationship between Architecture, Political Representation and the Making of the Public Realm*, Diss. The University of Michigan, 2003, Ann Arbor : UMI, 2003

## 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2007
- 서울특별시, 『시정운영 4개년 계획(2006~2010)』, 서울특별시, 2007
- Coleman, Stephen, *Direct Representation: Towards a Conversational Democracy*, Th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UK., 2005
- Imagine New York, *The People's Visions : summary report*, ImagineNY, 10 Jun, 2002
- , *Toward the People's Memorial : Summary Report*, The Municipal Art Society, 2003
- Listening to the City : Report of Proceedings*, Civic Alliance, 2002,02
- Listening to the City : Report of Proceedings*, Civic Alliance, 2002,09
- Policy Statement, *Labor Community Advocacy Network to rebuild New York*, 24 Apr. 2002  
[http://www.gothamgazette.com/rebuilding\\_nyc/features/lcan-report.pdf](http://www.gothamgazette.com/rebuilding_nyc/features/lcan-report.pdf) 참고, 2011.11.12 접속
- Rosegrant, Susan, "Listening to the City : Rebuilding at New York's World Trade Center Site,"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Case Program*, 2003

## 미디어 보도

“결론단계에 들어선 부여박물관건축양식,” 동아일보, 1967.09.14 : 5면

“일본감각 없지 않다,” 동아일보, 1967.09.16 : 7면

“오세훈 시장 “세계 도시로 만들겠다,” SBS 뉴스, 2006.7.3.

Hoyle, Ben, "Frank Gehry: the Bilbao Effect is bullsuit," *Times Online*, 9 Jul. 2008

## 웹사이트

### 시애틀공공도서관 관련

시애틀공공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spl.org/prebuilt/lfa/capplan/libforall/cp98prop.html>

시애틀 주정부 디자인위원회 [http://www.seattle.gov/dpd/planning/design\\_commission/overview/](http://www.seattle.gov/dpd/planning/design_commission/overview/)

위키피디아 시애틀 관련 정보 [http://en.wikipedia.org/wiki/Seattle%E2%80%93Tacoma\\_International\\_Airport](http://en.wikipedia.org/wiki/Seattle%E2%80%93Tacoma_International_Airport)

위키피디아 시애틀 관련 정보 <http://en.wikipedia.org/wiki/Seattle>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관련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http://ddp.seoul.go.kr/>

동대문지역발전협의회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kac365/> , 2012.06.30 접속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korea/introduce/foundation.jsp?mc=NS\\_05\\_02\\_03](http://www.cha.go.kr/korea/introduce/foundation.jsp?mc=NS_05_02_03)

문화연대 홈페이지 중 정관. <http://www.culturalaction.org/> , 2012.06.30 접속

서울디자인재단 <http://www.seouldesign.or.kr/info2/info.jsp>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보도자료) <http://www.seoul.go.kr>

서울특별시 시장실 <http://mayor.seoul.go.kr/archives/4957>

정보공개 청구 자료 <http://www.open.go.kr>

### 그라운드제로 관련

뉴욕뉴저지 항만청 <http://www.panynj.gov/>

뉴욕시예술협회 <http://mas.org/aboutmas/history/>

뉴욕시 ULURP 규정 <http://www.nyc.gov/html/dcp/pdf/luproc/lur.pdf>

실버스타인 자산 <http://www.silversteinproperties.com/>

아메리카스피크스 <http://americaspeaks.org/>

엠페이스스테이트개발 <http://www.esd.ny.gov>

추모공원 <http://www.911memorial.org/>

추모공원 공모전 <http://www.wtcsitememorial.org/>

추모공원 공사비 절감안 보고서

[http://graphics8.nytimes.com/packages/pdf/nyregion/FRANK\\_SCIAME\\_Draft\\_Rec\\_Analysis.pdf](http://graphics8.nytimes.com/packages/pdf/nyregion/FRANK_SCIAME_Draft_Rec_Analysis.pdf) 2012.04.25 접속

LMDC <http://www.renewnyc.com>

NY1 TV <http://www.ny1.com/content/26607/detailed-views-of-the-nine-wtc-site-proposals>

### 기타

카인즈 신문기사 검색 <http://www.mediagaon.or.kr/jsp/search/SearchKindsMain.jsp>

도시 세계화 지수

<http://www.atkearney.com/index.php/Publications/2012-global-cities-index-and-emerging-cities-outlook.html>



## 연결망 분석 관련

김용학, 『사회 연결망 분석』, 서울 : 박영사, 2007, p.2

박한우, “대선 예비후보자 관련 신문기사의 네트워크 분석과 홍보전략,” 『한국정당학회보』, 6(1) (2007) : 79-107

Leydesdorff, Loet, and Hellsten, Iina, "Metaphors and Diaphors in Science Communication: Mapping the Case of Stem Cell Research," *Science Communication*, 27(1) (2005) : 64-99

Leydesdorff, Loet, "Betweenness Centrality as an Indicator of the Interdisciplinarity of Scientific Journal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8(9) (2007): 1303-1319

Ucinet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http://www.analytictech.com/ucinet/>

KrKwic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http://www.leydesdorff.net/krkwic/>

FullText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http://www.leydesdorff.net/software.htm>

## 그 밖의 자료

문화재청 보도자료,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건립부지내 지도위원회,” 문화재청, 2008.09.10

정재은 감독, 『말하는 건축가』, (주)두타연, 2011

Seattle Design Commission, *Mnutes of the Meeting*, 21 Mar. 2002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The Dongdaemun World Design Park and Complex : Design Guidelines*, 서울특별시, 2007

## 시애틀공공도서관 관련 신문기사(날짜순으로 기재)

J. Martin Mcomber, "Gates Gives Library \$20 Million - Donation Is Largest To Seattle Public System," *The Seattle Times*, 24 Nov. 1998

J. Martin Mcomber, "Two Firms Withdraw Bid To Design Library," *The Seattle Times*, 6 May 1999

"Cool With Koolhaas," *The Seattle Times*, 28 May 1999

O. Casey Corr, "The Hiring Of Rem Koolhaas And The Shock Of The Shoes," *The Seattle Times*, 16 Jun. 1999

J. Martin Mcomber, "Downtown Library To Get Branch Money," *The Seattle Times*, 9 Nov. 1999

"Urban Design/ Seattle's Downtown Library - Into A Bold, New Age," *The Seattle Times*, 16 Dec. 1999

Robin Updike, "New Library Design Goes Beyond Books - Planner: Ethereal Project Redefines Function," *The Seattle Times*, 16 Dec. 1999

Susan Nielsen, "Shhhh, My Little Parakeets, The Library Has No Clothes," *The Seattle Times*, 23 Dec. 1999

Ruth Shipp-Dart, "New Library: Library To Be Another Building That Values Ego Over Substance," *The Seattle Times*, 5 Jan. 2000

Susan Nielsen, "Library lovers speak out: Rem, we just want to help," *The Seattle Times*, 13 Jan. 2000

Suzanne Hittman, "Letters To The Editor : Seattle Public Library," *The Seattle Times*, 19 Jan. 2000

Charlie Cuniff, "Letters To The Editor : Seattle Public Library," *The Seattle Times*, 19 Jan. 2000

Jean Boucher, "Letters To The Editor : Seattle Public Library -- Koolhaas' design is bold,competes on global scale," *The Seattle Times*, 23 Jan. 2000

William Whitman, "Letters To The Editor : Public library -- Koolhaas design will bury Seattle's common sense," *The Seattle Times*, 30 Jan. 2000

Matthew Stadler, "Koolhaas, library design deserve kudos," *The Seattle Times*, 8 Feb. 2000

O. Casey Corr, "There's a lot of Northwest in the hip' library design," *The Seattle Times*, 5 Apr. 2000

O. Casey Corr, "Looking for Rem," *The Seattle Times*, 9 Apr. 2000

Beth Kaiman, "Koolhaas fans check out refined plans for library," *The Seattle Times*, 4 May 2000

David Sucher, "There is still time to fix the library," *The Seattle Times*, 23 Jul. 2000

Beth Kaiman, "Public gets its chance to check out spiral," *The Seattle Times*, 18 Sept. 2000

Sheri Olson, "ARCHITECT'S CHANGES LEAVE BASIC DESIGN INTACT," *Seattle Post-Intelligencer*, 5 May 2001

N. Ouroussoff, "this is not your mother's library," *Los Angeles Times*, 23 Jul. 2003

위의 주요한 22건 기사들 외에도 54건의 Seattle Public Library 관련 기사를 참고함

## 동대문디자인플라자관련 신문기사(날짜순으로 기재)

- 이정애, “동대문운동장 ‘폐선메카’ 쟁걸음”, 한겨레, 2006.10.19, 14면
- 강혜승, “동대문운동장 폐선메카로”, 서울신문, 2006.10.19, 10면
- 정성호, “영국 여류건축가 하디드의 ‘환유의 풍경’ 당선.” 한겨레, 2007.8.13
- 이현재, “동대문운동장 터에 물결무늬 랜드마크.” 동아일보, 2007.8.13, 14면
- 최홍렬, “동대문운동장 터에 ‘물결모양’ 건물.” 조선일보, 2007.8.14, A14면
- 김기범, “동대문운동장의 재탄생-공원화 설계에 영건축가 선정.” 경향신문, 2007.8.14, 13면
- 김란기, “왜냐면/반론- ‘동대문운동장 철거 논쟁을 보며 ‘서울 공간재편’ 담론을 던진 적 있다.” 한겨레, 2007.11.06
- 김미리, “내 건축은 실용적… 영감을 의존하진 않아”, 이라크 출신 건축가 자하 하디드 런던 현지 인터뷰,” 조선일보, 2007.11.06, A27면
- 김미리, “이라크 출신 건축가 자하 하디드 런던 현지 인터뷰,” 조선일보, 2007.11.16, A27면
- 진종휘, “문화재청도 ‘동대문운동장 철거’ 동의.” 한겨레, 2007.12.16
- 문승국, “[독자 칼럼]경성운동장, 동대문운동장,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조선일보, 2007.12.19
- 곽수근, “다시 태어날 동대문운동장… 성곽 일부도 복원.” 조선일보, 2007.12.31, A15면
- 차학봉, “명품 도시, 짝퉁 도시.” 조선일보, 2008.02.05, A30면
- 이정훈, “동대문 풍물시장 철거중 ‘충돌’.” 한겨레, 2008.04.17, 10면
- 황태훈, “[스포츠 산책] 메이지 진구-동대문 구장의 ‘생과 사’.” 동아일보, 2008.05.09, 29면
- 정지섭, “동대문 축구장, 그동안 수고했어.” 조선일보, 2008.05.14, A14면
- “철거 동대문 야구장서 조선시대 건물 흔적 발견.” 경향신문, 2008.05.18
- 유석재, “옛 동대문 야구장에서 조선시대 유적 나와 17~18세기 건물 흔적.” 조선일보, 2008.05.19, A22면
- 김규원, 이정훈, “새 청사 짓겠다고 문화재 헐어버린 서울시.” 한겨레, 2008.08.27, 13면
- 최선유, “값싸고 신기한 물건 많은데 손님은 왜 없죠?,” 중앙일보, 2008.05.29
- 노형석, “‘운동장 밑 조선유적을 지켜라’.” 한겨레, 2008.11.27, 17면
- 한승주, “서울성곽서 치성(방어용 시설) 첫 확인.” 국민일보, 2008.12.18, 9면
- 심혜리, “외국인 설계 매달리다...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설계비 늘고 착공 지연.” 경향신문, 2008.12.19, 16면
- 김진명, “디자인 서울 건설의 주역\_동대문 디자인플라자&파크 설계자 자하 하디드.” 조선일보, 2009.04.29, A27면
- 손정미, “한국에 온 세계적 건축가 자하 하디드 ‘살아있는 곡선으로 새로운 우주 창조’.” 조선일보, 2009.05.05, A16면
- 이대희, “‘시장마음대로’ 서울, 삽질은 계속된다.” 프레시안, 2009.05.15
- 송채경화, 김경욱, “서울시, 동대문운동장 터에 역사문화공원 조성 /집터·가마터 등 옮겨 보존 ‘역사훼손’ 논란” 한겨레, 2009.06.19, 12면
- 이태무, “동대문운동장 아래 문헌된 역사 ‘부활’.” 한국일보, 2009.06.19, 15면
- 변희원, “문화재 잇따라 발굴…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改名추진.” 조선일보, 2009.06.25
- 김종탁, “다이제스트/ 역사·건축·철학을 ‘사유’ 하며 파리를 걷다.” 문화일보, 2009.09.19, 12면
- 김미리, “잠실은 지금 ‘서울디자인올림픽’.” 조선일보, 2009.10.16, A22면
- 심혜리, “〈디자인 행적, 왜 이래!〉 (3)역사·문화자원 파괴.” 경향신문, 2009.10.17, 13면
- 이은주, “동대문역사문화공원 27일 부분 개장.” 서울신문, 2009.10.27, 27면
- 윤재석, “디자인보다 내러티브를.” 국민일보, 2010.04.01, 26면
- 김하나,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한명숙 민주당 후보”, 헤럴드경제, 2010.05.18
- 김경택, “‘시의회 반대해도 행복타운 등 계속 추진’ 오세훈 시장 밝혀.” 국민일보, 2010.12.22, 10면
- “[경제]동대문디자인플라자 3D 입체설계.” 경향신문, 2011.04.19, 55면
- 민진우, “왜냐면/영동한 데 쓰이는 우리들의 세금.” 한겨레, 2011.04.30, 25면
- 엄지원, “중부권 물폭탄/ ‘디자인 서울’ 오세훈 시장 책임론 “우리가 등등 떠내려가게 생겼다.” 한겨레, 2011.07.29, 03면
- 이위재, “[기자수첩] 서울 폭우 받아낼 시설 만드는데 10兆… 세금은 이런 데 써야.” 조선일보, 2011.07.30, A4면
- “오세훈 시장 “주민 투표율 33.3% 미달하면 시장직 사퇴”.” 경향신문, 2011.08.21
- 김종철,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 나경원 “서울 브랜드 가치 더욱 높여야” 박원순 “한강사업 투자비 시민에 써야.” 한겨레, 2011.10.12, 06면
- 권혁철, “[서울시 이렇게 바꾸자] ① 토건에서 복지/ 청계천·한강 번지르르해질 동안… 노인시설 확장일은 돈 없어 못고쳐.” 한겨레, 2011.10.14, 01면
- 한경진, “복지 예산(전체 26% 차지)은 6000억원 증가… 한 명당 세금은 122만원.” 조선일보, 2011.11.11, A16면
- 류호성, “서울시 2012 예산 복지부문 대폭 확충/ 오세훈 사업 보류… 보육·주거 등 중점.” 한국일보, 2011.11.11, 08면
- “미 컬럼비아대 미술사학과 교수 존 라이크만 “도시 디자인, 뭘 보존할까가 중요.” 경향신문, 2011.11.16, 04면
- 류호성,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복합 문화시설로 바뀐다.” 한국일보, 2011.11.24, 16면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시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바뀐다.” 한국경제, 2012.06.27, 28면
- 유길용, “동대문 저 건물 정체가 뭐지?” 중앙일보, 2012.7.10

위의 주요한 49건 기사들 외에도 401건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관련 기사를 참고함

## 그라운드제로 관련 신문기사(날짜순으로 기재)

### 2001

JOHN TIERNEY, "The Big City; Restore the Skyline, but Do It the New York Way," *New York Times*, 14 Sept. 2001 :11  
TERRY PRISTIN, "A NATION CHALLENGED: REPORTER'S NOTEBOOK; A Vow to Rebuild," *New York Times*, 18 Sept. 2001 :8  
ERIC LIPTON, "A NATION CHALLENGED: TURF BATTLES; Conflicting Visions of How to Rebuild Lower Manhattan," *New York Times*, 21 Sept. 2001 :1  
ALESSANDRA STANLEY, "A NATION CHALLENGED: THE REAL ESTATE; Trade Center Leaseholder Pledges to Rebuild," *New York Times*, 5 Oct. 2001 :1  
"Rebuilding Downtown New York," *New York Times*, 20 Oct. 2001 :22  
DINITIA SMITH, "Hallowed Ground Zero; Competing Plans Hope to Shape a Trade Center Memorial," *New York Times*, 25 Oct. 2001 :1  
"Developer Briefs Bloomberg On Plans to Rebuild Towers," *New York Times*, 22 Nov. 2001 :3  
EDWARD WYATT, "A NATION CHALLENGED: REBUILDING; Committee Leader Says Victims' Memorial Will Be Main Priority," *New York Times*, 30 Nov. 2001 :8  
DIANE CARDWELL, "IN FINAL ADDRESS, GIULIANI ENVISIONS SOARING MEMORIAL," *New York Times*, 28 Dec. 2001 :1

### 2002

EDWARD WYATT, "Bloomberg Vision For Ground Zero: Memorial and More," *New York Times*, 4 Jan. 2002 :1  
AMY GOLDWASSER, "CURRENTS: ARCHITECTURE; Optimistic Visions For Trade Center Site," *New York Times*, 10 Jan. 2002 :3  
EDWARD WYATT, "GROUND ZERO: THE PROPOSALS; Everyone Weighs In With Rebuilding Ideas," *New York Times*, 12 Jan. 2002 :3  
EDWARD WYATT, "GROUND ZERO: THE PROPOSALS; Everyone Weighs In With Rebuilding Ideas," *New York Times*, 12 Jan. 2002 :3  
EDWARD WYATT, "GROUND ZERO: PLANNING; Many Voices, but Little Dialogue On Memorial for Trade Center Site," *New York Times*, 26 Jan. 2002 :1  
EDWARD WYATT, "Bloomberg and Pataki Say Rebuilding of Downtown Should Wait for Overall Plan," *New York Times*, 27 Feb. 2002 :4  
DAN BARRY, "A NATION CHALLENGED: MEMORIALS; Minutes of Silence and Shafts of Light Recall New York's Dark Day," *New York Times*, 12 Mar. 2002 :1  
EDWARD WYATT, "Blueprint for Ground Zero Begins to Take Shape," *New York Times*, 4 May 2002 :1  
EDWARD WYATT, "At Hearing, A Resolve To Rebuild Twin Towers," *New York Times*, 26 May 2002 :33  
EDWARD WYATT, "Redevelopment Goes Public: Workshops Produce Ideas," *New York Times*, 9 Jun. 2002 :41  
EDWARD WYATT, "Pataki's Surprising Limit On Ground Zero Design," *New York Times*, 2 Jul. 2002 :1  
CHARLES V. BAGLI, "6 Plans for Ground Zero Share Striking Similarities," *New York Times*, 11 Jul. 2002 :1  
EDWARD WYATT, "Memorial Park Plays Large Part In Preliminary Trade Center Plans," *New York Times*, 16 Jul. 2002 :1  
EDWARD WYATT, "VISIONS OF GROUND ZERO: THE OVERVIEW; Six Plans for Ground Zero, All Seen as a Starting Point," *New York Times*, 17 Jul. 2002 :1  
CHARLES V. BAGLI, "VISIONS OF GROUND ZERO: NEWS ANALYSIS; Commercial Space Mix Could Affect Revenues And Pace for Recovery," *New York Times*, 17 Jul. 2002 :7  
EDWARD WYATT, "A Forum on Rebuilding Lower Manhattan," *New York Times*, 20 Jul. 2002 :4  
"VISIONS OF GROUND ZERO: VOICES; Proposals for Downtown Draw Array of Opinions," *New York Times*, 21 Jul. 2002 :30  
EDWARD WYATT, CHARLES V. BAGLI, "VISIONS OF GROUND ZERO: THE PUBLIC; OFFICIALS RETHINK BUILDING PROPOSAL FOR GROUND ZERO," *New York Times*, 21 Jul. 2002 :1  
EDWARD WYATT, "Further Designs Are Sought In Rebuilding of Downtown," *New York Times*, 15 Aug. 2002 :1

### 2003

EDWARD WYATT, "In Public Input, a Hint Of Rebuilding Fatigue," *New York Times*, 15 Jan. 2003 :4  
EDWARD WYATT, "Three Designs for Ground Zero Emerge as Favorites," *New York Times*, 17 Jan. 2003 :1  
CHARLES BOXENBAUM, "Ground Zero: Where's the Vision?," *New York Times*, 20 Jan. 2003  
EDWARD WYATT, "Trade Center Leaseholder Says Officials Are Ignoring His Right to Rebuild as He Wants," *New York Times*, 1 Feb. 2003 :3  
EDWARD WYATT, "Two Finalists Are Selected For the Void at Ground Zero," *New York Times*, 5 Feb. 2003 :1  
EDWARD WYATT, "REBUILDING AT GROUND ZERO: OVERVIEW; PRACTICAL ISSUES FOR GROUND ZERO," *New York Times*, 28 Feb. 2003 :1  
EDWARD WYATT, "Libeskind to Oversee Most of Trade Center Development," *New York Times*, 21 Mar. 2003 :3  
EDWARD WYATT, "Panel, Not Public, Will Pick Final 9/11 Memorial Design," *New York Times*, 9 Apr. 2003 :3  
"Planning the 9/11 Memorial," *New York Times*, 11 Apr. 2003 :24  
EDWARD WYATT, "In 9/11 Design, Rules Are Set To Be Broken," *New York Times*, 29 Apr. 2003 :1  
EDWARD WYATT, "Memorial Jury to Decide How to List 9/11 Rescuers," *New York Times*, 31 May 2003 :3  
EDWARD WYATT, "Architect and Developer Clash Over Plans for Trade Center Site," *New York Times*, 15 Jul. 2003 :1  
EDWARD WYATT, "Officials Reach An Agreement On Rebuilding Downtown Site," *New York Times*, 16 Jul. 2003 :1  
EDWARD WYATT, "Trade Center Arguments Fade, And a Single Vision Is Emerging," *New York Times*, 1 Aug. 2003 :1  
DAVID W. DUNLAP, "Master Plan for New Trade Center Gets Down to the Finest Detail," *New York Times*, 8 Nov. 2003 :1  
DAVID W. DUNLAP, "Jury Wants All 5,201 Plans For 9/11 Memorial Shown," *New York Times*, 14 Nov. 2003 :7  
ALAN FEUER, "On Memorial, Criticism Outstrips Praise," *New York Times*, 23 Nov. 2003 :34

MICHAEL KIMMELMAN, "ARCHITECTURE; Ground Zero's Only Hope: Elitism," *New York Times*, 7 Dec, 2003 :1  
DAVID W. DUNLAP, "Plans Reveal World's Tallest Tower, But Only 70 Stories Will Be Inhabited," *New York Times*, 10 Dec, 2003 :1

## 2004

DAVID W. DUNLAP, "Revised Ground Zero Memorial Will Include an Artifact Center," *New York Times*, 14 Jan, 2004 :1  
DAVID DUNLAP, "In Depths of Ground Zero, Historic Notice Can't Wait," *New York Times*, 8 Feb, 2004 :27  
DAVID W. DUNLAP, "24 Are Appointed to Set Details of Museum at Ground Zero," *New York Times*, 9 Apr, 2004 :4  
DAVID W. DUNLAP, "Architectural Team Is Chosen For Trade Center Memorial," *New York Times*, 14 Apr, 2004 :4  
DAVID W. DUNLAP, "How a Verdict Could Change The Future Of Downtown," *New York Times*, 1 May 2004 :1  
Mary L. Clark, "A Fresh Start at Ground Zero," *New York Times*, 5 May 2004 :27  
"Culture in Lower Manhattan," *New York Times*, 27 May 2004 :28  
ROBIN POGREBIN, "Arts Groups Call for Openness at Ground Zero," *New York Times*, 3 Jun, 2004 :1  
ROBIN POGREBIN, "ARCHITECTURE; The Incredible Shrinking Daniel Libeskind," *New York Times*, 20 Jun, 2004 :1  
DAVID W. DUNLAP, "Panel Is Picked To Raise Funds For Memorial," *New York Times*, 2 Dec, 2004 :1  
DAVID W. DUNLAP, "Developer at Ground Zero Has Twice the Capital, and Extra Clout," *New York Times*, 8 Dec, 2004 :1

## 2005

PATRICK D. HEALY, "SECURITY ISSUES FORCE A REVIEW AT GROUND ZERO," *New York Times*, 1 May 2005 :1  
NICOLAI OUROUSSOFF, "CRITIC'S NOTEBOOK; For Freedom Tower and Ground Zero, Disaster Reigns, and an Opportunity Awaits," *New York Times*, 2 May 2005 :1  
PATRICK D. HEALY, "Pataki and Bloomberg Endorse Changes in Ground Zero Tower," *New York Times*, 5 May 2005 :1  
JANON FISHER, "Relatives Protest Plan for Museum at 9/11 Memorial Site," *New York Times*, 21 Jun, 2005 :4  
PATRICK D. HEALY; Glenn Collins, Robin Pogrebin, "Pataki Warns Cultural Groups For Museum At Ground Zero," *New York Times*, 25 Jun, 2005 :1  
DAVID W. DUNLAP, "Drawing Center May Drop Plan to Move to Ground Zero," *New York Times*, 23 Jul, 2005 :3  
DAVID W. DUNLAP, "Approval Expected Today For Trade Center Rail Hub," *New York Times*, 28 Jul, 2005 :3  
DAVID W. DUNLAP, "GOVERNOR BARS FREEDOM CENTER AT GROUND ZERO," *New York Times*, 29 Sept, 2005 :1  
DAVID W. DUNLAP, "Redesign Puts Freedom Tower on a Fortified Base," *New York Times*, 30 Jun, 2005 :1  
DAVID W. DUNLAP, "Approval Expected Today For Trade Center Rail Hub," *New York Times*, 28 Jul, 2005 :3  
DAVID W. DUNLAP, "For Ground Zero Building, It's Back to Drawing Board," *New York Times*, 3 Oct, 2005 :2  
DAVID W. DUNLAP, "Mayor Calls for Mixed Uses In Ground Zero Development," *New York Times*, 25 Oct, 2005 :5  
David W. Dunlap, "BLOCKS; An Unclear Role for an Oversight Agency at Ground Zero," *New York Times*, 10 Nov, 2005 :3  
DAVID W. DUNLAP, "Ground Zero Memorial Cost Estimated at \$490 Million," *New York Times*, 23 Nov, 2005 :3  
CHARLES V. BAGLI, "Pataki Offers Liberty Bonds To Keep Tower on Schedule," *New York Times*, 15 Dec, 2005 :3

## 2006

CHARLES V. BAGLI, "5 Weeks Left For Decisions On Rebuilding," *New York Times*, 6 Feb, 2006 :1  
CHARLES V. BAGLI, "A Blueprint For Conflict At Ground Zero," *New York Times*, 19 Feb, 2006 :33  
ROBIN POGREBIN, "Exiled From Ground Zero, Arts Center Loses Leader," *New York Times*, 18 Mar, 2006 :1  
CHARLES V. BAGLI, "Master of Slow And Deliberate At Ground Zero," *New York Times*, 24 Mar, 2006 :1  
DAVID W. DUNLAP, "Critics Raise Concerns Over 9/11 Memorial Exits," *New York Times*, 29 Mar, 2006 :1  
CHARLES V. BAGLI; Sewell Chan, "Ground Zero Still in Limbo As Talks Fail," *New York Times*, 31 Mar, 2006 :1  
"A Ground Zero Summit," *New York Times*, 8 Apr, 2006 :12  
CHARLES V. BAGLI, "DEVELOPER TAKES A FINANCIAL DEAL FOR GROUND ZERO," *New York Times*, 26 Apr, 2006 :1  
CHARLES V. BAGLI, "MEMORIAL'S COST AT GROUND ZERO NEARS \$1 BILLION," *New York Times*, 5 May 2006 :1  
DAVID W. DUNLAP, "Trimming Down to a Less Costly Design at Ground Zero," *New York Times*, 6 May 2006 :5  
DAVID W. DUNLAP, "9/11 Group Suspends Fund-Raising For Memorial," *New York Times*, 9 May 2006 :6  
DAVID W. DUNLAP, "Ground Zero Staircase Is Put on List of Most Endangered Sites," *New York Times*, 11 May 2006 :2  
James E. Young, "A Last Chance for Ground Zero," *New York Times*, 18 May 2006 :29  
DAVID W. DUNLAP, "Memorial Chief Quits as Plans Grow Confusing," *New York Times*, 27 May 2006 :1  
DAVID W. DUNLAP, "Critics Raise Concerns Over 9/11 Memorial Exits," *New York Times*, 29 Mar, 2006 :1  
DAVID W. DUNLAP, "New Look At Memorial Lowers Cost," *New York Times*, 21 Jun, 2006 :1  
NICOLAI OUROUSSOFF, "CRITIC'S NOTEBOOK; The Ground Zero Memorial, Revised but Not Improved," *New York Times*, 22 Jun, 2006 :5  
"9/11 Memorial, Version 2.0," *New York Times*, 22 Jun, 2006 :24  
DAVID W. DUNLAP, "Pessimism Is Growing On Rebuilding Of 9/11 Site," *New York Times*, 8 Jul, 2006 :5

GLENN COLLINS, "Developer Pulls Out of Ground Zero Deal Despite Officials' Efforts," *New York Times*, 27 Jul, 2006 :1  
 DAVID W. DUNLAP, "BLOCKS: Deciding How to Arrange the Names of the 9/11 Fallen," *New York Times*, 17 Aug. 2006 :2  
 CHARLES V. BAGLI, "Amid Talk of Three Impressive Buildings, Silence on One Crucial Issue," *New York Times*, 8 Sept, 2006 :6  
 DEBORAH SONTAG, Clifford J. Levy, "The Hole in the City's Heart," *New York Times*, 11 Sept, 2006 :1  
 DAVID W. DUNLAP, "BLOCKS: No Home Yet for 9/11's 'Survivors' Stairway'," *New York Times*, 14 Sept, 2006 :2  
 CHARLES V. BAGLI, "An Agreement Is Formalized on Rebuilding at Ground Zero," *New York Times*, 22 Sept, 2006 :2  
 "Names on the Memorial," *New York Times*, 23 Sept, 2006 :10  
 DIANE CARDWELL, "Bloomberg Is Set to Take Reins Of 9/11 Memorial Foundation," *New York Times*, 4 Oct, 2006 :1  
 DAVID W. DUNLAP, "Plan Is Changed for Arranging Names on Trade Center Memorial," *New York Times*, 14 Dec, 2006 :3  
 PATRICK HEALY, "Spitzer Names Port Authority Head and Fills 11 Other Top Positions," *New York Times*, 16 Dec, 2006 : 2

## 2007–2009

DAVID W. DUNLAP, "Partial Demolition Planned For a Reminder of Sept. 11," *New York Times*, 19 Jan, 2007 :5  
 DAVID W. DUNLAP, "Spitzer May Try to Save Beloved Staircase at Ground Zero," *New York Times*, 11 Feb, 2007 :38  
 ROBIN POGREBIN, "Ground Zero Arts Center Won't Have Theater Company, Only Dance," *New York Times*, 28 Mar, 2007 :1  
 DIANE CARDWELL, "Bloomberg Outlines Plan to Rewrite City's Construction Codes," *New York Times*, 4 May 2007 :1  
 CHARLES V. BAGLI, "INSURERS AGREE TO PAY BILLIONS AT GROUND ZERO," *New York Times*, 24 May 2007 :1  
 DAVID W. DUNLAP, "Stairs to Remain Intact In Ground Zero Plan," *New York Times*, 6 Aug, 2007 :3  
 Glenn Collins, "Between Rock and the River, the Going Is Slow, and Costly," *New York Times*, 13 Jan, 2008 :25  
 Glenn Collins, "Work on Site at Trade Center Is Completed 48 Days Late," *New York Times*, 20 Feb, 2008 :2  
 DAVID W. DUNLAP, "Citing Budget, Port Authority May Trim Plans for Hub at Trade Center Site," *New York Times*, 16 Apr, 2008 :4  
 RAY RIVERA, "Port Authority May Help Financing of Tower," *New York Times*, 22 Mar, 2009 :26  
 "Freedom to Name That Tower," *New York Times*, 28 Mar, 2009 :20  
 CHARLES V. BAGLI, "As Finance Offices Empty, Developers Rethink Ground Zero," *New York Times*, 15 Apr, 2009 :19  
 CHARLES V. BAGLI, "Groups Seek to Stop Public Financing of New Towers at Ground Zero," *New York Times*, 20 May 2009 :24  
 CHARLES V. BAGLI, "Getting Trade Center Parties in a Room, if Not on the Same Page," *New York Times*, 21 May 2009 :32  
 CHARLES V. BAGLI, "Port Authority Is Blamed For Trade Center Delays," *New York Times*, 7 Jul, 2009 :18  
 RALPH BLUMENTHAL, "Muslim Prayers and Renewal Near Ground Zero," *New York Times*, 9 Dec, 2009 :1

## 2010–2012

CHARLES V. BAGLI, "Panel Sets a Deadline In Ground Zero Dispute," *New York Times*, 28 Jan, 2010 :24  
 CHARLES V. BAGLI, "Tentative Deal Is Reached For 2 Trade Center Towers," *New York Times*, 26 Mar, 2010 :20  
 JAVIER C. HERNANDEZ, "After Fiery Debate, Vote Endorses Muslim Center Near Ground Zero," *New York Times*, 26 May 2010 :23  
 SHERYL GAY STOLBERG, "Obama Backs Islam Center Near 9/11 Site," *New York Times*, 14 Aug, 2010 :1  
 SHERYL GAY STOLBERG, "Obama Says Mosque Upholds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New York Times*, 15 Aug, 2010 :1  
 ANNE BARNARD, "Governor Seeking Talks on New Site for Muslim Center," *New York Times*, 18 Aug, 2010 :19  
 CLYDE HABERMAN, "Ground Zero: Its Boundaries Are Elastic," *New York Times*, 24 Aug, 2010 :16  
 ANNE BARNARD, "Imam Says Moving Center Could Embolden Radicals," *New York Times*, 9 Sept, 2010 :26  
 HELENE COOPER, "Obama Tries to Calm Tensions In Call for Religious Tolerance," *New York Times*, 11 Sept, 2010 :1  
 ANNE BARNARD, "Imam Talks Compromise on Islamic Center, but Says Site Isn't on Hallowed Ground," *New York Times*, 14 Sept, 2010 :25  
 ANNE BARNARD, "Muslim Center's Developer To Use Islamic Loan Plan," *New York Times*, 30 Sept, 2010 :32  
 PAUL VITELLO, "Amid Rift, Imam's Role In Islam Center Is Sharply Cut," *New York Times*, 15 Jan, 2011 :17  
 LIZ ROBBINS, "By Sept. 11, Unit At Trade Center Will Be Policing," *New York Times*, 19 Jan, 2011 :18  
 PAUL VITELLO, "Newly Chosen Imam Quits Proposed Islamic Center," *New York Times*, 5 Feb, 2011 :14  
 ANNE BARNARD, "After Uproar, a New Tack To Build an Islamic Center," *New York Times*, 2 Aug, 2011 :21  
 CHARLES V. BAGLI, "Downtown's Rebirth, 10 Years and \$24 Billion Later," *New York Times*, 11 Sept, 2011 :4  
 CHARLES V. BAGLI, "Port Authority Called 'Dysfunctional' as Trade Center Costs Rise," *New York Times*, 8 Feb, 2012 :22

위의 주요한 135건 기사들 외에도 319건의 Ground Zero 관련 기사를 참고하였으며, 본문의 연결망 분석에는 위의 기사를 포함한 총 5,587건의 기사를 사용함

## 부록 : 연결망 분석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연결망 분석(network analysis) 방법론을 사용하여 신문기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것은 토론장과 작업장에서의 사건과 담론의 분포를 파악하는데 매우 용이하다. 여기에서는 연결망 분석 자체에 대한 것 보다는, 본 연구에 적용한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기로 한다.

### ■ 연결망 분석의 개요

연결망 분석은 구조나 연결망 형태의 특징을 도출하고, 관계성으로 체계의 특성을 설명하거나 체계를 구성하는 단위의 행위를 설명하는 것이다.<sup>1)</sup> 연결망 분석은 정책 결정, 도시 분석, 대인관계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데, 노드(node)가 되는 것은 사람, 도시, 사물 등 연구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된다. 특히 연결망 시각화의 방법은 전체적 경향을 파악하는 것과 더불어 의미 있는 이상치(outlier)를 발견해내기에 용이하다.

본 연구에서 도입하게 될 신문기사 분석처럼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연구 중에는, 텍스트에서의 단어들을 노드(node)로 설정하여 대량의 문헌 자료를 분석한 로트 레이데스도르프(Loet Leydesdorff)의 연구들이 있다.<sup>2)</sup> 그는 연결망 분석을 방법론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분석 방법론에서 쓰이는 척도의 유효성까지도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sup>3)</sup> 한 연구에서 그는 골수이식과 관련된 줄기세포라는 과학적 개념이 학술지, 특히 및 신문(뉴욕타임즈, 가디언)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각 연결망의 특성을 통해 세 개 영역(학술지-학계 / 특허-산업계 / 신문-대중담론)에서 과학적 지식이 어떠한 의미의 층위로 분화되어가면서 소통되는지를 밝혀냈다.<sup>4)</sup> 국내에도 관련 연구가 활성화 되어 있으며, 신문기사를 다룬 예로는 박한

1) 김용학, 『사회 연결망 분석』, 서울 : 박영사, 2007, p.2

2) 로트 레이데스도르프는 정보과학(information science)분야에서 100건 이상의 연구를 발표하고 있으며 한 건당 평균 10회가량 피인용되고 있다. 관련된 정보는 SCI, SSCI 및 A&HCI 에 등재된 연구문헌을 검색할 수 있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고

[http://apps.webofknowledge.com/summary.do?product=UA&search\\_mode=GeneralSearch&qid=2&SID=X24HMJAILLb3fPBp4JA&page=1&action=sort&sortBy=TC,D&showFirstPage=1](http://apps.webofknowledge.com/summary.do?product=UA&search_mode=GeneralSearch&qid=2&SID=X24HMJAILLb3fPBp4JA&page=1&action=sort&sortBy=TC,D&showFirstPage=1)

3) Leydesdorff, Loet, "Betweenness Centrality as an Indicator of the Interdisciplinarity of Scientific Journal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8(9) (2007): 1303-1319

4) Leydesdorff, Loet, and Hellsten, Iina, "Metaphors and Diaphors in Science Communication: Mapping the Case of Stem Cell Research," *Science Communication*, 27(1) (2005) : 64-99

우의 연구가 있다. 그는 대선 예비후보자였던 고건과 박근혜를 다룬 신문기사들을 분석하여 두 인물이 어떠한 단어들로 서술되는지 밝히고 그에 따른 홍보전략을 간략히 제시하였다.<sup>5)</sup>

## ■ 분석 방법론

본 연구에서의 신문기사에 대한 연결망 분석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연결망 분석에는 UCINET 6.381을, 시각화에는 UCINET과 함께 제공되는 패키지인 NetDraw 2.119를 사용하였다.<sup>6)</sup>

- ①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전체 기사들 중 등장 빈도가 높은 키워드들을 추출한다.
- ②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선정한 키워드들과 기사의 관계 행렬을 만든다.
- ③ 기사와 키워드들의 관계행렬을 키워드들 간의 상호 연관관계로 변환시킨 ‘공동 참여 연결망(affiliation network)’을 만든다.
- ④ 기사와 키워드들의 관계행렬을 키워드들 간의 유사성(similarity) 계산을 통해 유사성 연결망을 만든다.
- ⑤ 시각화의 방법을 사용하여 공동참여연결망과 유사성연결망을 분석한다.

각각의 항목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키워드 추출

키워드 추출에 있어서, 한글로 되어 있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영어로 되어 있는 시애틀공공도서관 및 그라운드제로에 다른 방법을 적용하였다.

한글의 경우 키워드 추출 소프트웨어인 KrKwic.exe 가 불완전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명사와 조사의 결합, 띄어쓰기 등의 문제로 인하여 같은 의미의 단어들이 누적되어 계산되지 않았으며, 한글 자체의 특성 상 같은 의미를 뜻하는 비슷한 표현들이 많은 탓에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영어의 경우는 frqlist.exe가 어느 정도 신뢰할만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므로 frqlist.exe를 이용하여 키워드를 추출하였다.<sup>7)</sup>

5) 박한우, “대선 예비후보자 관련 신문기사의 네트워크 분석과 홍보전략,” 『한국정당학회보』, 6(1) (2007) : 79-107

6) UCINET 은 연결망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수의 변환도구 및 분석도구를 제공하며 <http://www.analytictech.com/ucinet/> 에서 trial 버전을 다운받을 수 있다.

7) KrKwic은 박한우와 Loet Leydesdorff에 의해 공동 개발된 소프트웨어로, 영어권의 FullText 소프트웨어를 한국어 메시지 분석에 용이하도록 변형시킨 프로그램이다. 관련하여 총 3개의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한글 기사의 경우 1차적으로 KrKwic.ex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체 텍스트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을 찾아냈다. 그 후 다시 기사 전체를 읽어가면서 기사의 의미와 맥락을 파악하는데 유의미한 키워드를 추출해냈다. 키워드는 본문에 직접 등장하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하되, 맥락을 표현하는 개념어들도 새로 추가하여 키워드에 포함시켰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경우 추출해낸 단어는 총 99개로서, 다음과 같이 대략적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표 1] 신문기사에서 추출된 99개 키워드

분류	키워드
DDP 건물	미술관, 자하하디드, 여성, 명품건축, 스타건축가, 한국건축가, 실험, 예술, 도시브랜딩, 프리츠커, 패트릭 슈마허, 현상설계, 랜드마크, 장소성, 메가트러스, 녹지, 지형, 패널, BIM, 3차원기술, 비정형, 무장애, 친환경, 옥상공원, 미래, 물결무늬, 본질, 전통, 설계비 증액
풍물시장	상권 활성화, 풍물시장, 영세상인, 이전, 상인예절, 철거강행, 장사 안됨, 청계천,
동대문운동장	동대문운동장, 새 운동장 건립, 철거, 보존,
운동장 터에서 발굴된 유구	서울성곽, 역사문화공원, 치성&이간수문, 복원, 훼손, 역사, 기와 도로,
서울 디자인 정책	컨텐츠, 운영방안, 시민기증, 시민아이디어, 공공참여, 패션, 관광, 서울디자인수도, 디자인올림픽, 디자인교육, 디자인경쟁력, 디자인허브, 공공디자인, 디자인, 디자인재단, 디자인산업지원
예산과 정치 변동	빛, 예산, 홍보관, 시정 홍보, 서해벚길, 한강예술섬, 뉴타운, 도심복합축, 문화벨트, 녹지축, 수해, 무상급식, 오세훈, 박원순, 낭비, 한류공간, 보궐선거, 복지, 오세훈사퇴, 과잉홍보, 예산조정, 전시성 사업,
기타	빛공해, 피상적 아름다움, 도시의 내러티브, 가락시장, 비엔날레, 서울시 신청사, 기무사터 미술관, G20, 졸속행정

영어 기사의 경우 frqlist.exe를 이용하여 전체 기사에서 높은 빈도로 등장한 단어들을 나열한 뒤, 역시 기사를 읽어가면서 유의미한 키워드들을 추출해냈다. 단, 3.3.2장의 9가지 연결망 분석에서는 별도의 추출과정 없이 높은 빈도로 등장한 순서로하여 200개 전후의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 ② 기사와 키워드 사이의 관계 행렬 만들기

분석의 기본 자료가 되는 것은 각 기사에서 각각의 키워드들이 몇차례 등장하였는

KrKwic.exe는 텍스트의 단어 빈도수를 검출하여 내림차순으로 나열된 파일을 생성하는 프로그램이고, KrTitle.exe는 지정한 단어들이 단문 메시지에서 출현한 빈도를 검출하고 관계망을 만들며, KrText.exe는 장문의 텍스트들에서 지정한 단어들이 출현한 빈도를 검출해주고 관계망을 만든다. 관련 프로그램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고 <http://www.leydesdorff.net/krkwic/>

사용법 및 개략적 분석에 관한 것은 다음의 학술논문을 참고

박한우, Loet Leydesdorff, "한국어의 내용분석을 위한 KrKwic 프로그램의 이해와 적용 : Daum.net에서 제공된 지역혁신에 관한 뉴스를 대상으로,"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6(5) (2004) : 1377-1387

영어권의 FullText 소프트웨어는 <http://www.leydesdorff.net/software.htm> 에서 받을 수 있으며, frqlist.exe는 텍스트의 단어 빈도수를 검출하여 내림차순으로 나열된 파일을 생성하는 프로그램이고, ti.exe는 지정한 단어들이 단문 메시지에서 출현한 빈도를 검출하고 관계망을 만들며, fulltext.exe는 장문의 텍스트들에서 지정한 단어들이 출현한 빈도를 검출해주고 관계망을 만든다.



[표 2] 기사와 키워드간의 관계 행렬 예시

	미술관	자하하디드	여성	명품건축	스타건축가	한국건축가	실험	예술
2006-10-19	0	0	0	0	0	0	0	0
2007-08-14	0	1	0	0	0	0	0	0
2007-11-14	0	0	0	0	0	0	0	0
2007-11-16	1	1	1	0	0	0	1	1
2007-11-17	1	1	1	1	1	0	0	1
2007-12-31	0	1	0	0	0	0	0	0

지 계산된 관계 행렬이다. 이 행렬을 이용하여 공동참여연결망이나 유사성연결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글 기사의 경우 보다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기사를 탐독하여 관계 행렬을 만들었다.<sup>8)</sup> 우선, 가로축을 키워드, 세로축을 기사별 날짜로 한 (99 x 450) 크기의 행렬을 만든다.<sup>9)</sup> 각각의 기사에서 등장한 키워드들을 해당 항목에 ‘1’로 표시한다. 나머지는 0으로 채운다. 예를 들어 위의 표를 보면, 2007년 8월 14일의 기사에는 ‘자하하디드’가 관련 키워드로 등장했으며, 2007년 11월 17일의 기사에는 ‘미술관, 자하하디드, 여성, 명품건축, 스타건축가, 예술’이 키워드로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영어 기사의 경우 fulltext.exe를 이용하여, 추출한 단어들을 대상으로 기사와 키워드간의 관계행렬을 만들었다.

### ③ 공동참여연결망 만들기

전 단계에서 작성한 행렬을 바탕으로 키워드 간의 공동참여연결망(Affiliation

8) KrKwic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KrText 프로그램은 텍스트에서 지정한 단어들이 출현한 빈도를 검출하고 관계망을 만들어준다. 그러므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직접 읽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텍스트에 출현한 단어들의 빈도를 자동으로 검출해주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읽어서 단어들을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에 대한 가장 큰 두가지 이유는, 첫째 어떤 기사에서 특정 단어가 여러번 반복되더라도 한번만 계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며(KrText는 등장하는 빈도수를 모두 검출하여 관계망을 만든다. 그런데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경우 기사 별로 길이 차이가 컸는데, KrText를 이용할 경우 이 기사들의 영향력이 많은 영향을 끼쳐 유의미한 결과 도출이 어려웠다), 둘째 단어들을 기계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기사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이 ‘맥락’은 ‘전시성 사업’, ‘피상적 아름다움’ 등의 개념어로 만들어 키워드에 포함시켰다.

또한 KrText가 한글에 맞게 변형된 프로그램이라고는 하지만, 한글은 영어에 비하여 조사와의 결합, 어미 변화, 띄어쓰기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이를 모두 수용해내기 힘들다. 그리고 실제 구동 결과 전체적인 지도를 그려보는데는 문제가 없었으나 세밀한 분석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9) 분석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할 것이므로, 다른 언론사 간에 날짜가 겹쳐서 이름이 같은 행이 생기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Network)을 만든다.<sup>10)</sup> 공동참여연결망이란 두 키워드가 하나의 집합에서 동시에 등장하는 빈도를 합산하여 만드는 행렬이다. 예를 들어 ‘자하하디드’와 ‘여성’은 11월 16일에 하나의 기사에서 동시에 등장하고, 11월 17일에 다시 한 기사에서 동시에 등장했다. 즉, 총 2번 등장했으므로 해당 행렬의 값은 2가 된다. 한 기사에서 동시에 등장한다는 것은 두 키워드가 서로 관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따라서 이 행렬의 값이 크다는 것은 두 키워드간의 관계가 긴밀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위의 표를 바탕으로 작성한 키워드들간의 공동참여연결망은 다음과 같다.<sup>11)</sup>

[표 3] 키워드 간의 공동참여연결망 예시

	미술관	자하하디드	여성	명품건축	스타건축가	한국건축가	실험	예술
미술관	2	2	2	1	1	0	1	2
자하하디드	2	4	2	1	1	0	1	2
여성	2	2	2	1	1	0	1	2
명품건축	1	1	1	1	1	0	0	1
스타건축가	1	1	1	1	1	0	0	1
한국건축가	0	0	0	0	0	0	0	0
실험	1	1	1	0	0	0	1	1
예술	2	2	2	1	1	0	1	2

\* 위와 같은 공동참여연결망은 대각선을 중심으로 한 대칭 행렬이 되며, 대각선 값(천하게 '질한' 부분)은 자신과의 관계를 말하므로, 분석에서 의미 없는 값이다.

본 연구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분석에서는 ②번 단계에서 만든 (99 x 450)의 관계 행렬을 바탕으로 (99 x 99) 크기로 이루어진 키워드들 간의 공동참여연결망을 만들었다.

#### ④ 유사성 행렬 만들기

연결망 분석에서 의미 있게 다루는 또 다른 관계망은 유사성 행렬이다. 공동참여연결망이 단순하게 동시에 등장한 빈도를 합산한 값이라면, 유사성은 각기 다른 연구자들이 만들어 낸 공식에 의해 두 키워드 간의 연관정도를 계산하는 방식이다.<sup>12)</sup> 여기서는 피어슨(Pearson)의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유사성 행렬을 만든다.<sup>13)14)</sup>

10) UCINET 메뉴의 Data→Affiliations를 통해서 간단히 만들 수 있다. 대화창에서의 Method는 Cross-products 로 설정하였다.

11) 물론 기사들 간의 공동참여연결망을 만들 수도 있다. 이것은 각각의 기사 사이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쓰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들 간의 관계만 분석하기로 한다.

12) 주로 사용하는 것에는 Pearson의 corelation, Salton의 Cosine, Jaccard의 공식 등이 있다.

13) 피어슨 상관계수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r = \frac{\Sigma xy - \frac{\Sigma x \Sigma y}{N}}{(\Sigma x^2 - \frac{(\Sigma x)^2}{N})(\Sigma y^2 - \frac{(\Sigma y)^2}{N})}$$

r은 -1과 1사이의 값이며, 1의 값을 가진다면 한 키워드가 등장할 때 다른 키워드가 빠짐없이 모두 등장

[표 4] 키워드 간의 유사성행렬 예시

	미술관	자하하디드	여성	명품건축	스타건축가	한국건축가	실험	예술
미술관	1.00	0.50	1.00	0.63	0.63	0.00	0.63	1.00
자하하디드	0.50	1.00	0.50	0.32	0.32	0.00	0.32	0.50
여성	1.00	0.50	1.00	0.63	0.63	0.00	0.63	1.00
명품건축	0.63	0.32	0.63	1.00	1.00	0.00	-0.20	0.63
스타건축가	0.63	0.32	0.63	1.00	1.00	0.00	-0.20	0.63
한국건축가	0.00	0.00	0.00	0.00	0.00	1.00	0.00	0.00
실험	0.63	0.32	0.63	-0.20	-0.20	0.00	1.00	0.63
예술	1.00	0.50	1.00	0.63	0.63	0.00	0.63	1.00

\* 위와 같은 유사성 행렬은 '대각선을 중심으로 한 대칭 행렬이 되며, 대각선 값(진하게 칠한 부분)은 '자신과의 관계'를 말하므로 항상 1이 되고, 분석에서 의미 없는 값이다.

예를 들어 ‘미술관’ 과 ‘명품건축’ 간의 관계를 보면, [표 2]에서 5번은 일치하고(등장과 미등장 포함) 1번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식에 의해 상관계수는 0.63, 즉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험’ 과 ‘명품건축’ 은 각각 6번 중 1번씩 등장하지만 서로 겹치지 않는다. 즉, 반대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상관계수는 음수인 -0.20으로 나타났다.

공동참여연결망과 유사성 행렬의 큰 차이점은 등장 빈도에 관계없이 상관성만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스타건축가’ 와 ‘명품건축’ 은 공동참여연결망에서 단 1번 겹침을 알 수 있으나 상관계수는 1이라는 최대치로 나타났다. 즉, 등장할 때와 등장하지 않을 때가 모두 일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술관’ 과 ‘자하하디드’ 는 총 2회 겹치지만, 상관계수는 0.5다.

즉, 공동참여연결망에서는 전체 기사에서 높은 빈도로 등장하는 키워드들이 대체적으로 높은 값을 가질 가능성이 커지므로, NetDraw를 통하여 이를 시각화한다면 중심 부분에 높은 빈도로 출현한 키워드들이 배치된다. 그러나 유사성 행렬을 시각화한다면 상관성이 높은 키워드들끼리 군집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등장 빈도에 상관없이 어떠한 키워드들이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는지 알아보는데 유용하다.<sup>15)</sup> 자세한 것은 실제 분석에서 살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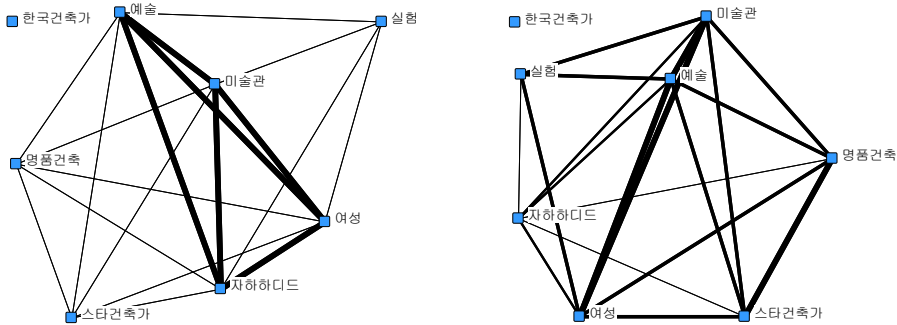
한 것을 말하고 -1의 값을 가진다면 한 키워드가 등장할 때 다른 키워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0의 값은 두 키워드 간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14) UCINET 메뉴의 Tool→Similarities 를 통해서 간단히 만들 수 있다. 대화창에서의 Measure of profile similarity는 피어슨 상관계수 방식을 이용하는 Correlation 로 설정하였다.

15) 등장빈도에 상관 없다는 것은 어떤 키워드들의 조합이 450개의 기사에서 단 1회 등장하여 겹치더라도 상관계수가 1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결과의 유효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샘플이기 때문에 오류일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잠재된 ‘가능성’ 을 내포하는 조합일 수도 있다. 이 ‘가능성’ 에 대한 것은 실제 분석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 ⑤ 시각화를 통한 분석

앞에서 만들어 낸 공동참여연결망과 유사성행렬은 정량화된 자료에 불과하므로 이 계량적 데이터들을 실제 의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을 위한 매개교췌 주로 NetDraw를 이용한 시각화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다음은 [표 3]과 [표 4]을 시각화한 것이다.



[그림 1] [표 3]과 [표 4]의 자료를 통해 만든 연결망의 시각화  
좌: 공동참여연결망, 우: 유사성 행렬

샘플의 수가 적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두드러지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지만, 공동참여 연결망에서 미술관, 예술, 여성, 자하하디드의 네 가지가 상호 강하게 관계 맺으며 전체 담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면, 유사성 행렬에서는 좌측에서는 보이지 않던 명품건축과 스타건축가와의 관계 등 국지적인 관계성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그림에서 선의 굵기로 표현됨)

시각화된 결과의 차이는 본문의 분석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ABSTRACT

### The Relationship Between Talkshop and Workshop in the Production Process of Public Buildings

Kim, Seung-bum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Architec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ised by Prof. Kim, Kwang-Hyun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reveal possibility of close interaction between public discourse and the work involved in constructing a building. A concurrent purpose is to investigate concrete phenomenon with and without interaction and to draw implications from the interaction. To begi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wo terminologies that will form the main framework of the study. One is *workshop*, which denotes the work area in which people create physical buildings. The other is *talkshop*, which refers to the discourse area in which people talk to each other about buildings and related matters.

The three cases used in this study are the Seattle Public Library, Dongdaemun Design Plaza, and 'Ground Zero' in New York City. They were selected due to their publicity and for several other reasons. The case studies examined what workshop triggers in the discourse of talkshop and how talkshop affects the work of workshop. As an ancillary method of analysis, this study used a network analysis of newspaper articles.

The primary issue pertaining to talkshop for the Seattle Public Library was how they designed the library building. The issue was expanded to the problems known of an 'alien starchitect', regionality, the environment of the reading area, the construction cost and donations. Talkshop and workshop met through workgroups, public presentations, mock-up displays, debate in the media, telephones, and emails. As a result, numerous issues on talkshop were fed into workshop, with the result being that the building design was changed in many parts.

The issues related to talkshop for the Dongdaemun Design Plaza centered on the preservation of the old stadium, the restoration of historical remains, and excess expenditures for municipal construction works, which had been successive primary issues as time passed. Although the workshop issues were similar with those on talkshop, the two areas proceeded without close interaction, except for the historical issue.

The talkshop issues for Ground Zero covered a wide range, from the physical matters such as the direction of the project, the master plan, the Memorial design and the preservation of a ruined stairway, to the social issues such as security, sacred ground, and religion. Talkshop and workshop met through large public meetings, protests, and detailed reports by the media. As a result, talkshop affected workshop in many areas, such as the types of institutions, the building arrangement, the size of the office floor area, design changes and related costs, and the location requirements of buildings outside the site.

Taken together, methods of interaction between talkshop and workshop included direct participation events such as workgroups, short-period discourse events such as workshops or public meetings, the opening of information and surveillance through the media, and intervention with collective action. In the process, specialists interpreted abstract ideas of talkshop, such as dignity or harmony, into the physical elements of a building.

During this process, each production space revealed differences from each other in their respective contexts, such as the status of the city in the global market, media coverage of the built environment, the publicity of the project, and the geographical condition of the site. However, at the same time under such conditions, the subjects of production, such as the ordering agencies, the architects and specialists, the media, and the public, all had important roles for overcoming the conditions and for leading the project to success.

Within each talkshop generated in the production space, the subjects of production settled any related conflicts by direct interaction in face-to-face meeting or by indirect interaction via the media. The public had diverse viewpoints about the building by exchanging their opinions regarding the building design. Meanwhile, the building would become a meaningful place for all people by being layered with social meaning projected by the people. In the process, democratic and concrete communication between talkshop and workshop can raise the 'publicness' of the entire world in which there are numerous buildings and people.

In order to realize all of this, talkshop has to be created first and then should be connected with workshop in the early stage of the process. However, it is not necessary for all the subjects to concur in their opinions or for all the ideas of talkshop to be fed into the work of workshop.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process itself, in which people can identify their differences of opinion regarding abstract discourse and an actual building and exchange their opinions and in this way learn from one another. What one has to keep in mind regarding the entire process is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each subject in talkshop, workshop, and the subject roles between the two as well.

---

Keywords : Seattle Public Library, Dongdaemun Design Plaza, Ground Zero, public discourse,  
public building, talkshop, workshop, production process

Student Number : 2003-30156